

2018.1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목 차

## 제1장 조사 개요 ..... 11

###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2. 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 ..... 12

### 제2절 조사 설계 ..... 16

- 1. 실태조사 개요 ..... 16
- 2. 모집단 정의 ..... 17
-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 21

### 제3절 조사 내용 ..... 25

- 1. 사업체 부문 ..... 25
- 2. 종사자 부문 ..... 26

### 제4절 자료 처리 방법 ..... 27

- 1. 데이터 검증 ..... 27
- 2. 무응답 대체(Imputation) ..... 27
- 3. 데이터 처리 방법 ..... 37

### 제5절 연구 수행 절차 ..... 38

- 1. 전체 수행 절차 ..... 38
- 2. 주요 절차별 진행 방식 ..... 39

### 제6절 사업체 및 종사자 응답특성표 ..... 40

- 1.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 40
- 2. 대중문화예술 제작업 ..... 41
- 3. 대중문화예술인 ..... 42
- 4.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43

## 제2장 결과 요약 ..... 47

### 제1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부문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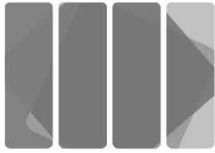
- 1.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 ..... 47
  - 1) 전체 ..... 47
  - 2) 분야별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 ..... 47
  - 3) 산업별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 ..... 52
- 2. 대중문화예술산업 세부 인력 현황 ..... 56
  -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 56
  - 2)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분야 ..... 64
- 3.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타 사항 ..... 68
  - 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 ..... 68
  - 2) 정부의 지원 사항 ..... 71

# 목 차

<b>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부문</b> .....	<b>73</b>
1. 대중문화예술인 .....	73
1) 대중문화예술활동 .....	73
2) 대중문화예술인 고용현황 .....	75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76
1) 대중문화예술 관련 직업 활동 .....	76
2)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	78
3) 경력관리 .....	78
<b>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b> .....	<b>79</b>
1. 대중문화예술인 .....	79
1) 응답자 구성 및 특징 .....	79
2) 주요 인터뷰 결과 .....	81
3) 주요 이슈 .....	86
4) 직군별 세부 내용 .....	87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97
1) 응답자 구성 및 특징 .....	97
2) 주요 인터뷰 결과 .....	99
3) 주요 이슈 .....	103
4) 직군별 세부 내용 .....	104
<b>제4절 향후 개선 방안</b> .....	<b>121</b>
1. 응답률 관리 .....	121
2. 데이터 신뢰성 확보 .....	122
3. 종사자 대상 심층적 조사 확대 .....	123
<b>제5절 정책적 제언</b> .....	<b>124</b>
<b>제3장 세부 결과</b> .....	<b>129</b>
<b>제1절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b> .....	<b>129</b>
1. 세부 인력 현황 .....	130
1) 대중문화예술인 현황 .....	130
2) 청소년 연예인(만 19세 미만) 현황 .....	138
3) 소속 연습생 현황 .....	150
4) 소속 직원 현황 .....	164
2. 사업 현황 .....	170
1) 활동 및 매출규모 .....	170
2) 해외 진출 현황 .....	181
3. 기타 사항 .....	186
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 .....	186
2) 정부의 지원 사항 .....	192
3) 기타 사항 .....	196

# 목 차

<b>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b>	<b>200</b>
1. 세부 인력 현황	201
1) 소속 직원 현황	201
2) 프리랜서 현황	204
3) 구인경로 및 신규 직원 채용 시 평가 요소	205
2. 사업 현황	214
1) 매출규모 및 제작 건수	214
2) 해외 진출 현황	223
3. 청소년 연예인 및 가입단체 현황	227
1) 청소년 연예인 관련	227
2) 가입된 협/단체	229
<b>제3절 대중문화예술인</b>	<b>230</b>
1. 대중문화예술 활동 사항	231
1)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	231
2) 대중문화예술 교육	235
3) 전업예술인 여부	248
4) 소득 현황	250
5)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254
2. 대중문화예술인 고용 및 4대 보험 가입현황	262
1) 고용현황	262
2) 4대 보험 가입현황	267
3. 기타 사항	271
1) 최근 3년 내 법적 분쟁	271
2)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사항	272
<b>제4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b>	<b>274</b>
1. 대중문화예술 관련 직업 활동	275
1) 직업 활동	275
2) 소득 현황	280
2. 고용환경 및 근로 환경	283
1) 고용현황	283
2) 근로환경	293
3. 경력 관리	307
1) 경력 관리	307
2) 직업 변경 의향	311
4.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	314
<b>부록1.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내용</b>	<b>319</b>
<b>부록2.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FGI 결과</b>	<b>442</b>
<b>부록3.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총 4종)</b>	<b>449</b>
<b>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b>	<b>484</b>



## 표 목 차

<표 1-1-1>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분류체계 .....	13
<표 1-1-2> 대중문화예술인 분류체계 .....	14
<표 1-1-3>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분류체계 .....	15
<표 1-2-1> 사업체 조사 개요 .....	16
<표 1-2-2> 종사자 조사 개요 .....	16
<표 1-2-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개요 .....	21
<표 1-2-4>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항목 - 예술인 분야 .....	22
<표 1-2-5>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항목 - 제작물스태프 분야 .....	22
<표 1-2-6> 대중문화예술인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성 .....	24
<표 1-2-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성 .....	24
<표 2-1-1>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매출규모 .....	47
<표 2-1-2>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	48
<표 2-1-3> 2015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	48
<표 2-1-4> 2014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	48
<표 2-1-5> (참고) 대형 기획사(상장 업체) 매출 현황 .....	49
<표 2-1-6>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 규모(분야별) .....	50
<표 2-1-7> 2015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규모(분야별) .....	50
<표 2-1-8> 2014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 규모(분야별) .....	51
<표 2-1-9> 매니지먼트 분야 매출 규모(산업별) .....	52
<표 2-1-10>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물 매출 규모(산업별) .....	53
<표 2-1-11> 2014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물 매출 규모(산업별) .....	53
<표 2-1-12> 영화제작 분야 매출 규모(산업별) .....	54
<표 2-1-13> 방송제작 분야 매출 규모-광고제외(산업별) .....	54
<표 2-1-14> 기타 영상물 제작 분야 매출 규모(산업별) .....	55
<표 2-1-15> 소속연예인 여부 .....	56
<표 2-1-16> 소속연예인 인력현황 .....	56
<표 2-1-17> 소속연예인 세부 인력현황 .....	57
<표 2-1-18>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된 구인 경로 .....	57
<표 2-1-19>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58
<표 2-1-20> 소속연습생 여부 .....	59
<표 2-1-21> 2016년 소속연습생 인력현황 .....	59
<표 2-1-22> 2014년 소속연습생 인력현황 .....	60
<표 2-1-23> 소속연습생 교육 사항(중복응답) .....	60
<표 2-1-24> 소속연습생 지출 비용: (1)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 .....	61
<표 2-1-25> 소속연습생 계약서 작성여부 .....	61
<표 2-1-26> 소속직원 인력현황 .....	62
<표 2-1-27> 2016년 기준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 .....	62
<표 2-1-28>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63
<표 2-1-29>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63
<표 2-1-30>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기획업 분야) .....	63
<표 2-1-31> 제작 분야 인력현황 .....	64

<표 2-1-32> 소속직원 인력현황 .....	64
<표 2-1-33>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65
<표 2-1-34>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65
<표 2-1-35>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65
<표 2-1-36>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1순위) .....	66
<표 2-1-37>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1순위) .....	66
<표 2-1-38> 프리랜서 인력현황 .....	67
<표 2-1-39>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	67
<표 2-1-40>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순위) .....	68
<표 2-1-41>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2순위, 중복응답) .....	68
<표 2-1-42>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순위) .....	69
<표 2-1-43>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2순위, 중복응답) .....	69
<표 2-1-44>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순위) .....	70
<표 2-1-45>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2순위, 중복응답) .....	70
<표 2-1-46>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순위) .....	71
<표 2-1-47>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	71
<표 2-1-48>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순위) .....	72
<표 2-1-49>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	72
<표 2-2-1> 해당 분야 총 활동 경력 .....	73
<표 2-2-2> 전업예술인 여부 .....	73
<표 2-2-3> 월평균 개인 소득 .....	74
<표 2-2-4> 월평균 개인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	74
<표 2-2-5> 해당 직무 총 경력 .....	76
<표 2-2-6>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참여 작품 수 .....	76
<표 2-2-7> 월평균 개인 소득 .....	77
<표 2-2-8>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 .....	77
<표 2-2-9> 계약형태 .....	78
<표 2-3-1> 대중문화예술인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	79
<표 2-3-2> 직군별 입문경로 .....	87
<표 2-3-3> 직군별 전업예술인 여부 .....	88
<표 2-3-4> 직군별 근로 현황 .....	89
<표 2-3-5> 직군별 회사 소속 여부 .....	90
<표 2-3-6> 직군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	91
<표 2-3-7> 직군별 소득 현황 .....	92
<표 2-3-8> 직군별 교육 이수 현황 .....	93
<표 2-3-9> 직군별 법적 분쟁사건 여부 .....	94
<표 2-3-10> 직군별 가입 협·단체 .....	95
<표 2-3-1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	96
<표 2-3-1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	97
<표 2-3-13> 직군별 입문경로 (1) .....	104
<표 2-3-13> 직군별 입문경로 (2) .....	105
<표 2-3-14> 직군별 전업예술인 여부 (1) .....	106
<표 2-3-14> 직군별 전업예술인 여부 (2) .....	107
<표 2-3-15> 직군별 작품 참여 현황 (1) .....	108
<표 2-3-15> 직군별 작품 참여 현황 (2) .....	109
<표 2-3-16> 직군별 회사 소속 여부 (1) .....	110

<표 2-3-16> 직군별 회사 소속 여부 (2) .....	111
<표 2-3-17> 직군별 계약 현황 (1) .....	112
<표 2-3-17> 직군별 계약 현황 (2) .....	113
<표 2-3-18> 직군별 근로 현황 및 환경 (1) .....	114
<표 2-3-18> 직군별 근로 현황 및 환경 (2) .....	115
<표 2-3-19> 직군별 소득 현황 (1) .....	116
<표 2-3-19> 직군별 소득 현황 (2) .....	117
<표 2-3-20> 직군별 가입 협·단체 .....	118
<표 2-3-2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1) .....	119
<표 2-3-2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2) .....	120
<표 3-1-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응답업체(모집단) 특성표 .....	129
<표 3-1-2>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유무 여부 .....	130
<표 3-1-3>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131
<표 3-1-4>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계약서 포함사항(중복응답) .....	132
<표 3-1-5>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133
<표 3-1-6>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 세부 인력현황 .....	135
<표 3-1-7> 응답업체 특성별 주된 구인 경로 .....	136
<표 3-1-8> 응답업체 특성별 계약기간 평균 .....	137
<표 3-1-9>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유무 .....	138
<표 3-1-10>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 현황 .....	139
<표 3-1-11>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중복응답) .....	140
<표 3-1-12>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수익금 지급 방식 .....	141
<표 3-1-13>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평균 계약 기간-15세 미만 .....	142
<표 3-1-14>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평균 계약 기간-15세 이상 .....	142
<표 3-1-15>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15세 미만 .....	143
<표 3-1-16>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15세 이상 .....	143
<표 3-1-17>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	144
<표 3-1-18>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	145
<표 3-1-19> 청소년 연예인 학교 재학 현황 .....	146
<표 3-1-20> 청소년 연예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146
<표 3-1-21>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 .....	147
<표 3-1-22>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등교여부 및 등하교시간 확인 여부 .....	148
<표 3-1-23>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등하교 시 매니저 동행 여부 .....	149
<표 3-1-24>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유무 .....	150
<표 3-1-25>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현황 .....	152
<표 3-1-26>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교육 내용(중복응답) .....	153
<표 3-1-27>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 .....	154
<표 3-1-28>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주당 교육 횟수 .....	155
<표 3-1-29>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일당 교육 시간 .....	156
<표 3-1-30>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지출 비용:(1)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 .....	157
<표 3-1-31>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지출 비용:(2)월평균 1인당 교육비용 .....	158
<표 3-1-32>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계약서 작성여부 .....	159
<표 3-1-33>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평균 계약기간 .....	160
<표 3-1-34> 데뷔 분야별 연습생 평균 데뷔기간 .....	161
<표 3-1-35>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중 데뷔하는 비중 .....	162
<표 3-1-36>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비중 .....	163



<표 3-1-37>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164
<표 3-1-38>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165
<표 3-1-39>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	167
<표 3-1-40>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168
<표 3-1-41>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169
<표 3-1-42>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별 매출 규모	170
<표 3-1-43>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171
<표 3-1-44>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172
<표 3-1-45>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드라마출연	174
<표 3-1-46>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화출연	174
<표 3-1-47>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광고출연	174
<표 3-1-48>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출연	175
<표 3-1-49>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방송출연	175
<표 3-1-50>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행사활동	175
<표 3-1-51>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	176
<표 3-1-52>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드라마제작	177
<표 3-1-53>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화제작	178
<표 3-1-54>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광고제작	178
<표 3-1-55>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음반/음원제작	178
<표 3-1-56>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방송제작	179
<표 3-1-57>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파생상품(MD비즈니스)	180
<표 3-1-58>	응답업체 특성별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181
<표 3-1-59>	응답업체 특성별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182
<표 3-1-60>	주요 해외 진출 국가별 진출 경로(중복응답)	183
<표 3-1-61>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순위)	184
<표 3-1-62>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2+3순위, 중복응답)	185
<표 3-1-63>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순위)	187
<표 3-1-64>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2순위, 중복응답)	187
<표 3-1-65>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순위)	189
<표 3-1-66>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2순위, 중복응답)	189
<표 3-1-67>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순위)	191
<표 3-1-68>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2순위, 중복응답)	191
<표 3-1-69>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순위)	193
<표 3-1-70>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193
<표 3-1-71>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순위)	195
<표 3-1-72>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195
<표 3-1-73>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여부 및 건수	196
<표 3-1-74>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유형별 현황	197
<표 3-1-75>	응답업체 특성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인지 여부	198
<표 3-1-76>	가입된 협/단체	199
<표 3-2-1>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응답업체(모집단) 특성표	200
<표 3-2-2>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직원 세부 인력 현황(고용형태별/성별/연령별)	202
<표 3-2-3>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직원 세부 인력 현황(직무별)	203
<표 3-2-4>	제작 분야별 프리랜서 현황	204
<표 3-2-5>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205
<표 3-2-6>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206

<표 3-2-7>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207
<표 3-2-8> 응답업체 특성별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	208
<표 3-2-9>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209
<표 3-2-10>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1순위) .....	210
<표 3-2-11>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1+2순위, 중복응답) .....	211
<표 3-2-12>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1순위) .....	212
<표 3-2-13>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1+2순위, 중복응답) .....	213
<표 3-2-14> 분야별 매출 규모 .....	214
<표 3-2-15>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215
<표 3-2-16>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216
<표 3-2-17>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방송 제작 .....	217
<표 3-2-18>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화 제작 .....	218
<표 3-2-19>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애니메이션 제작 .....	218
<표 3-2-20>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광고 제작 .....	218
<표 3-2-21>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뮤직비디오 제작 .....	219
<표 3-2-22>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영상물 제작 .....	219
<표 3-2-23>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음반/음원 제작 .....	220
<표 3-2-24>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물 제작 .....	221
<표 3-2-25>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제작 .....	221
<표 3-2-26>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사업분야 .....	221
<표 3-2-27> 분야별 제작 건수 .....	222
<표 3-2-28> 응답업체 특성별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	223
<표 3-2-29> 응답업체 특성별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	224
<표 3-2-30>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순위) .....	225
<표 3-2-31>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2+3순위, 중복응답) .....	226
<표 3-2-32>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	227
<표 3-2-33>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	228
<표 3-2-34> 가입된 협/단체(중복응답) .....	229
<표 3-3-1> 대중문화예술인 응답자(표본) 특성표 .....	230
<표 3-3-2> 응답자 특성별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 .....	232
<표 3-3-3> 응답자 특성별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	233
<표 3-3-4> 응답자 특성별 연평균 공백기간 .....	234
<표 3-3-5> 응답자 특성별 최종학력 .....	235
<표 3-3-6> 응답자 특성별 문화예술분야 전공여부 .....	236
<표 3-3-7> 응답자 특성별 문화예술 관련 전공 분야(중복 응답) .....	237
<표 3-3-8> 응답자 특성별 정규교육과정 외 대중문화예술 교육 여부(중복응답) .....	238
<표 3-3-9>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 .....	239
<표 3-3-10>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5점 만점) .....	240
<표 3-3-11> 응답자 특성별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만족도 .....	241
<표 3-3-12> 응답자 특성별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만족도 .....	242
<표 3-3-13> 응답자 특성별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만족도 .....	243
<표 3-3-14>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학원 교육 수강 만족도 .....	244
<표 3-3-15>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개인 레슨 만족도 .....	245
<표 3-3-16>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만족도 .....	246
<표 3-3-17>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해외 유학 만족도 .....	247
<표 3-3-18> 응답자 특성별 전업예술인 여부 .....	248

<표 3-3-19>	응답자 특성별 직업 활동 유형	249
<표 3-3-20>	응답자 특성별 2016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	250
<표 3-3-21>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251
<표 3-3-22>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252
<표 3-3-23>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 평균 요약	253
<표 3-3-24>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요약	254
<표 3-3-25>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255
<표 3-3-26>	응답자 특성별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256
<표 3-3-27>	응답자 특성별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257
<표 3-3-28>	응답자 특성별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한 만족도	258
<표 3-3-29>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1순위)	259
<표 3-3-30>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1+2순위, 중복응답)	260
<표 3-3-31>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인식	261
<표 3-3-32>	응답자 특성별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	262
<표 3-3-33>	응답자 특성별 소속사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263
<표 3-3-34>	응답자 특성별 계약서 포함 사항(중복응답)	264
<표 3-3-35>	응답자 특성별 최근 소속사와 신규 체결 또는 기존 계약 갱신 년도	265
<표 3-3-36>	응답자 특성별 체결한 계약 기간	266
<표 3-3-37>	응답자 특성별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현황	267
<표 3-3-38>	응답자 특성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268
<표 3-3-39>	응답자 특성별 산재보험 가입 여부	269
<표 3-3-40>	응답자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270
<표 3-3-41>	응답자 특성별 최근 3년(2014년~2016년)내에 주체가 되었던 법적분쟁(중복응답)	271
<표 3-3-42>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사항(중복응답)	272
<표 3-3-43>	주요 소속 협·단체(응답자 기준)	273
<표 3-4-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응답자(표본) 특성표	274
<표 3-4-2>	응답자 특성별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275
<표 3-4-3>	응답자 특성별 참여 작품 수	276
<표 3-4-4>	응답자 특성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277
<표 3-4-5>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 여부	278
<표 3-4-6>	응답자 특성별 직업 활동 종류	279
<표 3-4-7>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	280
<표 3-4-8>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281
<표 3-4-9>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282
<표 3-4-10>	응답자 특성별 직급	283
<표 3-4-11>	응답자 특성별 계약 형태	284
<표 3-4-12>	응답자 특성별 계약서 유형	285
<표 3-4-13>	응답자 특성별 체결 계약서 내용(중복응답)	286
<표 3-4-14>	응답자 특성별 주 계약 상대	287
<표 3-4-15>	응답자 특성별 주 계약 단위	288
<표 3-4-16>	응답자 특성별 주 계약 주기	289
<표 3-4-17>	응답자 특성별 임금지급 주기	290
<표 3-4-18>	응답자 특성별 임금 포함 항목(중복응답)	291
<표 3-4-19>	응답자 특성별 임금 수준	292
<표 3-4-20>	응답자 특성별 상해사고 및 질병 조치	293
<표 3-4-21>	응답자 특성별 임금체불 경험	294

<표 3-4-22> 응답자 특성별 임금체불 대응방법(중복응답) .....	295
<표 3-4-23> 응답자 특성별 임금체불 외 부당경험(중복응답) .....	296
<표 3-4-24> 응답자 특성별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1순위) .....	297
<표 3-4-25> 응답자 특성별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1+2순위, 중복응답) .....	298
<표 3-4-26> 응답자 특성별 직업만족도 요약 .....	299
<표 3-4-27> 응답자 특성별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	300
<표 3-4-28> 응답자 특성별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	301
<표 3-4-29> 응답자 특성별 업무 시간에 대한 만족도 .....	302
<표 3-4-30> 응답자 특성별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 .....	303
<표 3-4-31> 응답자 특성별 작업 조건에 대한 만족도 .....	304
<표 3-4-32> 응답자 특성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	305
<표 3-4-33> 응답자 특성별 직장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	306
<표 3-4-34> 응답자 특성별 작품 탐색 경로 .....	307
<표 3-4-35> 응답자 특성별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 .....	308
<표 3-4-36> 응답자 특성별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1순위) .....	309
<표 3-4-37> 응답자 특성별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중복응답) .....	310
<표 3-4-38> 응답자 특성별 직업 변경 의향 .....	311
<표 3-4-39> 응답자 특성별 직업 변경 이유_1순위 .....	312
<표 3-4-40> 응답자 특성별 직업 변경 이유(1+2순위, 중복응답) .....	313
<표 3-4-41>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중복응답) .....	314
<표 3-4-42> 주요 소속 협·단체(응답자 기준) .....	315
<표 4-1> 대중문화예술인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	319
<표 4-1-1> 입문경로(연기 분야) .....	320
<표 4-1-2> 입문경로(무용 분야) .....	321
<표 4-1-3> 입문경로(연주 분야) .....	321
<표 4-1-4> 입문경로(가창 분야) .....	322
<표 4-1-5> 입문경로(낭독 분야) .....	322
<표 4-1-6> 입문경로(기타 분야) .....	323
<표 4-1-7> 전업예술인 여부(연기 분야) .....	324
<표 4-1-8> 전업예술인 여부(무용 분야) .....	325
<표 4-1-9> 전업예술인 여부(연주 분야) .....	325
<표 4-1-10> 전업예술인 여부 (가창 분야) .....	326
<표 4-1-11> 전업예술인 여부 (낭독 분야) .....	327
<표 4-1-12> 전업예술인 여부 (기타 분야) .....	328
<표 4-1-13> 근로 활동 (연기 분야) .....	329
<표 4-1-14> 근로 활동 (무용 분야) .....	330
<표 4-1-15> 근로 활동 (연주 분야) .....	331
<표 4-1-16> 근로 활동 (가창 분야) .....	332
<표 4-1-17> 근로 활동 (낭독 분야) .....	333
<표 4-1-18> 근로 활동 (기타 분야) (1) .....	334
<표 4-1-18> 근로 활동 (기타 분야) (2) .....	335
<표 4-1-19> 고용 현황 (연기 분야) (1) .....	336
<표 4-1-19> 고용 현황 (연기 분야) (2) .....	337
<표 4-1-20> 고용 현황 (무용 분야) .....	338
<표 4-1-21> 고용 현황 (연주 분야) .....	339
<표 4-1-22> 고용 현황 (가창 분야) .....	340

<표 4-1-23> 고용 현황 (낭독 분야) .....	341
<표 4-1-24> 고용 현황 (기타 분야) (1) .....	342
<표 4-1-24> 고용 현황 (기타 분야) (2) .....	343
<표 4-1-25> 4대 보험 가입 (연기 분야) .....	344
<표 4-1-26> 4대 보험 가입 (무용 분야) .....	345
<표 4-1-27> 4대 보험 가입 (연주 분야) .....	345
<표 4-1-28> 4대 보험 가입 (가창 분야) .....	346
<표 4-1-29> 4대 보험 가입 (낭독 분야) .....	346
<표 4-1-30> 4대 보험 가입 (기타 분야) .....	347
<표 4-1-31> 소득 현황 (연기 분야) (1) .....	348
<표 4-1-31> 소득 현황 (연기 분야) (2) .....	349
<표 4-1-32> 소득 현황 (무용 분야) .....	350
<표 4-1-33> 소득 현황 (연주 분야) .....	351
<표 4-1-34> 소득 현황 (가창 분야) .....	352
<표 4-1-35> 소득 현황 (낭독 분야) .....	353
<표 4-1-36> 소득 현황 (기타 분야) (1) .....	354
<표 4-1-36> 소득 현황 (기타 분야) (2) .....	355
<표 4-1-37> 교육 이수 현황 (연기 분야) (1) .....	356
<표 4-1-37> 교육 이수 현황 (연기 분야) (2) .....	357
<표 4-1-38> 교육 이수 현황 (무용 분야) .....	358
<표 4-1-39> 교육 이수 현황 (연주 분야) .....	359
<표 4-1-40> 교육 이수 현황 (가창 분야) .....	360
<표 4-1-41> 교육 이수 현황 (낭독 분야) .....	361
<표 4-1-42> 교육 이수 현황 (기타 분야) (1) .....	362
<표 4-1-42> 교육 이수 현황 (기타 분야) (2) .....	363
<표 4-1-43> 분쟁 사건 현황 (연기 분야) (1) .....	364
<표 4-1-43> 분쟁 사건 현황 (연기 분야) (2) .....	365
<표 4-1-44> 분쟁 사건 현황 (무용 분야) .....	366
<표 4-1-45> 분쟁 사건 현황 (연주 분야) .....	366
<표 4-1-46> 분쟁 사건 현황 (가창 분야) .....	367
<표 4-1-47> 분쟁 사건 현황 (낭독 분야) .....	368
<표 4-1-48> 분쟁 사건 현황 (기타 분야) .....	369
<표 4-1-49> 가입 협·단체 (연기 분야) (1) .....	370
<표 4-1-49> 가입 협·단체 (연기 분야) (2) .....	371
<표 4-1-50> 가입 협·단체 (무용 분야) .....	372
<표 4-1-51> 가입 협·단체 (연주 분야) .....	372
<표 4-1-52> 가입 협·단체 (가창 분야) .....	373
<표 4-1-53> 가입 협·단체 (낭독 분야) .....	374
<표 4-1-54> 가입 협·단체 (기타 분야) .....	375
<표 4-1-55>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연기 분야) .....	376
<표 4-1-56>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무용 분야) .....	377
<표 4-1-57>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연주 분야) .....	378
<표 4-1-58>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가창 분야) .....	379
<표 4-1-59>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낭독 분야) .....	380
<표 4-1-60>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타 분야) (1) .....	381
<표 4-1-60>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타 분야) (2) .....	382

<표 4-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	383
<표 4-2-1> 입문경로(기획 분야) (1) .....	384
<표 4-2-1> 입문경로(기획 분야) (2) .....	385
<표 4-2-2> 입문경로(촬영 분야) .....	386
<표 4-2-3> 입문경로(미술 분야) .....	387
<표 4-2-4> 입문경로(음향 분야) .....	388
<표 4-2-5> 입문경로(편집 분야) .....	389
<표 4-2-6> 입문경로(기타 분야) .....	390
<표 4-2-7> 전업예술인 여부(기획 분야) .....	391
<표 4-2-8> 전업예술인 여부(촬영 분야) .....	392
<표 4-2-9> 전업예술인 여부(미술 분야) .....	393
<표 4-2-10> 전업예술인 여부(음향 분야) .....	394
<표 4-2-11> 전업예술인 여부(편집 분야) .....	395
<표 4-2-12> 전업예술인 여부(기타 분야) .....	396
<표 4-2-13> 작품 참여 여부(기타 분야) .....	397
<표 4-2-14> 작품 참여 여부(촬영 분야) .....	398
<표 4-2-15> 작품 참여 여부(미술 분야) .....	399
<표 4-2-16> 작품 참여 여부(음향 분야) .....	400
<표 4-2-17> 작품 참여 여부(편집 분야) .....	401
<표 4-2-18> 작품 참여 여부(기타 분야) .....	402
<표 4-2-19> 회사 소속 여부(기획 분야) .....	403
<표 4-2-20> 회사 소속 여부(촬영 분야) .....	404
<표 4-2-21> 회사 소속 여부(미술 분야) .....	405
<표 4-2-22> 회사 소속 여부(음향 분야) .....	406
<표 4-2-23> 회사 소속 여부(편집 분야) .....	407
<표 4-2-24> 회사 소속 여부(기타 분야) .....	408
<표 4-2-25> 계약 현황(기획 분야) .....	409
<표 4-2-26> 계약 현황(촬영 분야) .....	410
<표 4-2-27> 계약 현황(미술 분야) .....	411
<표 4-2-28> 계약 현황(음향 분야) .....	412
<표 4-2-29> 계약 현황(편집 분야) .....	413
<표 4-2-30> 계약 현황(기타 분야) .....	414
<표 4-2-31> 근로 환경(기획 분야) (1) .....	415
<표 4-2-31> 근로 환경(기획 분야) (2) .....	416
<표 4-2-32> 근로 환경(촬영 분야) (1) .....	417
<표 4-2-32> 근로 환경(촬영 분야) (2) .....	418
<표 4-2-33> 근로 환경(미술 분야) (1) .....	419
<표 4-2-33> 근로 환경(미술 분야) (2) .....	420
<표 4-2-33> 근로 환경(미술 분야) (3) .....	421
<표 4-2-34> 근로 환경(음향 분야) .....	422
<표 4-2-35> 근로 환경(편집 분야) (1) .....	423
<표 4-2-35> 근로 환경(편집 분야) (2) .....	424
<표 4-2-36> 근로 환경(기타 분야) .....	425
<표 4-2-37> 소득 현황 (기획 분야) .....	426
<표 4-2-38> 소득 현황 (촬영 분야) .....	427
<표 4-2-39> 소득 현황 (미술 분야) .....	428

<표 4-2-40> 소득 현황 (음향 분야) .....	429
<표 4-2-41> 소득 현황 (편집 분야) .....	430
<표 4-2-42> 소득 현황 (기타 분야) .....	431
<표 4-2-43> 가입 협·단체 (기획 분야) .....	432
<표 4-2-44> 가입 협·단체 (촬영 분야) .....	433
<표 4-2-45> 가입 협·단체 (미술 분야) .....	434
<표 4-2-46> 가입 협·단체 (음향 분야) .....	435
<표 4-2-47> 가입 협·단체 (편집 분야) .....	436
<표 4-2-48> 가입 협·단체 (기타 분야) .....	436
<표 4-2-49>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획 분야) .....	437
<표 4-2-50>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촬영 분야) .....	438
<표 4-2-51>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미술 분야) .....	439
<표 4-2-52>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음향 분야) .....	440
<표 4-2-53>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편집 분야) .....	441
<표 4-2-54>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타 분야) .....	441



## 그림 목 차

<그림 2-3-1> 대중문화예술인 그룹별 특징 .....	80
<그림 2-3-2> 본 조사 정량결과 : 문화예술분야 전공 여부 .....	81
<그림 2-3-3> 본 조사 정량결과 : 전업예술인 여부 .....	82
<그림 2-3-4> 본 조사 정량결과 : 체결한 계약기간 .....	83
<그림 2-3-5> 본 조사 정량결과 : 월 평균 개인 소득 .....	84
<그림 2-3-6> 대중문화예술인 주요 이슈 .....	86
<그림 2-3-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그룹별 특징 .....	98
<그림 2-3-8> 본 조사 결과 : 전업예술인 여부 .....	99
<그림 2-3-9> 본 조사 결과 : 작품 참여 현황 .....	100
<그림 2-3-10> 월 평균 개인 소득 .....	102
<그림 2-3-1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주요 이슈 .....	103
<그림 3-1-1> 소속연예인 유무 여부 .....	130
<그림 3-1-2>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131
<그림 3-1-3> 소속연예인 계약서 포함사항(중복응답) .....	132
<그림 3-1-4>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133
<그림 3-1-5> 대중문화예술인 인력현황 .....	134
<그림 3-1-6> 주된 구인 경로 .....	136
<그림 3-1-7> 계약기간 평균 .....	137
<그림 3-1-8> 청소년 연예인 유무 .....	138
<그림 3-1-9>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 현황 .....	139
<그림 3-1-10>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중복응답) .....	140
<그림 3-1-11> 청소년 연예인 수익금 지급 방식 .....	141
<그림 3-1-12> 청소년 연예인 계약 기간 .....	142
<그림 3-1-13>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 .....	143
<그림 3-1-14>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	144
<그림 3-1-15>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	145
<그림 3-1-16> 청소년 연예인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 .....	147
<그림 3-1-17> 청소년 연예인 등교여부 및 등하교시간 확인 여부 .....	148
<그림 3-1-18> 청소년 연예인 등하교 시 매니저 동행 여부 .....	149
<그림 3-1-19> 소속 연습생 유무 .....	150
<그림 3-1-20>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현황 .....	151
<그림 3-1-21> 소속 연습생 교육 내용(중복응답) .....	153
<그림 3-1-22>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 .....	154
<그림 3-1-23> 연습생 주당 교육 횟수 .....	155
<그림 3-1-24> 연습생 일당 교육 시간 .....	156
<그림 3-1-25> 소속 연습생 평균 지출 비용 .....	157
<그림 3-1-26> 소속 연습생 계약서 작성여부 .....	159
<그림 3-1-27> 소속 연습생 평균 계약기간 .....	160
<그림 3-1-28> 소속 연습생 평균* 데뷔기간 .....	161
<그림 3-1-29> 연습생 중 데뷔하는 비중 .....	162



<그림 3-1-30>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비중 .....	163
<그림 3-1-31>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164
<그림 3-1-32>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165
<그림 3-1-33>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 .....	166
<그림 3-1-34>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168
<그림 3-1-35>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169
<그림 3-1-36> 분야별 매출 규모 .....	170
<그림 3-1-37> 국내외 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171
<그림 3-1-38>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매니지먼트 활동(출연료 등) .....	173
<그림 3-1-39>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 .....	176
<그림 3-1-40>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연관 콘텐츠 제작 활동 .....	177
<그림 3-1-41>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파생상품(MD비즈니스) .....	180
<그림 3-1-42>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	181
<그림 3-1-43>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	182
<그림 3-1-44>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 .....	184
<그림 3-1-45>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 .....	186
<그림 3-1-46>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 .....	188
<그림 3-1-47>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 .....	190
<그림 3-1-48>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	192
<그림 3-1-49>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 .....	194
<그림 3-1-50>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건수 .....	196
<그림 3-1-51>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인지 여부 .....	198
<그림 3-2-1> 소속 직원 현황 .....	201
<그림 3-2-2> 프리랜서 현황 .....	204
<그림 3-2-3>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205
<그림 3-2-4>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206
<그림 3-2-5>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207
<그림 3-2-6>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	208
<그림 3-2-7>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209
<그림 3-2-8>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 .....	210
<그림 3-2-9>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 .....	212
<그림 3-2-10> 분야별 매출 규모 .....	214
<그림 3-2-11> 국내외 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215
<그림 3-2-12>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상물 제작 활동 .....	217
<그림 3-2-13>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활동 .....	220
<그림 3-2-14>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	223
<그림 3-2-15>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	224
<그림 3-2-16>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해외 국가 .....	225
<그림 3-2-17>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	227
<그림 3-2-18>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	228
<그림 3-3-1>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 .....	231
<그림 3-3-2>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	233
<그림 3-3-3> 연평균 공백기간 .....	234
<그림 3-3-4> 최종학력 .....	235
<그림 3-3-5> 문화예술분야 전공여부 .....	236
<그림 3-3-6> 문화예술 관련 전공 분야(중복 응답) .....	237

<그림 3-3-7> 정규교육과정 외 대중문화예술 교육 여부(중복응답)	238
<그림 3-3-8>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	239
<그림 3-3-9>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5점 만점)	240
<그림 3-3-10> (교육 과정 만족도)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241
<그림 3-3-11> (교육 과정 만족도)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242
<그림 3-3-12> (교육 과정 만족도)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243
<그림 3-3-13> (교육 과정 만족도) 학원 교육 수강	244
<그림 3-3-14> (교육 과정 만족도) 개인 레슨	245
<그림 3-3-15> (교육 과정 만족도)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246
<그림 3-3-16> (교육 과정 만족도) 해외 유학	247
<그림 3-3-17> 전업예술인 여부	248
<그림 3-3-18> 직업 활동 유형	249
<그림 3-3-19> 월평균 가구 소득	250
<그림 3-3-20> 월평균 개인 소득	251
<그림 3-3-21>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252
<그림 3-3-22>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요약)	253
<그림 3-3-23>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요약	254
<그림 3-3-24>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	255
<그림 3-3-25>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보수 및 소득	256
<그림 3-3-26>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작업환경	257
<그림 3-3-27>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개인 역량 강화	258
<그림 3-3-28>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	259
<그림 3-3-2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인식	261
<그림 3-3-30>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	262
<그림 3-3-31> 소속사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263
<그림 3-3-32> 계약서 포함 사항(중복응답)	264
<그림 3-3-33> 최근 소속사와 신규 체결 또는 기존 계약 갱신 년도	265
<그림 3-3-34> 체결한 계약 기간	266
<그림 3-3-35>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현황	267
<그림 3-3-36> 국민연금 가입현황	268
<그림 3-3-37> 산재보험 가입 여부	269
<그림 3-3-38> 고용보험 가입 현황	270
<그림 3-3-39> 최근 3년(2014년~2016년)내에 주체가 되었던 법적분쟁(중복응답)	271
<그림 3-4-1>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275
<그림 3-4-2> 참여 작품 수	276
<그림 3-4-3>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277
<그림 3-4-4>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 여부	278
<그림 3-4-5> 직업 활동 종류	279
<그림 3-4-6> 월평균 가구 소득	280
<그림 3-4-7> 월평균 개인 소득	281
<그림 3-4-8>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282
<그림 3-4-9> 직급	283
<그림 3-4-10> 계약 형태	284
<그림 3-4-11> 계약서 유형	285
<그림 3-4-12> 체결 계약서 내용(중복응답)	286
<그림 3-4-13> 주 계약 상대	287

<그림 3-4-14> 주 계약 단위 .....	288
<그림 3-4-15> 주 계약 주기 .....	289
<그림 3-4-16> 임금지급 주기 .....	290
<그림 3-4-17> 임금 포함 항목(중복응답) .....	291
<그림 3-4-18> 임금 수준 .....	292
<그림 3-4-19> 상해사고 및 질병 조치 .....	293
<그림 3-4-20> 임금체불 경험 .....	294
<그림 3-4-21> 임금체불 대응방법(중복응답) .....	295
<그림 3-4-22> 임금체불 외 부당경험(중복응답) .....	296
<그림 3-4-23>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 .....	297
<그림 3-4-24> 직업만족도 요약 .....	299
<그림 3-4-25> (직업만족도) 업무 전반 .....	300
<그림 3-4-26> (직업만족도) 보수 및 소득 .....	301
<그림 3-4-27> (직업만족도) 업무 시간 .....	302
<그림 3-4-28> (직업만족도) 업무 내용 .....	303
<그림 3-4-29> (직업만족도) 작업 조건 .....	304
<그림 3-4-30> (직업만족도) 복리후생 .....	305
<그림 3-4-31> (직업만족도) 직장 안정성 .....	306
<그림 3-4-32> 작품 탐색 경로 .....	307
<그림 3-4-33>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 .....	308
<그림 3-4-34>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 .....	309
<그림 3-4-35> 직업 변경 의향 .....	311
<그림 3-4-36> 직업 변경 이유 .....	312



# 요약

## <표 1-1-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영세한 산업 구조, 불공정 관행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 2) 조사 대상

- 사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 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제작업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
- 종사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 대중문화예술인 : 연기자, 코미디언, 백댄서, 연주자, 가수, DJ, 성우, 모델, 뮤지컬배우, 공연 예술가 등
  -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 기획, 촬영, 미술, 음향, 편집 스태프, 보조연기자

### 3) 조사 규모 및 조사 방법

- 사업체는 총 3,493개 모집단 전수조사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편의를 위해 면접조사, 전화조사, Fax/E-mail을 병행함.
  - 기획업 : 전체 1,952개 업체 대상 전수조사 진행, 1,378개 조사 완료(응답률 70.6%).
  - 제작업 : 전체 1,541개 업체 대상 전수조사 진행, 921개 조사 완료(응답률 59.8%).
- 종사자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 정량조사 : 총 1,062명(대중문화예술인 743명,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319명)
  - 심층인터뷰 : 총 52명(예술인 32명, 스태프 20명)
  - FGI : 총 5개 그룹 19명(예술인 4개 그룹, 스태프 1개 그룹)

### 4) 조사 기간

- 사업체는 7월~9월, 종사자 정량조사는 7월~8월, 종사자 정성조사는 8~9월에 진행됨.

## <표 1-1-2> 조사 결과

### 1) 사업체 부문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매출 규모
  - 기획업 : 2조 5,840억 원('14년 기준 : 1조 5,041억 원, '15년 기준 2조 652억 원)
  - 제작업 : 2조 7,850억 원('14년 기준 : 2조 3,451억 원, '15년 기준 2조 4,422억 원)

#### (1) 분야별 매출 규모

- 2016년 기준 **기획업 매출 규모**는 매니지먼트 분야가 1조 2,334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연관 콘텐츠 제작 분야가 7,871억 원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매니지먼트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 행사에 대한 매출 규모가 2,772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공연 출연이 2,691억 원, 드라마 출연이 2,382억 원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제작업 매출 규모**는 영상물 제작 분야가 2조 2,280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공연물 제작(뮤지컬 등)이 4,008억 원, 음반/음원 제작이 760억 원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 분야가 2조 5,127억 원, 음반/음원 제작 분야가 5,785억 원, 공연물 제작(뮤지컬 등) 분야가 4,008억 원으로 나타남.
- 영상물 제작 분야의 경우는 영화제작/방송 제작(광고 제외)/기타 영상물 제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별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영화제작** : 기획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 매출 중 영화제작에 대한 비중과 제작업 분야의 영화제작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결과, **9,376억 원**으로 나타남.
  - **방송제작** : 기획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 매출 중 드라마 제작, 기타방송 제작에 대한 비중과 제작업 분야의 방송분야 제작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결과, **8,930억 원**으로 나타남.
  - **기타 영상물** : 기획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 매출 중 광고 제작에 대한 비중과 제작업 분야의 애니메이션, 광고, 뮤직비디오, 기타 영상물 분야 제작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총 **6,820억 원**으로 나타남.

#### (2) 세부 인력 및 계약 현황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의 77.3%(1952개 업체 중 1508개 업체)는 소속연예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인력 규모는 8,059명이었으며, 업체당 평균 소속연예인 수는 5.3명 임.
  -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 분야(보컬, 댄스 등)가 4,028명, 연기자 분야가 3,078명, 모델 분야가 454명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 시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 사용' 11.5%, '구두 계약' 1.5%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중 **소속연습생**이 있는 업체는 13.4%(261개) 였으며, 연습생 수는 전체 1,440명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가수(보컬, 댄스 등) 분야가 1,079명, 연기자 분야가 352명, 모델 분야가 3명으로 나타남.
- 연습생이 있는 기획업체의 69.1%는 소속연습생과 계약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소속직원 규모는 기획업은 12,935명, 제작업은 20,019명으로 조사되었음.
  - 기획업의 경우 분야별로 살펴보면, 매니저 분야가 4,060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관리 분야가 2,986명, 기획 분야가 2,850명으로 나타남.
  - 제작업 분야별로는 제작 분야가 9,831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기획 분야 3,964명, 마케팅/홍보 분야 2,827명 순임.
- 소속직원 대상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은 기획업 분야가 72.2%였고, 제작업 분야가 77.7%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음.
  - 기획업 : 일부 조항 변형 계약서 사용 9.7% > 구두계약 5.9% > 계약 하지 않음 12.2%
  - 제작업 : 일부 조항 변형 계약서 사용 10.5% > 구두계약 10.4% > 계약 하지 않음 1.3%

### (3)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기획업만 해당됨)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우위 부분**(1순위 응답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매니지먼트)의 역량(기획력)'(43.9%), '관련 분야의 콘텐츠'(20.8%) '연예인의 역량'(19.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력 취약 부분**(1순위 응답 기준)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의 부족'(43.4%), '협소한 내수시장'(29.0%), '역량있는 인력의 부족'(16.0%) 순으로 높게 응답함.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1순위 응답 기준)은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22.1%),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19.7%),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16.3%) 등의 순을 보였으며,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필요사항**(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31.5%), '저작권 보호'(27.2%),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18.3%)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1순위 응답 기준) '정책자금 지원'(52.5%), '세금 감면'(13.8%), '홍보 및 마케팅 지원'(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 종사자 부문

### (1) 예술활동 관련

-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응답자의 해당 분야 총 활동 경력은 평균 7년 1개월(84.8개월)로 나타남.
  - 주요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주 분야'가 평균 12년 5개월(149.2개월)로 가장 길었고, '기타(모델, 뮤지컬, 공연예술가, 기타 방송인 등) 분야'가 평균 5년 6개월(54.7개월)로 가장 짧았음.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해당 직무 총 활동 경력은 평균 6년 9개월(81.2개월)로 나타남.
  - 해당직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획 분야'가 평균 8년 1개월(97.4개월)로 가장 길었고, '기타 분야'가 평균 4년 6개월(53.9개월)로 가장 짧았음.
  -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참여 작품 수는 평균 13.9건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응답자 중 현재 활동 중인 분야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35.9%였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는 15.4%로 예술인의 절반 이하 수준임.

### (2) 소득 관련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183.2만원(중앙값 130만원)이었으며, 개인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은 평균 114.9만원(중앙값 90.0만원)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관련 주요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낭독 분야'가 평균 227.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용(춤) 분야'(147.4만원), '연기 분야'(122.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월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215.4만원(중앙값 200.0만원)이었으며,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은 평균 195.4만원(중앙값 200.0만원)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관련 주요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술 분야'가 평균 22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편집 분야'(221.0만원), '촬영 분야'(218.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고용현황

-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응답자 중 현재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은 11.7%였으며, 기획사 소속예술인의 75.9%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 비율이 66.5%였으며, 서면계약자의 48.1%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 비율이 87.5%(국민연금 36.2%, 산재보험 19.9%, 고용보험 16.8%)로 가장 높았음. 또한 최근 3년 내(2014년~2016년) 법적 분쟁 사례 별 비율은 '작품/공연 활동 수익금 미수령 문제'가 1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적 분쟁이 없다는 비율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함.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 임금체불 경험비율이 23.5%였으며, 무보수 참여 경험 비율도 38.6%로 적지 않은 수준임.



#### (4) 심층인터뷰 내용

##### ○ 입문경로

- **대중문화예술인** : 최근에는 실용음악, 실용무용, 모델학과 등 관련 학과 출신의 전공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비전공자라도 에이전시, 아카데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최근에는 대학에서 실용음악, 실용무용, 모델학과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전공자가 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대부분 진학의 목표가 뚜렷한 편이며, 최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스태프** : 관련 학과가 많아 전공자들이 졸업 후 입문하는 경우도 많고, 지인 소개나 추천하는 경우도 많음. 최근 영화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 ○ 전업예술인 관련

- **대중문화예술인** : 소수의 인지도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스태프** :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음.

##### ○ 활동현황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 활동 시간 관련해서 공연/방송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임. 방송의 경우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산업 특성상 수명이 짧아 안정성은 없으며, 작품 활동은 인맥을 통하는 경우가 많음.
- **스태프** : 작품 참여는 주로 지인 소개나 인맥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음. 함께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소개로 다음 작업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음. 보통 1년 기준으로 많게는 7개 작품, 적게는 2~3개 작품에 참여함.

##### ○ 소득 관련

- **대중문화예술인** : 인지도와 경력에 따라 다름. 일부 인지도 높은 예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인은 학교 강의, 레슨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한 소득이 더 높은 편임.
- **스태프** : 스태프는 경력과 직급에 따라 소득이 다르나, 보통 팀원의 경우 150~180만원, 팀장급은 200~250만원, 실장급은 300~350만원, 감독 이상이면 작품단위로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음.

##### ○ 근로환경

- **대중문화예술인** :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인은 건강보험 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없으며, 작품 계약 시 산재보험 정도 가입되는 경우가 있음.
- **스태프** : 작품 참여 시 현장직은 업무에 따라 한 달 평균 20~23일,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함.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가 많은 편이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임. 영화인 신문고나 노동청에 고소가 된 영화사는 정부 및 단체 지원이나 각종 행사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에 영향을 줌.

○ 정책적 지원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중문화예술인 :

- 4대 보험가입 지원,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 확충
- 표준계약서 등 서면을 통한 계약이 일반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 출연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
- 다양한 대중문화예술활동 기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스태프 :

- 4대 보험가입 지원, 임금체불/부당대우/과다한 근무시간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생계지원비 등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 필요
- 형식적인 계약체결 구조 개선
-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 <표 1-1-3> 향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 1) 향후 개선 방안

##### (1) 응답률 관리

○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

-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조사는 전수조사 원칙으로 응답률이 낮아질수록 추정량의 정도 (Precision)가 낮아지므로 사업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한 응답률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대규모 사업체(종사자수 50인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전담팀을 운영을 통해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층별 응답률 관리

- 모집단이 층으로 나누어진 경우 각 층별로 평균 응답률이 같아야 결측(무응답)이 추정에 편향을 적게 발생시키므로 층별 응답률을 고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조사 품질의 KPI로 Filling Rate와 같이 층별 최소 응답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층화 : 분야별\*규모별 (12개 층)

##### (2) 데이터 신뢰성 확보

○ 데이터 검증 강화

- 사업체 조사의 경우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연구를 통해 도출한 모수추정 방식(단위무응답 대체를 통한 체계적 추정)을 2017년 조사에 적용하여 1차 년도 (2015년) 대비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
- 다만, 자계식 조사로 인한 오류응답(무응답, 오기입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산업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한 철저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함.
  -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100% 사후검증
  - 로직 오류에 대한 추가 전화 검증
  - 과거 응답 데이터 비교 검증 실시 및 증감 사유 파악
  - 2차 자료(뉴스기사, 공시자료 등)를 통해 업체별 데이터 확인
- 무응답 패턴을 통한 추정
  - 본 조사의 경우 과거 2번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3개년도의 데이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무응답 패턴 분석을 통한 모수 추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 조사에서 응답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응답 유형이 있음.
    - 매년 응답하는 사업체
    - 격년으로 응답하는 사업체(두 번에 한 번 정도)
    - 기타 표본 사업체(매년 모집단에서 새롭게 순환)
  - 사업체 조사는 규모별, 분야별 응답확률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응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여 응답성향 가중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 종사자 대상 심층적 조사 확대

- FGI(focus group interview) 확대 실시
  - 2017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와 연계하여 업계 현황 등 주요결과에 대한 검증과 지원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FGI 결과 정량조사 및 심층인터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산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에는 FGI 5개 그룹이 진행되었으나, 분류체계상의 분야별 (대중문화예술인 11개 분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7개 분야)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하는 것이 본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업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 대상 조사 실시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획업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임. 현재 실태조사에서는 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소속연습생과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고 있어 실제 연습생과 청소년연예인의 상황과 다르게 과대 또는 축소 응답된 데이터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업체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의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함.
  - 다만, 기획업체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한 접근 방안이 사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 정책적 제언

### (1)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필수 항목 기재 의무화
  - 2017년 조사결과 2015년 대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서면 계약률이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심층 인터뷰 및 FGI 결과, 활동시간, 수당 등 종사자 입장에서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표준계약서 상의 필수 항목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함.
- 스태프의 경우 인건비 확인서 작성
  - 스태프의 경우 팀장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태프 팀원 등의 경우도 계약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인건비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2) 기존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 창작지원금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수혜자 편중 현상 방지
  - 지원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기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인지도가 낮은(신입 등) 예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급 등과 정책도 필요하나, 과정(어떻게 비용을 쓰는지), 결과(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 기존 지원정책(예술인패스 등)에 대한 홍보 필요

### (3)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경력 증명이 어렵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프로필 및 작품에 관한 포트폴리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개선연구 결과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며, 2017년도 종사자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에서도 도출되었음. 이렇듯 업계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를 누가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운영주체 및 운영 방안을 명확히 하여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을 설립해야 할 것임



## 제1장 조사 개요



# 제1장 조사 개요

##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영세한 산업 구조, 불공정 관행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2014. 7.)이 시행되고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됨.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격년 조사이며, 2016년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심층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2차년도 조사로, 본 조사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 < 그림 1-1-1 조사 배경 >

**대중문화예술산업 성장 이면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내포**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한류(K-pop, 드라마 등) 열풍의 근원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영세한 산업 구조, 법 제도 미비, 불공정 관행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 이러한 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부재



**체계적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07)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됨.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 본 과업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및 제작업 영위 사업체의 사업 현황 및 인력 구조, 시장규모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함.
- 둘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수입 및 활동 현황, 만족도 등 시장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함.
- 셋째,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진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2. 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

### 1)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함.<sup>1)</sup>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sup>2)</sup> : 방송영상물, 영화·비디오물, 공연물,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함.

####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

- ①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순수 공연물 제외,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포함)
- ②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다큐 분야 영상물 제외)
- ③ 영화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④ 음악산업법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⑤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화보, 출판물 광고 등)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1장제2조(정의)1.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서, 국민대 법학부 교수 황승흠 저(2015)



##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조사 대상 범위

## (1)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및 제작업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분류한 「2014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자료 및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형별로 재분류함.

&lt;표 1-1-1&gt;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분류체계

구분	분류	세부 유형	기타
기획업 <sup>3)</sup>	매니지먼트	연예인 기획사 <sup>4)</sup> (매니지먼트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사업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을 조건으로 학습자 또는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제작업	영상물	방송 제작사	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방송국 포함)
		영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음반/음악 제작사		
	공연물	공연기획사	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
공연단체			

3) 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업체로 한정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미등록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있음).

4) 관련 업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시, '연예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사'를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함.

(2) 종사자-대중문화예술인

- 실연(實演)자(스크립트(악보, 대본 등)를 주고 그것을 해석하여 표현하는 자), 관객의 눈에 보여지는 무대나 화면 안에 있거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
  - 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2호에 정의된 범위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 관련 용역으로 나뉨.

■ 제외 및 포함 기준

- 무용, 연극, 국악<sup>5)</sup>은 순수 예술분야에 해당되므로 제외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음).
- 작사/작곡가는 창작자에 해당되므로 제외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음).
- 아나운서는 주로 보도, 교양 분야에서 활동하므로 제외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음).
- 오페라는 순수예술에 가까운 장르이므로 제외됨<sup>6)</sup>.

<표 1-1-2> 대중문화예술인 분류체계

no	대분류	중분류	설명
1	연기	연기자 (탤런트, 영화)	영화나 TV드라마,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의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사람 *단 현장 재연을 전문으로 하는 재연배우 및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무술연기를 하는 무술연기자는 포함하되 보조연기자(extra)는 제외함
		코미디언	희극 배우(喜劇俳優)라고 하기도 하며 TV 또는 무대 등에서 웃음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2	무용	댄서	안무가가 개발한 춤을 지도받고 연습하여 무대·영화·방송 등에서 춤을 추는 사람(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제외)
3	연주	연주자	다른 음악기들과 라이브 공연이나 녹음 세션을 도와주는 악기(세션) 연주자 *단 클래식 음악은 제외함
4	가창	가수	노래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5	낭독	DJ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성우	목소리 연기자
6	그 밖의 예능	모델	의상패션쇼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단 전문모델이 아닌 연예인이 광고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뮤지컬배우	무대 위에서 장면별로 여러 배우들과 연기, 노래, 춤 등을 표현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사람
		공연 예술가	기타 대중문화예술 공연*을 실연하는 자 *년별별 퍼포먼스 분야나 퓨전 국악 등이 해당됨
		기타 방송인	특정한 분야 구분 없이, 다양한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

5) 국악기를 통해 국악을 연주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국악기를 통해 대중가요 및 클래식 등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은 대중음악에 포함함.

6) 국립오페라단 소속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함.

**(3) 종사자-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9호에 정의된 범위로, 기획, 촬영, 미술, 음향, 편집, 기타 분야로 분류함.
- 각 분야별 주요 작품 엔딩크레딧을 통해 분류체계를 보완함.

**■ 제외 및 포함 기준**

- 감독, 시나리오작가(보조작가 포함), PD, 연출가는 창작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제외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음).
- 구성 작가는 기획의 보조 업무를 제공하므로 스태프로 분류됨.
- 보조연기자(extra)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아니라 촬영보조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태프에 해당됨.

&lt;표 1-1-3&gt;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분류체계

no	대분류	중분류	설명
1	기획	기획/제작	- 기획 및 제작 프로듀서/제작 진행 및 행정
		연출	- 연출부 소속 스태프(조감독(FD)/스크립터/캐스팅디렉터(=조감독이 겸하는 경우도 있음)) *단, 영화 분야의 감독 및 방송의 PD(연출가)는 제외
		홍보 마케팅	- 마케팅·홍보 담당자/예고편 및 메이킹 필름 제작자
		구성 작가	- 비드라마용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 원고 작성자 *단, 드라마 극작가 및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제외
2	촬영	촬영	- 촬영감독 및 촬영팀/그립팀/데이터매니저/촬영장비팀
		조명	- 조명감독 및 조명팀/발전차 및 조명 크레인/조명장비팀
		특수효과	- 특수효과 팀장 및 특수효과팀
3	미술	미술	- 미술감독 및 미술팀/소품팀/ 무대디자인 및 무대기술감독
		의상	- 의상팀장 및 의상팀
		분장	- 분장팀장 및 분장팀/헤어팀/특수분장팀
4	음향	동시녹음	- 동시녹음 기사/붐 오퍼레이터/PA팀
		음향	- 음향감독(=사운드 슈퍼바이저) 및 음향팀
		음악	- 음악감독 및 음악팀/OST 제작 프로듀서
6	편집	편집	- 편집감독 및 편집팀/편집기술감독/현장편집
		Visual Effects	- 특수영상감독 및 특수효과팀(CG 포함)/타이틀 글씨 및 타이틀 예고
		DI	- DI(Digital Intermediate, 디지털 색보정) 기사 및 DI 팀
7	기타	보조연기자	- 영화, 드라마 등에 보조출연으로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

## 제2절 조사 설계

### 1.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 규모

- 사업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952개,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541개 전수조사
- 종사자 :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총 1,000명(목표) 표본조사  
 ↳ 대중문화예술인 743명,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319명 조사되어 총 1,062명으로 통계처리됨.

#### 2) 조사 기준 시점

- 기준 시점 : 2016년 12월 31일
- 기준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표 1-2-1> 사업체 조사 개요

	기획업	제작업
모집단 규모	1,952개	1,541개
조사 유형	전수 조사	전수 조사
조사 개수	1,378개	921개
응답률	70.6%	59.8%
조사 방법	multi survey <방법별 비중> - 교육장 유치 조사(30.7%) - 온라인(40.1%) - Fax/이메일(29.2%) ※ 교육장 유치 조사 : 기획업 교육장에서 설문지 배포 후 수거	multi survey <방법별 비중> - 방문면접 조사(5.4%) - 온라인(38.4%) - Fax/이메일(29.2%)
조사 기간	2017년 7월 19일 ~ 10월 12일	2017년 7월 19일 ~ 10월 12일 (추가조사) 2017년 11월 21일 ~ 11월 30일

<표 1-2-2> 종사자 조사 개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표본수	743명	319명
조사 유형	표본 조사	표본 조사
조사 방법	조사대상자 편의에 따라 이메일, 팩스, 온라인, 방문면접 병행	조사대상자 편의에 따라 이메일, 온라인, 방문면접 병행
표본 추출 방법	눈덩이 추출법 (Snow ball Sampling)	눈덩이 추출법 (Snow ball Sampling)
조사 기간	2017년 8월 8일 ~ 10월 16일	2017년 8월 8일 ~ 10월 16일

## 2. 모집단 정의

### 1) 사업체 부문 : 기획업

#### (1) 모집단 정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2014.7)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

#### (2) 모집단 분석

○ 모집단은 주요 사업별(3개 층), 규모별(6개 층) 총 18개 층으로 분류함.<sup>7)</sup>

○ 전체 기획업 중 주요 사업 분야가 매니지먼트인 사업체는 전체 66.1%, 제작 20.3%, 기타 13.6%로 나타남.

주요 사업 분야	규모(종사자수)	모집단 수(개)	비중(%)
매니지먼트 분야	1인 <sup>8)</sup>	239	12.2%
	2~5인 미만	532	27.3%
	5~10인 미만	326	16.7%
	10인 이상	193	9.9%
	<b>소계</b>	<b>1290</b>	<b>66.1%</b>
제작 분야	1인	136	7.0%
	2~5인 미만	149	7.6%
	5~10인 미만	68	3.5%
	10인 이상	44	2.3%
	<b>소계</b>	<b>397</b>	<b>20.3%</b>
기타 분야 (모델에이전시, 아카데미 등)	1인	70	3.6%
	2~5인 미만	90	4.6%
	5~10인 미만	59	3.0%
	10인 이상	46	2.4%
	<b>소계</b>	<b>265</b>	<b>13.6%</b>
<b>전체</b>		<b>1,952</b>	<b>100.0</b>

7) '주요 사업 분야' 및 '규모(종사자 수)'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 분석 시 이 두 가지 특성을 분석 단위로 활용함.

8) 소속 직원 수 1인은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 2) 사업체 부문 : 제작업

### (1) 모집단 정의

- 영화, 연예, 음악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모든 사업체  
(2017년 설립 사업체 제외, 총 1,541개)

### (2) 표본틀(Sampling Frame)

- 2014년 기준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DB 및 (주)한국콘텐츠미디어의 기업정보 DB(한국기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접근의 현실타당성에 따라 조사 모집단을 구성함.
  - 사전 웹검색 및 전화조사를 통해 사업체 폐업여부 및 업종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모집단을 구축함.

### (3) 모집단 분석

- 모집단은 제작물 분야별(3개 층), 규모별(4개 층) 총 12개 층으로 분류함.
- 전체 제작업 중 주요 제작물 분야가 영상물인 사업체는 58.0%, 음반/음원 18.7%, 공연물 20.3%, 기타는 3.0%로 나타남.

제작물 분야	규모(종사자수)	모집단 수(개)	비중(%)
영상물 제작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5인 미만	444	28.8
	5~10인 미만	188	12.2
	10~30인 미만	141	9.1
	30인 이상	121	7.9
	<b>소계</b>	<b>894</b>	<b>58.0</b>
음반/음원 제작	5인 미만	240	15.6
	5~10인 미만	31	2.0
	10~30인 미만	15	1.0
	30인 이상	2	0.1
	<b>소계</b>	<b>288</b>	<b>18.7</b>
공연물 제작	5인 미만	217	14.1
	5~10인 미만	56	3.6
	10~30인 미만	36	2.3
	30인 이상	4	0.3
	<b>소계</b>	<b>313</b>	<b>20.3</b>
기타 제작*	5인 미만	28	1.8
	5~10인 미만	5	0.3
	10~30인 미만	12	0.8
	30인 이상	1	0.1
	<b>소계</b>	<b>46</b>	<b>3.0</b>
<b>전체</b>		<b>1,541</b>	<b>100.0</b>

\* 전시물 기획, 비공연 예술가, 공연 IT 솔루션 등이 포함됨

### 3) 종사자 부문

#### (1) 모집단 정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2) 종사자 모집단

- 본 과업의 종사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아래 <참고>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의미 있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표본 추출틀은 구성할 수 없었음.
- 일부 협단체에서 분야/성/연령 정보만 포함된 DB를 협조해주었으나, 전체 규모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표본 배분시 참고로만 사용함.

#### <참고>

- ①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또는 ② 관련 협단체 소속 회원 명부 등을 통해 모집단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슈로 현실적으로 정보 제공의 어려움이 있음.

#### (3) 표본 추출 방법

-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여 모집단 내의 각 구성요소가 선택될 확률을 알 수 없고, 조사 대상 모집단의 규모가 커 표본 프레임의 입수하기 쉽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비확률 표본(Non-probability sample)추출법을 이용함.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하나의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집단을 파악하기 곤란한 대상으로 우연 표집 형식을 취하는 눈덩이 추출법(Snow ball Sampling)을 이용함.
- 눈덩이 추출법(Snow ball Sampling)은 목표 모집단 내에 위치하는 연구 대상자 중 특정집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고자 하는 해당 모집단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가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명단을 받는 방식으로 표본을 늘려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됨. 이런 절차는 질문 가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낳게 되기 때문에 탐색적 목적에서 주로 사용됨.
- 각 분야별 최초 응답자는 관련 협·단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업계 종사자들 중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4) 표본 배분

- 2017년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본 할당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를 접촉하여 해당 직군의 정보 수집을 통해 표본배분을 진행함. 일부는 예술인 DB(기본정보만 포함)가 확보되었고, 확보가 되지 않은 직군에 대해서는 협단체 관계자를 통해 인원수 정보를 파

악하고 기타 웹 서치를 통해 자료를 참고하여 1차 표본안을 작성함. 확보된 직군별 회원수를 토대로 비례배분 시 표본이 적게 할당되는 직군(코미디언, 댄서, DJ, 성우)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표본배분을 한 후 조사를 진행함.

< 대중문화예술인 직군별 표본배분 >

no	분야	직군	목표 표본(명)	최종 표본(명)
1	연기	연기자(탤런트, 영화)	120	124
		코미디언	70	71
2	무용	백댄서	50	53
3	연주	연주자	100	106
4	가창	가수	120	124
5	낭독	DJ	10	10
		성우	40	40
6	그 밖의 예능	모델	80	81
		뮤지컬배우	80	82
		공연 예술가	30	49
		기타 방송인	-	3
<b>전체</b>			<b>700</b>	<b>743</b>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직군별 표본배분 >

no	분야	직군	목표 표본(명)	최종 표본(명)
1	기획	기획/제작	50	52
		연출		
		홍보 마케팅		
		구성 작가		
2	촬영	촬영	50	57
		조명		
		특수효과		
		그립		
3	미술	미술	50	51
		의상		
		분장		
		소품		
4	음향	동시녹음	50	50
		음향		
		음악		
5	편집	편집	50	50
		Visual Effects		
		DI		
6	기타	보조연기자	50	59
<b>전체</b>			<b>300</b>	<b>319</b>



###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 1) 심층인터뷰 목적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대상 조사의 경우, 예술인 743명, 제작스태프 319명에 대해 각각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업종에 대한 모집단 파악이 곤란하여 우연 표집 형식을 취하는 눈덩이 추출법(Snow ball Sampling)<sup>9)</sup>을 활용하였음.
- 그 결과, 조사 항목에 대해 과소 또는 과대하게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여 전반적인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실제보다 높게 응답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접근이 어렵거나 실제보다 낮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예술인 및 제작스태프)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업계 전반에 대한 평균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본 조사의 결과가 업계상황을 반영한 유의미한 결과인지에 대해 검증하고 심층적인 이유를 알아보하고자 실시함.

#### 2) 심층인터뷰 개요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설계는 다음과 같음.

<표 1-2-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2명</li> <li>• 대중문화예술인: 분야별 4명 내외 총 32명</li> <li>• 대중문화제작물 스태프: 분야별 4명 내외 총 20명</li> </ul>
자료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li> </ul>
자료 수집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8월~9월</li> </ul>

9) 눈덩이 추출법(Snow ball Sampling)은 목표 모집단 내에 위치하는 연구 대상자 중 특정 집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고자 하는 해당 모집단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가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명단을 받는 방식으로 표본을 늘려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됨.

### 3) 심층인터뷰 항목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1-2-4>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항목 - 예술인 분야

구분	평가 분류	세부 항목
활동사항	입문경로	▪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당 분야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전업예술인 여부	▪ 대중문화예술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 활동 관련 사항	▪ 대중문화예술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 작품 출연 기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게 되는지
고용현황	회사 소속 여부	▪ 해당 분야 종사자 중 회사 소속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
	4대 보험 가입 현황	▪ 해당 분야 종사자의 보험 가입 현황은 어떠한지
소득 현황	소득 현황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현황은 어떠한지
기타 사항	교육이수 현황	▪ 해당 분야 종사자의 교육 과정 이수 현황은 어떠한지
	법적 분쟁사건 현황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분쟁사건 발생 여부
	가입 협.단체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가입 협.단체 현황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	▪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 대중문화제작물스태프에 대한 심층인터뷰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1-2-5>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항목 - 제작물스태프 분야

구분	평가 분류	세부 항목
활동사항	입문경로	▪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당 분야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전업예술인 여부	▪ 대중문화예술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작품 참여 현황	▪ 연평균 참여 작품 수는 어느 정도 인지 ▪ 작품 탐색 및 참여 경로는 무엇인지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회사 소속 여부	▪ 해당 분야 종사자 중 회사 소속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
	계약 현황	▪ 분야별 계약 현황 및 계약 방식은 어떠한지
	근로 활동 관련 사항	▪ 작품 참여 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인지 ▪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소득 현황	소득 현황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현황은 어떠한지
기타 사항	가입 협.단체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가입 협.단체 현황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	▪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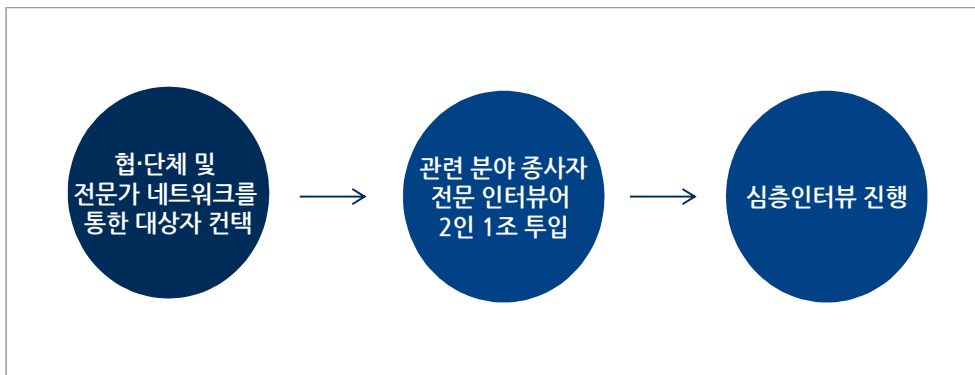
▶ 심층인터뷰 항목 관련 전문가 의견

- 「소속 연예인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사」와 「소극적으로만 활동하는 회사」 간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소극적으로만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세부 사유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4) 심층인터뷰 진행방법

- 심층인터뷰 진행 시, 인터뷰 대상자는 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조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대상자를 소개 받음.
-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최초 인터뷰 대상자 소개자(관련 분야 종사자)와 전문 interviewer가 2인 1조로 동시에 투입되어 인터뷰를 진행함.

<그림 1-3-1> 심층인터뷰 진행방법



5)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성

- (대중문화예술인) [직군별\*경력기간별] 기준으로 나누어 인터뷰 대상자를 할당함.
  - 낭독분야(DJ, 성우)의 경우, 대상자 컨택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하고, 기타 방송인은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함.

<표 1-2-6> 대중문화예술인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성

분야	직군	경력기간*		전체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2	2	7
	코미디언	2	1	
무용	백댄서	2	1	3
연주	연주자	2	2	4
가창	가수	2	3	5
	DJ	1	2	
낭독	성우	1	1	5
	모델	2	1	
그 밖의 예능	뮤지컬배우	2	1	8
	공연 예술가	1	1	
	기타 방송인	-	-	
	전체	17	15	

\*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대중문화예술인의 평균 경력은 '8년'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함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직군별\*직급별] 기준으로 나누어 인터뷰 대상자를 할당함.
  - 제작스태프는 직급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음.

<표 1-2-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성

분야	직군	직급		전체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1	-	4
	연출	1	-	
	홍보 마케팅	-	1	
	구성 작가	-	1	
촬영	촬영	-	1	4
	조명	1	-	
	특수효과	-	1	
	그립	-	1	
미술	미술	-	1	4
	의상	1	-	
	분장	-	1	
	소품	1	-	
음향	동시녹음	-	1	3
	음향	1	-	
	음악	-	1	
편집	편집	1	1	4
	Visual Effects	-	1	
	DI	-	1	
기타	보조연기자	-	1	1
전체		7	13	20

## 제3절 조사 내용

○ 조사 대상별 총 4개의 조사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사업체 부문

구분		설문 항목	기획업	제작업
기본 정보	사업체 일반 정보	사업체 형태/주소/설립연도	√	√
	사업체 세부 정보	코스닥 상장 여부	√	√
		벤처기업 지정 여부	√	√
		사업 분야/주요 사업 분야	√	√
		인원현황(소속 직원, 소속대중문화예술인)	√	√
		자본금 및 매출액	√	√
		해외지사 현황	√	√
세부 인력 현황	대중문화 예술인	세부 인력 현황(분야별, 성별, 연령별)	√	
		청소년 연예인 소속 현황	√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서 포함내용	√	
		최소/최대/평균/최빈 계약기간	√	
		가장 주된 구인 경로	√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현황(분야별, 성별, 연령별)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교육의 종류 및 방식	√	
		교육 횟수 및 시간	√	
		인당 투자비용	√	
		평균 계약기간	√	
		최소/최대/평균 데뷔기간	√	
		연습생 데뷔비중 및 비자발적 탈락 비중	√	
	소속 직원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여부 및 사용 계획	√	√
		세부 인력 현황(업무별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	
		4대 보험 가입 현황	√	
		프리랜서 현황(제작물유형별 인원수)		√
		가장 주된 구인 경로	√	√
		신규 직원 채용 시 평가하는 항목		√
		신규 직원 채용 시 애로사항		√
사업 현황	매출규모	분야별 매출액 구성 내역	√	√
		국내·외별 매출액 구성 내역(국내, 해외)	√	√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	√
		분야별 제작 완료 건수		√
	해외 진출 현황	해외 진출 주요 국가	√	√
		최초 해외 진출 경로	√	√
		향후 진출 희망 국가	√	√
기타 사항	국내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평가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우위 분야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	
		해외 진출시 애로사항	√	
	정부 지원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	
		해외 진출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	
	기타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건수 및 분쟁 내용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	√	
		관련 가입단체 현황	√	√

2. 종사자 부문

구분		설문 항목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스태프	
일반 정보	기본정보	성별/연령	√	√	
		거주 지역	√	√	
		결혼 여부/자녀 여부	√	√	
대중문화 예술 활동사항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	활동 분야/주 활동 분야	√	√	
		데뷔 분야	√		
		해당분야 최초 입문경로	√	√	
		총 활동 경력	√	√	
		최근 2년간 참여 작품수		√	
		최근 2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	
		수입이 없는 평균 공백 기간	√		
		교육 현황	최종학력	√	√
			문화예술분야 전공 여부	√	
	세부 전공 분야		√		
	정규교육과정 외 대중문화예술 교육 경험		√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		
	전업예술인 여부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직업유무	√	√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직업 활동	√	√	
	소득 현황	평균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	√	
		대중문화예술분야별 수입 비중	√		
	대중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공 조건	√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판	√		
	고용 및 수입 현황/근로환경	고용/수입 현황	연예기획서 소속 여부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17년 기준 추가)			√	√	
표준계약서 내용			√	√	
최근 갱신 계약연도			√		
작품활동시 계약 형태				√	
주 계약 상대/주 계약 단위				√	
주 계약 주기/임금 지급 주기				√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	
임금 수준				√	
4대 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형태	√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		
근로 환경		상해사고 및 질병에 따른 조치		√	
		임금체불 경험 및 관련 내용		√	
		개선사항		√	
		작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경력관리		작품 참여를 위한 탐색 경로		√	
		무보수로 제작에 참여한 경험		√	
		경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향후 직업을 바꿀 의향 및 이유		√	
기타		법적 분쟁 사례	√		
	대중문화예술 관련 가입단체	√	√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함에 있어 애로사항	√	√		

## 제4절 자료 처리 방법

### 1. 데이터 검증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100% 사후검증을 실시함.
  - \* 내용상 로직이 안맞는 경우 등,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전화검증 실시
  - \* 2차 자료(공시자료, 국민연금DB, 뉴스기사, 기업정보 Data 등)를 통해 개별데이터 확인

### 2. 무응답 대체(Imputation)

#### 1) 기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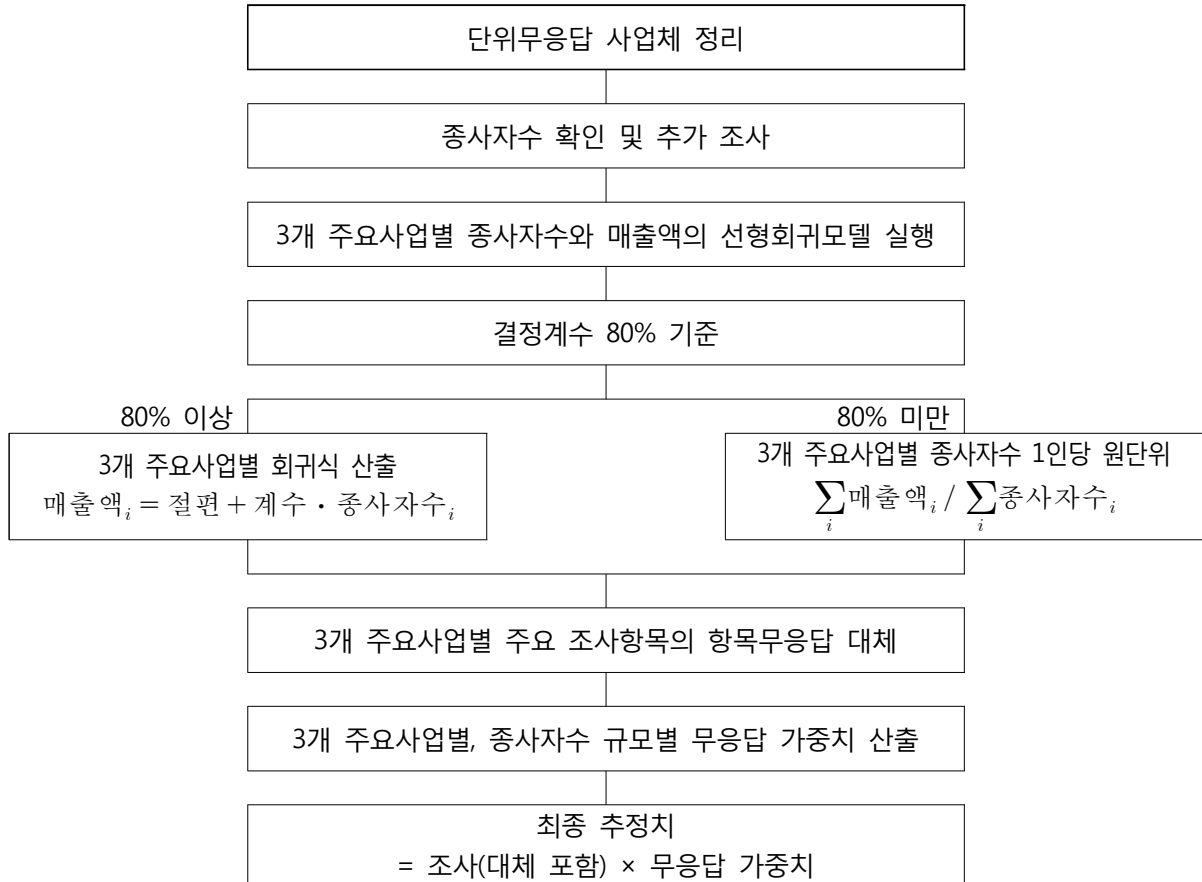
##### (1) 응답률 현황

- 기획업 전체 응답률은 70.6%임.  
단위무응답 사업체가 1,952개 중에서 574개로 무응답률은 29.4%임
- 주요 사업별(3개), 규모별(6개) 응답률은 다음과 같음

주사업분야	종사자수 규모	모집단	무응답	조사	응답률
1) 매니지먼트	1) 1인	249	60	189	75.9%
	2) 2-4인	536	226	310	57.8%
	3) 5-9인	327	156	171	52.3%
	4) 10-19인	124	49	75	60.5%
	5) 20-49인	49	13	36	73.5%
	6) 50인 이상	22	1	21	95.5%
	<b>소계</b>	<b>1,307</b>	<b>505</b>	<b>802</b>	<b>61.4%</b>
2) 제작	1) 1인	126	6	120	95.2%
	2) 2-4인	145	19	126	86.9%
	3) 5-9인	67	11	56	83.6%
	4) 10-19인	28	2	26	92.9%
	5) 20-49인	9	0	9	100.0%
	6) 50인 이상	4	0	4	100.0%
	<b>소계</b>	<b>379</b>	<b>38</b>	<b>341</b>	<b>90.0%</b>
3) 기타	1) 1인	70	6	64	91.4%
	2) 2-4인	90	10	80	88.9%
	3) 5-9인	59	8	51	86.4%
	4) 10-19인	33	6	27	81.8%
	5) 20-49인	11	0	11	100.0%
	6) 50인 이상	3	1	2	66.7%
	<b>소계</b>	<b>266</b>	<b>31</b>	<b>235</b>	<b>88.3%</b>
<b>전체</b>	<b>1,952</b>	<b>574</b>	<b>1,378</b>	<b>70.6%</b>	

(2) 무응답 유형과 처리방법

- 무응답은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로 구분됨
  - 단위무응답 사업체의 주요 조사항목(종사자수 및 매출액 현황)에 대한 항목무응답 대체를 실시하고
  -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무응답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함



- 3개 주요사업별 종사자수와 매출액의 선형회귀모델 실행한 결과 결정계수가 80% 이상인 경우가 없어 종사자수 1인당 원단위로 주요 조사항목의 항목무응답을 대체하였음
  - 결정계수는 매니지먼트(66.7%), 제작(57.3%), 기타(40.3%)
  - ※ 2인 이상 기준



## (3) 무응답 가중치

- 주요 사업별(3개), 규모별(6개) 무응답 보정을 위한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함

$$\text{무응답보정 가중치 } w_{ij} = \frac{N_{ij}}{n_{ij}^*} = \frac{\text{모집단수}_{ij}}{\text{조사 사업체수}_{ij}}$$

여기서,  $i$ 는 주요 사업별(3개),  $j$ 는 규모별(6개)을 나타냄

- 모집단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석단위 규모(4가지)보다 세분화하여 6개 분류로 적용함.

<표 1-4-1> 주요 사업별×종사자수별 표본 조사 가중치

주요 사업 분야	규모(종사자수)	모집단 수(개)	조사 개수(개)	가중치
매니지먼트 분야	1인	239	179	1.335
	2~5인 미만	532	306	1.739
	5~10인 미만	326	170	1.918
	10인 ~ 19인 미만	123	74	1.662
	20인 ~ 49인 미만	48	35	1.371
	50인 이상	22	21	1.048
제작 분야	1인	136	130	1.046
	2~5인 미만	149	130	1.146
	5~10인 미만	68	57	1.193
	10인 ~ 19인 미만	30	28	1.071
	20인 ~ 49인 미만	10	10	1
	50인 이상	4	4	1
기타 분야 (모델 에이전시, 아카데미 등)	1인	70	64	1.094
	2~5인 미만	90	80	1.125
	5~10인 미만	59	51	1.157
	10인 ~ 19인 미만	32	26	1.231
	20인 ~ 49인 미만	11	11	1
	50인 이상	3	2	1.500
<b>전체</b>		1,952	1,378	-

(4) 추정

○ 용어정의

- $y_{ijk}$  : 관찰값 (사업  $i$ , 규모  $j$ , 사업체  $k$ 에 대한 응답)
  - $i$ : 주요 사업별(1, 2, 3)을 나타내는 첨자
  - $j$ : 종사자수 규모별(1, 2, 3, 4, 5, 6)을 나타내는 첨자
  - $k$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사업체 번호 ( $k = 1, 2, \dots, N_{ij}$ )
  - $N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모집단 크기
  - $N = \sum_{i=1}^3 \sum_{j=1}^6 N_{ijk}$  : 전체 모집단 크기
- $w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무응답보정 가중치  $= \frac{N_{ij}}{n_{ij}^*} = \frac{\text{모집단수}_{ij}}{\text{조사 사업체수}_{ij}}$
- $\bar{y}_{ij} = \frac{1}{N_{ij}} \sum_{k=1}^{N_{ij}} w_{ij} \cdot y_{ijk}$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평균
- $\hat{\tau}_{ij} = N_{ij} \cdot \bar{y}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총합
- $S_{ij}^2 = \frac{\sum_{k=1}^{N_{ij}} w_{ij} (y_{ijk} - \bar{y}_{ij(w)})^2}{\left( \sum_{k=1}^{N_{ij}} w_{ij} - 1 \right)}$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분산
- $\hat{p}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비율

○ 모집단 총합  $\tau$ 의 추정량 및 분산

- 총합:  $\hat{\tau} = \sum_{i=1}^3 \sum_{j=1}^6 \hat{\tau}_{ij}$
- 총합의 분산:  $\widehat{Var}(\hat{\tau}) = \sum_{i=1}^3 \sum_{j=1}^6 N_{ij} \cdot S_{ij}^2$

○ 모평균  $\mu$ 의 추정량 및 분산

- 모평균:  $\hat{\mu} = \frac{\hat{\tau}}{N}$
- 모평균의 분산:  $\widehat{Var}(\hat{\mu}) = \frac{1}{N^2} \sum_{i=1}^3 \sum_{j=1}^6 N_{ij} \cdot S_{ij}^2$

○ 모비율  $p$ 의 추정량 및 분산

- 모비율:  $\hat{p} = \sum_{i=1}^3 \sum_{j=1}^6 w_{ij} \cdot \hat{p}_{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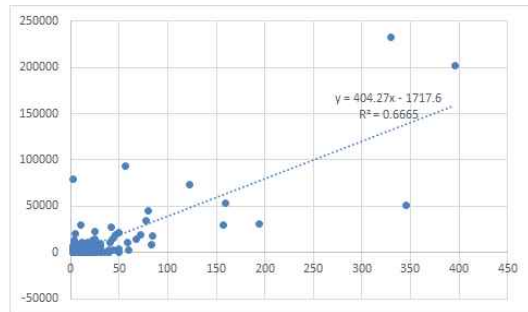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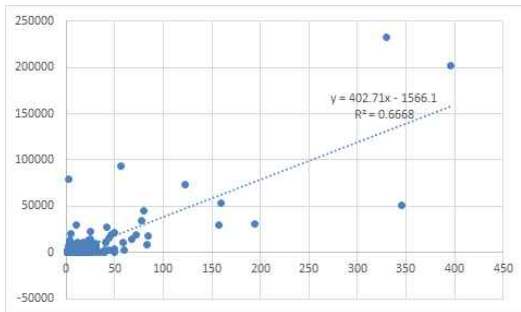
• 모비율의 분산:  $\widehat{Var}(\hat{p}) = \frac{1}{N^2} \sum_{i=1}^3 \sum_{j=1}^6 N_{ij} \cdot \hat{p}_{ij} \cdot (1 - \hat{p}_{ij})$

○ 표준오차 및 오차한계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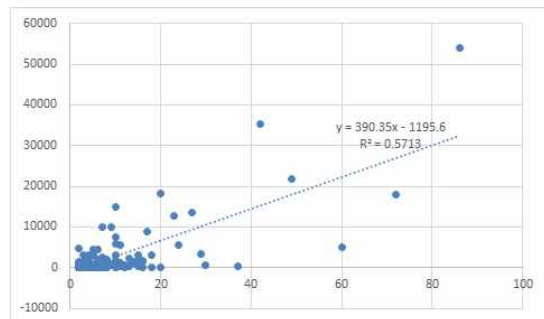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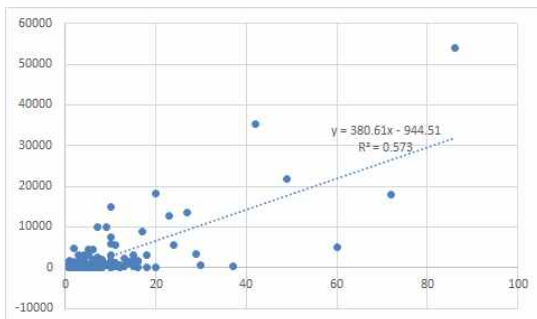
- 표준오차 :  $\sqrt{\widehat{Var}}$
- 신뢰수준  $100 \times (1 - \alpha)\%$  하에서의 오차한계 :  $z_{\alpha/2} \cdot \sqrt{\widehat{Var}}$

(5) 회귀분석 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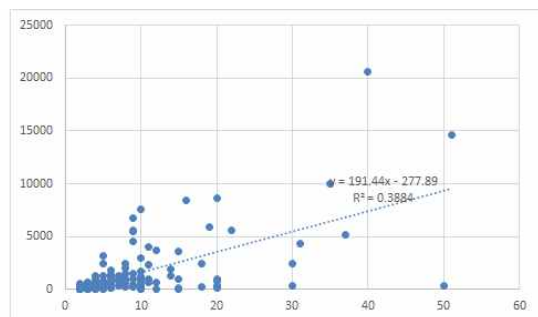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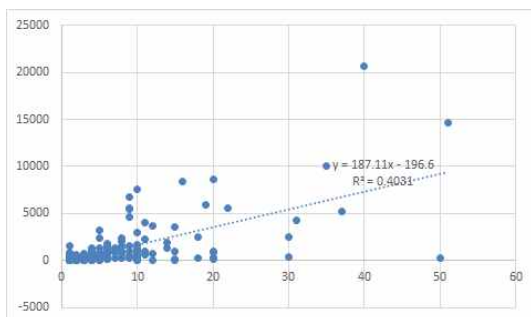
• 매니지먼트 (좌: 전체, 우: 2인 이상)



• 제작 (좌: 전체, 우: 2인 이상)



• 기타 (좌: 전체, 우: 2인 이상)



## 2) 제작업

### (1) 응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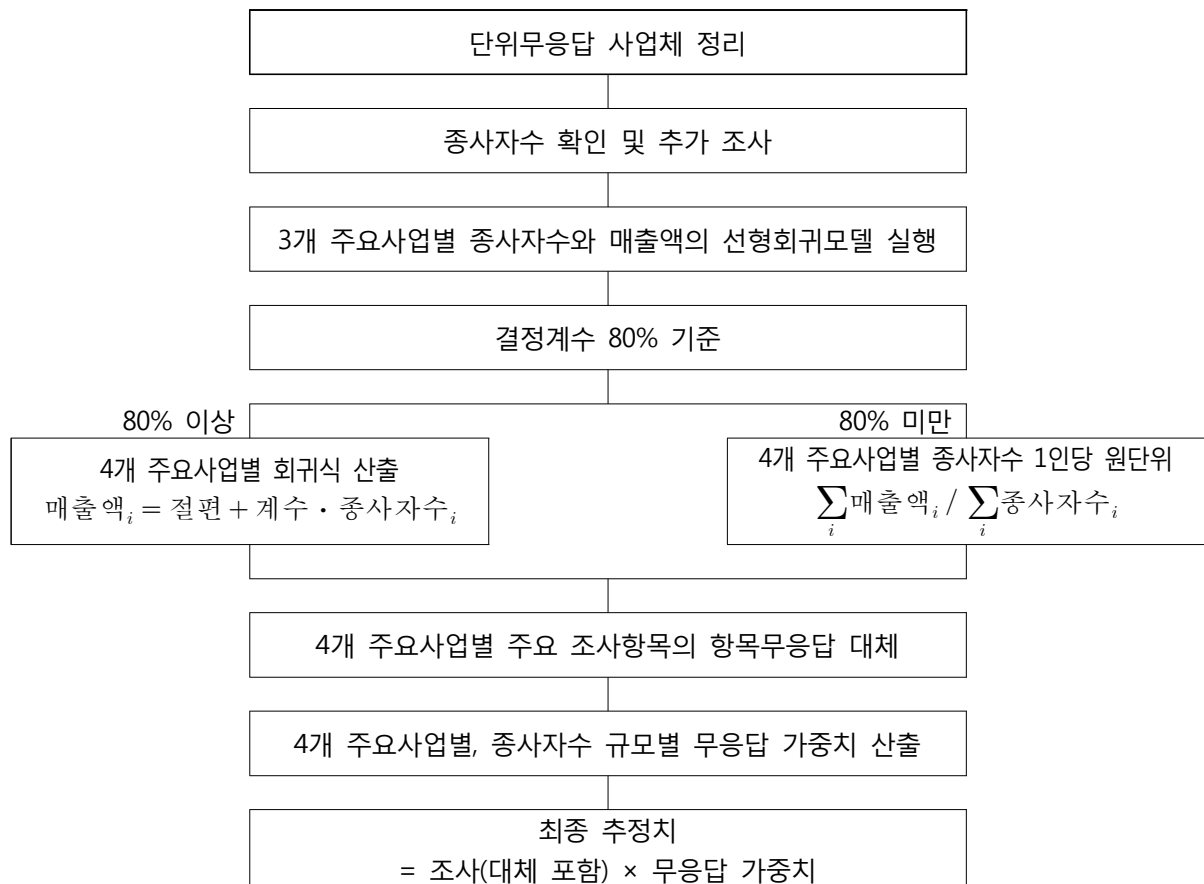
- 제작업 전체 응답률은 57.7%이며, 추가조사를 제외할 경우는 61.7%임.
  - 1,441개 모집단 이후 추가로 적용된 100개 업체의 경우는 일부 문항만을 응답받았으므로, 가중치 적용을 위해 무응답으로 간주한 결과임.
  - 단위무응답 사업체가 1,541개 중에서 652개로 무응답률은 45.2%임
- 주요 사업별(4개), 규모별(6개) 응답률은 다음과 같음

주사업분야	종사자수 규모	모집단	무응답	조사	응답률
1) 영상물 제작	1) 1인	263	165	98	37.3%
	2) 2-4인	181	22	159	87.8%
	3) 5-9인	188	76	112	59.6%
	4) 10-19인	99	32	67	67.7%
	5) 20-49인	89	37	52	58.4%
	6) 50인 이상	74	10	64	86.5%
	소계	894	342	552	61.7%
2) 음반/음원 제작	1) 1인	180	101	79	43.9%
	2) 2-4인	60	6	54	90.0%
	3) 5-9인	31	15	16	51.6%
	4) 10-19인	13	5	8	61.5%
	5) 20-49인	3	2	1	33.3%
	6) 50인 이상	1	0	1	100.0%
	소계	288	129	159	55.2%
3) 공연물 제작	1) 1인	133	106	27	20.3%
	2) 2-4인	84	23	61	72.6%
	3) 5-9인	56	25	31	55.4%
	4) 10-19인	30	14	16	53.3%
	5) 20-49인	7	3	4	57.1%
	6) 50인 이상	3	1	2	66.7%
	소계	313	172	141	45.0%
4) 기타 제작*	1) 1인	10	6	4	40.0%
	2) 2-4인	18	1	17	94.4%
	3) 5-9인	5	2	3	60.0%
	4) 10-19인	9	0	9	100.0%
	5) 20-49인	3	0	3	100.0%
	6) 50인 이상	1	0	1	100.0%
	소계	46	9	37	80.4%
전체		1,541	652	889	57.7%

\* 전시물 기획, 비공연 예술가, 공연 IT 솔루션 등이 포함됨

## (2) 무응답 유형과 처리방법

- 무응답은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로 구분됨
  - 단위무응답 사업체의 주요 조사항목(종사자수 및 매출액 현황)에 대한 항목무응답대체를 실시하고
  -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무응답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함



- 4개 주요사업별 종사자수와 매출액의 선형회귀모델 실행한 결과 결정계수가 80% 이상인 경우가 없어 종사자수 1인당 원단위로 주요 조사항목의 항목무응답을 대체하였음
  - 결정계수는 영상물 제작(52.0%), 음반/음원 제작(56.4%), 공연물 제작(49.1%), 기타 제작(9.3%)
  - ※ 2인 이상 기준

(3) 무응답 가중치

- 주요 사업별(4개), 규모별(6개) 무응답 보정을 위한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함

$$\text{무응답보정 가중치 } w_{ij} = \frac{N_{ij}}{n_{ij}^*} = \frac{\text{모집단수}_{ij}}{\text{조사 사업체수}_{ij}}$$

여기서,  $i$ 는 주요 사업별(3개),  $j$ 는 규모별(6개)을 나타냄

- 모집단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석단위 규모(4가지)보다 세분화하여 6개 분류로 적용함.

<표 1-4-2> 주요 사업별×종사자수별 표본 조사 가중치

제작물 분야	규모(종사자수)	모집단 수(개)	조사 개수(개)	가중치
영상물 제작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1인	263	98	2.684
	2 ~ 5인 미만	181	159	1.138
	5 ~ 10인 미만	188	112	1.679
	10 ~ 19인 미만	99	67	1.478
	20 ~ 49인 미만	89	52	1.712
	50인 이상	74	64	1.156
음반/음원 제작	1인	180	79	2.278
	2 ~ 5인 미만	60	54	1.111
	5 ~ 10인 미만	31	16	1.938
	10 ~ 19인 미만	13	8	1.625
	20 ~ 49인 미만	3	1	3.000
	50인 이상	1	1	1.000
공연물 제작	1인	133	27	4.926
	2 ~ 5인 미만	84	61	1.377
	5 ~ 10인 미만	56	31	1.806
	10 ~ 19인 미만	30	16	1.875
	20 ~ 49인 미만	7	4	1.750
	50인 이상	3	2	1.500
기타*	1인	10	4	2.500
	2 ~ 5인 미만	18	17	1.059
	5 ~ 10인 미만	5	3	1.667
	10 ~ 19인 미만	9	9	1.000
	20 ~ 49인 미만	3	3	1.000
	50인 이상	1	1	1.000
<b>전체</b>		<b>1,541</b>	<b>889</b>	<b>-</b>

\* 전시물 기획, 비공연 예술가, 공연 IT 솔루션 등이 포함됨

## (4) 추정

## ○ 용어정의

- $y_{ijk}$  : 관찰값 (사업  $i$ , 규모  $j$ , 사업체  $k$ 에 대한 응답)
  - $i$ : 주요 사업별(1, 2, 3, 4)을 나타내는 첨자
  - $j$ : 종사자수 규모별(1, 2, 3, 4, 5, 6)을 나타내는 첨자
  - $k$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사업체 번호 ( $k=1, 2, \dots, N_{ij}$ )
  - $N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모집단 크기
  - $N = \sum_{i=1}^3 \sum_{j=1}^6 N_{ijk}$  : 전체 모집단 크기
- $w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무응답보정 가중치  $= \frac{N_{ij}}{n_{ij}^*} = \frac{\text{모집단수}_{ij}}{\text{조사 사업체수}_{ij}}$
- $\bar{y}_{ij} = \frac{1}{N_{ij}} \sum_{k=1}^{N_{ij}} w_{ij} \cdot y_{ijk}$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평균
- $\hat{\tau}_{ij} = N_{ij} \cdot \bar{y}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총합
- $S_{ij}^2 = \frac{\sum_{k=1}^{N_{ij}} w_{ij} (y_{ijk} - \bar{y}_{ij(w)})^2}{\left( \sum_{k=1}^{N_{ij}} w_{ij} - 1 \right)}$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분산
- $\hat{p}_{ij}$  : 사업  $i$ , 규모  $j$ 에 대한 비율

○ 모집단 총합  $\tau$ 의 추정량 및 분산

- 총합:  $\hat{\tau} = \sum_{i=1}^4 \sum_{j=1}^6 \hat{\tau}_{ij}$
- 총합의 분산:  $\widehat{Var}(\hat{\tau}) = \sum_{i=1}^4 \sum_{j=1}^6 N_{ij} \cdot S_{ij}^2$

○ 모평균  $\mu$ 의 추정량 및 분산

- 모평균:  $\hat{\mu} = \frac{\hat{\tau}}{N}$
- 모평균의 분산:  $\widehat{Var}(\hat{\mu}) = \frac{1}{N^2} \sum_{i=1}^4 \sum_{j=1}^6 N_{ij} \cdot S_{ij}^2$

○ 모비율  $p$ 의 추정량 및 분산

• 모비율:  $\hat{p} = \sum_{i=1}^4 \sum_{j=1}^6 w_{ij} \cdot \hat{p}_{ij}$

• 모비율의 분산:  $\widehat{Var}(\hat{p}) = \frac{1}{N^2} \sum_{i=1}^4 \sum_{j=1}^6 N_{ij} \cdot \hat{p}_{ij} \cdot (1 - \hat{p}_{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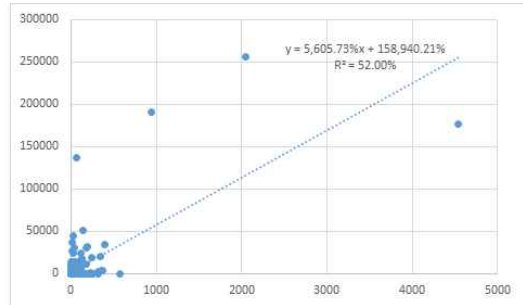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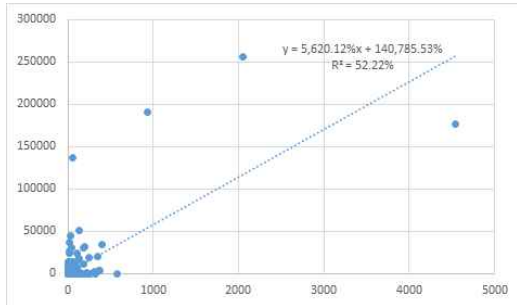
○ 표준오차 및 오차한계의 추정

• 표준오차:  $\sqrt{\widehat{V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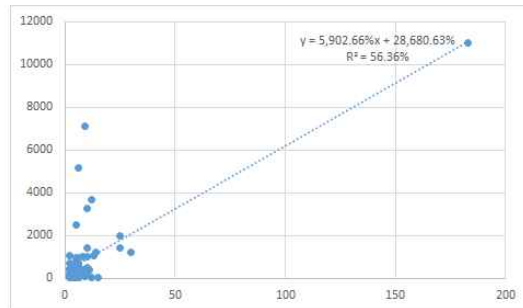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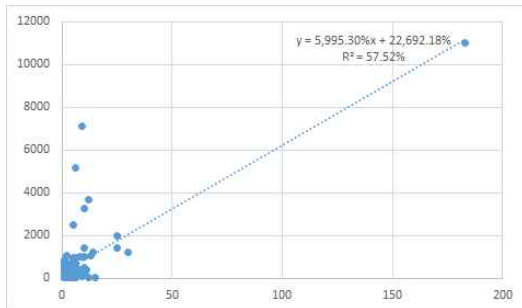
• 신뢰수준  $100 \times (1 - \alpha)\%$  하에서의 오차한계:  $z_{\alpha/2} \cdot \sqrt{\widehat{Var}}$

(5) 회귀분석 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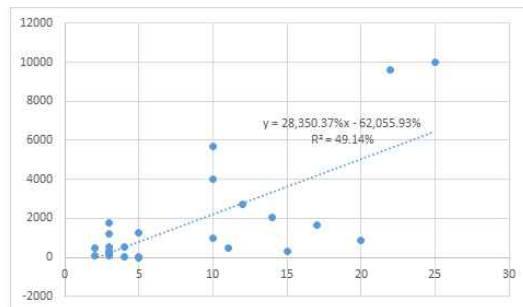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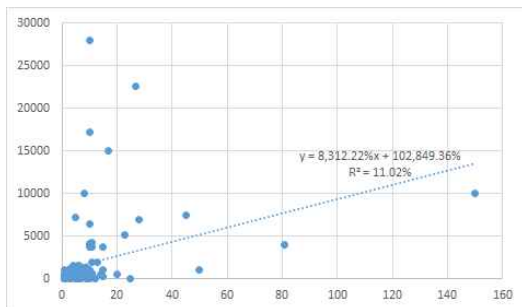
- 영상물 제작 (좌: 전체, 우: 2인 이상)



- 음반/음원 제작 (좌: 전체, 우: 2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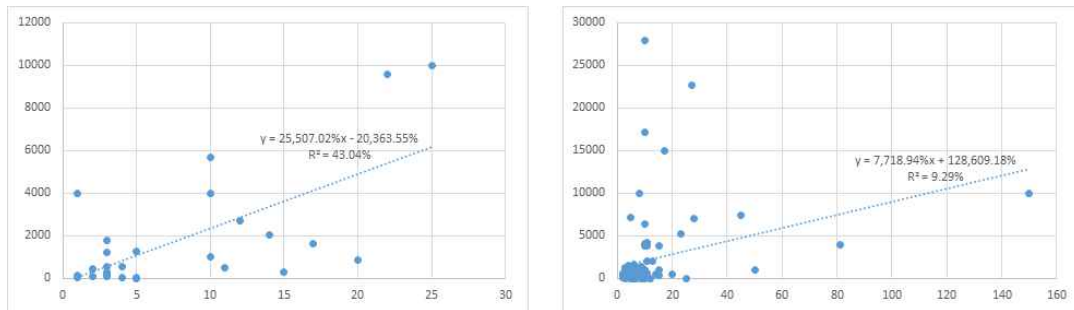


- 공연물 제작 (좌: 전체, 우: 2인 이상)





- 기타 제작 (좌: 전체, 우: 2인 이상)



### 3. 데이터 처리 방법

-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와 Excel을 이용한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 사업체의 경우 모수추정을 실시하였으며,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결과치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제시하므로 항목별 합계 수치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 매출액, 직원수 등의 항목은 데스크리서치 및 과거자료 등을 통해 값을 모두 입력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 제5절 연구 수행 절차

### 1. 전체 수행 절차

○ 전체 수행 절차는 크게 연구 설계, 설문 항목 개발, 실태조사 실시, 데이터 검증, 결과 분석, 결과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일정
기획	표본 설계 및 모수 추정	· 사업체 조사 표집틀 작성 ▶ 기존 리스트에 신규 업체 추가 · 종사자 조사 표본 설계안 작성 ▶ 전문가 자문 실시	6월~7월
	조사 항목 보완 및 조사표 완성	· 기존 항목 검토를 통한 설문 문항 확정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보완 ▶ Pre-test를 통한 설문지 점검 · 최종 조사표 완성	7월
실사	실사 준비	· 조사 대상 리스트 정리 · 조사 자료 준비 · 조사원 교육 실시 · 온라인 설문 구축	7월
	실사 진행	· 조사 대상자 전화 컨택 · 협조공문 및 조사표 발송 · 실태조사 진행 · 조사 관련 문의 응대	7월~10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입력 및 검증	· 응답 데이터 입력 · 데이터의 오류 사항 점검 · 전화 검증 실시 ▶ 전문가 자문 실시	10월~11월
	결과 분석	· 데이터 통계 분석 · 기초통계표 작성 · 주요 결과치 산출	11월
결과 보고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 작성	11월~12월

## 2. 주요 절차별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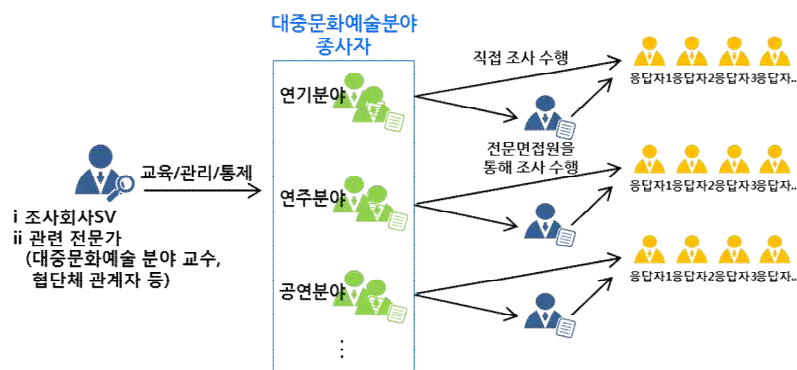
### 1) 조사표 검토

- 2015년 1차년도 본조사 진행 및 2016년 심층연구를 통해 조사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됨.
-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시행에 앞서 기존 조사표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자문 회의 등을 통해 보완함.
- 추가 이슈에 대해 신규 문항으로 삽입함.

### 2) 실태 조사

- 사업체 실태조사는 전화 컨택터가 조사대상 업체의 인사 및 총무담당자를 전화 접촉 후 조사목적 및 방법 등을 안내하였음. 이메일 및 팩스번호 정보를 확인 후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메일, 팩스, 온라인, 방문면접 방법을 병행하였음. 사업체조사의 응답률 저하 경향 및 조사 문항의 분량 및 구성의 복잡성에 따른 단위무응답 증가에 대해 응답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음.
  - ☞ 기획업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교육(1회차~7회차)시 설문지를 배부·회수함으로써 조사 협조율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종사자 실태조사는 사전 조사 명부가 없었고, 눈덩이 추출법(Snow ball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사 명부 작성과 동시에 조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조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음. 각 분야의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를 투입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함. 조사 방법은 이메일, 온라인, 방문면접을 병행하였고, 방문면접조사의 경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타계식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종사자 조사 진행 방식 >



- (실태조사 진행) 실태조사 진행 시, 대중문화예술인은 약 10여개의 관련 협·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으며 실제로 응답자의 소속 협·단체를 확인해 본 결과, 이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음. 대중문화예술 제작물 스태프는 실제 촬영 현장에 면접원이 투입되어 조사를 진행함.

## 제6절 사업체 및 종사자 응답특성표

### 1.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구분		모집단 구성비		조사완료 업체 기준		
		사례수(개)	비중(%)	사례수(개)	비중(%)	
전체		(1,952)	100.0	(1,378)	100.0	
사업체 형태	개인사업체	(685)	35.1	(513)	37.2	
	회사법인	(1,232)	63.1	(841)	61.0	
	회사외 법인	(35)	1.8	(24)	1.7	
상장 여부	상장했음	(22)	1.1	(19)	1.4	
	상장하지 않았음	(1,930)	98.9	(1,359)	98.6	
해외지사 여부	해외지사 있음	(59)	3.0	(40)	2.9	
	해외지사 없음	(1,893)	97.0	(1,338)	97.1	
소속 직원 수	1인	(445)	22.8	(445)	22.8	
	2~5인 미만	(771)	39.5	(771)	39.5	
	5~10인 미만	(453)	23.2	(453)	23.2	
	10인 이상	(283)	14.5	(283)	14.5	
주요 사업 분야 (대분류)	매니지먼트 분야	(1,290)	66.1	(1,290)	66.1	
	제작 분야	(397)	20.3	(397)	20.3	
	기타 분야	(265)	13.6	(265)	13.6	
주요 사업 분야 (소분류)	매니지먼트 분야	연기자	(634)	32.5	(384)	27.9
		가수	(554)	28.4	(340)	24.7
		코미디언	(15)	0.7	(9)	0.7
		모델	(38)	1.9	(23)	1.7
		기타	(50)	2.6	(29)	2.1
	제작 분야	드라마	(28)	1.4	(25)	1.8
		영화	(27)	1.4	(24)	1.7
		음반	(162)	8.3	(147)	10.7
		디지털 음원	(113)	5.8	(103)	7.5
		기타	(67)	3.4	(60)	4.4
	기타 분야	아카데미	(21)	1.1	(18)	1.3
		MD비즈니스	(7)	0.3	(6)	0.4
		모델에이전시	(123)	6.3	(109)	7.9
		기타	(114)	5.9	(101)	7.3

※ 결과분석 시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하므로 개별항목의 합계와 전체 합계(100.0%)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모집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특성별 응답업체수는 '±1'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2. 대중문화예술 제작업

구분		모집단 구성비		조사완료 업체 기준		
		사례수(개)	비중(%)	사례수(개)	비중(%)	
전체		(1,541)	100.0	(921)	100.0	
사업체 형태	개인사업체	(354)	23.0	(186)	20.2	
	회사법인	(1,179)	76.5	(727)	78.9	
	회사외 법인	(4)	0.2	(4)	0.4	
	기타	(5)	0.3	(4)	0.4	
상장 여부	상장했음	(8)	0.5	(7)	0.8	
	상장하지 않았음	(1,533)	99.5	(914)	99.2	
벤처기업 여부	벤처기업	(88)	5.7	(56)	6.1	
	벤처 기업 아님	(1,453)	94.3	(865)	93.9	
해외지사 여부	해외지사 있음	(17)	1.1	(12)	1.3	
	해외지사 없음	(1,524)	98.9	(909)	98.7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60.3	(527)	57.2	
	5 ~ 10인 미만	(280)	18.2	(166)	18.0	
	10 ~ 30인 미만	(205)	13.3	(133)	14.4	
	30인 이상	(127)	8.2	(95)	10.3	
주요 사업 분야 (대분류)	영상물 제작 분야	(894)	58.0	(553)	60.0	
	음반/음원 제작 분야	(288)	18.7	(163)	17.7	
	공연물 제작 분야	(313)	20.3	(159)	17.3	
	기타 제작 분야	(46)	3.0	(46)	5.0	
주요 사업 분야 (소분류)	영상물 제작	방송	(375)	24.3	(246)	26.7
		영화	(281)	18.2	(162)	17.6
		애니메이션	(82)	5.3	(51)	5.5
		광고	(63)	4.1	(40)	4.3
		뮤직비디오	(5)	0.3	(3)	0.3
		기타	(89)	5.7	(51)	5.5
	음반/음원제작	음반/음원 제작	(288)	18.7	(163)	17.7
	공연물 제작	공연기획/제작사	(297)	19.3	(149)	16.2
		공연단체	(16)	1.0	(10)	1.1
	기타 제작	기타 제작	(46)	3.0	(46)	5.0

※ 결과분석 시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하므로 개별항목의 합계와 전체 합계(100.0%)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모집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특성별 응답업체수는 '±1'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3. 대중문화예술인

구분		표본 구성비		
		사례수(명)	비중(%)	
전체		<b>(743)</b>	<b>100.0</b>	
성별	남자	(449)	60.4	
	여자	(294)	39.6	
연령별	20대 미만	(40)	5.4	
	20대	(371)	49.9	
	30대	(257)	34.6	
	40대	(55)	7.4	
	50대 이상	(20)	2.7	
주요 활동 분야 (대분류)	연기	(195)	26.2	
	무용(춤)	(53)	7.1	
	연주	(106)	14.3	
	가창	(124)	16.7	
	낭독	(50)	6.7	
	기타	(215)	28.9	
주요 활동 분야 (소분류)	연기	연기자	(124)	16.7
		코미디언	(71)	9.6
	무용(춤)	댄서	(53)	7.1
	연주	연주가	(106)	14.3
	가창	가수	(124)	16.7
	낭독	DJ	(10)	1.3
		성우	(40)	5.4
	기타 분야	모델	(81)	10.9
		뮤지컬 배우	(82)	11.0
		공연예술가	(49)	6.6
		기타	(3)	0.4

## 4.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구분		표본 구성비		
		사례수(명)	비중(%)	
전체		(319)	100.0	
성별	남자	(198)	62.1	
	여자	(121)	37.9	
연령별	20대	(121)	37.9	
	30대	(140)	43.9	
	40대	(53)	16.6	
	50대 이상	(5)	1.6	
주요 활동 분야 (대분류)	기획	(52)	16.3	
	촬영	(57)	17.9	
	미술	(51)	16.0	
	음향	(50)	15.7	
	편집	(50)	15.7	
	기타	(59)	18.5	
주요 활동 분야 (소분류)	기획	기획/제작	(19)	6.0
		연출	(18)	5.6
		홍보 마케팅	(7)	2.2
		구성 작가	(8)	2.5
	촬영	촬영	(18)	5.6
		조명	(23)	7.2
		특수효과	(8)	2.5
		그립	(8)	2.5
	미술	미술	(21)	6.6
		의상	(10)	3.1
		분장	(10)	3.1
		소품	(10)	3.1
	음향	동시 녹음	(20)	6.3
		음향	(18)	5.6
		음악	(12)	3.8
	편집	편집	(25)	7.8
		특수영상	(15)	4.7
		DI	(10)	3.1
	기타	보조연기자	(59)	18.5







## 제2장 결과 요약



## 제2장 결과 요약

### 제1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부문

#### 1.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

##### 1) 전체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기획업의 경우 2조 5,840억 원으로 나타났고, 제작업은 2조 7,850억 원으로 나타남.
- 업체당 평균 매출 규모를 보면, 기획업은 13억 2,400만 원, 제작업은 18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남.

<표 2-1-1>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매출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준 연도	업체수(개)	전체 매출규모	평균 매출규모
기획업	2016년	1,952	2,584,083	1,324
	2015년	1,728	2,065,286	1,195
	2014년	1,393	1,504,126	1,080
제작업	2016년	1,541	2,785,010	1,850
	2015년	1,232	2,442,239	1,982
	2014년	1,240	2,345,118	1,891

\* 2014년도의 결과는 사후가중을 적용한 결과이며, 2015-2016년 결과는 체계적 모수추정(콜택, 평균, 회귀대체 등) 결과임. 본 조사는 격년조사이나, 2014~2016 3개년 결과로 분석하는 것이 추이 해석에 용이함.

#### 2) 분야별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

#####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매니지먼트 분야(출연료 등)의 매출 규모가 1조 2,334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업체 중 연관 콘텐츠 제작 분야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업체의 매출 규모는 7,871억 원으로 나타남.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표 2-1-2>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매니지먼트*	1,006,487	47.0	226,929	51.1	1,233,416	47.7
공연기획 및 제작	205,331	9.6	59,974	13.5	265,305	10.3
연관 콘텐츠 제작	687,005	32.1	100,191	22.6	787,196	30.5
파생상품(MD비즈니스)**	63,307	3.0	13,480	3.0	76,787	3.0
기타***	178,093	8.3	43,285	9.8	221,378	8.6
<b>전체</b>	<b>2,140,224</b>	<b>100.0</b>	<b>443,859</b>	<b>100.0</b>	<b>2,584,083</b>	<b>100.0</b>

\* 매니지먼트는 출연료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을 통한 매출

\*\*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상품제작 및 판매를 통한 매출(티셔츠, 컵, 필기구 등)

\*\*\* 기타는 캐스팅/섭외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아카데미 운영 수입 등

<표 2-1-3> 2015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매니지먼트	552,265	40.7	323,998	45.6	876,263	42.4
공연기획 및 제작	95,908	7.1	123,263	17.4	219,171	10.6
연관 콘텐츠 제작	555,549	41.0	163,119	23.0	718,668	34.9
파생상품(MD비즈니스)	51,444	3.8	29,409	4.1	80,853	3.9
기타	100,230	7.4	70,101	9.9	170,331	8.2
<b>전체</b>	<b>1,355,396</b>	<b>100.0</b>	<b>709,890</b>	<b>100.0</b>	<b>2,065,286</b>	<b>100.0</b>

\* 2016년 사업체 조사는 표본 조사로 진행되어, 분야별 매출규모는 전체 매출규모를 분야별 비중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2-1-4> 2014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매니지먼트	805,270	58.9	81,945	59.9	887,215	59.0
공연기획 및 제작	148,838	10.9	23,160	16.9	171,998	11.4
연관 콘텐츠 제작	286,118	20.9	24,690	18.1	310,808	20.7
파생상품(MD비즈니스)	6,389	0.5	704	0.5	7,092	0.5
기타	120,758	8.8	6,255	4.6	127,013	8.4
<b>전체</b>	<b>1,367,373</b>	<b>100.0</b>	<b>136,754</b>	<b>100.0</b>	<b>1,504,126</b>	<b>100.0</b>

\* 2015년도의 결과는 사후가중을 적용한 결과임.

- 기획업의 경우 2015년 대비 약 5천억 원 증가하였는데, 2015년 대비 2016년 기획업 등록 업체수가 224개 증가한 부분 외 상장 기획사 14개의 공시자료 기준 2014년 대비 3,718억 원, 2015년 대비 1,92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lt;표 2-1-5&gt; (참고) 대형 기획사(상장 업체)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no	업체명	전체 매출			증감액	
		2014.12월말 기준	2015.12월말 기준	2016.12월말 기준	'15년 대비	'14년 대비
1	YG엔터테인먼트	1,563	1,931	3,218	▲ 1,287	▲ 1,655
2	SM엔터테인먼트	2,870	3,222	3,499	▲ 277	▲ 629
3	키이스트	889	1,062	932	▽ 130	▲ 43
4	JYP엔터테인먼트	485	506	736	▲ 230	▲ 251
5	FNC엔터테인먼트	601	727	914	▲ 187	▲ 313
6	로엔엔터테인먼트**	309	485	508	▲ 23	▲ 199
7	팬엔터테인먼트	343	210	353	▲ 143	▲ 10
8	이매진아시아 (前 ㈜월메이드예당)	387	458	321	▽ 137	▽ 66
9	아이에이치큐	757	1,062	1,094	▲ 32	▲ 337
10	화이브라더스	152	207	291	▲ 84	▲ 139
11	판타지오	126	231	217	▽ 14	▲ 91
12	큐브엔터테인먼트	194	224	195	▽ 29	▲ 1
13	뿌리깊은 나무들	7	139	108	▽ 31	▲ 101
14	큐로홀딩스	131	148	146	▽ 2	▲ 15
합계		8,815	10,613	12,533	▲ 1,920	▲ 3,718

\* 출처: 각 업체별 전자공시 자료(Naver 금융 - 기업개요 - 기업실적분석)  
단, 자료가 미비한 경우 NICE 평가정보를 활용함.

\*\*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음원/음반 유통을 제외한 매출규모임.

(2)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 분야의 매출 규모가 2조 2,280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공연물 제작(뮤지컬 등)이 4,008억 원으로 나타났고, 음반/음원 제작이 760억 원으로 나타남.
- 한편, 매니지먼트,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 기타 사업에 대한 매출규모는 452억 원으로 나타남.

<표 2-1-6>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영상물 제작	2,173,313	80.2	54,700	74.2	2,228,013	80.0
음반/음원 제작*	76,065	2.8	0	0.0	76,065	2.7
공연물 제작	400,380	14.8	420	0.6	400,800	14.4
기타 제작**	14,648	0.5	0	0.0	14,648	0.5
기타 사업***	26,713	1.0	18,580	25.2	45,293	1.6
<b>전체</b>	<b>2,711,310</b>	<b>100.0</b>	<b>73,700</b>	<b>100.0</b>	<b>2,785,010</b>	<b>100.0</b>

\* 음반/음원제작 관련 매출은 계약 비율에 따라 유통사를 통해 되돌려 받은 판매수익의 일부임.  
 \*\* 기타 제작은 영유아종합콘텐츠 제작, 국가지원사업 제작 등임.  
 \*\*\* 기타 사업 분야는 매니지먼트,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임.

<표 2-1-7> 2015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영상물 제작	1,520,853	65.4	112,899	95.6	1,633,752	66.9
음반/음원 제작	112,439	4.8	1,068	0.9	113,507	4.6
공연물 제작	420,891	18.1	1,251	1.1	422,142	17.3
기타 제작	33,768	1.5	-	0.0	33,768	1.4
기타 사업	236,249	10.2	2,821	2.4	239,070	9.8
<b>전체</b>	<b>2,324,200</b>	<b>100.0</b>	<b>118,039</b>	<b>100.0</b>	<b>2,442,239</b>	<b>100.0</b>

\* 2016년 사업체 조사는 표본 조사로 진행되어, 분야별 매출규모는 전체 매출규모를 분야별 비중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2-1-8> 2014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영상물 제작	1,719,453	73.8	12,638	76.7	1,732,092	73.9
음반/음원 제작	90,439	3.9	659	4.0	91,098	3.9
공연물 제작	274,578	11.8	64	0.4	274,642	11.7
기타 제작	1,774	0.1	-	0.0	1,774	0.1
기타 사업	242,401	10.4	3,111	18.9	245,512	10.5
<b>전체</b>	<b>2,328,645</b>	<b>100.0</b>	<b>16,473</b>	<b>100.0</b>	<b>2,345,118</b>	<b>100.0</b>

\* 2015년도의 결과는 사후가중을 적용한 결과임.

### 3) 산업별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

#### (1) 매니지먼트 산업(출연료 등) 매출 규모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의 매니지먼트 분야(소속연예인의 출연료 등)에 대한 매출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나타남.
- 매니지먼트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 행사에 대한 매출 규모가 2,772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공연 출연이 2,691억 원, 드라마 출연이 2,382억 원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공연 분야(▲1,945억)와 기타 행사 활동 분야(▲2,011억)의 매출은 크게 상승한 반면, 광고 분야(▽628억)는 다소 하락한 수준을 보임.

<표 2-1-9> 매니지먼트 분야 매출 규모(산업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년 기준 산업별 매출액		2014년 기준 산업별 매출액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드라마 출연	238,232	19.3	262,802	29.6
영화 출연	122,939	10.0	118,618	13.4
광고(방송, 지면 광고 포함) 출연	19,084	15.5	253,644	28.6
공연(뮤지컬, 콘서트 등) 출연	269,173	21.8	74,637	8.4
기타 방송(MC, DJ, 예능인 등) 출연	134,957	10.9	101,372	11.4
기타 행사 활동	277,272	22.5	76,143	8.6
<b>전체</b>	<b>1,233,416</b>	<b>100.0</b>	<b>887,215</b>	<b>100.0</b>



## (2)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제작물 매출 규모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물 관련 전체 매출 규모는 3조 4,920억 원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 분야가 2조 5,127억 원, 음반/음원 제작 분야가 5,785억 원, 공연물 제작(뮤지컬 등) 분야가 4,008억 원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제작물 매출 규모는 1조 원 가량이 증가한 수준임.

<표 2-1-10>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물 매출 규모(산업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분야		전체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영상물 제작	284,738	36.2	2,228,013	82.4	2,512,751	72.0
음반/음원 제작	502,458	63.8	76,065	2.8	578,523	16.6
공연물 제작	-	0.0	400,800	14.8	400,800	11.5
<b>전체</b>	<b>787,196</b>	<b>100.0</b>	<b>2,704,879</b>	<b>100.0</b>	<b>3,492,075</b>	<b>100.0</b>

<표 2-1-11> 2014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물 매출 규모(산업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분야		전체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영상물 제작	170,023	54.7	1,732,092	82.6	1,902,115	79.0
음반/음원 제작	140,785	45.3	91,098	4.3	231,883	9.6
공연물 제작	-	0.0	274,642	13.1	274,642	11.4
<b>전체</b>	<b>310,808</b>	<b>100.0</b>	<b>2,097,832</b>	<b>100.0</b>	<b>2,408,640</b>	<b>100.0</b>

##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영상물 제작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화제작/방송 제작(광고 제외)/기타 영상물 제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영화제작은 기획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 매출 중 영화제작에 대한 비중과 제작업 분야의 영화제작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결과, 9,376억 원으로 나타남.
- ▶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며, 특히 제작업의 영화제작 매출규모가 크게 상승함.

<표 2-1-12> 영화제작 분야 매출 규모(산업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년 기준 매출액	2014년 기준 매출액
<b>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b>	<b>87,103</b>	<b>37,957</b>
- 영화제작	87,103	37,957
<b>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b>	<b>850,500</b>	<b>215,029</b>
- 영화제작	850,500	215,029
<b>전체</b>	<b>937,602</b>	<b>252,986</b>

- 방송제작은 기획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 매출 중 드라마 제작, 기타방송 제작에 대한 비중과 제작업 분야의 방송분야 제작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결과, 8,930억 원으로 나타남.
- ▶ 2014년 광고제외 방송제작 매출액과 비교해보면, ▽4,951억 원 가량 감소한 수준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획업의 기타방송 제작 매출은 약간 상승한 반면, 제작업의 경우는 ▽5,427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13> 방송제작 분야 매출 규모-광고제외(산업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년 기준 매출액	2014년 기준 매출액
<b>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b>	<b>168,675</b>	<b>121,152</b>
- 드라마 제작	63,611	67,577
- 기타 방송 제작*	105,064	53,575
<b>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b>	<b>724,401</b>	<b>1,267,107</b>
- 방송 분야	724,401	1,267,107
<b>전체</b>	<b>893,077</b>	<b>1,388,259</b>

\* 기타 방송 제작은 예능 프로그램 등임.

- 기타 영상물은 기획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 매출 중 광고 제작에 대한 비중과 제작업 분야의 애니메이션, 광고, 뮤직비디오, 기타 영상물 분야 제작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총 6,820억 원으로 나타남.
- ▶ 2014년 해당 매출액에 비해 ▲4,212억 원 가량이 늘어난 수준이며, 제작업체의 방송분야 매출액이 감소한 만큼 기타 영상물 제작의 매출액이 오른 것으로 보임.

&lt;표 2-1-14&gt; 기타 영상물 제작 분야 매출 규모(산업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년 기준 매출액	2014년 기준 매출액
<b>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b>	<b>28,960</b>	<b>10,913</b>
- 광고 제작	28,960	10,913
<b>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b>	<b>653,112</b>	<b>249,957</b>
- 애니메이션 분야	133,008	158,252
- 광고 분야	129,359	57,873
- 뮤직비디오 분야	113,957	6,493
- 기타 영상물 분야*	276,787	27,339
<b>전체</b>	<b>682,072</b>	<b>260,870</b>

\* 기타 영상물에는 공연영상, 행사촬영영상, 전시영상 등이 있음.

## 2. 대중문화예술산업 세부 인력 현황

###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 (1) 소속연예인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중 '소속연예인이 있다'는 업체는 77.3%(n=1,508), '소속연예인이 없다'는 업체는 22.7%(n=444)임.
- ▶ 2014년과 비교하면 소속연예인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지만, 업체수는 1,095개→1,508개로 늘어난 수준임.
- 소속연예인이 없다는 업체에는 '캐스팅 디렉터', '모델 에이전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2-1-15> 소속연예인 여부

(단위: %)

기준 연도	소속연예인 있음	소속연예인 없음	전체
<b>2016년</b>	<b>77.3</b> <b>(1,508개)</b>	<b>22.7</b> <b>(444개)</b>	<b>100.0</b> <b>(1,952개)</b>
2014년	78.6 (1,095개)	21.4 (298개)	100.0 (1,393개)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의 소속 연예인 전체 인력 규모는 8,059명으로 나타남.(n=1,508)
- 한편, 2016년 기준으로 업체당 소속연예인 평균 인원수는 5.3명임.
-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 분야(보컬, 댄스 등)가 4,028명, 연기자 분야가 3,078명, 모델 분야가 454명으로 나타남.

<표 2-1-16> 소속연예인 인력현황

(단위: 명, %)

기준 연도		2016년	2014년
업체수		1,508	1,095
연기자	인원 수(명)	3,078	3,053
	비율(%)	38.2	41.7
가수 (보컬, 댄스)	인원 수(명)	4,028	3,292
	비율(%)	50.0	44.9
코미디언	인원 수(명)	141	188
	비율(%)	1.7	2.6
모델	인원 수(명)	454	663
	비율(%)	5.6	9.0
기타*	인원 수(명)	358	131
	비율(%)	4.4	1.8
전체	인원 수(명)	<b>8,059</b>	<b>7,327</b>
	비율(%)	<b>100.0</b>	<b>100.0</b>
	평균 인원수(명)	<b>5.3</b>	<b>6.7</b>

\* 기타에는 성우, DJ, 기타 방송인 등이 있음.

&lt;표 2-1-17&gt; 소속연예인 세부 인력현황

(단위: 명, %)

주요분야	전체	성별		연령					
		남	여	만19세 이하	만20~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세 이상	
연기자	인원 수	3,078	1,751	1,327	137	1,275	1,051	448	167
	비율	100.0	56.9	43.1	4.5	41.4	34.1	14.6	5.4
가수 (보컬 댄스)	인원 수	4,028	2,352	1,676	151	2,553	1,018	239	67
	비율	100.0	58.4	41.6	3.7	63.4	25.3	5.9	1.7
코미디언	인원 수	141	101	40	0	28	84	24	5
	비율	100.0	71.6	28.4	0.0	19.9	59.6	17.0	3.5
모델	인원 수	454	191	263	53	346	48	2	5
	비율	100.0	42.1	57.9	11.7	76.2	10.6	0.4	1.1
기타*	인원 수	358	227	131	5	82	195	66	10
	비율	100.0	63.4	36.6	1.4	22.9	54.5	18.4	2.8
전체	인원 수	<b>8,059</b>	<b>4,622</b>	<b>3,437</b>	<b>346</b>	<b>4,284</b>	<b>2,396</b>	<b>779</b>	<b>254</b>
	비율	<b>100.0</b>	<b>57.4</b>	<b>42.6</b>	<b>4.3</b>	<b>53.2</b>	<b>29.7</b>	<b>9.7</b>	<b>3.2</b>

\* 기타에는 성우, DJ, 기타 방송인 등이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된 구인 경로는 '주변 소개'(48.8%), '자체오디션'(4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2-1-18&gt;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된 구인 경로

(단위 : %)

		사례수	주변 소개	자체 오디션	외부 오디션 입상자	길거리 캐스팅	기타*	향후 결정할 예정임	계
전체		<b>(1508)</b>	<b>48.8</b>	<b>42.9</b>	<b>1.7</b>	<b>0.5</b>	<b>4.1</b>	<b>2.0</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296)	51.5	35.3	2.4	0.8	3.8	6.2	100.0
	2~5인 미만	(620)	52.6	40.9	1.5	0.2	3.6	1.1	100.0
	5~10인 미만	(369)	46.1	46.2	1.4	0.3	5.3	0.6	100.0
	10인 이상	(223)	39.2	52.7	2.0	1.2	3.5	1.4	100.0
2014년 기준		(1,095)	52.0	40.3	1.7	1.4	1.7	3.0	100.0

\*기타는 에이전시를 통한 소개, 해외 캐스팅 등임.

\*\*소속 직원 수 1인에는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도 해당됨.

-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음'이 84.0%,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이 11.5%, '구두 계약'이 1.5%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계약서 사용비중이 다소 증가한 수준을 보임.

<표 2-1-19>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단위: %)

		사례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b>전체</b>		<b>(1508)</b>	<b>84.0</b>	<b>11.5</b>	<b>1.5</b>	<b>3.1</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296)	78.7	11.4	2.4	7.5	100.0
	2~5인 미만	(620)	83.7	11.6	1.3	3.3	100.0
	5~10인 미만	(369)	85.3	13.3	1.4	0.0	100.0
	10인 이상	(223)	89.5	8.1	0.7	1.7	100.0
2014년 기준		(1,095)	72.8	18.5	4.5	4.1	100.0

-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갱신된 계약 기준으로 소속연예인과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계약기간'이 약 2년 7개월(31.4개월), '최대 계약기간'이 약 5년 3개월(63.3개월), '평균 계약 기간'이 약 3년 8개월(44.9개월)로 나타남.

## (2) 소속연습생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중 '소속연습생이 있다'는 업체는 13.4%(261개)로 나타났고, 소속연습생수는 전체 1,440명으로 나타남.
- ▶ 소속연습생이 있는 업체의 비율은 2014년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전체 업체수 기준으로는 약간 상승한 수준임.

&lt;표 2-1-20&gt; 소속연습생 여부

(단위: 명, %)

기준 연도	소속연습생 있음	소속연습생 없음	전체
2016년	<b>13.4</b> (261개)	<b>86.6</b> (1,691개)	<b>100.0</b> (1,952개)
2014년	18.2 (253개)	81.8 (1,140개)	100.0 (1,393개)

- 성별로는 남자가 750명, 여자가 690명이며, 연령별로는 만 10~12세가 15명, 만 13~15세가 118명, 만 16~19세가 529명, 만 20세 이상이 775명임.
- ▶ 2015년 결과에 비해 240명 증가하였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보컬, 댄스 등) 분야가 1,079명, 연기자 분야가 352명, 모델 분야가 3명으로 나타남.

&lt;표 2-1-21&gt; 2016년 소속연습생 인력현황

(단위: 명, %)

주요 분야	전체	성별		연령 <sup>1)</sup>					
		남	여	만 9세 미만	만 10~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만 19세 이상	
연기자	인원 수(명)	352	184	168	1	1	15	69	266
	비율(%)	100.0	52.3	47.7	0.3	0.3	4.3	19.6	75.6
가수 (보컬, 댄스)	인원 수(명)	1,079	560	519	0	14	103	460	502
	비율(%)	100.0	51.9	48.1	0.0	1.3	9.5	42.6	46.5
모델	인원 수(명)	3	1	2	2	0	0	0	1
	비율(%)	100.0	33.3	66.7	66.7	0.0	0.0	0.0	33.3
기타 <sup>2)</sup>	인원 수(명)	6	5	1	0	0	0	0	6
	비율(%)	100.0	83.3	16.7	0.0	0.0	0.0	0.0	100.0
전체	인원 수(명)	<b>1,440</b>	<b>750</b>	<b>690</b>	<b>3</b>	<b>15</b>	<b>118</b>	<b>529</b>	<b>775</b>
	비율(%)	<b>100.0</b>	<b>52.1</b>	<b>47.9</b>	<b>0.2</b>	<b>1.0</b>	<b>8.2</b>	<b>36.7</b>	<b>53.8</b>

1) 연령대 구간이 2014년 기준과 다름.

2) 기타에는 기타 방송인이 있음.

<표 2-1-22> 2014년 소속연습생 인력현황

(단위: 명, %)

주요분야	전체	성별		연령					
		남	여	만 9세 이하	만10~12세	만13~16세	만16~19세	만20세 이상	
연기자	인원 수(명)	402	211	191	6	10	41	77	268
	비율(%)	100.0	52.5	47.5	1.5	2.5	10.2	19.2	66.7
가수 (보컬, 댄스)	인원 수(명)	765	365	400	-	13	42	154	556
	비율(%)	100.0	47.7	52.3	0.0	1.7	5.5	20.1	72.7
모델	인원 수(명)	27	14	13	4	-	-	-	23
	비율(%)	100.0	51.9	48.1	14.8	0.0	0.0	0.0	85.2
기타*	인원 수(명)	6	6	-	-	-	-	-	6
	비율(%)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인원 수(명)	<b>1,200</b>	<b>596</b>	<b>604</b>	<b>10</b>	<b>23</b>	<b>83</b>	<b>231</b>	<b>853</b>
	비율(%)	<b>100.0</b>	<b>49.7</b>	<b>50.3</b>	<b>0.8</b>	<b>1.9</b>	<b>6.9</b>	<b>19.3</b>	<b>71.1</b>

○ 소속연습생에 대한 교육사항으로는 가창이 73.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춤'(68.2%), '연기(발성 포함)'(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방식은 '병행(직접+위탁 교육) 교육'이 59.0%로 가장 많았음.

<표 2-1-23> 소속연습생 교육 사항(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가창	춤	연기 (발성 포함)	인성 교육	신체 훈련	시나 리오 분석	어학	교양 (시사 상식)	화술	워킹	기타*
전체		(261)	73.3	68.2	58.2	55.0	41.2	23.8	21.0	19.8	19.1	5.3	3.7
소속 직원 수	1인	(17)	71.7	57.7	34.4	26.3	42.3	26.6	0.0	20.2	6.2	0.0	0.0
	2~5인 미만	(94)	71.8	63.2	61.3	58.3	37.4	23.9	20.2	12.2	12.3	1.8	4.9
	5~10인 미만	(71)	69.4	66.8	69.9	59.6	39.0	28.5	18.7	29.1	32.9	5.4	0.0
	10인 이상	(79)	78.8	77.5	49.3	53.1	47.3	18.8	28.4	20.3	17.8	10.3	6.4
2014년 기준		(253)	72.1	57.4	63.0	66.5	43.3	30.5	34.3	28.3	27.4	9.4	7.5

\* 기타에는 작곡/편곡, 악기연주 등이 있음



- 소속연습생 월평균 1인당 지출 비용은 평균 118.2만원, 이 중 교육비는 78.2만원으로 나타남.
- ▶ 2014년 기준 결과와 비교해보면 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과 교육비용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값은 동일하게 나타남.

&lt;표 2-1-24&gt; 소속연습생 지출 비용: (1)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

(단위 : 만원)

	사례수	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		월평균 1인당 교육비용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b>전체</b>	<b>(261)</b>	<b>118.2</b>	<b>100.0</b>	<b>78.2</b>	<b>70.0</b>	
소속 직원 수	1인	(17)	99.0	100.0	83.1	75.2
	2~5인 미만	(94)	107.2	100.0	65.1	70.0
	5~10인 미만	(71)	129.1	100.0	80.6	80.0
	10인 이상	(79)	125.6	100.0	90.4	80.0
2014년 기준	(253)	147.6	100.0	90.7	70.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 소속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은 69.1%로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2개월(38.8개월)임.

&lt;표 2-1-25&gt; 소속연습생 계약서 작성여부

(단위 : %)

	사례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계	
<b>전체</b>	<b>(261)</b>	<b>69.1</b>	<b>30.9</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17)	70.3	29.7	100.0
	2~5인 미만	(94)	65.6	34.4	100.0
	5~10인 미만	(71)	63.4	36.6	100.0
	10인 이상	(79)	78.0	22.0	100.0
2014년 기준	(253)	66.8	33.2	100.0	

(3) 소속직원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의 소속직원 전체 인력 규모는 12,935명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살펴보면, 매니저 분야가 4,060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관리 분야가 2,986명, 기획 분야가 2,850명으로 나타남.

<표 2-1-26> 소속직원 인력현황

(단위: 명, %)

기준 연도		2016년	2014년
업체수(개)		1,952	1,393
매니저	인원 수(명)	4,060	2,829
	비율(%)	31.4	35.3
기획	인원 수(명)	2,850	1,814
	비율(%)	22.0	22.6
제작	인원 수(명)	1,657	848
	비율(%)	12.8	10.6
트레이닝	인원 수(명)	469	492
	비율(%)	3.6	6.1
경영관리	인원 수(명)	2,986	1,657
	비율(%)	23.1	20.7
기타*	인원 수(명)	913	374
	비율(%)	7.1	4.7
전체	인원 수(명)	<b>12,935</b>	<b>8,014</b>
	비율(%)	<b>100.0</b>	<b>100.0</b>
	평균 인원수(명)	<b>6.6</b>	<b>5.7</b>

\* 기타에는 웹사이트 개발자, 기타직무 등이 있음

<표 2-1-27> 2016년 기준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

(단위: 명, %)

주요분야	전체	성별		연령				고용형태		
		남	여	만29세 이하	만30~39세	만40~49세	만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매니저	인원 수	4,060	3,234	826	1,659	1,916	441	44	3,569	491
	비율	100.0	79.7	20.3	40.9	47.2	10.9	1.1	87.9	12.1
기획	인원 수	2,850	1,321	1,529	1,036	1,214	488	112	2,616	234
	비율	100.0	46.4	53.6	36.4	42.6	17.1	3.9	91.8	8.2
제작	인원 수	1,657	1,183	474	431	875	305	46	1,340	317
	비율	100.0	71.4	28.6	26.0	52.8	18.4	2.8	80.9	19.1
트레이닝	인원 수	469	263	206	180	222	60	7	270	199
	비율	100.0	56.1	43.9	38.4	47.3	12.8	1.5	57.6	42.4
경영관리	인원 수	2,986	1,327	1,659	1,007	1,139	656	184	2,572	414
	비율	100.0	44.4	55.6	33.7	38.1	22.0	6.2	86.1	13.9
기타*	인원 수	913	481	432	271	426	179	37	689	224
	비율	100.0	52.7	47.3	29.7	46.7	19.6	4.1	75.5	24.5
전체	인원 수	<b>12,935</b>	<b>7,809</b>	<b>5,126</b>	<b>4,584</b>	<b>5,792</b>	<b>2,129</b>	<b>430</b>	<b>11,056</b>	<b>1,879</b>
	비율	<b>100.0</b>	<b>60.4</b>	<b>39.6</b>	<b>35.4</b>	<b>44.8</b>	<b>16.5</b>	<b>3.3</b>	<b>85.5</b>	<b>14.5</b>

-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이 72.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이 9.7%, '구두 계약'이 5.9%로 나타남.
- ▶ 2014년에 비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증가한 반면, 일부조항 변경 계약, 구두계약, 미계약 비율은 감소하였음.

&lt;표 2-1-28&gt;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단위 : %)

		사례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b>전체</b>		<b>(1,952)</b>	<b>72.2</b>	<b>9.7</b>	<b>5.9</b>	<b>12.2</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445)	60.8	9.3	2.9	26.9	100.0
	2~5인 미만	(771)	70.5	10.6	7.3	11.5	100.0
	5~10인 미만	(453)	75.7	11.0	8.8	4.5	100.0
	10인 이상	(283)	89.0	5.9	2.2	2.9	100.0
2014년 기준		(1,393)	53.0	14.0	13.6	19.4	100.0

- 소속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은 평균 81.1%로 나타났으며, 주된 구인경로는 '지인추천'(45.0%)과 '공채(구인 사이트 포함)'(44.6%)로 나타남.

&lt;표 2-1-29&gt;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

		사례수	50% 미만	50%~ 80%미만	80% 이상	계	평균 (%)
<b>전체</b>		<b>(1,952)</b>	<b>15.8</b>	<b>12.2</b>	<b>72.0</b>	<b>100.0</b>	<b>81.1</b>
소속 직원 수	1인	(445)	13.4	0.2	86.3	100.0	86.5
	2~5인 미만	(771)	20.5	19.7	59.7	100.0	75.0
	5~10인 미만	(453)	14.8	11.9	73.3	100.0	82.1
	10인 이상	(283)	8.5	11.0	80.5	100.0	88.1
2014년 기준		(1,393)	12.7	13.7	73.6	100.0	84.2

&lt;표 2-1-30&gt;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기획업 분야)

(단위 : %)

		사례수	지인 추천	공채 (구인 사이트 포함)	특채	에이전시를 통해	기타*	계
<b>전체</b>		<b>(1,952)</b>	<b>45.0</b>	<b>44.6</b>	<b>4.0</b>	<b>0.1</b>	<b>6.2</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445)	51.4	27.7	1.1	0.0	19.8	100.0
	2~5인 미만	(771)	57.7	32.1	7.3	0.0	2.9	100.0
	5~10인 미만	(453)	36.6	59.0	2.5	0.4	1.5	100.0
	10인 이상	(283)	13.7	82.3	2.5	0.0	1.6	100.0
2014년 기준		(1,393)	50.4	38.7	5.2	0.5	5.2	100.0

\* 기타에는 1인 기업이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2)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분야

(1) 소속직원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소속직원수는 전체 20,019명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작 분야가 9,831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기획 분야 3,964명, 마케팅/홍보 분야 2,827명 순임.

<표 2-1-31> 제작 분야 인력현황

(단위: 명, %)

기준 연도		2016년	2014년
업체수(개)		<b>1,541</b>	<b>1,240</b>
사업 기획	인원 수(명)	3,964	3,498
	비율(%)	19.8	21.6
제작	인원 수(명)	9,831	8,624
	비율(%)	49.1	53.3
마케팅/홍보	인원 수(명)	2,827	1,857
	비율(%)	14.1	11.5
경영 관리	인원 수(명)	2,471	1,873
	비율(%)	12.3	11.6
기타*	인원 수(명)	926	330
	비율(%)	4.6	2.0
전체	인원 수(명)	<b>20,019</b>	<b>16,182</b>
	비율(%)	<b>100.0</b>	<b>100.0</b>
	평균 인원수(명)	<b>12.9</b>	<b>13.1</b>

\* 기타는 단순 업무 보조 인력임.

<표 2-1-32> 소속직원 인력현황

(단위: 명)

주요분야	전체	성별		연령				고용형태		
		남	여	만29세 이하	만30~39세	만40~49세	만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사업기획	인원 수	3,964	2,760	1,204	725	1,423	1,296	519	3,858	106
	비율	100.0	69.6	30.4	18.3	35.9	32.7	13.1	97.3	2.7
제작	인원 수	9,831	6,230	3,601	2,517	4,074	2,601	639	8,636	1,195
	비율	100.0	63.4	36.6	25.6	41.4	26.5	6.5	87.8	12.2
마케팅/홍보	인원 수	2,827	1,446	1,381	786	1,245	617	179	2,649	178
	비율	100.0	51.1	48.9	27.8	44.0	21.8	6.3	93.7	6.3
경영관리	인원 수	2,471	1,248	1,223	613	886	694	278	2,361	110
	비율	100.0	50.5	49.5	24.8	35.9	28.1	11.3	95.5	4.5
기타*	인원 수	926	587	339	237	364	230	95	584	342
	비율	100.0	63.4	36.6	25.6	39.3	24.8	10.3	63.1	36.9
전체	인원 수	<b>20,019</b>	<b>12,271</b>	<b>7,748</b>	<b>4,880</b>	<b>7,993</b>	<b>5,436</b>	<b>1,710</b>	<b>18,088</b>	<b>1,931</b>
	비율	<b>100.0</b>	<b>61.3</b>	<b>38.7</b>	<b>24.4</b>	<b>39.9</b>	<b>27.2</b>	<b>8.5</b>	<b>90.4</b>	<b>9.6</b>

-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이 77.7%,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이 10.5%, '구두 계약'이 10.4%로 나타남.  
▶ 2014년에 비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큰 폭(▲18.2%p)으로 상승함.

&lt;표 2-1-33&gt;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단위 : %)

		사례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b>전체</b>		<b>(1,541)</b>	<b>77.7</b>	<b>10.5</b>	<b>10.4</b>	<b>1.3</b>	<b>100.0</b>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71.1	11.1	16.1	1.6	100.0
	5~10인 미만	(280)	83.2	11.3	3.7	1.9	100.0
	10~30인 미만	(205)	92.9	7.1	0.0	0.0	100.0
	30인 이상	(127)	89.5	10.5	0.0	0.0	100.0
2014년 기준		(1,240)	59.5	11.6	10.8	18.1	100.0

- 소속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은 평균 95.4%로 나타났으며, 주된 구인경로로는 '공채(구인 사이트 포함)'(68.5%)와 '지인추천'(23.5%)으로 나타남.

&lt;표 2-1-34&gt;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

		사례수	50% 미만	50%~80%미만	80% 이상	계	평균 (%)
<b>전체</b>		<b>(1,541)</b>	<b>2.9</b>	<b>3.5</b>	<b>93.6</b>	<b>100.0</b>	<b>95.4</b>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1.8	3.1	95.1	100.0	97.2
	5~10인 미만	(280)	5.0	5.0	90.0	100.0	93.5
	10~30인 미만	(205)	4.6	1.6	93.7	100.0	93.4
	30인 이상	(127)	3.9	5.9	90.1	100.0	89.7
2014년 기준		(1,240)	5.4	8.6	85.9	100.0	91.9

&lt;표 2-1-35&gt;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단위 : %)

		사례수	공채 (구인 사이트 포함)	지인 추천	특채	기타*	아직 계획 없음	계
<b>전체</b>		<b>(1,541)</b>	<b>68.5</b>	<b>23.5</b>	<b>2.9</b>	<b>0.4</b>	<b>4.7</b>	<b>100.0</b>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57.8	29.9	4.0	0.5	7.9	100.0
	5~10인 미만	(280)	78.1	20.7	0.6	0.6	0.0	100.0
	10~30인 미만	(205)	87.0	10.1	2.9	0.0	0.0	100.0
	30인 이상	(127)	95.9	4.1	0.0	0.0	0.0	100.0
2014년 기준		(1,240)	50.2	42.1	4.4	0.3	3.0	100.0

\* 교육기관 추천, 기타 모임

-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해당분야 업무 경력'(79.3%), '채용면접 시 태도'(7.1%), '해당분야 전공여부'(7.0%) 순으로 나타남.

<표 2-1-36>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1순위)

(단위 : %)

		사례수	해당분야 업무 경력	채용 면접 시 태 도	해당분야 전 공여부	수상경력	기타*	계
<b>전체</b>		<b>(1,541)</b>	<b>79.3</b>	<b>7.1</b>	<b>7.0</b>	<b>0.8</b>	<b>5.8</b>	<b>100.0</b>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75.2	9.4	5.9	1.1	8.4	100.0
	5~10인 미만	(280)	88.9	4.9	3.0	0.0	3.1	100.0
	10~30인 미만	(205)	91.0	2.2	4.9	1.2	0.7	100.0
	30인 이상	(127)	69.7	2.6	27.7	0.0	0.0	100.0
2014년 기준		(1,240)	63.7	19.0	10.0	2.7	4.6	100.0

\* 기타에는 인성, 해당분야 능력 등이 포함됨.

-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저임금 회피'(17.7%),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14.0%), '신규 채용인력 부족'(8.7%) 순으로 나타남.

<표 2-1-37>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저임금 회피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	신규 채용 인력 부족	인력 정보 부족	업무 특성 상 기피	기타*	어려움 없음	계
<b>전체</b>		<b>(1,541)</b>	<b>17.7</b>	<b>14.0</b>	<b>8.7</b>	<b>2.2</b>	<b>1.2</b>	<b>0.8</b>	<b>55.3</b>	<b>100.0</b>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20.5	14.7	10.0	2.0	1.3	0.8	50.7	100.0
	5~10인 미만	(280)	16.1	13.6	4.8	3.0	2.4	1.3	58.6	100.0
	10~30인 미만	(205)	16.7	11.9	8.1	1.6	0.0	0.0	61.6	100.0
	30인 이상	(127)	2.5	13.6	8.2	3.2	0.0	1.4	71.1	100.0
전체		(1,240)	17.8	16.9	15.5	6.9	4.3	0.5	38.2	100.0

\* 기타는 잦은 이직, 수요/공급이 맞지 않음 등이 있음.

## (2) 프리랜서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분야의 프리랜서 전체 인력 규모는 12,266명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 분야가 9,007명, 공연물 제작 분야가 1,910명, 음반/음원 제작 분야가 280명으로 나타남.

&lt;표 2-1-38&gt; 프리랜서 인력현황

(단위: 명, %)

주요 분야	인원수	영상물 제작								음반/음원 제작	공연물 제작	기타 제작
		소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뮤직 비디오	영상물 기타				
2016	인원 수	12,266	9,007	5,413	1,497	1,438	491	2	165	280	1,910	1,070
	비율	100.0	73.4	44.1	12.2	11.7	4.0	0.0	1.3	2.3	15.6	8.7
2014	인원 수	22,961	14,932	9,621	2,314	1,771	832	34	360	3,801	3,858	370
	비율	100.0	65.0	41.9	10.1	7.7	3.6	0.1	1.6	16.6	16.8	1.6

- 프리랜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은 평균 7.91%로 나타남.

&lt;표 2-1-39&gt;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

		사례수	가입안함	가입함	계	평균
전체		(472)	89.4	10.6	100.0	7.91
소속 직원 수	1인	(259)	87.9	12.1	100.0	9.54
	2~5인 미만	(101)	91.7	8.3	100.0	4.31
	5~10인 미만	(76)	94.0	6.0	100.0	4.48
	10인 이상	(35)	83.5	16.5	100.0	13.61

### 3.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타 사항<sup>10)</sup>

#### 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우위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회사(매니지먼트)의 역량(기획력)'(43.9%), '관련 분야의 콘텐츠'(20.8%) '연예인의 역량'(19.6%)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중복응답) '회사(매니지먼트)의 역량(기획력)'(60.7%), '관련 분야의 콘텐츠'(44.6%), '연예인의 역량'(40.1%) 순임.

<표 2-1-40>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순위)

(단위 : %)

		사례수	회사의 역량 (기획력)	관련 분야 콘텐츠	연예인의 역량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부의 정책 지원	기타*	계
<b>전체</b>		<b>(1,952)</b>	<b>43.9</b>	<b>20.8</b>	<b>19.6</b>	<b>7.9</b>	<b>4.5</b>	<b>3.4</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445)	38.0	18.9	18.6	11.1	6.6	6.8	100.0
	2~5인 미만	(771)	41.2	20.2	21.9	8.8	5.0	2.8	100.0
	5~10인 미만	(453)	46.0	21.0	22.2	5.4	3.8	1.6	100.0
	10인 이상	(283)	57.2	24.7	10.6	4.6	0.8	2.0	100.0
2014년 기준		(1,393)	47.4	24.1	17.6	7.5	3.2	0.3	100.0

\* 기타에는 유통시스템, 자본금, 인맥 등이 있음.

<표 2-1-41>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2순위<sup>11)</sup>,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회사의 역량 (기획력)	관련 분야 콘텐츠	연예인의 역량	시장변화 에 대한 적응력	정부의 정책 지원	기타
<b>전체</b>		<b>(1,952)</b>	<b>60.7</b>	<b>44.6</b>	<b>40.1</b>	<b>21.6</b>	<b>8.3</b>	<b>3.4</b>
소속 직원 수	1인	(445)	52.2	39.8	34.0	20.4	12.5	6.8
	2~5인 미만	(771)	59.6	45.4	40.2	22.5	8.9	2.8
	5~10인 미만	(453)	66.3	51.4	39.6	19.2	7.4	1.6
	10인 이상	(283)	68.4	39.1	50.5	24.7	1.5	2.0
2014년 기준		(1,393)	69.3	44.5	48.7	22.8	8.1	0.7

10)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대상 조사결과임.

11) 1+2순위 응답률은 '1순위'와 '2순위'응답률의 단순 누적 결과이며, 이하 동일함.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투자재원의 부족'(43.4%), '협소한 내수시장'(29.0%), '역량있는 인력의 부족'(16.0%)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중복응답) '협소한 내수시장'(61.4%), '투자재원의 부족'(57.5%), '역량있는 인력의 부족'(34.5%) 순임.

&lt;표 2-1-42&gt;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순위)

(단위 : %)

		사례수	투자 재원의 부족	협소한 내수 시장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	정부의 규제	사회적 이미지	기타*	계
<b>전체</b>		<b>(1,952)</b>	<b>43.4</b>	<b>29.0</b>	<b>16.0</b>	<b>4.9</b>	<b>3.2</b>	<b>3.6</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445)	34.6	33.5	14.8	6.7	1.9	8.6	100.0
	2~5인 미만	(771)	48.9	27.6	13.7	3.8	3.6	2.4	100.0
	5~10인 미만	(453)	46.2	27.0	17.5	4.3	3.1	2.0	100.0
	10인 이상	(283)	37.9	29.0	21.6	5.8	4.2	1.4	100.0
2014년 기준		(1,393)	44.9	32.0	10.7	8.5	3.2	0.7	100.0

\* 기타에는 비현실적 정책, 대형기획사의 시장장악, 문화예술계 양극화 등이 있음.

&lt;표 2-1-43&gt;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협소한 내수 시장	투자 재원의 부족	역량있는 인력의 부족	정부의 규제	사회적 이미지	기타
<b>전체</b>		<b>(1,952)</b>	<b>61.4</b>	<b>57.5</b>	<b>34.5</b>	<b>11.5</b>	<b>6.8</b>	<b>4.4</b>
소속 직원 수	1인	(445)	59.5	49.5	27.2	11.5	4.5	9.7
	2~5인 미만	(771)	60.6	64.6	32.6	8.5	7.4	3.4
	5~10인 미만	(453)	59.8	59.1	41.3	13.9	8.3	2.5
	10인 이상	(283)	69.4	48.3	40.3	16.0	6.8	2.0
2014년 기준		(1,393)	69.5	65.2	28.5	18.7	8.4	2.0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22.1%),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19.7%),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중복응답)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34.0%),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 (32.0%),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30.3%) 순임.

<표 2-1-44>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해외 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해외 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신	낮은 해외 인지도	물리적 시간 투자 부담	기타*	계
<b>전체</b>		<b>(1,952)</b>	<b>22.1</b>	<b>19.7</b>	<b>16.3</b>	<b>10.3</b>	<b>6.3</b>	<b>4.7</b>	<b>3.7</b>	<b>16.9</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445)	17.3	15.5	14.9	9.0	4.5	4.7	4.2	29.8	100.0
	2~5인 미만	(771)	22.7	17.8	18.7	10.2	6.1	4.2	3.2	17.2	100.0
	5~10인 미만	(453)	27.5	22.6	16.7	11.2	6.3	6.5	2.9	6.1	100.0
	10인 이상	(283)	19.2	26.6	11.6	11.2	9.5	3.4	5.4	13.1	100.0
2014년 기준		(1,393)	31.2	20.0	19.9	11.7	6.8	5.3	4.2	0.8	100.0

\* 기타에는 정치갈등, 언어 문제, 정부의 규제 등이 있음(없음 14.3%도 포함됨).

<표 2-1-45>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해외 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신	물리적 시간 투자 부담	낮은 해외 인지도	기타
<b>전체</b>		<b>(1,952)</b>	<b>34.0</b>	<b>32.0</b>	<b>30.3</b>	<b>29.0</b>	<b>14.7</b>	<b>8.8</b>	<b>8.6</b>	<b>17.2</b>
소속 직원 수	1인	(445)	27.7	29.4	22.8	22.3	10.0	8.8	8.5	29.8
	2~5인 미만	(771)	31.5	34.9	27.7	30.6	13.7	8.8	9.1	17.7
	5~10인 미만	(453)	40.5	33.2	34.2	36.4	17.3	8.3	9.6	6.1
	10인 이상	(283)	40.1	26.2	42.6	23.5	20.5	9.7	5.9	13.5
2014년 기준		(1,393)	43.4	40.9	35.7	29.4	15.8	14.4	12.1	1.2

## 2) 정부의 지원 사항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정책자금 지원'(52.5%), '세금 감면'(13.8%), '홍보 및 마케팅 지원'(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중복응답) '정책자금 지원'(62.5%), '세금 감면'(33.0%),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1.1%) 순임.

&lt;표 2-1-46&gt;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정책자금 지원	세금 감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법/제도 체계 정비	시장정보 지원	관련분야의 행정전문성 확보	관련분야 기술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률상담 지원	기타*	계
전체		(1,952)	52.5	13.8	7.7	6.5	5.1	4.7	3.7	1.4	1.3	3.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47.5	13.7	9.0	7.6	5.4	2.6	4.6	0.5	1.1	8.1	100.0
	2~5인 미만	(771)	56.6	14.3	8.4	5.3	4.3	4.1	2.8	1.3	0.8	2.0	100.0
	5~10인 미만	(453)	55.8	11.7	5.7	6.3	3.6	6.2	4.0	3.1	2.5	1.2	100.0
	10인 이상	(283)	43.8	15.7	7.2	8.3	9.3	7.4	4.2	0.7	0.9	2.6	100.0
2014년 기준		(1,393)	54.0	12.3	9.4	6.4	4.3	5.0	4.0	1.5	2.0	1.1	100.0

\* 기타에는 공정 경쟁유도, 공정한 음원 수익 분배 등이 있음.

&lt;표 2-1-47&gt;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정책자금 지원	세금 감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법/제도 체계 정비	관련분야의 행정전문성 확보	시장정보 지원	관련분야 기술 지원	법률상담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타
전체		(1,952)	62.5	33.0	31.1	13.9	13.8	12.1	8.1	4.0	3.2	3.8
소속 직원 수	1인	(445)	57.2	28.7	30.6	14.5	10.6	11.4	7.8	3.5	1.3	9.3
	2~5인 미만	(771)	68.1	34.1	32.6	13.4	12.8	10.8	6.3	2.5	3.3	2.6
	5~10인 미만	(453)	65.5	33.8	29.1	13.0	14.9	12.2	10.8	6.9	4.4	1.2
	10인 이상	(283)	51.0	35.9	30.6	16.0	19.6	16.9	8.7	4.3	4.0	2.6
2014년 기준		(1,393)	64.2	35.0	31.6	16.2	13.9	12.5	11.4	4.2	3.5	2.2

- 해외 진출 관련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해외마케팅 지원'(31.5%), '저작권 보호'(27.2%),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중복응답) '해외마케팅 지원'(53.0%),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48.2%), '저작권 보호'(33.6%) 등의 순임.

<표 2-1-48>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해외마케팅 지원	저작권 보호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정부의 미개입	기타*	계
전체		(1,952)	31.5	27.2	18.3	11.5	3.2	8.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25.7	24.7	17.2	10.9	3.6	18.0	100.0
	2~5인 미만	(771)	32.3	26.2	18.8	11.4	4.3	7.1	100.0
	5~10인 미만	(453)	35.7	29.2	18.8	12.2	2.1	2.1	100.0
	10인 이상	(283)	31.7	31.1	17.8	11.6	1.3	6.5	100.0
2014년 기준		(1,393)	28.8	32.5	20.4	14.2	3.5	0.7	100.0

\* 기타에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이 있음.

<표 2-1-49>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저작권 보호	해외시장 정보 제공	정부의 미개입	기타
전체		(1,952)	53.0	48.2	33.6	27.4	5.9	8.8
소속 직원 수	1인	(445)	43.1	38.4	30.4	24.9	7.1	18.0
	2~5인 미만	(771)	55.3	49.0	32.0	28.7	6.1	7.6
	5~10인 미만	(453)	56.2	56.0	38.0	27.1	5.0	2.9
	10인 이상	(283)	56.8	48.8	36.3	28.5	5.0	7.0
2014년 기준		(1,393)	55.6	53.5	42.5	30.8	8.3	1.5

##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부문

## 1. 대중문화예술인

## 1) 대중문화예술활동

-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응답자의 해당 분야 총 활동 경력은 평균 7년 1개월(84.8개월)로 나타남.  
 - 주요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주 분야'가 평균 12년 5개월(149.2개월)로 가장 길었고, '기타 분야'가 평균 5년 6개월(54.7개월)로 가장 짧았음.

&lt;표 2-2-1&gt; 해당 분야 총 활동 경력

(단위: %, 개월)

		사례수(명)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 (개월)
전체*		(743)	30.1	19.0	23.6	27.3	100.0	84.8
주요 활동**	연기	(195)	30.3	19.5	23.1	27.2	100.0	77.7
	무용(춤)	(53)	15.1	28.3	34.0	22.6	100.0	86.7
	연주	(106)	11.3	8.5	25.5	54.7	100.0	149.2
	가창	(124)	27.4	21.8	26.6	24.2	100.0	78.6
	낭독***	(50)	12.0	28.0	20.0	40.0	100.0	119.0
	기타****	(215)	48.8	17.7	19.5	14.0	100.0	54.7
2014년 기준		(735)	22.4	23.4	27.5	26.7	100.0	104.7

\* 2016년 총 활동 경력의 경우, 경력년수별로 유사한 사례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간을 재설정하였음.

\*\* 대중문화분류체계에 의한 구분임.

\*\*\* 낭독에는 DJ, 성우가 포함됨.

\*\*\*\* 기타는 모델, 뮤지컬배우, 공연예술가, 기타 방송인 등임.

-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응답자 중 현재 활동 중인 분야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는 비율은 35.9%임.  
 -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n=277)의 직업 활동 종류는 '교육 관련'이 3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파트타임'(27.0%), '자영업'(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2-2-2&gt; 전업예술인 여부

(단위: %, 개월)

		사례수(명)	다른 직업 있음	다른 직업 없음	계
전체		(743)	35.9	64.1	100.0
주요 활동*	연기	(195)	37.4	62.6	100.0
	무용(춤)	(53)	30.2	69.8	100.0
	연주	(106)	45.3	54.7	100.0
	가창	(124)	46.8	53.2	100.0
	낭독**	(50)	44.0	56.0	100.0
	기타***	(215)	23.3	76.7	100.0

##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2016년 기준 월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183.2만원으로 나타남(중앙값 130만원).
  - 주요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낭독 분야'가 평균 2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연기 분야'(224.6만원), '무용 분야'(199.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 %, 만원)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사례수(명)	평균	중앙값*	사례수(명)	평균	중앙값*
전체		<b>(743)</b>	<b>183.2</b>	<b>130.0</b>	<b>(735)</b>	<b>185.3</b>	<b>150.0</b>
활동분야	연기**	(194)	224.6	130.0	(220)	182.0	115.0
	무용***	(53)	199.9	200.0	(80)	213.6	200.0
	연주	(106)	173.9	150.0	(100)	194.9	150.0
	가창	(124)	191.4	100.0	(100)	167.8	135.0
	낭독***	(50)	299.0	230.0	(40)	289.8	200.0
	기타(그 밖의 예능)	(215)	114.5	100.0	(195)	160.1	130.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 연기에서 극단치(1억원) 값은 제외하고 분석됨.

\*\* 무용, 낭독 분야는 2015년 조사 연령대 분포와 유사하게 사후 가중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임.

- 2016년 기준 월평균 개인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은 평균 114.9만원으로 나타남(중앙값 90.0만원).
  - 주요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낭독 분야'가 평균 227.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용(춤) 분야'(147.4만원), '연기 분야'(122.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4> 월평균 개인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단위 :만원)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사례수(명)	평균	중앙값	사례수(명)	평균	중앙값
전체		(743)	<b>114.9</b>	<b>90.0</b>	(735)	131.4	100.0
활동분야	연기*	(194)	122.2	80.0	(220)	133.2	100.0
	무용**	(53)	147.4	144.6	(80)	159.3	150.0
	연주	(106)	102.9	80.0	(100)	129.2	80.0
	가창	(124)	103.1	50.0	(100)	78.8	45.0
	낭독**	(50)	227.3	150.0	(40)	252.8	160.0
	기타(그 밖의 예능)	(215)	86.8	80.0	(195)	121.3	100.0

\* 연기에서 극단치(1억원) 값은 제외하고 분석됨.

\*\* 무용, 낭독 분야는 2015년 조사 연령대 분포와 유사하게 사후 가중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임.

## 2) 대중문화예술인 고용현황

-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응답자 중 '현재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임. '1인 기획사를 운영한다'는 응답은 3.8%임.
  -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n=87)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75.9%로 나타남.
  
- 어떠한 형태든(서면 계약, 구두 계약 모두 포함) 계약을 했다는 응답자(n=77)의 최근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기간은 평균 3년11개월(47.2개월)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인의 4대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국민연금'(36.2%), '산재보험'(19.9%), '고용보험'(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내(2014년~2016년)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작품/공연 활동 수익금 미수령 문제'가 1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3.5%),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법적 분쟁이 없었다'는 응답은 80.2%임.

##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1) 대중문화예술 관련 직업 활동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해당 직무 총 활동 경력은 평균 6년 9개월(81.2개월)로 나타남.
  - 해당직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획 분야'가 평균 8년 1개월(97.4개월)로 가장 길었고, '기타 분야'가 평균 4년 6개월(53.9개월)로 가장 짧았음.

<표 2-2-5> 해당 직무 총 경력

(단위: %, 개월)

		사례수 (명)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평균 (개월)
<b>전체</b>		<b>(319)</b>	<b>21.6</b>	<b>21.6</b>	<b>31.0</b>	<b>16.3</b>	<b>9.4</b>	<b>100.0</b>	<b>81.2</b>
해당직무 분야	기획	(52)	9.6	17.3	34.6	28.8	9.6	100.0	97.4
	촬영	(57)	22.8	7.0	29.8	26.3	14.0	100.0	97.8
	미술	(51)	17.6	27.5	35.3	11.8	7.8	100.0	78.9
	음향	(50)	26.0	22.0	26.0	16.0	10.0	100.0	82.8
	편집	(50)	16.0	26.0	40.0	8.0	10.0	100.0	78.4
	기타*	(59)	35.6	30.5	22.0	6.8	5.1	100.0	53.9
2014년 기준		(320)	30.6	17.8	23.4	17.2	10.9	100.0	76.9

\* 기타는 보조연기자임.

-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참여 작품 수는 평균 13.9건으로 나타남.
  - 해당직무 분야별로는 '기타 분야'에서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향 분야'(21.3건)로 나타남.

<표 2-2-6>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참여 작품 수

(단위: %, 건)

		사례수 (명)	3건 미만	3~4건	5~9건	10~29 건	30~49 건	50건 이상	계	평균 (건)
<b>전체</b>		<b>(319)</b>	<b>14.1</b>	<b>19.4</b>	<b>33.2</b>	<b>18.8</b>	<b>6.3</b>	<b>8.2</b>	<b>100.0</b>	<b>13.9</b>
해당직무 분야	기획	(52)	48.1	32.7	11.5	5.8	1.9	0.0	100.0	4.4
	촬영	(57)	14.0	31.6	31.6	15.8	3.5	3.5	100.0	9.5
	미술	(51)	5.9	33.3	60.8	0.0	0.0	0.0	100.0	4.8
	음향	(50)	6.0	10.0	44.0	18.0	6.0	16.0	100.0	21.3
	편집	(50)	2.0	8.0	50.0	38.0	0.0	2.0	100.0	10.7
	기타	(59)	8.5	1.7	6.8	33.9	23.7	25.4	100.0	30.9
2014년 기준		(320)	16.3	20.3	26.3	22.8	10.6	3.8	100.0	11.4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전체응답자 중 '현재 활동 중인 분야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임.
- 2016년 기준 월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215.4만원으로 나타남(중앙값 200만원).
  - 해당직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촬영 분야'가 평균 24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향 분야'(238.0만원), '편집 분야'(228.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2-2-7&gt;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만원)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사례수 (명)	평균	중앙값	사례수 (명)	평균	중앙값
<b>전체</b>		<b>(319)</b>	<b>215.4</b>	<b>200.0</b>	<b>(320)</b>	<b>201.0</b>	<b>190.0</b>
활동분야	기획	(52)	223.9	215.0	(67)	222.0	200.0
	촬영	(57)	240.7	240.0	(49)	224.1	220.0
	미술	(51)	234.5	210.0	(50)	193.4	170.0
	음향	(50)	238.0	220.0	(50)	247.9	215.0
	편집	(50)	228.0	215.0	(54)	193.2	200.0
	기타	(59)	137.3	130.0	(50)	119.0	97.5

- 2016년 기준 월평균 개인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은 평균 197.6만원으로 나타남(중앙값 200.0만원).
  - 해당직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술 분야'가 평균 22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편집 분야'(221.0만원), '촬영 분야'(228.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2-2-8&gt;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

(단위 :만원)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사례수 (명)	평균	중앙값	사례수 (명)	평균	중앙값
<b>전체</b>		<b>(319)</b>	<b>197.6</b>	<b>200.0</b>	<b>(320)</b>	<b>174.0</b>	<b>150.0</b>
활동분야	기획	(52)	209.7	200.0	(67)	192.2	170.0
	촬영	(57)	228.8	210.0	(49)	215.3	200.0
	미술	(51)	224.3	210.0	(50)	164.8	150.0
	음향	(50)	203.6	210.0	(50)	194.5	175.0
	편집	(50)	221.0	210.0	(54)	185.8	190.0
	기타	(59)	108.6	100.0	(50)	85.3	80.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 2)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 작품 활동 시, 계약 형태에 대해서 '서면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6년 기준으로는 66.5%, 2017년 기준으로는 67.1%로 나타났고, '구두 계약'은 각각 24.8%, 23.5%로 나타남.

<표 2-2-9> 계약형태

(단위: %)

	2017년 기준*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사례수 (명)	서면 계약	구두 계약	계약 없음	사례수 (명)	서면 계약	구두 계약	계약 없음	사례수 (명)	서면 계약	구두 계약	계약 없음	
<b>전체</b>	<b>(319)</b>	<b>67.1</b>	<b>23.5</b>	<b>9.4</b>	<b>(319)</b>	<b>66.5</b>	<b>24.8</b>	<b>8.8</b>	<b>(320)</b>	<b>45.3</b>	<b>30.3</b>	<b>24.4</b>	
해당직무 분야	기획	(52)	80.8	9.6	9.6	(52)	80.8	7.7	11.5	(67)	68.7	10.4	20.9
	촬영	(57)	71.9	12.3	15.8	(57)	73.7	15.8	10.5	(49)	59.2	22.4	18.4
	미술	(51)	66.7	29.4	3.9	(51)	62.7	35.3	2.0	(50)	42.0	44.0	14.0
	음향	(50)	66.0	24.0	10.0	(50)	66.0	20.0	14.0	(50)	40.0	38.0	22.0
	편집	(50)	52.0	46.0	2.0	(50)	58.0	42.0	0.0	(54)	33.3	48.1	18.5
	기타	(59)	64.4	22.0	13.6	(59)	57.6	28.8	13.6	(50)	22.0	24.0	54.0

\* 본 조사에서 2017년 기준 계약형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임.

- 2016년 기준으로 서면계약을 했다는 응답자(n=212)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8.1%로 나타났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서면계약자(n=214) 중 50.9%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중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3.5%로 나타남.

## 3) 경력관리

- 무보수 작품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무보수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8.6%로 나타남.
- 직업변경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업 변경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4.2%로 나타남.
  - 직업변경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09)의 직업 변경 이유는 1순위 응답 기준,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43.1%),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23.9%),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 1. 대중문화예술인

## 1) 응답자 구성 및 특징

## (1) 응답자 구성

&lt;표 2-3-1&gt; 대중문화예술인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분야	직군	경력기간		응답자		전체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2	2	김00	8년 미만	7
				이00	8년 미만	
	코미디언	2	1	김00	8년 이상	
				김00	8년 미만	
무용	댄서	2	1	김00	8년 이상	3
				황00	8년 미만	
연주	연주자	2	2	박00	8년 미만	4
				양00	8년 이상	
가창	가수	2	3	이00	8년 이상	5
				김00	8년 미만	
				박00	8년 미만	
				그00	8년 이상	
낭독	DJ	1	2	솔00	8년 이상	5
				최00	8년 이상	
	성우	1	1	박00	8년 미만	
				김00	8년 이상	
기타	모델	2	1	전00	8년 미만	8
				이00	8년 이상	
	뮤지컬배우	2	1	김00	8년 미만	
				이00	8년 미만	
공연예술가	1	1	인00	8년 이상		
			황00	8년 미만		
기타 방송인	-	-	-	-	8년 이상	-
전체		17	15	-		32

(2) 응답자 특성

-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전공자 비율', '회사 소속 비율'의 큰 기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구분함.
  - 그룹(A) 전공자 비율 상, 회사 소속 비율 상: -
  - 그룹(B) 전공자 비율 상, 회사 소속 비율 하: 가수(아이돌), 연기자, 댄서, 연주자, 모델, 뮤지컬배우
  - 그룹(C) 전공자 비율 하, 회사 소속 비율 상: -
  - 그룹(D) 전공자 비율 하, 회사 소속 비율 하: 코미디언, 가수(아이돌외), DJ, 성우, 공연예술가

<그림 2-3-1> 대중문화예술인 그룹별 특징



\* 그룹 구분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한 내용임.

- 전반적으로 영역에 상관없이 프리랜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자발적인 경우도 많아 다른 분야의 일을 겸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요즘은 어느 한 분야의 대중문화예술 '전문가'보다 다방면에 걸쳐 활동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추세임. 업계 특성 상,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투자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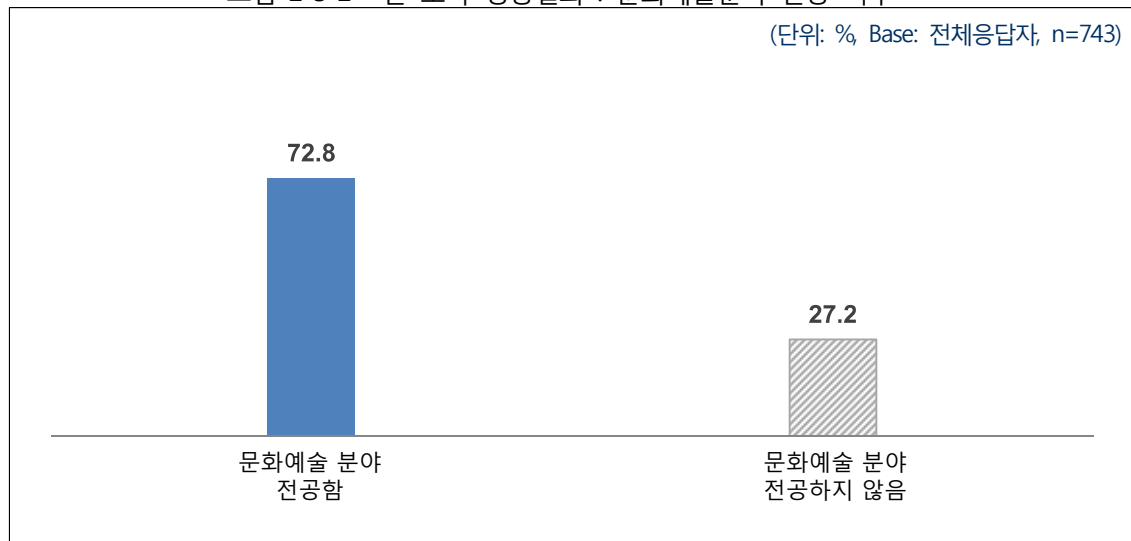
## 2) 주요 인터뷰 결과

### (1) 대중문화예술 활동사항

#### ① 입문경로

- 대중문화예술인 입문경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실용음악, 실용무용, 모델학과 등 관련 학과 출신 전공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어린 시절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을 희망한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비전공자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또한 에이전시, 아카데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 입문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그림 2-3-2> 본 조사 정량결과 : 문화예술분야 전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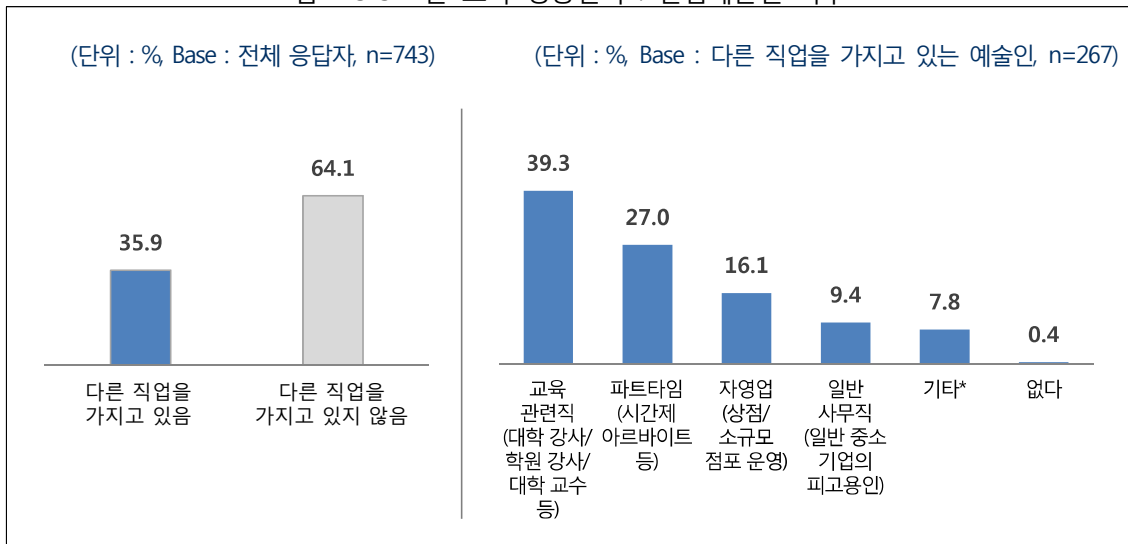


\* 출처: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이하 동일)

② 전업예술인 여부

- 인지도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지도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인은 생계 때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경력에 따라 강의나 레슨도 병행하고 있음.

<그림 2-3-3> 본 조사 정량결과 : 전업예술인 여부



\* 기타는 기능직, 전문직 등이 있음.

③ 근로 활동 관련 현황

- 대중문화예술 활동 시간 관련해서 공연이나 방송이 있는 경우, 활동 시간은 공연과 방송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임. 방송의 경우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직업 특성상 수명이 짧아 안전성은 없음. 또한 대부분 작품 활동을 인맥을 통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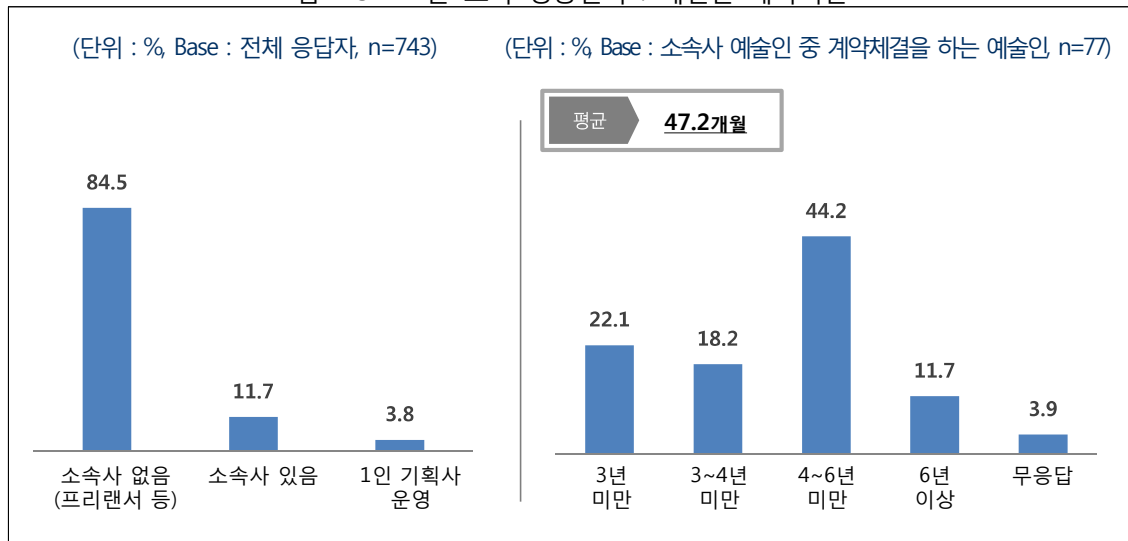
- "가수 활동이 많은 시기는 연말이 다가오는 10~12월이며, 활동 시간은 공연과 방송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라 할 수 있죠. 방송의 경우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직업 특성상 수명이 짧아 안전성은 없어요."(가수)
- "연주자는 대부분 1~2월이 비수기이고, 각종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여름부터 연말까지 바쁜 시기라 할 수 있죠. 공연 장소나 여건에 따라 활동시기가 달라지며, 리허설과 본 공연까지 최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지방공연도 있어요."(연주자)

## (2) 대중문화예술 관련 고용현황

### ① 회사 소속 여부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 기획사나 공연기획제작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인지도 있는 소수의 예술인들만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소속사 예술인 중 신규계약 체결 또는 갱신된 평균 계약기간은 47.2개월(대략 3년 11개월) 정도로 나타나며, 소속사 예술인 중 체결계약기간이 '4~6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은 '3년 미만'(22.1%), '3~4년 미만'(18.2%), '6년 이상'(1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4> 본 조사 정량결과 : 체결한 계약기간



### ② 4대 보험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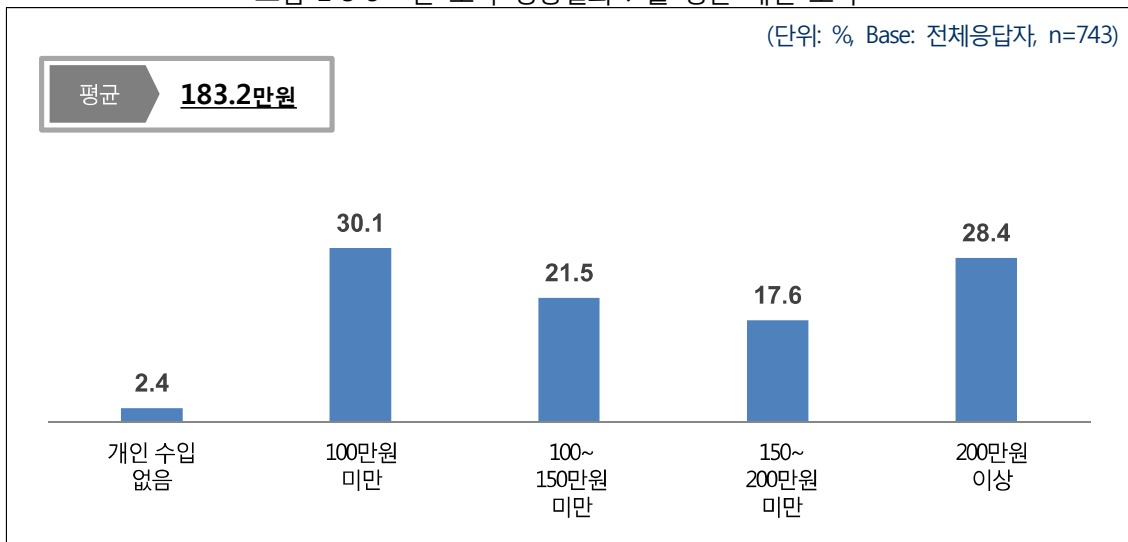
-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인은 건강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음. 소득이 높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소수에 불과함. 작품 계약 시 산재 보험 정도는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보험은 대학 강의 기간에만 가입됨. 그 외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된 비율은 10% 미만이에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소속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에 한하죠."(코미디언)
- "댄서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예요. 공연기간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죠."(댄서)
- "성우는 업계 보편적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어요."(성우)

### (3) 대중문화예술 소득 현황

-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은 인지도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월 평균 개인 소득은 183.2만원으로 나타남. 주로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일부 인지도 높은 예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인은 학교 강의, 레슨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한 소득이 더 높은 편임. 특히, 인지도에 따라 소득이 제각각이며, 방송과 행사 기준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5> 본 조사 정량결과 : 월 평균 개인 소득



### (4) 기타 사항

#### ① 교육 이수 현황

- 최근에는 대학에서 실용음악, 실용무용, 모델학과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관련 학과가 생겨나고 있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공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대부분 진학의 목표가 뚜렷한 편이며, 최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반면, 유사전공자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 편임.

- "대부분 진학의 목표가 뚜렷한 편이며, 최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요."(가수)
-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비전공자인 경우도 꽤 있죠. 전공자일 경우 20~30대인 경우가 많으며, 40대 이상의 연주자들은 비전공자 출신이 많은 편이에요."(연주자)
-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DJ 전문교육은 여전히 드물기 때문에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 유사전공자 출신들이 많은 편이에요. 유사전공자 출신은 40%이고, 비전공자가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DJ)



## ② 법적 분쟁사건 여부

- 임금체불과 부당대우를 겪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이미 지 추락 및 인맥 관리 실패로 인한 제 2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때문에 소송을 하려다가 법률적 지식이 너무 부족했고 여성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가수)
- "DJ 오디션 당시, 피디가 잠자리나 여행 등 여자에 관한 성적 농담을 했었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음의 입장인 DJ는 또 다른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경우가 일반적이죠."(DJ)
- "드라마에서 모델이 필요하다고 섭외되어 출연했는데, 드라마 제작사가 폐업했다고 중간 에이전시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출연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모델)

## ③ 가입 협·단체

- 연기자가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5:5정도의 비율이며, 코미디언은 코미디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댄서나 모델, 뮤지컬배우는 협회나 단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연주나 가창 분야 종사자들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방송/영화 연기자들은 주로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방송노조 등에 가입하는 편이며, 영화배우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5:5정도의 비율 정도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재방송료에 대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가입하고 있죠."(연기자)
- "무용협회나 안무협회가 존재하나, 댄서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는 없으며, 스트리트 댄서나 백업댄서를 위한 단체도 없어요." (댄서)
-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뮤지컬배우들이 많아요. 뮤지컬협회는 들어봤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뮤지컬배우)

④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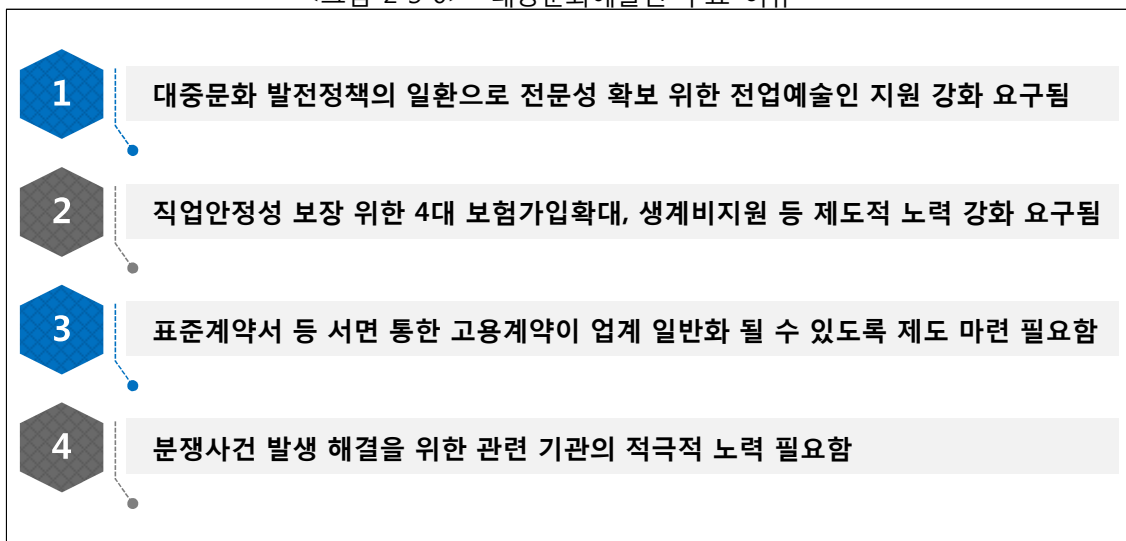
- 4대 보험가입 지원,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 확충, 출연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의 제도적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의 제도적 마련, 연기자 관련 전문 자격증에 대한 요구, 예술인 패스 지원영역 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연기자)
- "4대 보험가입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해진 급여도 받고 노후도 보장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코미디언)
- "4대 보험가입 지원,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기획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표준계약서 개선 요구, 미성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가수)
- "4대 보험가입 지원, 모델 전용 최저 임금 책정 및 임금 지급 기간 설정 의무화 관련, 각종 행사나 정부 지자체 지원 받는 행사에 대한 투명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모델)
- "4대 보험가입 지원,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 확충, 출연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뮤지컬배우)

3) 주요 이슈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한 이슈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림 2-3-6> 대중문화예술인 주요 이슈



4) 직군별 세부 내용<sup>12)</sup>

## (1) 대중문화예술 활동사항

## ① 입문경로

&lt;표 2-3-2&gt; 직군별 입문경로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 연기자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를 희망한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연기 비전공자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8년 이상 된 연기자는 연극무대와 방송국 공채 탤런트 시험을 통해 데뷔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코미디언	• 활동 영역을 방송으로 확장하고 인지도를 올리고 싶은 코미디언들이 공채 코미디언 시험에 응시하고 있음. 코미디언의 데뷔경로는 경력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무용	댄서	• 댄서의 경우 예전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관련 전공 학위 취득, 댄서 양성아카데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 입문경로가 다양해짐. 데뷔경로는 경력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연주	연주자	• 연주자는 주로 본인의 관심과 흥미로 입문하게 되고, 대부분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음. 8년 이상은 관련 전공을 통해 데뷔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가창	가수	• 가수는 본인의 의지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오디션 및 교육기관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 많음. 8년 이상 된 가수는 가요제나 밴드활동이 데뷔로 이어진 경우가 많으나, 8년 미만은 다양한 오디션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낭독	DJ	• DJ는 정식 공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성우	• 성우는 다른 직군대비 직업적 특성이 강하며, 주로 방송국 공채를 통해 입문하게 됨.
기타	모델	• 모델은 대부분 모델 에이전시나 아카데미 혹은 선발대회를 통해 입문하며, 과거 대비 관련 학과 출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뮤지컬배우	• 뮤지컬배우는 무용, 노래, 연기 등 뮤지컬 관련 학과 전공자가 많은 편임.
	공연 예술가	• 공연예술가는 대부분 음악 관련 전공자가 많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문하기도 함.

12) 대중문화예술인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내용은 &lt;부록&gt;에 수록되어 있음.

② 전업예술인 여부

<표 2-3-3> 직군별 전업예술인 여부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도 있는 연기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촬영이 없으면 다른 일을 병행하는 편임. 특히, 비교적 쉽게 구하고 근무여건이 탄력적인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임.</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미디언은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 행사 MC, 보조연기자 등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경력이 높을수록 기획, 자영업 등을 겸업하지만, 최근 코미디 인기 저하로 코미디언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li> </ul>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에서 자리 잡은 8년 이상 댄서들은 주로 기획사 연습생 레슨, 안무가 등을 병행하고 있음.</li> </ul>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급 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학원 및 개인레슨, 강의, 작곡 등을 병행하고 있음.</li> </ul>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도 있는 가수들의 경우 영화, 드라마 배우 등 분야에서 겸업을 하고 있지만, 기획사 소속 가수인 경우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음. 소수의 인지도 높은 가수 제외한 대부분의 가수들은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li> </ul>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디오 DJ 경우 과거와 달리 전업 라디오 DJ가 거의 없으며, 연예인이나 아나운서처럼 인지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강의, 행사 MC, 방송 진행 등 다른 분야의 일을 병행함.</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우들은 일반적으로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경력에 따라 부업으로 자영업, 강의 등을 겸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li> </ul>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델의 경우 소득이 적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경력에 관계없이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인지도에 따라 본업에만 전념하게 될 수도 있음.</li> </ul>
	뮤지컬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지컬배우는 연습기간 동안 수입이 따로 없으므로, 대부분 학교 수업, 입시학원 레슨, 재연배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있음.</li> </ul>
	공연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예술가는 수입이 적고 활동도 많지 않아 개인레슨, 학원 강사, 행사 MC,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들을 병행하고 있음. 보통 여자들은 주부가 많고, 남자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비교적 자유로운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있음.</li> </ul>

## ③ 근로 활동 관련 현황

&lt;표 2-3-4&gt; 직군별 근로 현황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 연기자는 캐스팅 여부, 경력보다 주/조연급 여부에 따라 작품참여기회 및 작업시간 등 촬영여건에 차이가 존재함.
	코미디언	• 코미디언의 경우 매주 코너의 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활동시기가 불규칙하고, 경력보다 공채나 인지도 여부에 따라 대우 및 기회의 차이가 확연함.
무용	댄서	• 댄서는 성수기인 9월~12월이 제일 바쁜 편이고, 1월~4월은 비수기라 활동이 없는 편임. 공연여부에 따라 활동시간이 다르며, 대형 기획사에 안무가로 소속된 경우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 개인의 실력과 노력은 기본이고 연고와 인간관계도 댄서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경력에 따라 공연 안무, 방송 댄스, 연출 및 제작 분야에서도 활동함.
연주	연주자	• 연주자는 대부분 1~2월이 비수기이고, 각종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여름부터 연말까지 바쁜 시기임. 공연 장소나 여건에 따라 활동시기가 달라지며, 리허설과 본 공연까지 최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지방공연도 있음. 최근 공연장 안전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공지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임.
가창	가수	• 가수 활동이 많은 시기는 연말이 다가오는 10~12월이며, 활동 시간은 공연과 방송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임. 방송의 경우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직업 특성상 수명이 짧아 안전성은 없음.
낭독	DJ	• 라디오 DJ는 하루 1~2시간 정도 방송 활동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함, 청취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불안정한 직업임.
	성우	•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성우들은 비수기가 없지만, 광고나 게임 관련 성우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못함. 최근 외화 더빙이 사장되는 분위기라 일이 거의 없고, 라디오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분야 일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임.
기타	모델	• 모델의 경우 처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출연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모델에 대한 편이나 복지수준이 아직도 열악한 수준임.
	뮤지컬배우	• 뮤지컬배우는 하고 싶은 작품의 오디션에 합격해야 작품을 하기 때문에 활동 많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움. 제작사 규모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작업 환경도 많이 차이남.
	공연예술가	• 공연예술가는 봄(5월, 6월), 가을(9월, 10월), 연말(12월)에 공연이 많음.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고, 주로 소개를 통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소임.

(2) 대중문화예술 관련 고용 현황

① 회사 소속 여부

<표 2-3-5> 직군별 회사 소속 여부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자의 30% 정도가 기획사 소속으로 연기자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됨. 계약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주로 3년, 5년, 7년임. 계약방식은 인지도에 따라 다르며 인지도 있는 경우 계약기간, 수익분배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 쓰고 2년 계약 체결이 보편적임.</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미디언의 경우 공채/특채 혹은 소속사 소속 여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여부가 달라짐. 소수의 인지도 있는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소속사가 있는 편임.</li> </ul>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댄서들은 제작사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로 구두계약을 통해 공연을 하는 편이라 이에 따른 구속력이 적으므로 다른 활동이 가능한 편임. 댄서들이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는 거의 드물며, 안무가 혹은 디렉터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됨.</li> </ul>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 기획사나 공연기획제작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은 낮은 편임. 평균은 알 수 없지만 6개월 혹은 1년 단위 계약도 있음. 연예 기획사 소속 밴드 멤버일 경우 표준계약서 통해 계약체결 가능하며 기간은 소속사에 따라 다름.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사정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됨.</li> </ul>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음악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기준으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비율은 낮은 편임. 10~20대 신인의 경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평균 7년을 계약하지만, 40대 이상 가수들은 보통 3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li> </ul>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디오 DJ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 공중파 소속 아나운서 이외에는 대부분 프리랜서임.</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우는 대부분 공채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국 전속기간 2년 동안 해당 방송사 일만 할 수 있음. 소득이나 다양한 방면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방송국 전속으로 활동할 때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인 모델들은 인맥과 활동영역 때문에 소속사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회사 역량에 따라 활동 범위나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력자들은 소속사 계약을 고민하는 편임.</li> </ul>
	뮤지컬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지컬배우로만 구성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는 거의 없으며, 연예 기획사에서 뮤지컬에 참여하는 배우는 많으며, 연기자 계약기간은 보통 4~7년임.</li> </ul>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공연예술가는 거의 드물며, 대부분 프리랜서임.</li> </ul>

## ② 4대 보험 가입 여부

&lt;표 2-3-6&gt; 직군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 연기자 활동하며 건강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겠지만 그 외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음. 연기자 활동 소득이 높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소수임.
	코미디언	•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된 비율은 10% 미만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소속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에 한함.
무용	댄서	• 댄서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임. 공연기간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음.
연주	연주자	•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가창	가수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수는 거의 없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 고용보험은 대학 강의 기간에만 가입됨. 그 외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낭독	DJ	• DJ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음.
	성우	• 성우는 업계 보편적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
기타	모델	• 대부분의 모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없으며,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뮤지컬배우	• 일반적으로 뮤지컬배우 분야에 4대 보험 가입자 거의 없음.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대형 작품에서는 가입하는 경우 있는 반면, 중소형 작품에서는 가입 안 하는 경우 있음.
	공연예술가	• 공연예술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들어본 적 없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작품 계약 시 산재 보험 정도는 가입되는 경우 있음.

(3) 대중문화예술 소득 현황

<표 2-3-7> 직군별 소득 현황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자의 수입은 인지도와 경력에 따라 다름. 10년 경력자라도 극단에서 막 나온 경우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될 것이고, 공연+영화를 한 경우 1,500~2,000만 원 선, 드라마 위주로 활동한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 대부분 연기자활동으로 고정수입 보장이 안 되므로, 연기활동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높음.</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활동이 없는 코미디언은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인지도가 높은 경우 연 5~10억 정도 벌 수 있음. 방송사마다 출연료 지급액이 상이하며, 보통 4주 기준으로 신인은 120만원, 7년차 정도는 250만원임.</li> </ul>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도에 따라 소득이 제각각이며 방송과 행사 기준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단정 지을 수 없음. 10년차 이상이어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최고 월300~400만 원, 최저 월100만 원 미만임. 대부분 방송 및 공연소득보다 그 이외 소득이 높음.</li> </ul>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도에 따라 다르지만, 매일 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연주자 특성상 연주 소득보다는 그 이외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월평균 연주 소득은 업계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클래식음악 종사자들은 소득의 90%가 레슨 소득임.</li> </ul>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급 아이돌 가수인 경우 보통 4-5억 원 정도가 평균 소득임. 30대 기준으로 인지도 높지 않은 가수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임. 아이돌 그룹의 경우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혼자 활동하더라도 멤버별 소득 분배가 동일했는데, 차후 각자 활동한 만큼 소득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li> </ul>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도 있고 활동 많은 음악 DJ 중에 월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일 뿐, 대부분 월 평균 100~200만원 수준이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많음.</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한 연차가 높아져도 성우로 일해서 얻는 소득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방송이나 행사 사회, 그리고 강의 등을 겸업하기 때문에 그 이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li> </ul>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델의 패션쇼 1회 출연료는 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15만 원, 경력이 좀 있으면 30~40만 원, 인지도 있는 경우 300~500만 원을 받기도 함. 광고의 경우 브랜드나 회사마다 다르며, 출연료는 30~100만 원정도 됨. 8년 이상 경력 모델인 경우 모델 활동 많을 시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적게는 300만 원 수준일 때도 있음.</li> </ul>
	뮤지컬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연을 제외한 앙상블이나 배역이 있는 뮤지컬배우 경우 업계 평균적인 연봉은 1,200만 원 수준임. 주연 같은 경우는 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음. 공연을 꾸준히 한다면 뮤지컬 소득이 높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외의 소득이 높음.</li> </ul>
	공연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예술 업계 소득은 월평균 150~250만 원 정도이며, 공연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50만 원 미만임. 공연이 매일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예술가 수입에 생계를 의존할 수 없음.</li> </ul>



## (4) 대중문화예술 관련 기타 사항

## ① 교육 이수 현황

&lt;표 2-3-8&gt; 직군별 교육 이수 현황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전공자 60%, 비전공자 40% 정도이며, 최근에는 비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임. 연기 비전공자들은 대체로 연기 아카데미를 수료하며 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것들, 출연 과정이나 출연 루트 등의 실무를 습득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족하는 편임.</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에서 보면 비전공자가 60%, 전공자가 40% 정도 됨. 최근 개그 프로그램 인기 저하로 인해 대학에서 개그 전공 학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에서 개그를 전공하기 보단, 개그 극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공채 코미디언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li> </ul>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년 이상 댄서들이 과거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댄스를 배운 적 없고, 혼자 연습하거나 팀을 하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배웠던 것이 전부인데 반해, 최근에는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 댄서 1세대들이 교육 분야로 진출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동일 분야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은 해당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도 많음.</li> </ul>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비전공자인 경우도 꽤 있음. 전공자일 경우 20~30대인 경우가 많으며, 40대 이상의 연주자들은 비전공자 출신이 많은 편임. 특히, 10년 전부터 실용음악과가 많이 생겨나면서 관련 학과 전공자가 늘어나는 추세임.</li> </ul>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진학의 목표가 뚜렷한 편이며, 최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아이돌 그룹일 경우, 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비전공자가 대부분임. 고등학생은 예고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경우도 있음.</li> </ul>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DJ 전문교육은 여전히 드물기 때문에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의 출신들이 많은 편임. 유사전공자라 할 수 있는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의 출신은 40%이고, 비전공자가 60% 정도임.</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에는 대부분 연극영화과 전공자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약대, 법학, 물리학 등 비전공자들도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공자 30%, 비전공자 70% 정도라 할 수 있음.</li> </ul>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델 전공자는 60%정도 되는 것 같으며,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모델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 모델 현장은 아카데미 기수를 많이 따지는 관례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모델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경우도 있음.</li> </ul>
	뮤지컬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뮤지컬 워크숍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 전공자들임. 뮤지컬 워크숍은 실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도해 주기 때문에 교육 만족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학원은 만족도가 낮음.</li> </ul>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 예술 특성 상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학에서 국악, 무용, 타악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임. 공연 예술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경로는 따로 없음.</li> </ul>

② 법적 분쟁사건 여부

<표 2-3-9> 직군별 법적 분쟁사건 여부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 사례를 겪은 연기자들이 많은 편임. 특히, 드라마 쪽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조직적 대응 위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료를 못 받는 코미디언들도 많으나 대부분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인 내용이나 세무, 경영 등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 편임.</li> </ul>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료를 못 받는 경험이 있는 댄서들이 많은 편임. 최근 고용노동부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이마저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함.</li> </ul>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주비/공연비를 못 받는 연주자가 많지만 인맥 관계,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li> </ul>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때문에 소송을 하려다가 향후 활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포기한 적이 많음. 제작자에게 체불임금반환을 독촉했지만 오히려 음악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li> </ul>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DJ도 있었지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이미지도 추락해 소송으로 인한 제 2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음.</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분쟁 사건을 겪은 방송국 공채 성우는 전혀 없으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임금체불 및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출연료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뭄.</li> </ul>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에 참여하고 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음. 출연료 못 받더라도 업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li> </ul>
	뮤지컬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서 상 공연기간과 실제 공연기간이 달라진 경우가 있고, 임금지연이나 임금체불 경우가 비일비재함.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출연료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사정을 핑계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li> </ul>
	공연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부 등을 통해 신고해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은 사례도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음.</li> </ul>

## ③ 가입 협·단체

&lt;표 2-3-10&gt; 직군별 가입 협·단체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영화 연기자들은 주로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방송노조 등에 가입하는 편이며, 영화배우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5:5정도의 비율 정도임. 특히, 재방송료에 대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가입하고 있음.</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미디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방송실연자협회의 경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코미디언도 많고 경력 없는 사람들은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채 코미디언이 아닐 경우 본인 스스로 경력을 증명해야 함.</li> </ul>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용협회나 안무협회가 존재하나, 댄서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는 없으며, 스트리트 댄서나 백업댄서를 위한 단체도 없음.</li> </ul>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수들은 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 8년 이상의 DJ들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성우들은 한국성우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연예인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특히, 공채 출신은 각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성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li> </ul>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델의 경우 모델관련 협회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비율은 3:7 정도 되는 것 같음.</li> </ul>
	뮤지컬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뮤지컬배우들이 많음. 뮤지컬협회는 들어봤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li> </ul>
	공연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 8년 이상의 공연예술가가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한편, 퍼포먼스 단체가 있으나 제작사 대표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음.</li> </ul>

④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표 2-3-1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분야	직군	주요 내용
연기	연기자	•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의 제도적 마련, 연기자 관련 전문 자격증에 대한 요구, 예술인 패스 지원영역 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코미디언	• 4대 보험가입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으며, 정해진 급여도 받고 노후도 보장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무용	댄서	• 댄서들을 위한 4대 보험가입 지원은 물론, 댄서 관련 저작권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댄서 관련 지원 사업 자격 완화 및 양식 간소화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연주	연주자	• 무료 연습공간을 제공, 국가 지원 사업 공연 출연료의 투명화, 창작지원금 제도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연주자 육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가창	가수	• 4대 보험가입 지원,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기획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표준계약서 개선 요구, 미성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낭독	DJ	• 4대 보험가입 지원, 표준계약서 작성 보편화 관련, 정책 지원금 제도 확대, 대학생과 현장 실무자를 이어주는 기관/제도 신설, 공채 오디션 보편화 및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되기 위한 관리감독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성우	• 정부 차원에서의 한국어 더빙 정책 지원 사업이 요구됨.
기타	모델	• 4대 보험가입 지원, 모델 전용 최저 임금 책정 및 임금 지급 기간 설정 의무화 관련, 각종 행사나 정부 지자체 지원 받는 행사에 대한 투명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뮤지컬배우	• 4대 보험가입 지원,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 확충, 출연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공연 예술가	• 공연 단가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 설정, 예술가 최저 시급의 별도 책정, 공연계의 티켓 값 관련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1) 응답자 구성 및 특징

## (1) 응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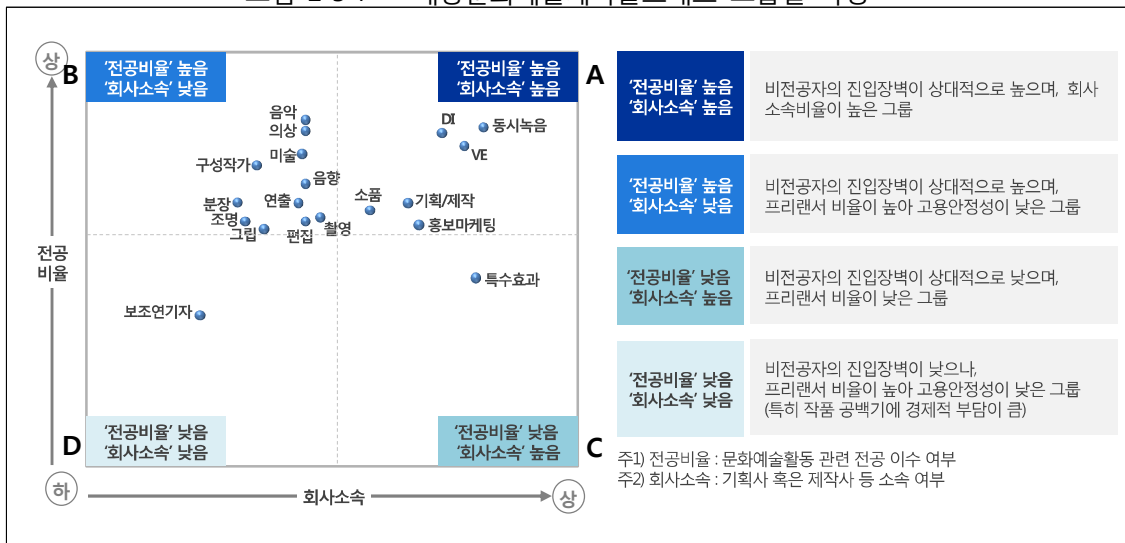
&lt;표 2-3-12&gt;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분야	직군	경력기간		응답자		전체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1	-	송00	팀원	4
	연출	1	-	김00	팀원	
	홍보 마케팅	-	1	조00	팀장급	
	구성작가	-	1	견00	팀장급	
촬영	촬영	-	1	이00	팀장급	4
	조명	1	-	정00	팀원	
	특수효과	-	1	안00	팀장급	
	그립	-	1	이00	팀장급	
미술	미술	-	1	강00	팀장급	4
	의상	1	-	강00	팀원	
	분장	-	1	김00	팀장급	
	소품	1	-	윤00	팀원	
음향	동시녹음	-	1	강00	팀장급	3
	음향	1	-	이00	팀원	
	음악	-	1	박00	팀장급	
편집	편집	1	1	박00	팀원	4
				최00	팀장급	
	Visual Effects	-	1	한00	팀장급	
	DI	-	1	고00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	1	장00	8년 이상	1
전체		7	13	-		20

(2) 응답자 특성

-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전공자 비율', '회사 소속 비율'의 큰 기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구분함.
  - 그룹(A) 전공자 비율 상, 회사 소속 비율 상: 기획/제작, 홍보마케팅, 소품, 동시녹음, VE, DI
  - 그룹(B) 전공자 비율 상, 회사 소속 비율 하: 연출, 구성작가, 촬영, 조명, 그림, 미술, 의상, 분장, 음향, 음악, 편집
  - 그룹(C) 전공자 비율 하, 회사 소속 비율 상: 특수효과
  - 그룹(D) 전공자 비율 하, 회사 소속 비율 하: 보조연기자

<그림 2-3-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그룹별 특징



\* 그룹 구분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한 내용임.

- 예술인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전공비율이 높은 편이라 전문성은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로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표준계약 방식의 개별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구두계약에 의존하는 감독과 팀원 간 계약 체결 방식, 고의적인 임금체불, 갑에 의한 부당 대우, 임금 미지급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폐업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주요 인터뷰 결과

### (1) 대중문화예술 활동사항

#### ① 입문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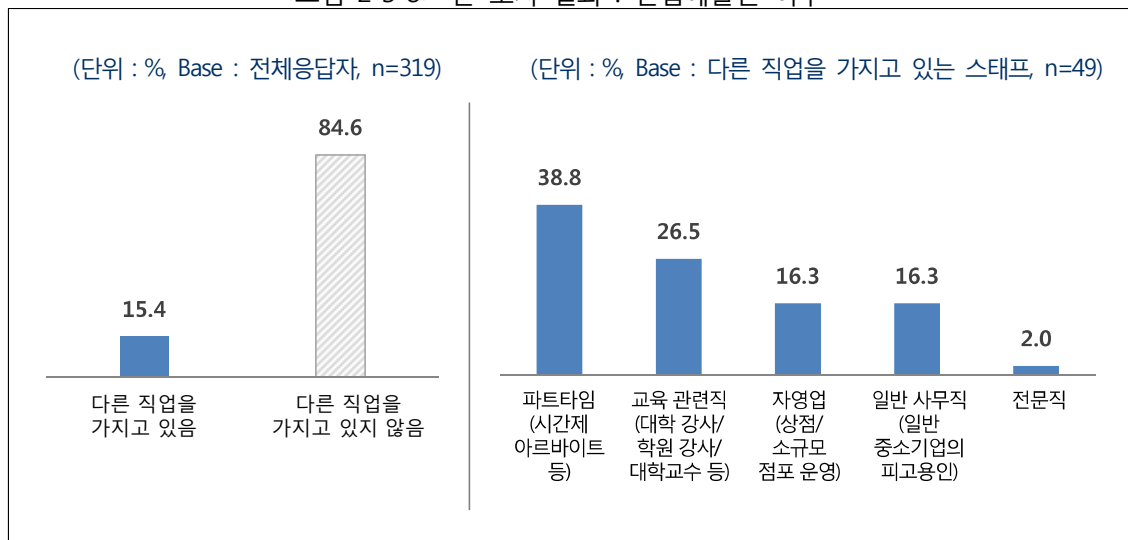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 대학에 관련 학과가 많아서 전공자들이 졸업 후 업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지인 소개나 추천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영화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필름메이커스'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일을 많이 시작하고, 네이버 밴드 '촬영 크루'에서도 구인구직 정보들을 많이 교류하고 있죠."(촬영)
- "작가라는 직업은 보통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주로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 출신 학생들이 주로 구성작가로 입문하고 있죠. 사설 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들이 작가 모집 공고를 보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해요."(구성작가)
- "커뮤니티 사이트 '필름메이커스'에서 정보를 얻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분야다 보니 개인의 관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연출)

#### ② 전업예술인 여부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겸업하기 보다는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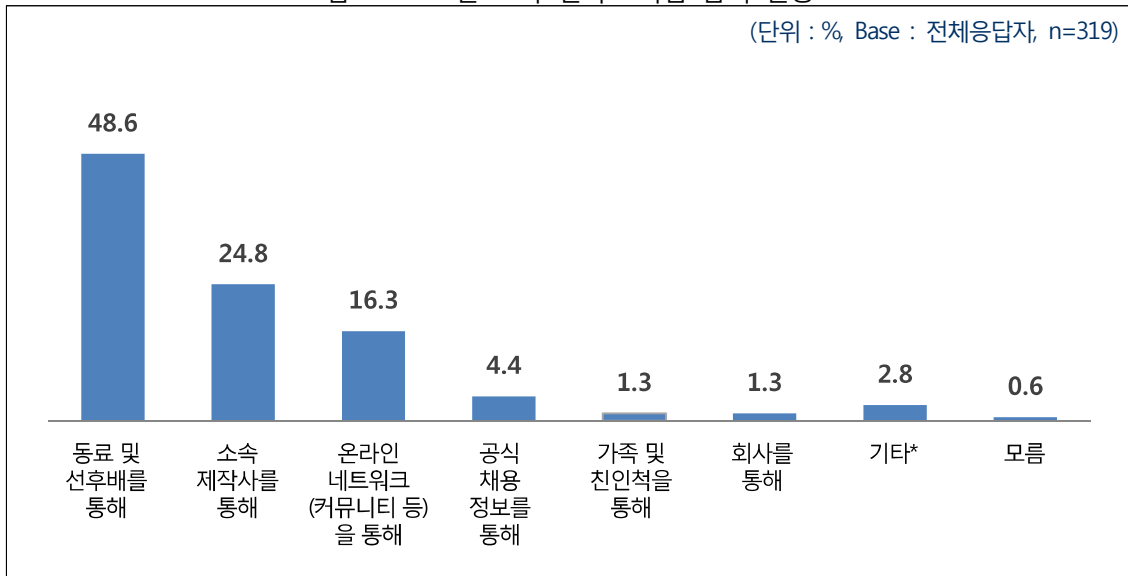
<그림 2-3-8> 본 조사 결과 : 전업예술인 여부



③ 작품 참여 현황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주로 지인 소개나 인맥을 통해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함께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소개로 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음. 보통 1년 기준으로 많게는 7개 작품 정도, 적게는 2~3개 작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에는 온라인 네트워크(커뮤니티 등)를 이용하여 참여 작품을 모색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편임.

<그림 2-3-9> 본 조사 결과 : 작품 참여 현황



\* 기타는 제작사 의뢰, 작품 광고를 보고, 인력공급업체/위탁업체를 통해 등이 있음.

(2) 대중문화예술 관련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① 회사 소속 여부

- 직원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됨.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하거나, 작품 활동 기간에만 계약을 맺음.

- "촬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프로덕션이나 촬영감독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라 할 수 있죠."(촬영)
-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예요."(편집)
- "영화의 경우 미술팀이 제작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없고, 방송 쪽에서는 드라마 미술센터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는 있어요."(미술)



## ② 계약 현황

- 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나 프로듀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팀장과 팀원은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하거나 구두계약인 경우가 일반적임. 작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팀원은 보통 2~3명으로 구성됨. 계약 형태는 영화 혹은 드라마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제작사와 프로그램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사가 아닌 녹음실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게 존재함.

- "팀장급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통 3~4년 경력이 필요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특수효과가 많아 하죠."(특수효과)
- "메인작가는 제작사와 편당 계약을 하고, 메인작가가 고용한 팀원은 월급 형식으로 리서치 100만 원, 서브작가 200만 원 등으로 임금을 지급해요."(구성작가)
- "영화 제작사 대표와 계약하며, 팀원은 팀장급이 직접 구성하죠."(분장)
-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 대표와 직접 계약하며, 팀원은 3명 정도 직접 구성해요."(동시녹음)
- "프리랜서(10명 중 3~4명 정도)도 영화사가 아닌 녹음실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요. 프리랜서와 업체 모두 공연제작사와 주로 구두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요."(음향)
- "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랑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원 개념으로 팀장이 직접 고용하여 계약 맺고 있죠."(편집)
- "보조연기자는 일급제이며, 제작사에서 돈이 나오면 보조출연 업체에서 10,000원의 소개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출연료로 지급해요."(보조 연기자)

## ③ 근로 현황 및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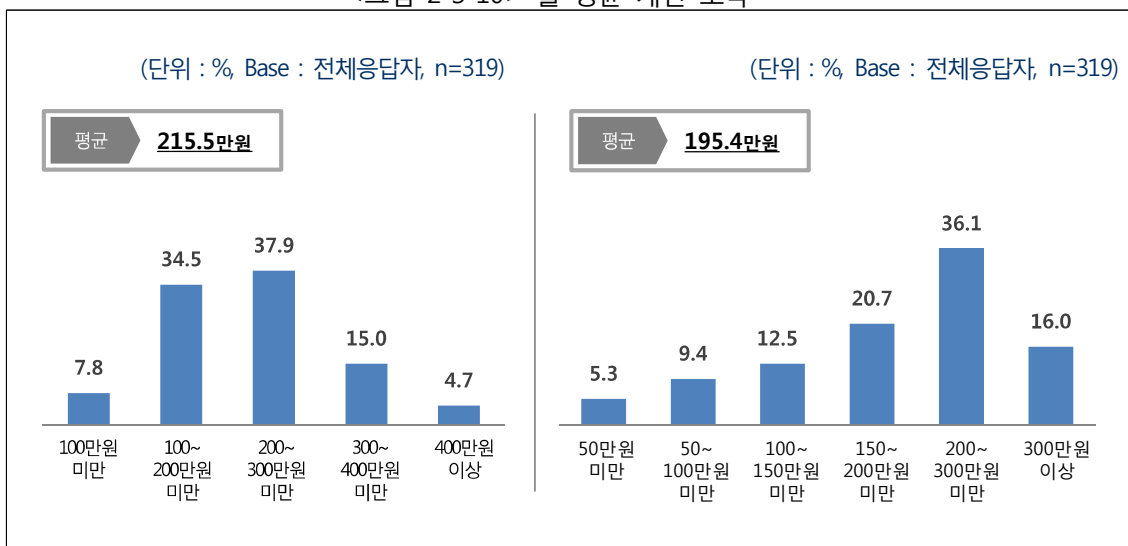
-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작품 참여 시 대략 한 달 평균 20~23일,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분야에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전과 달리 영화인 신문고나 노동청에 고소가 된 영화사는 정부 및 단체 지원이나 각종 행사참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에 영향을 줌.

- "추석, 크리스마스 시즌 개봉을 겨냥해 3~4월과 9~10월에 촬영이 많이 들어가죠. 평균 한 달에 15~20일 촬영, 하루 8~12시간 정도 작업하고 있어요."(촬영)
- "평균 1년에 2작품 기준으로 6~7개월 정도 활동하며, 한 달 평균 20~23일,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하는 편이죠."(그립)
- "대부분 스튜디오는 월 20~24일 근무, 일 8~11시간 작업해요. 행사가 많을 시기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해요."(음향)
- "요즘은 영화사가 고소를 당하면 부산영화제에 갈 수도 없고, 영화진흥위 같은 곳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해요."(기획/제작)
- "홍보마케터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폭언이나 성차별에 대한 부당대우가 많은 편이죠. 부당대우가 잦아지면 결국 퇴사나 이직을 해요."(홍보마케팅)
- "임금체불 시 업계 관행상 법적대응보다는 이해를 하거나 기다리는 편이에요."(연출)

(3) 대중문화예술 소득 현황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은 대략 215.5만원으로 나타남.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스태프는 경력과 직급에 따라 소득이 다르지만, 사원의 경우 대략 150~180만원, 팀장급은 200~250만원, 실장급은 300~350만원, 감독 이상이면 작품단위로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음.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평균은 대략 195.4만원으로 나타나 월 평균 개인 소득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은 '150~200만원 미만'(20.7%), '300만원 이상'(16.0%), '100~150만원 미만'(1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10> 월 평균 개인 소득



(4) 가입 협·단체

- 기획/제작의 경우 프로듀서만 가입하는 협회와 임단협이 있음. 연출은 협·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적은 편임. 구성작가의 경우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대표적인 단체이며, 가입 조건은 메인작가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공중파에서 몇 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함. 대표적인 촬영 관련 단체는 촬영감독 협회와 사단법인 촬영감독 협회임. 이외 특수효과, 의상, 분장, 소품, 음향, 편집, VE, DI 등은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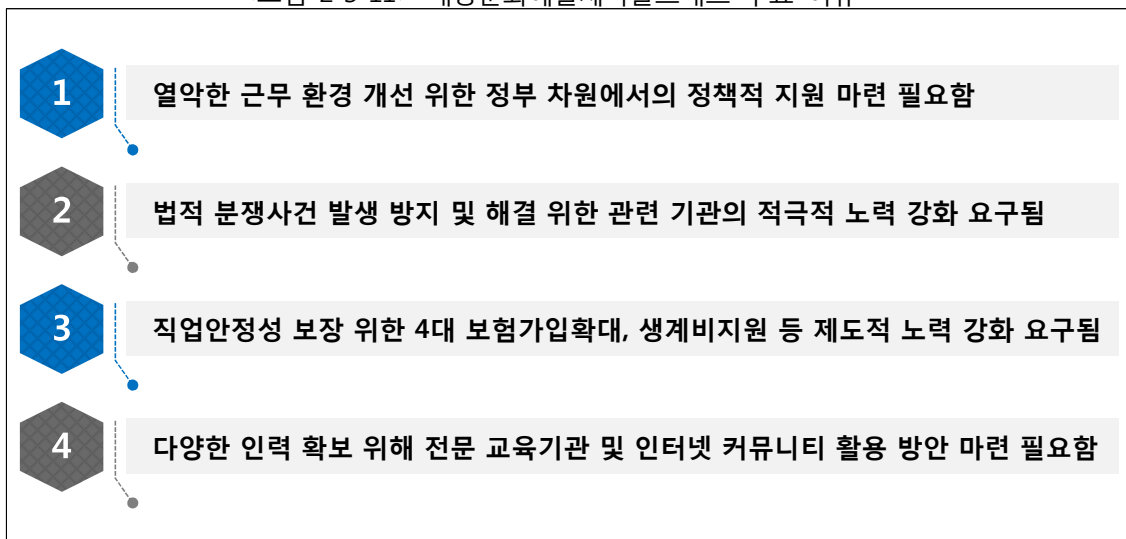
-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대표적인 단체이며, 가입 조건은 메인작가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공중파에서 몇 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해요."(구성작가)
- "조명조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감독들은 70%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조명)
- "주로 영화산업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화산업노조와 미술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미술)

**(5)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 4대 보험가입 지원,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무시간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 신설,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 임금과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 및 제도 마련, 형식적인 표준근로계약 구조 개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스태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정책적 보장, 지역으로 보험으로 전환되는 공백 기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기획/제작)
  - “공백 기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연출)
  -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무시간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 신설,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홍보마케팅)
  - “임금과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제도 마련, 형식적인 표준근로계약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조명)
  -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동시녹음)

**3) 주요 이슈**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한 이슈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림 2-3-1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주요 이슈**

4) 직군별 세부 내용

(1) 대중문화예술 활동사항

① 입문경로

<표 2-3-13> 직군별 입문경로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에 관련 학과가 많아서 전공자들이 졸업 후 입문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지인 소개나 추천하는 경우가 많음. 팀장급 이상은 예술대학 출신이거나 보통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거나, 무대 크루 아르바이트,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하고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 전공자들이 지인을 통해서 시작하고, 비전공자인 경우 아카데미나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관심을 갖다가 인맥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광고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매니지먼트 학과를 전공하고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그러한 전공을 공부하고 입사해도 실무를 접하게 되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음.</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라는 직업은 보통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된 경우가 많음. 주로 국어국문 학과나 문예창작과 출신 학생들이 주로 구성작가로 입문하고 있음. 사설 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들이 작가 모집 공고를 보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함.</li> </ul>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전공자들이 지인 소개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임.</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가 많아져 비슷한 업종의 일을 할 뿐, 대부분 전업예술인임.</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전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임.</li> </ul>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이며,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공백 기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정도임.</li> </ul>

&lt;표 2-3-13&gt; 직군별 입문경로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영화 관련 미술학원을 통해 입문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의상	• 전공자들끼리 지인을 소개하거나 교수 추천 혹은 선후배 소개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분장	• 미술 및 미용 전공자가 많고, 주로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함.
	소품	• 영화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혹은 동문 추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음향	동시녹음	• 요즘은 전공자가 많으며, 지인 소개나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격으로 입문함.
	음향	• 음악 엔지니어에서 영화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음향 관련 학과가 많아져 음향 전공이나 다른 영상 쪽 음향이나 음악 전공자들이 인맥을 통해 지인의 소개로 시작(80%)하거나, 전공자들이 영화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20%)하는 경우 많음.
	음악	• 주로 교수 추천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편집	편집	• 영화 편집 혹은 연출 관련 전공을 살리거나 편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편집실)을 찾아 시작함.
	Visual Effects	• 관련 학과 전공자가 대부분 교수나 지인들을 통해 입문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VFX)을 통해 배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음.
	DI	• 영상 관련 전공자 혹은 종사자들이 흥미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맥으로 추천 받거나, 구인구직사이트 혹은 학교나 산학협력 인턴 과정을 통해 입문하기도 함.
기타	보조연기자	• 대부분 지인에게 소개받거나 보조출연 업체에 등록(가입)을 한 이후에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함.

② 전업예술인 여부

<표 2-3-14> 직군별 전업예술인 여부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회사 직원으로 속해 있으며 전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기아르바이트를 병행함.</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업예술인이지만,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시작하기까지 공백이 생겨 언제 새로운 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강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특성 상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러 작품에 참여하면,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쁘므로 전업예술인이 대부분임.</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으며, 전업으로 하고 있음.</li> </ul>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으로 전업으로 활동하지만, 촬영이 없을 경우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함.</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개인의 선호도가 높고, 지인 소개가 많으며,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도 많음.</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대학 전공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기술직 전공자들이 영화 파트로 넘어와 특수효과 팀 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음.</li> </ul>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정도가 지인의 소개로 입문하거나, 촬영이나 연출 일을 하다가 그립 일을 도와주면서 전향하는 경우가 50% 정도임.</li> </ul>

&lt;표 2-3-14&gt; 직군별 전업예술인 여부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전업예술인이며, 영화작품 활동 없을 시 팀장급 미술감독인 경우 대학교 시간 강사로 일하기도 하고, 팀원인 경우 마트 아르바이트, 촬영 지원, 도면작업 등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함.
	의상	• 전업예술인이며, 소수 유명 팀장급은 보유의상들이 조금씩 늘어나 대 여샵을 병행한다거나 쇼핑몰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음.
	분장	• 전업예술인이지만, 다음 작품을 기다릴 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함.
	소품	•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빠므로 전업예술인임.
음향	동시녹음	•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이지만, 작품 활동 없을 시 CF와 같은 비슷한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음.
	음향	• 전업예술인도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음.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외부 일을 겸업하기 어려움. 프리랜서는 포지션과 기간을 정해 일을 하고, 그 외 주로 강의나 단편작업을 병행함.
	음악	• 대부분 생계 때문에 강의, 대리운전, 카페 등을 병행하거나 자영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편집	편집	• 광고, 단편, 독립영화 같은 동종계열의 짧은 프로젝트 편집 및 주말 아르바이트 등 작품과 작품 사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
	Visual Effects	• 극히 일부는 자영업,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며, 10명 중 1명 정도는 강의도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
	DI	• 주로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려움.
기타	보조 연기자	• 60~70% 정도가 전업예술인이며, 나머지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제빵업 종사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음.

③ 작품 참여 현황

<표 2-3-15> 직군별 작품 참여 현황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 투자사의 분기별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3월, 9월이 바쁜 시기임.
	연출	• 영화 연출파트 스크립터로 1년에 1작품, 총 7~8작품(+메이킹 1작품)에 참여한 경우가 있음.
	홍보 마케팅	•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소속사 규모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가 다르며, 업계 평균적으로 1년에 2작품 정도, 많게는 1년에 3작품 참여함.
	구성작가	• 인맥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가 달라지며, 개인차가 큼.
촬영	촬영	• 영화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1~2작품 정도 작업함.
	조명	• 지인 소개로 작업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 1~2작품 정도 참여함.
	특수효과	• 주로 지인 소개나 인맥을 통해 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음.
	그립	• 대부분 지인 소개와 인맥을 통해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1년에 2~3편 정도임.



&lt;표 2-3-15&gt; 직군별 작품 참여 현황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영화 기준으로 함께 작품에 참여한 스텝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소개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보통 팀장급 이상은 1년 평균 1작품, 미술감독은 2년에 1작품에 참여함.
	의상	• 주로 지인의 소개나 친분으로 독립영화나 소규모 영화 작업을 맡으며, 보통 1년에 2~3작품 정도 참여하고 있음.
	분장	• 보통 1년에 평균 2~3편의 작품에 참여함. 팀장급은 1년에 평균 5작품, 팀원급은 평균 7작품 정도 참여함.
	소품	• 촬영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영화 기준으로 1.5~2개 작품에 참여함.
음향	동시녹음	• 주로 매년 상반기 3~4월과 하반기 9~10월이 가장 바쁜 시기임. 영화 기준, 1년 평균 2작품에 참여함.
	음향	• 업계 평균적으로 1년에 7~8작품 정도 작업함. 음향감독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연예 기획사나 음반 제작사 등의 외주로 일을 얻는 경우가 많음.
	음악	• 영화, 방송, 뮤지컬 등 참여활동에 개인차가 큼. 다방면으로 활동할 경우, 1년에 100곡 이상 작업하여 판매 가능하고,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 1년에 최대 34곡정도 작업하여 판매 가능함.
편집	편집	• 보통 1년에 작은 영화까지 합치면 10편미만,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편수는 많아야 6~7편 정도임.
	Visual Effects	• 주로 소개를 통해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1년 평균 3~5작품 정도 작업함.
	DI	• 그동안 함께 작업하며 알게 된 지인 소개로 주로 일을 맡으며, 여름개봉 선작업을 하는 6&7월, 연말인 11&12월, 명절, 베를린 영화제 선작업을 하는 12&1월, 칸 영화제 선작업을 하는 3&4월, 부산&베니스 영화제 선작업을 하는 8월이 성수기라 할 수 있으며, 비수기는 3~5월 정도임.
기타	보조연기자	• 보통 1년에 20~25작품 출연함. 개인차가 있지만, 많이 하는 사람은 1년에 40작품 정도 출연함. 작품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한 작품 반복출연 가능하기도 함.

(2) 대중문화예술 관련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① 회사 소속 여부

<표 2-3-16> 직군별 회사 소속 여부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4대 보험에 가입됨.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함.
	연출	•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영화사와 작품에 따라 달라짐.
	홍보 마케팅	• 제작사에 소속되어, 회사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단위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음.
	구성작가	• 프리랜서가 많으며, 제작사에는 기획 작가, 작가 실장으로 월급을 받는 작가들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들어온 작가들의 관리 및 조언하는 프로듀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촬영	촬영	• 촬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음.
	조명	• 대부분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 활동 기간에만 계약 맺어 소속되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음.
	특수효과	• 프리랜서라도 특수효과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함. 작품 참여 활동은 제작사에 따라 다름.
	그립	• 대부분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임.

&lt;표 2-3-16&gt; 직군별 회사 소속 여부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파 KBS, MBC, SBS 방송국은 소속되어 있는 미술센터가 있거나 전담으로 일하는 미술 회사가 있어 방송국 자체제작의 작품에 참여하고, 외주제작일 경우에는 제작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일하게 됨.(방송국 소속 1/3, 프리랜서 2/3)</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임.</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프리랜서로 작품계약을 많이 함.</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li> </ul>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평균적으로 90%가 직원, 10%가 프리랜서임.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함.</li> </ul>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영화 제작사가 아닌 녹음실(음향 스튜디오) 소속으로 스튜디오 계약서(월급, 일하는 시간 정도 명시)를 통해 계약 맺음. 음향감독 같은 경우 10%는 프리랜서고 90%는 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작사에 소속되기 보단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 높은 편임.</li> </ul>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편집실 소속으로 편집실 대표인 편집 기사와 구두계약 맺음.</li> </ul>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작사(후반, CG제작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프리랜서임.</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종사자가 대부분 영화 제작사 아닌 DI 업체 회사 소속임.</li> </ul>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 자체가 없는 일용직이며, 보조출연 업체와 계약 이후 가입(등록)함. 가입된 보조출연 업체에서 일급(출연료)을 지급하며, 보조출연 업체도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는 편이 많음.</li> </ul>

② 계약 현황

<표 2-3-17> 직군별 계약 현황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즘은 표준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며, 메이저 투자사에서 진행하는 작품은 대부분 표준계약을 쓴다고 볼 수 있음. 물론 표준계약서 상 세부 항목들이 100% 지켜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님.</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제작사(대표)와 직접 계약을 맺음. 요즘은 표준계약서를 많이 쓰는 추세이고, 메이저급 제작사나 투자사일 때 표준계약서 내용이 명확히 이행되는 편임.</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장과 팀원은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하거나 구두계약인 경우가 일반적임.</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인 작가들은 보통 제작사와 프로그램 계약을 하며, 구두계약으로 일을 진행함.</li> </ul>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촬영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직접 계약 맺음.</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작비 30~50억 기준 6~8명 정도로 팀장이 직접 팀원 구성하며, 팀원들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개별계약 체결함.</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장급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통 3~4년 경력이 필요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특수효과가 많아야 함.</li> </ul>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나 프로듀서와 직접 계약 맺고, 팀원은 팀장과 구두계약을 맺음. 작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팀원은 보통 2명으로 구성됨.</li> </ul>

&lt;표 2-3-17&gt; 직군별 계약 현황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영화의 경우 영화 제작사 대표, 드라마의 경우 미술회사 혹은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맺음.
	의상	• 표준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상 영화 제작사 대표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상 실장님 소속이 됨.
	분장	• 영화 제작사 대표와 계약하며, 팀원은 팀장급이 직접 구성함.
	소품	• 영화촬영 시 표준계약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화사와 개별계약을 맺음.
음향	동시녹음	• 평균 4~5개월이 소요되는 촬영의 경우 주로 표준근로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영화 제작사(대표)와 팀원이 개별계약을 맺음.
	음향	• 프리랜서(10명 중 3~4명 정도)도 영화사가 아닌 녹음실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함. 프리랜서와 업체 모두 공연제작사와 주로 구두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음.
	음악	•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감독으로 작품 참여 시 제작자와 음악감독으로서 표준계약서 통해 개인적으로 제작사와 계약 체결함. 계약기간은 영화의 경우 보통 1년 정도, 드라마인 경우 3~6개월 정도임.
편집	편집	• 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랑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원 개념으로 팀장이 직접 고용하여 계약 맺음.
	Visual Effects	• 팀장급은 CG업체 대표와 직접 계약함. 전체적인 작업 흐름은 CG업체에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랑 계약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하청의 하청 개념으로 이루어짐.
	DI	• 대기업의 경우 DI 인력을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회사 자체 인력망과 인사팀을 통해 충원함.
기타	보조연기자	• 보조연기자는 일급제이며, 제작사에서 돈이 나오면 보조출연 업체에서 10,000원의 소개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출연료로 지급함.

③ 근로 현황 및 환경

<표 2-3-18> 직군별 근로 현황 및 환경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전과 달리 영화인 신문고나 노동청에 고소가 된 영화사는 정부 및 단체 지원이나 각종 행사참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에 영향을 줌.</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촬영 준비 기간에는 일요일 제외 月 26~27일 근무, 촬영 임박 시에는 月 30~31일 근무(촬영 21~22회차), 日 8~12시간 작업함.</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마케터 특성상 퇴근 이후 기사를 만나다거나 타 작품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근 이후에도 일이 연장됨. 제작사가 작품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임금을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편 시기인 봄, 가을에 기획안 제의가 많이 들어옴. 요즘은 PD와 작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PD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등 제작 환경이 열악해짐.</li> </ul>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석, 크리스마스 시즌 개봉을 겨냥해 3~4월과 9~10월에 촬영이 많이 들어감. 평균 한 달에 15~20일 촬영, 하루 8~12시간 정도 작업함.</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촬영감독이나 조명감독 인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상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대응하지 않는 편이 대부분임.</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촬영이나 조명팀에 비해 장비 준비나 정비 시간이 추가로 많이 소요됨.</li> </ul>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균 1년에 2작품 기준으로 6~7개월 정도 활동하며, 한 달 평균 20~23일,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함.</li> </ul>

&lt;표 2-3-18&gt; 직군별 근로 현황 및 환경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 겨울 시즌 개봉 영화들이 촬영에 많이 들어가는 봄, 가을이 가장 바쁜 시기임.</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6,7,8월)과 겨울(11,12,1월)을 성수기로 볼 수 있으며, 작품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月 26일 근무, 日 18시간 근무함.(촬영 전 준비 및 촬영 후 빨래 포함)</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 2달 촬영 기준, 月 20일 근무, 日 12시간 이상 작업함. 영화 예산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기술직이라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많은 시기가 따로 있지 않고, 늘 바쁜 편임. 촬영 준비 기간에는 月 26일, 촬영 중에는 매일 30일 근무에, 日 12시간 작업함. 다른 스태프들이 쉴 때도 세팅을 위해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고 할 수 있음.</li> </ul>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일 경우 月 18~20일, 日 12~14시간 촬영하고, 일반계약일 경우 月 22~24일, 日 최소 12시간 촬영함. 1년 평균 11달 정도 근무함.</li> </ul>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스튜디오는 月 20~24일 근무, 日 8~11시간 작업함. 행사가 많은 시기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함.</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수기나 비수기 등 활동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日 10~12시간 정도 근무함. 프리랜서라도 제작사와 계약한 기간 내의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늘어남.</li> </ul>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영화 여름(5~6월), 겨울(9~10월) 방학 개봉 전 주로 바쁘지만, 영화제 전 시즌(전주영화제와 부산영화제 출품 전인 1~2월)에 가장 바쁜 경우도 있음.</li> </ul>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학 시즌에 대체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바쁨. 하루 평균 6~8시간(최대 20시간), 한 달 26일 정도 근무하고 있음.</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급이 일정하지만 노동시간 대비 임금 높지 않고, 시간 대비 소득이 높지 않아 평상시 넉넉하지 못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li> </ul>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봄, 가을에 촬영이 많으며, 날씨도 좋고, 영화 개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평균 月 10일 촬영하며, 낮 기본촬영 기준으로 日 8~9시간, 밤샘 촬영일 경우 15시간 촬영함.</li> </ul>

(3) 대중문화예술 소득 현황

<표 2-3-19> 직군별 소득 현황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며, 표준계약서 썼을 때 기준으로 제작비 60억 원에 처음 시작하는 막내 160만 원 이상, 팀원(3작품 경력) 230~240만 원, 부장 200만 원 후반~300만 원 초반, 실장 350~400만 원 초반 정도임.</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스크립터는 평균 1년에 1작품, 10~8개월 작업 기간 거치며, 10년 정도 경력이면 月 350만 원(세전), 연출부 막내는 月 270~300만 원(세전) 정도임.</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마다 차이 있지만, 홍보마케팅 팀장급 8년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이 일반적임.</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의 분량에 따라 소득 차이가 극명함. 메인작가의 경우 평균 연봉 4,000~5,000만 원. 최대 1억 원 정도이며, 일반 메인작가에 비해 예능작가의 수입이 더 높음.</li> </ul>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작비 10~20억 영화에서 2,000~2,500만 원, 제작비 100억 이상은 1~2억 사이로 평균 5,000~6,000만 원 정도 수준임.</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평균적으로 막내는 月 200만 원 정도(최저시급), 퍼스트는 月 400~500만 원, 감독은 月 1,000만 원 정도 수준임.</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규모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업계 평균 급여는 사원의 경우 150~180만원, 팀장급은 200~250만원, 실장급은 300~3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음.</li> </ul>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서 작성, 3개월 촬영 기준으로 막내 100~150만원, 팀원 200만원, 팀장 : 600~700만원 수준임.</li> </ul>



&lt;표 2-3-19&gt; 직군별 소득 현황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주 수입원은 드라마이며, 보편적으로 팀장급 月 400~500만 원, 팀원 月 200~300만 원, 막내 월 100~200만 원임.
	의상	• 보통 팀장급은 224만 원(세전), 팀원은 210만 원(세전), 막내는 198만 원(세전), 실장급은 개인차가 커 평균내기 어려움.
	분장	• 보편적으로 팀장급은 月 300만 원, 팀원급은 月 200만 원, 막내는 月 150~170만 원 정도임.
	소품	• 팀(소품회사)마다 다르지만, 팀장(5년 이상 경력)급 月 300~350만 원, 막내 月 150만 원 정도임.
음향	동시녹음	• 4개월 소요되는 작품 하나 당 팀장급 소득은 月 4,000만 원, 붐오퍼레이터는 月 500~600만 원, 붐어시스턴트(막내)는 月 250만 원 정도임.
	음향	• 신입은 1,800만 원 정도, 팀장급은 2,500만 원 이상 수령함. 보통 회사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영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과수당은 없음. 프리랜서일 경우, 한 곡당 평균 30~50만 원 정도 받음.
	음악	• 팀장급일 경우라도 작품 활동이 적어질 경우 그 외 소득이 60% 이상 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장급은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전부임. 팀원들의 경우 레슨이나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 많음.
편집	편집	• 신입 편집기사는 月 100~150만 원, 경력 좀 쌓이면 160~180만 원 정도로 업계 통상적으로 소득 낮은 편임. 후반작업 중 편집은 편집료 편차가 큰 만큼 임금 편차도 큰 편임.
	Visual Effects	• CG업체 소속은 초급 월 150만 원 내외, 실장급 월 400만 원 정도임. 월 평균 300~400만 원 버는 프리랜서가 업체 소속 직원 보다는 소득이 높은 편임.
	DI	•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은 회사가 원하는 단가표에 못 미치게 되면 인맥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 있음.
기타	보조연기자	• 기본급 기준, 낮 촬영(아침7~8시부터)부터 오후 6시까지 촬영하며, 오후 6시 이후 촬영 종료 시간에 따라서 오버차지가 추가되어 출연료가 추가됨. 업계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면 기본급 55,000원(소개비 빼면 실 수령액 45,000원)이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기본급에 50% 27,500원) 추가되며 새벽 12시가 넘어가면 1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음.

(4) 가입 협·단체

<표 2-3-20> 직군별 가입 협·단체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 프로듀서만 가입하는 협회(10명 중 1~2명 가입)와 임단협(10명 중 2명 가입)이 있음.
	연출	• 협·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적은 편임.
	홍보 마케팅	• 홍보 마케팅의 경우 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가 없음.
	구성작가	•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대표적인 단체이며, 가입 조건은 메인작가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공중파에서 몇 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함.
촬영	촬영	• 대표적으로 촬영감독 협회와 사단법인 촬영감독 협회가 있음.
	조명	• 조명조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감독들은 70% 정도 가입되어 있음.
	특수효과	•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립	• 노조에 그립 파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명 중 2~3명 정도 가입되어 있음.
미술	미술	• 주로 영화산업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화산업노조와 미술감독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의상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분장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소품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음향	동시녹음	• 전체 80~90%가 한국영화녹음 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음향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음악	• 음악의 경우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함.
편집	편집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Visual Effects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DI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기타	보조연기자	• 관련 협회나 단체 없음.

## (5)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lt;표 2-3-21&gt;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 스태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정책적 보장, 지역의료 보험으로 전환되는 공백 기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연출	• 공백 기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홍보 마케팅	•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무시간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 신설,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구성작가	• 현 실정에 맞는 제작비 지급, 제작사 없이 작가들이 공모전에 기획안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촬영	촬영	• 실험영화 등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조명	• 임금과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제도 마련, 형식적인 표준근로계약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특수효과	• 표준근로계의 안정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그립	• 제작비 큰 영화들의 스크린 독점 상영 방지에 관한 제도적인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2-3-2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시 및 관리감독 하는 인력 파견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의상	• 표준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참여한 저예산영화 작품도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받는 제도 확충, 다음 작품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분장	• 모든 영화가 표준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소품	• 영화 자체가 전부 표준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음향	동시녹음	•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음향	• 노동시간 대비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는 제도와 지원 시스템, 작업 환경이 보다 열악한 사운드/CG/편집 쪽의 후반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음악	• 4대 보험가입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편집	편집	• 표준계약서 관련, 작품 활동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최소 생계비용 지원제도 확충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Visual Effects	•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DI	• 노동자 사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 확충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기타	보조연기자	• 업체로부터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제4절 향후 개선 방안

### 1. 응답률 관리

#### 1)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

-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응답률이 낮아질수록 추정량의 정도(Precision)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응답률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연구(과제명: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를 통해 마련한 조사 대상 사업체와의 관계 유지 방안을 2017년도 조사에 적용하여 1차년도 대비 응답율을 제고할 수 있었음.
- 이 외 추가적으로 대규모 사업체(종사자수 50인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전담팀을 운영(전담 컨택원 배치, 별도의 독려 안내자료 제작,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 등을 통한 독려 요청 등)하여 응답률을 제고해야할 것임.

#### ▶ 사업체 조사 응답률

구분		2015년도	2017년도
기획업	모집단(개)	1,393	1,952
	조사완료수(개)	802	1,378
	<b>응답률(%)</b>	<b>57.6</b>	<b>70.6</b>
제작업	모집단(개)	1,672	1,541
	조사완료수(개)	470	921
	<b>응답률(%)</b>	<b>37.9</b>	<b>59.8</b>

#### ▶ 조사 대상 사업체와의 관계 유지 방안(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결과 내용)

- ① 리스트 매칭 작업 후 동일 사업체에 대해서는 동일 ID 부여
- ② 응답 현황에 따른 별도 코드 부여 후 사업체 리스트 관리  
- code 1: 전년도 응답, code 2: 전년도 미응답, code 3: 리스트 신규 추가
- ③ 응답자 정보 파악 및 변경 시 상시 업데이트
- ④ 조사 안내 메일 발송
- ⑤ 응답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조사 방법 활용
- ⑥ 응답 완료 후 답례품 제공
- ⑦ 조사 결과 요약 자료 발송

## 2) 층별 응답률의 관리

- 모집단이 층으로 나누어졌을 경우 각 층별로 평균 응답률이 같아야 결측(무응답)이 추정에 편향을 적게 발생시킴. 따라서 층별 응답률을 고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 품질의 KPI로 Filling Rate와 같이 최소 응답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층화 : 분야별\*규모별 (12개 층)

## 2. 데이터 신뢰성 확보

### 1) 데이터 검증 강화

- 사업체 조사의 경우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연구를 통해 도출한 모수추정 방식(단위무응답 대체를 통한 체계적 추정)에 따라 2017년 조사에 적용하여 1차년도(2015년) 대비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 다만, 자계식 조사로 인한 오류응답(무응답, 오기입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산업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철저한 데이터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임.
  -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100% 사후검증을 실시
  - 내용상 로직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전화 검증
  - 과거 응답 데이터 비교 검증 실시 및 증감 사유 파악
  - 2차 자료(뉴스기사, 공시자료 등)를 통해 개별데이터를 확인

### 2) 무응답 패턴 분석을 통한 추정

- 3차년도 조사에서는 과거 2번의 조사결과 데이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무응답 패턴 분석을 통한 모수 추정을 고려해야 함.
- 사업체 조사에서 응답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응답 유형이 있음.
  - 매년 응답하는 사업체
  - 격년으로 응답하는 사업체(두 번에 한 번 정도)
  - 기타 표본 사업체(매년 모집단에서 새롭게 순환)
- 사업체 조사에서 규모별, 분야별 응답확률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응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여 응답성향 가중치를 반영해야 할 것임.

### 3. 종사자 대상 심층적 조사 확대

#### 1) FGI(focus group interview) 확대 실시

- 2017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와 연계하여 업계 현황 등 주요결과에 대한 검증과 지원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FGI 결과는 정량조사 및 심층인터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산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에는 FGI 5개 그룹이 진행되었으나, 분류체계상의 분야 별(대중문화예술인 11개 분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7개 분야)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하는 것이 본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2) 기획업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 대상 조사 실시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획업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현재의 실태조사에서는 기획업을 대상으로 소속연습생과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실제 업계 상황과 다르게 과대 또는 축소 응답된 데이터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업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의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함.
- 다만, 기획업 소속연습생 및 청소년연예인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한 접근 방안이 사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제5절 정책적 제언

### 1.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2017년 조사결과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서면계약률이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심층 인터뷰 및 FGI 결과, 활동시간, 수당 등 종사자 입장에서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표준계약서 상의 필수 항목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함.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표준계약서 명시 항목(예시)>

- 계약서에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사항 기재 필요(지연 보상금 등)
- 시간에 따른 임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스태프의 경우 최대 근로시간 계약서에 명시(최대 14시간 등)
- 연습생의 경우 심야활동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 또한 스태프의 경우 팀장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태프 팀원 등의 경우도 계약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인건비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작성 현황

응답 대상	구분	조사 실시 연도	
		2015년도	2017년도
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8%	84.0%
	소속연습생 대상 계약서 작성	66.8%	69.1%
	소속직원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53.0%	72.2%
제작업	소속직원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59.5%	77.7%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4%	75.9%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서면 계약	45.3%	66.5%(2016년 기준) 67.1%(2017년 기준)

### 2. 기존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 창작지원금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수혜자 편중현상이 있음. 지원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투성명 확보가 필요함.
- 인지도가 낮은(신입 등) 예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급 등과 정책도 필요하나, 과정(어떻게 비용을 쓰는지, 결과(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기존 지원정책(예술인패스 등)에 대한 홍보 필요



### 3.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경력 증명이 어렵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프로필 및 작품에 관한 포트폴리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개선연구 결과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며, 2017년도 종사자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에서도 도출되었음. 이렇듯 업계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를 누가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운영주체 및 운영 방안을 명확히하여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을 설립해야 할 것임.





## 제3장 세부 결과



## 제3장 세부 결과

## 제1절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의 응답업체 특성표를 살펴보면, 소속직원 수는 '2~5인 미만'이 39.5%로 가장 많았고, 주요 사업 분야별로는 '매니지먼트 분야'가 66.1%로 가장 많았음.
- '소속 직원 수'(규모)와 '주요 사업 분야(대분류)'는 전체 항목에 대한 분석 단위로 활용됨.

&lt;표 3-1-1&gt;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응답업체(모집단) 특성표

(단위: 개, %)

구분		모집단 구성비		
		사례수(개)	비중(%)	
전체		<b>(1,952)</b>	<b>100.0</b>	
소속 직원 수*	1인	(445)	22.8	
	2~5인 미만	(771)	39.5	
	5~10인 미만	(453)	23.2	
	10인 이상	(283)	14.5	
주요 사업 분야** (대분류)	매니지먼트 분야	(1,290)	66.1	
	제작 분야	(397)	20.3	
	기타 분야	(265)	13.6	
주요 사업 분야 (소분류)	매니지먼트 분야	연기자	(634)	32.5
		가수	(554)	28.4
		코미디언	(14)	0.7
		모델	(38)	1.9
		기타***	(50)	2.6
	제작 분야	드라마	(28)	1.4
		영화	(27)	1.4
		음반	(162)	8.3
		디지털 음원	(113)	5.8
		기타***	(67)	3.4
	기타 분야	아카데미	(21)	1.1
		MD비즈니스	(7)	0.3
		모델에이전시	(123)	6.3
기타***		(114)	5.9	

\* 소속 직원 수 1인은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도 해당됨.

\*\* 주요 사업 분야(대분류)는 주요 사업 분야(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업체에서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예, 매출규모가 가장 큰 분야)를 의미함.

\*\* 기타(매니지먼트 분야)에는 MC, DJ, 성우, 기타방송인 등이 있음. / 기타(제작 분야)에는 기타 방송 프로그램(예능) 등이 있음. / 기타(기타 분야)에는 캐스팅 디렉터 등이 있음.

※ 결과분석 시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하므로 개별항목의 합계와 전체 합계(100.0%)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모집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특성별 응답업체수는 '±1'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1. 세부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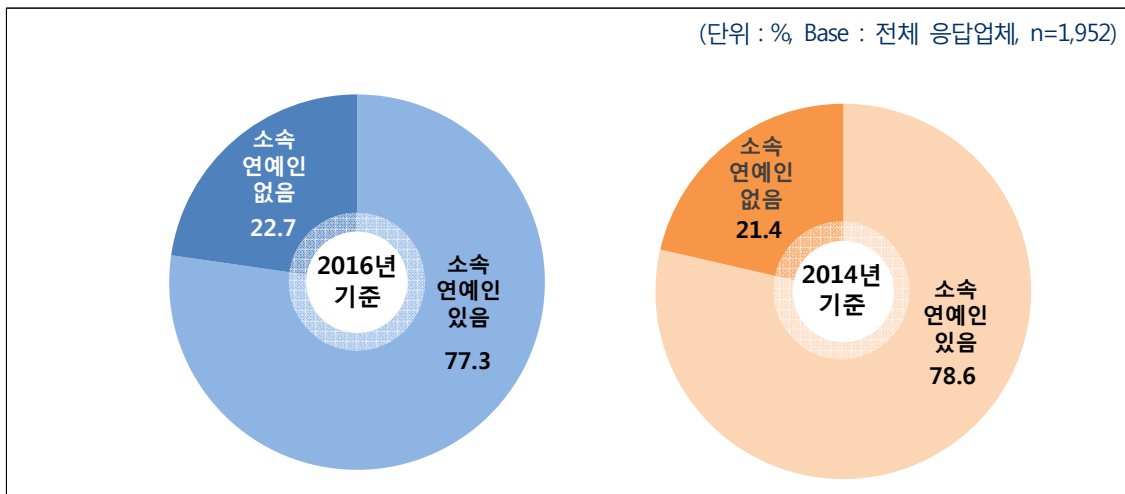
1) 대중문화예술인 현황

(1) 소속연예인 유무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전체 응답 업체 중 '소속연예인이 있다'는 업체는 77.3%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소속연예인 있음'은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소속연예인 유무 여부



<표 3-1-2>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유무 여부

(단위: %)

		사례수	소속연예인 있음	소속연예인 없음	계
<b>전체</b>		<b>(1,952)</b>	<b>77.3</b>	<b>22.7</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89.8	10.2	100.0
	제작 분야	(397)	73.6	26.4	100.0
	기타 분야**	(265)	21.9	78.1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66.6	33.4	100.0
	2~5인 미만	(771)	80.5	19.5	100.0
	5~10인 미만	(453)	81.4	18.6	100.0
	10인 이상	(283)	78.7	2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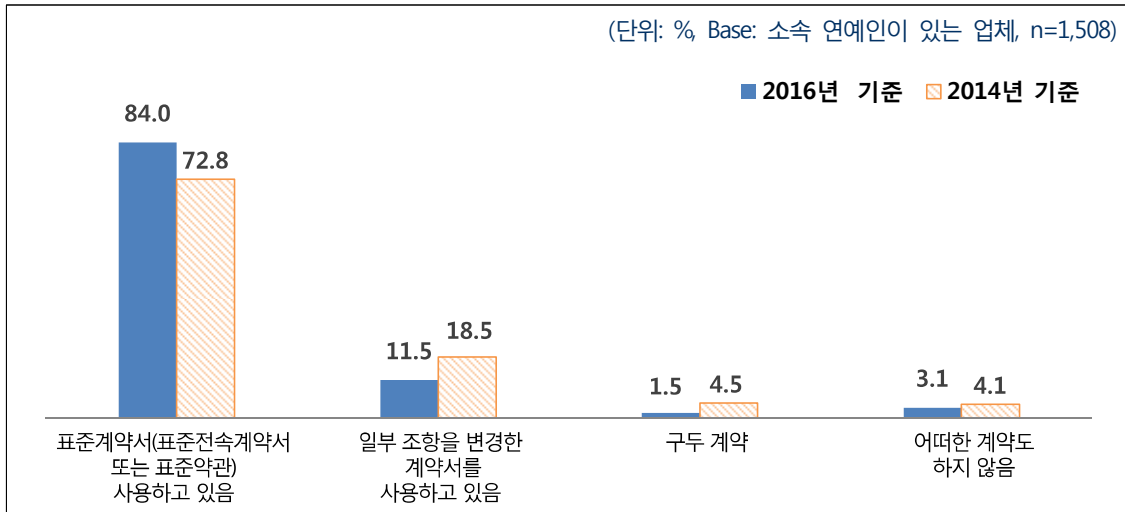
\*소속 직원 수는 해당 업체 소속 인력 중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임.

\*\*기타 분야는 아카데미, MD비즈니스, 모델에이전시 등임.

(2)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소속연예인이 있는 업체(n=1,508)의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사용' 비율은 84.0%임.
- 다음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11.5%), '구두계약'(1.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은 매니지먼트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 직원 수별로는 소속 직원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3>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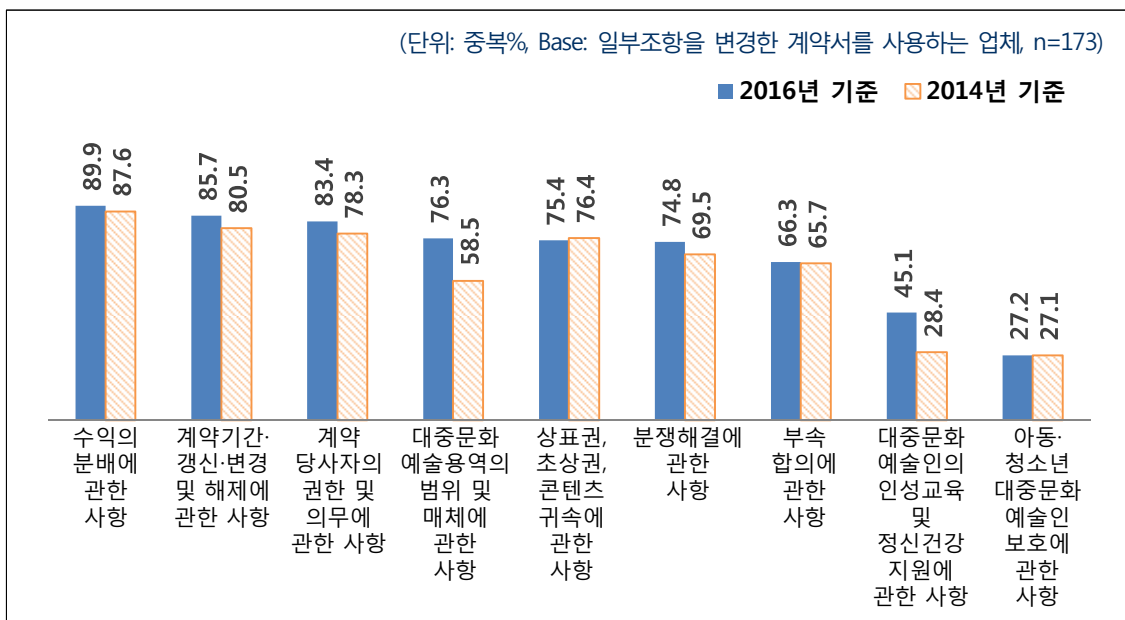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표준 계약서 사용	일부 조항 변형 계약서 사용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전체		(1,508)	84.0	11.5	1.5	3.1	100.0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158)	86.8	9.2	1.4	2.6	100.0
	제작 분야	(292)	76.8	16.8	1.5	4.9	100.0
	기타 분야	(58)	63.6	30.8	1.9	3.8	100.0
소속 직원 수	1인	(296)	78.7	11.4	2.4	7.5	100.0
	2~5인 미만	(620)	83.7	11.6	1.3	3.3	100.0
	5~10인 미만	(369)	85.3	13.3	1.4	0.0	100.0
	10인 이상	(223)	89.5	8.1	0.7	1.7	100.0

(3) 계약서 포함사항

-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n=173)의 경우, 계약서 포함사항(중복응답)으로는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89.9%),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85.7%),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83.4%)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됨.
- ※ 2014년 대비 계약서 포함사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각각 ▲17.8%p, ▲16.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소속연예인 계약서 포함사항(중복응답)



<표 3-1-4>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계약서 포함사항(중복응답)

(단위: 중복%)

		사례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 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b>전체</b>		<b>(173)</b>	<b>89.9</b>	<b>85.7</b>	<b>83.4</b>	<b>76.3</b>	<b>75.4</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06)	90.8	82.0	80.2	73.9	72.6
	제작 분야	(49)	88.9	95.4	91.3	82.0	81.4
	기타 분야	(18)	87.2	81.3	81.1	74.8	75.0
소속 직원 수	1인	(34)	89.0	89.7	86.6	79.6	75.5
	2~5인 미만	(72)	92.0	84.8	86.4	79.2	79.2
	5~10인 미만	(49)	91.3	85.9	79.6	73.3	70.9
	10인 이상	(18)	79.2	81.5	76.0	66.7	72.3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5개 항목만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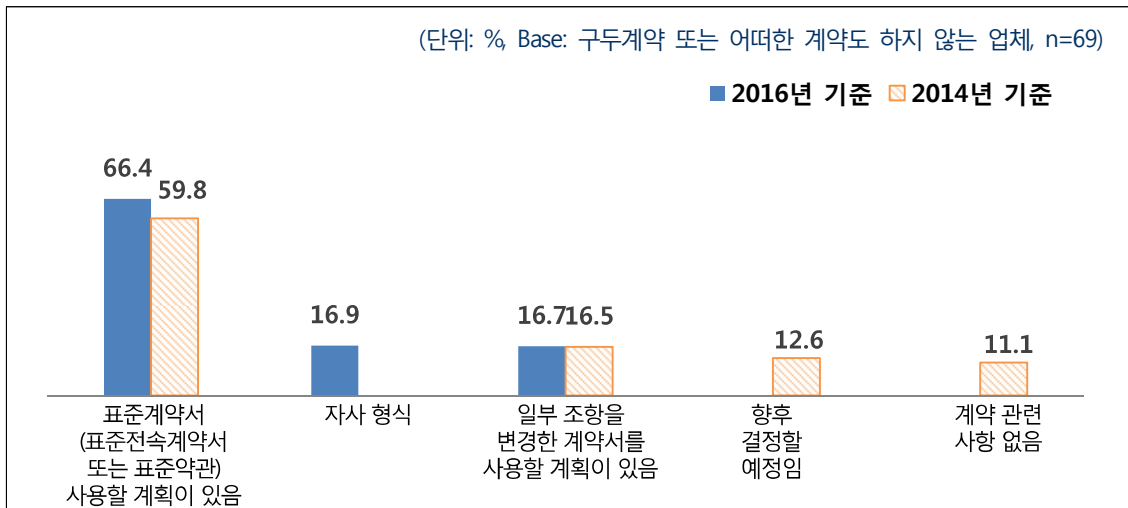


(4)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구두계약' 또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는다'는 업체(n=69)의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사용할 계획이 있음'이 6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사 형식'(16.9%),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16.7%)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 사용할 계획이 있음'은 ▲6.6%p 증가한 반면,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표 3-1-5>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연예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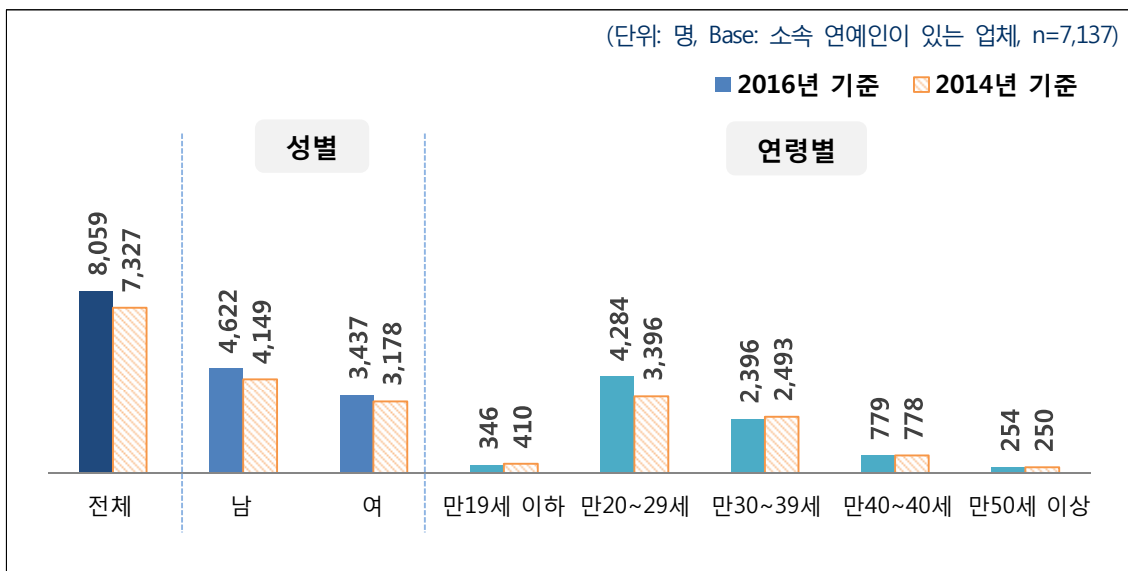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표준 계약서 사용 계획 있음	자사 형식	일부 조항 변형한 계약서 사용 계획 있음	계
<b>전체</b>		<b>(69)</b>	<b>66.4</b>	<b>16.9</b>	<b>16.7</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47)	69.6	13.2	17.3	100.0
	제작 분야	(19)	58.3	23.6	18.2	100.0
	기타 분야	(3)	66.7	33.3	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29)	67.3	20.0	12.7	100.0
	2~5인 미만	(29)	64.0	20.0	16.0	100.0
	5~10인 미만	(5)	38.1	0.0	61.9	100.0
	10인 이상	(5)	100.0	0.0	0.0	100.0

(5) 대중문화예술인 세부 인력현황

-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응답업체의 소속 연예인 전체 인력 규모는 8,059명임.
- 성별로는 남자가 4,622명으로 여자(3,437명)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만 20~29세(4,284명), 만 30~39세(2,396명), 만 40~49세(779명)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대중문화예술인 인력'은 732명 증가했으며, 특히 '만 20~29세' 연령대에서 ▲88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만 30~39세' 연령대에서는 ▼9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대중문화예술인 인력현황



###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 분야(보컬, 댄스 등)가 4,02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기자 분야(3,078명), 모델 분야(4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6>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 세부 인력현황

(단위: 명)

주요 사업 분야	주된 분야	인원수	성별		연령				
			남	여	만 19세 이하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매니지먼트 분야	연기자	2,849	1,611	1,238	135	1,176	975	408	155
	가수(보컬, 댄스)	2,914	1,681	1,233	118	1,827	733	187	49
	코미디언	119	86	33	0	26	68	20	5
	모델	171	84	87	22	126	21	2	0
	기타	240	150	90	4	52	129	49	6
	소계	6,293	3,612	2,681	279	3,207	1,926	666	215
제작 분야	연기자	137	80	57	2	54	55	19	7
	가수(보컬, 댄스)	1,036	629	407	26	672	273	47	18
	코미디언	20	14	6	0	2	15	3	0
	모델	2	1	1	0	2	0	0	0
	기타	89	58	31	0	22	54	12	1
	소계	1,284	782	502	28	752	397	81	26
기타 분야	연기자	92	60	32	0	45	21	21	5
	가수(보컬, 댄스)	78	42	36	7	54	12	5	0
	코미디언	2	1	1	0	0	1	1	0
	모델	281	106	175	31	218	27	0	5
	기타	29	19	10	1	8	12	5	3
	소계	482	228	254	39	325	73	32	13
전체	연기자	<b>3,078</b>	<b>1,751</b>	<b>1,327</b>	<b>137</b>	<b>1,275</b>	<b>1,051</b>	<b>448</b>	<b>167</b>
	가수(보컬, 댄스)	<b>4,028</b>	<b>2,352</b>	<b>1,676</b>	<b>151</b>	<b>2,553</b>	<b>1,018</b>	<b>239</b>	<b>67</b>
	코미디언	<b>141</b>	<b>101</b>	<b>40</b>	<b>0</b>	<b>28</b>	<b>84</b>	<b>24</b>	<b>5</b>
	모델	<b>454</b>	<b>191</b>	<b>263</b>	<b>53</b>	<b>346</b>	<b>48</b>	<b>2</b>	<b>5</b>
	기타*	<b>358</b>	<b>227</b>	<b>131</b>	<b>5</b>	<b>82</b>	<b>195</b>	<b>66</b>	<b>10</b>
	전체	<b>8,059</b>	<b>4,622</b>	<b>3,437</b>	<b>346</b>	<b>4,284</b>	<b>2,396</b>	<b>779</b>	<b>25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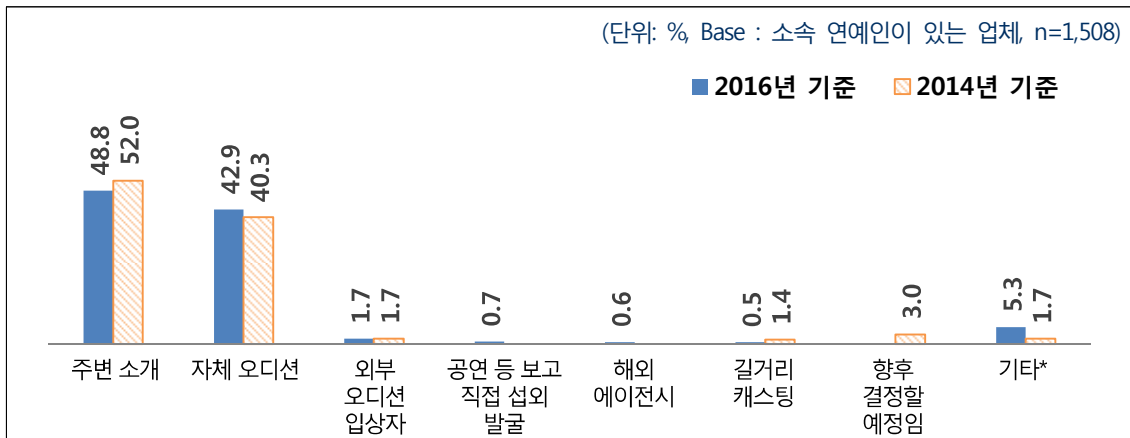
\* 기타에는 MC, DJ, 성우 기타방송인 등이 있음.

\*\* 본 문항은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6) 대중문화예술인 주된 구인 경로

-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된 구인 경로에 대해서는 '주변 소개'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체 오디션'이 42.9%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주변 소개' 비율은 ▽3.2%p 감소한 반면, '자체 오디션 비율'은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주된 구인 경로



\* 기타는 에이전시를 통한 소개, 지원, 인터넷검색 등임.

- '주변 소개'는 매니지먼트 분야, 소속 직원 수 2~5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체오디션'은 기타(아카데미, 모델 에이전시, MD비즈니스 등) 분야, 소속 직원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7> 응답업체 특성별 주된 구인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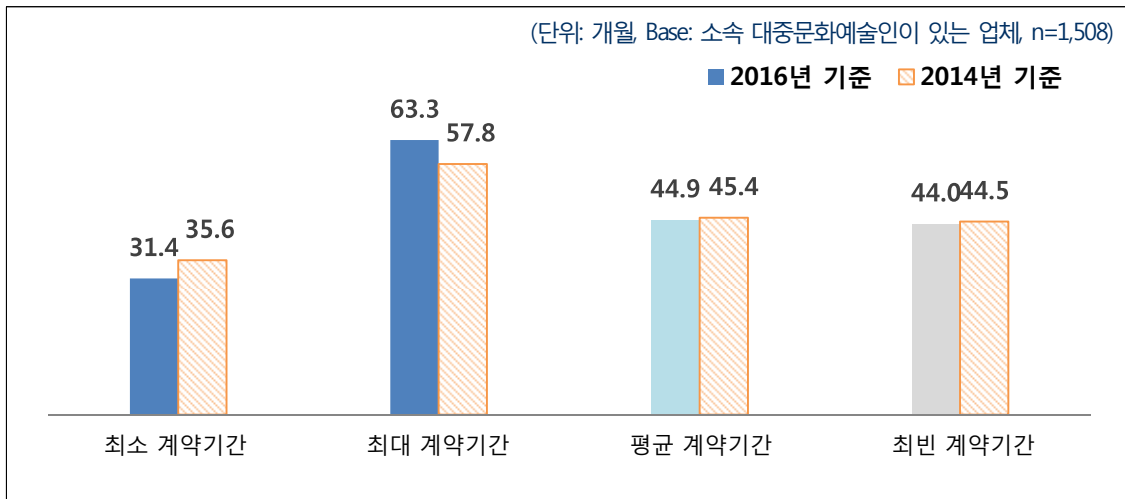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주변 소개	자체 오디션	외부 오디션 입상자	공연 등 보고 직접 섭외 발굴	해외 에이전시	길거리 캐스팅	기타	계
<b>전체</b>		<b>(1,508)</b>	<b>48.8</b>	<b>42.9</b>	<b>1.7</b>	<b>0.7</b>	<b>0.6</b>	<b>0.5</b>	<b>5.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158)	50.1	42.5	1.6	0.8	0.6	0.3	4.4	100.0
	제작 분야	(292)	48.2	41.9	2.2	0.4	0.0	1.2	7.2	100.0
	기타 분야	(58)	26.9	54.3	2.0	1.9	2.0	1.7	13.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296)	51.5	35.3	2.4	0.8	0.0	0.8	10.0	100.0
	2~5인 미만	(620)	52.6	40.9	1.5	0.3	0.0	0.2	4.6	100.0
	5~10인 미만	(369)	46.1	46.2	1.4	1.9	1.9	0.3	2.5	100.0
	10인 이상	(223)	39.2	52.7	2.0	0.0	0.7	1.2	5.3	100.0

(7) 대중문화예술인 계약기간 평균

-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갱신된 계약 기준으로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계약기간'이 약 2년 7개월(31.4개월), '최대 계약기간'이 약 5년 3개월(63.3개월)로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9개월(44.9개월)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최소 계약기간'이 ▽4.2개월 감소한 반면, '최대 계약기간'은 ▲5.5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 계약기간'과 '최빈 계약기간'은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3-1-7> 계약기간 평균



- '평균 계약기간'은 기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남.

<표 3-1-8> 응답업체 특성별 계약기간 평균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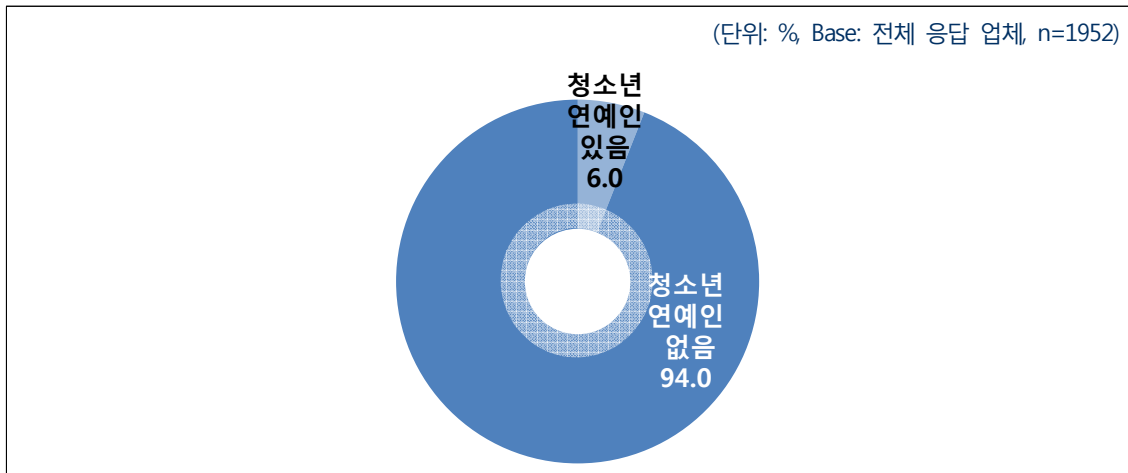
		사례수	최소 계약기간	최대 계약기간	평균 계약기간	최빈 계약기간
<b>전체</b>		<b>(1,508)</b>	<b>31.4</b>	<b>63.3</b>	<b>44.9</b>	<b>44.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158)	32.2	63.4	45.4	44.6
	제작 분야	(292)	29.5	65.5	45.3	43.9
	기타 분야	(58)	24.0	51.3	32.7	31.9
소속 직원 수	1인	(296)	29.6	62.2	42.9	41.5
	2~5인 미만	(620)	32.5	62.4	45.2	44.1
	5~10인 미만	(369)	31.3	63.7	44.7	44.1
	10인 이상	(223)	31.0	66.8	46.9	46.6

## 2) 청소년 연예인(만 19세 미만) 현황

### (1) 청소년 연예인(만 19세 미만) 유무

- 청소년 연예인 유무 여부에 대해 '청소년 연예인 있음'이 6.0%, '청소년 연예인 없음'이 94.0%로 나타남.

<그림 3-1-8> 청소년 연예인 유무



<표 3-1-9>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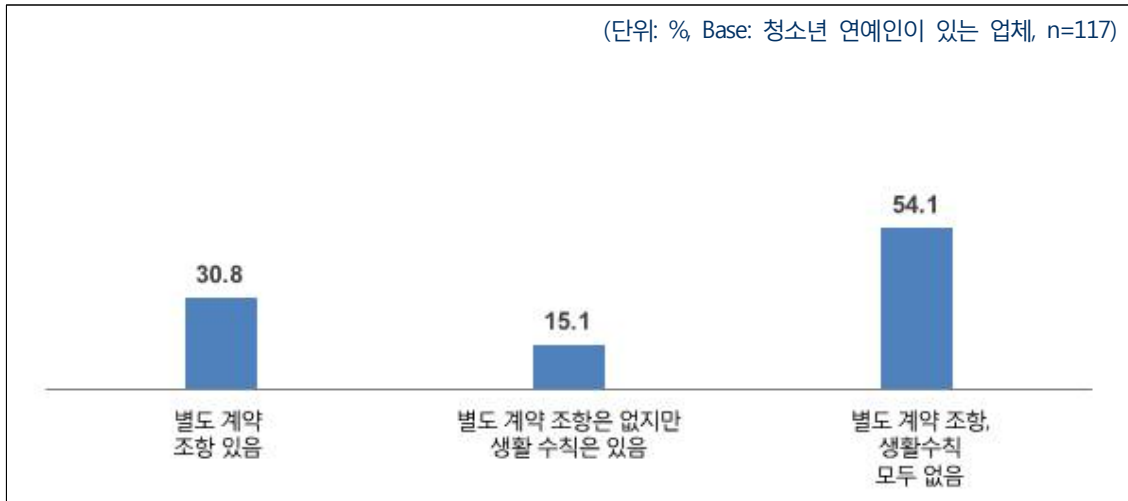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청소년 연예인 있음	청소년 연예인 없음	계
<b>전체</b>		<b>(1952)</b>	<b>6.0</b>	<b>94.0</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7.9	92.1	100.0
	제작 분야	(397)	1.9	98.1	100.0
	기타 분야	(265)	2.6	97.4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1.7	98.3	100.0
	2~5인 미만	(771)	4.1	95.9	100.0
	5~10인 미만	(453)	5.7	94.3	100.0
	10인 이상	(283)	18.2	81.8	100.0

(2) 별도 계약 현황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들(n=117)의 별도 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조항 있음'이 30.8%, '별도 계약 조항은 없지만 생활 수칙은 있음'이 15.1%로 나타남.
- '별도 계약 조항, 생활수칙 모두 없음'은 54.1%로 나타남.

<그림 3-1-5>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 현황



<표 3-1-10>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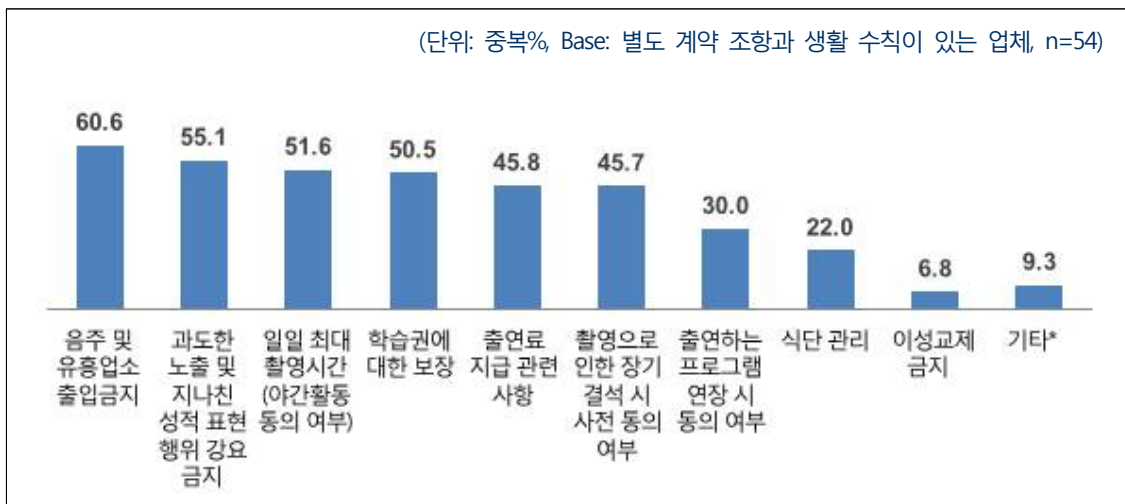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별도 계약 조항 있음	별도 계약 조항은 없지만 생활 수칙은 있음	별도 계약 조항, 생활 수칙 모두 없음	계
<b>전체</b>		<b>(117)</b>	<b>30.8</b>	<b>15.1</b>	<b>54.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02)	30.7	14.1	55.2	100.0
	제작 분야	(8)	13.2	27.3	59.5	100.0
	기타 분야	(7)	51.7	17.0	31.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8)	51.9	0.0	48.1	100.0
	2~5인 미만	(32)	25.4	16.4	58.2	100.0
	5~10인 미만	(26)	19.4	19.4	61.3	100.0
	10인 이상	(52)	36.6	14.5	48.8	100.0

(3)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

○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이 있는 업체들(n=54)의 계약사항 및 생활지침 사항(중복응답)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가 6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 행위 강요 금지'(55.1%), '일일 최대 촬영시간'(51.6%), '학습권에 대한 보장'(5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0>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중복응답)



\* 기타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임.

<표 3-1-11>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중복응답)

(단위: 중복%)

		사례수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일일 최대 촬영시간 (야간활동 동의 여부)	학습권에 대한 보장	출연료 지급 관련 사항
<b>전체</b>		<b>(54)</b>	<b>60.6</b>	<b>55.1</b>	<b>51.6</b>	<b>50.5</b>	<b>45.8</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46)	56.1	52.0	53.1	49.7	43.9
	제작 분야	(3)	67.4	32.6	67.4	100.0	67.4
	기타 분야	(5)	100.0	100.0	26.4	26.4	51.1
소속 직원 수	1인	(4)	66.7	66.7	33.3	33.3	33.3
	2~5인 미만	(13)	73.8	34.6	13.1	39.2	26.2
	5~10인 미만	(10)	61.6	61.6	57.6	19.2	50.0
	10인 이상	(26)	52.6	61.2	71.6	70.7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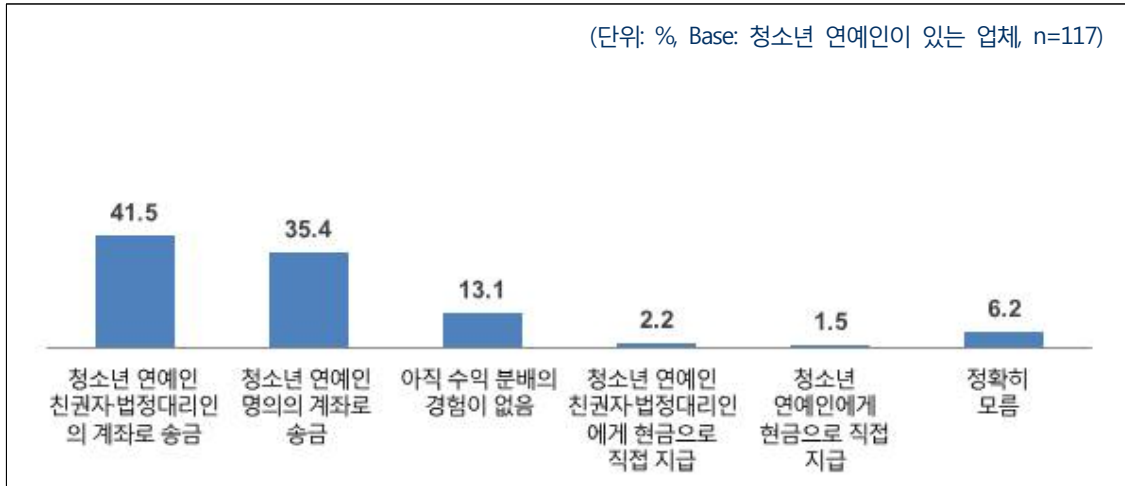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5개 항목만 표시함.



(4) 수익금 지급 방식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기획업체(n=117)의 경우 수익금 지급 방식은 '청소년 연예인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송금'(41.5%)과 '청소년 연예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35.4%) 이 차례대로 높게 나타나 주로 계좌 송금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11> 청소년 연예인 수익금 지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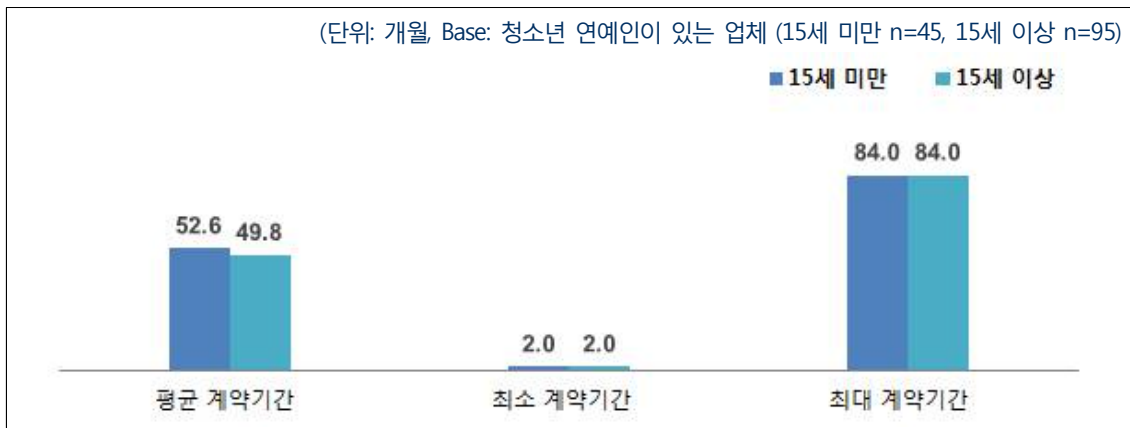
<표 3-1-12>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수익금 지급 방식

		사례수	청소년 연예인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송금	청소년 연예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아직 수익 분배의 경험이 없음	청소년 연예인 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청소년 연예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정확히 모름	계
<b>전체</b>		<b>(117)</b>	<b>41.5</b>	<b>35.4</b>	<b>13.1</b>	<b>2.2</b>	<b>1.5</b>	<b>6.2</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02)	42.1	38.2	12.8	1.3	1.7	3.9	100.0
	제작 분야	(8)	40.5	13.8	29.9	15.7	0.0	0.0	100.0
	기타 분야	(7)	33.6	18.1	0.0	0.0	0.0	48.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8)	34.6	48.1	17.3	0.0	0.0	0.0	100.0
	2~5인 미만	(32)	30.9	43.7	16.4	0.0	5.5	3.5	100.0
	5~10인 미만	(26)	26.8	37.2	19.5	4.6	0.0	11.9	100.0
	10인 이상	(52)	56.5	27.5	7.3	2.7	0.0	6.0	100.0

(5) 계약기간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의 평균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만 15세 미만(n=45)은 약 4년 4개월(52.6개월),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약 4년 1개월(49.8개월)로 나타남.

<그림 3-1-12> 청소년 연예인 계약 기간



<표 3-1-13>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평균 계약 기간-15세 미만

(단위: %, 개월)

	사례수	2년 미만	2~5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계	계약 기간			
							평균	최소	최대	
<b>전체</b>	<b>(45)</b>	<b>7.8</b>	<b>39.6</b>	<b>20.2</b>	<b>32.5</b>	<b>100.0</b>	<b>52.6</b>	<b>2.0</b>	<b>84.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36)	0.0	40.4	19.0	40.7	100.0	58.8	24.0	84.0
	제작 분야	(4)	0.0	48.3	51.7	0.0	100.0	48.7	36.0	61.0
	기타 분야	(5)	75.1	24.9	0.0	0.0	100.0	8.5	2.0	24.0
소속 직원 수	1인	(1)	0.0	100.0	0.0	0.0	100.0	36.0	36.0	36.0
	2~5인 미만	(11)	20.6	47.7	0.0	31.8	100.0	40.9	2.0	84.0
	5~10인 미만	(14)	0.0	36.0	50.1	13.8	100.0	52.1	24.0	84.0
	10인 이상	(19)	6.5	34.1	11.1	48.3	100.0	60.7	2.0	84.0

<표 3-1-14>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평균 계약 기간-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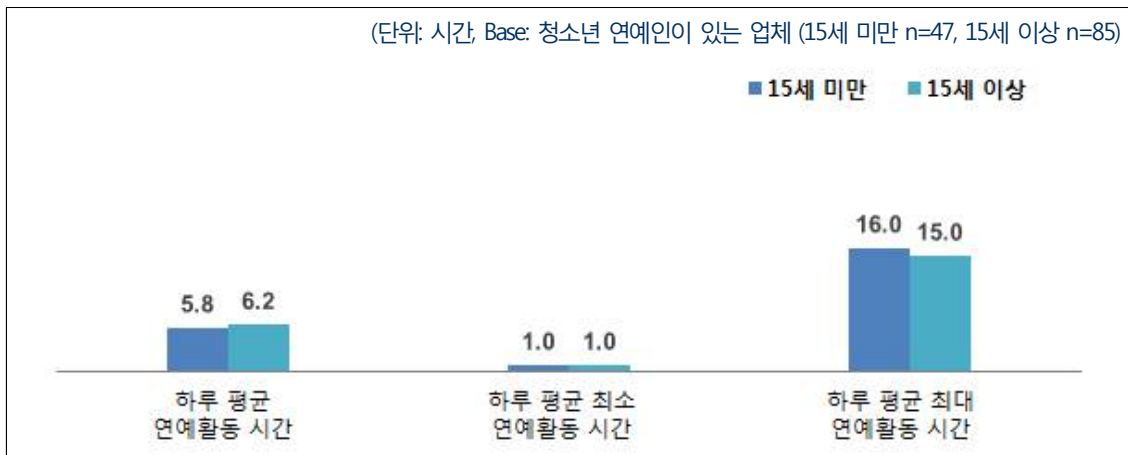
(단위: %, 개월)

	사례수	2년 미만	2~5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계	계약 기간			
							평균	최소	최대	
<b>전체</b>	<b>(95)</b>	<b>14.8</b>	<b>35.3</b>	<b>24.6</b>	<b>25.3</b>	<b>100.0</b>	<b>49.8</b>	<b>2.0</b>	<b>84.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83)	10.0	37.9	23.1	29.0	100.0	52.7	2.0	84.0
	제작 분야	(5)	0.0	21.9	78.1	0.0	100.0	55.0	36.0	61.0
	기타 분야	(7)	85.3	14.7	0.0	0.0	100.0	9.4	2.0	36.0
소속 직원 수	1인	(7)	20.0	80.0	0.0	0.0	100.0	26.4	12.0	36.0
	2~5인 미만	(27)	15.0	26.2	39.2	19.6	100.0	51.1	2.0	84.0
	5~10인 미만	(18)	23.3	48.9	6.6	21.2	100.0	41.8	2.0	84.0
	10인 이상	(44)	10.4	28.5	26.9	34.2	100.0	55.8	2.0	84.0

(6)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의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만 15세 미만(n=47)은 평균 5.8시간, 만 15세 이상(n=85)은 평균 6.2시간으로 나타남.

<그림 3-1-13>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



<표 3-1-15>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15세 미만 (단위: %, 시간)

	사례수	5시간 미만	5~7시간	8~9시간	10시간 이상	계	하루 활동 시간			
							평균	최소	최대	
<b>전체</b>	<b>(47)</b>	<b>27.1</b>	<b>42.0</b>	<b>18.6</b>	<b>12.2</b>	<b>100.0</b>	<b>5.8</b>	<b>1.0</b>	<b>16.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38)	27.8	42.9	16.9	12.3	100.0	5.8	1.0	16.0
	제작 분야	(4)	24.5	23.9	27.2	24.5	100.0	6.5	2.0	10.0
	기타 분야	(5)	24.3	51.5	24.3	0.0	100.0	5.3	1.0	9.0
소속 직원 수	1인	(1)	0.0	100.0	0.0	0.0	100.0	6.0	6.0	6.0
	2~5인 미만	(13)	36.3	41.1	22.6	0.0	100.0	4.7	1.0	9.0
	5~10인 미만	(14)	27.7	36.0	22.5	13.8	100.0	5.7	1.0	10.0
	10인 이상	(19)	22.2	43.7	14.2	19.9	100.0	6.6	2.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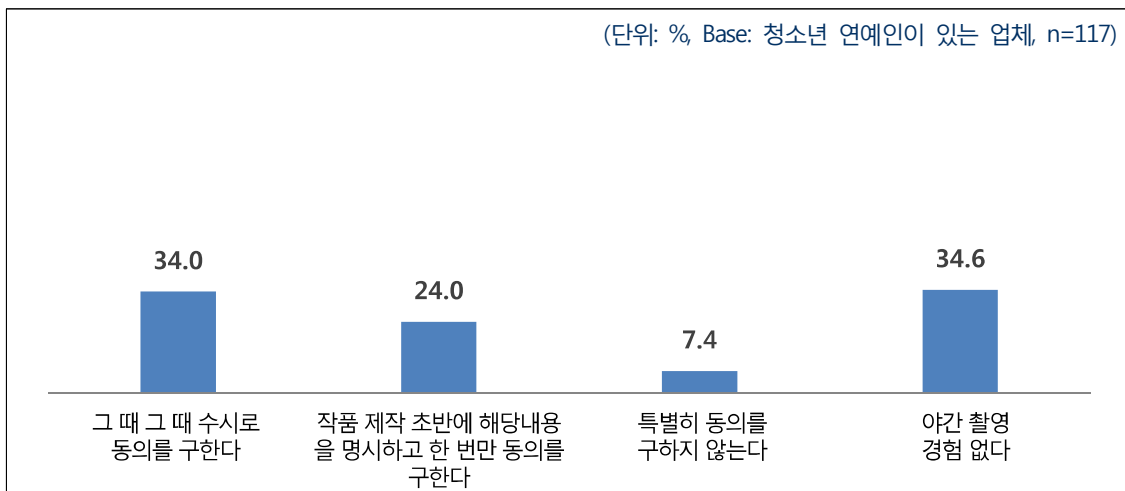
<표 3-1-16>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15세 이상 (단위: %, 시간)

	사례수	5시간 미만	5~7시간	8~9시간	10시간 이상	계	하루 활동 시간			
							평균	최소	최대	
<b>전체</b>	<b>(85)</b>	<b>23.0</b>	<b>46.7</b>	<b>21.4</b>	<b>8.9</b>	<b>100.0</b>	<b>6.2</b>	<b>1.0</b>	<b>15.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73)	21.0	49.9	21.8	7.3	100.0	6.1	3.0	10.0
	제작 분야	(5)	40.2	18.3	0.0	41.5	100.0	7.4	3.0	15.0
	기타 분야	(7)	31.3	35.1	33.6	0.0	100.0	5.5	1.0	9.0
소속 직원 수	1인	(5)	50.0	50.0	0.0	0.0	100.0	4.5	4.0	5.0
	2~5인 미만	(20)	14.6	53.1	23.4	8.9	100.0	6.4	1.0	10.0
	5~10인 미만	(18)	27.7	38.1	17.0	17.2	100.0	6.1	3.0	10.0
	10인 이상	(42)	21.5	47.0	25.0	6.5	100.0	6.3	3.0	15.0

(7)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n=117)의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가 3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24.0%) 순임.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의 34.6%는 '야간촬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그림 3-1-14>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표 3-1-17>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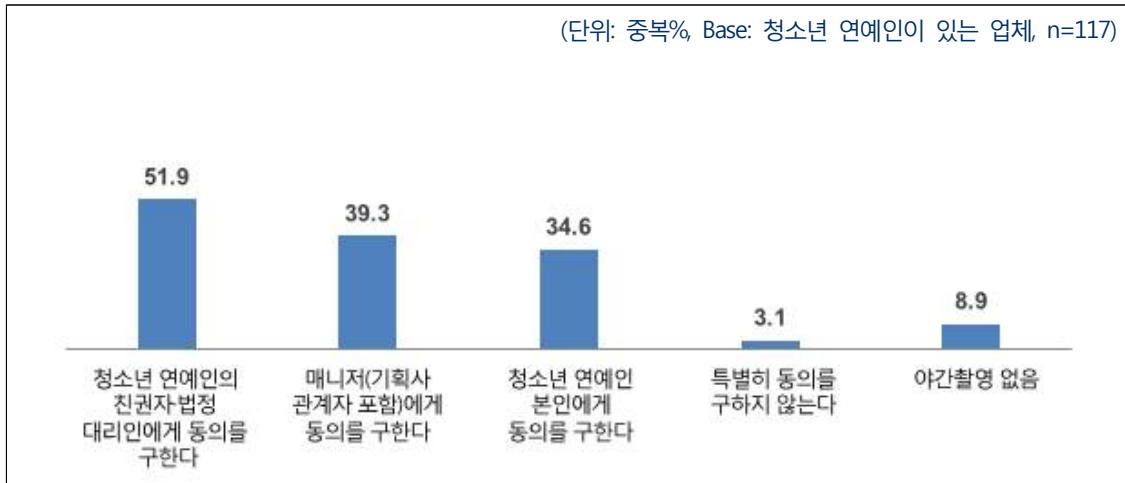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그 때 그 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내용을 명시 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야간 촬영 경험 없다	계
<b>전체</b>		<b>(117)</b>	<b>34.0</b>	<b>24.0</b>	<b>7.4</b>	<b>34.6</b>	100.0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02)	34.5	24.2	8.5	32.8	100.0
	제작 분야	(8)	13.2	27.3	0.0	59.5	100.0
	기타 분야	(7)	49.4	16.6	0.0	34.1	100.0
소속 직원 수	1인	(8)	34.6	17.3	0.0	48.1	100.0
	2~5인 미만	(32)	25.4	25.4	10.9	38.3	100.0
	5~10인 미만	(26)	29.7	0.0	14.9	55.4	100.0
	10인 이상	(52)	41.3	36.1	2.7	20.0	100.0

(8)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

-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기획업체(n=117)의 경우 야간 촬영 시 '청소년 연예인의 친권자/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비율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니저에게 동의를 구한다'(39.3%), '청소년 연예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다'(3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5>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표 3-1-18>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단위: 중복%)

		사례수	청소년 연예인의 친권자/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매니저(기획사 관계자 포함)에게 동의를 구한다	청소년 연예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야간촬영 없음	계
<b>전체</b>		<b>(117)</b>	<b>51.9</b>	<b>39.3</b>	<b>34.6</b>	<b>3.1</b>	<b>8.9</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02)	55.8	39.4	34.4	3.6	6.9	100.0
	제작 분야	(8)	15.7	27.3	40.5	0.0	43.7	100.0
	기타 분야	(7)	34.1	51.2	31.7	0.0	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8)	69.2	0.0	34.6	0.0	13.5	100.0
	2~5인 미만	(32)	60.1	50.8	21.9	5.5	0.0	100.0
	5~10인 미만	(26)	50.8	22.3	41.7	7.4	12.1	100.0
	10인 이상	(52)	44.8	46.5	39.0	0.0	12.0	100.0

(9) 학교 재학 현황

- 응답업체 기준(n=117)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학교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재학중임'은 298명(초등학교 49명, 일반계 중고등학교 165명, 예술계 중고등학교 84명)이며,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음'은 48명으로 나타남.
-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당사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57.1%, '검정고시 준비 중임'이 53.3%, '연예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가 47.6%로 나타났으며, '진학(복학) 준비 중'인 비율도 7.4%로 조사됨.

<표 3-1-19> 청소년 연예인 학교 재학 현황

(단위: 명)

		사례수	학교 재학 중임			학교 재학 중이지 않음	소계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일반계)	중고등 학교 (예술계)			
<b>전체</b>		<b>(117)</b>	<b>49</b>	<b>165</b>	<b>84</b>	<b>298</b>	<b>48</b>	<b>346</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02)	40	137	79	256	40	296
	제작 분야	(8)	4	7	3	14	8	22
	기타 분야	(7)	5	21	2	28	0	28
소속 직원 수	1인	(8)	2	5	1	8	5	13
	2~5인 미만	(32)	23	22	15	60	0	60
	5~10인 미만	(26)	1	44	8	53	8	61
	10인 이상	(52)	23	94	60	177	35	212

<표 3-1-20> 청소년 연예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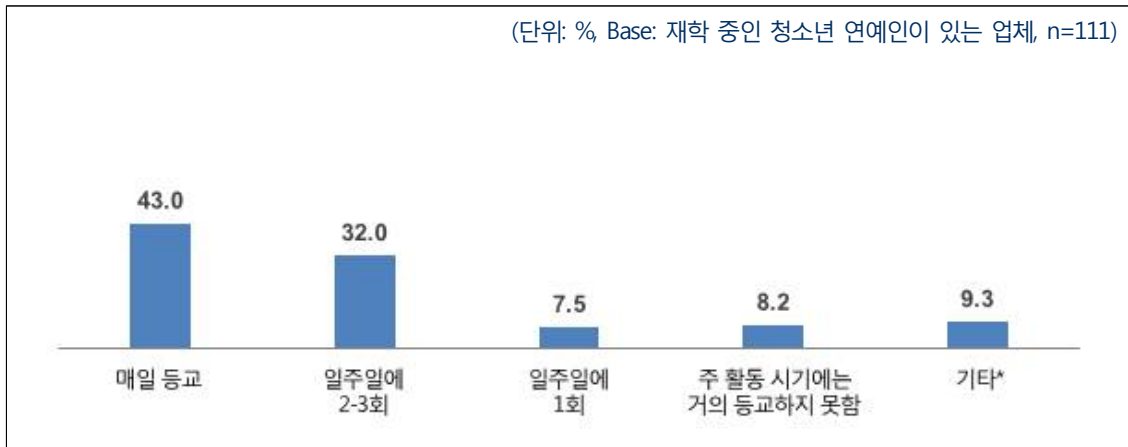
(단위: 중복%)

		사례수	당사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검정고시 준비 중임	연예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진학(복학) 준비 중임
<b>전체</b>		<b>(16)</b>	<b>57.1</b>	<b>53.3</b>	<b>47.6</b>	<b>7.4</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4)	59.0	54.6	55.1	0.0
	제작 분야	(2)	45.6	45.6	0.0	54.4
소속 직원 수	1인	(1)	100.0	0.0	100.0	0.0
	5~10인 미만	(3)	0.0	0.0	61.6	38.4
	10인 이상	(12)	67.6	73.8	37.7	0.0

(10)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

- 재학 중인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n=111)의 청소년 연예인의 주 활동 시기 등교 횟수를 살펴보면, '매일 등교'가 43.0%로 가장 높고, '일주일에 2~3회'(32.0%)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주 활동 시기에는 거의 등교하지 못한다'는 경우는 8.2%로 조사됨.

<그림 3-1-16> 청소년 연예인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



\* 기타는 외국모델이라 현지 학교 다님 등임.

\*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 중 활동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됨.

<표 3-1-21>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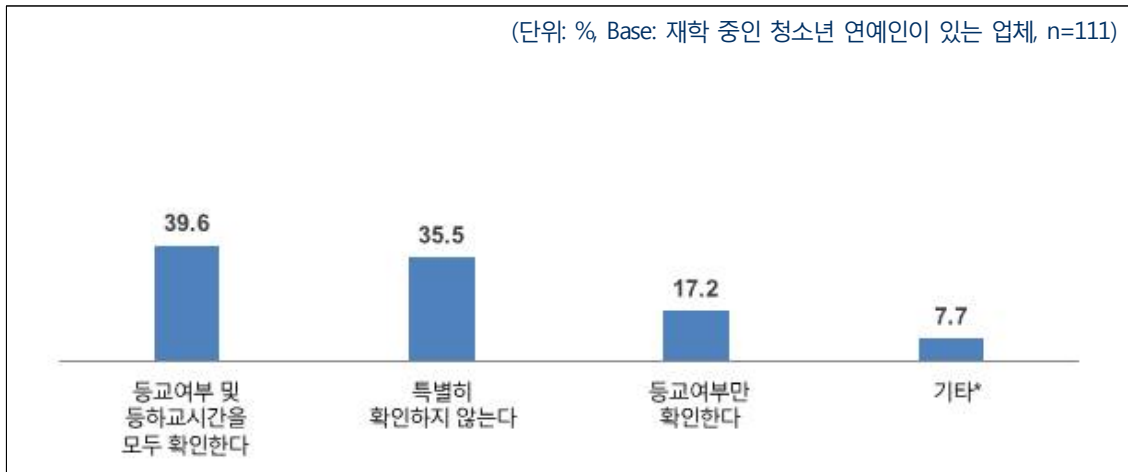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일 등교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주 활동 시기에는 거의 등교하지 못함	기타	계
<b>전체</b>		<b>(111)</b>	<b>43.0</b>	<b>32.0</b>	<b>7.5</b>	<b>8.2</b>	<b>9.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98)	44.2	32.0	7.5	9.3	7.0	100.0
	제작 분야	(6)	34.4	33.2	15.7	0.0	16.8	100.0
	기타 분야	(7)	34.1	31.3	0.0	0.0	34.7	100.0
소속 직원 수	1인	(6)	62.7	16.4	0.0	20.9	0.0	100.0
	2~5인 미만	(32)	54.7	25.4	0.0	0.0	19.9	100.0
	5~10인 미만	(23)	49.3	33.8	16.9	0.0	0.0	100.0
	10인 이상	(50)	30.2	37.4	9.0	15.5	8.0	100.0

(11) 등교여부 및 등학교시간 확인 여부

-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등교여부 및 등학교 시간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등교여부 및 등학교 시간을 모두 확인한다'는 비율이 39.6%로 가장 높고,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5.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등교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는 17.2%로 나타남.

<그림 3-1-17> 청소년 연예인 등교여부 및 등학교시간 확인 여부



\* 기타는 외국모델 등임.

<표 3-1-22>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등교여부 및 등학교시간 확인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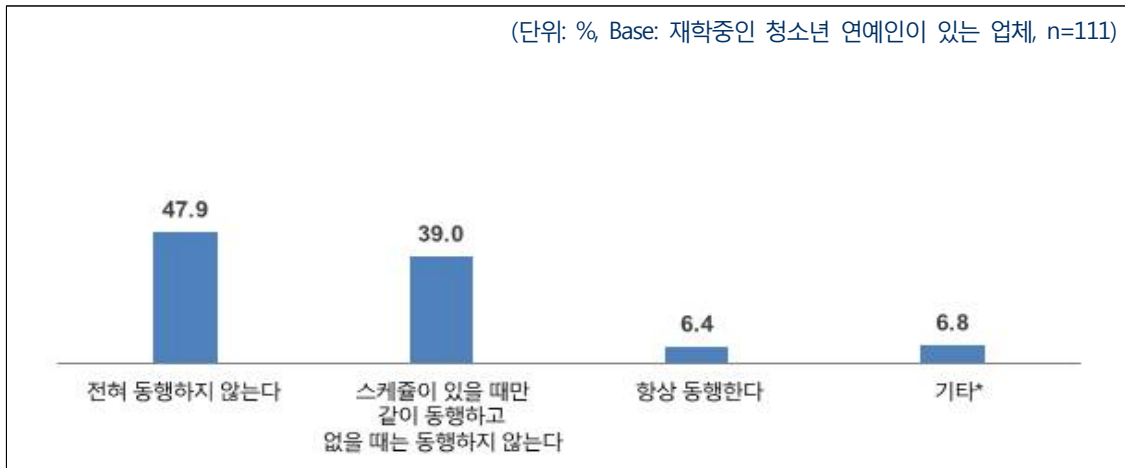
		사례수	등교여부 및 등학교 시간을 모두 확인한다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	등교여부만 확인한다	기타	계
<b>전체</b>		<b>(111)</b>	<b>39.6</b>	<b>35.5</b>	<b>17.2</b>	<b>7.7</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98)	40.6	39.1	15.0	5.3	100.0
	제작 분야	(6)	51.2	0.0	32.1	16.8	100.0
	기타 분야	(7)	14.7	16.6	34.1	34.7	100.0
소속 직원 수	1인	(6)	0.0	83.6	16.4	0.0	100.0
	2~5인 미만	(32)	32.8	41.8	10.9	14.5	100.0
	5~10인 미만	(23)	56.0	8.5	35.6	0.0	100.0
	10인 이상	(50)	41.6	37.6	12.9	8.0	100.0



(12) 등하교 시 매니저 동행 여부

- 청소년 연예인 등하교 시 매니저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47.9%로 가장 높고, '스케줄이 있을 때만 같이 동행하고 없을 때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9.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매니저가 '항상 동행'한다는 비율은 6.4%로 조사됨.

<그림 3-1-18> 청소년 연예인 등하교 시 매니저 동행 여부



\* 기타는 외국모델 등임.

<표 3-1-23>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등하교 시 매니저 동행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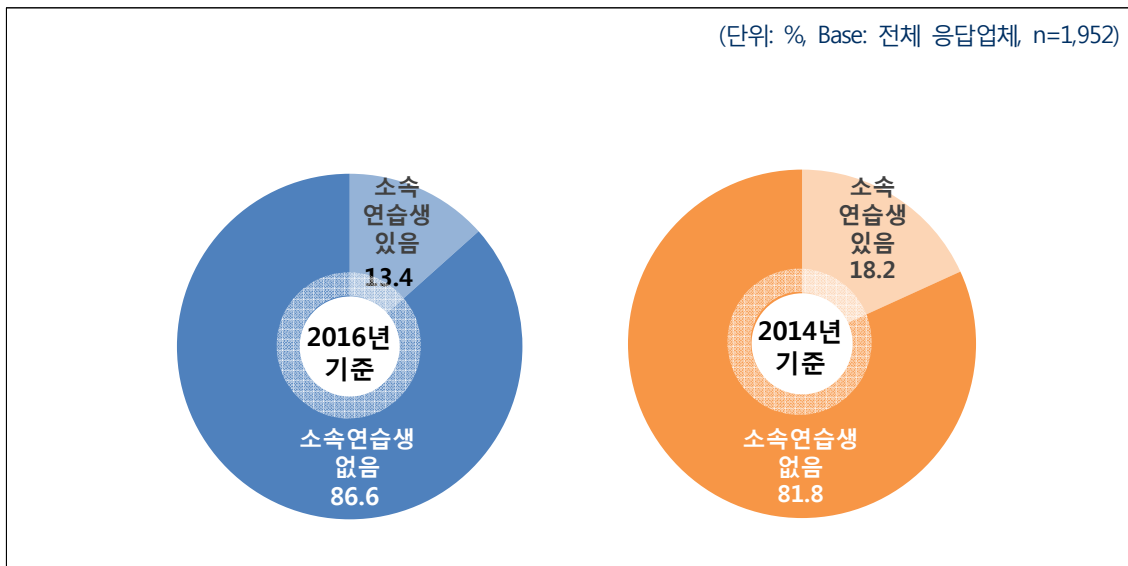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	스케줄이 있을 때만 같이 동행하고 없을 때는 동행하지 않는다	항상 동행한다	기타	계
<b>전체</b>		<b>(111)</b>	<b>47.9</b>	<b>39.0</b>	<b>6.4</b>	<b>6.8</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98)	51.1	38.8	4.9	5.3	100.0
	제작 분야	(6)	16.8	47.7	35.5	0.0	100.0
	기타 분야	(7)	31.3	34.1	0.0	34.7	100.0
소속 직원 수	1인	(6)	62.7	37.3	0.0	0.0	100.0
	2~5인 미만	(32)	74.6	5.5	5.5	14.5	100.0
	5~10인 미만	(23)	42.3	52.5	5.3	0.0	100.0
	10인 이상	(50)	31.5	54.5	8.2	5.8	100.0

### 3) 소속 연습생 현황

#### (1) 소속 연습생 유무

- 전체 기획업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업체는 13.4%임.
- ※ 2014년 대비 '소속 연습생 있음'은 ▽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9> 소속 연습생 유무



<표 3-1-24>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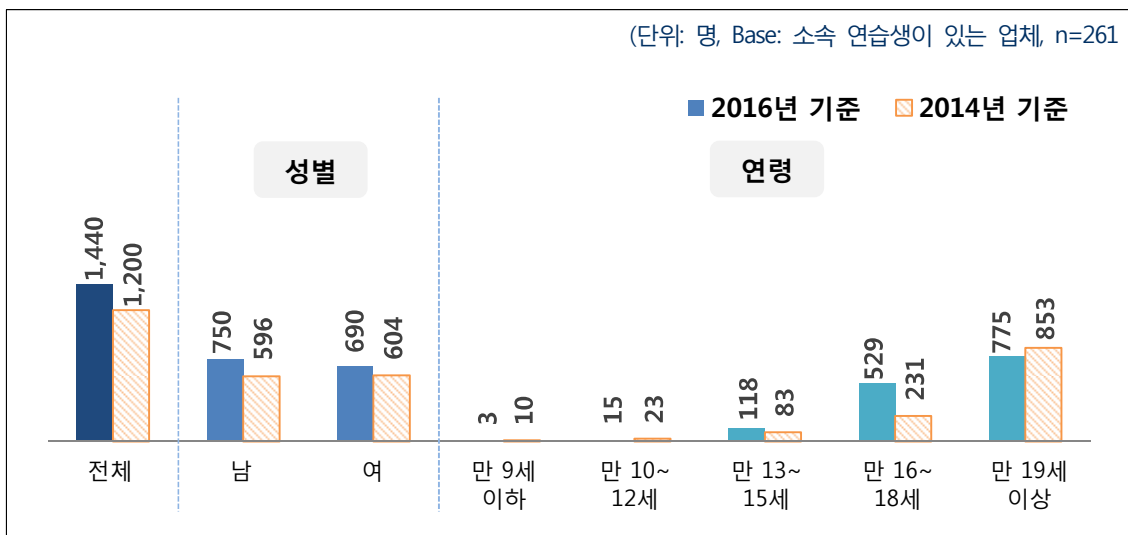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소속 연습생 있음	소속 연습생 없음	계
<b>전체</b>		<b>(1,952)</b>	<b>13.4</b>	<b>86.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16.3	83.7	100.0
	제작 분야	(397)	9.3	90.7	100.0
	기타 분야	(265)	5.0	95.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3.8	96.2	100.0
	2~5인 미만	(771)	12.2	87.8	100.0
	5~10인 미만	(453)	15.6	84.4	100.0
	10인 이상	(283)	28.0	72.0	100.0

(2)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현황

- 소속 연습생이 있는 기획업(n=261) 기준으로 2016년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소속 연습생 전체 인력 규모는 1,440명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가 750명으로 '여자'(690명)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상'(775명), '만 16~18세'(529명), '만 13~15세'(1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소속 연습생 총 인원수는 ▲240명 증가했으며, 특히 '만 16~18세' 연령대에 서 큰 폭(▲29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0>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현황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 분야(보컬, 댄스 등)가 1,07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기자 분야(352명), 모델 분야(3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25>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현황

(단위: 명)

주요 사업 분야	주된 분야	인원수	성별		연령				
			남	여	만 9세 미만	만 10~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만 19세 이상
매니지먼트 분야	연기자	311	156	155	1	1	11	61	237
	가수(보컬, 댄스)	921	484	437	0	9	95	407	410
	모델	2	1	1	2	0	0	0	0
	기타	2	2	0	0	0	0	0	2
	소계	1,236	643	593	3	10	106	468	649
제작 분야	연기자	27	18	9	0	0	4	0	23
	가수(보컬, 댄스)	120	66	54	0	0	6	38	76
	모델	1	0	1	0	0	0	0	1
	기타	1	1	0	0	0	0	0	1
	소계	149	85	64	0	0	10	38	101
기타 분야	연기자	14	10	4	0	0	0	8	6
	가수(보컬, 댄스)	38	10	28	0	5	2	15	16
	모델	0	0	0	0	0	0	0	0
	기타	3	2	1	0	0	0	0	3
	소계	55	22	33	0	5	2	23	25
전체	연기자	352	184	168	1	1	15	69	266
	가수(보컬, 댄스)	1,079	560	519	0	14	103	460	502
	모델	3	1	2	2	0	0	0	1
	기타*	6	5	1	0	0	0	0	6
	전체	1,440	750	690	3	15	118	529	775

\* 기타에는 MC, 기타방송인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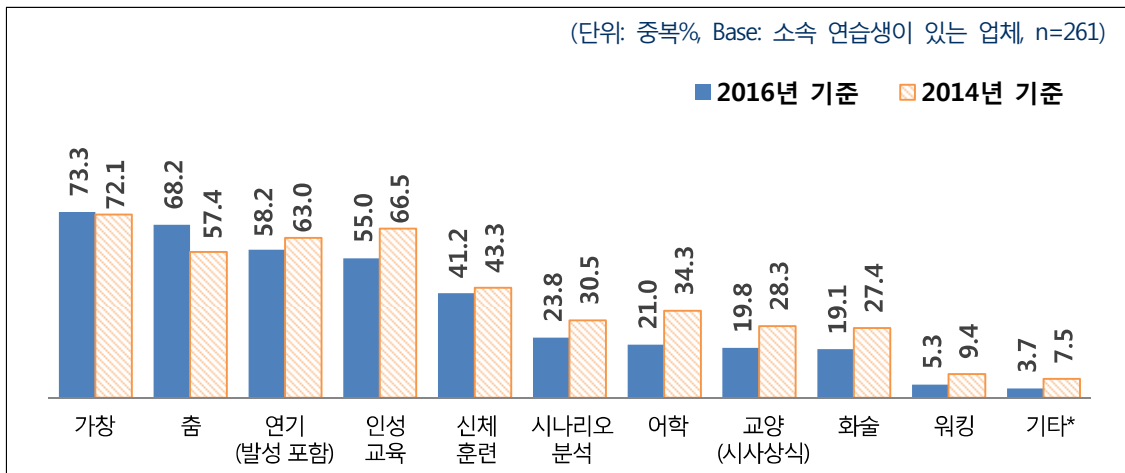
\*\* 본 문항은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3) 소속 연습생 교육 내용

○ 소속 연습생 교육 내용(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가창'이 7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춤'(68.2%), '연기(발성 포함)'(58.2%), '인성 교육'(5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춤'(▲10.8%p)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연기(발성 포함)' 및 '인성교육'은 각각 ▽4.8%p, ▽1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1> 소속 연습생 교육 내용(중복응답)



\* 기타에는 작곡/편곡, 악기연주 등이 있음

- '가창'과 '춤'은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기(발성포함)'는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26>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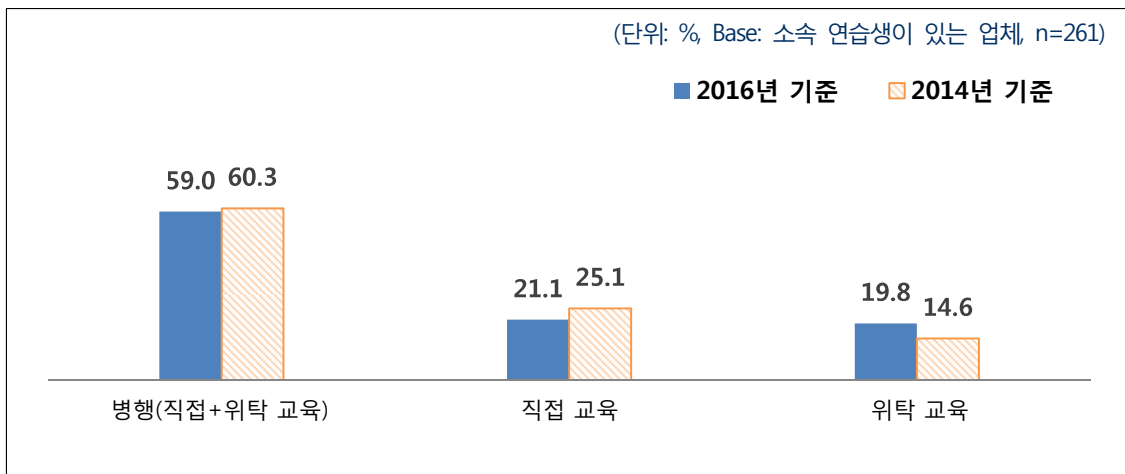
(단위: 중복%)

		사례수	가창	춤	연기 (발성 포함)	인성 교육	신체 훈련	시나리오 분석	어학	교양 (시사상식)	화술	워킹	기타
전체		(261)	73.3	68.2	58.2	55.0	41.2	23.8	21.0	19.8	19.1	5.3	3.7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72.7	69.0	57.9	53.2	40.3	23.1	20.1	15.5	17.8	5.1	2.6
	제작 분야	(37)	72.5	63.6	63.6	60.6	40.0	30.4	24.2	39.4	27.2	8.3	8.5
	기타 분야	(13)	84.3	67.3	48.4	66.7	57.8	16.6	25.1	32.0	17.9	0.0	7.5
소속 직원 수	1인	(17)	71.7	57.7	34.4	26.3	42.3	26.6	0.0	20.2	6.2	0.0	0.0
	2~5인 미만	(94)	71.8	63.2	61.3	58.3	37.4	23.9	20.2	12.2	12.3	1.8	4.9
	5~10인 미만	(71)	69.4	66.8	69.9	59.6	39.0	28.5	18.7	29.1	32.9	5.4	0.0
	10인 이상	(79)	78.8	77.5	49.3	53.1	47.3	18.8	28.4	20.3	17.8	10.3	6.4

(4)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

-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병행(직접+위탁 교육)'이 5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접 교육'(21.1%), '위탁 교육'(19.8%)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직접 교육'이 ▽4.0%p 감소한 반면, '위탁 교육'은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2>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



- '병행(직접+위탁 교육)'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27>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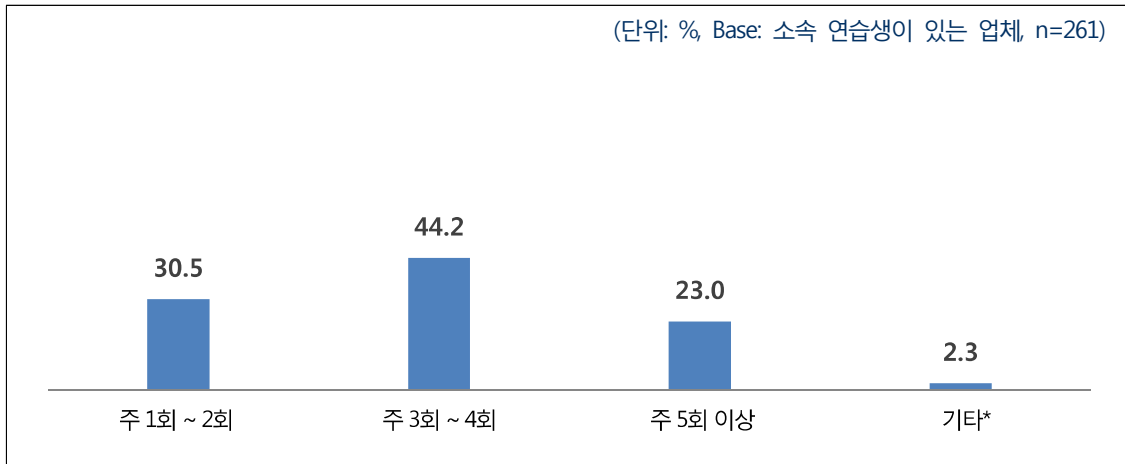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병행 (직접+위탁 교육)	직접 교육	위탁 교육	계
<b>전체</b>		<b>(261)</b>	<b>59.0</b>	<b>21.1</b>	<b>19.8</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58.2	21.5	20.3	100.0
	제작 분야	(37)	67.1	18.1	14.8	100.0
	기타 분야	(13)	50.1	23.6	26.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7)	58.0	12.3	29.7	100.0
	2~5인 미만	(94)	55.2	19.6	25.2	100.0
	5~10인 미만	(71)	56.0	26.1	17.9	100.0
	10인 이상	(79)	66.5	20.4	13.1	100.0

(5) 연습생 주당 교육 횟수

○ 연습생 교육은 '주 3회~4회' 이루어지는 경우가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 1회~2회'(30.5%), '주 5회 이상'(2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3> 연습생 주당 교육 횟수



\* 기타에는 일정하지 않거나, 2개월에 1회 등의 응답이 포함됨

\* 2017년도 신규 조사 문항임

<표 3-1-28>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주당 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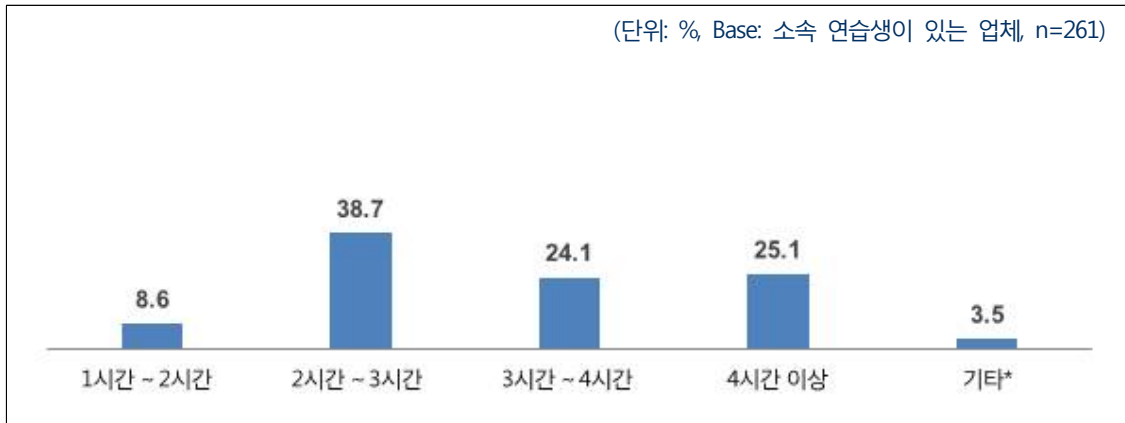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주 1회~2회	주 3회~4회	주 5회 이상	기타	계
<b>전체</b>		<b>(261)</b>	<b>30.5</b>	<b>44.2</b>	<b>23.0</b>	<b>2.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29.8	44.6	24.3	1.3	100.0
	제작 분야	(37)	30.7	42.5	17.9	8.9	100.0
	기타 분야	(13)	40.4	42.9	16.7	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7)	35.9	48.4	15.7	0.0	100.0
	2~5인 미만	(94)	37.4	44.2	14.1	4.3	100.0
	5~10인 미만	(71)	24.0	56.3	19.7	0.0	100.0
	10인 이상	(79)	26.8	32.7	38.0	2.6	100.0

(6) 소속 연습생 일당 교육 시간

○ 연습생 교육은 하루에 '2시간~3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시간 이상'(25.1%), '3시간~4시간'(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4> 연습생 일당 교육 시간



\* 기타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포함됨

\* 2017년도 신규 조사 문항임

- 소속 직원이 많을수록 '4시간 이상' 교육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29>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일당 교육 시간

(단위: %)

		사례수	1시간 ~ 2시간	2시간 ~ 3시간	3시간 ~ 4시간	4시간 이상	기타	계
<b>전체</b>		<b>(261)</b>	<b>8.6</b>	<b>38.7</b>	<b>24.1</b>	<b>25.1</b>	<b>3.5</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8.0	39.4	23.9	26.4	2.3	100.0
	제작 분야	(37)	9.4	33.6	24.4	20.6	12.0	100.0
	기타 분야	(13)	15.0	42.9	25.5	16.7	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7)	7.9	32.7	35.9	7.9	15.7	100.0
	2~5인 미만	(94)	6.1	42.9	27.6	19.7	3.7	100.0
	5~10인 미만	(71)	9.8	40.3	22.0	27.8	0.0	100.0
	10인 이상	(79)	10.5	33.5	19.2	32.8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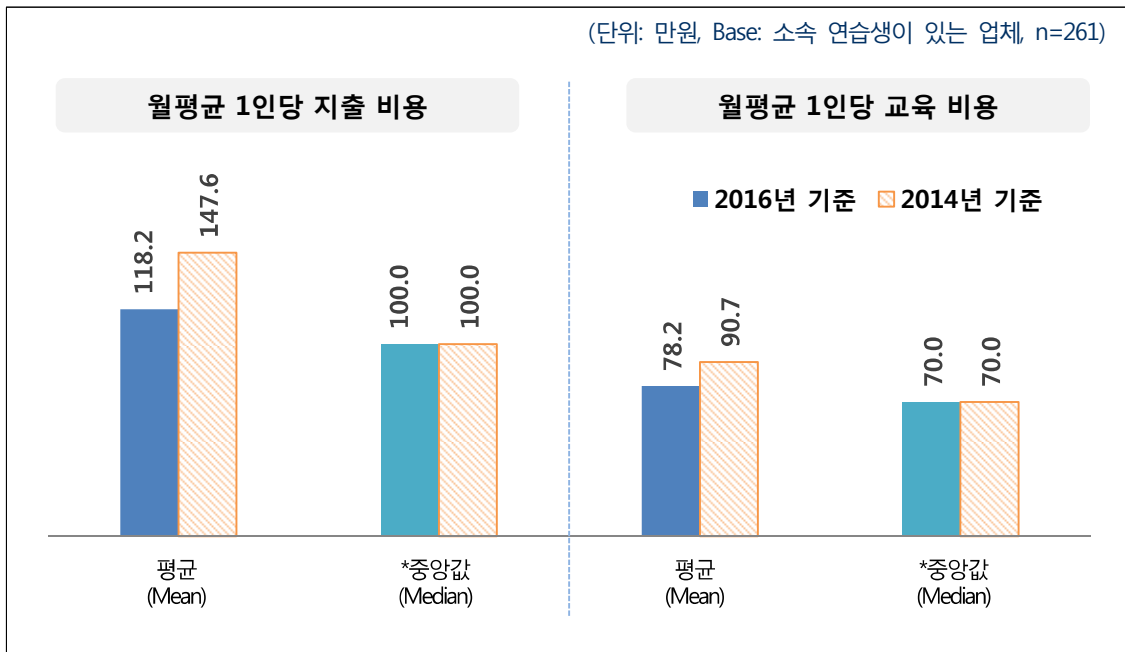


(7) 소속 연습생에 대한 평균 지출 비용

○ 소속 연습생의 '월평균 1인당 지출 비용'은 평균 118.2만 원, 월평균 지출비용 중 '월평균 1인당 교육 비용'은 평균 78.2만 원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과 '교육비용'이 각각 ▽29.4만원, ▽12.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값은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3-1-25> 소속 연습생 평균 지출 비용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표 3-1-30>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지출 비용:(1)월평균 1인당 지출비용

(단위: 만 원)

		사례수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b>전체</b>		<b>(261)</b>	<b>118.2</b>	<b>100.0</b>	<b>0.0</b>	<b>6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118.6	100.0	0.0	600.0
	제작 분야	(37)	118.8	100.0	0.0	300.0
	기타 분야	(13)	110.2	100.0	0.0	200.0
소속 직원 수	1인	(17)	99.0	100.0	40.0	200.0
	2~5인 미만	(94)	107.2	100.0	0.0	600.0
	5~10인 미만	(71)	129.1	100.0	0.0	400.0
	10인 이상	(79)	125.6	100.0	0.0	350.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 소속연습생에 대한 '월평균 1인당 교육비용'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1>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지출 비용:(2)월평균 1인당 교육비용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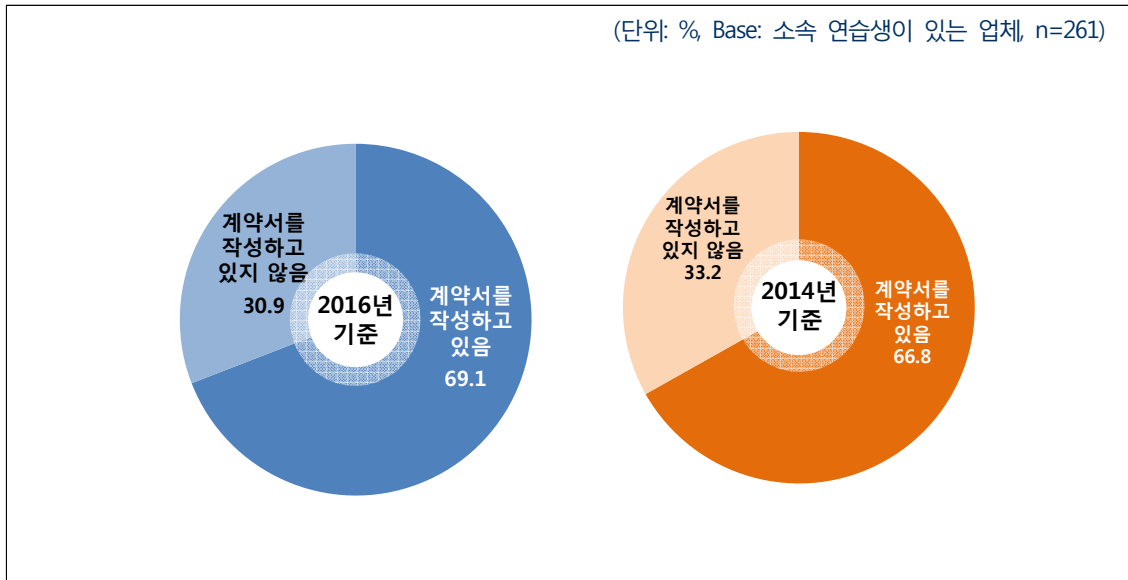
		사례수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b>전체</b>		<b>(261)</b>	<b>78.2</b>	<b>70.0</b>	<b>0.0</b>	<b>3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77.7	70.0	0.0	300.0
	제작 분야	(37)	83.2	78.2	0.0	250.0
	기타 분야	(13)	71.9	73.9	0.0	150.0
소속 직원 수	1인	(17)	83.1	75.2	10.0	200.0
	2~5인 미만	(94)	65.1	70.0	0.0	200.0
	5~10인 미만	(71)	80.6	80.0	0.0	250.0
	10인 이상	(79)	90.4	80.0	0.0	300.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8) 소속 연습생 계약서 작성 여부

- 소속 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는 69.1%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이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6> 소속 연습생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2>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연습생 계약서 작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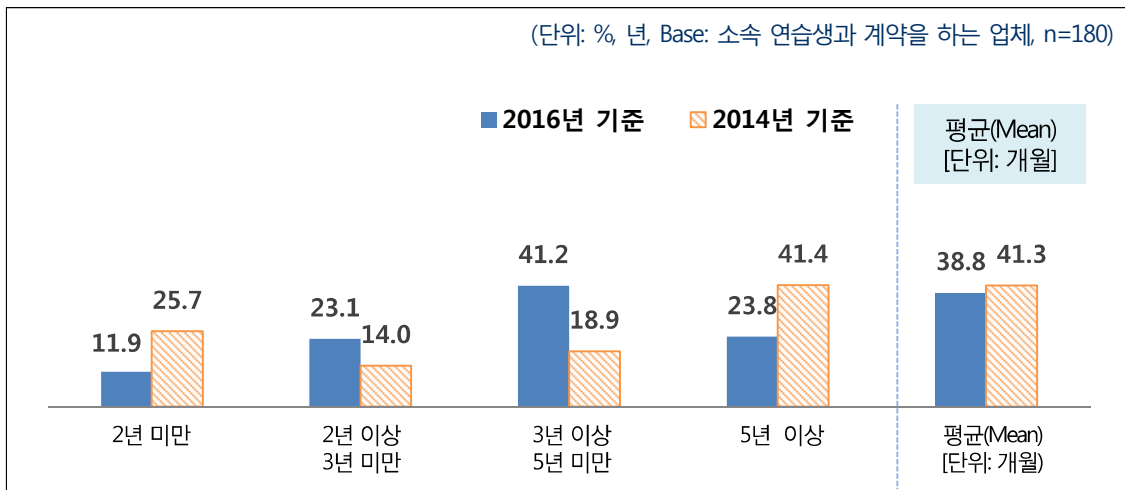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계
<b>전체</b>		<b>(261)</b>	<b>69.1</b>	<b>30.9</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67.6	32.4	100.0
	제작 분야	(37)	75.1	24.9	100.0
	기타 분야	(13)	76.4	23.6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7)	70.3	29.7	100.0
	2~5인 미만	(94)	65.6	34.4	100.0
	5~10인 미만	(71)	63.4	36.6	100.0
	10인 이상	(79)	78.0	22.0	100.0

(9) 소속 연습생 평균 계약기간

- 소속 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업체(n=180)의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3개월 (38.8개월)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3년~5년 미만'이 41.2%로 가장 높고, '5년 이상'(23.8%), '2년~3년 미만'(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소속 연습생 평균 계약기간은 약 2.5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7> 소속 연습생 평균 계약기간



<표 3-1-33>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평균 계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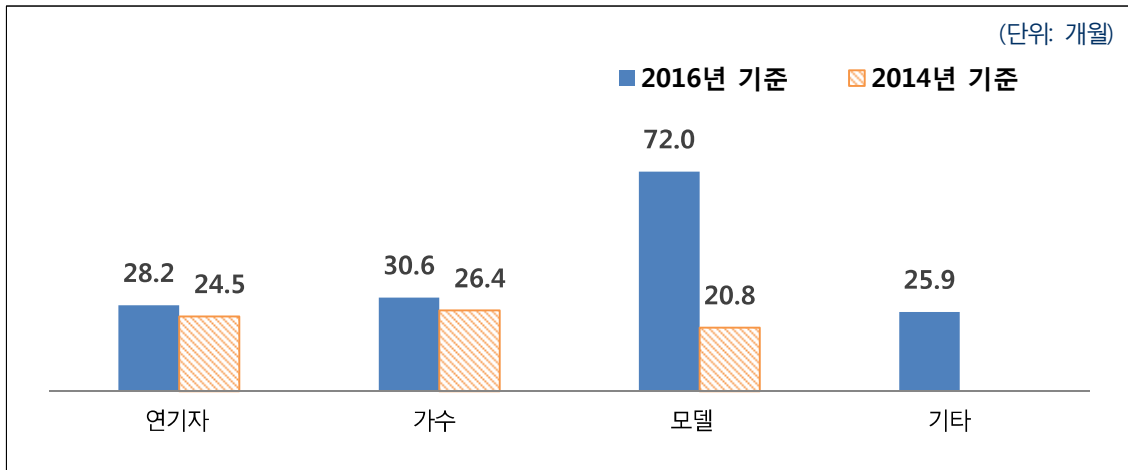
(단위: %, 개월)

		사례수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평균(개월)
<b>전체</b>		<b>(180)</b>	<b>11.9</b>	<b>23.1</b>	<b>41.2</b>	<b>23.8</b>	<b>100.0</b>	<b>38.8</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42)	12.8	21.2	41.5	24.5	100.0	39.7
	제작 분야	(28)	7.7	20.5	47.2	24.6	100.0	37.6
	기타 분야	(10)	10.7	57.5	20.8	11.0	100.0	29.2
소속 직원 수	1인	(12)	9.1	31.1	59.8	0.0	100.0	30.1
	2~5인 미만	(62)	13.1	26.1	30.9	29.9	100.0	40.6
	5~10인 미만	(45)	21.4	5.3	42.3	31.0	100.0	40.8
	10인 이상	(62)	4.3	31.6	47.1	17.0	100.0	37.3

(10) 소속 연습생 평균 데뷔기간

○ 소속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가수'의 경우 약 2년 6개월(30.6개월), '연기자'의 경우 약 2년 4개월(28.2개월)로 나타남.

<그림 3-1-28> 소속 연습생 평균\* 데뷔기간



\* 평균 데뷔기간은 응답 값의 단순 산술평균임.

<표 3-1-34> 데뷔 분야별 연습생 평균 데뷔기간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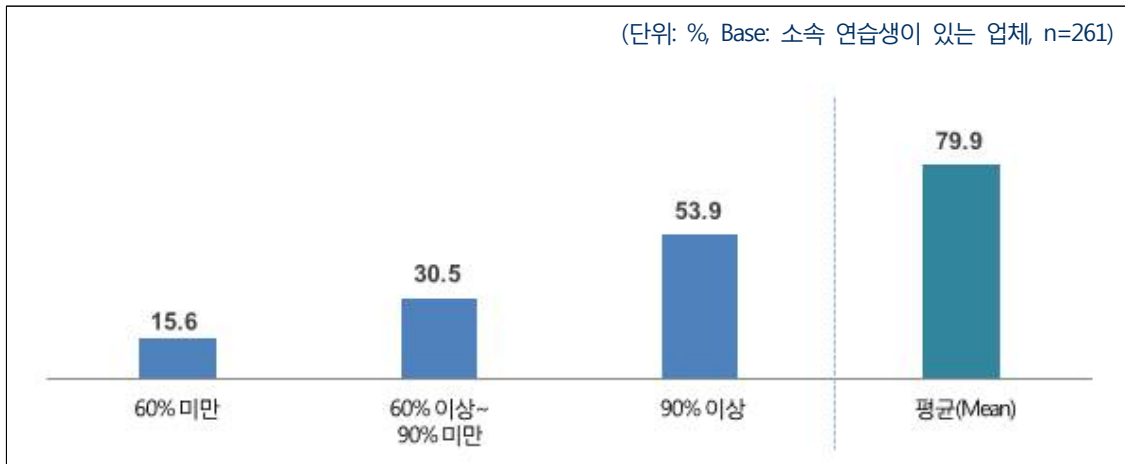
데뷔 분야	최소 데뷔기간	최대 데뷔기간	평균 데뷔기간
연기자	17.8	39.9	28.2
가수	19.9	43.3	30.6
모델	72.0	72.0	72.0
기타	15.8	39.8	25.9

\* 모델의 경우 응답 업체수가 1명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11) 연습생 중 데뷔하는 비중

- 소속 연습생 중 데뷔하는 연습생 비중은 평균 79.9%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90% 이상'이 53.9%로 가장 높고, '60%~90% 미만'(30.5%), '60% 미만'(1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9> 연습생 중 데뷔하는 비중



\* 2017년도 신규 조사 문항임.

<표 3-1-35>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중 데뷔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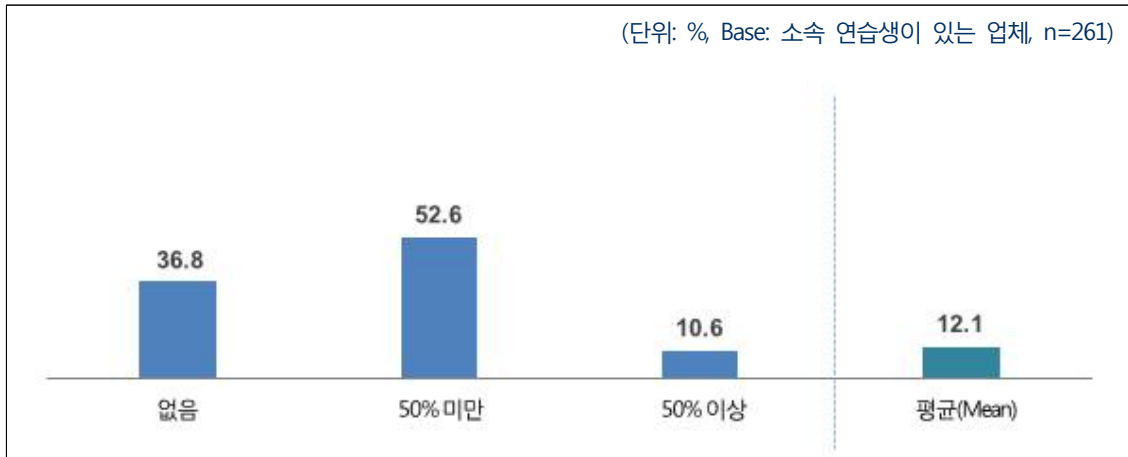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60% 미만	60%이상~90% 미만	90% 이상	계	평균 (%)
<b>전체</b>		<b>(261)</b>	<b>15.6</b>	<b>30.5</b>	<b>53.9</b>	<b>100.0</b>	<b>79.9</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15.2	29.8	55.1	100.0	80.3
	제작 분야	(37)	8.6	39.8	51.6	100.0	82.7
	기타 분야	(13)	41.0	16.6	42.4	100.0	66.2
소속 직원 수	1인	(17)	14.0	36.1	49.9	100.0	82.1
	2~5인 미만	(94)	14.7	36.2	49.1	100.0	79.5
	5~10인 미만	(71)	16.3	25.8	57.9	100.0	79.9
	10인 이상	(79)	16.4	26.7	56.9	100.0	80.0

(12)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비중

- 소속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비중은 평균 12.1%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50% 미만'이 52.6%로 '50% 이상'(10.6%)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비자발적 포기 비중 '없음'의 36.8%로 나타남.

<그림 3-1-30>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비중



\* 2017년도 신규 조사 문항임. 본 설문은 기획업체 담당자가 응답한 결과이며, 실제 연습생의 의견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표 3-1-36> 응답업체 특성별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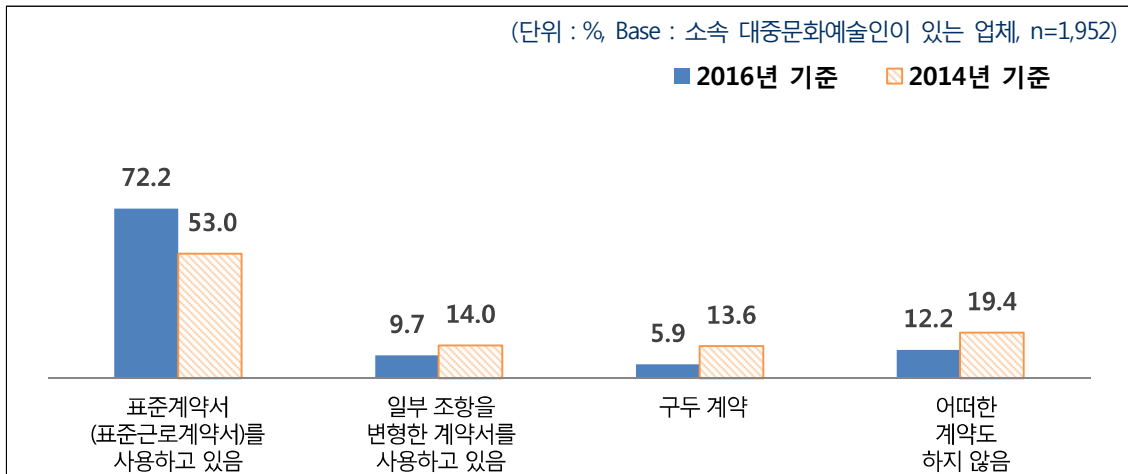
		사례수	없음	50% 미만	50% 이상	계	평균 (%)
<b>전체</b>		<b>(261)</b>	<b>36.8</b>	<b>52.6</b>	<b>10.6</b>	<b>100.0</b>	<b>12.1</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11)	36.4	54.1	9.5	100.0	11.2
	제작 분야	(37)	42.7	48.6	8.6	100.0	10.6
	기타 분야	(13)	26.3	40.2	33.5	100.0	29.2
소속 직원 수	1인	(17)	34.2	51.8	14.0	100.0	11.6
	2~5인 미만	(94)	32.5	52.8	14.7	100.0	14.4
	5~10인 미만	(71)	46.4	48.1	5.4	100.0	8.6
	10인 이상	(79)	33.8	56.6	9.6	100.0	12.5

4) 소속 직원 현황

(1) 소속 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있는 업체들(n=1,952)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음'이 72.2%로 가장 높았음.
- 다음은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9.7%), '구두계약'(5.9%)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은 ▲19.2%p 증가했으나,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및 '구두 계약'은 각각 ▼4.3%p,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1>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은 기타 분야, 소속 직원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37>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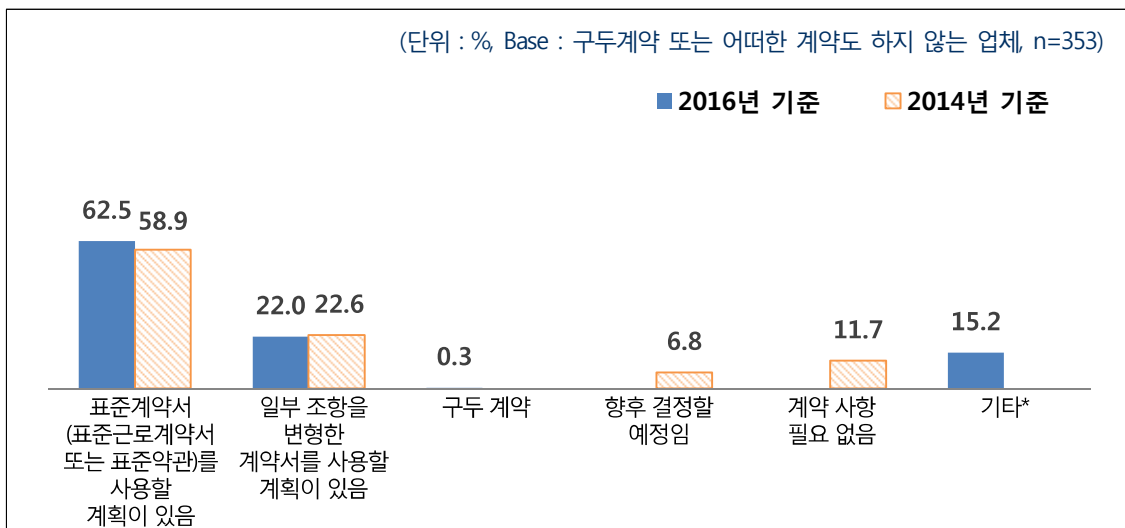
		사례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b>전체</b>		<b>(1,952)</b>	<b>72.2</b>	<b>9.7</b>	<b>5.9</b>	<b>12.2</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72.1	8.9	7.2	11.7	100.0
	제작 분야	(397)	70.4	12.8	3.2	13.7	100.0
	기타 분야	(265)	75.1	8.9	3.8	12.2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60.8	9.3	2.9	26.9	100.0
	2~5인 미만	(771)	70.5	10.6	7.3	11.5	100.0
	5~10인 미만	(453)	75.7	11.0	8.8	4.5	100.0
	10인 이상	(283)	89.0	5.9	2.2	2.9	100.0



(2) 소속 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n=353)의 향후 소속 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이 62.5%로 가장 높고,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이 22.0%로 다음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은 ▲3.6%p 높아졌으나,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은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3-1-32>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기타에는 채용계획 없음 등이 포함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은 소속 직원 수 2~5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38>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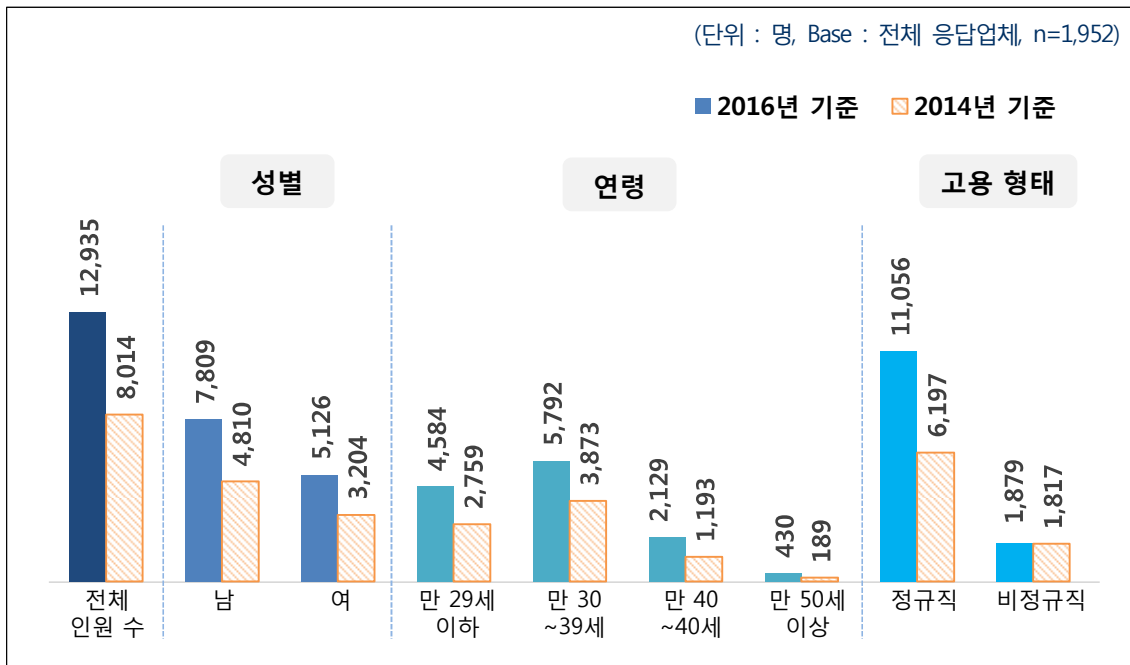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구두 계약	기타	계
<b>전체</b>		<b>(353)</b>	<b>62.5</b>	<b>22.0</b>	<b>0.3</b>	<b>15.2</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244)	62.8	22.3	0.0	14.8	100.0
	제작 분야	(67)	62.5	21.3	1.8	14.4	100.0
	기타 분야	(42)	60.6	21.0	0.0	18.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33)	51.9	21.3	0.0	26.9	100.0
	2~5인 미만	(145)	72.2	16.3	0.0	11.5	100.0
	5~10인 미만	(60)	63.5	32.6	2.0	1.9	100.0
	10인 이상	(14)	58.8	41.2	0.0	0.0	100.0

(3) 소속 직원 세부 인력 현황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의 소속 직원 전체 인력 규모는 12,935명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가 7,809명으로 여자(5,126명)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만 30~39세(5,792명), 만 29세 이하(4,584명), 만 40~49세(2,1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1,056명으로 비정규직(1,879명)과 큰 차이를 보임.
- ※ 2014년 대비 '전체 소속 직원 수'가 ▲4,921명 증가했으며, 특히 '정규직 소속 직원 수'가 큰 폭(▲4,85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체당 평균 직원수로 환산해보면, 6.6명으로, 2014년(평균 5.8명) 대비 0.8명 가량 증가한 수준임.

<그림 3-1-33>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분야별로 살펴보면, 매니저 분야가 4,0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영관리 분야(2,986명), 기획 분야(2,8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39>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

(단위 : 명)

주요 사업 분야**	주된 업무	전체 인원수	성별		연령(만)				고용형태	
			남	여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매니지먼트 분야	매니저(매니저, 댄서, 코디 등)	3,612	2,921	691	1,495	1,697	380	40	3,176	436
	기획(마케팅, 홍보, 광고 등)	2,138	946	1,192	792	914	353	79	1,971	167
	제작(녹음, 영상, 디자인 MD 등)	904	570	334	231	454	195	24	725	179
	트레이닝(교육, 신인개발 등)	388	223	165	151	177	54	6	232	156
	경영관리	1,830	790	1,040	582	732	398	118	1,580	250
	기타	639	330	309	201	274	140	24	480	159
	소계	9,511	5,780	3,731	3,452	4,248	1,520	291	8,164	1,347
제작 분야	매니저(매니저, 댄서, 코디 등)	219	187	32	69	120	26	4	184	35
	기획(마케팅, 홍보, 광고 등)	383	214	169	136	164	66	17	334	49
	제작(녹음, 영상, 디자인 MD 등)	702	582	120	194	393	97	18	570	132
	트레이닝(교육, 신인개발 등)	23	15	8	6	16	0	1	7	16
	경영관리	434	143	291	192	135	83	24	321	113
	기타	112	73	39	23	64	20	5	91	21
	소계	1,873	1,214	659	620	892	292	69	1,507	366
기타 분야	매니저(매니저, 댄서, 코디 등)	229	126	103	95	99	35	0	209	20
	기획(마케팅, 홍보, 광고 등)	329	161	168	108	136	69	16	311	18
	제작(녹음, 영상, 디자인 MD 등)	51	31	20	6	28	13	4	45	6
	트레이닝(교육, 신인개발 등)	58	25	33	23	29	6	0	31	27
	경영관리	722	394	328	233	272	175	42	671	51
	기타	162	78	84	47	88	19	8	118	44
	소계	1,551	815	736	512	652	317	70	1,385	166
전체	매니저(매니저, 댄서, 코디 등)	4,060	3,234	826	1,659	1,916	441	44	3,569	491
	기획(마케팅, 홍보, 광고 등)	2,850	1,321	1,529	1,036	1,214	488	112	2,616	234
	제작(녹음, 영상, 디자인 MD 등)	1,657	1,183	474	431	875	305	46	1,340	317
	트레이닝(교육, 신인개발 등)	469	263	206	180	222	60	7	270	199
	경영관리	2,986	1,327	1,659	1,007	1,139	656	184	2,572	414
	기타	913	481	432	271	426	179	37	689	224
	소계	12,935	7,809	5,126	4,584	5,792	2,129	430	11,056	1,879

\* 기타에는 웹사이트 개발자, 기타 직무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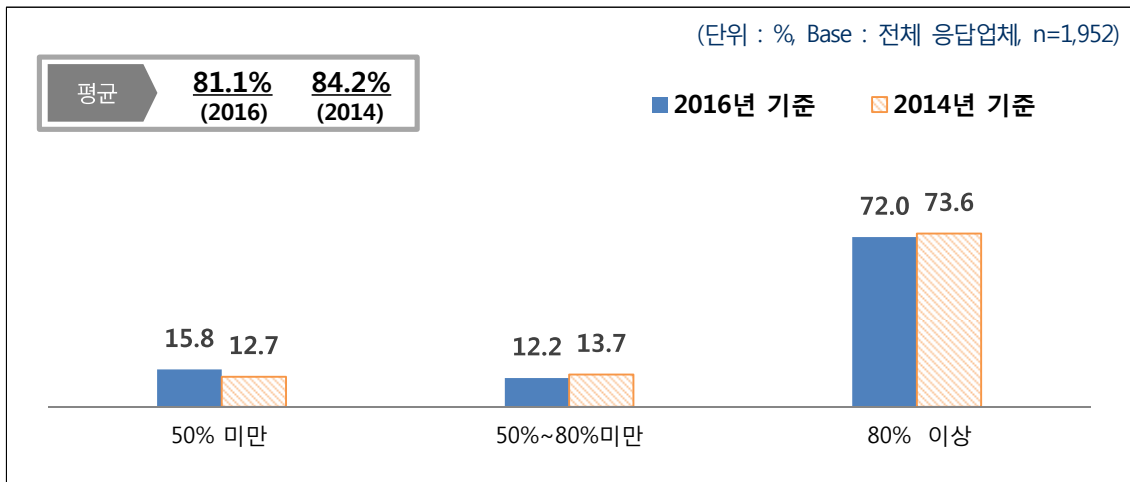
\*\* 주요 사업 분야의 경우, 사업체 기준으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매출규모가 가장 큰 분야)를 의미하고, 주된 업무는 소속직원 개인 기준으로 본인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를 의미함.

\*\*\* 본 문항은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4) 소속 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소속 직원 4대 보험 가입률은 평균 81.1%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소속직원의 4대 보험 가입률이 '80% 이상'인 경우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2014년 대비 소속직원의 '80% 이상'이 ▽1.6%p 감소한 반면, '50% 미만'은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4>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소속 직원의 4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기타(아카데미, 모델 에이전시, MD비즈니스 등)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40>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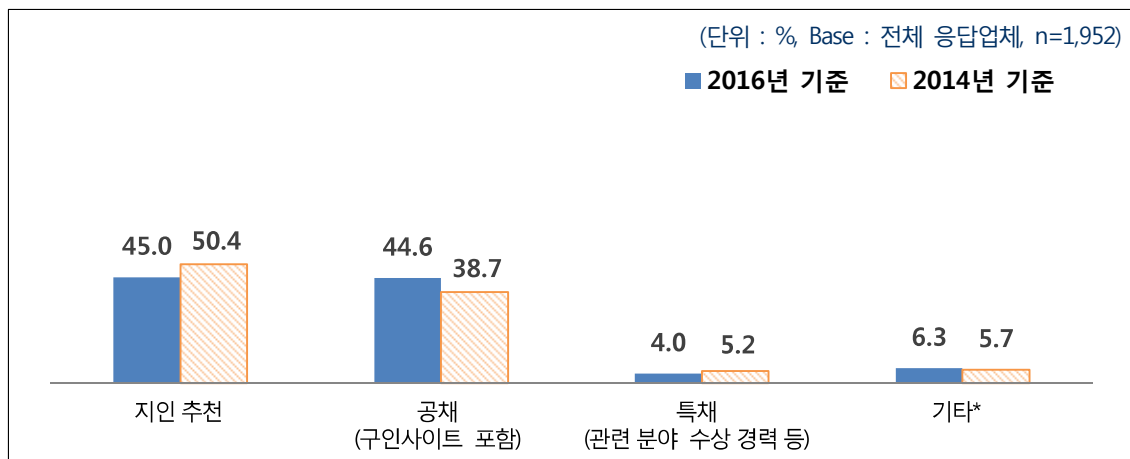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50% 미만	50%~80%미만	80% 이상	계	평균 (%)
<b>전체</b>		<b>(1,952)</b>	<b>15.8</b>	<b>12.2</b>	<b>72.0</b>	<b>100.0</b>	<b>81.1</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17.1	13.0	69.9	100.0	79.8
	제작 분야	(397)	14.4	11.5	74.1	100.0	82.9
	기타 분야	(265)	11.5	9.4	79.0	100.0	85.1
소속 직원 수	1인	(445)	13.4	0.2	86.3	100.0	86.5
	2~5인 미만	(771)	20.5	19.7	59.7	100.0	75.0
	5~10인 미만	(453)	14.8	11.9	73.3	100.0	82.1
	10인 이상	(283)	8.5	11.0	80.5	100.0	88.1

(5) 소속 직원 주된 구인경로

- 소속 직원의 주된 구인경로로는 '지인 추천'(45.0%) 또는 '공채(구인사이트 포함)' (44.6%)가 대부분을 차지함.
- ※ 2014년 대비 소속직원의 주된 구인경로로 '지인 추천'은 ▽1.2%p 감소한 반면, '공채'는 ▲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5>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기타에는 에이전시, 업계 소개 등의 응답이 있음.

- '지인 추천'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2~5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고, '공채(구인사이트 포함)'는 기타(아카데미, 모델 에이전시, MD비즈니스 등)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1>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단위 : %)

		사례수	지인 추천	공채 (구인사이트 포함)	특채	기타	계
<b>전체</b>		<b>(1,952)</b>	45.0	44.6	4.0	6.3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46.7	43.2	4.3	5.8	100.0
	제작 분야	(397)	48.3	39.2	4.2	8.3	100.0
	기타 분야	(265)	31.8	59.8	2.5	5.8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51.4	27.7	1.1	19.8	100.0
	2~5인 미만	(771)	57.7	32.1	7.3	2.9	100.0
	5~10인 미만	(453)	36.6	59.0	2.5	1.9	100.0
	10인 이상	(283)	13.7	82.3	2.5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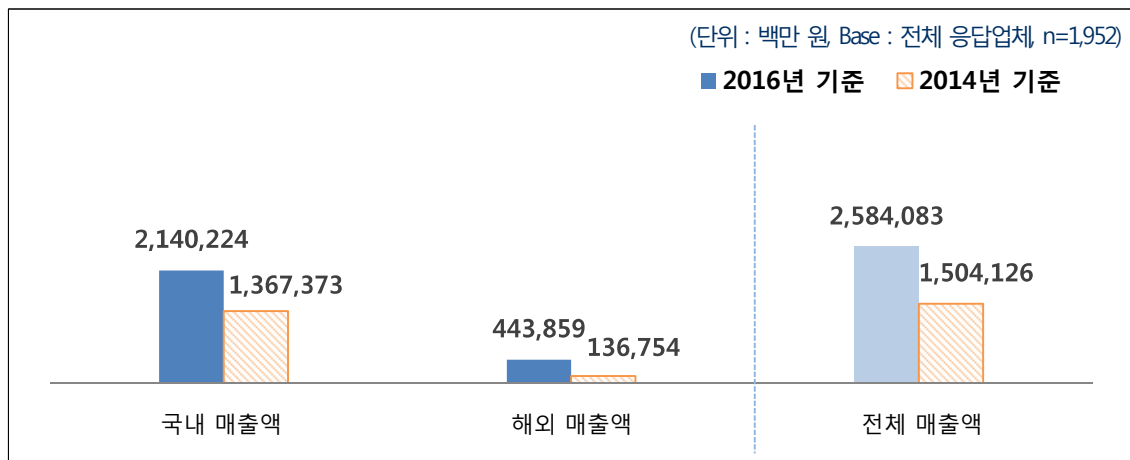
## 2. 사업 현황

### 1) 활동 및 매출규모

####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규모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2조 5,840억 원으로 나타남.
- 분야별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매니지먼트 분야(출연료 등)의 매출 규모가 1조 2,334억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관 콘텐츠 제작 분야(7,871억 원), 공연기획 및 제작(2,65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전체 매출액'은 약 1조 799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국내 매출액'은 약 7,728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6> 분야별 매출 규모



<표 3-1-42>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별 매출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매니지먼트	1,006,487	226,929	1,233,416
공연기획 및 제작	205,331	59,974	265,305
연관 콘텐츠 제작	687,005	100,191	787,196
파생상품(MD비즈니스)*	63,307	13,480	76,787
기타**	178,093	43,285	221,378
<b>전체</b>	<b>2,140,224</b>	<b>443,859</b>	<b>2,584,083</b>

\*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상품제작 및 판매를 통한 매출(티셔츠, 컵, 필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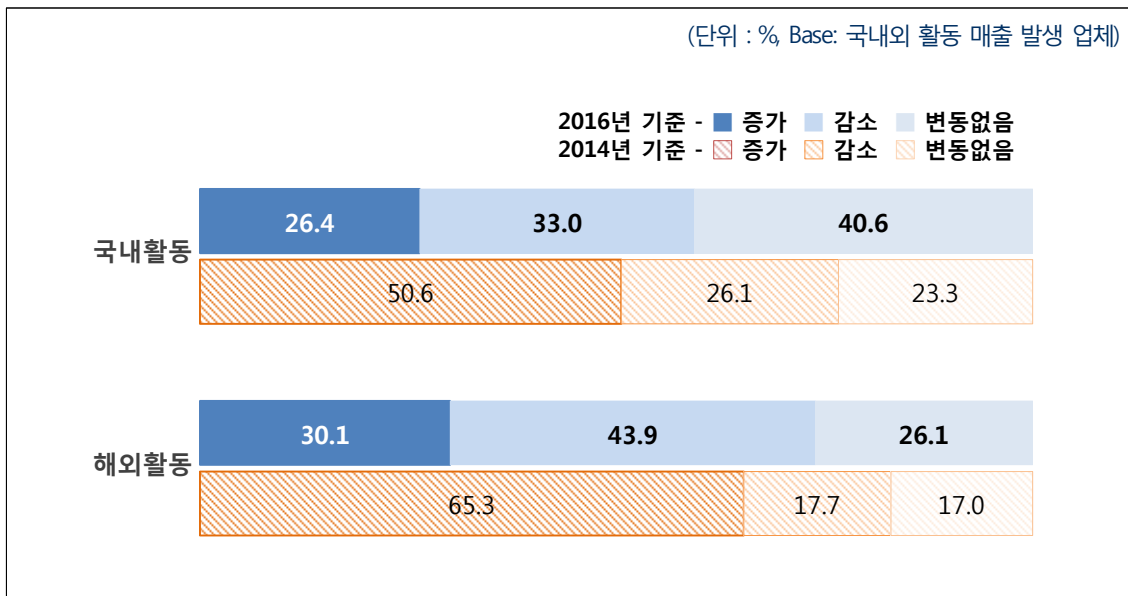
\*\* 기타에는 캐스팅/섭외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아카데미 운영 수입 등이 있음.

\*\*\* 본 문항은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2) 국내외 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국내외 활동에 대한 매출액 증감 현황에 대해 '국내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6.4%, '해외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0.1%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국내활동이 증가했다'와 '해외활동이 증가했다'가 각각  $\nabla 24.2\%p$ ,  $\nabla 3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7> 국내외 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국내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43>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1,861)</b>	<b>26.4</b>	<b>33.0</b>	<b>40.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26)	27.4	33.8	38.8	100.0
	제작 분야	(383)	25.5	32.0	42.5	100.0
	기타 분야	(253)	22.9	30.7	46.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16)	18.3	41.8	40.0	100.0
	2~5인 미만	(737)	23.7	33.7	42.6	100.0
	5~10인 미만	(432)	32.4	29.3	38.3	100.0
	10인 이상	(277)	36.6	23.6	39.8	100.0

- '해외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4>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158)</b>	<b>30.1</b>	<b>43.9</b>	<b>26.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1)	26.1	45.5	28.4	100.0
	제작 분야	(25)	35.4	42.4	22.2	100.0
	기타 분야	(11)	60.3	29.8	9.9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5)	15.7	33.5	50.8	100.0
	2~5인 미만	(61)	30.4	42.0	27.6	100.0
	5~10인 미만	(50)	21.8	55.1	23.1	100.0
	10인 이상	(32)	49.1	34.9	1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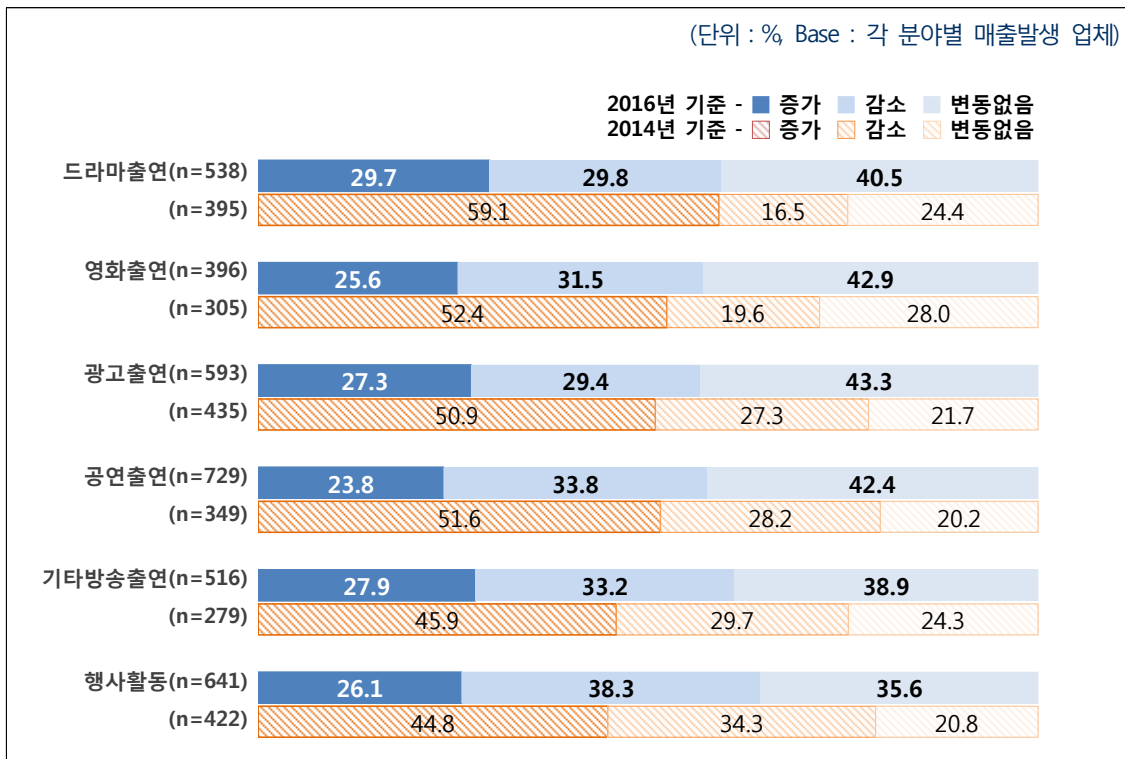


(3) 분야별<sup>13)</sup> 매출액 증감 현황: 매니지먼트 활동(출연료 등)

○ 매니지먼트 활동(출연료 등)과 관련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드라마출연'이 2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방송출연'(27.9%), '광고출연'(27.3%), '행사활동'(2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모든 분야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8>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매니지먼트 활동(출연료 등)



13) 분야별 매출액은 ① 매니지먼트(출연료 등) 활동, ② 공연기획 및 제작 활동, ③ 연관 콘텐츠 제작 활동, ④ 파생상품(MD비즈니스), ⑤ 기타(중개수수료 등) 로 구성되어 있음.

- '드라마출연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5>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드라마출연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538)</b>	<b>29.7</b>	<b>29.8</b>	<b>40.5</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488)	30.9	28.9	40.2	100.0
	제작 분야	(43)	12.5	42.6	44.9	100.0
	기타 분야	(7)	50.0	15.9	34.1	100.0
소속 직원 수	1인	(74)	14.2	44.5	41.3	100.0
	2~5인 미만	(224)	23.5	34.9	41.6	100.0
	5~10인 미만	(147)	38.7	15.7	45.6	100.0
	10인 이상	(94)	42.2	28.3	29.5	100.0

\* 주요 사업 분야 중 '매니지먼트 분야'는 해당 업체의 여러 사업(매니지먼트, 제작, 기타(아카데미, MD비즈니스, 모델 에이전시 등))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영화출연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6>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화출연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396)</b>	<b>25.6</b>	<b>31.5</b>	<b>42.9</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341)	27.1	29.4	43.5	100.0
	제작 분야	(46)	14.4	46.0	39.5	100.0
	기타 분야	(9)	25.5	36.7	37.8	100.0
소속 직원 수	1인	(70)	10.7	46.5	42.8	100.0
	2~5인 미만	(151)	19.9	32.0	48.1	100.0
	5~10인 미만	(101)	37.2	20.6	42.2	100.0
	10인 이상	(73)	35.5	31.2	33.3	100.0

- '광고출연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기타분야,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7>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광고출연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593)</b>	<b>27.3</b>	<b>29.4</b>	<b>43.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476)	28.1	28.7	43.2	100.0
	제작 분야	(87)	15.3	30.1	54.6	100.0
	기타 분야	(30)	49.9	37.8	12.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01)	15.1	43.1	41.8	100.0
	2~5인 미만	(224)	18.3	31.7	50.0	100.0
	5~10인 미만	(165)	40.1	20.9	39.0	100.0
	10인 이상	(103)	38.6	24.5	36.9	100.0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공연출연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8>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출연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729)</b>	<b>23.8</b>	<b>33.8</b>	<b>42.4</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575)	24.3	33.4	42.3	100.0
	제작 분야	(143)	22.0	34.0	44.0	100.0
	기타 분야	(11)	19.1	51.1	29.7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49)	20.6	40.7	38.7	100.0
	2~5인 미만	(299)	20.1	33.1	46.8	100.0
	5~10인 미만	(157)	26.3	34.4	39.3	100.0
	10인 이상	(123)	33.2	26.4	40.4	100.0

- '기타방송출연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9>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방송출연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516)</b>	<b>27.9</b>	<b>33.2</b>	<b>38.9</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423)	29.9	33.2	36.9	100.0
	제작 분야	(86)	19.3	32.3	48.3	100.0
	기타 분야	(8)	13.1	44.7	42.2	100.0
소속 직원 수	1인	(87)	20.2	44.4	35.4	100.0
	2~5인 미만	(202)	23.5	32.3	44.3	100.0
	5~10인 미만	(121)	28.4	37.1	34.5	100.0
	10인 이상	(107)	41.9	21.5	36.7	100.0

- '행사활동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50>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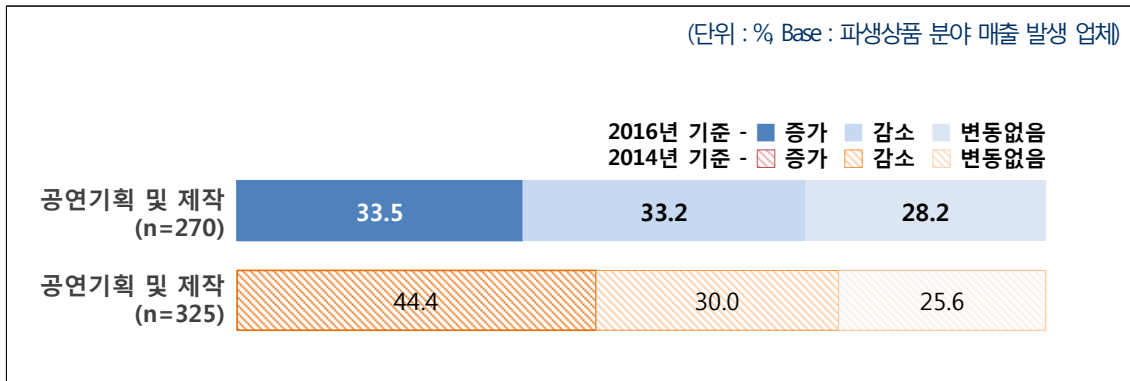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641)</b>	<b>26.1</b>	<b>38.3</b>	<b>35.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510)	26.9	37.7	35.4	100.0
	제작 분야	(111)	22.0	37.9	40.1	100.0
	기타 분야	(20)	28.4	55.6	15.9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30)	20.0	41.1	38.9	100.0
	2~5인 미만	(272)	22.3	40.6	37.0	100.0
	5~10인 미만	(142)	29.7	40.9	29.4	100.0
	10인 이상	(98)	39.4	24.5	36.1	100.0

(4)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

-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과 관련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3.5%, '감소했다'는 응답은 33.2%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nabla$ 1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9>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



\* 해당없음(5.1%)의 응답이 있음.

-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매니지먼트 분야,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51>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 기획 및 제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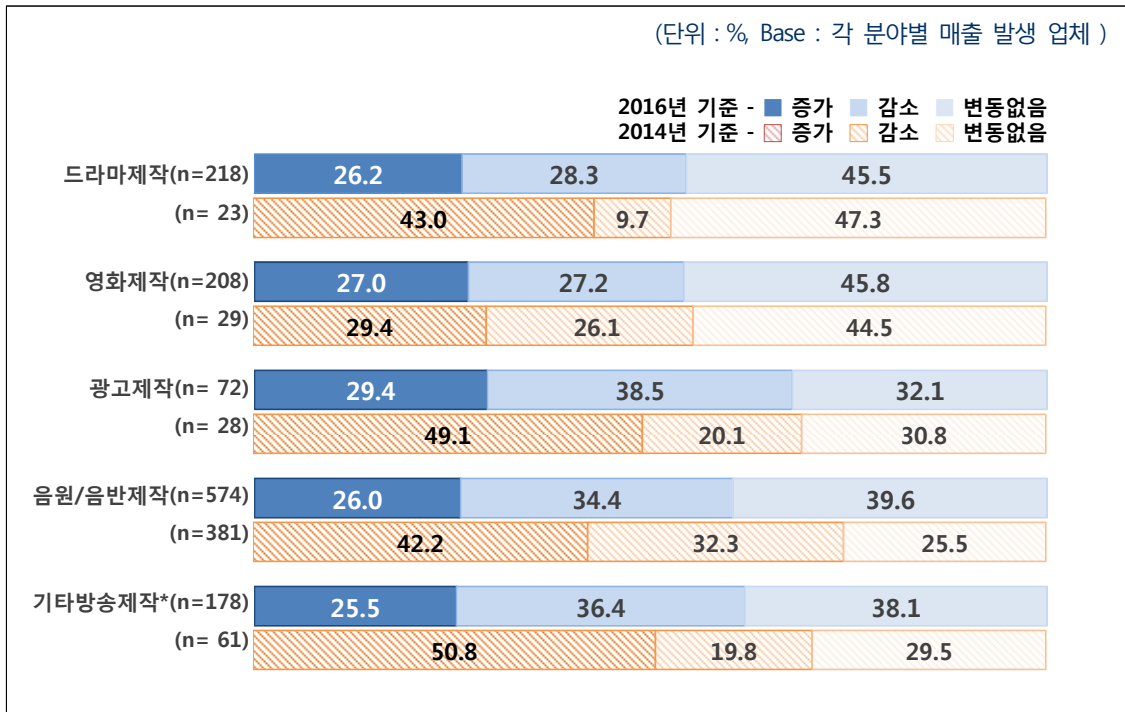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없음	해당없음	계
<b>전체</b>		<b>(270)</b>	<b>33.5</b>	<b>33.2</b>	<b>28.2</b>	<b>5.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57)	34.7	37.1	22.1	6.0	100.0
	제작 분야	(91)	33.2	25.5	39.0	2.3	100.0
	기타 분야	(21)	26.1	37.2	25.9	10.8	100.0
소속 직원 수	1인	(25)	35.2	31.4	23.7	9.6	100.0
	2~5인 미만	(105)	30.6	30.6	34.4	4.4	100.0
	5~10인 미만	(64)	40.1	38.6	16.5	4.8	100.0
	10인 이상	(76)	31.5	32.7	30.8	5.0	100.0

(5)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연관 콘텐츠 제작 활동

- 연관 콘텐츠 활동과 관련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광고제작'이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화제작'(27.0%), '드라마제작'(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모든 분야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0>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연관 콘텐츠 제작 활동



\* 기타방송제작은 예능 프로그램 등임.

<표 3-1-52>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드라마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전체		(218)	26.2	28.3	45.5	100.0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44)	31.2	29.2	39.6	100.0
	제작 분야*	(66)	15.0	27.0	57.9	100.0
	기타 분야	(9)	25.9	24.5	49.6	100.0
소속 직원 수	1인	(20)	15.5	32.5	52.0	100.0
	2~5인 미만	(68)	13.6	22.1	64.4	100.0
	5~10인 미만	(69)	37.5	25.3	37.2	100.0
	10인 이상	(61)	30.9	37.3	31.8	100.0

\* 주요 사업 분야 중 '제작 분야'는 해당 업체의 여러 사업(매니지먼트, 제작, 기타(아카데미, MD비즈니스, 모델 에이전시 등)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를 의미함.

<표 3-1-53>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화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208)</b>	<b>27.0</b>	<b>27.2</b>	<b>45.8</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40)	32.9	30.1	37.0	100.0
	제작 분야	(59)	13.1	20.6	66.3	100.0
	기타 분야	(9)	25.9	24.5	49.6	100.0
소속 직원 수	1인	(21)	10.2	38.5	51.3	100.0
	2~5인 미만	(66)	22.8	16.7	60.5	100.0
	5~10인 미만	(65)	35.9	24.9	39.2	100.0
	10인 이상	(56)	27.5	37.9	34.6	100.0

<표 3-1-54>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광고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72)</b>	<b>29.4</b>	<b>38.5</b>	<b>32.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5)	54.8	22.1	23.1	100.0
	제작 분야	(49)	17.9	49.8	32.2	100.0
	기타 분야	(8)	52.4	0.0	47.6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9)	23.0	60.8	16.2	100.0
	2~5인 미만	(22)	18.4	36.8	44.8	100.0
	5~10인 미만	(15)	23.7	44.7	31.6	100.0
	10인 이상	(16)	58.4	6.9	34.7	100.0

<표 3-1-55>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음반/음원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574)</b>	<b>26.0</b>	<b>34.4</b>	<b>39.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320)	27.5	36.3	36.2	100.0
	제작 분야	(245)	24.1	31.8	44.1	100.0
	기타 분야	(9)	26.1	37.1	36.8	100.0
소속 직원 수	1인	(115)	19.2	39.9	40.9	100.0
	2~5인 미만	(223)	22.8	31.6	45.6	100.0
	5~10인 미만	(129)	24.5	39.4	36.1	100.0
	10인 이상	(107)	41.8	28.2	30.0	100.0

&lt;표 3-1-56&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방송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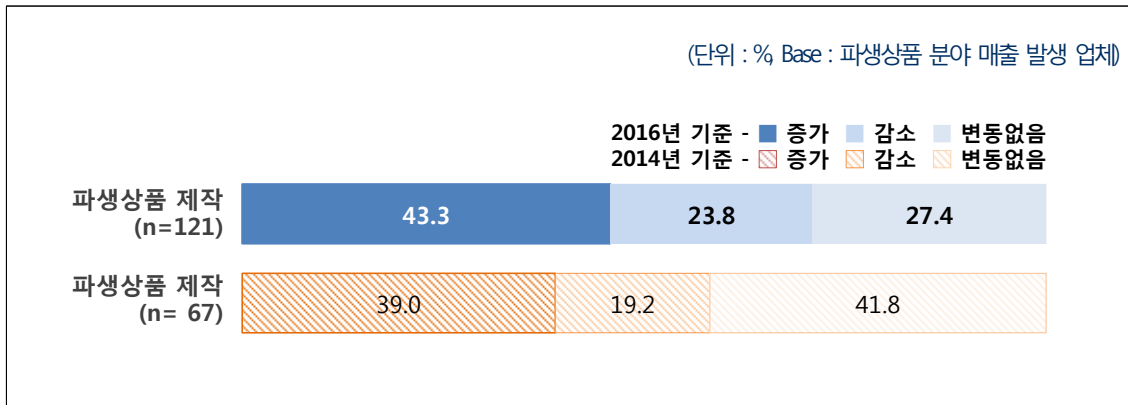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178)</b>	<b>25.5</b>	<b>36.4</b>	<b>38.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34)	45.8	32.9	21.3	100.0
	제작 분야	(142)	20.8	37.6	41.7	100.0
	기타 분야	(1)	0.0	0.0	10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52)	18.0	56.0	26.0	100.0
	2~5인 미만	(59)	19.5	22.3	58.2	100.0
	5~10인 미만	(43)	19.8	44.0	36.2	100.0
	10인 이상	(23)	68.5	13.9	17.6	100.0

(6)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파생상품(MD 비즈니스)

- 파생상품(MD비즈니스)과 관련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43.3%, 감소했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4.3%p 증가함.

<그림 3-1-41>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파생상품(MD비즈니스)



\* 해당없음(5.5%)의 응답이 있음.

<표 3-1-57>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파생상품(MD비즈니스)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해당 없음	계
<b>전체</b>		<b>(121)</b>	<b>43.3</b>	<b>23.8</b>	<b>27.4</b>	<b>5.5</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89)	43.2	25.6	23.6	7.5	100.0
	제작 분야	(19)	51.9	12.4	35.7	0.0	100.0
	기타 분야	(14)	32.1	27.4	40.5	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3)	38.4	31.5	30.1	0.0	100.0
	2~5인 미만	(31)	35.9	20.8	37.5	5.7	100.0
	5~10인 미만	(35)	34.0	23.1	37.4	5.5	100.0
	10인 이상	(52)	54.3	25.5	14.4	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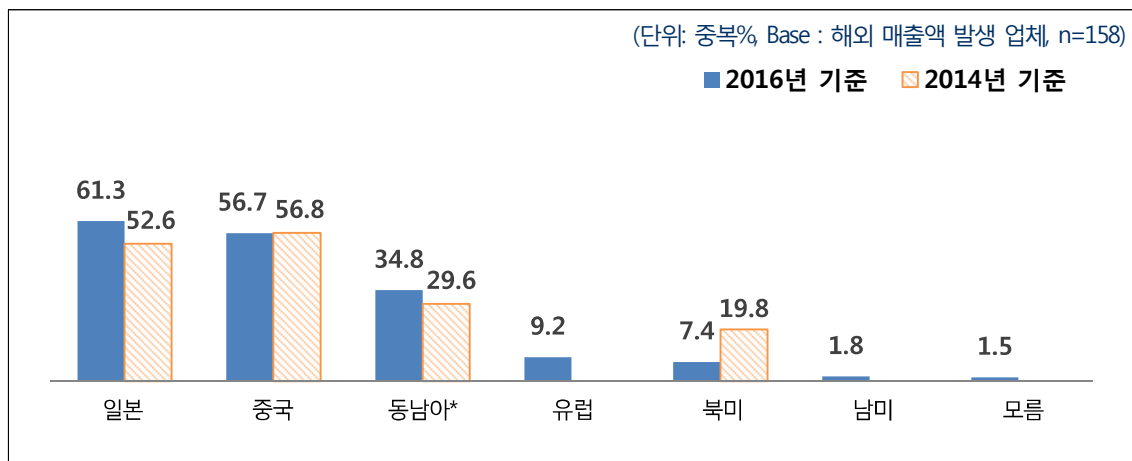


## 2) 해외 진출 현황

## (1) 주요 해외 진출 국가

- 해외 매출액 발생 업체(n=158)의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는 '일본'이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56.7%), '동남아'(3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일본'과 '동남아' 진출 비율은 각각 ▲8.7%p, ▲5.2%p 증가했으나, '북미' 진출 비율은 ▽1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중국' 진출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1-42&gt;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 동남아에는 홍콩, 베트남, 대만, 태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해외 진출국가가 '일본'이라는 응답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lt;표 3-1-58&gt; 응답업체 특성별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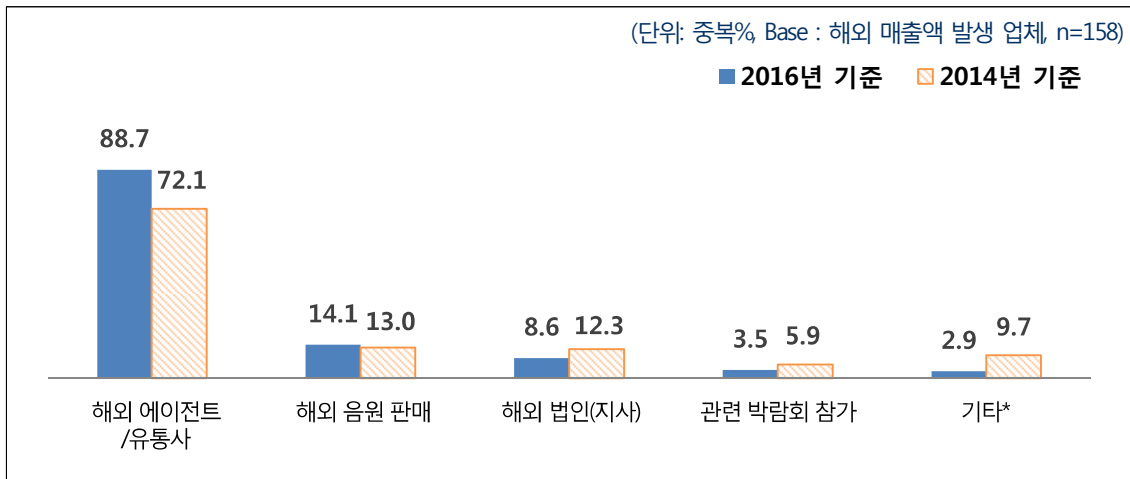
(단위: 중복%)

		사례수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유럽	북미	남미	모름
<b>전체</b>		<b>(158)</b>	<b>61.3</b>	<b>56.7</b>	<b>34.8</b>	<b>9.2</b>	<b>7.4</b>	<b>1.8</b>	<b>1.5</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1)	59.8	55.1	39.7	10.0	5.8	2.3	0.0
	제작 분야	(25)	73.4	54.0	22.3	9.2	18.4	0.0	4.8
	기타 분야	(11)	49.9	79.9	10.2	0.0	0.0	0.0	9.9
소속 직원 수	1인	(15)	49.2	56.1	35.1	0.0	8.8	0.0	0.0
	2~5인 미만	(61)	55.2	53.3	40.2	15.3	1.9	2.9	1.9
	5~10인 미만	(50)	63.7	61.2	28.7	3.8	8.6	0.0	2.4
	10인 이상	(32)	74.6	56.4	34.1	10.4	15.1	3.3	0.0

(2) 최초 해외 진출 경로

- 최초 해외 진출 경로(중복응답)에 대해서는 '해외 에이전트/유통사'가 8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 음원 판매'(14.1%), '해외 법인(지사)'(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해외진출 경로로 '해외 에이전트/유통사'와 '해외 음원 판매' 비율은 각각 ▲16.6%p, ▲1.1%p 증가했으나, '해외 법인(지사)'와 '관련 박람회 참가' 비율은 각각 ▼3.7%p,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3>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 기타에는 해외 지인소개, 국내 에이전트, K-POP 공연 개최 등이 있음.

- '해외 에이전트/유통사'를 통해서 진출했다는 응답은 매니지먼트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59> 응답업체 특성별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단위: 중복%)

		사례수	해외 에이전트/유통사	해외 음원 판매	해외 법인(지사)	관련 박람회 참가	기타
<b>전체</b>		<b>(158)</b>	<b>88.7</b>	<b>14.1</b>	<b>8.6</b>	<b>3.5</b>	<b>2.9</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1)	91.9	12.8	8.2	2.7	2.8
	제작 분야	(25)	86.5	22.4	4.8	8.6	-
	기타 분야	(11)	59.8	10.2	20.1	0.0	-
소속 직원 수	1인	(15)	84.3	15.7	0.0	0.0	9.9
	2~5인 미만	(61)	88.7	12.4	4.7	1.9	-
	5~10인 미만	(50)	89.1	8.6	4.7	0.0	7.7
	10인 이상	(32)	90.2	25.5	25.8	13.5	-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해외 에이전트/유통사'를 통해 진출했다는 응답은 중국이 63.8%, 일본은 55.4%로 나타남.

<표 3-1-60> 주요 해외 진출 국가별 진출 경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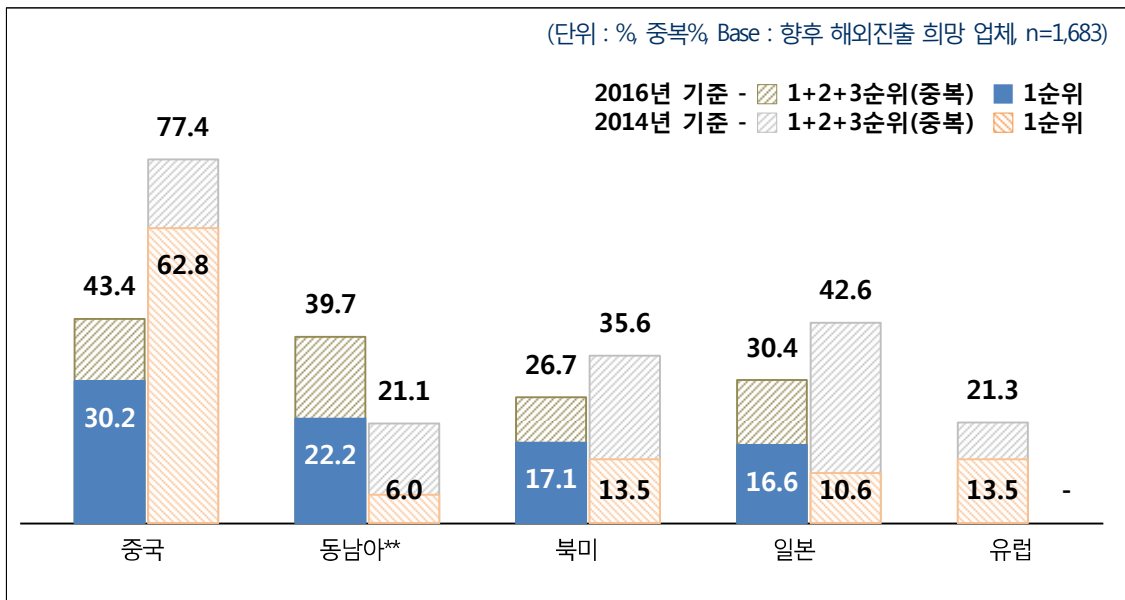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중국	일본	미국	홍콩	베트남	대만	태국
진출 경로	해외 법인(지사)	(13)	60.0	68.7	25.7	12.3	20.1	0.0	0.0
	해외 에이전트/유통사	(140)	<b>63.8</b>	<b>55.4</b>	37.6	9.5	7.6	2.0	0.9
	관련 박람회 참가	(5)	51.3	48.7	18.3	30.4	0.0	0.0	0.0
	해외 음원 판매	(22)	68.9	35.5	16.0	27.8	12.1	0.0	0.0
	현지 공연제작사	(2)	0.0	0.0	100.0	0.0	0.0	0.0	0.0
	단발성 행사	(1)	0.0	0.0	0.0	0.0	0.0	0.0	100.0
	개인 별로	(2)	0.0	100.0	0.0	0.0	0.0	0.0	0.0

(3)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

- 향후 진출하고 싶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해외 국가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중국'이 3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아'(22.2%), '북미'(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3순위 응답기준(중복응답)으로는 '중국'(43.4%), '동남아'(39.7%), '일본'(3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중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남아'의 경우 ▲1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국'의 경우 ▽32.6%p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임.

<그림 3-1-44>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 동남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1-61>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순위)

(단위 : %)

		사례수	중국	동남아	북미	일본	유럽	기타
<b>전체</b>		<b>(1683)</b>	<b>30.2</b>	<b>22.2</b>	<b>17.1</b>	<b>16.6</b>	<b>13.5</b>	<b>0.4</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117)	30.9	21.3	17.2	17.6	12.5	0.5
	제작 분야	(349)	29.8	20.7	15.2	17.8	16.1	0.3
	기타 분야	(217)	27.3	29.3	19.4	9.6	14.3	0.0
소속 직원 수	1인	(387)	24.8	25.7	15.8	18.6	14.8	0.3
	2~5인 미만	(662)	31.2	22.4	17.7	15.0	13.2	0.5
	5~10인 미만	(392)	35.3	19.6	14.9	16.2	13.5	0.5
	10인 이상	(242)	27.9	20.7	20.9	18.4	12.2	0.0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표 3-1-62>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2+3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중국	동남아	북미	일본	유럽	기타
<b>전체</b>		<b>(1683)</b>	<b>43.4</b>	<b>39.7</b>	<b>30.4</b>	<b>26.7</b>	<b>21.3</b>	<b>0.9</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117)	44.7	40.1	32.0	26.7	20.0	0.8
	제작 분야	(349)	42.7	37.5	31.0	25.4	24.4	1.5
	기타 분야	(217)	38.3	40.9	21.3	28.4	22.7	0.5
소속 직원 수	1인	(387)	39.6	39.1	28.0	22.7	20.5	1.4
	2~5인 미만	(662)	41.9	39.9	29.6	28.9	22.3	0.8
	5~10인 미만	(392)	49.4	41.7	32.6	27.8	20.9	1.3
	10인 이상	(242)	44.2	36.5	32.9	25.2	20.5	0.0

\* 동남아에는 베트남, 대만 등의 응답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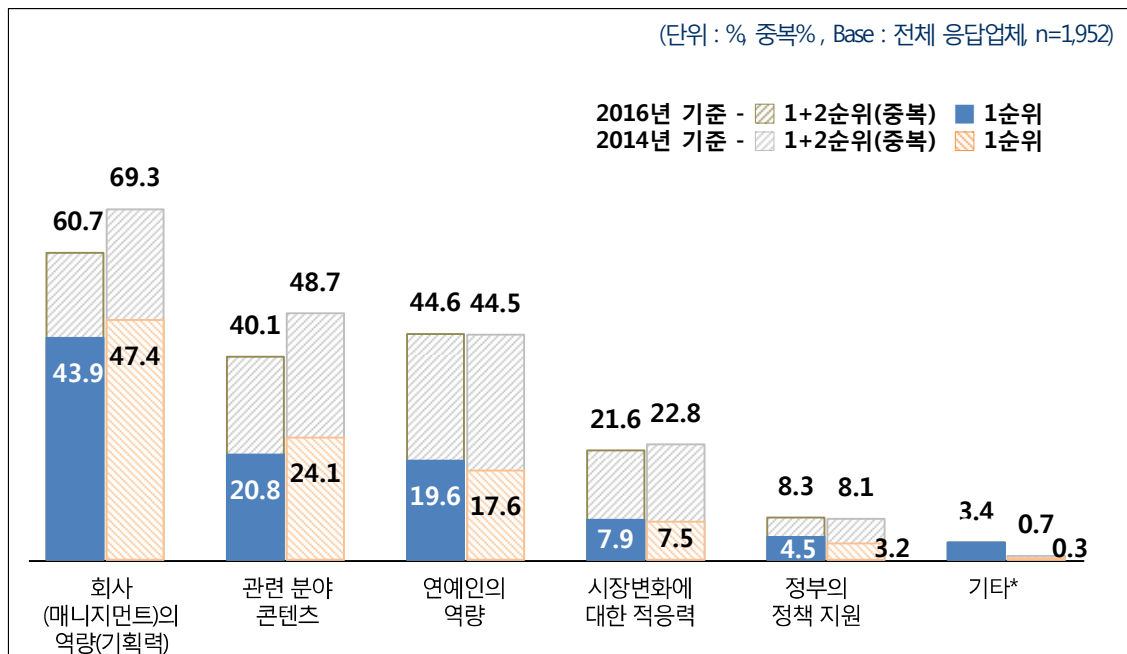
### 3. 기타 사항

#### 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

##### (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경쟁력 우위 부분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우위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회사(매니지먼트)의 역량(기획력)'이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련 분야의 콘텐츠'(20.8%), '연예인의 역량'(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 기준(중복응답)으로는 '회사(매니지먼트)의 역량(기획력)'(60.7%), '연예인의 역량'(44.6%), '관련 분야의 콘텐츠'(40.1%) 등의 순임.
- ※ 2014년과 비교해보면,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 중 '연예인의 역량'은 ▲2.0%p 증가한 반면, '회사의 역량' 및 '관련 분야 콘텐츠'는 각각 ▼3.5%p,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5>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



\* 기타에는 자금력, 아티스트 개런티 및 현지화 등이 있음.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1순위 기준으로 '회사의 역량(기획력)'이라는 응답은 기타(아카데미, 모델 에이전시, MD비즈니스 등) 분야, 소속 직원 수 10인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63>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순위)

(단위 : %)

		사례수	회사의 역량 (기획력)	관련 분야 콘텐츠	연예인의 역량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부의 정책 지원	기타	계
<b>전체</b>		<b>(1,952)</b>	<b>43.9</b>	<b>20.8</b>	<b>19.6</b>	<b>7.9</b>	<b>4.5</b>	<b>3.4</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45.5	18.1	22.7	6.4	3.7	3.7	100.0
	제작 분야	(397)	37.1	27.3	15.3	10.2	7.0	3.1	100.0
	기타 분야	(265)	46.6	24.0	10.7	11.8	4.7	2.1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38.0	18.9	18.6	11.1	6.6	6.8	100.0
	2~5인 미만	(771)	41.2	20.2	21.9	8.8	5.0	2.8	100.0
	5~10인 미만	(453)	46.0	21.0	22.2	5.4	3.8	1.6	100.0
	10인 이상	(283)	57.2	24.7	10.6	4.6	0.8	2.0	100.0

<표 3-1-64>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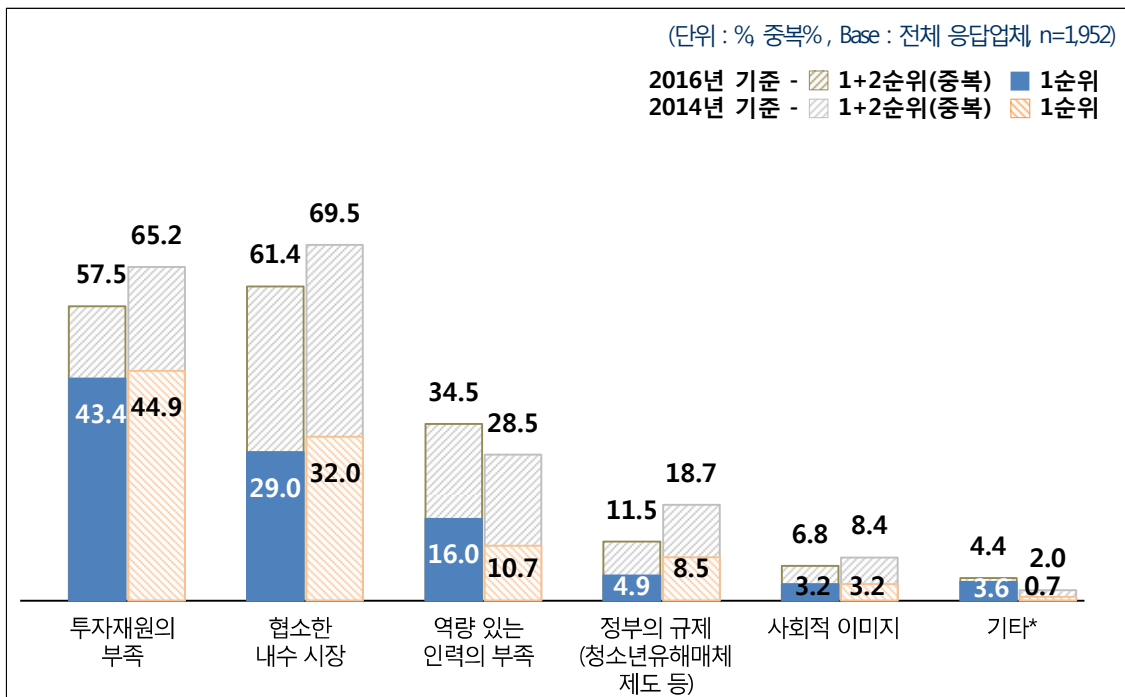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회사의 역량 (기획력)	관련 분야 콘텐츠	연예인의 역량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부의 정책 지원	기타
<b>전체</b>		<b>(1,952)</b>	<b>60.7</b>	<b>40.1</b>	<b>44.6</b>	<b>21.6</b>	<b>8.3</b>	<b>3.4</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63.1	36.5	50.8	19.2	7.1	3.7
	제작 분야	(397)	54.1	46.1	37.9	24.7	11.1	3.1
	기타 분야	(265)	59.1	49.0	24.5	28.2	10.2	2.1
소속 직원 수	1인	(445)	52.2	34.0	39.8	20.4	12.5	6.8
	2~5인 미만	(771)	59.6	40.2	45.4	22.5	8.9	2.8
	5~10인 미만	(453)	66.3	39.6	51.4	19.2	7.4	1.6
	10인 이상	(283)	68.4	50.5	39.1	24.7	1.5	2.0

(2)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경쟁력 취약 부분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투자재원의 부족'이 4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협소한 내수시장'(29.0%),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기준(중복응답)으로는 '협소한 내수시장'(61.4%), '투자재원의 부족'(57.5%),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34.5%) 등의 순임.
- ※ 2014년과 비교하면,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 중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은 ▲5.3%p 증가한 반면, '정부의 규제' 및 '협소한 내수 시장'은 각각 ▽3.6%p, ▽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6>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



\* 기타에는 장르의 편중화, 대형기획사의 시장장악, 공연장 부족 등이 있음.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1순위 기준으로 '투자재원의 부족'이라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2~5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65>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순위)

(단위 : %)

		사례수	투자재원의 부족	협소한 내수 시장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	정부의 규제	사회적 이미지	기타	계
<b>전체</b>		<b>(1,952)</b>	<b>43.4</b>	<b>29.0</b>	<b>16.0</b>	<b>4.9</b>	<b>3.2</b>	<b>3.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45.5	28.0	16.2	3.5	3.2	3.6	100.0
	제작 분야	(397)	43.6	30.9	11.9	7.5	2.5	3.6	100.0
	기타 분야	(265)	33.2	31.3	20.9	7.5	3.8	3.4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34.6	33.5	14.8	6.7	1.9	8.6	100.0
	2~5인 미만	(771)	48.9	27.6	13.7	3.8	3.6	2.4	100.0
	5~10인 미만	(453)	46.2	27.0	17.5	4.3	3.1	2.0	100.0
	10인 이상	(283)	37.9	29.0	21.6	5.8	4.2	1.4	100.0

<표 3-1-66>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취약 부분(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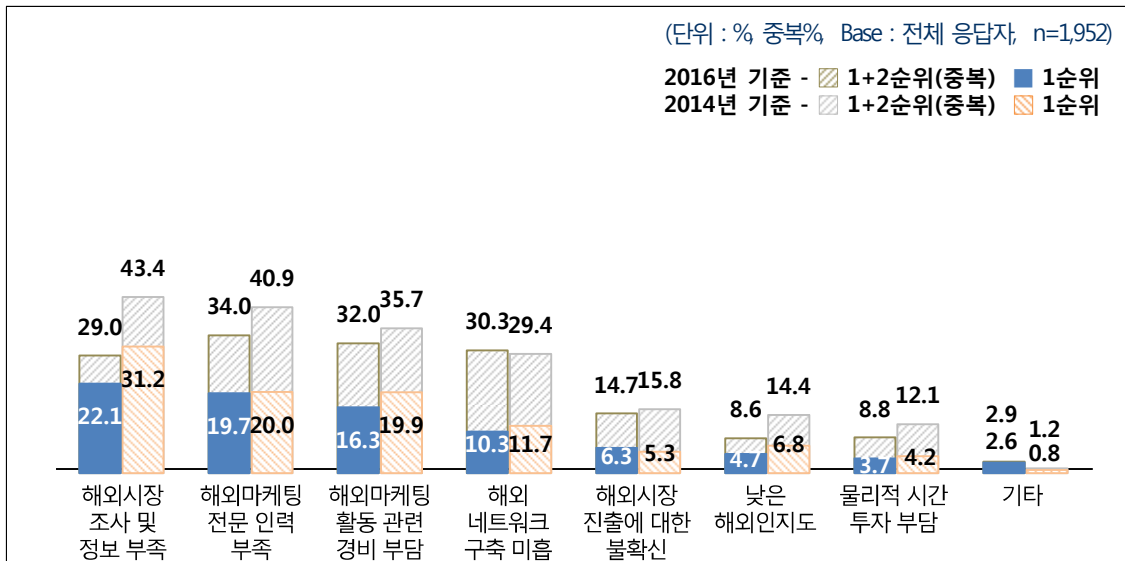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투자재원의 부족	협소한 내수 시장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	정부의 규제	사회적 이미지	기타
<b>전체</b>		<b>(1,952)</b>	<b>57.5</b>	<b>61.4</b>	<b>34.5</b>	<b>11.5</b>	<b>6.8</b>	<b>4.4</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59.5	60.7	35.9	10.1	6.7	4.5
	제작 분야	(397)	57.3	63.6	29.8	13.1	6.5	4.7
	기타 분야	(265)	48.2	61.7	34.7	15.9	8.0	3.8
소속 직원 수	1인	(445)	49.5	59.5	27.2	11.5	4.5	9.7
	2~5인 미만	(771)	64.6	60.6	32.6	8.5	7.4	3.4
	5~10인 미만	(453)	59.1	59.8	41.3	13.9	8.3	2.5
	10인 이상	(283)	48.3	69.4	40.3	16.0	6.8	2.0

(3)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이 2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19.7%),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기준(중복응답)으로는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34.0%),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32.0%),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30.3%) 등의 순임.
- ※ 2014년과 비교해보면 '해외 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이 ▽9.1%p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애로사항 비율이 낮아진 반면,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신' 관련은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7>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



\* 기타에는 언어 문제, 정부의 규제 등이 있음.  
\* '없다'는 14.3%임.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1순위 기준으로 '해외시장조사 및 정보의 부족'이라는 응답은 기타(아카데미, 모델 에이전시, MD비즈니스 등) 분야,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67>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해외 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해외 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	낮은 해외 인지도	물리적 시간 투자 부담	기타	없다	계
<b>전체</b>		<b>(1,952)</b>	<b>22.1</b>	<b>19.7</b>	<b>16.3</b>	<b>10.3</b>	<b>6.3</b>	<b>4.7</b>	<b>3.7</b>	<b>2.6</b>	<b>14.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22.2	19.8	16.3	10.1	6.1	5.3	3.6	2.8	13.7	100.0
	제작 분야	(397)	18.7	18.0	17.9	12.1	5.9	4.2	3.0	2.7	17.3	100.0
	기타 분야	(265)	26.5	21.4	13.9	8.7	7.6	2.9	5.0	1.7	12.3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17.3	15.5	14.9	9.0	4.5	4.7	4.2	3.9	26.0	100.0
	2~5인 미만	(771)	22.7	17.8	18.7	10.2	6.1	4.2	3.2	2.3	14.9	100.0
	5~10인 미만	(453)	27.5	22.6	16.7	11.2	6.3	6.5	2.9	1.1	5.0	100.0
	10인 이상	(283)	19.2	26.6	11.6	11.2	9.5	3.4	5.4	4.0	9.1	100.0

<표 3-1-68>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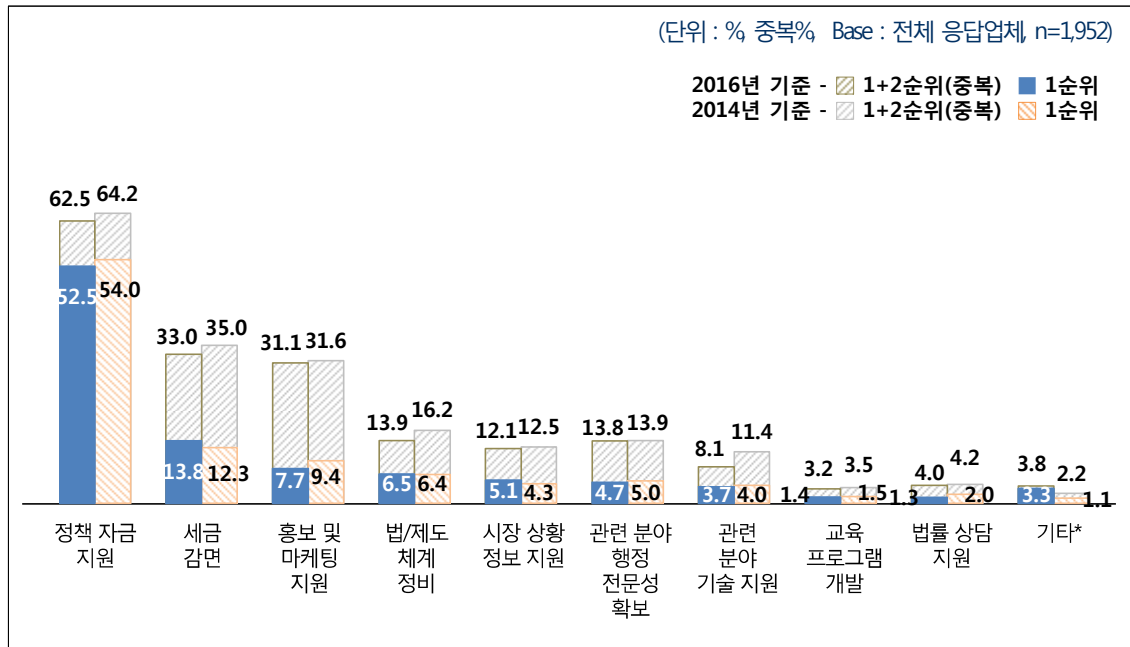
		사례수	해외 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해외 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	낮은 해외 인지도	물리적 시간 투자 부담	기타	없다
<b>전체</b>		<b>(1,952)</b>	<b>29.0</b>	<b>34.0</b>	<b>32.0</b>	<b>30.3</b>	<b>14.7</b>	<b>8.6</b>	<b>8.8</b>	<b>17.2</b>	<b>14.3</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30.2	34.7	31.2	30.3	14.0	9.6	9.1	16.7	13.7
	제작 분야	(397)	24.9	31.1	38.2	28.5	13.0	7.3	7.8	20.7	17.3
	기타 분야	(265)	29.5	34.7	26.6	32.9	20.1	5.9	9.3	14.1	12.3
소속 직원 수	1인	(445)	22.3	27.7	29.4	22.8	10.0	8.5	8.8	29.8	26.0
	2~5인 미만	(771)	30.6	31.5	34.9	27.7	13.7	9.1	8.8	17.7	14.9
	5~10인 미만	(453)	36.4	40.5	33.2	34.2	17.3	9.6	8.3	6.1	5.0
	10인 이상	(283)	23.5	40.1	26.2	42.6	20.5	5.9	9.7	13.5	9.1

## 2) 정부의 지원 사항

### (1)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정책 자금 지원'이 5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금 감면'(13.8%), '홍보 및 마케팅 지원'(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기준(중복응답)으로는 '정책자금 지원'(62.5%), '세금 감면'(33.0%), '홍보 및 마케팅 지원'(31.1%) 순임.
- ※ 2014년과 비교해보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정책 자금 지원'은 각각 ▽1.7%p, ▽1.5%p 감소한 반면, '세금 감면'은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8>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 기타에는 공정 경쟁유도, 공정한 음원 수익 분배 등이 있음.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1순위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2~5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69>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정책자금 지원	세금 감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법/제도 체계 정비	시장 상황 정보 지원	관련 행정 전문성 확보	관련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률 상담 지원	기타	계
<b>전체</b>		<b>(1,952)</b>	<b>52.5</b>	<b>13.8</b>	<b>7.7</b>	<b>6.5</b>	<b>5.1</b>	<b>4.7</b>	<b>3.7</b>	<b>1.4</b>	<b>1.3</b>	<b>3.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53.7	13.4	7.0	6.2	5.3	4.9	3.2	1.7	1.3	3.4	100.0
	제작 분야	(397)	52.7	12.6	12.4	5.4	4.3	3.6	3.6	0.6	1.1	3.6	100.0
	기타 분야	(265)	46.0	17.4	4.3	9.3	5.6	5.6	6.4	1.6	1.3	2.5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47.5	13.7	9.0	7.6	5.4	2.6	4.6	0.5	1.1	8.1	100.0
	2~5인 미만	(771)	56.6	14.3	8.4	5.3	4.3	4.1	2.8	1.3	0.8	2.0	100.0
	5~10인 미만	(453)	55.8	11.7	5.7	6.3	3.6	6.2	4.0	3.1	2.5	1.2	100.0
	10인 이상	(283)	43.8	15.7	7.2	8.3	9.3	7.4	4.2	0.7	0.9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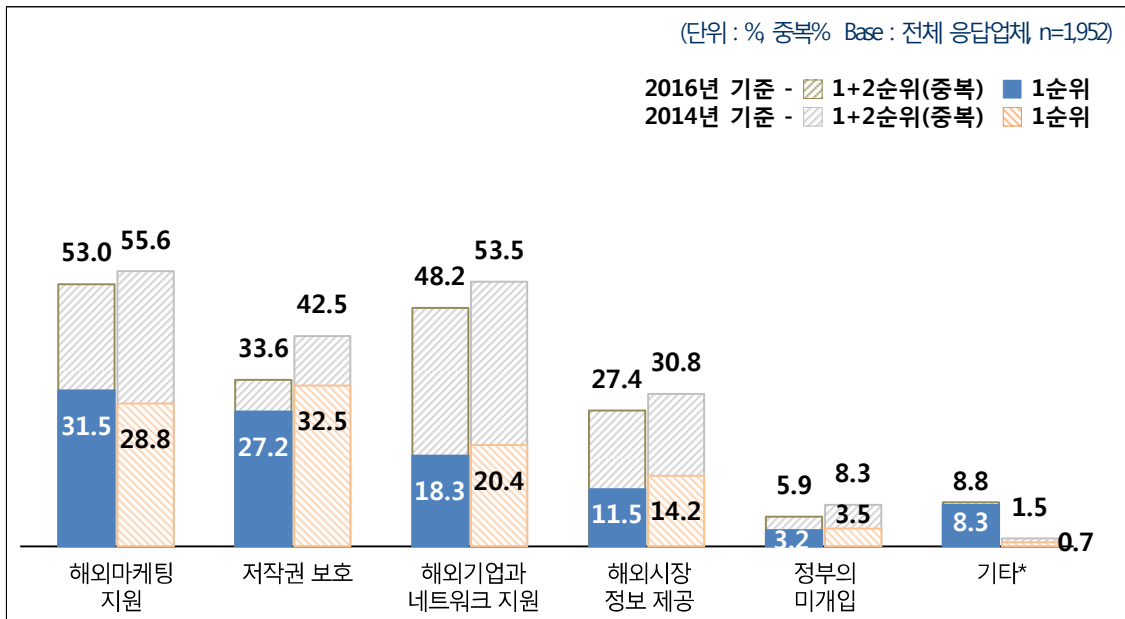
<표 3-1-70>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정책자금 지원	세금 감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법/제도 체계 정비	시장 상황 정보 지원	관련 행정 전문성 확보	관련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률 상담 지원	기타
<b>전체</b>		<b>(1,952)</b>	<b>62.5</b>	<b>33.0</b>	<b>31.1</b>	<b>13.9</b>	<b>12.1</b>	<b>13.8</b>	<b>8.1</b>	<b>3.2</b>	<b>4.0</b>	<b>3.8</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63.5	33.4	31.9	13.6	12.3	13.8	7.6	3.2	3.9	3.7
	제작 분야	(397)	64.2	27.2	36.1	13.3	11.6	13.8	7.3	1.7	3.6	4.9
	기타 분야	(265)	55.4	39.8	19.3	16.6	11.9	13.7	11.6	5.4	5.1	2.5
소속 직원 수	1인	(445)	57.2	28.7	30.6	14.5	11.4	10.6	7.8	1.3	3.5	9.3
	2~5인 미만	(771)	68.1	34.1	32.6	13.4	10.8	12.8	6.3	3.3	2.5	2.6
	5~10인 미만	(453)	65.5	33.8	29.1	13.0	12.2	14.9	10.8	4.4	6.9	1.2
	10인 이상	(283)	51.0	35.9	30.6	16.0	16.9	19.6	8.7	4.0	4.3	2.6

(2)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

- 해외 진출 관련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해외마케팅'이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작권 보호'(27.2%),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중복응답) 기준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53.0%),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48.2%), '저작권 보호'(33.6%) 등의 순임.
- ※ 2014년 대비 '저작권 보호'(▽5.3%p), '해외시장 정보 제공'(▽2.7%p),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2.1%p)은 감소한 반면, '해외마케팅 지원'(▲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9>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



\* 기타에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이 있음.

제3장 세부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 1순위 기준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는 응답은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71>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	해외 마케팅 지원	저작권 보호	해외 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정부의 미개입	기타	계
<b>전체</b>		<b>(1,952)</b>	<b>31.5</b>	<b>27.2</b>	<b>18.3</b>	<b>11.5</b>	<b>3.2</b>	<b>8.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31.6	28.9	17.3	11.6	3.5	7.0	100.0
	제작 분야	(397)	29.5	26.5	22.3	8.5	2.8	10.4	100.0
	기타 분야	(265)	33.8	20.4	16.8	15.5	2.1	11.4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25.7	24.7	17.2	10.9	3.6	18.0	100.0
	2~5인 미만	(771)	32.3	26.2	18.8	11.4	4.3	7.1	100.0
	5~10인 미만	(453)	35.7	29.2	18.8	12.2	2.1	2.1	100.0
	10인 이상	(283)	31.7	31.1	17.8	11.6	1.3	6.5	100.0

<표 3-1-72>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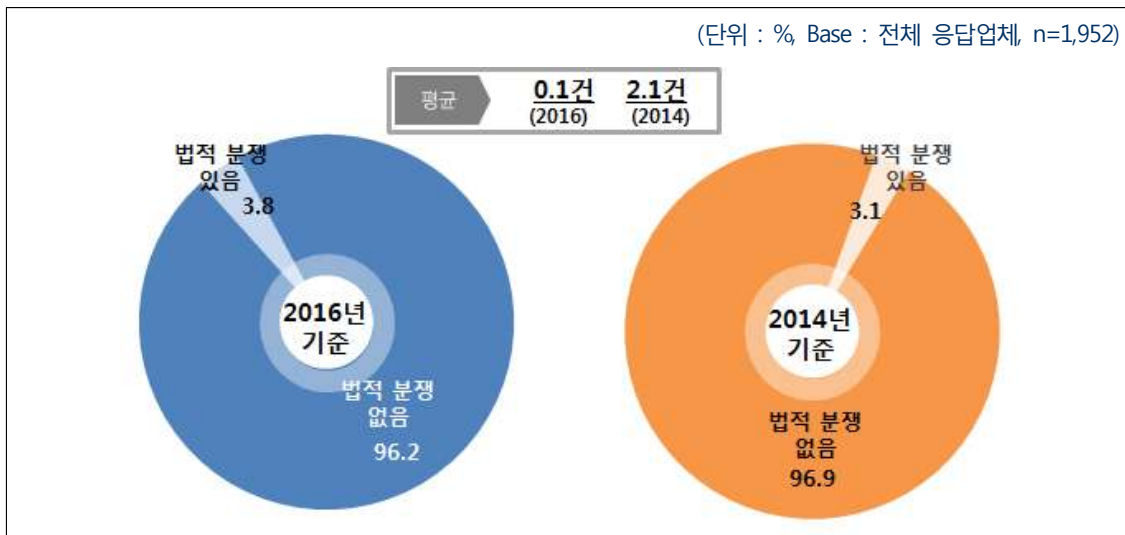
		사례수	해외 마케팅 지원	저작권 보호	해외 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정부의 미개입	기타
<b>전체</b>		<b>(1,952)</b>	<b>53.0</b>	<b>33.6</b>	<b>48.2</b>	<b>27.4</b>	<b>5.9</b>	<b>8.8</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53.6	34.8	48.2	27	6.2	7.5
	제작 분야	(397)	51.1	36.2	49.2	23.7	6.1	10.7
	기타 분야	(265)	52.6	24.1	46.4	35.1	4.3	12.2
소속 직원 수	1인	(445)	43.1	30.4	38.4	24.9	7.1	18
	2~5인 미만	(771)	55.3	32	49	28.7	6.1	7.6
	5~10인 미만	(453)	56.2	38	56	27.1	5	2.9
	10인 이상	(283)	56.8	36.3	48.8	28.5	5	7

3) 기타 사항

(1)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건수

- 최근 3년(2014년~2016년) 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과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남.
- ※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법적 분쟁 있음'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법적 분쟁 건수'는 평균 2.1건에서 0.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0>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건수



-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건수 평균은 소속 직원 수 2~5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남.

<표 3-1-73>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여부 및 건수 (단위 : %, 건)

		사례수	법적분쟁 없음	법적분쟁 있음	계	평균(건)
<b>전체</b>		<b>(1,952)</b>	<b>96.2</b>	<b>3.8</b>	<b>100.0</b>	<b>0.1</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95.1	4.9	100.0	0.1
	제작 분야	(397)	97.7	2.3	100.0	0.0
	기타 분야	(265)	99.6	0.4	100.0	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98.3	1.7	100.0	0.0
	2~5인 미만	(771)	94.6	5.4	100.0	0.1
	5~10인 미만	(453)	96.4	3.6	100.0	0.1
	10인 이상	(283)	97.0	3.0	100.0	0.0



## (2) 계약서 관련 대표적인 법적 분쟁 사례

- 계약 해지 관련
  -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요구, 연예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계약해지 및 이중계약 또는 연습생의 무단이탈, 음반발매 이후 연예인의 무단이탈 및 임의 개인 활동으로 인한 계약 해지 소송 진행 중
- 계약 불이행(위반)
  - 모델에이전시의 경우 광고주들의 초상권 활용 범위에 대한 계약 위반사항, 전속연예인이 계약을 어김, 계약 불이행, 소속뮤지션의 무단이탈
- 계약 내용 관련 갈등
  - 부모님의 개입으로 인한 계약사항에 대한 갈등, 계약 내용 중 정산 문제로 인한 갈등
- 계약 사기 관련
  - 계약 사기 및 횡령, 고용한 방송 PR매니저의 사기 행각, 형사 고소 진행 중
- 기타 사항
  -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활동 중단, 저작권 침해, 멤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탈퇴

&lt;표 3-1-74&gt;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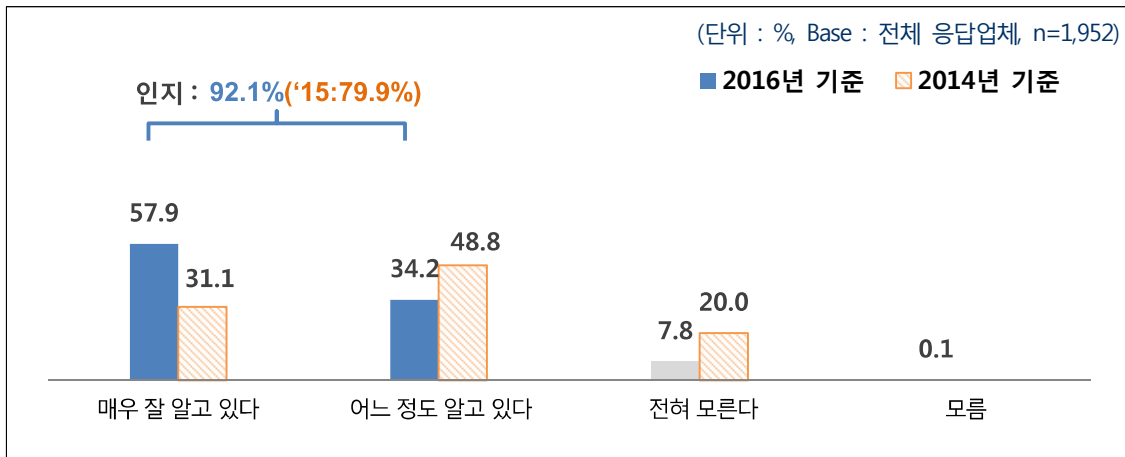
no	분쟁 사례 유형	사례수 (건)
1	계약 해지 관련	29
2	계약 불이행(위반)	19
3	계약 내용 관련 갈등	13
4	계약 사기 관련	5
5	기타 사항	7
<b>전체</b>		<b>73</b>

(3)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인지 여부

○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92.1%(어느 정도 알고 있다 34.2%+매우 잘 알고 있다 57.9%)로 나타남.

※ 2014년과 비교하면,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6.8%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1>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인지 여부



<표 3-1-75> 응답업체 특성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인지 여부

(단위 :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	계
<b>전체</b>		<b>(1,952)</b>	<b>57.9</b>	<b>34.2</b>	<b>7.8</b>	<b>0.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분야	(1,290)	60.9	31.6	7.5	0.0	100.0
	제작 분야	(397)	56.4	34.4	9.0	0.3	100.0
	기타 분야	(265)	45.8	46.5	7.6	0.0	100.0
소속 직원 수	1인	(445)	61.3	31.5	7.2	0.0	100.0
	2~5인 미만	(771)	56.6	35.1	8.2	0.1	100.0
	5~10인 미만	(453)	55.5	35.4	9.0	0.0	100.0
	10인 이상	(283)	60.1	33.9	6.1	0.0	100.0

## (3) 가입된 협/단체

- 기획업체의 41.7%(전체에서 없다:57.7% + 모름:0.6% 비율 제외)는 협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이 가입되어있는 협회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12.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9.1%), '한국음반산업협회'(5.3%), '저작권협회'(5.1%) 등의 순을 보임.

&lt;표 3-1-76&gt; 가입된 협/단체

no	가입된 협/단체	비율(%)
1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12.0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9.0
3	한국음반산업협회	5.3
4	저작권협회	5.1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4.0
6	실연자협회	1.5
7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9
8	한국음악레이블협회	0.8
9	제작자협회	0.8
10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0.8
11	한국매니지먼트연합	0.7
12	한국음악실연자협회	0.7
13	한국음반제작자협회	0.5
14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0.5
15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0.4
16	모델협회	0.4
17	모델에이전시협회	0.4
18	한국콘텐츠진흥원	0.3
19	연예인협회	0.3
20	가수협회	0.3
21	한국이벤트협회	0.3
2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0.3
23	한국음악산업협회	0.3
24	연기자협회	0.3

\* 상위 0.3% 이상의 경우만 제시함.

\* 없다 57.7%/모름 0.6% 임.

##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의 응답업체 특성표를 살펴보면, 소속 직원 수는 '5인 미만'이 60.3%로 가장 많았고, 주요 사업 분야별로는 '영상물 제작 분야'가 58.0%로 가장 많았음.

<표 3-2-1>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응답업체(모집단) 특성표

(단위: 개, %)

구분		모집단 구성비		
		사례수(개)	비중(%)	
전체		<b>(1,541)</b>	<b>100.0</b>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60.3	
	5 ~ 10인 미만	(280)	18.2	
	10 ~ 30인 미만	(205)	13.3	
	30인 이상	(127)	8.2	
주요 사업 분야* (대분류)	영상물 제작 분야	(894)	58.0	
	음반/음원 제작 분야	(288)	18.7	
	공연물 제작 분야	(313)	20.3	
	기타 제작 분야	(46)	3.0	
주요 사업 분야 (소분류)	영상물 제작	방송	(375)	24.3
		영화	(281)	18.2
		애니메이션	(82)	5.3
		광고	(63)	4.1
		뮤직비디오	(5)	0.3
		기타**	(89)	5.7
	음반/ 음원제작	음반/음원 제작	(288)	18.7
	공연물 제작	공연기획/제작사	(297)	19.3
		공연단체	(16)	1.0
	기타 제작	기타 제작***	(46)	3.0

\* 주요 사업 분야(대분류)는 주요 사업 분야(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업체에서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예, 매출규모가 가장 큰 분야)를 의미함.

\*\* 기타 영상물에는 공연영상, 행사촬영영상, 전시영상 등이 있음.

\*\*\* 기타제작에는 문화기획, 출판, 라디오 방송, 전자책, 음반외 CD 제작 등이 있음.

※ 결과분석 시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하므로 개별항목의 합계와 전체 합계(100.0%)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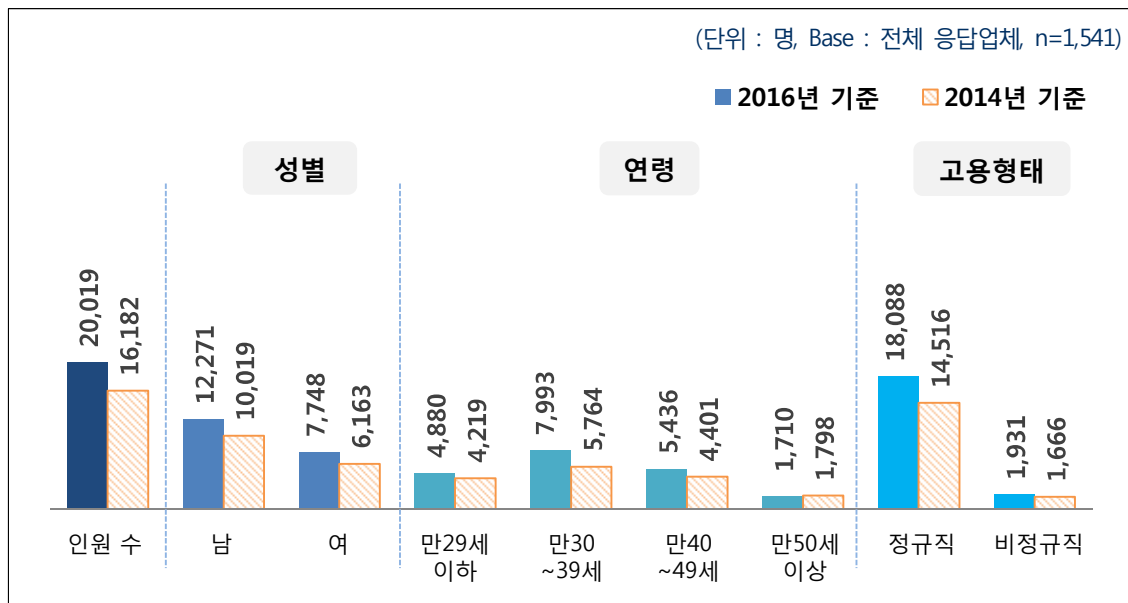
※ 전체 모집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특성별 응답업체수는 '±1'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1. 세부 인력 현황

### 1) 소속 직원 현황

- 성별로는 남자가 12,271명으로 여자(7,748명)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만 30~39세(7,993명), 만 40~49세(5,436명), 만 29세 이하(4,88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8,088명으로 비정규직(1,931명)과 큰 차이를 보임.
- ※ 2014년 대비 '전체 소속 인력수'가 3,837명 증가했으며, 특히 '정규직 소속 인력수'가 큰 폭(3,57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 소속 직원 현황



-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이 17,019명(정규직 15,328명+비정규직 1,691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연물 제작(1,798명=정규직 1,626명+비정규직 172명), 음반/음원 제작 (1,202명=정규직 1,134명+비정규직 68명) 순으로 나타남.

<표 3-2-2>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직원 세부 인력 현황(고용형태별/성별/연령별) (단위 :명)

업종구분	구분	전체 인원수	성별		연령(만)			
			남	여	만29세 이하	만30 ~39세	만40 ~49세	만50세 이상
영상물 제작	정규직*	15,328	9,629	5,699	3,557	6,147	4,271	1,353
	비정규직(프리랜서 제외)**	1,691	938	753	628	539	379	145
	<b>소계</b>	<b>17,019</b>	<b>10,567</b>	<b>6,452</b>	<b>4,185</b>	<b>6,686</b>	<b>4,650</b>	<b>1,498</b>
음반/음원 제작	정규직	1,134	661	473	261	437	345	91
	비정규직(프리랜서 제외)	68	34	34	21	33	11	3
	<b>소계</b>	<b>1,202</b>	<b>695</b>	<b>507</b>	<b>282</b>	<b>470</b>	<b>356</b>	<b>94</b>
공연물 제작	정규직	1,626	925	701	331	772	409	114
	비정규직(프리랜서 제외)	172	84	88	82	65	21	4
	<b>소계</b>	<b>1,798</b>	<b>1,009</b>	<b>789</b>	<b>413</b>	<b>837</b>	<b>430</b>	<b>118</b>
전체 합계	정규직	<b>18,088</b>	<b>11,215</b>	<b>6,873</b>	<b>4,149</b>	<b>7,356</b>	<b>5,025</b>	<b>1,558</b>
	비정규직(프리랜서 제외)	<b>1,931</b>	<b>1,056</b>	<b>875</b>	<b>731</b>	<b>637</b>	<b>411</b>	<b>152</b>
	<b>소계</b>	<b>20,019</b>	<b>12,271</b>	<b>7,748</b>	<b>4,880</b>	<b>7,993</b>	<b>5,436</b>	<b>1,710</b>

\* 정규직: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 비정규직: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제2장 세부 결과: (2)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 직무별로 살펴보면, 제작 분야가 9,8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업기획 분야(3,964명), 마케팅/홍보 분야(2,827명), 경영관리 분야(2,47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3>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 직원 세부 인력 현황(직무별)

(단위 :명)

업종구분	구분	전체 인원수	성별		연령(만)				고용형태	
			남	여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영상물 제작	사업기획	3,362	2,334	1,028	647	1,173	1,104	438	3,268	94
	제작	8,424	5,371	3,053	2,181	3,454	2,231	558	7,355	1,069
	마케팅/홍보	2,411	1,294	1,117	674	1,034	539	164	2,258	153
	경영관리	2,121	1,114	1,007	514	765	592	250	2,027	94
	기타	701	454	247	169	260	184	88	420	281
	소계	17,019	10,567	6,452	4,185	6,686	4,650	1,498	15,328	1,691
음반/음원 제작	사업기획	221	166	55	26	82	74	39	217	4
	제작	618	358	260	150	262	180	26	571	47
	마케팅/홍보	137	56	81	49	57	25	6	129	8
	경영관리	156	67	89	44	47	46	19	151	5
	기타	70	48	22	13	22	31	4	66	4
	소계	1,202	695	507	282	470	356	94	1,134	68
공연물 제작	사업기획	381	260	121	52	168	118	42	373	8
	제작	789	501	288	186	358	190	55	710	79
	마케팅/홍보	279	96	183	63	154	53	9	262	17
	경영관리	194	67	127	55	74	56	9	183	11
	기타	155	85	70	55	82	15	3	98	57
	소계	1,798	1,009	789	413	837	430	118	1,626	172
전체 합계	사업기획	3,964	2,760	1,204	725	1,423	1,296	519	3,858	106
	제작	9,831	6,230	3,601	2,517	4,074	2,601	639	8,636	1,195
	마케팅/홍보	2,827	1,446	1,381	786	1,245	617	179	2,649	178
	경영관리	2,471	1,248	1,223	613	886	694	278	2,361	110
	기타*	926	587	339	237	364	230	95	584	342
	전체	20,019	12,271	7,748	4,880	7,993	5,436	1,710	18,088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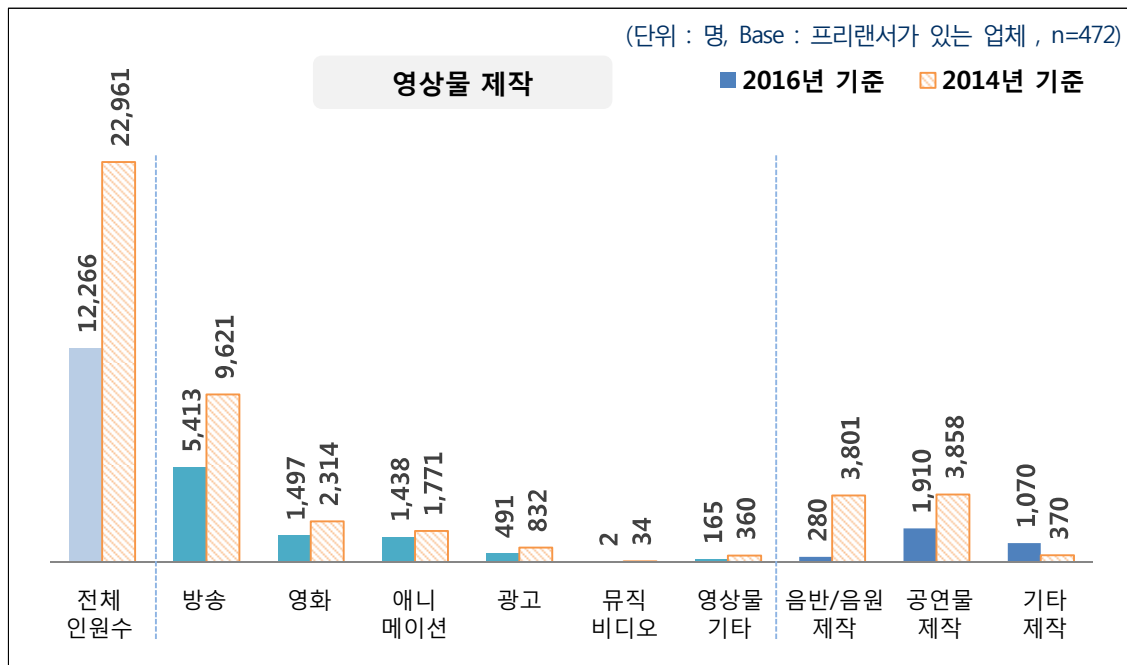
\* 기타는 단순 업무 보조 인력임.

\*\* 본 문항은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2) 프리랜서 현황

-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분야의 프리랜서 전체 인력 규모는 12,266명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 분야'가 9,0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연물 제작 분야'(1,910명), '음반/음원 분야'(28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2> 프리랜서 현황



\* 기타 제작은 영유아종합콘텐츠 제작, 국가지원사업 제작 등임.

\* 프리랜서 집단의 팀장과 계약하는 경우 1명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프리랜서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3-2-4> 제작 분야별 프리랜서 현황

(단위: 명, %)

주요 분야	인원수	영상물 제작								음반/음원 제작	공연물 제작	기타 제작
		소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뮤직 비디오	영상물 기타				
프리랜서	인원 수	12,266	9,007	5,413	1,497	1,438	491	2	165	280	1,910	1,070
	비율	100	73.4	44.1	12.2	11.7	4.0	0.0	1.3	2.3	15.6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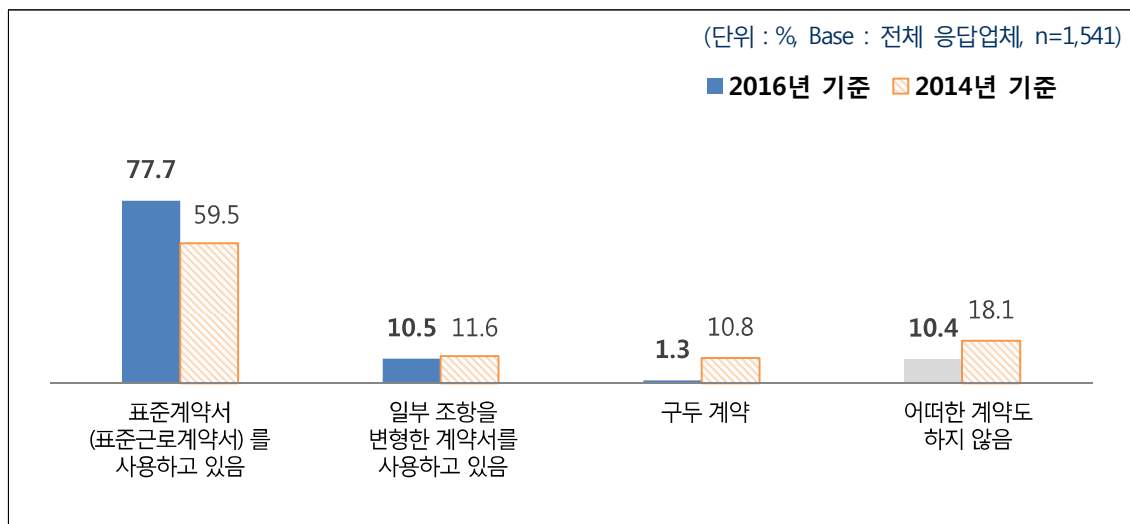
## 3) 구인경로 및 신규 직원 채용 시 평가 요소

## (1)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이 7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10.5%), '구두 계약'(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이 ▲18.2%p 증가한 반면,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은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2-3&gt;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은 음반/음원 제작,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lt;표 3-2-5&gt;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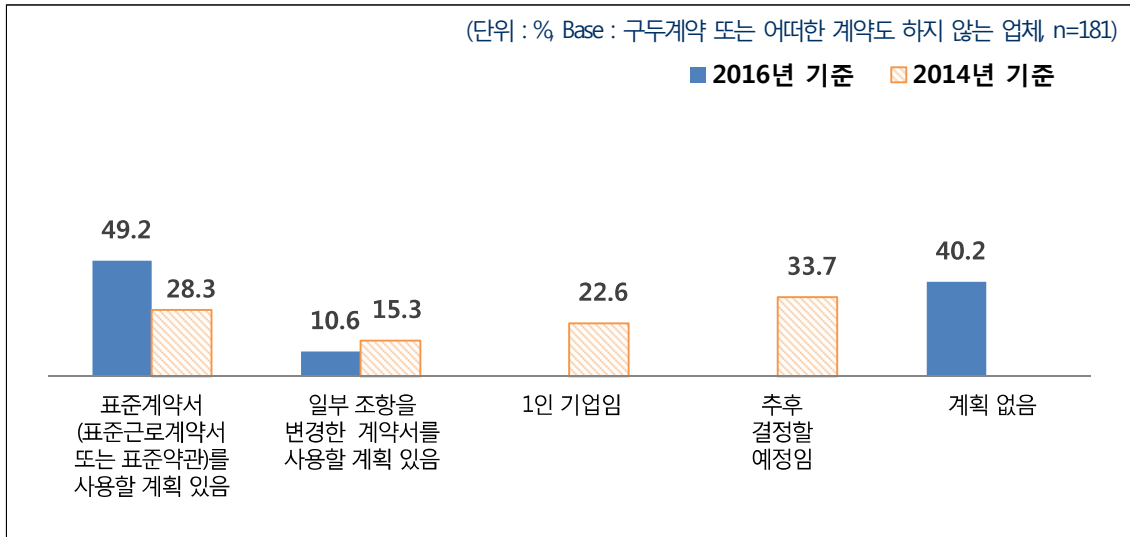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b>전체</b>		<b>(1,541)</b>	<b>77.7</b>	<b>10.5</b>	<b>1.3</b>	<b>10.4</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81.2	9.2	1.2	8.4	100.0
	음반/음원 제작	(288)	70.9	9.1	2.6	17.3	100.0
	공연물 제작	(313)	74.5	15.9	0.4	9.2	100.0
	기타 제작	(46)	74.3	9.8	2.3	13.7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71.1	11.1	1.6	16.1	100.0
	5~10인 미만	(280)	83.2	11.3	1.9	3.7	100.0
	10~30인 미만	(205)	92.9	7.1	0.0	0.0	100.0
	30인 이상	(127)	89.5	10.5	0.0	0.0	100.0

(2)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

- 구두계약 또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는다는 업체(n=181)의 절반가량(49.2%)은 향후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 있다'는 비율은 ▲20.9%p 증가하였으며,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 있음'은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은 영상물 제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6>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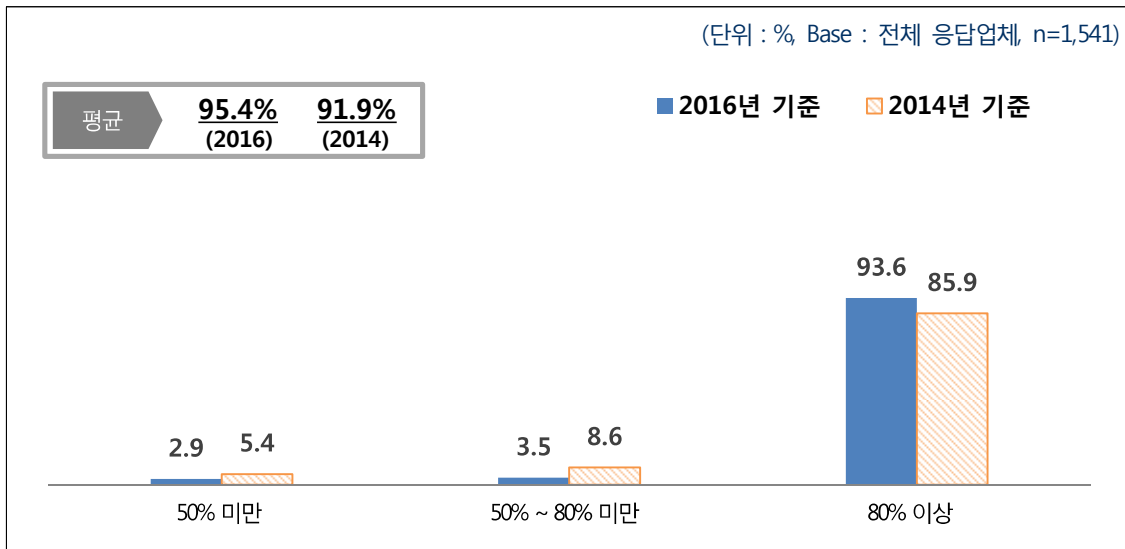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계획 없음	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계
<b>전체</b>		<b>(181)</b>	<b>49.2</b>	<b>40.2</b>	<b>10.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6)	56.6	31.8	11.6	100.0
	음반/음원 제작	(58)	36.8	53.3	9.9	100.0
	공연물 제작	(30)	46.5	48.9	4.6	100.0
	기타 제작	(7)	71.2	0.0	28.8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165)	47.5	41.0	11.6	100.0
	5~10인 미만	(16)	67.7	32.3	0.0	100.0

(3)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2016년 기준,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은 평균 95.4%로 나타남.
- 소속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 80% 이상'이 93.6%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소속직원 4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3.5%p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이 '80% 이상'인 경우가 ▲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 소속직원의 4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소속 직원 수 3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3-2-7>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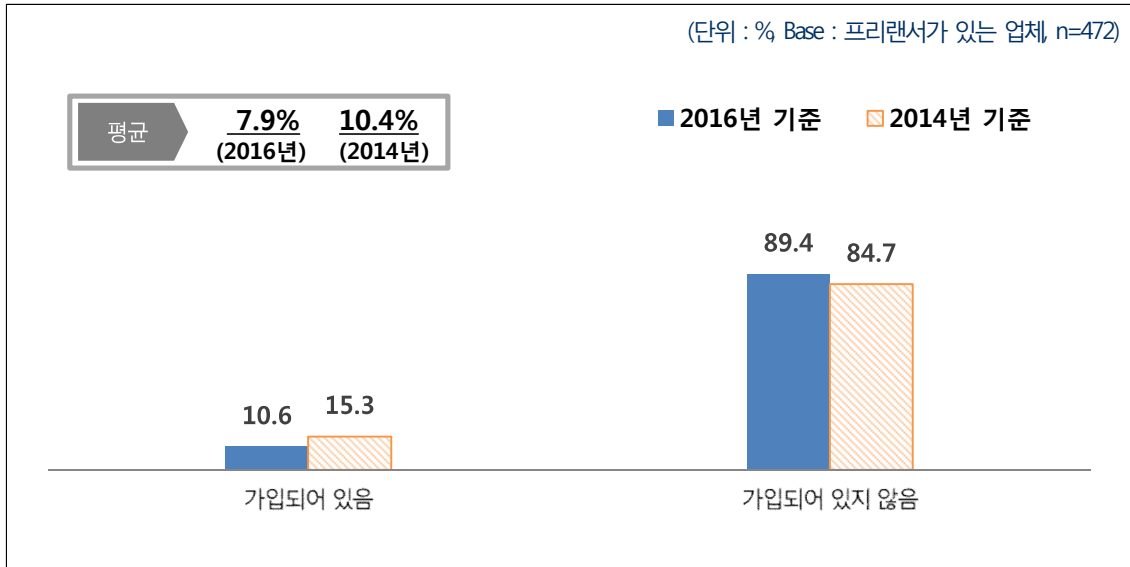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50% 미만	50~80% 미만	80% 이상	계	평균 (%)
<b>전체</b>		<b>(1,541)</b>	<b>2.9</b>	<b>3.5</b>	<b>93.6</b>	<b>100.0</b>	<b>95.4</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2.7	3.3	94.0	100.0	95.2
	음반/음원 제작	(288)	3.0	1.9	95.1	100.0	96.5
	공연물 제작	(313)	3.7	5.5	90.8	100.0	95.0
	기타 제작	(46)	2.3	2.3	95.4	100.0	95.5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1.8	3.1	95.1	100.0	97.2
	5~10인 미만	(280)	5.0	5.0	90.0	100.0	93.5
	10~30인 미만	(205)	4.6	1.6	93.7	100.0	93.4
	30인 이상	(127)	3.9	5.9	90.1	100.0	89.7

(4)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 프리랜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은 평균 7.9%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가입 비율 및 평균 비율이 다소 하락한 수준임.

<그림 3-2-6>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 프리랜서의 4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음반/음원 제작 및 공연물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3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8> 응답업체 특성별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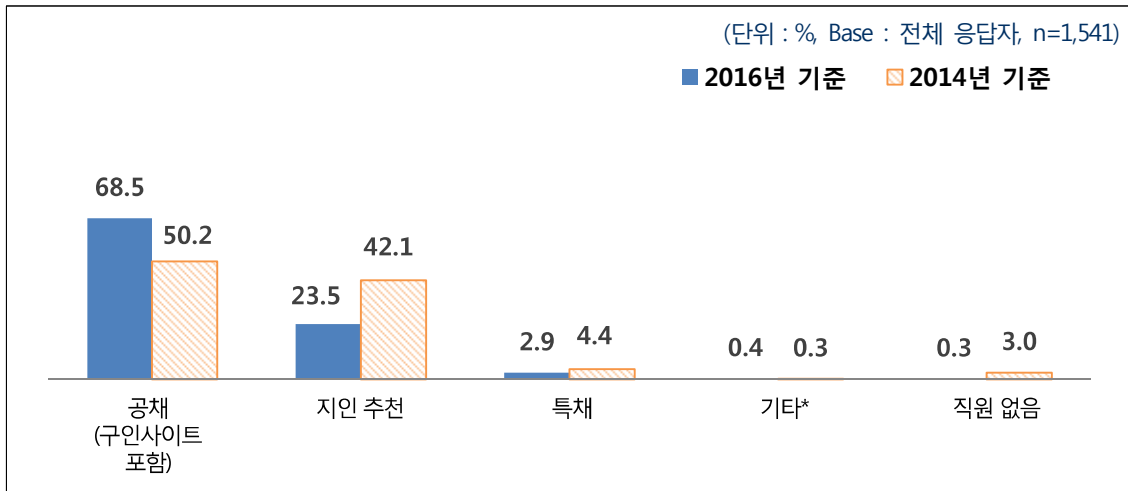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계	평균(%)
<b>전체</b>		<b>(472)</b>	<b>10.6</b>	<b>89.4</b>	<b>100.0</b>	<b>7.9</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96)	9.0	91.0	100.0	5.7
	음반/음원 제작	(60)	15.9	84.1	100.0	13.1
	공연물 제작	(109)	12.8	87.2	100.0	11.5
	기타 제작	(7)	0.0	100.0	100.0	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259)	12.1	87.9	100.0	9.5
	5~10인 미만	(101)	8.3	91.7	100.0	4.3
	10~30인 미만	(76)	6.0	94.0	100.0	4.5
	30인 이상	(35)	16.5	83.5	100.0	13.6

(5)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소속 직원의 구인경로로는 주로 '공채(구인 사이트 포함)'(68.5%)와 '지인 추천'(23.5%)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공채'는 ▲18.3%p 증가한 반면, '지인 추천'은 ▼1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7>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 기타는 모든 경로 이용, 교육기관 추천 등임.

- '공채(구인사이트 포함)'는 영상물 제작 및 기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지인 추천'은 음반/음원 제작,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9> 응답업체 특성별 소속직원 주된 구인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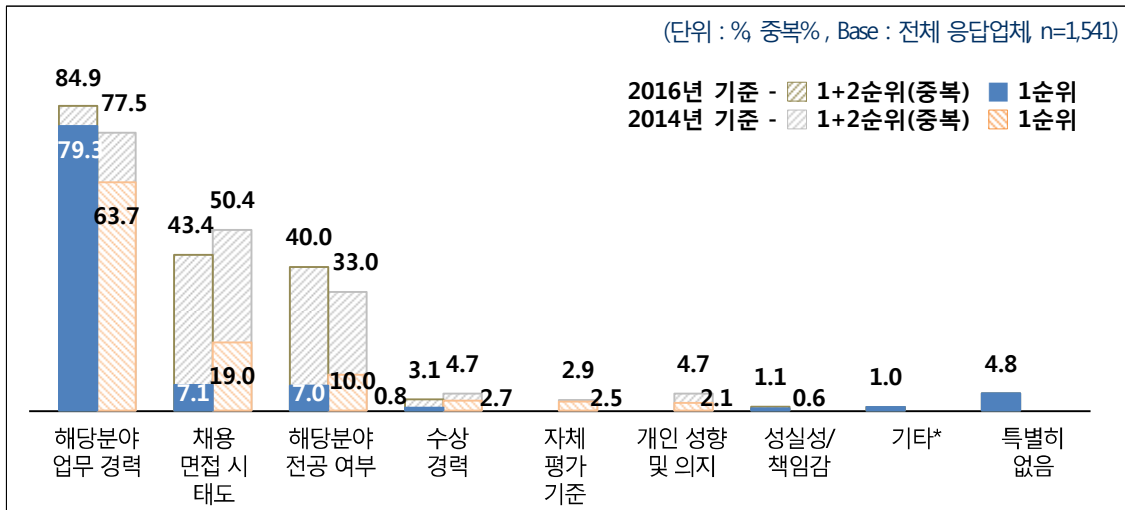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공채 (구인 사이트 포함)	지인 추천	특채	기타	직원 없음	계
<b>전체</b>		<b>(1,541)</b>	<b>68.5</b>	<b>23.5</b>	<b>2.9</b>	<b>0.4</b>	<b>4.7</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75.3	18.8	2.4	0.2	3.3	100.0
	음반/음원 제작	(288)	50.2	34.8	5.5	1.2	8.3	100.0
	공연물 제작	(313)	64.6	27.8	0.9	0.4	6.3	100.0
	기타 제작	(46)	76.3	13.7	10.0	0.0	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57.8	29.9	4.0	0.5	7.9	100.0
	5~10인 미만	(280)	78.1	20.7	0.6	0.6	0.0	100.0
	10~30인 미만	(205)	87.0	10.1	2.9	0.0	0.0	100.0
	30인 이상	(127)	95.9	4.1	0.0	0.0	0.0	100.0

(6)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 항목

-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7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용면접 시 태도'(7.1%), '해당분야 전공여부'(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중복응답) 기준으로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84.9%), '채용면접 시 태도'(43.4%), '해당분야 전공여부'(40.0%) 순임.
- ※ 2014년 대비 '채용 면접 시 태도'(▽11.9%p) 및 '해당분야 전공 여부'(▽3.0%p)는 감소한 반면, '해당분야 업무 경력'은 ▲1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8>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



\* 기타는 해당 분야 능력, 인성 등임.

- 1순위 기준으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은 영상물 제작 및 기타 제작, 소속 직원 수 10~30인 미만에서, '채용 면접 시 태도'는 음반/음원 제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10>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1순위)

(단위 : %)

		사례수	해당분야 업무경력	채용 면접 시 태도	해당분야 전공여부	수상 경력	성실성/ 책임감	기타	특별히 없음	계
<b>전체</b>		<b>(1,541)</b>	<b>79.3</b>	<b>7.1</b>	<b>7.0</b>	<b>0.8</b>	<b>0.6</b>	<b>1.0</b>	<b>4.8</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84.0	4.6	7.1	0.5	0.3	0.8	3.1	100.0
	음반/음원 제작	(288)	68.4	17.9	3.9	0.8	1.6	1.6	7.4	100.0
	공연물 제작	(313)	74.6	4.7	10.1	1.6	0.6	1.0	8.1	100.0
	기타 제작	(46)	88.7	4.5	4.6	2.2	0.0	0.0	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75.2	9.4	5.9	1.1	0.8	1.2	7.2	100.0
	5~10인 미만	(280)	88.9	4.9	3.0	0.0	0.6	1.2	1.9	100.0
	10~30인 미만	(205)	91.0	2.2	4.9	1.2	0.0	0.0	0.7	100.0
	30인 이상	(127)	69.7	2.6	27.7	0.0	0.0	0.0	0.0	100.0

&lt;표 3-2-11&gt;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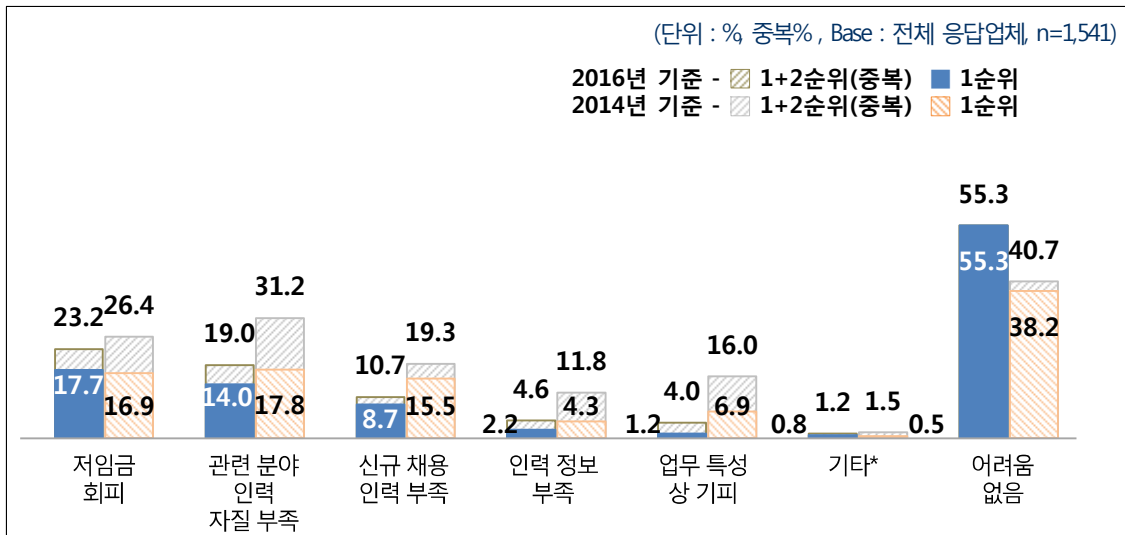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해당 분야 경력	채용 시 태도	해당 분야 공부	수상 경력	성실성/ 책임성	기타	특별히 없음
<b>전체</b>		<b>(1,541)</b>	<b>84.9</b>	<b>43.4</b>	<b>40.0</b>	<b>3.1</b>	<b>1.1</b>	<b>1.0</b>	<b>4.8</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90.7	40.5	46.6	3.0	0.7	1.1	3.1
	음반/음원 제작	(288)	72.1	52.1	20.1	2.4	3.2	0.0	7.4
	공연물 제작	(313)	79.5	42.6	39.3	4.3	0.6	1.8	8.1
	기타 제작	(46)	91.0	50.3	42.1	2.2	0.0	0.0	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79.3	45.9	32.0	3.0	1.3	1.1	7.2
	5~10인 미만	(280)	93.8	41.5	49.6	0.0	1.8	1.8	1.9
	10~30인 미만	(205)	94.9	37.3	47.4	10.0	0.0	0.0	0.7
	30인 이상	(127)	91.0	38.9	65.7	0.0	0.0	0.0	0.0

(7)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

-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저임금 회피'가 1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14.0%), '신규 채용인력 부족'(8.7%)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응답(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저임금 회피'(23.2%),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19.0%), '신규 채용인력 부족'(10.7%) 순임.
- ※ 2014년에 비해(1순위 기준) '저임금 회피'만 약간 증가하였고, 그 외 항목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



\* 기타는 실무경험 부족, 채용여력 부족 등이 있음.

<표 3-2-12>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1순위)

(단위: %)

		사례수	저임금 회피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	신규 채용 인력 부족	인력 정보 부족	업무 특성 상 기피	기타	어려움 없음	계
<b>전체</b>		<b>(1,541)</b>	<b>17.7</b>	<b>14.0</b>	<b>8.7</b>	<b>2.2</b>	<b>1.2</b>	<b>0.8</b>	<b>55.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14.6	14.4	9.9	2.7	1.4	0.6	56.4	100.0
	음반/음원 제작	(288)	22.3	13.6	13.8	0.4	0.8	1.8	47.2	100.0
	공연물 제작	(313)	21.8	13.7	1.9	2.5	0.9	0.6	58.7	100.0
	기타 제작	(46)	21.9	11.1	0.0	3.6	2.3	0.0	61.1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20.5	14.7	10.0	2.0	1.3	0.8	50.7	100.0
	5~10인 미만	(280)	16.1	13.6	4.8	3.0	2.4	1.3	58.6	100.0
	10~30인 미만	(205)	16.7	11.9	8.1	1.6	0.0	0.0	61.6	100.0
	30인 이상	(127)	2.5	13.6	8.2	3.2	0.0	1.4	71.1	100.0



<표 3-2-13> 응답업체 특성별 신규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저임금 회피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	신규용인력 부족	인력 정보 부족	업무 특성 상 기피	기타	어려움 없음
<b>전체</b>		<b>(1,541)</b>	<b>23.2</b>	<b>19.0</b>	<b>10.7</b>	<b>4.6</b>	<b>4.0</b>	<b>1.2</b>	<b>55.3</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21.3	20.4	11.8	5.2	4.7	1.2	56.4
	음반/음원제작	(288)	26.1	15.4	14.6	2.6	4.3	1.8	47.2
	공연물 제작	(313)	25.3	18.3	4.5	4.7	1.8	0.6	58.7
	기타 제작	(46)	26.3	17.6	5.4	5.8	4.6	0.0	61.1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24.8	18.9	12.2	3.7	4.6	0.8	50.7
	5~10인 미만	(280)	23.5	22.3	6.6	7.3	4.2	2.5	58.6
	10~30인 미만	(205)	25.8	16.4	9.0	4.5	3.7	0.8	61.6
	30인 이상	(127)	6.2	16.3	11.6	5.9	0.0	1.4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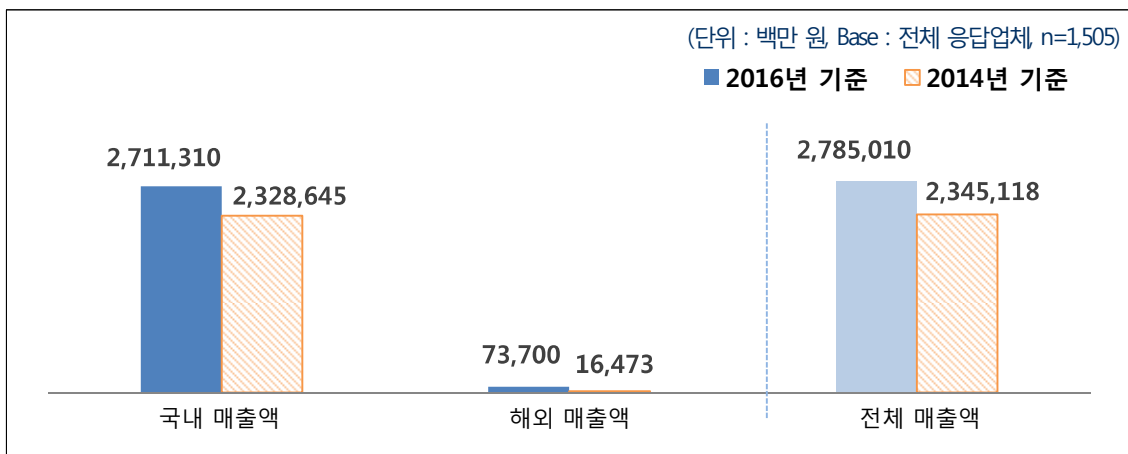
## 2. 사업 현황

### 1) 매출규모 및 제작 건수

#### (1) 분야별 매출규모

-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의 응답업체 기준 전체 매출규모는 2조 7,850억 원으로 나타남.
  - 분야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 분야의 매출규모가 2조 2,280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연물 제작(뮤지컬 등)(4,008억 원), 음반/음원 제작(76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매니지먼트,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 기타 사업에 대한 매출규모는 452억 원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전체 매출액'이 4,399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내 매출액'이 3,82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0> 매출 규모



<표 3-2-14> 분야별 매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영상물 제작	2,173,313	54,700	2,228,013
음반/음원 제작	76,065	0	76,065
공연물 제작	400,380	420	400,800
기타 제작물*	14,648	0	14,648
기타 사업 분야**	26,713	18,580	45,293
<b>전체</b>	<b>2,711,310</b>	<b>73,700</b>	<b>2,785,010</b>

\* 기타 제작은 영유아종합콘텐츠 제작, 국가지원사업 제작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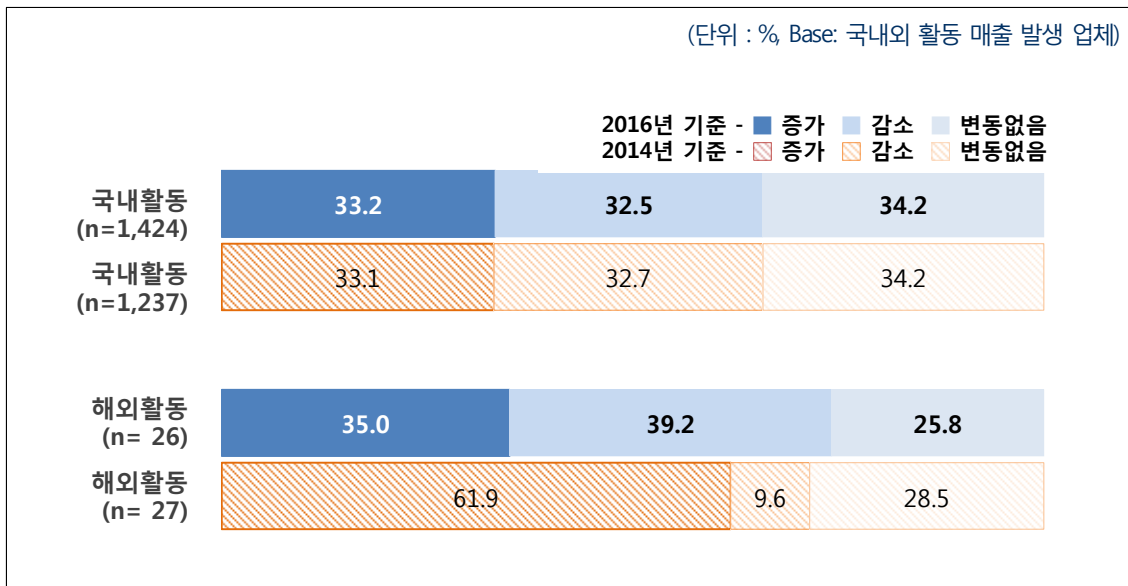
\*\* 기타사업 분야는 매니지먼트,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임.

\*\*\* 본 문항은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 (2) 국내외 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국내외 활동에 대한 매출액 증감 현황과 관련해 '국내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3.2%, '해외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한 결과, 해외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6.9%p 감소하였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29.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2-11&gt; 국내외 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 '국내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기타 제작 분야, 소속 직원 수 3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lt;표 3-2-15&gt; 응답업체 특성별 국내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1,523)</b>	<b>33.2</b>	<b>32.5</b>	<b>34.2</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79)	34.3	32.4	33.2	100.0
	음반/음원 제작	(288)	25.3	35.0	39.6	100.0
	공연물 제작	(311)	34.4	33.5	32.1	100.0
	기타 제작	(45)	53.8	12.4	33.9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26.1	35.7	38.2	100.0
	5~10인 미만	(280)	33.3	28.4	38.3	100.0
	10~30인 미만	(202)	50.6	32.5	16.9	100.0
	30인 이상	(112)	60.7	16.7	22.6	100.0

<표 3-2-16>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활동 매출액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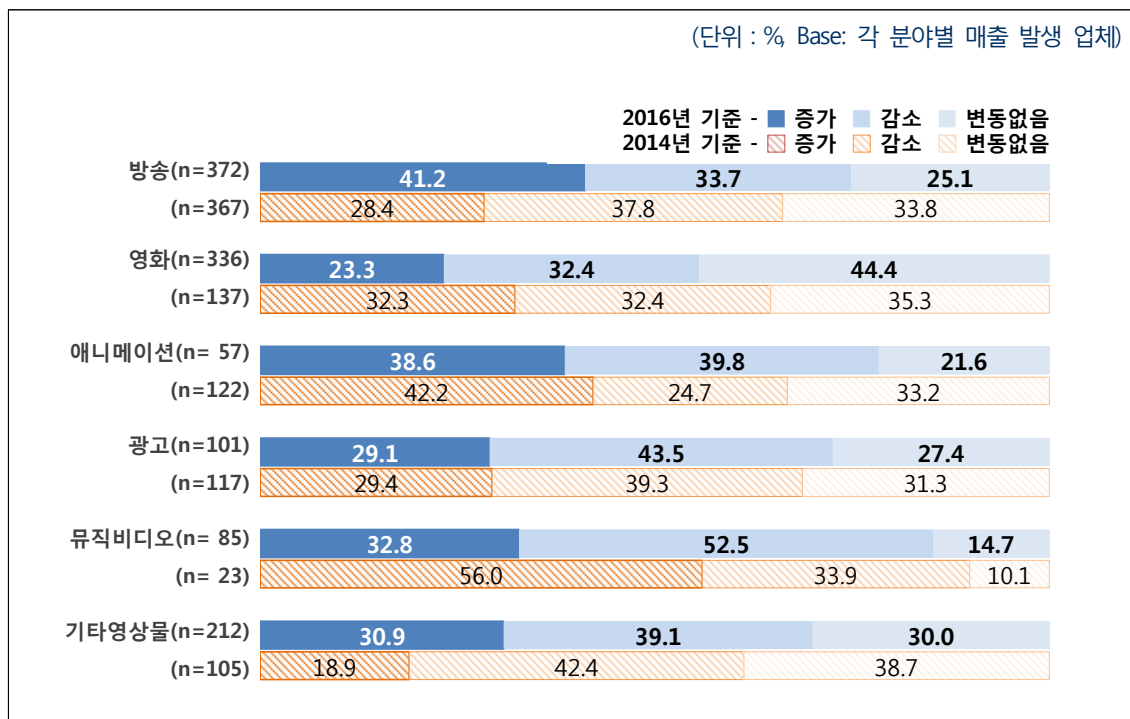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27)</b>	<b>35.0</b>	<b>39.2</b>	<b>25.8</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2)	30.1	38.1	31.8	100.0
	음반/음원 제작	(2)	0.0	100.0	0.0	100.0
	공연물 제작	(3)	100.0	0.0	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10)	25.8	35.0	39.2	100.0
	5~10인 미만	(3)	50.0	0.0	50.0	100.0
	10~30인 미만	(8)	18.8	62.4	18.8	100.0
	30인 이상	(6)	62.2	37.8	0.0	100.0

(3) 분야별<sup>14)</sup> 매출액 증감 현황: 영상물 제작 활동

- 영상물 제작 활동과 관련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방송'이 4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38.6%), '뮤직비디오'(3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방송'과 '기타영상물' 제작 분야에서 각각 ▲12.8%p, ▲12.0%p 증가하였고,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2-12&gt;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상물 제작 활동



&lt;표 3-2-17&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방송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372)</b>	<b>41.2</b>	<b>33.7</b>	<b>25.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372)	41.2	33.7	25.1	100.0
	5인 미만	(145)	22.7	39.6	37.7	100.0
소속 직원 수	5~10인 미만	(76)	42.2	33.3	24.4	100.0
	10~30인 미만	(72)	49.8	35.6	14.6	100.0
	30인 이상	(79)	66.0	21.7	12.3	100.0

\* 주요 사업 분야 중 '영상물 제작'은 해당 업체의 여러 사업(영상물 제작, 음반/음원 제작, 공연물 제작)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14) 분야별 매출액은 ① 영상물 제작 활동, ② 음반/음원 제작 활동, ③ 공연물 제작 활동, ④ 기타(영유아종합콘텐츠, 국가지원사업 등) 제작, ⑤ 기타 사업(매니지먼트(출연료),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18>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영화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336)</b>	<b>23.3</b>	<b>32.4</b>	<b>44.4</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336)	23.3	32.4	44.4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210)	23.8	31.3	44.9	100.0
	5~10인 미만	(79)	19.1	25.5	55.3	100.0
	10~30인 미만	(32)	24.2	61.4	14.4	100.0
	30인 이상	(14)	36.1	20.0	43.9	100.0

<표 3-2-19>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애니메이션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57)</b>	<b>38.6</b>	<b>39.8</b>	<b>21.6</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56)	40.0	41.2	18.8	100.0
	음반/음원 제작	(2)	0.0	0.0	10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10)	12.0	23.9	64.1	100.0
	5~10인 미만	(14)	24.5	61.3	14.2	100.0
	10~30인 미만	(22)	50.0	43.2	6.8	100.0
	30인 이상	(13)	54.6	22.7	22.7	100.0

<표 3-2-20>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광고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101)</b>	<b>29.1</b>	<b>43.5</b>	<b>27.4</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101)	29.1	43.5	27.4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60)	19.7	44.0	36.3	100.0
	5~10인 미만	(24)	35.7	50.0	14.3	100.0
	10~30인 미만	(13)	64.6	23.6	11.8	100.0
	30인 이상	(5)	22.3	55.4	22.3	100.0

&lt;표 3-2-21&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뮤직비디오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85)</b>	<b>32.8</b>	<b>52.5</b>	<b>14.7</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3)	33.7	53.9	12.4	100.0
	음반/음원 제작	(2)	0.0	0.0	10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57)	29.1	56.1	14.8	100.0
	5~10인 미만	(12)	42.9	57.1	0.0	100.0
	10~30인 미만	(14)	46.3	32.2	21.5	100.0
	30인 이상	(3)	0.0	59.7	40.3	100.0

&lt;표 3-2-22&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영상물 제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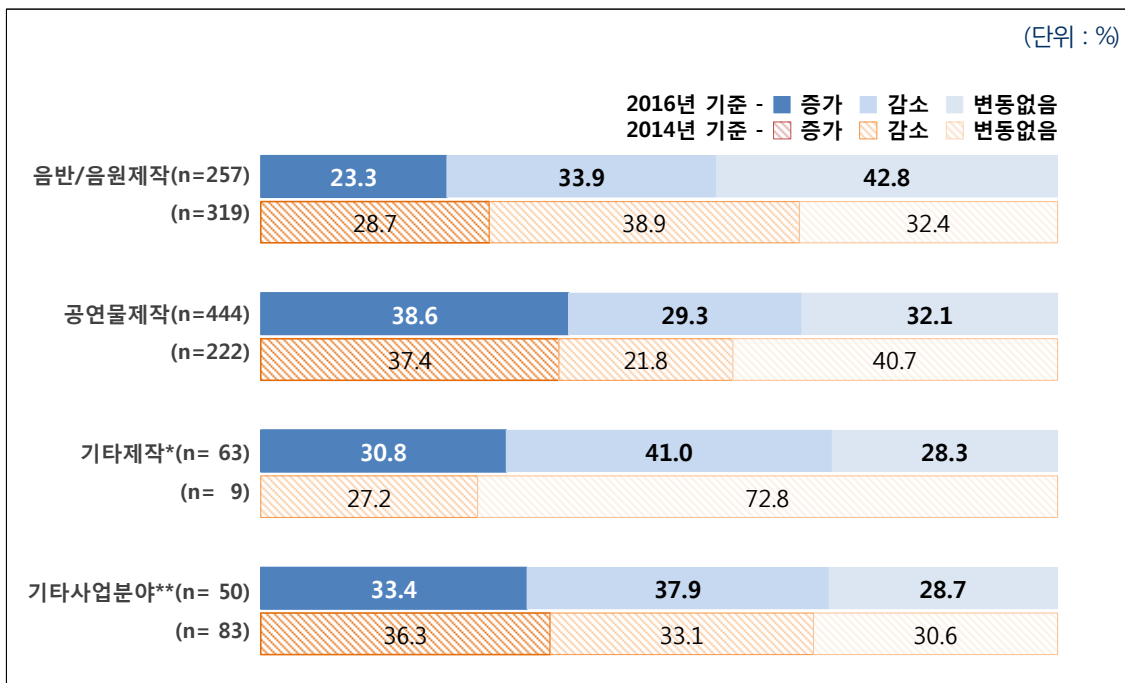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212)</b>	<b>30.9</b>	<b>39.1</b>	<b>30.0</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01)	31.5	41.3	27.2	100.0
	음반/음원 제작	(5)	50.0	0.0	50.0	100.0
	공연물 제작	(7)	0.0	0.0	10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125)	21.6	42.7	35.6	100.0
	5~10인 미만	(45)	40.6	40.6	18.7	100.0
	10~30인 미만	(29)	51.2	22.2	26.6	100.0
	30인 이상	(13)	40.8	36.4	22.8	100.0

(3)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활동

○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각 분야별 제작 활동과 관련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공연물 제작'에서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사업분야'(3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과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기타제작'(▲3.6%p)에서 약간 상승한 반면, '음반/음원제작'(▽5.4%)과 '기타사업'(▽2.9%p) 분야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3>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활동



\* 기타 제작은 영유아종합콘텐츠 제작, 국가지원사업 제작 등임.

\*\* 기타사업 분야는 매니지먼트,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임.

<표 3-2-23>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음반/음원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257)</b>	<b>23.3</b>	<b>33.9</b>	<b>42.8</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5)	20.9	48.3	30.8	100.0
	음반/음원 제작	(245)	24.0	34.5	41.5	100.0
	공연물 제작	(7)	0.0	0.0	100.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211)	20.8	38.2	41.0	100.0
	5~10인 미만	(31)	25.3	12.7	62.0	100.0
	10~30인 미만	(11)	72.4	13.2	14.5	100.0
	30인 이상	(4)	0.0	27.8	72.2	100.0

\* 주요 사업 분야 중 '음반/음원 제작'은 해당 업체의 여러 사업(영상물 제작, 음반/음원 제작, 공연물 제작)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lt;표 3-2-24&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공연물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444)</b>	<b>38.6</b>	<b>29.3</b>	<b>32.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36)	59.8	10.7	29.5	100.0
	음반/음원 제작	(50)	33.1	33.3	33.5	100.0
	공연물 제작*	(313)	34.8	33.3	31.9	100.0
	기타 제작	(45)	53.8	12.4	33.9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303)	33.0	33.4	33.6	100.0
	5~10인 미만	(75)	35.6	26.7	37.7	100.0
	10~30인 미만	(55)	66.0	13.8	20.3	100.0
	30인 이상	(11)	75.6	13.8	10.6	100.0

\* 주요 사업 분야 중 '공연물 제작'은 해당 업체의 여러 사업(영상물 제작, 음반/음원 제작, 공연물 제작)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lt;표 3-2-25&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제작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63)</b>	<b>30.8</b>	<b>41.0</b>	<b>28.3</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1)	22.0	52.3	25.7	100.0
	음반/음원 제작	(21)	0.0	52.4	47.6	100.0
	공연물 제작*	(14)	81.0	9.5	9.5	100.0
	기타 제작	(7)	45.7	38.1	16.1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43)	22.7	47.4	29.9	100.0
	5~10인 미만	(5)	31.7	68.3	0.0	100.0
	10~30인 미만	(10)	38.4	14.7	46.9	100.0
	30인 이상	(4)	100.0	0.0	0.0	100.0

&lt;표 3-2-26&gt; 응답업체 특성별 매출액 증감 현황: 기타 사업분야

(단위 : %)

		사례수	증가	감소	변동 없음	계
<b>전체</b>		<b>(50)</b>	<b>33.4</b>	<b>37.9</b>	<b>28.7</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2)	39.1	39.9	21.0	100.0
	음반/음원 제작	(14)	16.7	50.0	33.3	100.0
	공연물 제작	(5)	73.1	26.9	0.0	100.0
	기타 제작	(9)	22.6	21.4	56.0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29)	19.3	46.0	34.7	100.0
	10~30인 미만	(12)	61.6	29.8	8.6	100.0
	30인 이상	(10)	41.0	23.6	35.4	100.0

(4) 분야별 제작 건수

- 분야별 제작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 총 완료건수가 25,714건으로 나타남.  
(평균 16.7건)
-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물 제작'이 14,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반/음원 제작'(6,239건), '기타 제작'(2,910건), '공연물 제작'(2,2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27> 분야별 제작 건수

(단위 : 건)

분야	분야별 평균 제작 건수 (Mean)	분야별 제작 완료 건수 (Sum)
<b>1) 영상물 제작</b>	9.3	14,351
1-1) 방송	4.0	6,135
1-2) 영화	1.7	2,679
1-3) 애니메이션	0.3	418
1-4) 광고	0.9	1,425
1-5) 뮤직비디오	0.4	581
1-6) 영상물 기타	2.0	3,113
<b>2) 음반 제작(음원 제외, 유통 제외)</b>	4.0	6,239
2-1) 정규 음반	0.6	851
2-2) 비정규 음반(싱글 음반)	3.5	5,388
<b>3) 공연물 제작</b>	1.4	2,215
<b>4) 기타 제작</b>	1.9	2,910
<b>계</b>	16.7	2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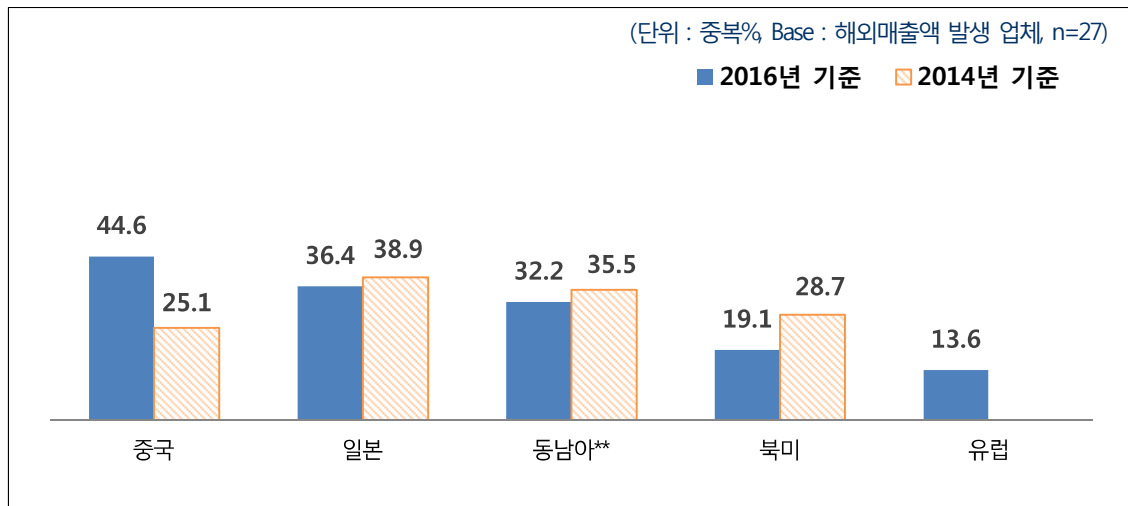
## 2) 해외 진출 현황

## (1) 해외 진출 국가

○ 해외 매출액 발생 업체(n=27)의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는 '중국'이 4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본'(36.4%), '동남아'(3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중국' 진출은 ▲19.5%p 증가한 반면, '북미'(▽9.6%p), '동남아'(▽3.3%p), '일본'(▽2.5%p) 진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2-14&gt;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 동남아에는 대만, 필리핀 등이 포함되어 있음.

&lt;표 3-2-28&gt; 응답업체 특성별 주요 해외 진출 국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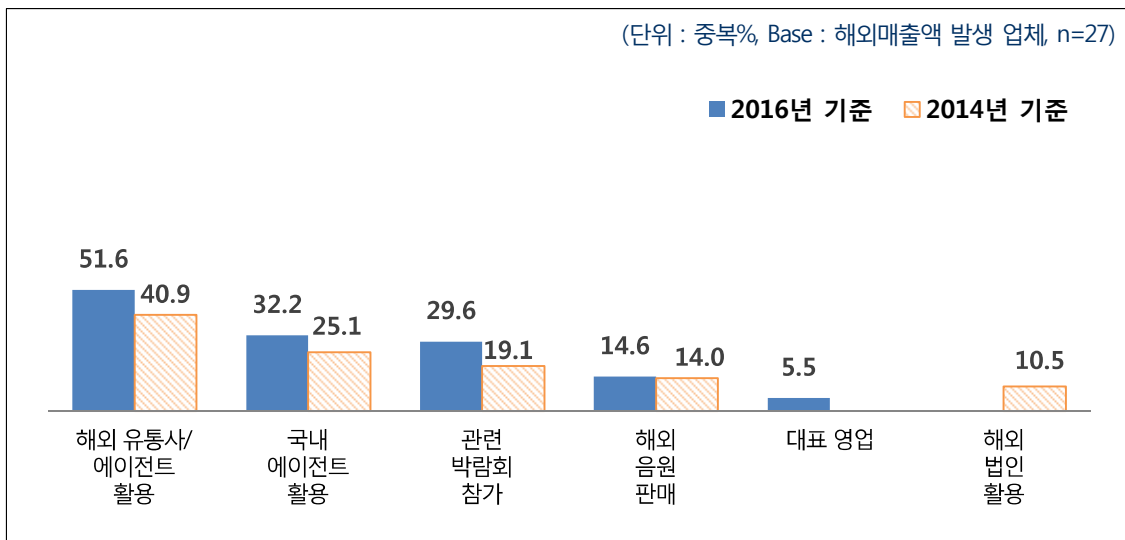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b>전체</b>		<b>(27)</b>	<b>44.6</b>	<b>36.4</b>	<b>32.2</b>	<b>19.1</b>	<b>13.6</b>	<b>4.3</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2)	48.3	31.9	22.5	23.6	10.5	5.3
	음반/음원 제작	(2)	0.0	0.0	100.0	0.0	0.0	0.0
	공연물 제작*	(3)	52.1	100.0	52.1	0.0	47.9	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10)	35.0	41.6	23.4	0.0	14.1	0.0
	5~10인 미만	(3)	50.0	50.0	0.0	0.0	0.0	0.0
	10~30인 미만	(8)	40.6	18.8	18.8	21.8	0.0	0.0
	30인 이상	(6)	62.2	43.4	81.1	56.6	37.8	18.9

(2) 최초 해외 진출 경로

-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에 대해서는 '해외 유통사/에이전트 활용'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에이전트 활용'(32.2%), '관련 박람회 참가'(2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해외 유통사/에이전트 활용'(▲10.7%p) 및 '관련 박람회 참가'(▲10.5%p)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3-2-15>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표 3-2-29> 응답업체 특성별 최초 해외진출 경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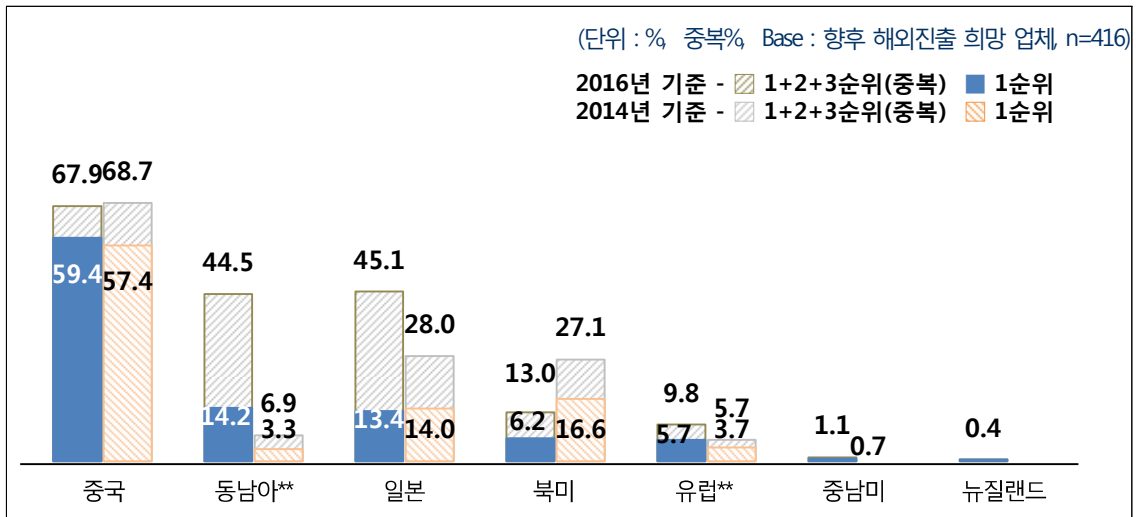
(단위 :중복%)

		사례수	해외 유통사/에이전트 활용	국내 에이전트 활용	관련 박람회 참가	해외 음원 판매	대표 영업
<b>전체</b>		<b>(27)</b>	<b>51.6</b>	<b>32.2</b>	<b>29.6</b>	<b>14.6</b>	<b>5.5</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2)	46.5	33.0	23.5	7.7	6.7
	음반/음원 제작	(2)	100.0	0.0	0.0	100.0	0.0
	공연물 제작*	(3)	52.1	52.1	100.0	0.0	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10)	35.0	27.5	37.5	23.4	0.0
	5~10인 미만	(3)	0.0	50.0	0.0	50.0	0.0
	10~30인 미만	(8)	56.4	21.8	21.8	0.0	18.8
	30인 이상	(6)	100.0	43.4	43.4	0.0	0.0

(3) 향후 계획이 있는 해외 국가

-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해외 국가(1순위 응답기준)로는 '중국'이 5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아'(14.2%), '일본'(13.4%) 순으로 나타남.
- 1+2+3순위 응답기준(중복응답)으로는 '중국'(67.9%), '일본'(45.1%), '동남아'(44.5%)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동남아'를 꼽은 비율이 ▲1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6>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해외 국가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7개 국가만 제시함(단, 없음은 72.5%임)

\*\* 동남아에는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에는 프랑스, 영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2-30>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순위)

(단위: %)

		사례수	중국	동남아	일본	북미	유럽	중남미	뉴질랜드
<b>전체</b>		<b>(416)</b>	<b>59.4</b>	<b>14.2</b>	<b>13.4</b>	<b>6.2</b>	<b>5.7</b>	<b>0.7</b>	<b>0.4</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46)	62.3	13.1	11.1	7.2	5.2	1.1	0.0
	음반/음원 제작	(92)	58.3	21.1	16.9	3.7	0.0	0.0	0.0
	공연물 제작	(66)	49.9	9.7	13.9	6.9	16.8	0.0	2.7
	기타 제작	(13)	62.0	8.3	29.7	0.0	0.0	0.0	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277)	60.3	16.9	13.2	5.8	3.4	0.4	0.0
	5~10인 미만	(78)	59.4	9.2	13.5	6.7	6.8	2.2	2.3
	10~30인 미만	(38)	60.5	13.6	4.9	11.6	9.4	0.0	0.0
	30인 이상	(23)	46.8	0.0	29.5	0.0	23.7	0.0	0.0

<표 3-2-31> 응답업체 특성별 향후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1+2+3순위, 중복응답)  
(단위 : %)

		사례수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중남미	뉴질랜드
<b>전체</b>		<b>(416)</b>	<b>67.9</b>	<b>45.1</b>	<b>44.5</b>	<b>13.0</b>	<b>9.8</b>	<b>1.1</b>	<b>0.4</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246)	70.8	48.6	43.8	16.3	9.1	1.8	0.0
	음반/음원제작	(92)	63.2	44.9	57.4	7.4	1.2	0.0	0.0
	공연물 제작	(66)	63.1	32.5	28.2	11.2	21.6	0.0	2.7
	기타 제작	(13)	70.3	45.9	49.3	0.0	21.4	0.0	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277)	67.4	46.2	49.2	14.0	7.1	0.4	0.0
	5~10인 미만	(78)	75.0	46.3	39.6	6.7	11.3	4.3	2.3
	10~30인 미만	(38)	69.9	27.9	38.4	15.5	17.7	0.0	0.0
	30인 이상	(23)	46.8	56.5	14.9	18.7	23.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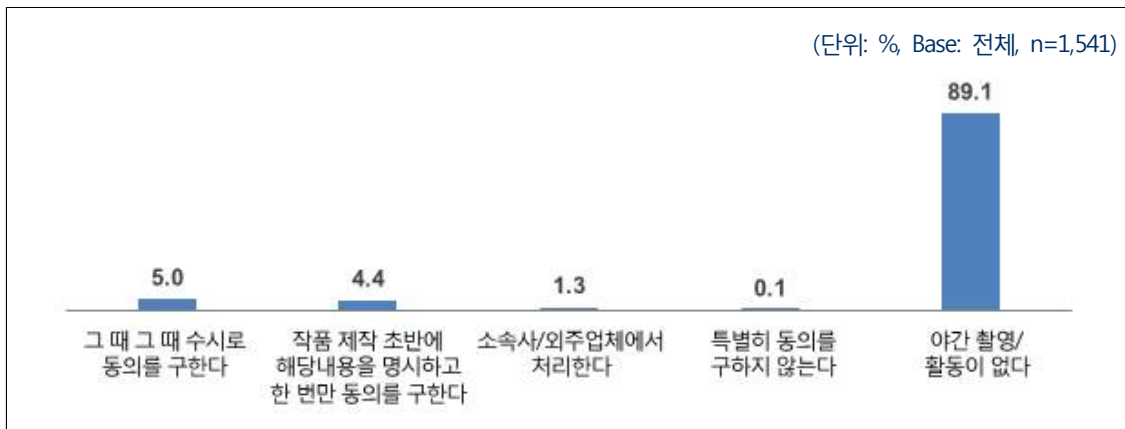
### 3. 청소년 연예인 및 가입단체 현황

#### 1) 청소년 연예인 관련

##### (1)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 제작업체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시 사전 동의 요청 방법으로는 '그 때 그 때 수시로 동의를 구함'(5.0%), '작품 제작 초반에 한번만 동의를 구함'(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야간 촬영/활동이 없다'는 비율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3-2-17>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표 3-2-32>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활동 사전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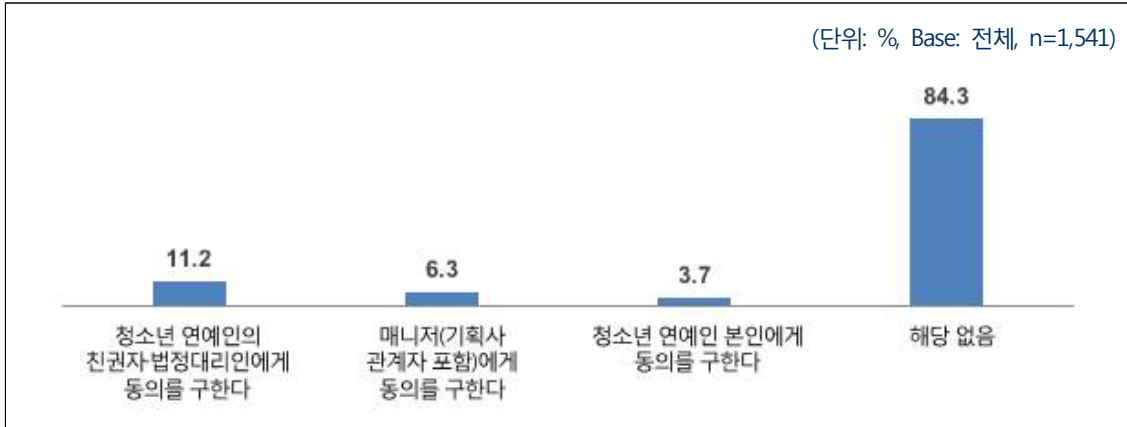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그 때 그 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내용을 명시 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소속사/외주업체에서 처리한다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청소년 야간 촬영/활동 이 없다	계
<b>전체</b>		<b>(1541)</b>	<b>5.0</b>	<b>4.4</b>	<b>1.3</b>	<b>0.1</b>	<b>89.1</b>	<b>100.0</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7.2	5.9	2.1	0.0	84.8	100.0
	음반/음원제작	(288)	3.1	1.6	0.0	0.8	94.5	100.0
	공연물 제작	(313)	1.0	3.1	0.6	0.0	95.3	100.0
	기타 제작	(46)	0.0	2.3	0.0	0.0	97.7	100.0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3.7	4.6	0.0	0.2	91.4	100.0
	5~10인 미만	(280)	7.2	4.8	1.2	0.0	86.8	100.0
	10~30인 미만	(205)	5.8	4.7	4.6	0.0	84.9	100.0
	30인 이상	(127)	7.8	1.8	5.9	0.0	84.5	100.0

(2)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

○ 제작업체에서 청소년 야간 촬영 시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청소년 연예인의 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응답이 1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니저(기획사 관계자 포함)에게 동의를 구한다'(6.3%), '청소년 연예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다'(3.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8>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표 3-2-33> 응답업체 특성별 청소년 연예인 야간 촬영 동의 구하는 방식(중복응답)

(단위: %)

		사례수	청소년 연예인의 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매니저(기획사 관계자 포함)에게 동의를 구한다	청소년 연예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해당 없음
<b>전체</b>		<b>(1541)</b>	<b>11.2</b>	<b>6.3</b>	<b>3.7</b>	<b>84.3</b>
주요 사업 분야	영상물 제작	(894)	14.7	7.8	5.2	81.0
	음반/음원제작	(288)	5.5	5.0	0.0	89.5
	공연물 제작	(313)	7.0	4.1	3.5	87.9
	기타 제작	(46)	5.4	2.3	0.0	92.3
소속 직원 수	5인 미만	(929)	10.3	4.5	2.3	85.6
	5~10인 미만	(280)	13.9	7.4	5.4	81.1
	10~30인 미만	(205)	11.5	8.4	5.1	83.2
	30인 이상	(127)	10.8	14.4	8.0	83.8



## 2) 가입된 협/단체

- 제작업체의 17.9%는 협/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이 가입되어있는 협회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26.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10.1%), '독립제작사협회'(8.4%), '저작권협회'(5.7%) 등의 순을 보임.

&lt;표 3-2-34&gt; 가입된 협/단체(중복응답)

(단위 : %)

no	가입된 협/단체	비율
1	한국연예제작자협회	26.4
2	한국음반산업협회	10.1
3	독립제작사협회	8.4
4	저작권협회	5.7
5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4.7
6	한국뮤지컬협회	4.2
7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	4.0
8	한국방송협회	3.4
9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1
1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3
11	한국저작권위원회	2.2
12	제작자협회	2.2
13	한국이벤트협회	1.8
14	인천문화재단	1.8
15	부산생활예술협회	1.8
16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1.7
17	한국음원저작권협회	1.6
18	한국작사작곡가협회	1.5
19	한국음악실연자협회	1.2
20	레코딩엔지니어협회	1.2
2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1.1
22	연극협회	1.1
23	제주미디어협동조합	1.0

\*상위 1.0% 이상의 경우만 제시함.

### 제3절 대중문화예술인<sup>15)</sup>

- 대중문화예술인의 응답자(표본) 특성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60.4%, '여성'이 39.6%로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20대'가 49.9%로 가장 많았음.
- '성', '연령', '주요 활동 분야' 등은 전체 항목에 대한 분석 단위로 활용됨.

<표 3-3-1> 대중문화예술인 응답자(표본) 특성표

(단위 : 명, %)

구분		표본 구성비		
		사례수(명)	비중	
<b>전체</b>		<b>(743)</b>	<b>100.0</b>	
성별	남자	(449)	60.4	
	여자	(294)	39.6	
연령별	20대 미만	(40)	5.4	
	20대	(371)	49.9	
	30대	(257)	34.6	
	40대	(55)	7.4	
	50대	(17)	2.7	
주요 활동 분야* (대/소분류)	연기	연기자	(124)	16.7
		코미디언	(71)	9.6
	무용(춤)	댄서	(53)	7.1
	연주	연주자	(106)	14.3
	가창	가수	(124)	16.7
	낭독	DJ	(10)	1.3
		성우	(40)	5.4
	기타 분야	모델	(81)	10.9
		뮤지컬 배우	(82)	11.0
		공연 예술가	(49)	6.6
기타**		(3)	0.4	
경력별	3년 미만	(224)	30.1	
	3~5년 미만	(141)	19.0	
	5~10년 미만	(175)	23.6	
	10년 이상	(203)	27.3	

\* 주요 활동 분야(대분류)는 주요 활동 분야(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함. 또한, 종사자 분야(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 각 분야별로 표본 수를 임의 할당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이를 반영한 표본 조사 결과임.

\*\* 기타(기타 분야)에는 기타 방송인 등이 있음.

15)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대한 결과는 분야별 임의 할당을 통한 표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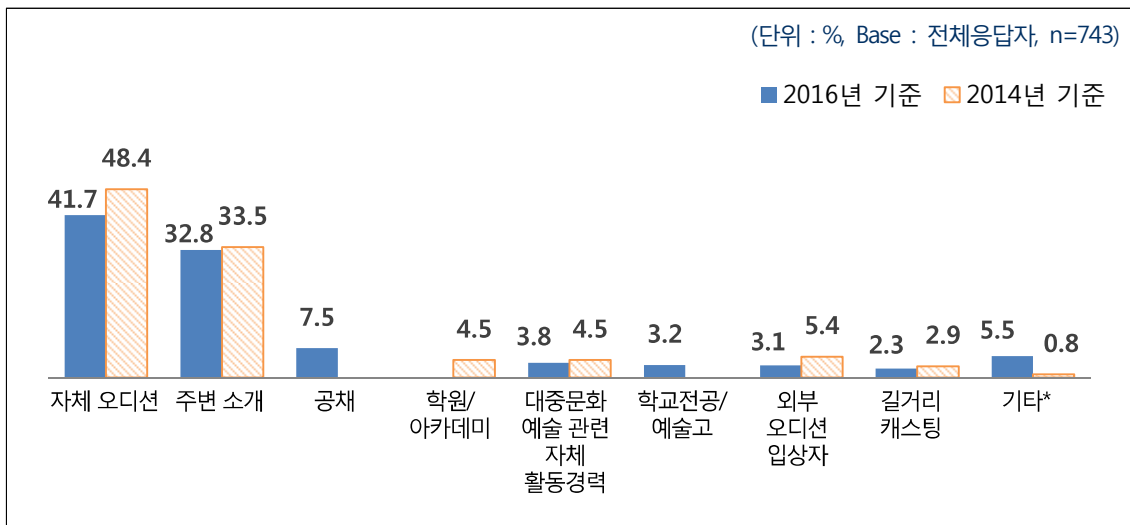
## 1. 대중문화예술 활동 사항

### 1)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

#### (1)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

-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는 '자체 오디션'이 4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주변소개'(32.8%), '공채'(7.5%), '대중문화예술 관련 자체 활동경력'(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자체 오디션'(▽6.7%p), '외부 오디션 입상자'(▽2.3%p) 등은 감소하였으며, '공채'(7.5%)가 신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



\* 기타에는 구직활동을 통해 등이 있음.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 연기, 가창 분야에서는 '자체 오디션'이 가장 높고, 무용과 연주 분야에서는 '주변소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2> 응답자 특성별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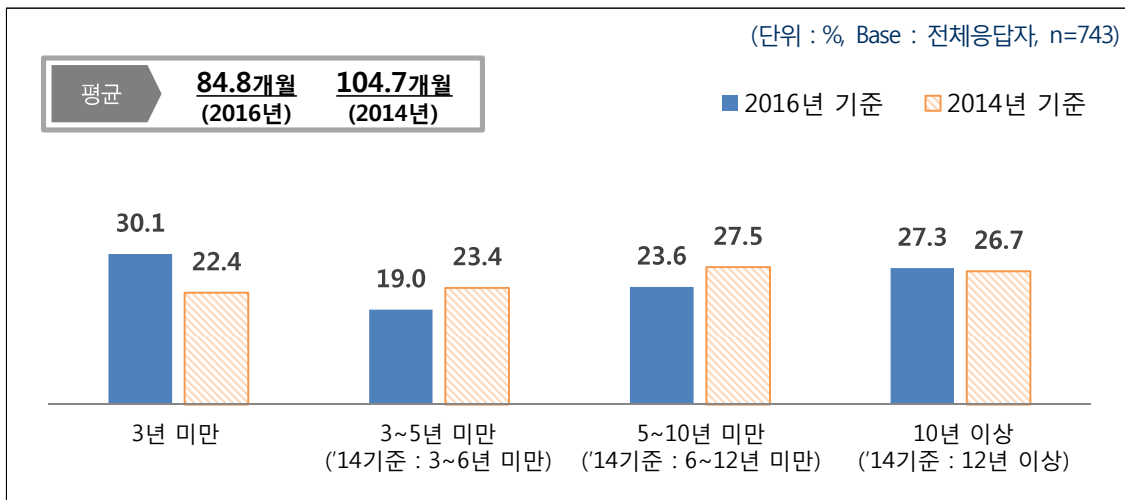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자체 오디션	주변 소개	공채	자체 활동 경력	학교 전공/ 예술고	외부 오디션 입상자	길거리 캐스팅	기타	계
<b>전체</b>		<b>(743)</b>	<b>41.7</b>	<b>32.8</b>	<b>7.5</b>	<b>3.8</b>	<b>3.2</b>	<b>3.1</b>	<b>2.3</b>	<b>5.5</b>	<b>100.0</b>
성별	남자	(449)	40.1	33.6	8.7	4.7	2.9	2.9	1.6	5.6	100.0
	여자	(294)	44.2	31.6	5.8	2.4	3.7	3.4	3.4	5.4	100.0
연령	20대 미만	(40)	22.5	52.5	0.0	0.0	7.5	2.5	5.0	10.0	100.0
	20대	(371)	49.3	30.7	1.6	2.7	2.4	3.2	2.7	7.3	100.0
	30대	(257)	38.1	32.7	14.8	3.1	3.5	3.1	1.9	2.7	100.0
	40대	(55)	25.5	36.4	14.5	10.9	5.5	3.6	0.0	3.6	100.0
	50대 이상	(20)	30.0	25.0	20.0	20.0	0.0	0.0	0.0	5.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56.9	19.5	12.3	1.5	1.5	3.6	2.6	2.1	100.0
	무용	(53)	24.5	47.2	0.0	1.9	0.0	1.9	0.0	24.5	100.0
	연주	(106)	16.0	61.3	0.0	7.5	7.5	0.9	0.9	5.7	100.0
	가창	(124)	33.9	32.3	0.0	12.1	4.8	4.8	3.2	8.9	100.0
	낭독	(50)	14.0	20.0	62.0	2.0	0.0	2.0	0.0	0.0	100.0
	기타	(215)	55.8	30.7	0.5	0.0	3.3	3.3	3.3	3.3	100.0
경력	3년 미만	(224)	46.4	32.1	3.1	3.1	4.0	3.6	2.2	5.4	100.0
	3~5년 미만	(141)	46.1	33.3	7.1	2.1	0.7	2.1	2.8	5.7	100.0
	5~10년 미만	(175)	39.4	32.6	7.4	4.6	3.4	3.4	1.7	7.4	100.0
	10년 이상	(203)	35.5	33.5	12.8	4.9	3.9	3.0	2.5	3.9	100.0

(2) 해당 활동 분야 총 경력

- 전체 응답자의 총 활동 경력 평균은 약 84.8개월(대략 7년 1개월)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27.3%), '5~10년 미만'(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해보면, 해당 활동분야 총 경력 평균이 20개월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3-2>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 2016년 총 활동 경력의 경우, 경력년수별로 유사한 사례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간을 재설정함.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는 연주와 낭독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평균 활동경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응답자 특성별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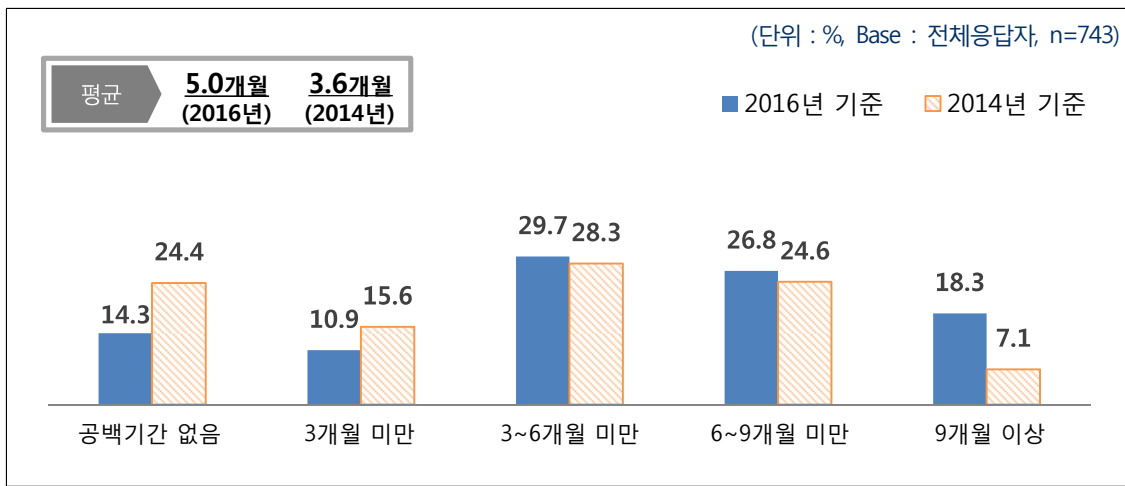
(단위 : %, 개월)

		사례수 (명)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개월]
<b>전체</b>		<b>(743)</b>	<b>30.1</b>	<b>19.0</b>	<b>23.6</b>	<b>27.3</b>	<b>100.0</b>	<b>84.8</b>
성별	남자	(449)	29.4	14.9	23.8	31.8	100.0	93.8
	여자	(294)	31.3	25.2	23.1	20.4	100.0	71.2
연령	20대 미만	(40)	87.5	10.0	2.5	0.0	100.0	18.8
	20대	(371)	46.4	25.3	21.8	6.5	100.0	45.9
	30대	(257)	6.2	15.6	35.4	42.8	100.0	107.8
	40대	(55)	1.8	3.6	3.6	90.9	100.0	200.7
	50대 이상	(20)	0.0	5.0	0.0	95.0	100.0	325.2
활동분야	연기	(195)	30.3	19.5	23.1	27.2	100.0	77.7
	무용	(53)	15.1	28.3	34.0	22.6	100.0	86.7
	연주	(106)	11.3	8.5	25.5	54.7	100.0	149.2
	가창	(124)	27.4	21.8	26.6	24.2	100.0	78.6
	낭독	(50)	12.0	28.0	20.0	40.0	100.0	119.0
	기타(그 밖의 예능)	(215)	48.8	17.7	19.5	14.0	100.0	54.7

(3) 연평균 공백기간

- 전체 응답자의 연평균 공백기간은 5.0개월로 나타남.
- 연평균 공백기간은 '3~6개월 미만'인 경우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6~9개월 미만'(26.8%), '9개월 이상'(18.3%), '3개월 미만'(10.9%) 등의 순을 보임.
- '연평균 공백 기간이 없음'은 14.3%로 나타남.
- ※ 2014년 조사결과 대비 '연평균 공백기간'은 1.4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백기간 없음'이 ▽10.1%p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공백기간 9개월 이상'은 ▲1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 연평균 공백기간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는 가창과 무용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연평균 공백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3-4> 응답자 특성별 연평균 공백기간

(단위 :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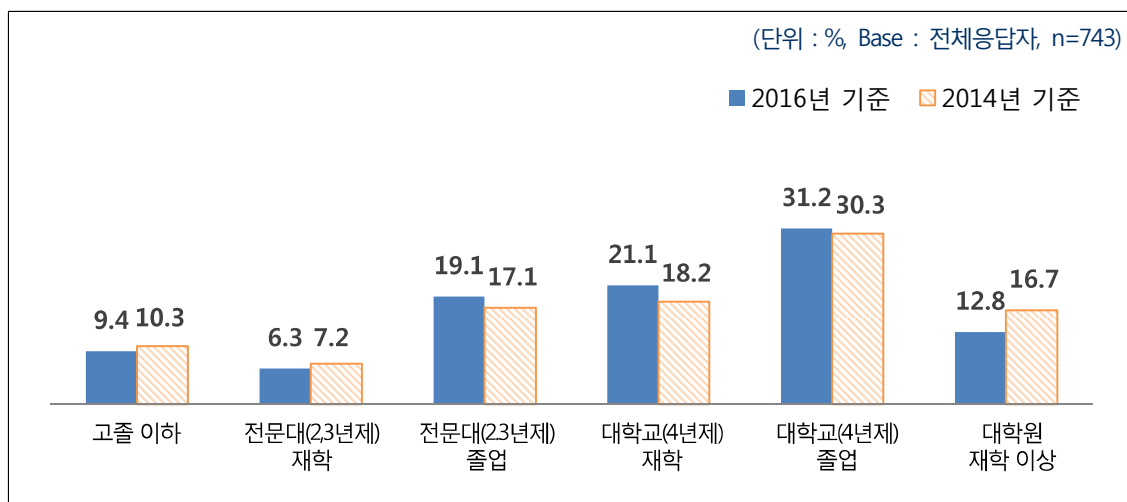
		사례수 (명)	공백기간 없음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계	[평균: 개월]
<b>전체</b>		<b>(743)</b>	<b>14.3</b>	<b>10.9</b>	<b>29.7</b>	<b>26.8</b>	<b>18.3</b>	<b>100.0</b>	<b>5.0</b>
성별	남자	(449)	14.7	8.9	33.0	26.7	16.7	100.0	5.0
	여자	(294)	13.6	13.9	24.8	26.9	20.7	100.0	5.1
연령	20대 미만	(40)	30.0	12.5	7.5	20.0	30.0	100.0	5.1
	20대	(371)	11.6	10.5	27.5	28.6	21.8	100.0	5.4
	30대	(257)	14.0	12.5	36.6	26.1	10.9	100.0	4.5
	40대	(55)	20.0	5.5	30.9	23.6	20.0	100.0	4.8
	50대 이상	(20)	20.0	10.0	25.0	25.0	20.0	100.0	5.0
활동분야	연기	(195)	11.8	8.7	28.2	33.3	17.9	100.0	5.3
	무용	(53)	5.7	13.2	26.4	28.3	26.4	100.0	6.0
	연주	(106)	6.6	12.3	39.6	22.6	18.9	100.0	5.2
	가창	(124)	8.1	3.2	28.2	33.1	27.4	100.0	6.3
	낭독	(50)	44.0	12.0	32.0	10.0	2.0	100.0	2.3
	기타(그 밖의 예능)	(215)	19.1	15.8	27.4	22.8	14.9	100.0	4.4
경력	3년 미만	(224)	21.0	11.2	23.7	23.7	20.5	100.0	4.9
	3~5년 미만	(141)	11.3	11.3	28.4	27.0	22.0	100.0	5.4
	5~10년 미만	(175)	10.3	12.0	33.1	26.9	17.7	100.0	5.1
	10년 이상	(203)	12.3	9.4	34.5	30.0	13.8	100.0	4.9

2) 대중문화예술 교육

(1) 최종학력

-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대학교(4년제) 졸업'이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4년제) 재학'(21.1%), '전문대(2,3년제) 졸업'(19.1%) '대학원 재학 이상'(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대학원 재학 이상'이 ▽3.9%p 감소한 반면, '4년제 대학교 재학'은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 최종학력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 연주 및 가창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대학원 재학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5> 응답자 특성별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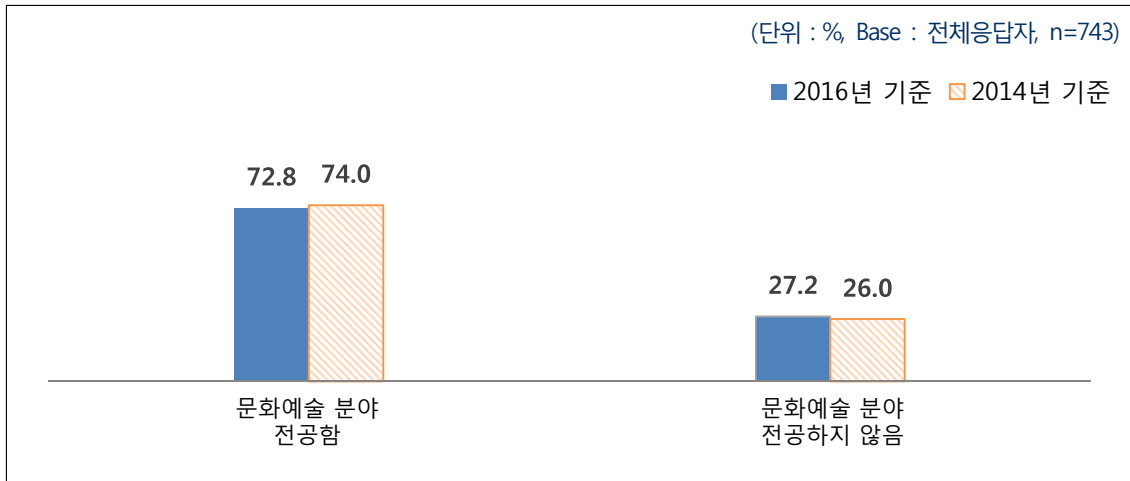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고졸 이하	전문대 (2,3년제) 재학	전문대 (2,3년제) 졸업	대학교 (4년제) 재학	대학교 (4년제)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계
<b>전체</b>		<b>(743)</b>	<b>9.4</b>	<b>6.3</b>	<b>19.1</b>	<b>21.1</b>	<b>31.2</b>	<b>12.8</b>	<b>100.0</b>
성별	남자	(449)	13.4	5.8	19.2	21.6	27.8	12.2	100.0
	여자	(294)	3.4	7.1	19.0	20.4	36.4	13.6	100.0
연령	20대 미만	(40)	15.0	5.0	0.0	80.0	0.0	0.0	100.0
	20대	(371)	7.8	9.4	22.9	25.6	26.7	7.5	100.0
	30대	(257)	10.5	3.5	18.7	10.1	40.5	16.7	100.0
	40대	(55)	7.3	1.8	14.5	3.6	38.2	34.5	100.0
	50대 이상	(20)	20.0	0.0	5.0	10.0	40.0	25.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13.8	6.2	27.7	11.8	35.4	5.1	100.0
	무용	(53)	13.2	11.3	20.8	26.4	17.0	11.3	100.0
	연주	(106)	9.4	6.6	16.0	11.3	27.4	29.2	100.0
	가창	(124)	8.1	9.7	20.2	16.9	21.8	23.4	100.0
	낭독 기타	(50) (215)	6.0 6.0	0.0 4.7	8.0 14.4	8.0 38.6	66.0 30.2	12.0 6.0	100.0 100.0
경력	3년 미만	(224)	8.9	9.4	18.3	34.8	25.0	3.6	100.0
	3~5년 미만	(141)	9.9	6.4	25.5	22.0	26.2	9.9	100.0
	5~10년 미만	(175)	6.9	6.3	23.4	17.1	36.6	9.7	100.0
	10년 이상	(203)	11.8	3.0	11.8	8.9	36.9	27.6	100.0

(2) 문화예술분야 전공여부

-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2.8%)이 학교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결과 대비 대중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분야 전공'은  $\nabla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 문화예술분야 전공여부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는 연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분야 전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6> 응답자 특성별 문화예술분야 전공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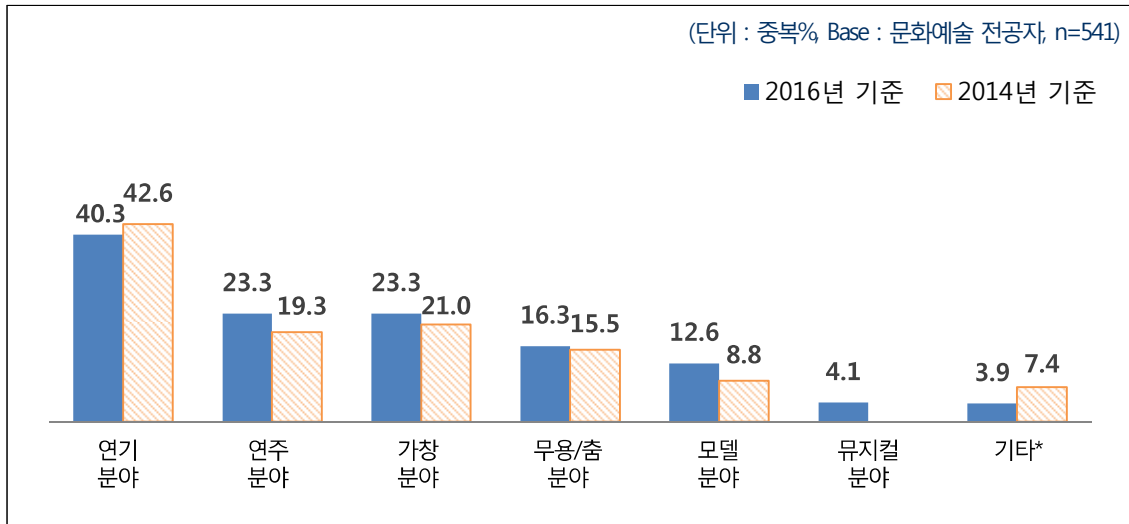
		사례수 (명)	문화예술분야 전공함	문화예술분야 전공하지 않음	계
<b>전체</b>		<b>(743)</b>	<b>72.8</b>	<b>27.2</b>	<b>100.0</b>
성별	남자	(449)	67.7	32.3	100.0
	여자	(294)	80.6	19.4	100.0
연령	20대 미만	(40)	75.0	25.0	100.0
	20대	(371)	78.2	21.8	100.0
	30대	(257)	69.6	30.4	100.0
	40대	(55)	58.2	41.8	100.0
	50대 이상	(20)	50.0	50.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62.6	37.4	100.0
	무용	(53)	75.5	24.5	100.0
	연주	(106)	86.8	13.2	100.0
	가창	(124)	76.6	23.4	100.0
	낭독	(50)	44.0	56.0	100.0
	기타	(215)	79.1	20.9	100.0
경력	3년 미만	(224)	71.0	29.0	100.0
	3~5년 미만	(141)	71.6	28.4	100.0
	5~10년 미만	(175)	78.9	21.1	100.0
	10년 이상	(203)	70.4	29.6	100.0



(3) 문화예술 관련 전공 분야

-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를 살펴보면, '연기분야'가 4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연주 분야'(23.3%), '가창 분야'(23.3%), '무용/춤 분야'(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연기' 전공은 ▽2.3%p 감소한 반면, '연주'(▲4.0%p) 및 '모델'(▲3.8%p) 전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6> 문화예술 관련 전공 분야(중복 응답)



\* 기타에는 개그/코미디, 공연기획/제작, 공연예술, 연출 분야 등이 있음.

<표 3-3-7> 응답자 특성별 문화예술 관련 전공 분야(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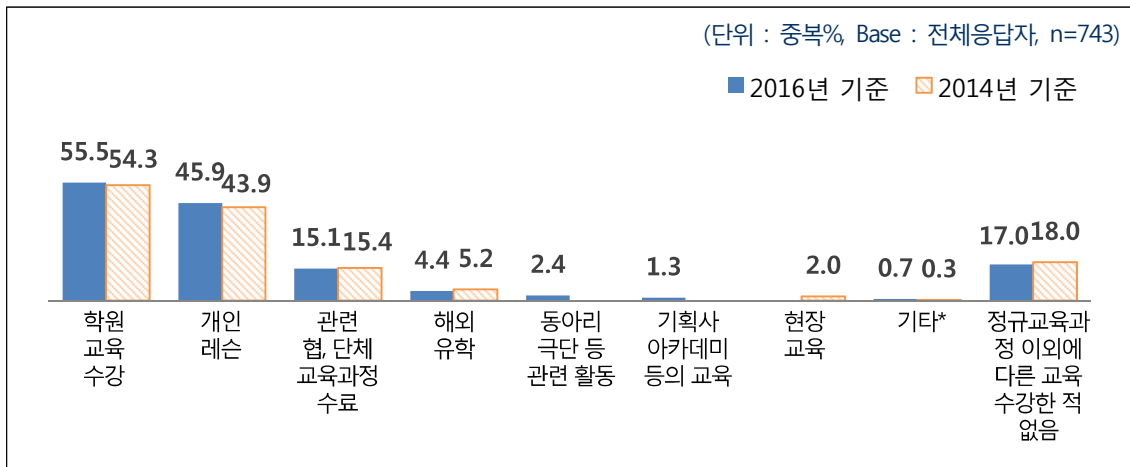
(단위: 중복%)

		사례수 (명)	연기 분야	연주 분야	가창 분야	무용/춤 분야	모델 분야	뮤지컬 분야	기타
<b>전체</b>		<b>(541)</b>	<b>40.3</b>	<b>23.3</b>	<b>23.3</b>	<b>16.3</b>	<b>12.6</b>	<b>4.1</b>	<b>3.9</b>
성별	남자	(304)	42.8	32.2	20.4	9.9	11.8	1.6	3.9
	여자	(237)	37.1	11.8	27.0	24.5	13.5	7.2	3.8
연령	20대 미만	(30)	13.3	0.0	0.0	13.3	86.7	0.0	0.0
	20대	(290)	37.9	16.9	29.7	20.7	13.4	7.6	2.8
	30대	(179)	51.4	30.2	19.0	13.4	1.1	0.0	5.0
	40대	(32)	31.3	46.9	18.8	0.0	3.1	0.0	12.5
	50대 이상	(10)	20.0	80.0	0.0	0.0	0.0	0.0	0.0
활동분야	연기	(122)	88.5	0.8	8.2	10.7	4.1	1.6	5.7
	무용	(40)	0.0	0.0	0.0	100.0	0.0	0.0	0.0
	연주	(92)	2.2	94.6	7.6	0.0	0.0	0.0	3.3
	가창	(95)	4.2	18.9	89.5	2.1	0.0	0.0	3.2
	낭독	(22)	90.9	9.1	0.0	0.0	0.0	0.0	4.5
	기타	(170)	49.4	10.6	14.1	19.4	37.1	11.8	4.1
경력	3년 미만	(159)	43.4	10.7	24.5	15.7	27.7	8.2	2.5
	3~5년 미만	(101)	39.6	17.8	27.7	24.8	11.9	5.0	5.9
	5~10년 미만	(138)	36.2	25.4	26.8	18.8	5.8	2.9	3.6
	10년 이상	(143)	41.3	39.2	15.4	8.4	2.8	0.0	4.2

(4)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여부

-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대중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학원 교육 수강'이 55.5% (중복응답)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 레슨'(45.9%),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수수료'(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 과정이외에 다른 교육 수강한 적 없음' 응답은 17.0%임.
- ※ 201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3-7> 정규교육과정 외 대중문화예술 교육 여부(중복응답)



\* 기타에는 선배지도, 관련 분야 지인의 조언 등이 있음.

- (기타를 제외한) '학원 교육 수강'은 낭독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레슨'은 가창과 연주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8> 응답자 특성별 정규교육과정 외 대중문화예술 교육 여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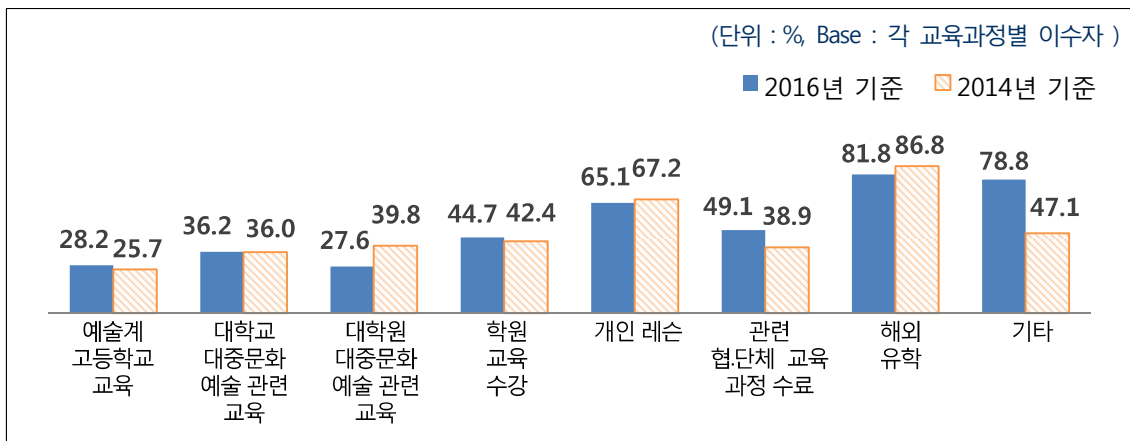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학원 교육 수강	개인 레슨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수수료	해외 유학	동아리 극단 등 관련 활동	기획사 아카데미 등의 교육	기타*	정규교육과정 외 타교육 수강한 적 없음
<b>전체</b>		<b>(743)</b>	<b>55.5</b>	<b>45.9</b>	<b>15.1</b>	<b>4.4</b>	<b>2.4</b>	<b>1.3</b>	<b>0.7</b>	<b>17.0</b>
성별	남자	(449)	49.0	42.1	13.8	5.3	3.6	1.8	0.9	19.8
	여자	(294)	65.3	51.7	17.0	3.1	0.7	0.7	0.3	12.6
연령	20대 미만	(40)	75.0	15.0	5.0	2.5	0.0	0.0	0.0	20.0
	20대	(371)	61.7	49.9	11.9	0.8	1.9	0.8	0.5	13.5
	30대	(257)	48.6	45.9	23.0	6.2	3.9	1.6	1.2	20.6
	40대	(55)	41.8	40.0	10.9	14.5	1.8	5.5	0.0	20.0
	50대 이상	(20)	25.0	50.0	5.0	25.0	0.0	0.0	0.0	20.0
활동분야	연기	(195)	53.8	40.5	15.9	2.6	7.2	2.6	2.1	20.5
	무용	(53)	66.0	39.6	5.7	1.9	3.8	1.9	1.9	17.0
	연주	(106)	50.0	65.1	6.6	17.0	0.0	0.9	0.0	10.4
	가창	(124)	59.7	65.3	12.1	2.4	0.8	2.4	0.0	13.7
	낭독	(50)	76.0	20.0	38.0	4.0	0.0	0.0	0.0	14.0
기타	(215)	49.8	37.7	17.2	1.9	0.5	0.0	0.0	19.5	
경력	3년 미만	(224)	61.6	38.8	12.1	0.4	1.8	0.4	0.4	16.1
	3~5년 미만	(141)	61.0	51.1	14.9	3.5	0.7	2.1	0.7	11.3
	5~10년 미만	(175)	59.4	49.7	21.7	3.4	4.0	1.1	1.1	14.3
	10년 이상	(203)	41.4	46.8	12.8	10.3	3.0	2.0	0.5	24.1

(5)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요약)

-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 + 만족 %)를 살펴보면, '해외 유학'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인레슨'(65.1%), '관련 협·단체 과정'(49.1%), 학원 교육 수강'(44.7%), '대학교'(36.2%) 순을 보임.
- ※ 2014년 대비 '관련 협, 단체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10.2%p 증가한 반면, '대학원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1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8>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매우 만족 % + 만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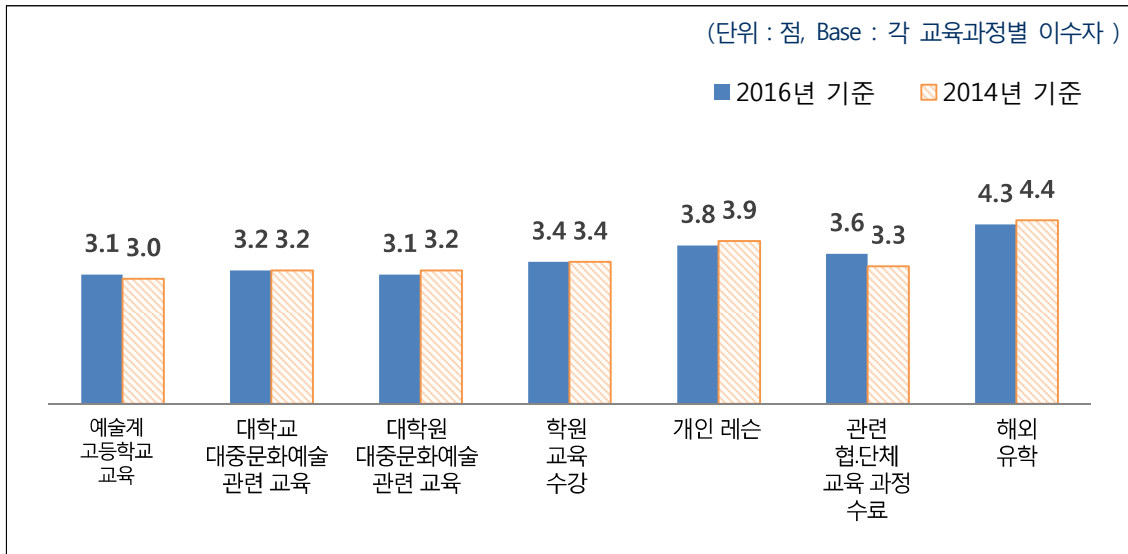
\* 기타는 기타 교육시설 등이 있음.

- (기타를 제외한) '해외유학'에 대한 만족도는 연기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9>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매우 만족 % + 만족 %) (단위 : %)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대중문화 예술 관련 교육	대학원 대중문화 예술 관련 교육	학원 교육 수강	개인 레슨	관련 협·단체 교육 과정	해외 유학	기타
<b>전체</b>		<b>28.2</b>	<b>36.2</b>	<b>27.6</b>	<b>44.7</b>	<b>65.1</b>	<b>49.1</b>	<b>81.8</b>	<b>78.8</b>
성별	남자	23.0	36.4	29.3	46.4	65.1	45.2	83.3	78.6
	여자	35.8	35.9	24.7	42.7	65.1	54.0	77.8	80.0
연령	20대 미만	17.6	45.7	33.3	53.3	83.3	100.0	0.0	-
	20대	31.5	35.4	20.0	44.1	63.8	31.8	66.7	83.3
	30대	27.5	34.9	29.9	40.8	68.6	59.3	81.3	70.6
	40대	22.2	45.7	42.3	60.9	54.5	66.7	87.5	100.0
	50대 이상	12.5	23.1	44.4	40.0	60.0	0.0	100.0	-
활동분야	연기	30.2	31.3	17.1	38.1	63.3	67.7	60.0	82.6
	무용	16.7	38.6	13.3	62.9	71.4	0.0	100.0	75.0
	연주	14.8	28.3	21.2	43.4	66.7	14.3	83.3	0.0
	가창	30.9	31.4	37.2	40.5	56.8	20.0	100.0	100.0
	낭독	50.0	74.1	66.7	68.4	60.0	73.7	100.0	-
	기타	31.6	39.9	27.5	40.2	72.8	43.2	75.0	0.0
경력	3년 미만	28.4	35.2	18.0	41.3	60.9	51.9	0.0	83.3
	3~5년 미만	32.8	40.7	38.6	57.0	72.2	52.4	80.0	100.0
	5~10년 미만	30.9	34.7	26.6	38.5	71.3	52.6	83.3	72.7
	10년 이상	22.2	35.3	29.5	45.2	57.9	38.5	85.7	72.7

<그림 3-3-9>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5점 만점)



<표 3-3-10>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요약(5점 만점)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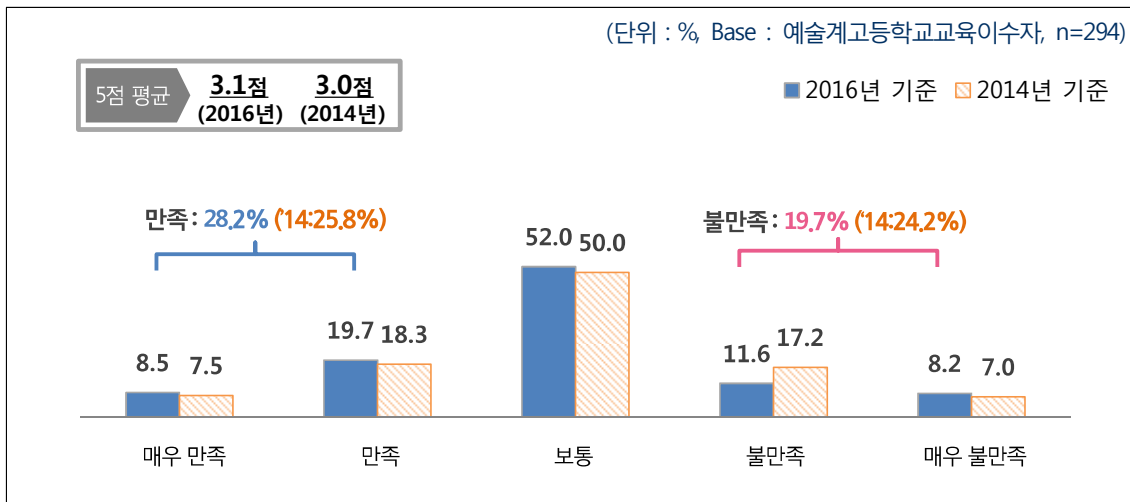
		예술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원	개인 레슨	관련 협, 단체 과정	해외 유학
<b>전체</b>		<b>3.1</b>	<b>3.2</b>	<b>3.1</b>	<b>3.4</b>	<b>3.8</b>	<b>3.6</b>	<b>4.3</b>
성별	남자	2.9	3.2	3.1	3.4	3.9	3.5	4.4
	여자	3.3	3.2	3.1	3.3	3.8	3.6	4.1
연령	20대 미만	3.1	3.5	3.4	3.6	4.3	4.0	3.0
	20대	3.2	3.2	3.0	3.4	3.8	3.3	4.0
	30대	3.1	3.2	3.1	3.3	3.9	3.7	4.3
	40대	2.6	3.2	3.2	3.6	3.6	3.8	4.4
	50대 이상	2.5	2.9	3.1	3.2	3.6	3.0	4.6
활동분야	연기	3.2	3.1	3.0	3.2	3.7	3.8	3.8
	무용	2.8	3.0	2.5	3.8	4.0	3.0	5.0
	연주	2.6	3.0	2.9	3.3	3.9	3.1	4.3
	가창	3.0	3.0	3.2	3.3	3.6	3.0	4.3
	낭독	3.5	3.9	3.7	4.0	4.0	4.0	4.5
	기타	3.3	3.4	3.2	3.3	4.1	3.5	4.5
경력	3년 미만	3.2	3.3	3.1	3.3	3.8	3.6	3.0
	3~5년 미만	3.2	3.2	3.3	3.6	4.0	3.7	4.2
	5~10년 미만	3.1	3.1	3.1	3.3	4.0	3.6	4.5
	10년 이상	2.8	3.1	3.0	3.3	3.7	3.4	4.3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예술계 고등학교

○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이수자(n=294)의 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28.2%였으며, 교육 과정에 대한 평균(5점 평균 기준) 만족도는 3.1점으로 나타남.

※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만족' 비율은 2014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0> (교육 과정 만족도)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표 3-3-11> 응답자 특성별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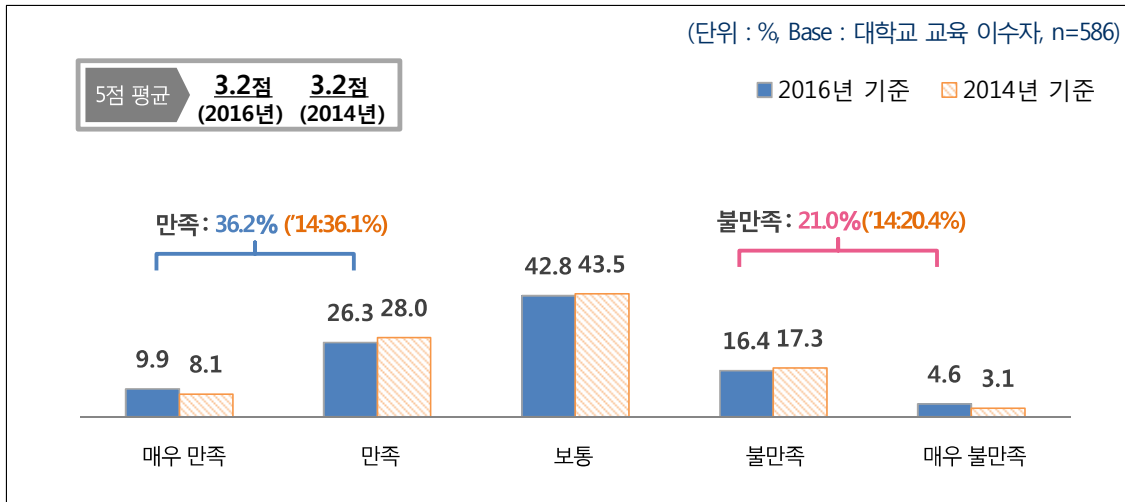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계	5점 평균 (점)
전체		(294)	8.2	11.6	19.7	52.0	19.7	8.5	28.2	100.0	3.1
성별	남자	(174)	12.1	10.9	23.0	54.0	16.1	6.9	23.0	100.0	2.9
	여자	(120)	2.5	12.5	15.0	49.2	25.0	10.8	35.8	100.0	3.3
연령	20대 미만	(17)	0.0	17.6	17.6	64.7	11.8	5.9	17.6	100.0	3.1
	20대	(149)	6.7	11.4	18.1	50.3	19.5	12.1	31.5	100.0	3.2
	30대	(102)	6.9	10.8	17.6	54.9	22.5	4.9	27.5	100.0	3.1
	40대	(18)	27.8	11.1	38.9	38.9	16.7	5.6	22.2	100.0	2.6
	50대 이상	(8)	25.0	12.5	37.5	50.0	12.5	0.0	12.5	100.0	2.5
활동분야	연기	(53)	5.7	11.3	17.0	52.8	18.9	11.3	30.2	100.0	3.2
	무용	(18)	16.7	16.7	33.3	50.0	5.6	11.1	16.7	100.0	2.8
	연주	(54)	20.4	14.8	35.2	50.0	11.1	3.7	14.8	100.0	2.6
	가창	(55)	10.9	18.2	29.1	40.0	21.8	9.1	30.9	100.0	3.0
	낭독	(16)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3.5
	기타	(98)	1.0	7.1	8.2	60.2	21.4	10.2	31.6	100.0	3.3
경력	3년 미만	(74)	4.1	9.5	13.5	58.1	16.2	12.2	28.4	100.0	3.2
	3~5년 미만	(58)	5.2	8.6	13.8	53.4	24.1	8.6	32.8	100.0	3.2
	5~10년 미만	(81)	7.4	13.6	21.0	48.1	22.2	8.6	30.9	100.0	3.1
	10년 이상	(81)	14.8	13.6	28.4	49.4	17.3	4.9	22.2	100.0	2.8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이수자(n=586)의 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 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36.2%로 나타남.

※ 「대학교」 교육 과정 '평균 만족도' 및 '만족' 비율은 201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3-11> (교육 과정 만족도)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표 3-3-12> 응답자 특성별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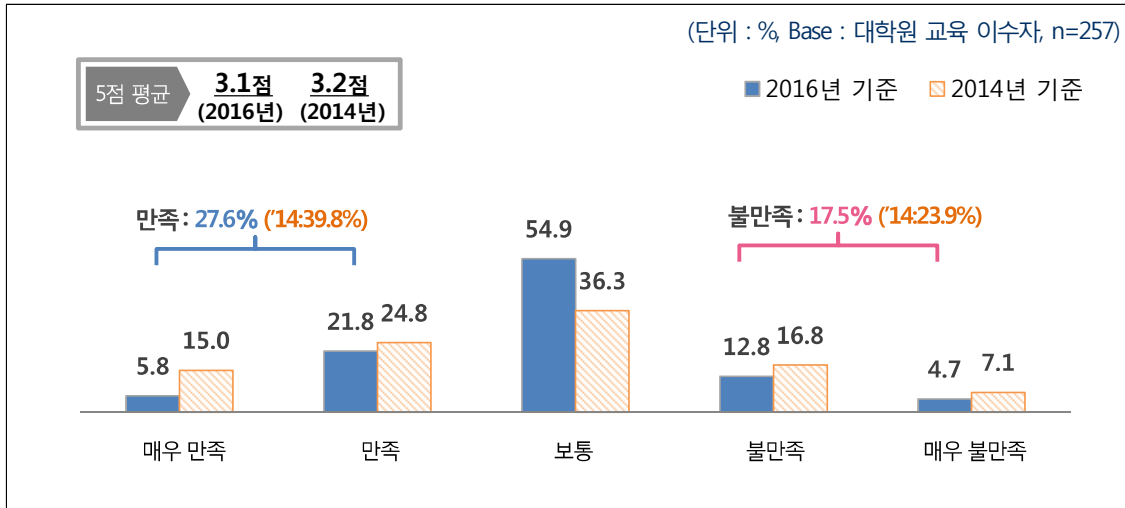
(단위: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전체	(586)	4.6	16.4	21.0	42.8	26.3	9.9	36.2	100.0	3.2
성별	남자 (338)	5.3	16.3	21.6	42.0	26.3	10.1	36.4	100.0	3.2
	여자 (248)	3.6	16.5	20.2	44.0	26.2	9.7	35.9	100.0	3.2
연령	20대 미만 (35)	2.9	5.7	8.6	45.7	28.6	17.1	45.7	100.0	3.5
	20대 (311)	3.5	21.2	24.8	39.9	26.7	8.7	35.4	100.0	3.2
	30대 (192)	5.2	12.5	17.7	47.4	22.9	12.0	34.9	100.0	3.2
	40대 (35)	8.6	11.4	20.0	34.3	40.0	5.7	45.7	100.0	3.2
	50대 이상 (13)	15.4	0.0	15.4	61.5	23.1	0.0	23.1	100.0	2.9
활동분야	연기 (128)	3.9	16.4	20.3	48.4	24.2	7.0	31.3	100.0	3.1
	무용 (44)	11.4	29.5	40.9	20.5	29.5	9.1	38.6	100.0	3.0
	연주 (92)	8.7	18.5	27.2	44.6	18.5	9.8	28.3	100.0	3.0
	가창 (102)	5.9	24.5	30.4	38.2	21.6	9.8	31.4	100.0	3.0
	낭독 (27)	0.0	0.0	0.0	25.9	63.0	11.1	74.1	100.0	3.9
	기타 (193)	1.6	10.4	11.9	48.2	28.0	11.9	39.9	100.0	3.4
경력	3년 미만 (176)	1.7	13.1	14.8	50.0	23.3	11.9	35.2	100.0	3.3
	3~5년 미만 (113)	4.4	17.7	22.1	37.2	31.0	9.7	40.7	100.0	3.2
	5~10년 미만 (147)	3.4	22.4	25.9	39.5	27.2	7.5	34.7	100.0	3.1
	10년 이상 (150)	9.3	13.3	22.7	42.0	25.3	10.0	35.3	100.0	3.1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이수자(n=257)의 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27.6%로 나타났으며, 5점 평균 기준으로는 3.1점으로 나타남.
- ※ 「대학원」 교육 과정의 '만족' 비율은 2014년 대비 ▽1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2> (교육 과정 만족도)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표 3-3-13> 응답자 특성별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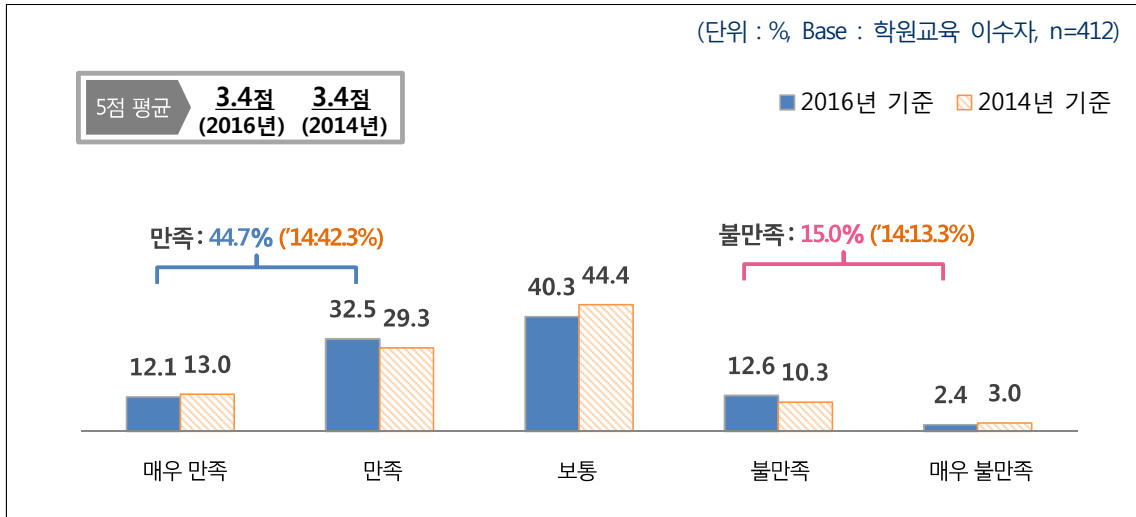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257)</b>	<b>4.7</b>	<b>12.8</b>	<b>17.5</b>	<b>54.9</b>	<b>21.8</b>	<b>5.8</b>	<b>27.6</b>	<b>100.0</b>	<b>3.1</b>
성별	남자 (164)	4.3	11.0	15.2	55.5	24.4	4.9	29.3	100.0	3.1
	여자 (93)	5.4	16.1	21.5	53.8	17.2	7.5	24.7	100.0	3.1
연령	20대 미만 (15)	0.0	0.0	0.0	66.7	26.7	6.7	33.3	100.0	3.4
	20대 (110)	1.8	16.4	18.2	61.8	15.5	4.5	20.0	100.0	3.0
	30대 (97)	6.2	11.3	17.5	52.6	22.7	7.2	29.9	100.0	3.1
	40대 (26)	11.5	11.5	23.1	34.6	34.6	7.7	42.3	100.0	3.2
	50대 이상 (9)	11.1	11.1	22.2	33.3	44.4	0.0	44.4	100.0	3.1
활동분야	연기 (41)	2.4	17.1	19.5	63.4	9.8	7.3	17.1	100.0	3.0
	무용 (15)	20.0	26.7	46.7	40.0	6.7	6.7	13.3	100.0	2.5
	연주 (52)	9.6	17.3	26.9	51.9	15.4	5.8	21.2	100.0	2.9
	가창 (43)	7.0	16.3	23.3	39.5	25.6	11.6	37.2	100.0	3.2
	낭독 (15)	0.0	0.0	0.0	33.3	66.7	0.0	66.7	100.0	3.7
	기타 (91)	0.0	6.6	6.6	65.9	24.2	3.3	27.5	100.0	3.2
경력	3년 미만 (61)	0.0	4.9	4.9	77.0	16.4	1.6	18.0	100.0	3.1
	3~5년 미만 (44)	2.3	11.4	13.6	47.7	31.8	6.8	38.6	100.0	3.3
	5~10년 미만 (64)	0.0	17.2	17.2	56.3	21.9	4.7	26.6	100.0	3.1
	10년 이상 (88)	12.5	15.9	28.4	42.0	20.5	9.1	29.5	100.0	3.0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학원 교육 수강

○ 「학원」 교육 이수자(n=412)의 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44.7%로 나타남.

※ 「학원」 교육 과정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3> (교육 과정 만족도) 학원 교육 수강



<표 3-3-14>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학원 교육 수강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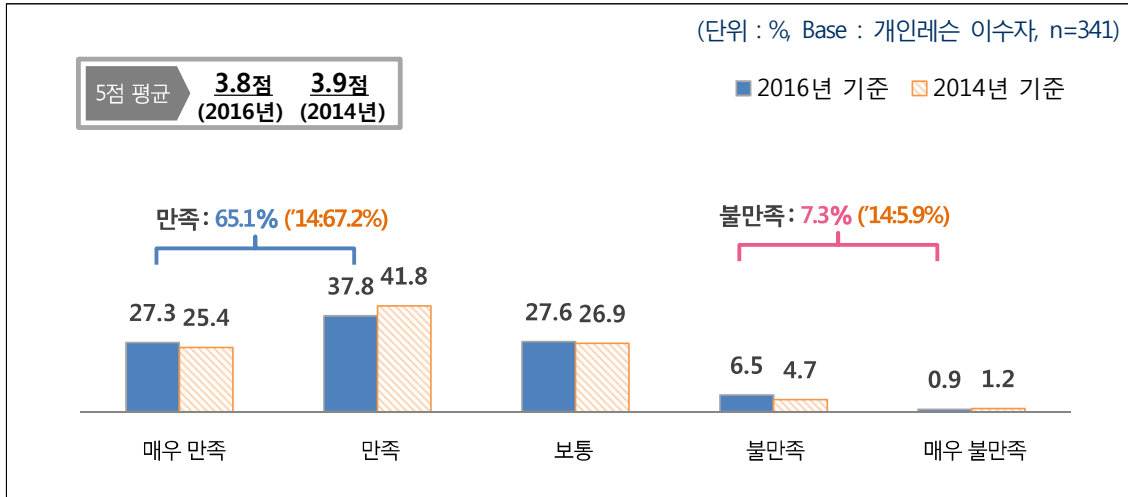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412)</b>	<b>2.4</b>	<b>12.6</b>	<b>15.0</b>	<b>40.3</b>	<b>32.5</b>	<b>12.1</b>	<b>44.7</b>	<b>100.0</b>	<b>3.4</b>	
성별	남자	(220)	2.7	13.2	15.9	37.7	30.5	15.9	46.4	100.0	3.4
	여자	(192)	2.1	12.0	14.1	43.2	34.9	7.8	42.7	100.0	3.3
연령	20대 미만	(30)	0.0	6.7	6.7	40.0	43.3	10.0	53.3	100.0	3.6
	20대	(229)	2.2	14.0	16.2	39.7	31.4	12.7	44.1	100.0	3.4
	30대	(125)	4.0	11.2	15.2	44.0	28.0	12.8	40.8	100.0	3.3
	40대	(23)	0.0	13.0	13.0	26.1	52.2	8.7	60.9	100.0	3.6
	50대 이상	(5)	0.0	20.0	20.0	40.0	40.0	0.0	40.0	100.0	3.2
활동분야	연기	(105)	4.8	18.1	22.9	39.0	29.5	8.6	38.1	100.0	3.2
	무용	(35)	2.9	0.0	2.9	34.3	37.1	25.7	62.9	100.0	3.8
	연주	(53)	0.0	17.0	17.0	39.6	35.8	7.5	43.4	100.0	3.3
	가창	(74)	2.7	16.2	18.9	40.5	28.4	12.2	40.5	100.0	3.3
	낭독	(38)	0.0	0.0	0.0	31.6	39.5	28.9	68.4	100.0	4.0
	기타	(107)	1.9	11.2	13.1	46.7	32.7	7.5	40.2	100.0	3.3
경력	3년 미만	(138)	2.2	13.0	15.2	43.5	30.4	10.9	41.3	100.0	3.3
	3~5년 미만	(86)	1.2	9.3	10.5	32.6	40.7	16.3	57.0	100.0	3.6
	5~10년 미만	(104)	2.9	13.5	16.3	45.2	26.9	11.5	38.5	100.0	3.3
	10년 이상	(84)	3.6	14.3	17.9	36.9	34.5	10.7	45.2	100.0	3.3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개인 레슨

- 「개인 레슨」 교육 만족도(n=341)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65.1%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불만족 %)'는 7.3%로 나타남.
- ※ 「개인 레슨」 교육 과정의 '만족' 비율은 2014년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4> (교육 과정 만족도) 개인 레슨



<표 3-3-15>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개인 레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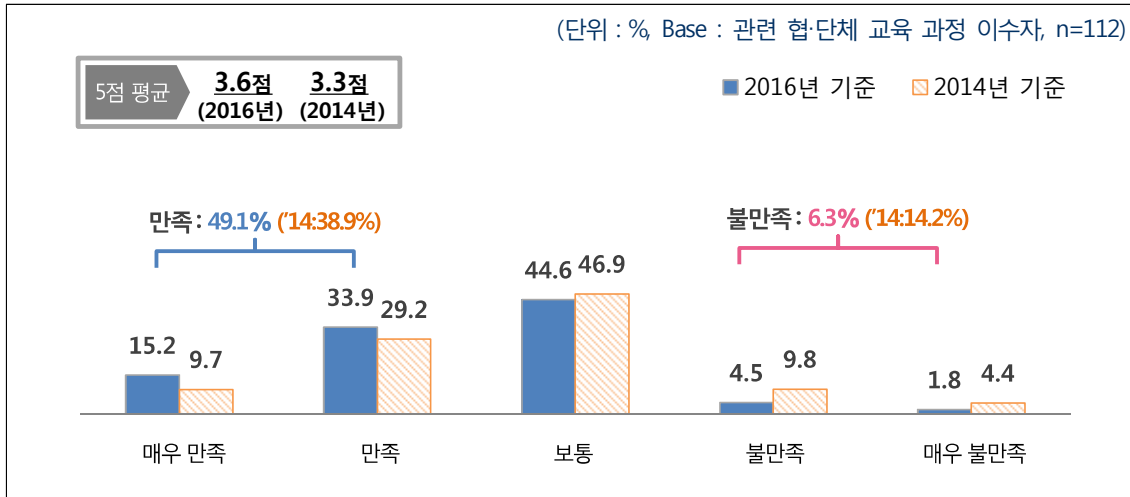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전체	(341)	0.9	6.5	7.3	27.6	37.8	27.3	65.1	100.0	3.8
성별	남자 (189)	1.1	7.4	8.5	26.5	34.9	30.2	65.1	100.0	3.9
	여자 (152)	0.7	5.3	5.9	28.9	41.4	23.7	65.1	100.0	3.8
연령	20대 미만 (6)	0.0	0.0	0.0	16.7	33.3	50.0	83.3	100.0	4.3
	20대 (185)	1.6	5.9	7.6	28.6	36.2	27.6	63.8	100.0	3.8
	30대 (118)	0.0	4.2	4.2	27.1	41.5	27.1	68.6	100.0	3.9
	40대 (22)	0.0	18.2	18.2	27.3	31.8	22.7	54.5	100.0	3.6
	50대 이상 (10)	0.0	20.0	20.0	20.0	40.0	20.0	60.0	100.0	3.6
활동분야	연기 (79)	1.3	8.9	10.1	26.6	43.0	20.3	63.3	100.0	3.7
	무용 (21)	0.0	0.0	0.0	28.6	38.1	33.3	71.4	100.0	4.0
	연주 (69)	0.0	5.8	5.8	27.5	40.6	26.1	66.7	100.0	3.9
	가창 (81)	1.2	9.9	11.1	32.1	38.3	18.5	56.8	100.0	3.6
	낭독 (10)	0.0	10.0	10.0	30.0	10.0	50.0	60.0	100.0	4.0
기타 (81)	1.2	2.5	3.7	23.5	33.3	39.5	72.8	100.0	4.1	
경력	3년 미만 (87)	3.4	6.9	10.3	28.7	32.2	28.7	60.9	100.0	3.8
	3~5년 미만 (72)	0.0	5.6	5.6	22.2	43.1	29.2	72.2	100.0	4.0
	5~10년 미만 (87)	0.0	5.7	5.7	23.0	41.4	29.9	71.3	100.0	4.0
	10년 이상 (95)	0.0	7.4	7.4	34.7	35.8	22.1	57.9	100.0	3.7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이수자(n=112)의 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49.1%로 나타남.
- ※ 「관련 협·단체」 교육 과정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1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5> (교육 과정 만족도)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표 3-3-16>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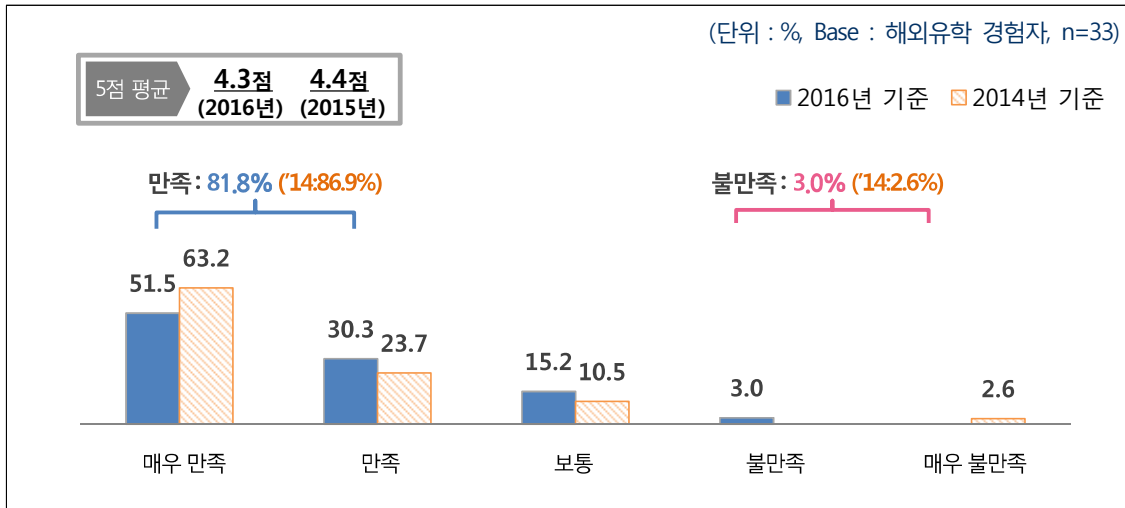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계	5점 평균 (점)		
										보통	만족
<b>전체</b>	<b>(112)</b>	<b>1.8</b>	<b>4.5</b>	<b>6.3</b>	<b>44.6</b>	<b>33.9</b>	<b>15.2</b>	<b>49.1</b>	<b>100.0</b>	<b>3.6</b>	
성별	남자	(62)	3.2	4.8	8.1	46.8	29.0	16.1	45.2	100.0	3.5
	여자	(50)	0.0	4.0	4.0	42.0	40.0	14.0	54.0	100.0	3.6
연령	20대 미만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4.0
	20대	(44)	2.3	4.5	6.8	61.4	27.3	4.5	31.8	100.0	3.3
	30대	(59)	1.7	5.1	6.8	33.9	35.6	23.7	59.3	100.0	3.7
	40대	(6)	0.0	0.0	0.0	33.3	50.0	16.7	66.7	100.0	3.8
	50대 이상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3.0
활동분야	연기	(31)	0.0	9.7	9.7	22.6	45.2	22.6	67.7	100.0	3.8
	무용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3.0
	연주	(7)	0.0	0.0	0.0	85.7	14.3	0.0	14.3	100.0	3.1
	가창	(15)	13.3	0.0	13.3	66.7	13.3	6.7	20.0	100.0	3.0
	낭독	(19)	0.0	5.3	5.3	21.1	42.1	31.6	73.7	100.0	4.0
	기타	(37)	0.0	2.7	2.7	54.1	35.1	8.1	43.2	100.0	3.5
경력	3년 미만	(27)	0.0	7.4	7.4	40.7	40.7	11.1	51.9	100.0	3.6
	3~5년 미만	(21)	0.0	0.0	0.0	47.6	33.3	19.0	52.4	100.0	3.7
	5~10년 미만	(38)	2.6	2.6	5.3	42.1	36.8	15.8	52.6	100.0	3.6
	10년 이상	(26)	3.8	7.7	11.5	50.0	23.1	15.4	38.5	100.0	3.4

(5) 대중문화예술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해외 유학

- 「해외 유학」 경험자(n=33)의 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비율이 81.8%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평균 기준으로도 4.3점으로 높은 수준임.
- ※ 「해외 유학」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14년 대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6> (교육 과정 만족도) 해외 유학



<표 3-3-17>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 관련 해외 유학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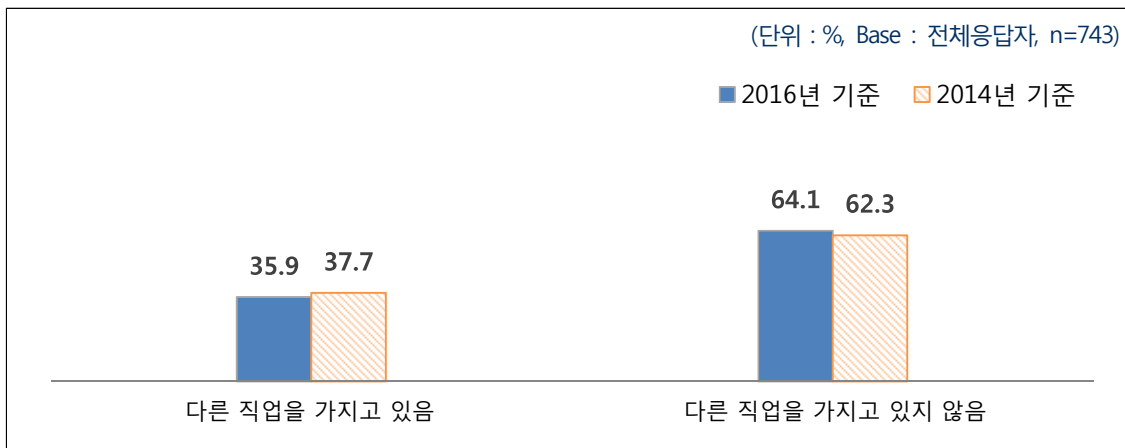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33)</b>	<b>0.0</b>	<b>3.0</b>	<b>15.2</b>	<b>30.3</b>	<b>51.5</b>	<b>81.8</b>	<b>100.0</b>	<b>4.3</b>	
성별	남자	(24)	0.0	0.0	16.7	29.2	54.2	83.3	100.0	4.4
	여자	(9)	0.0	11.1	11.1	33.3	44.4	77.8	100.0	4.1
연령	20대 미만	(1)	0.0	0.0	100.0	0.0	0.0	0.0	100.0	3.0
	20대	(3)	0.0	33.3	33.3	0.0	66.7	66.7	100.0	4.0
	30대	(16)	0.0	0.0	18.8	31.3	50.0	81.3	100.0	4.3
	40대	(8)	0.0	0.0	12.5	37.5	50.0	87.5	100.0	4.4
활동분야	50대 이상	(5)	0.0	0.0	0.0	40.0	60.0	100.0	100.0	4.6
	연기	(5)	0.0	20.0	20.0	20.0	40.0	60.0	100.0	3.8
	무용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5.0
	연주	(18)	0.0	0.0	16.7	33.3	50.0	83.3	100.0	4.3
	가창	(3)	0.0	0.0	0.0	66.7	33.3	100.0	100.0	4.3
	낭독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4.5
경력	기타	(4)	0.0	0.0	25.0	0.0	75.0	75.0	100.0	4.5
	3년 미만	(1)	0.0	0.0	100.0	0.0	0.0	0.0	100.0	3.0
	3~5년 미만	(5)	0.0	20.0	20.0	20.0	60.0	80.0	100.0	4.2
	5~10년 미만	(6)	0.0	0.0	16.7	16.7	66.7	83.3	100.0	4.5
10년 이상	(21)	0.0	0.0	14.3	38.1	47.6	85.7	100.0	4.3	

3) 전업예술인 여부

(1)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외 다른 직업 여부

-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 소유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5.9%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임.

<그림 3-3-17> 전업예술인 여부



- 분야별로는 무용 분야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3-3-18> 응답자 특성별 전업예술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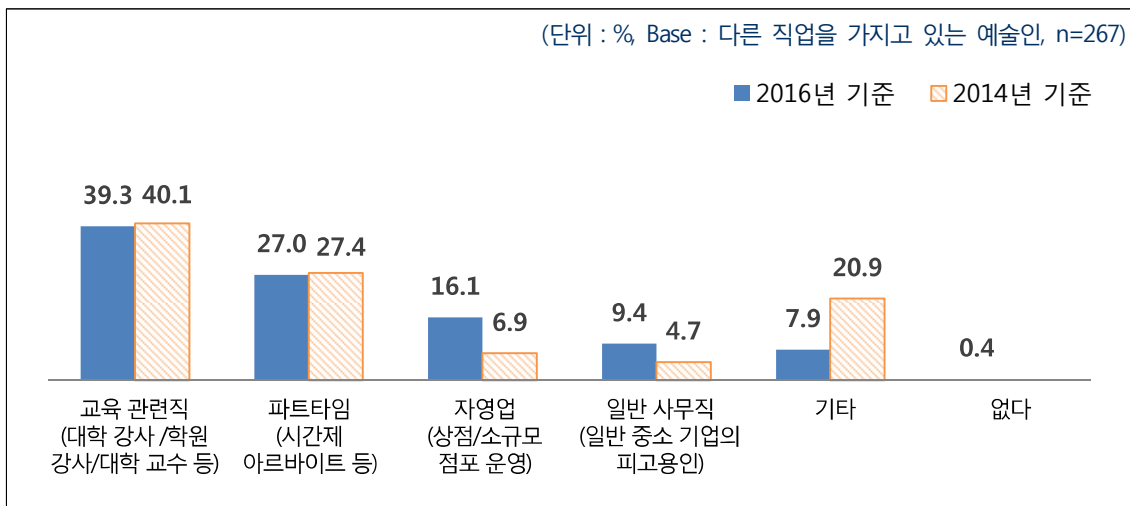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음	계
<b>전체</b>		<b>(743)</b>	<b>35.9</b>	<b>64.1</b>	<b>100.0</b>
성별	남자	(449)	36.1	63.9	100.0
	여자	(294)	35.7	64.3	100.0
연령	20대 미만	(40)	2.5	97.5	100.0
	20대	(371)	31.0	69.0	100.0
	30대	(257)	42.4	57.6	100.0
	40대	(55)	56.4	43.6	100.0
	50대 이상	(17)	64.7	35.3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37.4	62.6	100.0
	무용	(53)	30.2	69.8	100.0
	연주	(106)	45.3	54.7	100.0
	가창	(124)	46.8	53.2	100.0
	낭독	(50)	44.0	56.0	100.0
	기타	(215)	23.3	76.7	100.0
경력	3년 미만	(159)	24.5	75.5	100.0
	3~5년 미만	(141)	37.6	62.4	100.0
	5~10년 미만	(175)	41.7	58.3	100.0
	10년 이상	(203)	45.8	54.2	100.0

(2) 직업 활동 종류

- 다른 직업 활동 유형(n=267)을 살펴보면, '교육 관련직(대학 강사/학원 강사/대학교수 등)'이 3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파트타임(시간제 아르바이트 등)'(27.0%), '자영업(상점/소규모 점포 운영)'(16.1%), '일반사무직(일반중소기업의 피고용인)'(9.4%)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기타'(▽13.0%p)는 감소한 반면, '자영업'(▲9.2%p)과 '일반 사무직'(▲4.7%p)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8> 직업 활동 유형



\* 기타는 기능직, 전문직 등이 있음.

- '교육 관련직'은 낭독, 연주, 가창 분야에서 높은 반면, '파트타임'은 무용, 연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19> 응답자 특성별 직업 활동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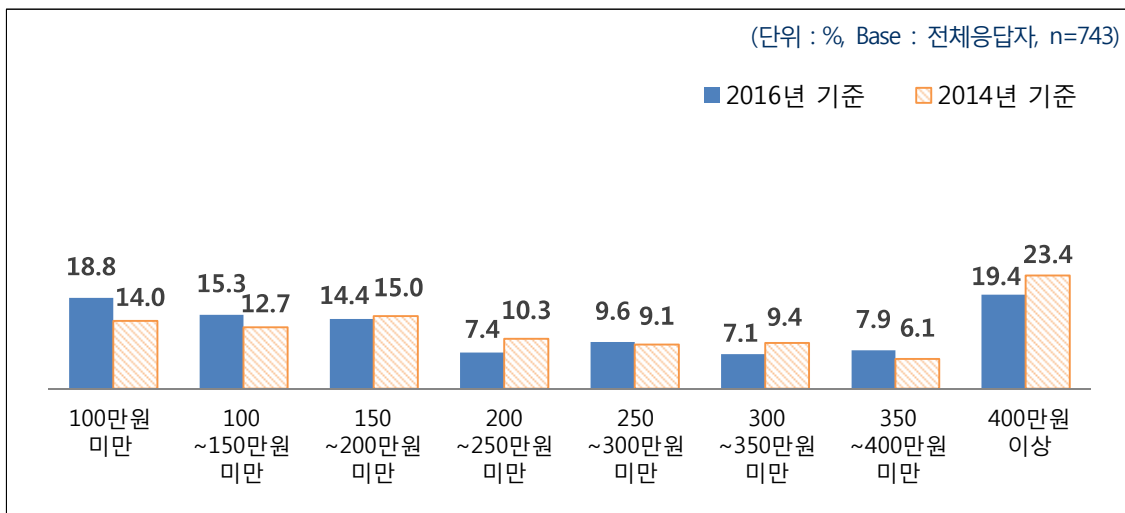
		사례수 (명)	교육 관련직	파트타임	자영업	일반 사무직	기타	없다	계
<b>전체</b>		<b>(267)</b>	<b>39.3</b>	<b>27.0</b>	<b>16.1</b>	<b>9.4</b>	<b>7.9</b>	<b>0.4</b>	<b>100.0</b>
성별	남자	(162)	40.7	24.1	19.1	8.0	8.0	0.0	100.0
	여자	(105)	37.1	31.4	11.4	11.4	7.6	1.0	100.0
연령	20대 미만	(1)	0.0	100.0	0.0	0.0	0.0	0.0	100.0
	20대	(115)	24.3	45.2	10.4	11.3	7.8	0.9	100.0
	30대	(109)	50.5	14.7	17.4	9.2	8.3	0.0	100.0
	40대	(31)	48.4	9.7	29.0	3.2	9.7	0.0	100.0
	50대 이상	(11)	63.6	0.0	27.3	9.1	0.0	0.0	100.0
활동분야	연기	(73)	34.2	32.9	17.8	2.7	11.0	1.4	100.0
	무용	(16)	12.5	43.8	12.5	18.8	12.5	0.0	100.0
	연주	(48)	50.0	6.3	22.9	16.7	4.2	0.0	100.0
	가창	(58)	43.1	27.6	8.6	13.8	6.9	0.0	100.0
	낭독	(22)	72.7	0.0	13.6	4.5	9.1	0.0	100.0
기타	(50)	26.0	44.0	18.0	6.0	6.0	0.0	100.0	
경력	3년 미만	(48)	14.6	56.3	12.5	10.4	6.3	0.0	100.0
	3~5년 미만	(53)	32.1	39.6	7.5	15.1	3.8	1.9	100.0
	5~10년 미만	(73)	53.4	20.5	9.6	6.8	9.6	0.0	100.0
	10년 이상	(93)	45.2	9.7	28.0	7.5	9.7	0.0	100.0

4) 소득 현황

(1) 월평균 가구 소득

- 예술인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이 1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18.8%), '100~150만원 미만'(15.3%), '150~200만원 미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4.8%p 증가한 반면, '400만원 이상'은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9> 월평균 가구 소득



<표 3-3-20> 응답자 특성별 2016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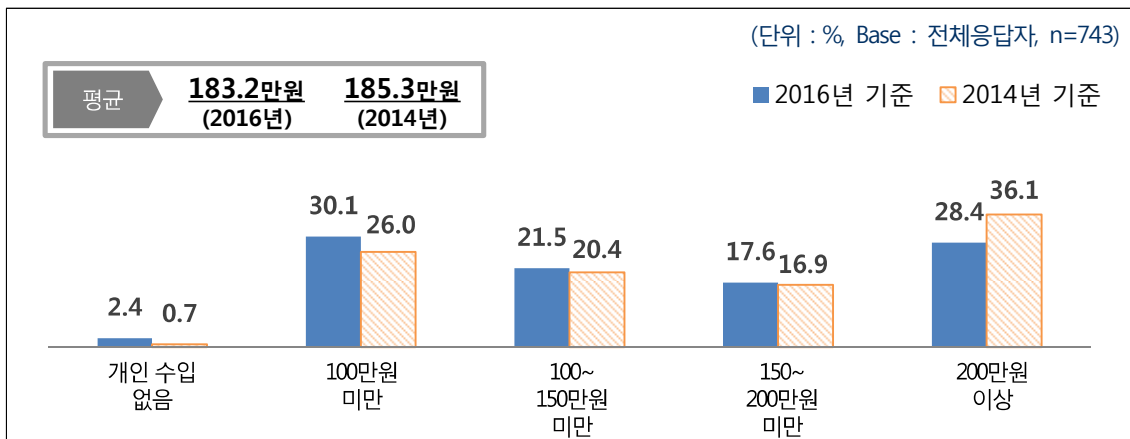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350만원 미만	35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b>전체</b>		<b>(743)</b>	<b>18.8</b>	<b>15.3</b>	<b>14.4</b>	<b>7.4</b>	<b>9.6</b>	<b>7.1</b>	<b>7.9</b>	<b>19.4</b>	<b>100.0</b>
성별	남자	(449)	19.2	15.6	14.0	8.2	10.5	6.2	8.0	18.3	100.0
	여자	(294)	18.4	15.0	15.0	6.1	8.2	8.5	7.8	21.1	100.0
연령	20대 미만	(40)	40.0	7.5	0.0	10.0	5.0	5.0	10.0	22.5	100.0
	20대	(371)	25.9	18.9	14.6	3.5	5.9	7.3	8.1	15.9	100.0
	30대	(257)	8.2	13.2	18.7	12.1	15.2	5.4	5.8	21.4	100.0
	40대	(55)	10.9	10.9	3.6	9.1	12.7	12.7	16.4	23.6	100.0
	50대 이상	(20)	5.0	5.0	15.0	10.0	5.0	15.0	5.0	40.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21.0	18.5	12.8	7.2	9.7	6.2	7.2	17.4	100.0
	무용	(53)	20.8	13.2	17.0	7.5	3.8	7.5	9.4	20.8	100.0
	연주	(106)	17.0	10.4	17.9	8.5	8.5	11.3	7.5	18.9	100.0
	가창	(124)	21.0	9.7	12.9	5.6	8.9	8.1	10.5	23.4	100.0
	낭독	(50)	2.0	2.0	8.0	16.0	24.0	0.0	10.0	38.0	100.0
	기타	(215)	20.0	21.9	15.8	6.0	8.4	7.0	6.5	14.4	100.0
경력	3년 미만	(224)	28.6	19.6	11.2	3.6	7.6	6.7	10.7	12.1	100.0
	3~5년 미만	(141)	17.0	16.3	14.9	12.8	9.9	5.0	3.5	20.6	100.0
	5~10년 미만	(175)	17.7	13.7	20.6	8.0	10.3	6.9	5.1	17.7	100.0
	10년 이상	(203)	10.3	11.3	12.3	7.4	10.8	9.4	10.3	28.1	100.0

(2) 월평균 개인 소득

- 월평균 개인 소득 평균은 183.2만원으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28.4%), '100~150만원 미만'(21.5%) '150~200만원 미만'(17.6%)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100만원 미만'은 ▲4.1%p 증가하였으나, '200만원 이상'은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0> 월평균 개인 소득



<표 3-3-21>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 만원)

		사례수 (명)	개인 수입 없음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b>전체</b>		<b>(743)</b>	<b>2.4</b>	<b>30.1</b>	<b>21.5</b>	<b>17.6</b>	<b>28.4</b>	<b>100.0</b>	<b>183.2</b>	<b>130.0</b>
성별	남자	(442)	2.5	28.3	21.7	14.9	32.6	100.0	203.3	140.0
	여자	(301)	2.3	32.7	21.2	21.5	22.2	100.0	153.4	120.0
연령	20대 미만	(38)	42.4	44.4	10.6	0.0	2.6	100.0	34.1	11.9
	20대	(366)	0.5	43.9	25.3	20.1	10.2	100.0	123.5	100.0
	30대	(267)	0.0	12.6	20.1	18.7	48.6	100.0	262.8	192.2
	40대	(53)	0.0	20.7	16.6	3.8	59.0	100.0	256.4	222.8
	50대 이상	(19)	0.0	10.3	4.2	25.7	59.8	100.0	305.6	279.5
활동분야	연기	(195)	0.0	30.8	24.1	14.4	30.8	100.0	224.6	130.0
	무용	(53)	0.0	17.3	12.1	18.5	52.2	100.0	199.9	200.0
	연주	(106)	0.0	29.2	16.0	19.8	34.9	100.0	173.9	150.0
	가창	(124)	0.0	42.7	14.5	20.2	22.6	100.0	191.4	100.0
	낭독	(50)	0.0	1.1	4.4	37.6	56.9	100.0	299.0	230.0
	기타	(215)	8.4	32.6	32.1	13.0	14.0	100.0	114.5	100.0
경력	3년 미만	(219)	8.2	49.5	22.5	12.8	6.9	100.0	109.1	90.0
	3~5년 미만	(144)	0.0	27.4	27.1	22.4	23.2	100.0	192.3	130.0
	5~10년 미만	(166)	0.0	25.8	22.8	26.5	24.9	100.0	162.1	150.0
	10년 이상	(214)	0.0	15.4	15.7	12.3	56.6	100.0	269.5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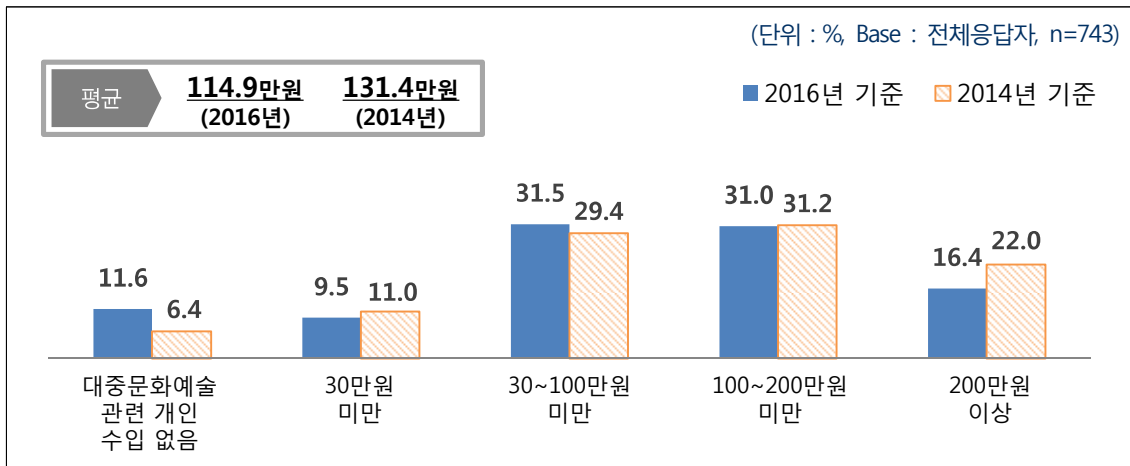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무용과 낭독 분야의 연령분포를 2014년과 유사한 분포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다른 분야의 경우 과거와 유사한 분포임).

(3)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평균은 114.9만원임.
- 구간별로 살펴보면, '30~100만원 미만'이 3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 미만'(31.0%), '200만원 이상'(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대중문화예술 관련 개인 수입 없음'은 ▲5.2%p 증가한 반면, '200만원 이상'은 ▼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1>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평균은 낭독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3-3-22>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개인 수입 없음	30만원 미만	3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b>전체</b>	<b>(743)</b>	<b>11.6</b>	<b>9.5</b>	<b>31.5</b>	<b>31.0</b>	<b>16.4</b>	<b>100.0</b>	<b>114.9</b>	<b>90.0</b>	
성별	남자	(442)	12.0	8.9	30.9	27.8	20.5	100.0	126.9	90.0
	여자	(301)	11.0	10.4	32.4	35.8	10.4	100.0	97.1	80.0
연령	20대 미만	(38)	45.0	23.5	18.2	13.2	0.0	100.0	25.5	10.0
	20대	(366)	14.2	10.6	41.4	29.3	4.5	100.0	73.7	60.0
	30대	(267)	4.9	5.6	19.0	37.8	32.6	100.0	171.6	129.3
	40대	(53)	1.9	15.0	35.4	21.9	25.8	100.0	161.8	82.8
활동 분야	50대 이상	(19)	15.4	0.0	30.8	29.0	24.8	100.0	158.6	100.0
	연기	(195)	12.8	8.2	32.3	24.1	22.6	100.0	122.2	80.0
	무용	(53)	0.0	3.3	15.6	45.5	35.6	100.0	147.4	144.6
	연주	(106)	6.6	13.2	37.7	27.4	15.1	100.0	102.9	80.0
	가창	(124)	17.7	16.9	40.3	18.5	6.5	100.0	103.1	50.0
	낭독	(50)	2.3	0.0	9.1	54.6	34.1	100.0	227.3	150.0
경력	기타	(215)	14.4	8.4	31.6	37.2	8.4	100.0	86.8	80.0
	3년 미만	(219)	22.9	12.1	39.3	22.0	3.8	100.0	61.2	50.0
	3~5년 미만	(144)	7.7	7.9	32.4	41.7	10.3	100.0	132.5	100.0
	5~10년 미만	(166)	9.0	8.4	29.1	36.1	17.3	100.0	115.3	100.0
	10년 이상	(214)	4.7	8.9	24.7	29.1	32.7	100.0	157.8	100.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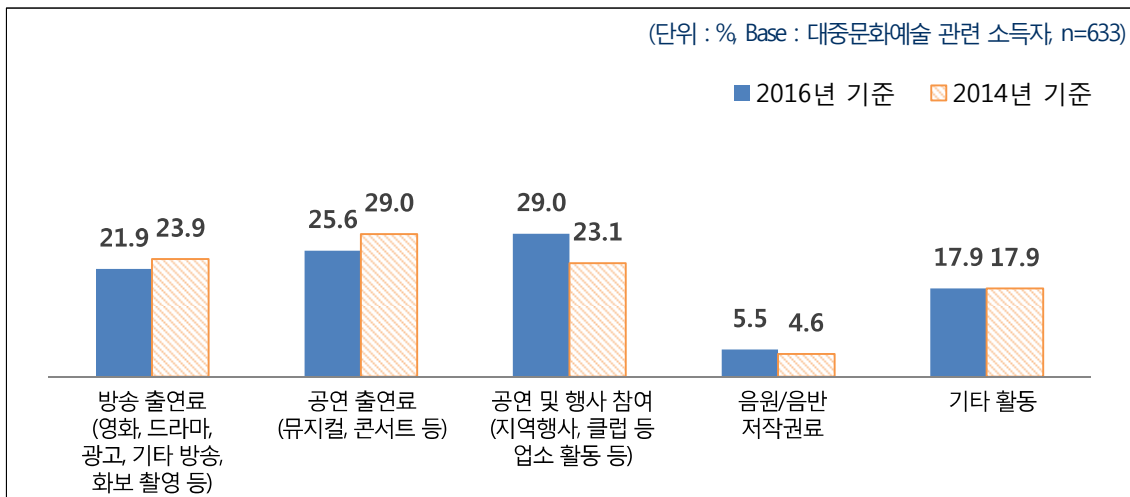
\*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무용과 낭독 분야의 연령분포를 2014년과 유사한 분포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다른 분야의 경우 과거와 유사한 분포임).



(4)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

- 대중문화예술활동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합계 100.0%)을 살펴보면, '기타 활동'을 제외한 '공연 및 행사참여'가 2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공연 출연료'(25.6%), '방송 출연료'(2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수입 비중은 '공연 및 행사참여'가 ▲5.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연 출연'은 ▼3.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2>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요약)



\* 기타에는 피팅모델 활동수입, 팬 사인회 활동수입 등이 있음.

<표 3-3-23>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 평균 요약 (단위 : %)

		사례수 (명)	방송 출연료 (영화, 드라마, 광고, 기타 방송, 화보 촬영 등)	공연 출연료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및 행사 참여 (지역행사, 클럽 등 업소 활동 등)	음원/음반 저작권료	기타 활동
<b>전체</b>		<b>(656)</b>	<b>21.9</b>	<b>25.6</b>	<b>29.0</b>	<b>5.5</b>	<b>17.9</b>
성별	남자	(396)	21.8	25.5	31.9	6.0	14.8
	여자	(260)	22.0	25.8	24.8	4.7	22.7
연령	20대 미만	(23)	33.5	5.2	27.8	5.2	28.3
	20대	(319)	15.7	30.0	29.0	5.5	19.8
	30대	(243)	25.3	24.8	29.0	5.0	15.8
	40대	(54)	30.7	17.1	25.9	8.9	17.4
	50대 이상	(17)	45.3	9.9	42.4	0.7	1.7
활동분야	연기	(170)	41.7	26.0	21.1	1.1	10.0
	무용	(53)	11.5	18.1	32.2	0.1	38.1
	연주	(99)	3.5	13.6	45.7	13.1	24.1
	가창	(102)	2.9	10.5	39.6	16.5	30.4
	낭독	(48)	76.7	3.5	14.0	0.4	5.4
	기타	(184)	12.6	48.0	24.6	2.2	12.5
경력	3년 미만	(173)	19.7	32.0	24.1	4.2	20.1
	3~5년 미만	(130)	27.0	21.6	28.8	5.0	17.5
	5~10년 미만	(160)	16.6	26.2	35.9	6.3	15.0
	10년 이상	(193)	24.8	22.1	28.0	6.4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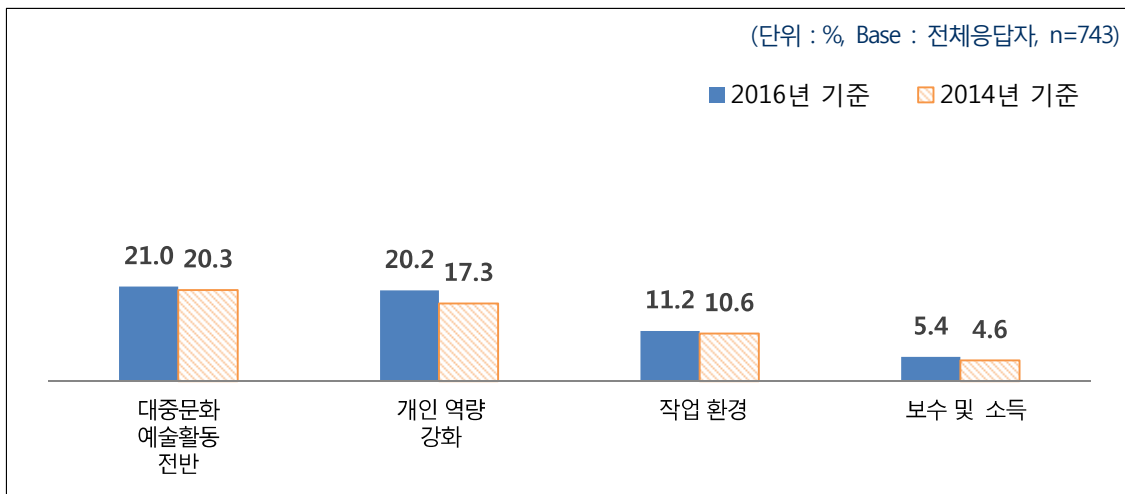
5)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1)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요약)

○ 대중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 + 만족 %)를 살펴보면, '대중문화 예술 활동 전반'이 21.0%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개인 역량 강화'(20.2%), '작업 환경'(11.2%), '보수 및 소득'(5.4%)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는 '개인 역량 강화' 측면에서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3>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요약 (매우 만족 % + 만족 %)



<표 3-3-24>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요약 (매우 만족 % + 만족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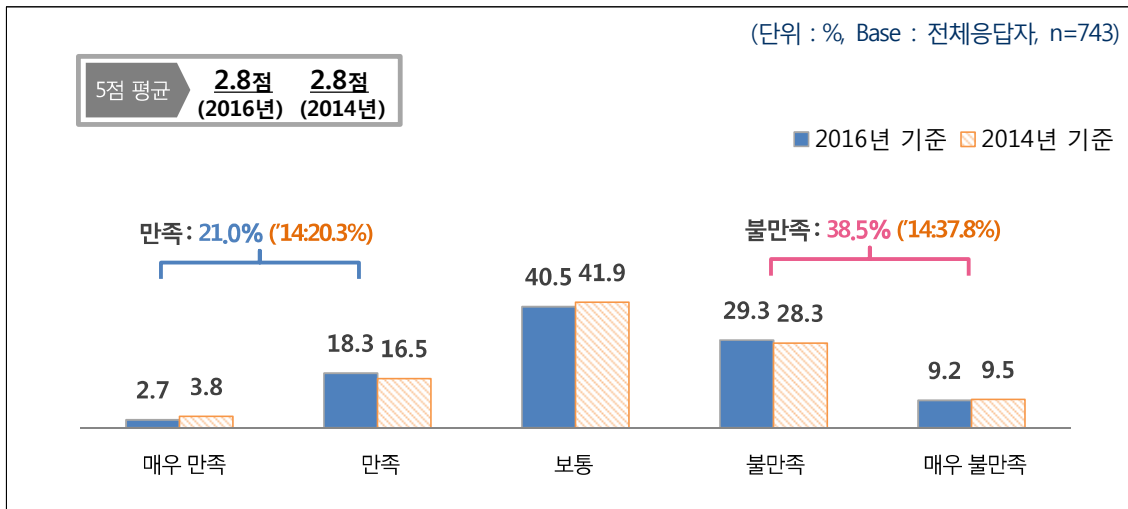
		사례수 (명)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	개인 역량 강화	작업 환경	보수 내지 소득
<b>전체</b>		<b>(743)</b>	<b>21.0</b>	<b>20.2</b>	<b>11.2</b>	<b>5.4</b>
성별	남자	(449)	21.2	21.4	12.9	5.1
	여자	(294)	20.7	18.4	8.5	5.8
연령	20대 미만	(40)	45.0	37.5	22.5	15.0
	20대	(371)	18.9	17.8	10.0	4.0
	30대	(257)	20.2	21.8	10.9	4.7
	40대	(55)	21.8	20.0	12.7	10.9
	50대 이상	(20)	20.0	10.0	10.0	5.0
활동분야	연기	(195)	21.5	19.5	8.2	6.2
	무용	(53)	20.8	17.0	5.7	1.9
	연주	(106)	8.5	9.4	11.3	1.9
	가창	(124)	14.5	18.5	13.7	3.2
	낭독	(50)	50.0	50.0	28.0	18.0
	기타	(215)	23.7	20.9	9.8	5.6
경력	3년 미만	(224)	27.2	24.6	13.8	7.1
	3~5년 미만	(141)	19.1	19.9	7.8	2.8
	5~10년 미만	(175)	17.1	18.3	10.3	3.4
	10년 이상	(203)	18.7	17.2	11.3	6.9

(1)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적으로

○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21.0%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14년과 유사한 수준임.

<그림 3-3-24>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



- (기타 제외) 대중문화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낭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25>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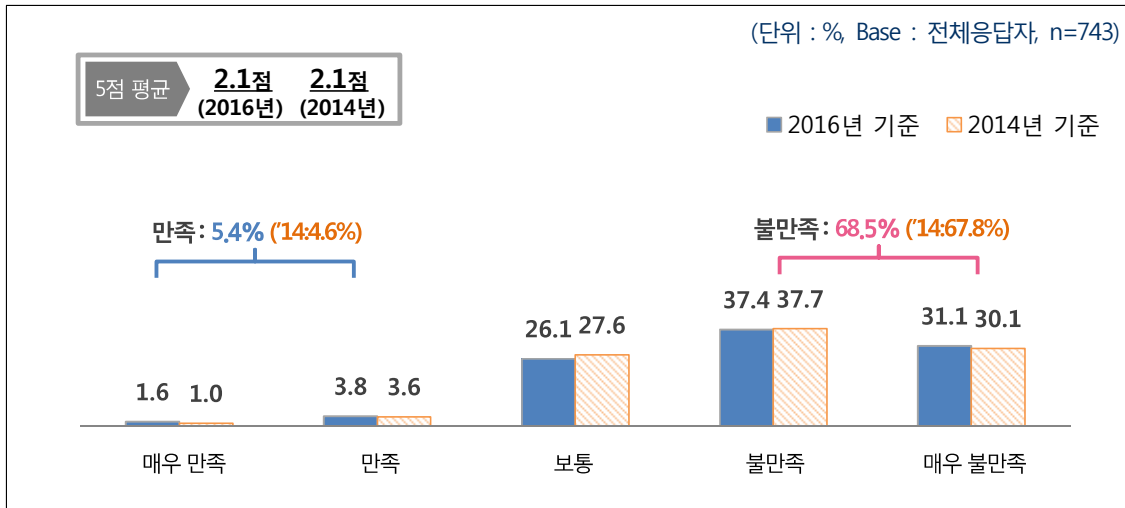
(단위: %, 점)

	사례수 (명)	만족도				만족도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743)</b>	<b>9.2</b>	<b>29.3</b>	<b>38.5</b>	<b>40.5</b>	<b>18.3</b>	<b>2.7</b>	<b>21.0</b>	<b>100.0</b>	<b>2.8</b>
성별	남자 (449)	9.8	27.8	37.6	41.2	18.3	2.9	21.2	100.0	2.8
	여자 (294)	8.2	31.6	39.8	39.5	18.4	2.4	20.7	100.0	2.8
연령	20대 미만 (40)	0.0	15.0	15.0	40.0	35.0	10.0	45.0	100.0	3.4
	20대 (371)	7.5	33.2	40.7	40.4	16.4	2.4	18.9	100.0	2.7
	30대 (257)	11.7	26.8	38.5	41.2	18.3	1.9	20.2	100.0	2.7
	40대 (55)	7.3	32.7	40.0	38.2	18.2	3.6	21.8	100.0	2.8
	50대 이상 (20)	30.0	10.0	40.0	40.0	20.0	0.0	20.0	100.0	2.5
활동분야	연기 (195)	7.7	30.3	37.9	40.5	20.0	1.5	21.5	100.0	2.8
	무용 (53)	11.3	24.5	35.8	43.4	20.8	0.0	20.8	100.0	2.7
	연주 (106)	17.9	30.2	48.1	43.4	5.7	2.8	8.5	100.0	2.5
	가창 (124)	15.3	33.9	49.2	36.3	12.1	2.4	14.5	100.0	2.5
	낭독 (50)	0.0	14.0	14.0	36.0	46.0	4.0	50.0	100.0	3.4
	기타 (215)	4.2	30.2	34.4	41.9	19.5	4.2	23.7	100.0	2.9
경력	3년 미만 (224)	4.0	29.9	33.9	38.8	22.3	4.9	27.2	100.0	2.9
	3~5년 미만 (141)	6.4	29.8	36.2	44.7	18.4	0.7	19.1	100.0	2.8
	5~10년 미만 (175)	10.9	31.4	42.3	40.6	15.4	1.7	17.1	100.0	2.7
	10년 이상 (203)	15.3	26.6	41.9	39.4	16.3	2.5	18.7	100.0	2.6

(1)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2) 보수 및 소득

-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5.4%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응답은 68.5%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보수 및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5>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보수 및 소득



- (기타 제외)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낭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표 3-3-26> 응답자 특성별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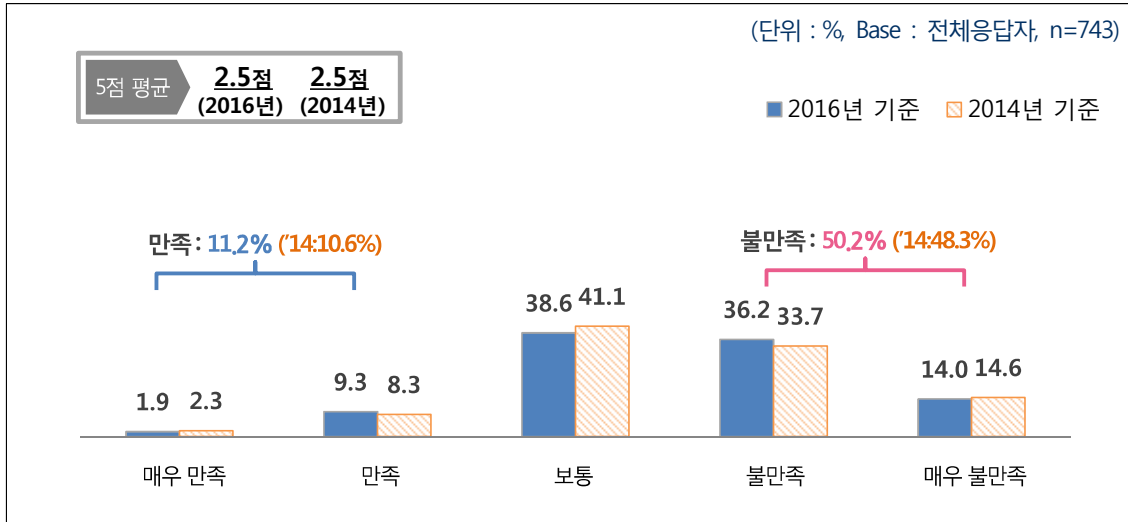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743)</b>	<b>31.1</b>	<b>37.4</b>	<b>68.5</b>	<b>26.1</b>	<b>3.8</b>	<b>1.6</b>	<b>5.4</b>	<b>100.0</b>	<b>2.1</b>
성별	남자 (449)	29.8	36.5	66.4	28.5	3.3	1.8	5.1	100.0	2.1
	여자 (294)	33.0	38.8	71.8	22.4	4.4	1.4	5.8	100.0	2.0
연령	20대 미만 (40)	10.0	27.5	37.5	47.5	12.5	2.5	15.0	100.0	2.7
	20대 (371)	30.7	38.8	69.5	26.4	2.4	1.6	4.0	100.0	2.1
	30대 (257)	34.6	36.2	70.8	24.5	3.1	1.6	4.7	100.0	2.0
	40대 (55)	32.7	43.6	76.4	12.7	9.1	1.8	10.9	100.0	2.0
	50대 이상 (20)	30.0	30.0	60.0	35.0	5.0	0.0	5.0	100.0	2.2
활동분야	연기 (195)	33.3	36.9	70.3	23.6	4.6	1.5	6.2	100.0	2.0
	무용 (53)	28.3	41.5	69.8	28.3	1.9	0.0	1.9	100.0	2.0
	연주 (106)	35.8	35.8	71.7	26.4	0.0	1.9	1.9	100.0	2.0
	가창 (124)	37.1	37.1	74.2	22.6	1.6	1.6	3.2	100.0	1.9
	낭독 (50)	14.0	44.0	58.0	24.0	16.0	2.0	18.0	100.0	2.5
	기타 (215)	27.9	36.3	64.2	30.2	3.7	1.9	5.6	100.0	2.2
경력	3년 미만 (224)	25.0	37.5	62.5	30.4	4.5	2.7	7.1	100.0	2.2
	3~5년 미만 (141)	29.1	43.3	72.3	24.8	2.8	0.0	2.8	100.0	2.0
	5~10년 미만 (175)	35.4	37.1	72.6	24.0	2.3	1.1	3.4	100.0	2.0
	10년 이상 (203)	35.5	33.5	69.0	24.1	4.9	2.0	6.9	100.0	2.0

(1)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3) 작업환경

-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11.2%,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응답은 50.2%로 나타남.
- ※ 2014년 조사결과 대비 「작업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유사한 수준임.

<그림 3-3-26>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작업환경



- (기타 제외)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낭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27> 응답자 특성별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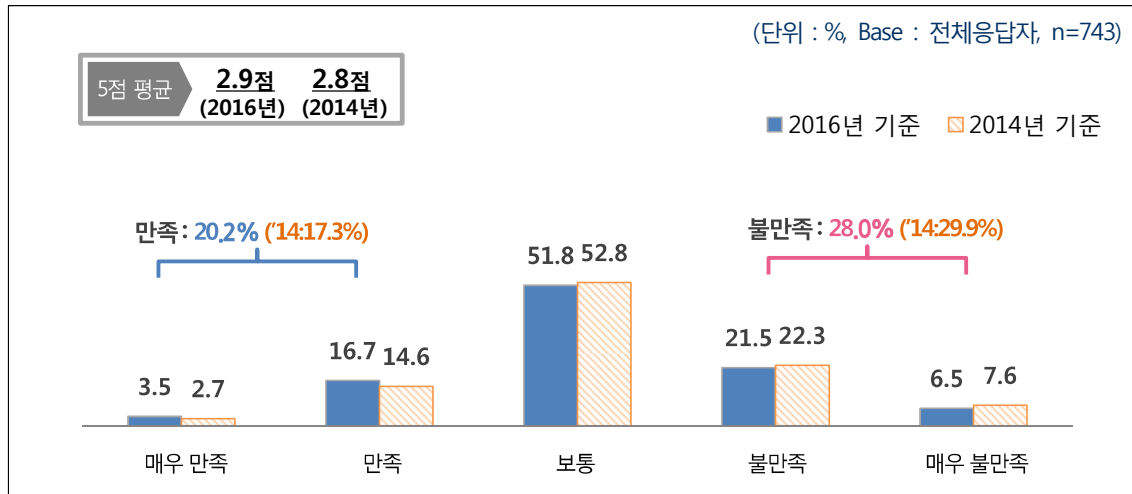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전체	(743)	14.0	36.2	50.2	38.6	9.3	1.9	11.2	100.0	2.5
성별	남자 (449)	13.4	33.4	46.8	40.3	10.7	2.2	12.9	100.0	2.6
	여자 (294)	15.0	40.5	55.4	36.1	7.1	1.4	8.5	100.0	2.4
연령	20대 미만 (40)	7.5	17.5	25.0	52.5	17.5	5.0	22.5	100.0	3.0
	20대 (371)	12.1	39.4	51.5	38.5	7.5	2.4	10.0	100.0	2.5
	30대 (257)	17.1	33.1	50.2	38.9	9.7	1.2	10.9	100.0	2.4
	40대 (55)	16.4	45.5	61.8	25.5	12.7	0.0	12.7	100.0	2.3
	50대 이상 (20)	15.0	30.0	45.0	45.0	10.0	0.0	10.0	100.0	2.5
활동분야	연기 (195)	15.9	34.9	50.8	41.0	7.2	1.0	8.2	100.0	2.4
	무용 (53)	13.2	43.4	56.6	37.7	5.7	0.0	5.7	100.0	2.4
	연주 (106)	20.8	37.7	58.5	30.2	8.5	2.8	11.3	100.0	2.3
	가창 (124)	19.4	34.7	54.0	32.3	11.3	2.4	13.7	100.0	2.4
	낭독 (50)	6.0	14.0	20.0	52.0	26.0	2.0	28.0	100.0	3.0
기타 (215)	7.9	40.9	48.8	41.4	7.4	2.3	9.8	100.0	2.6	
경력	3년 미만 (224)	9.8	35.7	45.5	40.6	10.3	3.6	13.8	100.0	2.6
	3~5년 미만 (141)	12.8	32.6	45.4	46.8	7.1	0.7	7.8	100.0	2.5
	5~10년 미만 (175)	14.9	41.1	56.0	33.7	8.6	1.7	10.3	100.0	2.4
	10년 이상 (203)	18.7	35.0	53.7	35.0	10.3	1.0	11.3	100.0	2.4

(1) 대중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4)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해

-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은 20.2%,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응답은 28.0%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7>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개인 역량 강화



- (기타를 제외한)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한 만족도는 낭독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28> 응답자 특성별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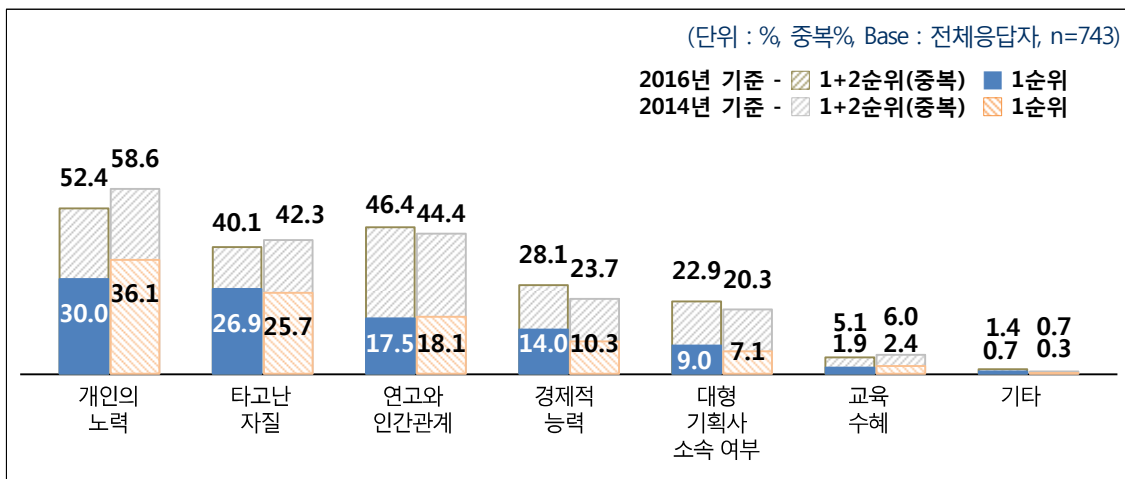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743)</b>	<b>6.5</b>	<b>21.5</b>	<b>28.0</b>	<b>51.8</b>	<b>16.7</b>	<b>3.5</b>	<b>20.2</b>	<b>100.0</b>	<b>2.9</b>
성별	남자 (449)	7.6	17.8	25.4	53.2	17.6	3.8	21.4	100.0	2.9
	여자 (294)	4.8	27.2	32.0	49.7	15.3	3.1	18.4	100.0	2.8
연령	20대 미만 (40)	0.0	7.5	7.5	55.0	27.5	10.0	37.5	100.0	3.4
	20대 (371)	6.2	22.6	28.8	53.4	14.3	3.5	17.8	100.0	2.9
	30대 (257)	8.2	20.2	28.4	49.8	19.5	2.3	21.8	100.0	2.9
	40대 (55)	5.5	27.3	32.7	47.3	14.5	5.5	20.0	100.0	2.9
	50대 이상 (20)	5.0	30.0	35.0	55.0	10.0	0.0	10.0	100.0	2.7
활동분야	연기 (195)	11.3	22.6	33.8	46.7	16.9	2.6	19.5	100.0	2.8
	무용 (53)	5.7	20.8	26.4	56.6	13.2	3.8	17.0	100.0	2.9
	연주 (106)	7.5	26.4	34.0	56.6	5.7	3.8	9.4	100.0	2.7
	가창 (124)	7.3	17.7	25.0	56.5	15.3	3.2	18.5	100.0	2.9
	낭독 (50)	0.0	4.0	4.0	46.0	48.0	2.0	50.0	100.0	3.5
	기타 (215)	2.8	24.7	27.4	51.6	16.3	4.7	20.9	100.0	3.0
경력	3년 미만 (224)	5.4	20.1	25.4	50.0	19.2	5.4	24.6	100.0	3.0
	3~5년 미만 (141)	7.1	18.4	25.5	54.6	19.1	0.7	19.9	100.0	2.9
	5~10년 미만 (175)	5.7	25.1	30.9	50.9	14.9	3.4	18.3	100.0	2.9
	10년 이상 (203)	7.9	22.2	30.0	52.7	13.8	3.4	17.2	100.0	2.8

(2)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

-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을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노력'(30.0%), '타고난 자질'(26.9%), '연고와 인간관계'(17.5%), '경제적 능력'(14.0%)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중복응답) 기준으로는 '개인의 노력'(52.4%), '연고와 인간관계'(46.4%), '타고난 자질'(40.1%), '경제적 능력'(28.1%)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해보면,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1순위 기준) 중 '경제적 능력'과 '대형 기획사 소속 여부'가 각각 ▲3.7%p, ▲1.9%p 증가한 반면, '개인의 노력'은 ▼6.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8>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



\* 기타에는 기회/운, 사회의 문화적 수준 등이 있음.

- '개인의 노력'은 무용, 낭독 분야에서, '타고난 자질'은 낭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29>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1순위)

(단위: %)

		사례수 (명)	개인의 노력	타고난 자질	연고와 인간관계	경제적 능력	대형 기획사 소속 여부	교육 수혜	기타
<b>전체</b>		<b>(743)</b>	<b>30.0</b>	<b>26.9</b>	<b>17.5</b>	<b>14.0</b>	<b>9.0</b>	<b>1.9</b>	<b>0.7</b>
성별	남자	(449)	32.3	25.8	14.7	15.6	8.2	2.7	0.7
	여자	(294)	26.5	28.6	21.8	11.6	10.2	0.7	0.7
연령	20대 미만	(40)	35.0	42.5	2.5	15.0	5.0	0.0	0.0
	20대	(371)	28.6	25.3	17.5	14.0	11.9	2.2	0.5
	30대	(257)	29.6	26.1	21.8	14.0	6.6	1.2	0.8
	40대	(55)	36.4	27.3	12.7	12.7	7.3	1.8	1.8
	50대 이상	(20)	35.0	35.0	5.0	15.0	0.0	10.0	0.0
활동분야	연기	(195)	27.7	21.5	19.0	13.8	14.9	2.6	0.5
	무용	(53)	43.4	28.3	11.3	11.3	5.7	0.0	0.0
	연주	(106)	27.4	26.4	17.9	19.8	3.8	2.8	1.9
	가창	(124)	29.0	29.0	13.7	15.3	8.9	2.4	1.6
	낭독	(50)	40.0	42.0	12.0	2.0	4.0	0.0	0.0
	기타	(215)	28.4	27.0	20.9	14.0	8.4	1.4	0.0
경력	3년 미만	(224)	29.9	27.2	15.6	17.0	7.6	2.2	0.4
	3~5년 미만	(141)	31.9	24.1	21.3	10.6	11.3	0.7	0.0
	5~10년 미만	(175)	24.0	25.7	21.1	14.9	10.3	2.3	1.7
	10년 이상	(203)	34.0	29.6	13.8	12.3	7.9	2.0	0.5

<표 3-3-30>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 성공조건(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개인의 노력	연고와 인간관계	타고난 자질	경제적 능력	대형 기획사 소속 여부	교육 수혜	기타
<b>전체</b>		<b>(743)</b>	<b>52.4</b>	<b>46.4</b>	<b>40.1</b>	<b>28.1</b>	<b>22.9</b>	<b>5.1</b>	<b>1.5</b>
성별	남자	(449)	52.8	45.0	38.5	29.6	22.0	6.0	1.6
	여자	(294)	51.7	48.6	42.5	25.9	24.1	3.7	1.4
연령	20대 미만	(40)	65.0	27.5	55.0	27.5	10.0	2.5	0.0
	20대	(371)	50.1	49.1	37.2	29.1	25.9	4.3	0.5
	30대	(257)	51.4	47.9	40.5	28.0	22.6	5.4	3.1
	40대	(55)	60.0	47.3	41.8	21.8	16.4	7.3	1.8
	50대 이상	(20)	60.0	15.0	55.0	30.0	15.0	15.0	0.0
활동분야	연기	(195)	46.7	49.2	34.4	28.2	34.9	4.1	1.5
	무용	(53)	73.6	35.8	41.5	22.6	11.3	11.3	1.9
	연주	(106)	45.3	48.1	34.9	32.1	18.9	10.4	1.9
	가창	(124)	49.2	41.1	43.5	30.6	27.4	3.2	3.2
	낭독	(50)	68.0	50.0	62.0	12.0	4.0	2.0	2.0
	기타	(215)	54.0	47.9	40.5	29.8	18.6	3.7	0.0
경력	3년 미만	(224)	54.5	45.5	41.1	28.6	21.0	3.1	0.4
	3~5년 미만	(141)	50.4	48.9	39.0	26.2	29.8	3.5	0.7
	5~10년 미만	(175)	46.3	50.9	37.1	30.9	22.9	6.9	3.4
	10년 이상	(203)	56.7	41.9	42.4	26.6	20.2	6.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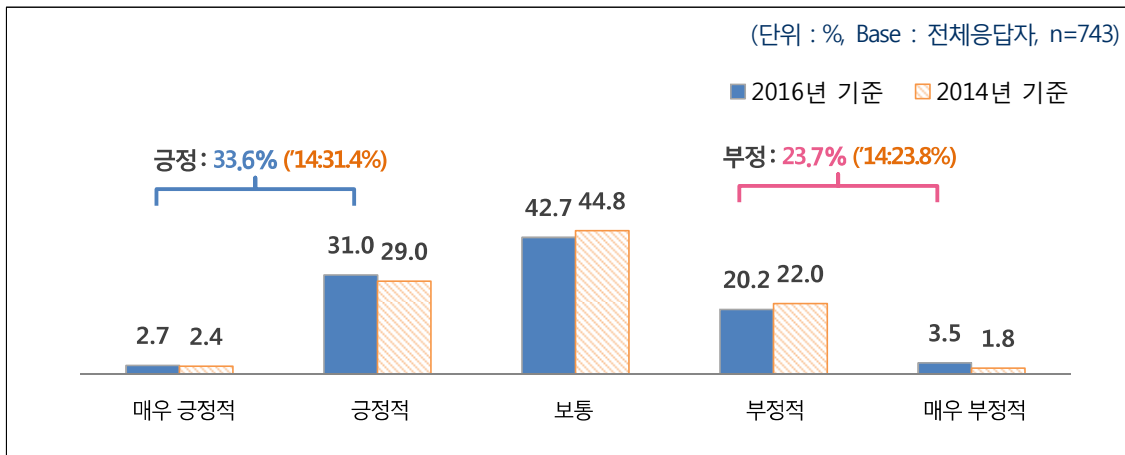


(3)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인식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인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 % + 긍정적 %)가 33.6%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 % + 부정적 %)는 응답은 23.7% 임.

※ 2014년 대비 '긍정적'(▲2.2%p) 응답은 소폭 증가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3-3-2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인식



<표 3-3-31>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인식

(단위 : %, 점)

	사례수 (명)	부정적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긍정적/좋은 편		매우 긍정적/매우 좋음	공정적	계
		매우 부정적/ 매우 나쁨	부정적/ 나쁜 편	부정적		긍정적/ 좋은 편	매우 긍정적/ 매우 좋음			
<b>전체</b>	<b>(743)</b>	<b>3.5</b>	<b>20.2</b>	<b>23.7</b>	<b>42.7</b>	<b>31.0</b>	<b>2.7</b>	<b>33.6</b>	<b>100.0</b>	
성별	남자 (449)	4.5	20.3	24.7	42.1	30.1	3.1	33.2	100.0	
	여자 (294)	2.0	20.1	22.1	43.5	32.3	2.0	34.4	100.0	
연령	20대 미만 (40)	2.5	17.5	20.0	47.5	27.5	5.0	32.5	100.0	
	20대 (371)	3.5	23.5	27.0	45.6	25.1	2.4	27.5	100.0	
	30대 (257)	3.5	16.3	19.8	41.2	36.2	2.7	38.9	100.0	
	40대 (55)	3.6	14.5	18.2	30.9	49.1	1.8	50.9	100.0	
	50대 이상 (20)	5.0	30.0	35.0	30.0	30.0	5.0	35.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3.1	16.4	19.5	38.5	37.9	4.1	42.1	100.0	
	무용 (53)	7.5	20.8	28.3	52.8	18.9	0.0	18.9	100.0	
	연주 (106)	6.6	33.0	39.6	37.7	20.8	1.9	22.6	100.0	
	가창 (124)	3.2	21.0	24.2	45.2	29.8	0.8	30.6	100.0	
	낭독 (50)	0.0	2.0	2.0	26.0	64.0	8.0	72.0	100.0	
	기타 (215)	2.3	20.9	23.3	48.8	25.6	2.3	27.9	100.0	
경력	3년 미만 (224)	2.7	19.2	21.9	47.3	27.2	3.6	30.8	100.0	
	3~5년 미만 (141)	1.4	19.1	20.6	46.1	31.9	1.4	33.3	100.0	
	5~10년 미만 (175)	4.0	22.9	26.9	44.6	26.9	1.7	28.6	100.0	
	10년 이상 (203)	5.4	19.7	25.1	33.5	37.9	3.4	4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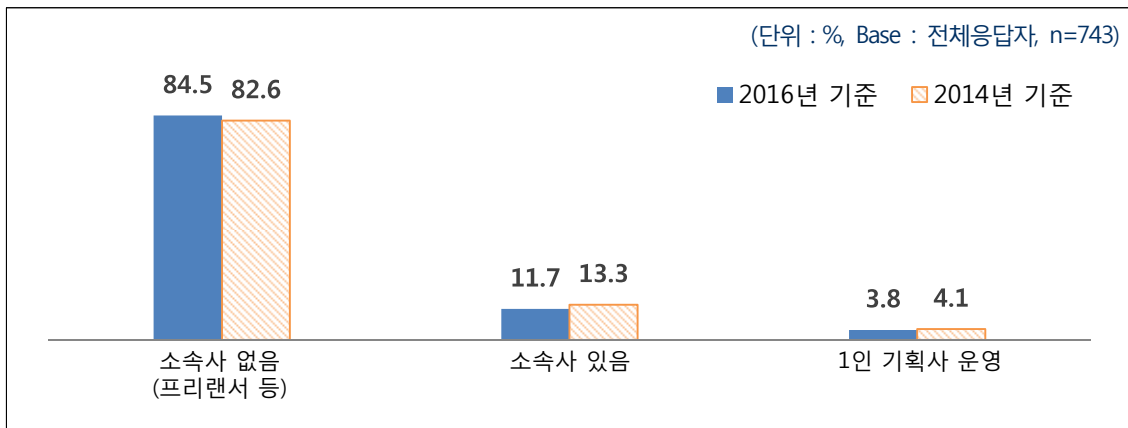
## 2. 대중문화예술인 고용 및 4대 보험 가입현황

### 1) 고용현황

#### (1)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

- 현재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를 살펴보면, '소속사 없음(프리랜서 등)'이 84.5%로 가장 많았고, '소속사 있음'은 11.7%, '1인 기획사 운영'은 3.8%로 나타남.
- ※ 2014년과 유사한 수준임.

<그림 3-3-30>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



- '소속사 있음' 비율은 가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2> 응답자 특성별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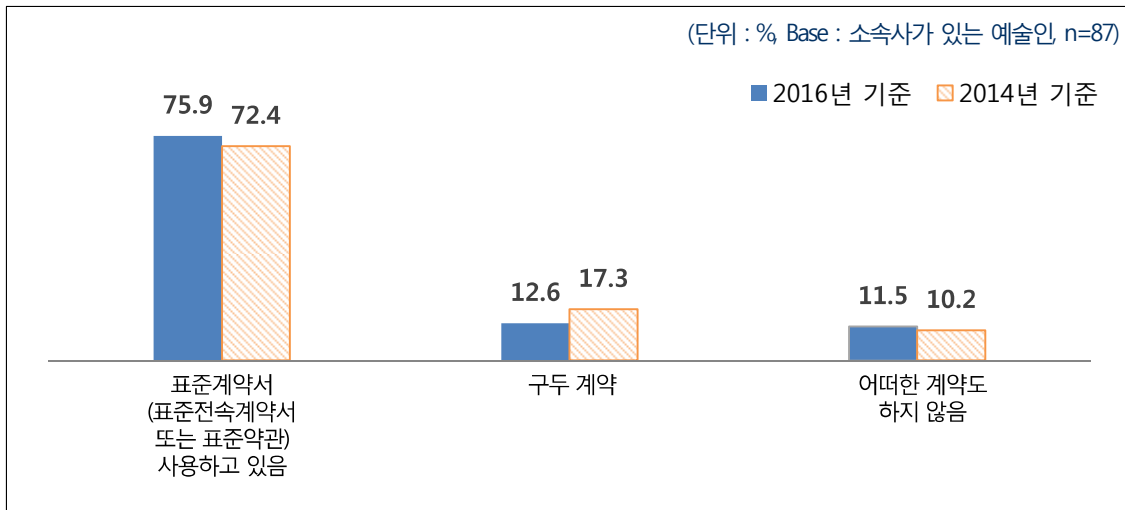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소속사 없음 (프리랜서 등)	소속사 있음	1인 기획사 운영	계
<b>전체</b>		<b>(743)</b>	<b>84.5</b>	<b>11.7</b>	<b>3.8</b>	<b>100.0</b>
성별	남자	(449)	85.3	10.5	4.2	100.0
	여자	(294)	83.3	13.6	3.1	100.0
연령	20대 미만	(40)	87.5	12.5	0.0	100.0
	20대	(371)	85.2	12.9	1.9	100.0
	30대	(257)	83.7	11.3	5.1	100.0
	40대	(55)	83.6	3.6	12.7	100.0
	50대 이상	(20)	80.0	15.0	5.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85.1	13.8	1.0	100.0
	무용	(53)	88.7	9.4	1.9	100.0
	연주	(106)	89.6	6.6	3.8	100.0
	가창	(124)	60.5	25.0	14.5	100.0
	낭독	(50)	96.0	4.0	0.0	100.0
	기타	(215)	91.6	7.0	1.4	100.0
경력	3년 미만	(224)	86.6	12.5	0.9	100.0
	3~5년 미만	(141)	83.0	12.8	4.3	100.0
	5~10년 미만	(175)	84.6	12.0	3.4	100.0
	10년 이상	(203)	83.3	9.9	6.9	100.0

(2)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소속사가 있는 예술인(n=87)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이 7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구두 계약'(12.6%),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11.5%)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3.5%p 증가한 반면, '구두 계약'은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1> 소속사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표 3-3-33> 응답자 특성별 소속사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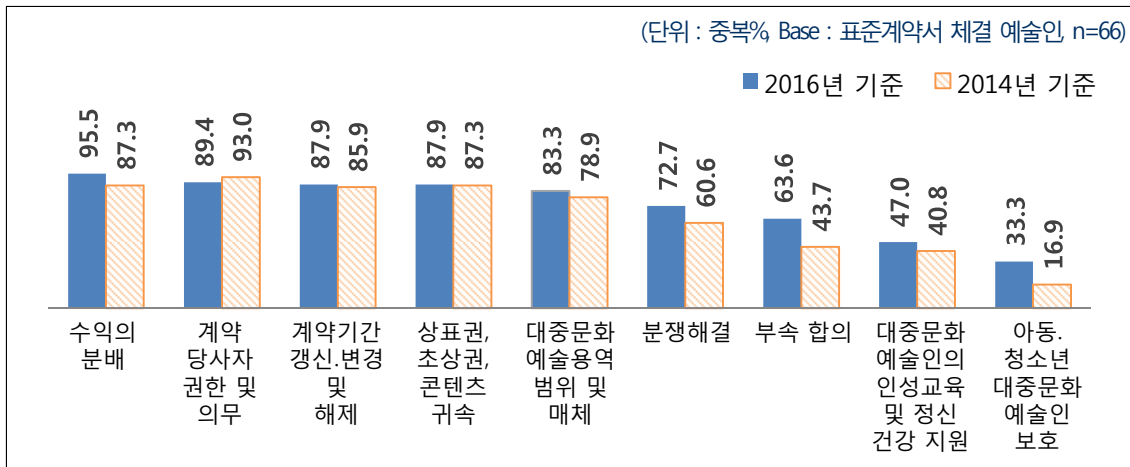
		사례수 (명)	표준계약서 사용하고 있음 (%)	구두 계약 (%)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	계
<b>전체</b>		<b>(87)</b>	<b>75.9</b>	<b>12.6</b>	<b>11.5</b>	<b>100.0</b>
성별	남자	(47)	78.7	12.8	8.5	100.0
	여자	(40)	72.5	12.5	15.0	100.0
연령	20대 미만	(5)	60.0	0.0	40.0	100.0
	20대	(48)	75.0	10.4	14.6	100.0
	30대	(29)	82.8	17.2	0.0	100.0
	40대	(2)	100.0	0.0	0.0	100.0
	50대 이상	(3)	33.3	33.3	33.3	100.0
활동분야	연기	(27)	81.5	14.8	3.7	100.0
	무용	(5)	0.0	0.0	100.0	100.0
	연주	(7)	42.9	42.9	14.3	100.0
	가창	(31)	87.1	12.9	0.0	100.0
	낭독	(2)	100.0	0.0	0.0	100.0
	기타	(15)	80.0	0.0	20.0	100.0
경력	3년 미만	(28)	75.0	10.7	14.3	100.0
	3~5년 미만	(18)	83.3	11.1	5.6	100.0
	5~10년 미만	(21)	66.7	14.3	19.0	100.0
	10년 이상	(20)	80.0	15.0	5.0	100.0

(3) 계약서 포함 사항

○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n=66)을 살펴보면, '수익의 분배'가 95.5%(중복응답)로 가장 많고,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89.4%), 그 다음으로는 '귀속계약 기간 갱신 변경 및 해제'와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87.9%),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8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3.6%p 감소한 '계약 당사자 권한 및 의무'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2> 계약서 포함 사항(중복응답)



<표 3-3-34> 응답자 특성별 계약서 포함 사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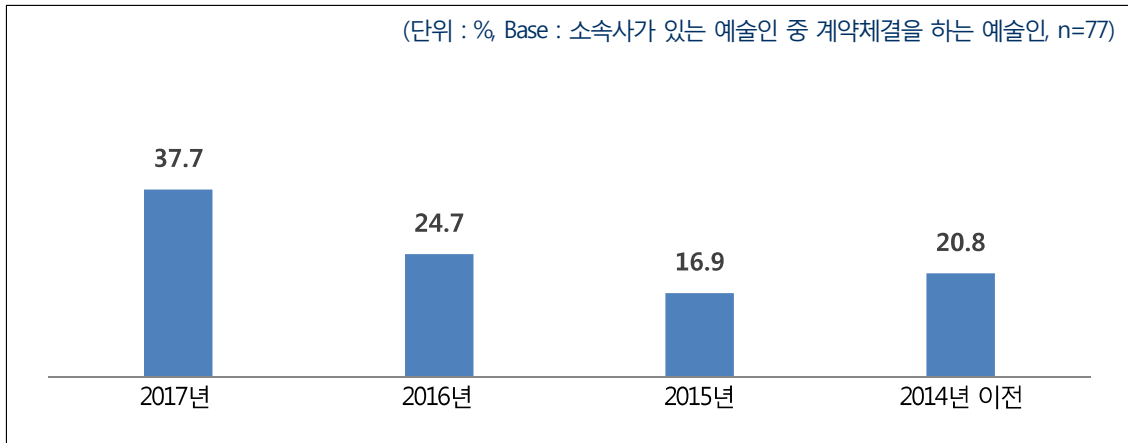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수익의 분배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	계약기간 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	대중문화 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분쟁 해결	부속 합의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 건강 지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보호
<b>전체</b>	<b>(66)</b>	<b>95.5</b>	<b>89.4</b>	<b>87.9</b>	<b>87.9</b>	<b>83.3</b>	<b>72.7</b>	<b>63.6</b>	<b>47.0</b>	<b>33.3</b>
성별	남자 (37)	91.9	86.5	89.2	83.8	83.8	73.0	59.5	51.4	37.8
	여자 (29)	100.0	93.1	86.2	93.1	82.8	72.4	69.0	41.4	27.6
연령	20대 미만 (3)	100.0	33.3	33.3	66.7	33.3	33.3	0.0	0.0	0.0
	20대 (36)	94.4	94.4	86.1	88.9	83.3	69.4	63.9	47.2	38.9
	30대 (24)	100.0	91.7	95.8	91.7	91.7	83.3	75.0	58.3	33.3
	40대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0.0	0.0
	50대 이상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활동분야	연기 (22)	100.0	100.0	100.0	95.5	100.0	90.9	63.6	45.5	27.3
	연주 (3)	66.7	66.7	100.0	33.3	33.3	0.0	33.3	0.0	0.0
	가창 (27)	96.3	88.9	85.2	88.9	81.5	66.7	77.8	48.1	44.4
	낭독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50.0
	기타 (12)	91.7	75.0	66.7	83.3	66.7	66.7	41.7	50.0	25.0
경력	3년 미만 (21)	90.5	85.7	76.2	90.5	81.0	76.2	57.1	47.6	47.6
	3~5년 미만 (15)	100.0	93.3	93.3	86.7	86.7	66.7	60.0	53.3	33.3
	5~10년 미만 (14)	100.0	92.9	92.9	92.9	92.9	78.6	85.7	57.1	28.6
	10년 이상 (16)	93.8	87.5	93.8	81.3	75.0	68.8	56.3	31.3	18.8

(4)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년도

-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n=77)을 대상으로 신규 계약 또는 계약 갱신 년도를 조사한 결과, '2017년'인 경우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2016년'(24.7%), '2014년 이전'(20.8%), '2015년'(16.9%) 순을 보임.

<그림 3-3-33> 최근 소속사와 신규 체결 또는 기존 계약 갱신 년도



<표 3-3-35> 응답자 특성별 최근 소속사와 신규 체결 또는 기존 계약 갱신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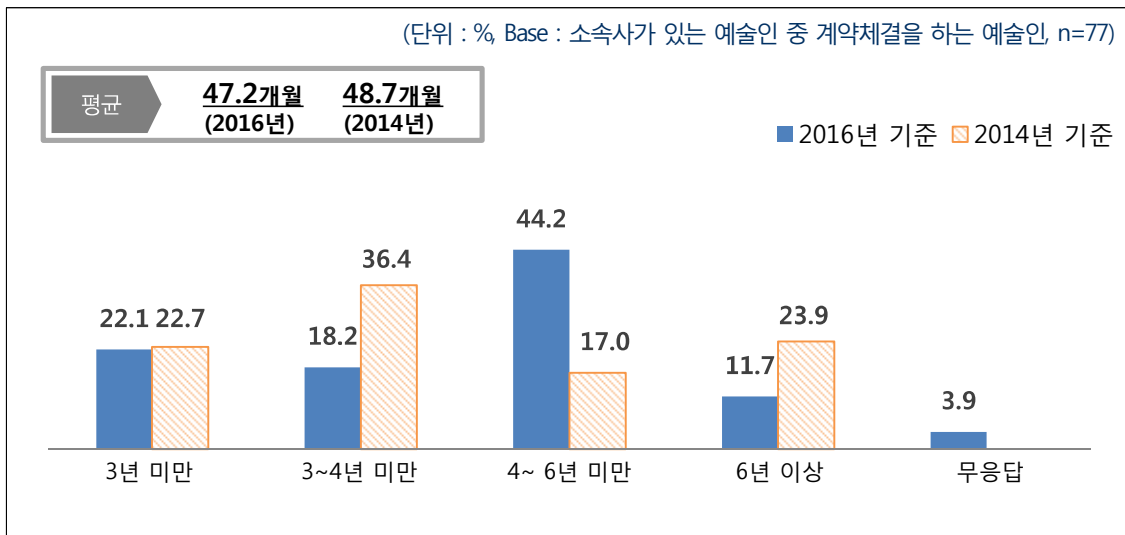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b>전체</b>		<b>(77)</b>	<b>37.7</b>	<b>24.7</b>	<b>16.9</b>	<b>20.8</b>	<b>100.0</b>
성별	남자	(43)	25.6	37.2	20.9	16.3	100.0
	여자	(34)	52.9	8.8	11.8	26.5	100.0
연령	20대 미만	(3)	33.3	33.3	33.3	0.0	100.0
	20대	(41)	48.8	14.6	12.2	24.4	100.0
	30대	(29)	24.1	37.9	20.7	17.2	100.0
	40대	(2)	0.0	0.0	50.0	50.0	100.0
	50대 이상	(2)	50.0	50.0	0.0	0.0	100.0
활동분야	연기	(26)	19.2	38.5	23.1	19.2	100.0
	연주	(6)	33.3	50.0	0.0	16.7	100.0
	가창	(31)	48.4	12.9	9.7	29.0	100.0
	낭독	(2)	0.0	50.0	50.0	0.0	100.0
	기타	(12)	58.3	8.3	25.0	8.3	100.0
경력	3년 미만	(24)	62.5	8.3	20.8	8.3	100.0
	3~5년 미만	(17)	35.3	23.5	17.6	23.5	100.0
	5~10년 미만	(17)	23.5	29.4	11.8	35.3	100.0
	10년 이상	(19)	21.1	42.1	15.8	21.1	100.0

(5) 체결한 계약기간

- 새롭게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기간의 평균은 47.2개월(대략 3년 11개월)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4~6년 미만'이 4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년 미만'(22.1%), '3~4년 미만'(18.2%), '6년 이상'(11.7%) 순으로 나타남.
- ※ 체결한 계약 기간은 2014년 대비 평균 1.5개월 감소함. 세부적으로 계약 기간이 '3~4년 미만'인 경우는 ▽18.2%p 감소한 반면, '4~6년 미만'은 ▲2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4> 체결한 계약 기간



<표 3-3-36> 응답자 특성별 체결한 계약 기간

(단위 :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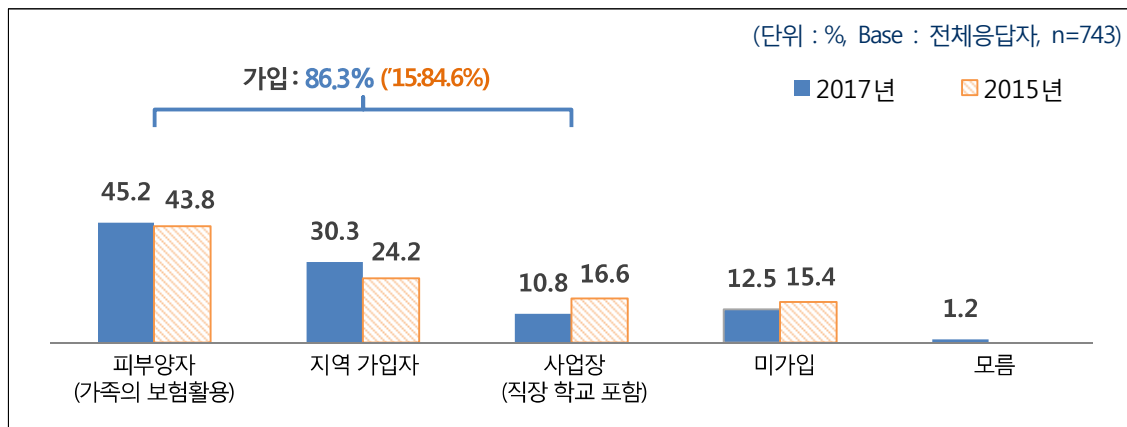
		사례수 (명)	3년 미만	3~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무응답	계	[평균: 개월]
<b>전체</b>		<b>(77)</b>	<b>22.1</b>	<b>18.2</b>	<b>44.2</b>	<b>11.7</b>	<b>3.9</b>	<b>100.0</b>	<b>47.2</b>
성별	남자	(43)	25.6	25.6	39.5	7.0	2.3	100.0	43.1
	여자	(34)	17.6	8.8	50.0	17.6	5.9	100.0	52.5
연령	20대 미만	(3)	33.3	0.0	66.7	0.0	0.0	100.0	48.0
	20대	(41)	17.1	17.1	39.0	19.5	7.3	100.0	51.7
	30대	(29)	24.1	20.7	51.7	3.4	0.0	100.0	43.1
	40대	(2)	0.0	50.0	50.0	0.0	0.0	100.0	48.0
	50대 이상	(2)	100.0	0.0	0.0	0.0	0.0	100.0	18.0
활동분야	연기	(26)	19.2	26.9	50.0	0.0	3.8	100.0	43.3
	연주	(6)	66.7	0.0	16.7	0.0	16.7	100.0	29.0
	가창	(31)	9.7	16.1	45.2	25.8	3.2	100.0	56.2
	낭독	(2)	50.0	0.0	0.0	50.0	0.0	100.0	48.0
	기타	(12)	33.3	16.7	50.0	0.0	0.0	100.0	40.3
경력	3년 미만	(24)	25.0	4.2	37.5	25.0	8.3	100.0	53.6
	3~5년 미만	(17)	11.8	35.3	41.2	5.9	5.9	100.0	45.8
	5~10년 미만	(17)	11.8	11.8	64.7	11.8	0.0	100.0	51.2
	10년 이상	(19)	36.8	26.3	36.8	0.0	0.0	100.0	37.4

2) 4대 보험 가입현황

(1) 건강보험 가입현황<sup>16)</sup>

-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양자(가족의 보험활용)'가 45.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가입자'(30.3%),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10.8%) 순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12.5%로 나타남.
- ※ 2015년 조사결과 대비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비율은 ▲1.7%p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역 가입자'가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은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5>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현황



- '피부양자' 비율은 무용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지역 가입자'는 낭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7> 응답자 특성별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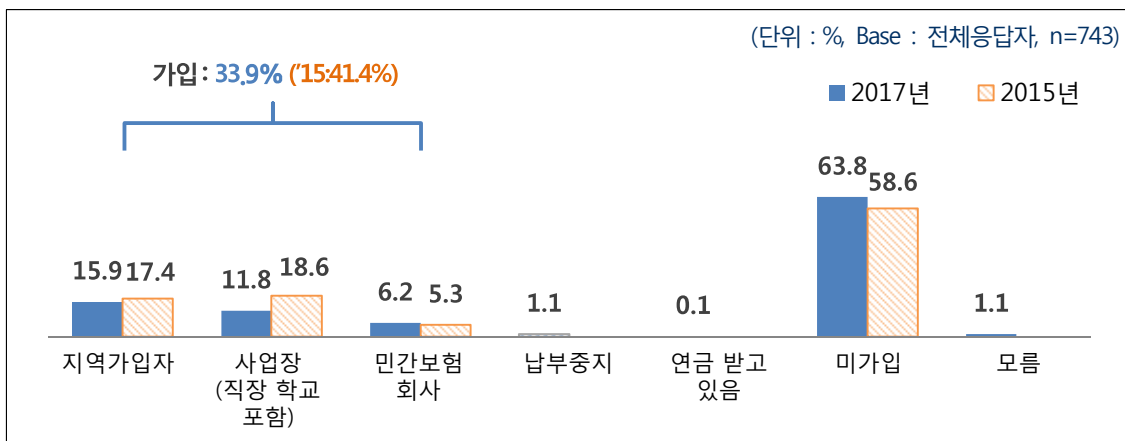
		사례수 (명)	피부양자 (가족의 보험 활용)	지역 가입자	사업장 (직장 학교 포함)	미가입	모름	계
<b>전체</b>		<b>(743)</b>	<b>45.2</b>	<b>30.3</b>	<b>10.8</b>	<b>12.5</b>	<b>1.2</b>	<b>100.0</b>
성별	남자	(449)	41.9	32.5	11.8	12.9	0.9	100.0
	여자	(294)	50.3	26.9	9.2	11.9	1.7	100.0
연령	20대 미만	(40)	45.0	12.5	2.5	35.0	5.0	100.0
	20대	(371)	59.8	15.4	7.8	15.1	1.9	100.0
	30대	(257)	32.7	47.1	12.8	7.4	0.0	100.0
	40대	(55)	14.5	61.8	18.2	5.5	0.0	100.0
	50대 이상	(20)	20.0	40.0	35.0	5.0	0.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43.6	39.0	10.3	7.2	0.0	100.0
	무용	(53)	50.9	22.6	7.5	17.0	1.9	100.0
	연주	(106)	41.5	25.5	19.8	13.2	0.0	100.0
	가창	(124)	41.1	27.4	15.3	13.7	2.4	100.0
	낭독 기타	(215)	56.7	16.7	6.0	18.1	2.3	100.0
경력	3년 미만	(224)	53.6	15.6	4.9	22.8	3.1	100.0
	3~5년 미만	(141)	50.4	29.8	10.6	8.5	0.7	100.0
	5~10년 미만	(175)	46.3	30.9	12.6	9.7	0.6	100.0
	10년 이상	(203)	31.5	46.3	15.8	6.4	0.0	100.0

16) 본 문항은 조사 당시 시점으로 조사됨(부록3. 대중문화예술인 설문지 참고)

(2) 국민연금 가입현황<sup>17)</sup>

- 현재 국민연금 가입 형식을 살펴보면, '지역 가입자'가 1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11.8%), '민간보험 회사'(6.2%) 순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63.8%로 나타남.
- ※ 2015년 조사결과 대비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7.5%p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6.8%p)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

<그림 3-3-36> 국민연금 가입현황



- 분야별로는 낭독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8> 응답자 특성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 %)

		사례수 (명)	지역 가입자	사업장 (직장 학교 포함)	민간 보험 회사	납부 중지	연금 받고 있음	미가입	모름	계
<b>전체</b>		<b>(743)</b>	<b>15.9</b>	<b>11.8</b>	<b>6.2</b>	<b>1.1</b>	<b>0.1</b>	<b>63.8</b>	<b>1.1</b>	<b>100.0</b>
성별	남자	(449)	16.5	12.5	5.1	1.1	0.2	63.7	0.9	100.0
	여자	(294)	15.0	10.9	7.8	1.0	0.0	63.9	1.4	100.0
연령	20대 미만	(40)	2.5	5.0	5.0	0.0	0.0	82.5	5.0	100.0
	20대	(371)	7.0	8.4	6.5	0.5	0.0	76.0	1.6	100.0
	30대	(257)	24.5	14.8	7.4	1.9	0.0	51.4	0.0	100.0
	40대	(55)	34.5	18.2	1.8	1.8	0.0	43.6	0.0	100.0
	50대 이상	(20)	45.0	35.0	0.0	0.0	5.0	15.0	0.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13.3	9.7	6.7	1.5	0.0	68.2	0.5	100.0
	무용	(53)	9.4	7.5	11.3	0.0	0.0	69.8	1.9	100.0
	연주	(106)	17.9	20.8	3.8	0.9	0.0	56.6	0.0	100.0
	가창	(124)	18.5	16.1	3.2	0.8	0.0	58.9	2.4	100.0
	낭독	(50)	34.0	8.0	2.0	4.0	2.0	50.0	0.0	100.0
기타	(215)	13.0	8.8	8.4	0.5	0.0	67.9	1.4	100.0	
경력	3년 미만	(224)	5.4	8.0	4.0	0.4	0.0	79.9	2.2	100.0
	3~5년 미만	(141)	12.1	8.5	7.1	2.1	0.0	68.8	1.4	100.0
	5~10년 미만	(175)	12.6	14.3	8.6	0.6	0.0	63.4	0.6	100.0
	10년 이상	(203)	33.0	16.3	5.9	1.5	0.5	42.9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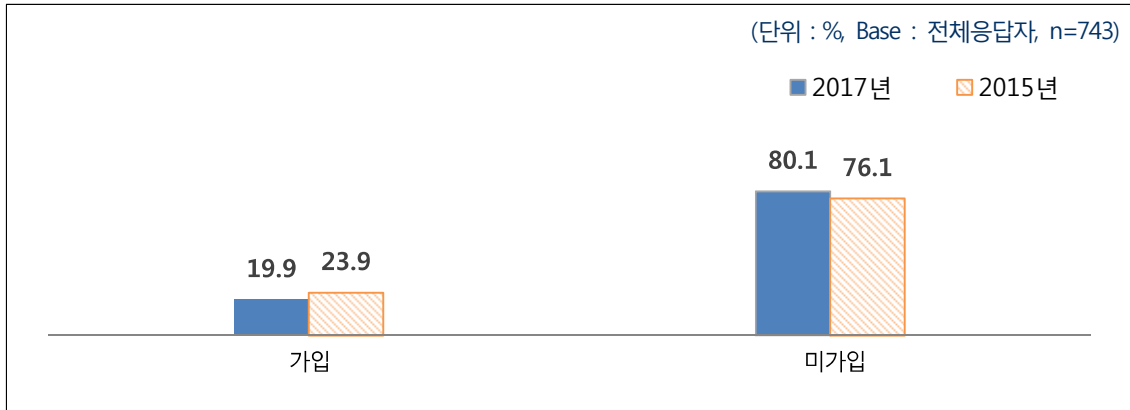
17) 본 문항은 조사 당시 시점으로 조사됨(부록3. 대중문화예술인 설문지 참고)



(3) 산재보험 가입현황<sup>18)</sup>

○ 현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19.9%, 미가입자가 80.1%로 나타남.  
 ※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비율은 ▽4.0%p 감소한 수준임.

<그림 3-3-37>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분야별로는 연주, 가창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산재보험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9> 응답자 특성별 산재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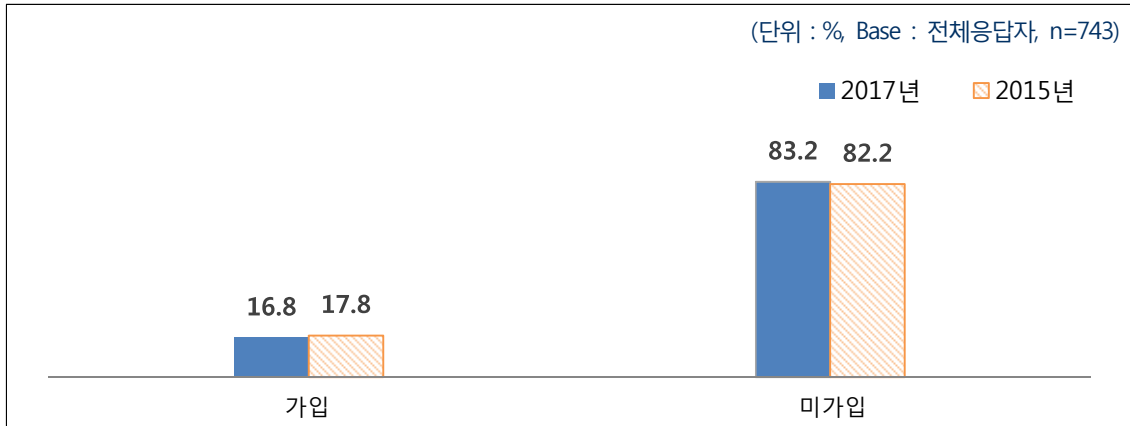
		사례수(명)	가입	미가입	계
<b>전체</b>		<b>(743)</b>	<b>19.9</b>	<b>80.1</b>	<b>100.0</b>
성별	남자	(449)	21.6	78.4	100.0
	여자	(294)	17.3	82.7	100.0
연령	20대 미만	(40)	25.0	75.0	100.0
	20대	(371)	19.9	80.1	100.0
	30대	(257)	18.3	81.7	100.0
	40대	(55)	14.5	85.5	100.0
	50대 이상	(20)	45.0	55.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14.4	85.6	100.0
	무용	(53)	18.9	81.1	100.0
	연주	(106)	25.5	74.5	100.0
	가창	(124)	23.4	76.6	100.0
	낭독	(50)	8.0	92.0	100.0
	기타	(215)	23.3	76.7	100.0
경력	3년 미만	(224)	18.3	81.7	100.0
	3~5년 미만	(141)	21.3	78.7	100.0
	5~10년 미만	(175)	20.0	80.0	100.0
	10년 이상	(203)	20.7	79.3	100.0

18) 본 문항은 조사 당시 시점으로 조사됨(부록3. 대중문화예술인 설문지 참고)

(4) 고용보험 가입현황<sup>19)</sup>

○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16.8%, 미가입자가 83.2%로 나타남.  
 ※ 2015년 조사결과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유사한 수준임.

<그림 3-3-38> 고용보험 가입 현황



- 분야별로는 연주, 가창, 기타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40> 응답자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사례수(명)	가입	미가입	계
<b>전체</b>		<b>(743)</b>	16.8	83.2	<b>100.0</b>
성별	남자	(449)	17.8	82.2	100.0
	여자	(294)	15.3	84.7	100.0
연령	20대 미만	(40)	2.5	97.5	100.0
	20대	(371)	14.3	85.7	100.0
	30대	(257)	19.1	80.9	100.0
	40대	(55)	27.3	72.7	100.0
	50대 이상	(20)	35.0	65.0	100.0
활동분야	연기	(195)	13.3	86.7	100.0
	무용	(53)	11.3	88.7	100.0
	연주	(106)	26.4	73.6	100.0
	가창	(124)	25.0	75.0	100.0
	낭독	(50)	10.0	90.0	100.0
	기타	(215)	13.5	86.5	100.0
경력	3년 미만	(224)	11.6	88.4	100.0
	3~5년 미만	(141)	14.2	85.8	100.0
	5~10년 미만	(175)	16.6	83.4	100.0
	10년 이상	(203)	24.6	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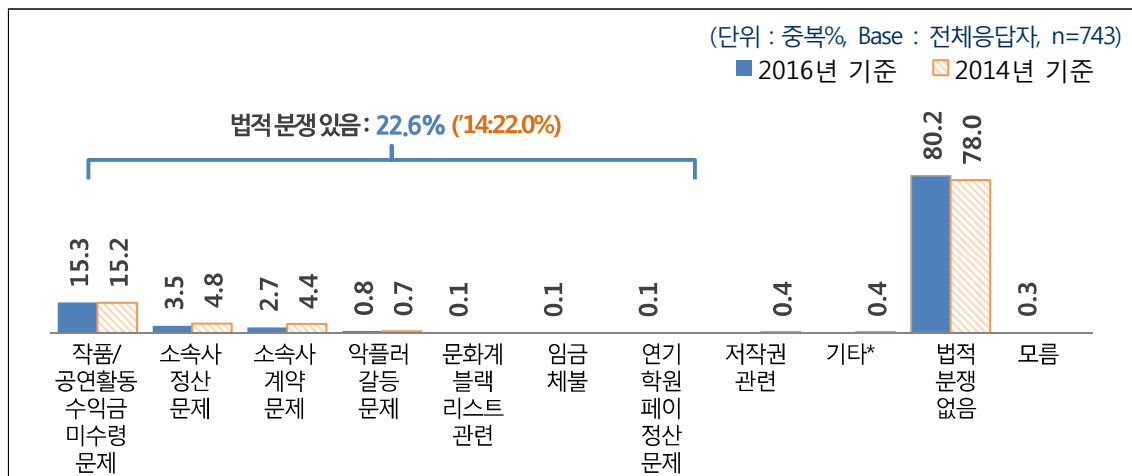
19) 본 문항은 조사 당시 시점으로 조사됨(부록3. 대중문화예술인 설문지 참고)

### 3. 기타 사항

#### 1) 최근 3년 내 법적 분쟁

- 최근 3년 내에 주체가 되었던 법적분쟁(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작품/공연 활동 수익금 미수령 문제'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3.5%),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적 분쟁 없음' 응답은 80.2%임.
- ※ 지난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임

<그림 3-3-39> 최근 3년(2014년~2016년)내에 주체가 되었던 법적분쟁(중복응답)



\* 기타에는 전임교수 사기, 경력도용, 퇴직금 관련, 교육 관련 등이 있음.

<표 3-3-41> 응답자 특성별 최근 3년(2014년~2016년)내에 주체가 되었던 법적분쟁(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작품/공연 활동 수익금 미수령	소속사와의 정산	소속사와의 계약	악플러와 갈등	문화계 블랙 리스트 관련	임금 체불	연기 학원페이 정산	법적 분쟁 없음	모름
<b>전체</b>		<b>(743)</b>	<b>15.3</b>	<b>3.5</b>	<b>2.7</b>	<b>0.8</b>	<b>0.1</b>	<b>0.1</b>	<b>0.1</b>	<b>80.2</b>	<b>0.3</b>
성별	남자	(449)	17.4	3.1	2.9	1.1	0.2	0.2	0.0	77.3	0.4
	여자	(294)	12.2	4.1	2.4	0.3	0.0	0.0	0.3	84.7	0.0
연령	20대 미만	(40)	0.0	2.5	2.5	0.0	0.0	0.0	0.0	95.0	2.5
	20대	(371)	13.5	3.8	3.5	1.1	0.0	0.0	0.0	81.9	0.0
	30대	(257)	19.8	3.9	1.6	0.4	0.4	0.0	0.4	77.0	0.0
	40대	(55)	18.2	1.8	3.6	0.0	0.0	1.8	0.0	74.5	0.0
	50대 이상	(20)	15.0	0.0	0.0	5.0	0.0	0.0	0.0	75.0	5.0
활동분야	연기	(195)	16.4	2.1	3.6	1.0	0.0	0.0	0.5	79.5	0.0
	무용	(53)	1.9	3.8	0.0	0.0	0.0	0.0	0.0	96.2	0.0
	연주	(106)	17.9	1.9	0.0	1.9	0.0	0.0	0.0	78.3	0.9
	가창	(124)	8.1	1.6	3.2	0.8	0.8	0.0	0.0	88.7	0.0
	낭독	(50)	22.0	2.0	0.0	0.0	0.0	2.0	0.0	76.0	0.0
	기타	(215)	19.1	7.0	4.2	0.5	0.0	0.0	0.0	74.0	0.5
경력	3년 미만	(224)	9.4	1.8	3.1	0.9	0.0	0.0	0.0	86.2	0.4
	3~5년 미만	(141)	14.2	4.3	2.1	0.0	0.0	0.0	0.0	84.4	0.0
	5~10년 미만	(175)	21.7	5.7	2.3	0.6	0.6	0.0	0.6	73.1	0.0
	10년 이상	(203)	17.2	3.0	3.0	1.5	0.0	0.5	0.0	76.8	0.5

2)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사항

○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으로는 '임금이 낮다'(8.9%), '(방송 및 공연 등)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5.9%),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3.1%), '생계유지가 힘들다/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3.0%)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3-3-42>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사항(중복응답)

no	기타 개선 희망사항	비율(%)
1	임금이 낮다	8.9
2	(방송 및 공연 등)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5.9
3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3.1
4	생계유지가 힘들다/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	3.0
5	임금 지급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다	2.3
6	공연 및 방송의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갔으면 한다	2.0
7	수익분배구조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1.7
8	신인 예술인들의 활동이 늘어났으면 한다	1.7
9	국가의 예술분야 지원이 늘었으면 한다	1.7
10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1.7
11	기본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1.6
12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했으면 한다	1.6
13	개그맨들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1.5
14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1.5
15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1.5
16	주연/메인 급과의 소득차이가 심하다	1.3
17	불합리한 음원유통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3
18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한다	1.3
19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1.2
20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늘었으면 한다	1.2
21	복지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1.2
22	대형기획사에 오디션 및 활동이 편중되어 있다	1.1
23	표준계약서가 정립되었으면 한다	1.1
24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1.1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1.0% 이상만 따로 제시함.(무응답 47.6%)

**\*참고- 주요 소속 협·단체(응답자 기준)**

&lt;표 3-3-43&gt; 주요 소속 협·단체(응답자 기준)

no	소속 주요 협·단체
1	한국실연자협회
2	코미디언협회
3	한국성우협회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5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6	저작권협회
7	방송연기자노동조합
8	서울연극협회
9	한국방송연기자협회
10	방송실연자협회
11	한국저작권협회
12	성우극회
13	예술인복지재단
14	연예인협회
15	한국예술인협회

제4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응답자(표본) 특성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62.1%, '여성'이 37.9%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3.9%로 가장 많았음.
- '성', '연령', '주요 활동 분야' 등은 전체 항목에 대한 분석 단위로 활용됨.

<표 3-4-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응답자(표본) 특성표

(단위 : 명, %)

구분			표본 구성비		
			사례수(명)	비중(%)	
<b>전체</b>			<b>(319)</b>	<b>100.0</b>	
성별	남자		(198)	62.1	
	여자		(121)	37.9	
연령별	20대		(121)	37.9	
	30대		(140)	43.9	
	40대		(53)	16.6	
	50대		(5)	1.6	
주요 활동 분야* (대/소분류)	기획	기획/제작	(19)	6.0	
		연출	(18)	5.6	
		홍보 마케팅	(7)	2.2	
		구성 작가	(8)	2.5	
	촬영	촬영	(18)	5.6	
		조명	(23)	7.2	
		특수효과	(8)	2.5	
		그립	(8)	2.5	
	미술	미술	(21)	6.6	
		의상	(10)	3.1	
		(특수)분장	(10)	3.1	
		소품	(10)	3.1	
	음향	동시 녹음	(20)	6.3	
		음향	(18)	5.6	
		음악	(12)	3.8	
	편집	편집	(25)	7.8	
		특수영상 (시각특수효과)	(15)	4.7	
		DI(디지털 색보정)	(10)	3.1	
	기타	보조연기자		(59)	18.5

\* 주요 활동 분야(대분류)는 주요 활동 분야(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함. 또한, 종사자 분야(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 각 분야별로 표본 수를 임의 할당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이를 반영한 표본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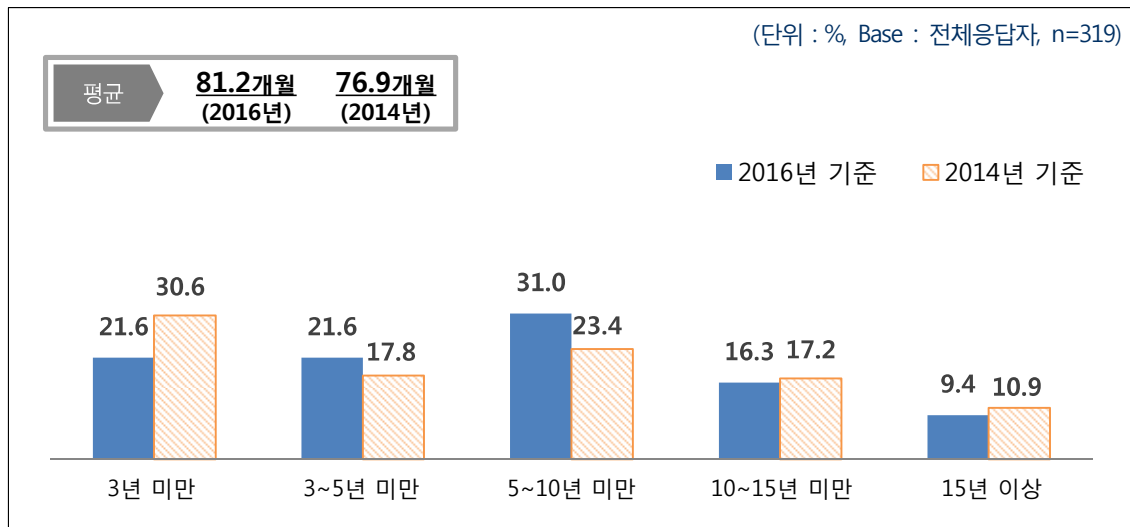
## 1. 대중문화예술 관련 직업 활동

## 1) 직업 활동

## (1) 해당 분야 총 활동 경력

- 전체 응답자의 '총 활동 경력 평균'은 81.2개월(대략 6년 9개월)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5~10년 미만'이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5년 미만'과 '3년 미만'이 각각 21.6%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해당분야 총 활동경력은 '3년 미만'(▽9.0%p)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10년 미만'은 ▲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4-1&gt;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lt;표 3-4-2&gt; 응답자 특성별 해당분야 총 활동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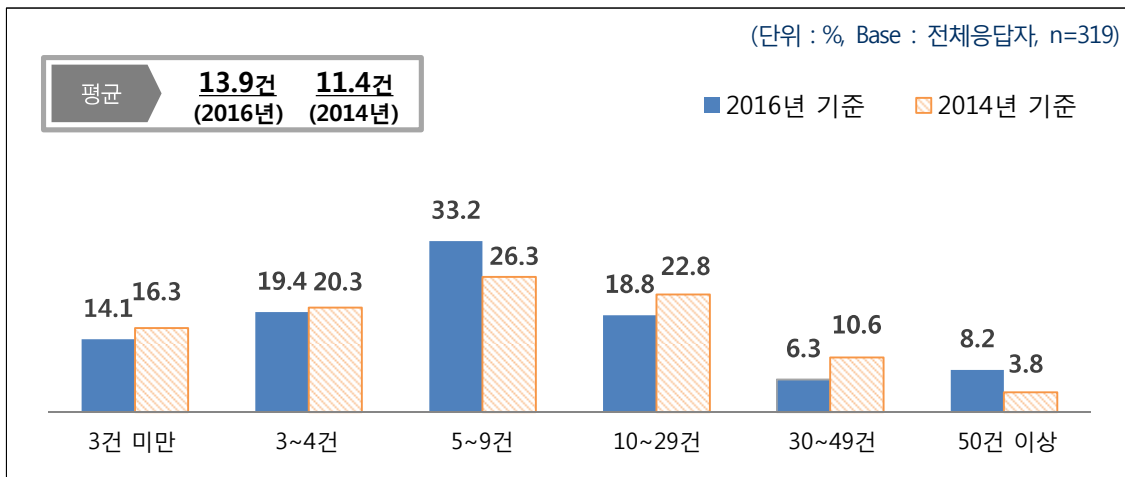
(단위 : %, 개월)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평균 : 개월]
<b>전체</b>		<b>(319)</b>	<b>21.6</b>	<b>21.6</b>	<b>31.0</b>	<b>16.3</b>	<b>9.4</b>	<b>100.0</b>	<b>81.2</b>
성별	남자	(198)	20.7	18.2	31.3	18.7	11.1	100.0	87.7
	여자	(121)	23.1	27.3	30.6	12.4	6.6	100.0	70.7
연령	20대	(121)	40.5	37.2	22.3	0.0	0.0	100.0	41.6
	30대	(140)	7.1	9.3	43.6	29.3	10.7	100.0	103.7
	40대	(53)	17.0	18.9	17.0	20.8	26.4	100.0	111.2
	50대	(5)	20.0	20.0	40.0	0.0	20.0	100.0	94.2
활동분야	기획	(52)	9.6	17.3	34.6	28.8	9.6	100.0	97.4
	촬영	(57)	22.8	7.0	29.8	26.3	14.0	100.0	97.8
	미술	(51)	17.6	27.5	35.3	11.8	7.8	100.0	78.9
	음향	(50)	26.0	22.0	26.0	16.0	10.0	100.0	82.8
	편집	(50)	16.0	26.0	40.0	8.0	10.0	100.0	78.4
	기타	(59)	35.6	30.5	22.0	6.8	5.1	100.0	53.9

(2) 참여 작품 수

- 평균 참여 작품 수는 13.9건으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5~9건'이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4건'(19.4%), '10~29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해 보면, 평균 참여 건수는 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5~9건'(▲6.9%p)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3-4-2> 참여 작품 수



- 분야별로 (기타를 제외한) 음향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균 참여 작품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 응답자 특성별 참여 작품 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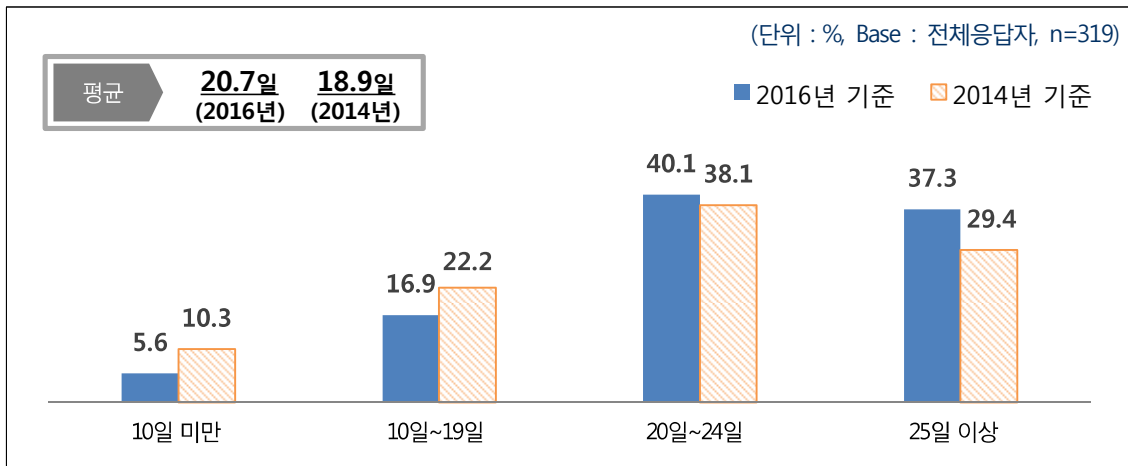
		사례수	3건 미만	3~4건	5~9건	10~29건	30~49건	50건 이상	계	[평균: 건]
전체		(319)	14.1	19.4	33.2	18.8	6.3	8.2	100.0	13.9
성별	남자	(198)	15.7	18.2	30.8	18.2	7.6	9.6	100.0	15.2
	여자	(121)	11.6	21.5	37.2	19.8	4.1	5.8	100.0	11.8
연령	20대	(121)	8.3	25.6	43.8	16.5	3.3	2.5	100.0	9.7
	30대	(140)	17.9	17.9	35.0	17.1	5.0	7.1	100.0	12.6
	40대	(53)	18.9	11.3	7.5	26.4	15.1	20.8	100.0	24.4
	50대	(5)	0.0	0.0	0.0	40.0	20.0	40.0	100.0	41.8
활동분야	기획	(52)	48.1	32.7	11.5	5.8	1.9	0.0	100.0	4.4
	촬영	(57)	14.0	31.6	31.6	15.8	3.5	3.5	100.0	9.5
	미술	(51)	5.9	33.3	60.8	0.0	0.0	0.0	100.0	4.8
	음향	(50)	6.0	10.0	44.0	18.0	6.0	16.0	100.0	21.3
	편집	(50)	2.0	8.0	50.0	38.0	0.0	2.0	100.0	10.7
	기타	(59)	8.5	1.7	6.8	33.9	23.7	25.4	100.0	30.9
경력	3년 미만	(69)	14.5	14.5	34.8	17.4	7.2	11.6	100.0	17.9
	3~5년 미만	(69)	2.9	23.2	39.1	13.0	8.7	13.0	100.0	16.3
	5~10년 미만	(99)	13.1	19.2	33.3	26.3	4.0	4.0	100.0	11.6
	10년 이상	(82)	24.4	20.7	26.8	15.9	6.1	6.1	100.0	11.4



(3)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 한 달 평균 근로 일수를 살펴보면 평균 20.7일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0.1%가 '20-24일' 일한다고 응답했으며, '25일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는 37.3%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해보면, 한 달 평균 근로 일수는 1.8일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10~19일' 비율이 ▽5.3%p 하락한 반면, '25일 이상'(▲7.9%p)은 증가함.

<그림 3-4-3>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미술 및 편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표 3-4-4> 응답자 특성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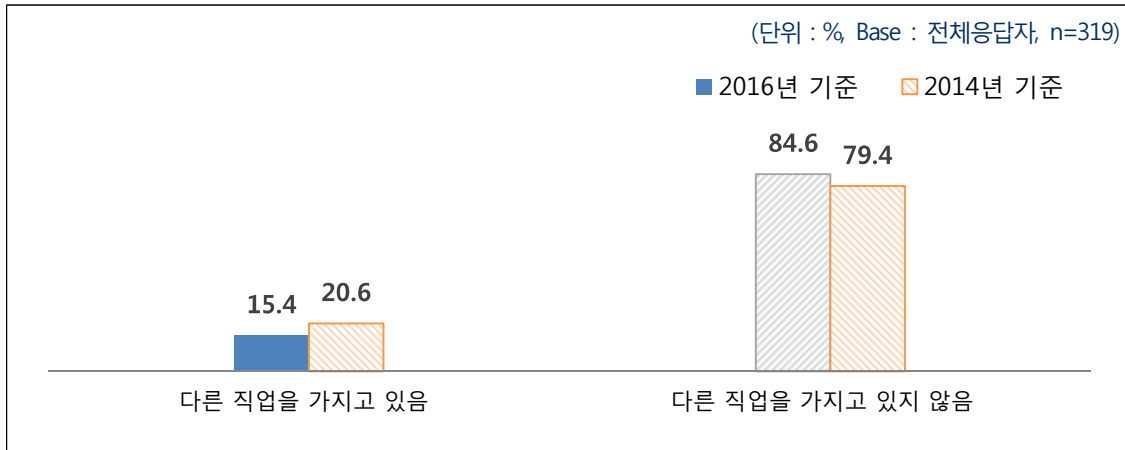
(단위 : %, 일)

		사례수	10일 미만	10일~19일	20일~24일	25일 이상	계	[평균: 일]
<b>전체</b>		<b>(319)</b>	<b>5.6</b>	<b>16.9</b>	<b>40.1</b>	<b>37.3</b>	<b>100.0</b>	<b>20.7</b>
성별	남자	(198)	4.5	20.2	42.9	32.3	100.0	20.3
	여자	(121)	7.4	11.6	35.5	45.5	100.0	21.4
연령	20대	(121)	7.4	6.6	39.7	46.3	100.0	21.8
	30대	(140)	3.6	14.3	45.0	37.1	100.0	21.3
	40대	(53)	7.5	43.4	28.3	20.8	100.0	16.9
	50대	(5)	0.0	60.0	40.0	0.0	100.0	16.4
활동분야	기획	(52)	7.7	5.8	50.0	36.5	100.0	20.9
	촬영	(57)	1.8	26.3	52.6	19.3	100.0	20.0
	미술	(51)	0.0	2.0	41.2	56.9	100.0	24.5
	음향	(50)	8.0	10.0	48.0	34.0	100.0	21.0
	편집	(50)	2.0	2.0	26.0	70.0	100.0	24.1
	기타	(59)	13.6	49.2	23.7	13.6	100.0	14.8
경력	3년 미만	(69)	11.6	21.7	29.0	37.7	100.0	19.1
	3~5년 미만	(69)	5.8	10.1	42.0	42.0	100.0	21.5
	5~10년 미만	(99)	2.0	17.2	41.4	39.4	100.0	21.5
	10년 이상	(82)	4.9	18.3	46.3	30.5	100.0	20.5

(4)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 여부

○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15.4%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5.2%p 감소한 수준임.

<그림 3-4-4>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 여부



- (기타 제외)'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음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5>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 직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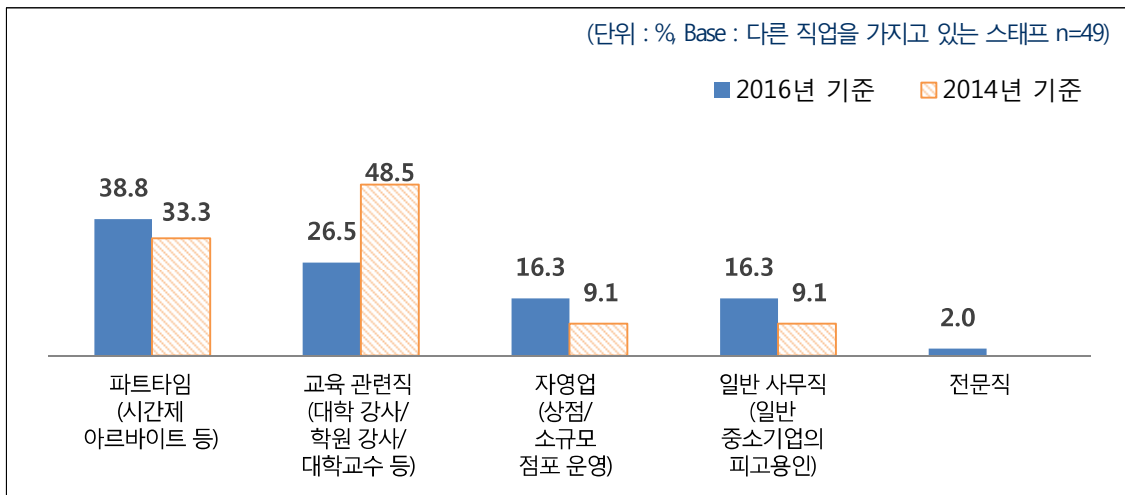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음	계
<b>전체</b>		<b>(319)</b>	<b>15.4</b>	<b>84.6</b>	<b>100.0</b>
성별	남자	(198)	11.6	88.4	100.0
	여자	(121)	21.5	78.5	100.0
연령	20대	(121)	14.0	86.0	100.0
	30대	(140)	12.1	87.9	100.0
	40대	(53)	26.4	73.6	100.0
	50대	(5)	20.0	8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15.4	84.6	100.0
	촬영	(57)	10.5	89.5	100.0
	미술	(51)	13.7	86.3	100.0
	음향	(50)	22.0	78.0	100.0
	편집	(50)	4.0	96.0	100.0
	기타	(59)	25.4	74.6	100.0
경력	3년 미만	(69)	17.4	82.6	100.0
	3~5년 미만	(69)	13.0	87.0	100.0
	5~10년 미만	(99)	14.1	85.9	100.0
	10년 이상	(82)	17.1	82.9	100.0

(5) 직업 활동 종류

- 다른 직업 활동 종류를 살펴보면, '파트타임(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이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 관련직(대학 강사/학원 강사/대학교수 등)'(26.5%), '자영업(상점/소규모 점포 운영)'(16.3%), '일반사무직(일반중소기업의 피고용인)'(16.3%) 순임.
- ※ 2014년에 비해 '교육 관련직'(▽22.0%p)의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 '자영업'과 '일반 사무직'은 각각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문직'은 ▲2.0%p로 신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5> 직업 활동 종류



<표 3-4-6> 응답자 특성별 직업 활동 종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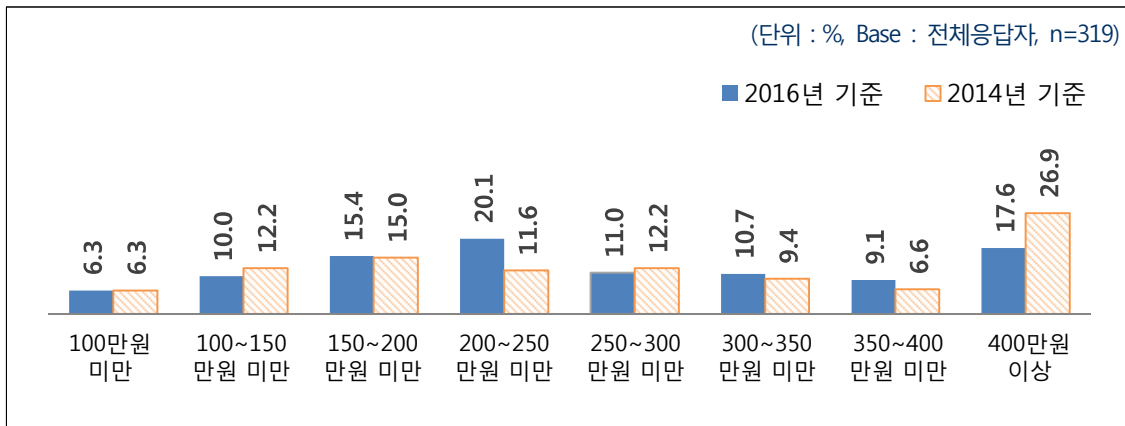
		사례수 (명)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교육 관련직 (대학 강사, 학원 강사, 대학 교수 등)	자영업 (상점, 소규모 점포 운영)	일반 사무직 (일반 중소기업의 피고용인)	전문직	계
<b>전체</b>		<b>(49)</b>	<b>38.8</b>	<b>26.5</b>	<b>16.3</b>	<b>16.3</b>	<b>2.0</b>	<b>100.0</b>
성별	남자	(23)	34.8	21.7	26.1	17.4	0.0	100.0
	여자	(26)	42.3	30.8	7.7	15.4	3.8	100.0
연령	20대	(17)	64.7	23.5	0.0	11.8	0.0	100.0
	30대	(17)	35.3	29.4	23.5	11.8	0.0	100.0
	40대	(14)	7.1	28.6	28.6	28.6	7.1	100.0
	50대	(1)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8)	50.0	25.0	0.0	25.0	0.0	100.0
활동분야	촬영	(6)	50.0	16.7	33.3	0.0	0.0	100.0
	미술	(7)	71.4	14.3	14.3	0.0	0.0	100.0
	음향	(11)	18.2	54.5	18.2	9.1	0.0	100.0
	편집	(2)	0.0	100.0	0.0	0.0	0.0	100.0
	기타	(15)	33.3	6.7	20.0	33.3	6.7	100.0
	경력	3년 미만	(12)	41.7	16.7	0.0	41.7	0.0
3~5년 미만	(9)	66.7	11.1	0.0	22.2	0.0	100.0	
5~10년 미만	(14)	35.7	42.9	14.3	0.0	7.1	100.0	
10년 이상	(14)	21.4	28.6	42.9	7.1	0.0	100.0	

2) 소득 현황

(1) 월평균 가구 소득

-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200~250만원 미만'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0만원 이상'(17.6%), '150~200만원 미만'(15.4%), '250~300만원 미만'(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400만원 이상'(▽9.3%p)의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 '200~250만원 미만'은 ▲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6> 월평균 가구 소득



- 분야별로 기획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7>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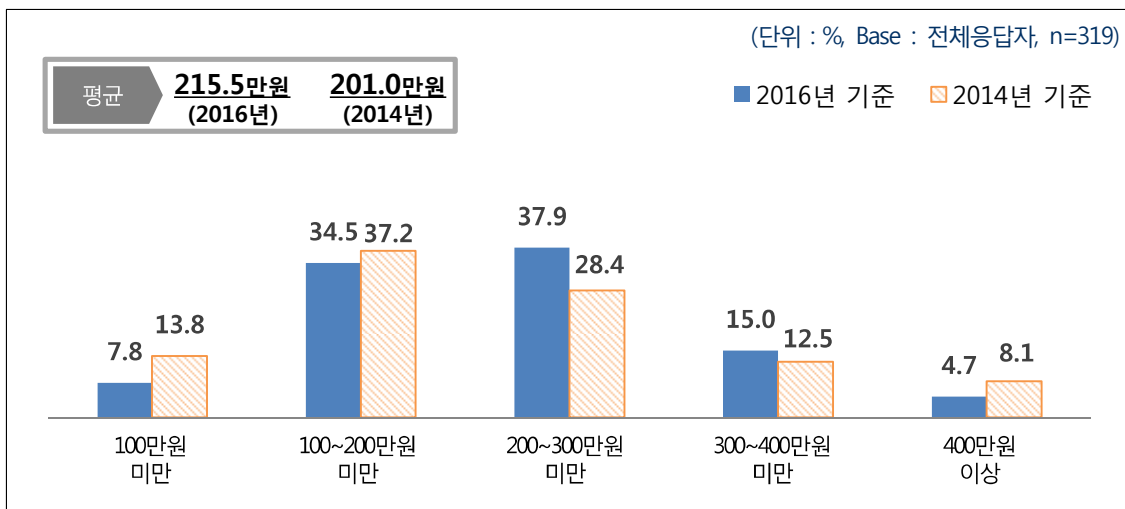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350만원 미만	35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b>전체</b>		<b>(319)</b>	<b>6.3</b>	<b>10.0</b>	<b>15.4</b>	<b>20.1</b>	<b>11.0</b>	<b>10.7</b>	<b>9.1</b>	<b>17.6</b>	<b>100.0</b>
성별	남자	(198)	8.6	9.6	13.1	18.7	10.6	11.6	10.1	17.7	100.0
	여자	(121)	2.5	10.7	19.0	22.3	11.6	9.1	7.4	17.4	100.0
연령	20대	(121)	4.1	9.9	25.6	30.6	7.4	4.1	4.1	14.0	100.0
	30대	(140)	4.3	7.1	10.7	17.1	17.9	16.4	12.1	14.3	100.0
	40대	(53)	17.0	15.1	5.7	3.8	1.9	11.3	13.2	32.1	100.0
	50대	(5)	0.0	40.0	0.0	20.0	0.0	0.0	0.0	4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5.8	5.8	11.5	17.3	9.6	11.5	15.4	23.1	100.0
	촬영	(57)	1.8	8.8	10.5	15.8	14.0	15.8	10.5	22.8	100.0
	미술	(51)	0.0	5.9	23.5	35.3	11.8	7.8	5.9	9.8	100.0
	음향	(50)	0.0	6.0	14.0	22.0	12.0	14.0	12.0	20.0	100.0
	편집	(50)	2.0	2.0	16.0	28.0	20.0	10.0	8.0	14.0	100.0
	기타	(59)	25.4	28.8	16.9	5.1	0.0	5.1	3.4	15.3	100.0
경력	3년 미만	(69)	8.7	20.3	30.4	7.2	2.9	7.2	2.9	20.3	100.0
	3~5년 미만	(69)	5.8	8.7	21.7	37.7	5.8	4.3	2.9	13.0	100.0
	5~10년 미만	(99)	8.1	6.1	9.1	27.3	21.2	6.1	6.1	16.2	100.0
	10년 이상	(82)	2.4	7.3	4.9	7.3	9.8	24.4	23.2	20.7	100.0

(2) 월평균 개인 소득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평균 215.5만원임.
-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이 3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 미만'(34.5%), '300~400만원 미만'(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200~300만원 미만'의 증가폭이 ▲9.5%p로 가장 큰 반면, '100만원 미만'은 ▼6.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7> 월평균 개인 소득



- 분야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촬영 분야에서 월평균 개인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8>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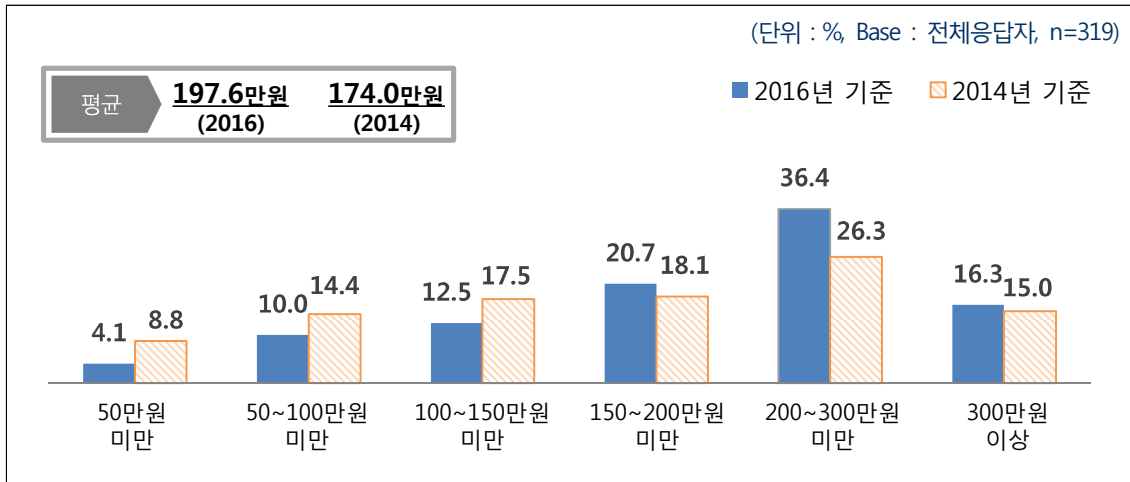
		사례수 (명)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평균: 만원]
<b>전체</b>		<b>(319)</b>	<b>7.8</b>	<b>34.5</b>	<b>37.9</b>	<b>15.0</b>	<b>4.7</b>	<b>100.0</b>	<b>215.5</b>
성별	남자	(198)	9.6	29.8	37.4	17.2	6.1	100.0	221.9
	여자	(121)	5.0	42.1	38.8	11.6	2.5	100.0	205.0
연령	20대	(121)	8.3	47.9	41.3	2.5	0.0	100.0	180.5
	30대	(140)	4.3	22.1	44.3	23.6	5.7	100.0	241.2
	40대	(53)	17.0	32.1	17.0	22.6	11.3	100.0	230.3
	50대	(5)	0.0	80.0	0.0	0.0	20.0	100.0	182.0
활동분야	기획	(52)	5.8	30.8	34.6	25.0	3.8	100.0	223.9
	촬영	(57)	1.8	29.8	38.6	21.1	8.8	100.0	240.7
	미술	(51)	3.9	29.4	47.1	13.7	5.9	100.0	234.5
	음향	(50)	2.0	32.0	44.0	14.0	8.0	100.0	238.0
	편집	(50)	4.0	22.0	58.0	16.0	0.0	100.0	228.0
	기타	(59)	27.1	59.3	10.2	1.7	1.7	100.0	137.3
경력	3년 미만	(69)	13.0	63.8	20.3	2.9	0.0	100.0	152.2
	3~5년 미만	(69)	7.2	44.9	44.9	1.4	1.4	100.0	188.9
	5~10년 미만	(99)	9.1	19.2	57.6	10.1	4.0	100.0	221.2
	10년 이상	(82)	2.4	19.5	23.2	42.7	12.2	100.0	284.0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3)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 2016년 기준 대중문화제작물스태프의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평균은 197.6만원으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이 36.4%, 그 다음은 '150~200만원 미만'(20.7%), '300만원 이상'(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200~300만원 미만'(▲10.1%p)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50~100만원 미만'(▽4.4%p)과 '100~150만원 미만'(▽5.0%p)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8>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은 촬영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9>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단위: %, 만원)

		사례수 (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평균: 만원]
<b>전체</b>		<b>(319)</b>	4.1	10.0	12.5	20.7	36.4	16.3	100.0	197.6
성별	남자	(198)	4.0	10.1	11.1	17.7	38.4	18.7	100.0	204.5
	여자	(121)	4.1	9.9	14.9	25.6	33.1	12.4	100.0	186.3
연령	20대	(121)	7.4	9.1	9.9	33.9	37.2	2.5	100.0	167.5
	30대	(140)	1.4	6.4	8.6	13.6	44.3	25.7	100.0	227.6
	40대	(53)	3.8	20.8	26.4	9.4	17.0	22.6	100.0	189.7
	50대	(5)	0.0	20.0	40.0	20.0	0.0	20.0	100.0	168.0
활동분야	기획	(52)	3.8	9.6	9.6	17.3	34.6	25.0	100.0	209.7
	촬영	(57)	1.8	3.5	10.5	21.1	36.8	26.3	100.0	228.8
	미술	(51)	2.0	3.9	3.9	27.5	45.1	17.6	100.0	224.3
	음향	(50)	8.0	6.0	10.0	14.0	46.0	16.0	100.0	203.6
	편집	(50)	2.0	2.0	4.0	22.0	56.0	14.0	100.0	221.0
	기타	(59)	6.8	32.2	33.9	22.0	5.1	0.0	100.0	108.6
경력	3년 미만	(69)	10.1	15.9	20.3	36.2	14.5	2.9	100.0	135.7
	3~5년 미만	(69)	4.3	10.1	13.0	31.9	39.1	1.4	100.0	167.3
	5~10년 미만	(99)	2.0	10.1	11.1	10.1	54.5	12.1	100.0	207.4
	10년 이상	(82)	1.2	4.9	7.3	11.0	30.5	45.1	100.0	263.2

\* 소득 및 비용 등은 극단치 때문에 중앙값(median)을 주로 이용함.

## 2. 고용환경 및 근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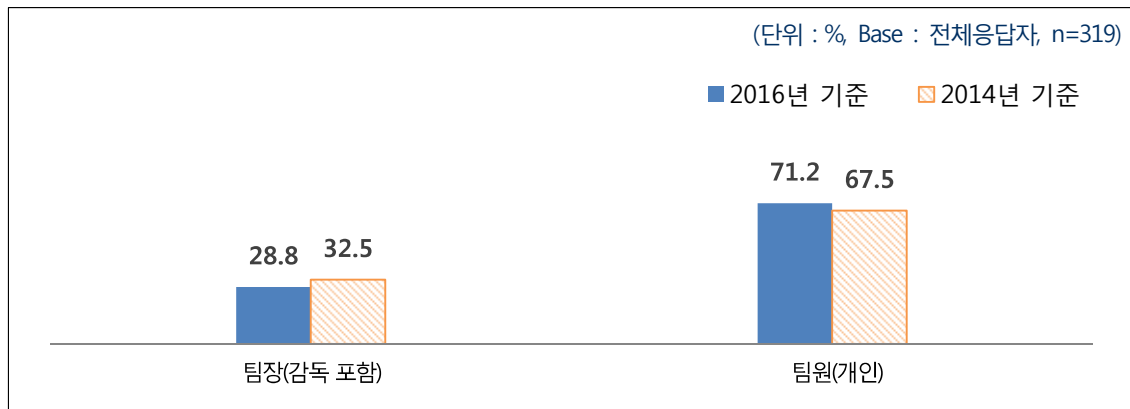
## 1) 고용현황

## (1) 직급

○ 직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8.8%는 팀장(감독 포함)이고 71.2%는 '팀원(개인)'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팀장(감독 포함)'은  $\nabla 3.7\%p$  감소함.

&lt;그림 3-4-9&gt; 직급



&lt;표 3-4-10&gt; 응답자 특성별 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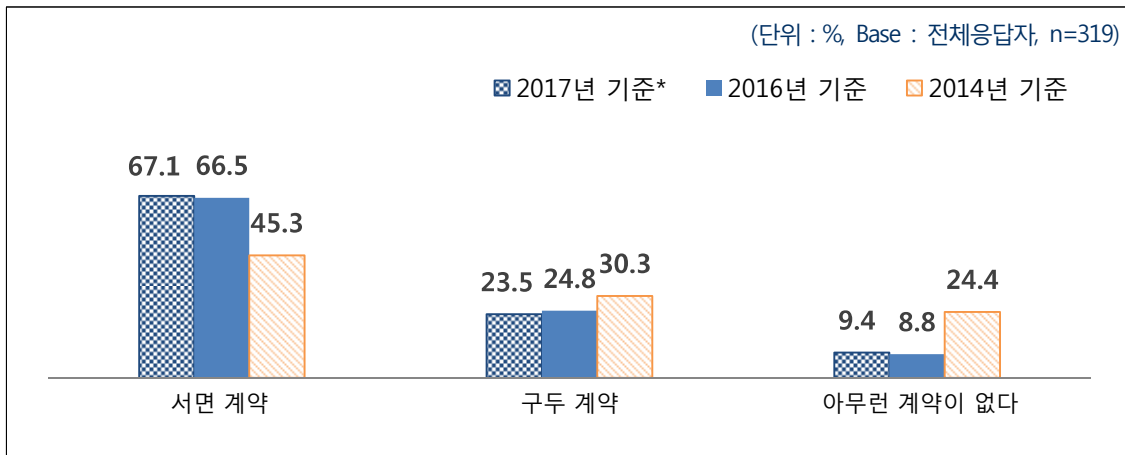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팀장(감독 포함)	팀원(개인)	계
<b>전체</b>		<b>(319)</b>	<b>28.8</b>	<b>71.2</b>	<b>100.0</b>
성별	남자	(198)	31.8	68.2	100.0
	여자	(121)	24.0	76.0	100.0
연령	20대	(121)	4.1	95.9	100.0
	30대	(140)	47.9	52.1	100.0
	40대	(53)	35.8	64.2	100.0
	50대	(5)	20.0	8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51.9	48.1	100.0
	촬영	(57)	40.4	59.6	100.0
	미술	(51)	31.4	68.6	100.0
	음향	(50)	26.0	74.0	100.0
	편집	(50)	24.0	76.0	100.0
	기타	(59)	1.7	98.3	100.0
경력	3년 미만	(69)	4.3	95.7	100.0
	3~5년 미만	(69)	1.4	98.6	100.0
	5~10년 미만	(99)	23.2	76.8	100.0
	10년 이상	(82)	79.3	20.7	100.0

(2) 계약 형태

- 2016년 기준으로 작품 활동 시 주로 계약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서면계약'은 66.5%로 나타난 반면, '아무런 계약이 없다'는 8.8%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서면 계약' 비율도 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약간 상승한 67.1%임.
- ※ 2014년 대비 2016년 '서면 계약' 비율이 큰 폭(▲21.2%p)으로 증가함.

<그림 3-4-10> 계약 형태



\* 본 문항은 2016년 기준과 2017년 기준 2개 문항을 각각 구성하여 별도로 질문한 결과임.

- 분야별로 기획 분야에서 '서면계약'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구두 계약'은 편집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11> 응답자 특성별 계약 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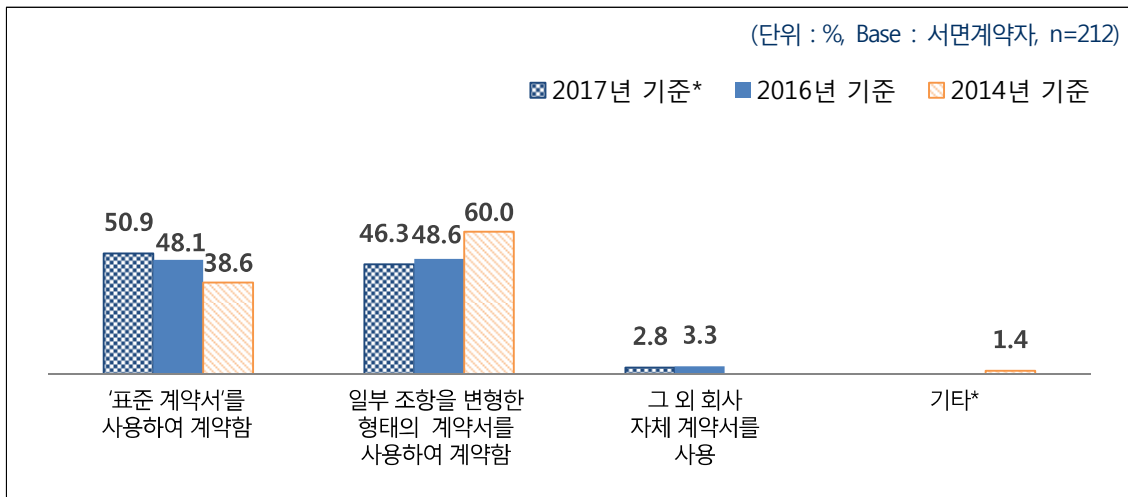
	사례수 (명)	2017년 기준			2016년 기준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아무런 계약이 없다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아무런 계약이 없다	
<b>전체</b>	<b>(319)</b>	<b>67.1</b>	<b>23.5</b>	<b>9.4</b>	<b>66.5</b>	<b>24.8</b>	<b>8.8</b>	
성별	남자	(198)	69.2	20.2	10.6	67.2	22.7	10.1
	여자	(121)	63.6	28.9	7.4	65.3	28.1	6.6
연령	20대	(121)	58.7	30.6	10.7	59.5	29.8	10.7
	30대	(140)	72.1	17.9	10.0	72.9	19.3	7.9
	40대	(53)	71.7	22.6	5.7	64.2	28.3	7.5
	50대	(5)	80.0	20.0	0.0	80.0	20.0	0.0
활동분야	기획	(52)	80.8	9.6	9.6	80.8	7.7	11.5
	촬영	(57)	71.9	12.3	15.8	73.7	15.8	10.5
	미술	(51)	66.7	29.4	3.9	62.7	35.3	2.0
	음향	(50)	66.0	24.0	10.0	66.0	20.0	14.0
	편집	(50)	52.0	46.0	2.0	58.0	42.0	0.0
	기타	(59)	64.4	22.0	13.6	57.6	28.8	13.6
경력	3년 미만	(69)	60.9	29.0	10.1	56.5	31.9	11.6
	3~5년 미만	(69)	55.1	34.8	10.1	56.5	33.3	10.1
	5~10년 미만	(99)	66.7	24.2	9.1	66.7	25.3	8.1
	10년 이상	(82)	82.9	8.5	8.5	82.9	11.0	6.1



**(3) 계약서 유형**

- 서면 계약으로 계약 시, 계약서 유형으로는 '일부 조항을 변형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이 48.6%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이 48.1%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016년에 이어 50.9%로 상승하여, '일부조항 변형 계약서'(46.3%)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 2014년 대비 2016년 '표준 계약서 사용 계약' 비율은 ▲9.5%p 증가함.

<그림 3-4-11> 계약서 유형



\* 기타에는 작품마다 다르다는 응답이 있음.

\* 본 문항은 2016년 기준과 2017년 기준 2개 문항을 각각 구성하여 별도로 질문한 결과임.

<표 3-4-12> 응답자 특성별 계약서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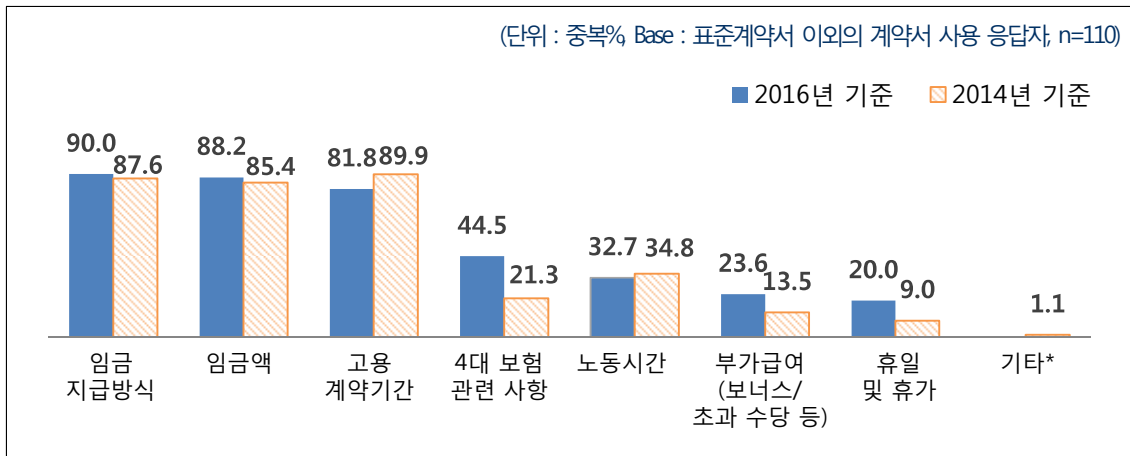
		2017년 기준				2016년 기준			
		사례수 (명)	표준 계약서 사용	일부 조항 변형 계약서 사용	그 외 회사 자체 계약서 사용	사례수 (명)	표준 계약서 사용	일부 조항 변형 계약서 사용	그 외 회사 자체 계약서 사용
<b>전체</b>		<b>(214)</b>	<b>50.9</b>	<b>46.3</b>	<b>2.8</b>	<b>(212)</b>	<b>48.1</b>	<b>48.6</b>	<b>3.3</b>
성별	남자	(137)	46.0	51.1	2.9	(133)	44.4	52.6	3.0
	여자	(77)	59.7	37.7	2.6	(79)	54.4	41.8	3.8
연령	20대	(71)	63.4	35.2	1.4	(72)	59.7	37.5	2.8
	30대	(101)	41.6	54.5	4.0	(102)	37.3	58.8	3.9
	40대	(38)	47.4	50.0	2.6	(34)	50.0	47.1	2.9
	50대	(4)	100.0	0.0	0.0	(4)	100.0	0.0	0.0
활동분야	기획	(42)	57.1	40.5	2.4	(42)	52.4	42.9	4.8
	촬영	(41)	43.9	56.1	0.0	(42)	33.3	66.7	0.0
	미술	(34)	67.6	29.4	2.9	(32)	75.0	21.9	3.1
	음향	(33)	51.5	42.4	6.1	(33)	54.5	39.4	6.1
	편집	(26)	23.1	76.9	0.0	(29)	20.7	79.3	0.0
	기타	(38)	55.3	39.5	5.3	(34)	52.9	41.2	5.9
경력	3년 미만	(42)	57.1	40.5	2.4	(39)	53.8	43.6	2.6
	3~5년 미만	(38)	71.1	28.9	0.0	(39)	64.1	30.8	5.1
	5~10년 미만	(66)	51.5	45.5	3.0	(66)	50.0	47.0	3.0
	10년 이상	(68)	35.3	60.3	4.4	(68)	33.8	63.2	2.9

(4) 체결 계약서 내용

○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지급방식'(중복응답)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액'(88.2%), '고용 계약기간'(81.8%), '4대 보험관련 사항'(4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과 비교해보면, '4대 보험 관련 사항'이 ▲23.2%p로 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고용 계약기간'은 ▽8.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2> 체결 계약서 내용(중복응답)



\* 기타에는 계약 관련 세부사항(작품명/집합 장소 등)이 있음.

<표 3-4-13> 응답자 특성별 체결 계약서 내용(중복응답)

(단위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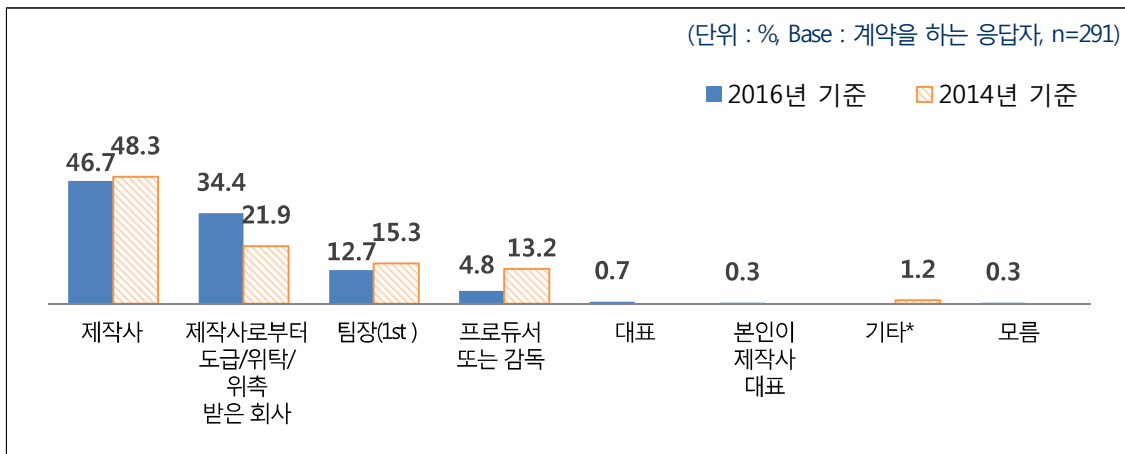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임금 지급방식	임금액	고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관련 사항	노동시간	부가급여 (보너스, 초과수당 등)	휴일 및 휴가
<b>전체</b>		<b>(110)</b>	<b>90.0</b>	<b>88.2</b>	<b>81.8</b>	<b>44.5</b>	<b>32.7</b>	<b>23.6</b>	<b>20.0</b>
성별	남자	(74)	89.2	86.5	81.1	45.9	32.4	20.3	20.3
	여자	(36)	91.7	91.7	83.3	41.7	33.3	30.6	19.4
연령	20대	(29)	89.7	96.6	72.4	55.2	55.2	27.6	34.5
	30대	(64)	87.5	90.6	92.2	46.9	25.0	18.8	17.2
	40대	(17)	100.0	64.7	58.8	17.6	23.5	35.3	5.9
활동분야	기획	(20)	80.0	95.0	90.0	35.0	30.0	30.0	10.0
	촬영	(28)	85.7	92.9	92.9	46.4	32.1	10.7	14.3
	미술	(8)	100.0	87.5	100.0	12.5	25.0	25.0	25.0
	음향	(15)	93.3	93.3	66.7	60.0	33.3	20.0	26.7
	편집	(23)	91.3	95.7	82.6	78.3	21.7	21.7	34.8
	기타	(16)	100.0	56.3	56.3	6.3	56.3	43.8	12.5
경력	3년 미만	(18)	83.3	83.3	77.8	38.9	50.0	38.9	27.8
	3~5년 미만	(14)	100.0	92.9	78.6	64.3	64.3	35.7	50.0
	5~10년 미만	(33)	93.9	84.8	72.7	45.5	36.4	18.2	21.2
	10년 이상	(45)	86.7	91.1	91.1	40.0	13.3	17.8	6.7

(5) 주 계약 상대

○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을 한다는 응답자(n=291)를 대상으로 주된 계약상대를 살펴 보면, '제작사'가 4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 받은 회사'(34.4%), '팀장(1st)'(12.7%), '프로듀서 또는 감독'(4.8%)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 받은 회사'가 ▲12.5%p 상승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프로듀서 또는 감독'은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3> 주 계약 상대



\* 기타에는 프로젝트마다 다른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 주계약 상대가 '제작사'인 경우는 기획 및 촬영분야에서,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 받은 회사'인 경우는 편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14> 응답자 특성별 주 계약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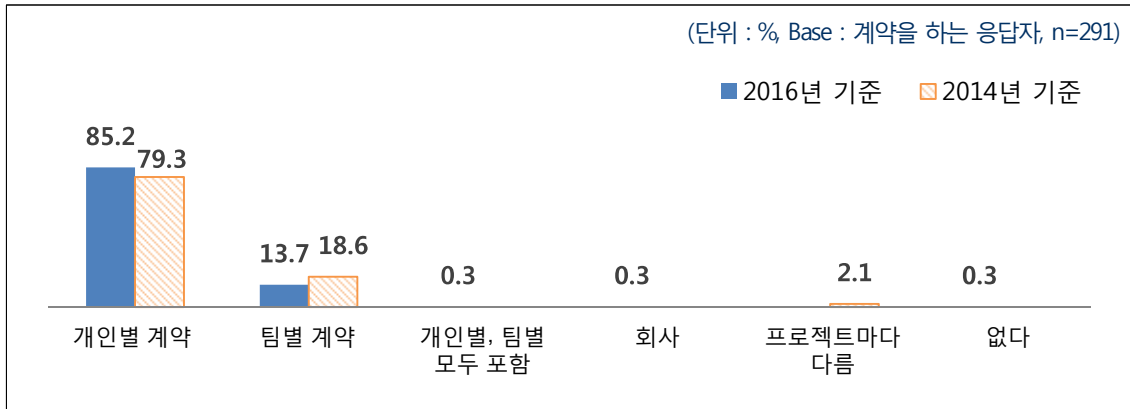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제작사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 받은 회사	팀장 (1st)	프로듀서 또는 감독	대표	본인이 제작사 대표	모름	계
<b>전체</b>		<b>(291)</b>	<b>46.7</b>	<b>34.4</b>	<b>12.7</b>	<b>4.8</b>	<b>0.7</b>	<b>0.3</b>	<b>0.3</b>	<b>100.0</b>
성별	남자	(178)	50.6	27.5	15.7	5.1	0.6	0.6	0.0	100.0
	여자	(113)	40.7	45.1	8.0	4.4	0.9	0.0	0.9	100.0
연령	20대	(108)	41.7	39.8	12.0	4.6	1.9	0.0	0.0	100.0
	30대	(129)	57.4	28.7	7.0	7.0	0.0	0.0	0.0	100.0
	40대	(49)	32.7	32.7	30.6	0.0	0.0	2.0	2.0	100.0
	50대	(5)	20.0	80.0	0.0	0.0	0.0	0.0	0.0	100.0
활동분야	기획	(46)	87.0	10.9	0.0	0.0	0.0	2.2	0.0	100.0
	촬영	(51)	76.5	3.9	17.6	2.0	0.0	0.0	0.0	100.0
	미술	(50)	52.0	28.0	12.0	8.0	0.0	0.0	0.0	100.0
	음향	(43)	60.5	16.3	9.3	14.0	0.0	0.0	0.0	100.0
	편집	(50)	10.0	76.0	4.0	6.0	4.0	0.0	0.0	100.0
경력	기타	(51)	0.0	66.7	31.4	0.0	0.0	0.0	2.0	100.0
	3년 미만	(61)	29.5	47.5	16.4	3.3	3.3	0.0	0.0	100.0
	3~5년 미만	(62)	30.6	46.8	16.1	6.5	0.0	0.0	0.0	100.0
	5~10년 미만	(91)	47.3	31.9	14.3	5.5	0.0	0.0	1.1	100.0
	10년 이상	(77)	72.7	16.9	5.2	3.9	0.0	1.3	0.0	100.0

(6) 주 계약 단위

- 주 계약 단위를 살펴보면, '개인별 계약'이 8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팀별 계약'이 13.7%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하면, '개인별 계약'이 ▲5.9%p 상승한 반면, '팀별 계약'은 ▼4.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4> 주 계약 단위



- '개인별 계약'은 기획 분야, '팀별 계약'은 촬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15> 응답자 특성별 주 계약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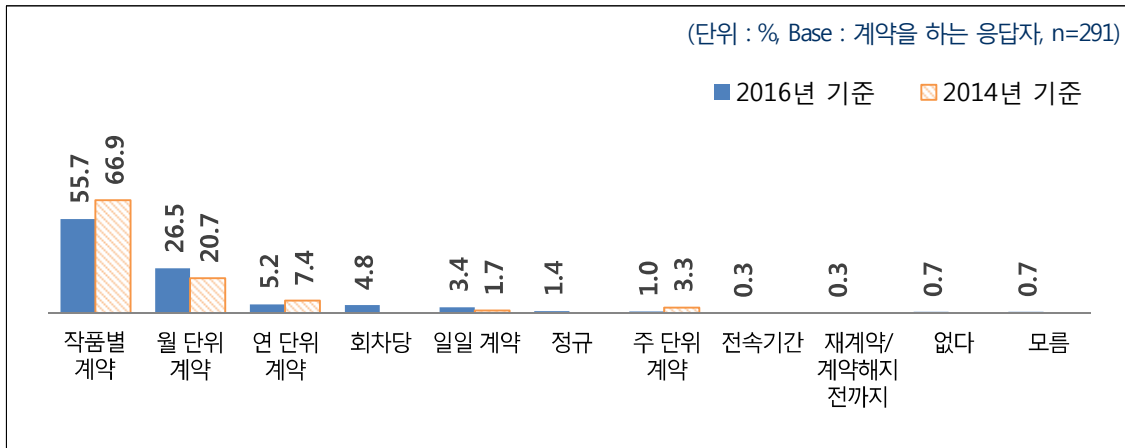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개인별 계약	팀별 계약	개인별 팀별 모두 포함	회사	없다	계
<b>전체</b>		<b>(291)</b>	<b>85.2</b>	<b>13.7</b>	<b>0.3</b>	<b>0.3</b>	<b>0.3</b>	<b>100.0</b>
성별	남자	(178)	82.6	15.7	0.6	0.6	0.6	100.0
	여자	(113)	89.4	10.6	0.0	0.0	0.0	100.0
연령	20대	(108)	86.1	13.9	0.0	0.0	0.0	100.0
	30대	(129)	82.2	15.5	0.8	0.8	0.8	100.0
	40대	(49)	89.8	10.2	0.0	0.0	0.0	100.0
	50대	(5)	100.0	0.0	0.0	0.0	0.0	100.0
활동분야	기획	(46)	93.5	6.5	0.0	0.0	0.0	100.0
	촬영	(51)	60.8	39.2	0.0	0.0	0.0	100.0
	미술	(50)	84.0	16.0	0.0	0.0	0.0	100.0
	음향	(43)	86.0	9.3	2.3	0.0	2.3	100.0
	편집	(50)	90.0	8.0	0.0	2.0	0.0	100.0
	기타	(51)	98.0	2.0	0.0	0.0	0.0	100.0
경력	3년 미만	(61)	90.2	9.8	0.0	0.0	0.0	100.0
	3~5년 미만	(62)	83.9	12.9	0.0	1.6	1.6	100.0
	5~10년 미만	(91)	89.0	11.0	0.0	0.0	0.0	100.0
	10년 이상	(77)	77.9	20.8	1.3	0.0	0.0	100.0

(7) 주 계약 주기

- 주된 계약 주기를 살펴보면, '작품별 계약'이 5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 단위 계약'(26.5%), '연 단위 계약'(5.2%), '회차 당'(4.8%), '일일 계약'(3.4%)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작품별 계약'이 ▽11.2%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월 단위 계약'은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5> 주 계약 주기



- '작품별 계약'은 촬영 분야에서, '월 단위 계약'은 편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16> 응답자 특성별 주 계약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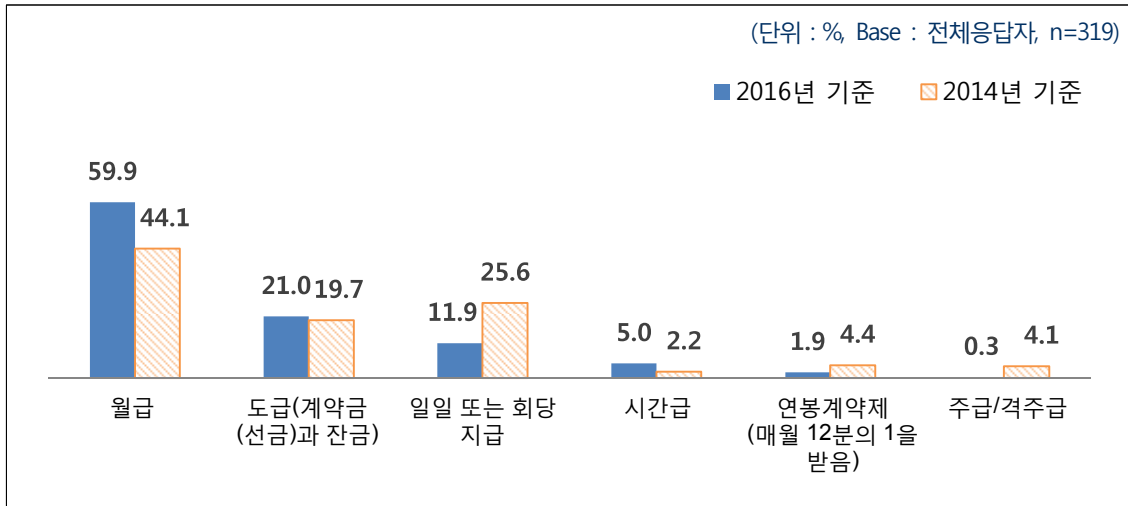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작품별 계약	월 단위 계약	연 단위 계약	회차당	일일 계약	정규	주 단위 계약	전속기간	재계약/계약해지 전까지	없다	모름	계
<b>전체</b>		<b>(291)</b>	<b>55.7</b>	<b>26.5</b>	<b>5.2</b>	<b>4.8</b>	<b>3.4</b>	<b>1.4</b>	<b>1.0</b>	<b>0.3</b>	<b>0.3</b>	<b>0.7</b>	<b>0.7</b>	<b>100.0</b>
성별	남자	(178)	59.6	23.0	3.4	7.9	3.9	0.6	0.6	0.0	0.0	0.6	0.6	100.0
	여자	(113)	49.6	31.9	8.0	0.0	2.7	2.7	1.8	0.9	0.9	0.9	0.9	100.0
연령	20대	(108)	50.9	38.9	2.8	0.0	1.9	1.9	0.9	0.0	0.9	0.9	0.9	100.0
	30대	(129)	66.7	21.7	5.4	0.8	2.3	0.8	0.0	0.8	0.0	0.8	0.8	100.0
	40대	(49)	40.8	14.3	6.1	24.5	8.2	2.0	4.1	0.0	0.0	0.0	0.0	100.0
	50대	(5)	20.0	0.0	40.0	20.0	20.0	0.0	0.0	0.0	0.0	0.0	0.0	100.0
활동분야	기획	(46)	76.1	8.7	6.5	0.0	0.0	6.5	0.0	0.0	2.2	0.0	0.0	100.0
	촬영	(51)	82.4	15.7	2.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미술	(50)	68.0	3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음향	(43)	67.4	18.6	4.7	0.0	2.3	0.0	2.3	0.0	0.0	2.3	2.3	100.0
	편집	(50)	30.0	60.0	8.0	0.0	0.0	2.0	0.0	0.0	0.0	0.0	0.0	100.0
기타	(51)	13.7	21.6	9.8	27.5	17.6	0.0	3.9	2.0	0.0	2.0	2.0	100.0	
경력	3년 미만	(61)	44.3	31.1	4.9	6.6	6.6	0.0	1.6	1.6	1.6	0.0	1.6	100.0
	3~5년 미만	(62)	37.1	41.9	1.6	4.8	6.5	3.2	1.6	0.0	0.0	3.2	0.0	100.0
	5~10년 미만	(91)	59.3	26.4	5.5	5.5	2.2	1.1	0.0	0.0	0.0	0.0	0.0	100.0
	10년 이상	(77)	75.3	10.4	7.8	2.6	0.0	1.3	1.3	0.0	0.0	0.0	1.3	100.0

(8) 임금지급 주기

- 전체 응답자의 59.9%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도급(계약금(선금)과 잔금)'(21.0%), '일당 또는 회당 지급'(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월급'으로 받는 비율이 ▲15.8%p 상승한 반면, '일일 또는 회당 지급'은 ▼1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6> 임금지급 주기



<표 3-4-17> 응답자 특성별 임금지급 주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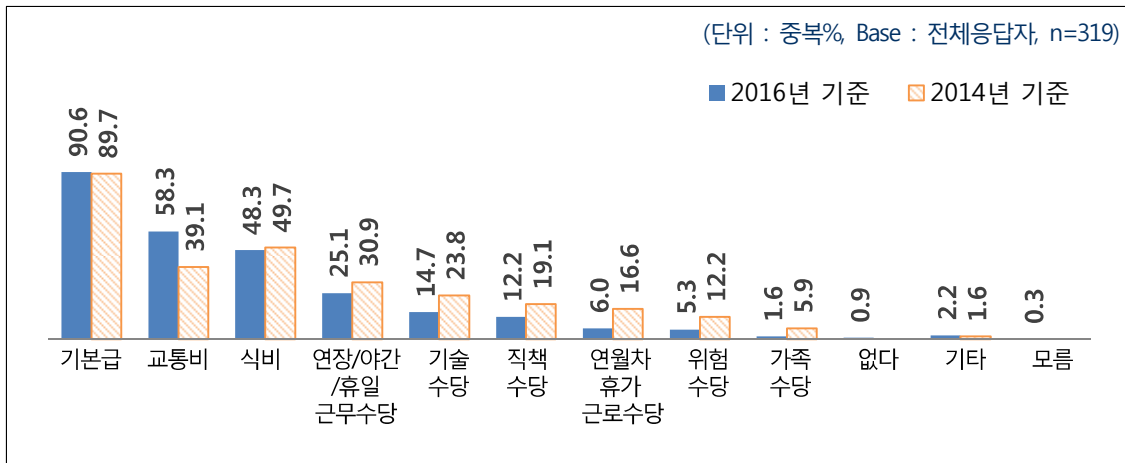
		사례수 (명)	월급	도급(계약금(선금)과 잔금)	일당 또는 회당 지급	시간급	연봉계약제 (매월 12분의 1을 받음)	주급/격주급	계
<b>전체</b>		<b>(319)</b>	<b>59.9</b>	<b>21.0</b>	<b>11.9</b>	<b>5.0</b>	<b>1.9</b>	<b>0.3</b>	<b>100.0</b>
성별	남자	(198)	53.0	24.2	13.1	7.1	2.0	0.5	100.0
	여자	(121)	71.1	15.7	9.9	1.7	1.7	0.0	100.0
연령	20대	(121)	81.8	5.0	10.7	0.8	0.8	0.8	100.0
	30대	(140)	50.7	34.3	9.3	2.9	2.9	0.0	100.0
	40대	(53)	35.8	24.5	17.0	20.8	1.9	0.0	100.0
	50대	(5)	40.0	0.0	60.0	0.0	0.0	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61.5	28.8	5.8	1.9	1.9	0.0	100.0
	촬영	(57)	50.9	36.8	10.5	0.0	0.0	1.8	100.0
	미술	(51)	66.7	25.5	5.9	0.0	2.0	0.0	100.0
	음향	(50)	56.0	24.0	12.0	6.0	2.0	0.0	100.0
	편집	(50)	82.0	12.0	0.0	0.0	6.0	0.0	100.0
	기타	(59)	45.8	0.0	33.9	20.3	0.0	0.0	100.0
경력	3년 미만	(69)	75.4	1.4	15.9	7.2	0.0	0.0	100.0
	3~5년 미만	(69)	72.5	4.3	15.9	4.3	1.4	1.4	100.0
	5~10년 미만	(99)	62.6	19.2	8.1	7.1	3.0	0.0	100.0
	10년 이상	(82)	32.9	53.7	9.8	1.2	2.4	0.0	100.0

(9) 임금 포함 항목

○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90.6%(중복응답)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통비'(58.3%), '식비'(48.3%),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5.1%), '기술수당'(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교통비'는 ▲19.2%p 증가한 반면,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10.6%p)과 '기술수당'(▽9.1%p)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7> 임금 포함 항목(중복응답)



\* 기타에는 기타 수당이 있음.

<표 3-4-18> 응답자 특성별 임금 포함 항목(중복응답)

(단위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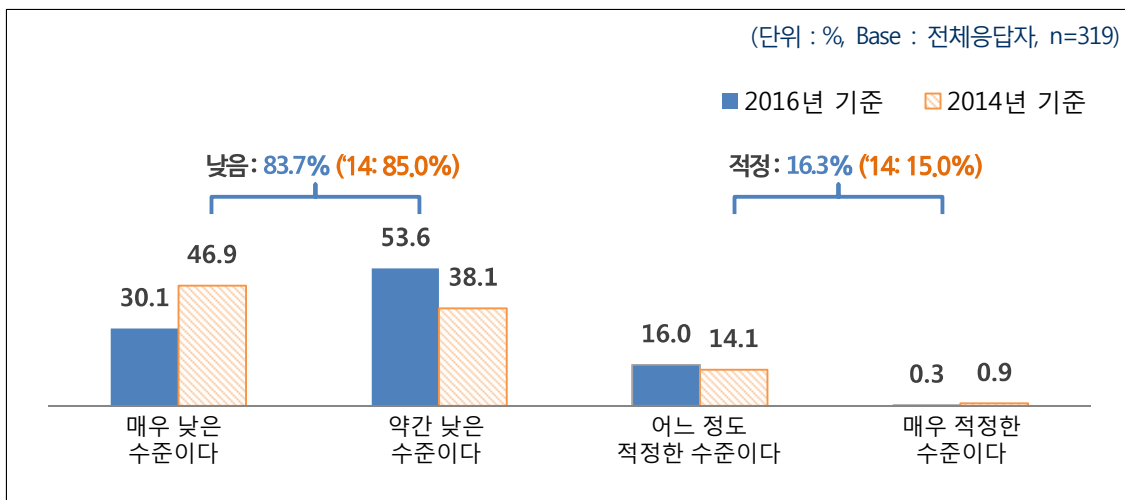
		사례수 (명)	기본급	교통비	식비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없다	기타	모름
<b>전체</b>		<b>(319)</b>	<b>90.6</b>	<b>58.3</b>	<b>48.3</b>	<b>25.1</b>	<b>14.7</b>	<b>12.2</b>	<b>6.0</b>	<b>5.3</b>	<b>1.6</b>	<b>0.9</b>	<b>2.2</b>	<b>0.3</b>
성별	남자	(198)	89.4	53.5	48.0	23.2	16.7	17.7	4.5	7.6	2.5	1.5	2.5	0.5
	여자	(121)	92.6	66.1	48.8	28.1	11.6	3.3	8.3	1.7	0.0	0.0	1.7	0.0
연령	20대	(121)	92.6	65.3	39.7	16.5	14.0	6.6	8.3	3.3	0.8	0.8	0.0	0.8
	30대	(140)	91.4	50.7	47.9	27.9	18.6	19.3	4.3	7.9	1.4	1.4	1.4	0.0
	40대	(53)	84.9	62.3	66.0	32.1	7.5	5.7	3.8	3.8	3.8	0.0	9.4	0.0
	50대	(5)	80.0	60.0	80.0	80.0	0.0	20.0	20.0	0.0	0.0	0.0	0.0	0.0
활동분야	기획	(52)	92.3	34.6	44.2	36.5	1.9	13.5	15.4	3.8	3.8	0.0	1.9	1.9
	촬영	(57)	77.2	28.1	26.3	24.6	24.6	31.6	7.0	17.5	1.8	5.3	0.0	0.0
	미술	(51)	96.1	72.5	31.4	5.9	11.8	5.9	2.0	2.0	0.0	0.0	0.0	0.0
	음향	(50)	88.0	50.0	34.0	10.0	28.0	8.0	6.0	6.0	2.0	0.0	2.0	0.0
	편집	(50)	100.0	86.0	58.0	8.0	22.0	10.0	2.0	0.0	2.0	0.0	0.0	0.0
	기타	(59)	91.5	79.7	91.5	59.3	1.7	3.4	3.4	1.7	0.0	0.0	0.0	0.0
경력	3년 미만	(69)	89.9	62.3	53.6	27.5	11.6	5.8	2.9	4.3	0.0	1.4	0.0	0.0
	3~5년 미만	(69)	94.2	73.9	53.6	21.7	13.0	5.8	7.2	4.3	1.4	0.0	0.0	0.0
	5~10년 미만	(99)	90.9	60.6	48.5	26.3	14.1	15.2	6.1	4.0	1.0	0.0	1.0	0.0
	10년 이상	(82)	87.8	39.0	39.0	24.4	19.5	19.5	7.3	8.5	3.7	2.4	1.2	1.2

(10) 임금 수준

○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다(매우 낮은 수준이다 % +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 83.7%로 나타났으며, '적정 수준이다'(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다 % +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는 16.3%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임금이 '약간 낮은 수준이다'(▲15.5%p)는 증가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다'(▽16.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8> 임금 수준



<표 3-4-19> 응답자 특성별 임금 수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다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계
<b>전체</b>		<b>(319)</b>	<b>30.1</b>	<b>53.6</b>	<b>16.0</b>	<b>0.3</b>	<b>100.0</b>
성별	남자	(198)	30.3	49.0	20.2	0.5	100.0
	여자	(121)	29.8	61.2	9.1	0.0	100.0
연령	20대	(121)	33.1	50.4	15.7	0.8	100.0
	30대	(140)	22.9	60.0	17.1	0.0	100.0
	40대	(53)	41.5	45.3	13.2	0.0	100.0
	50대	(5)	40.0	40.0	20.0	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30.8	55.8	13.5	0.0	100.0
	촬영	(57)	17.5	47.4	33.3	1.8	100.0
	미술	(51)	33.3	52.9	13.7	0.0	100.0
	음향	(50)	22.0	60.0	18.0	0.0	100.0
	편집	(50)	24.0	64.0	12.0	0.0	100.0
	기타	(59)	50.8	44.1	5.1	0.0	100.0
경력	3년 미만	(69)	42.0	44.9	11.6	1.4	100.0
	3~5년 미만	(69)	37.7	46.4	15.9	0.0	100.0
	5~10년 미만	(99)	25.3	58.6	16.2	0.0	100.0
	10년 이상	(82)	19.5	61.0	19.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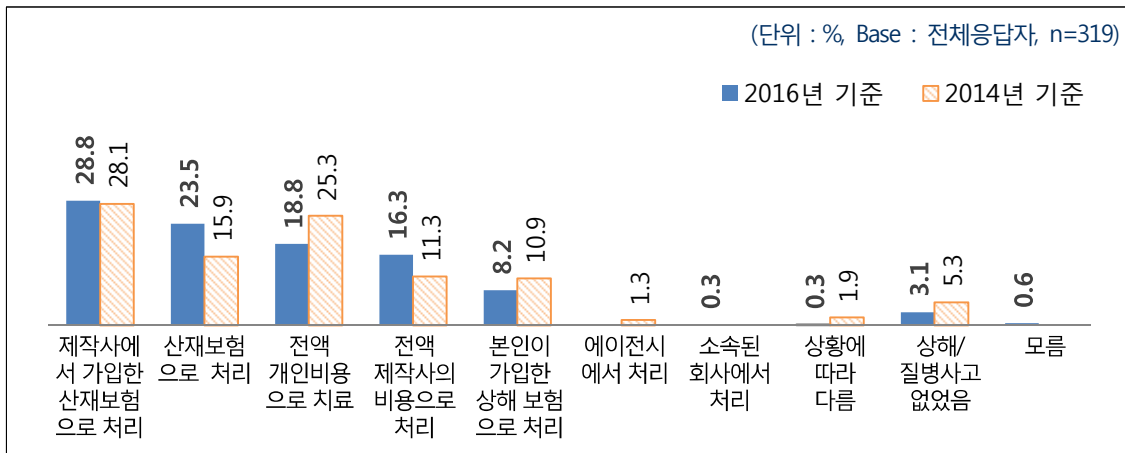


2) 근로환경

(1) 상해사고 및 질병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따른 조치를 살펴보면, '제작사에서 가입한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28.8%, 그 다음은 '산재보험으로 처리'(23.5%), '전액 개인 비용으로 처리'(18.8%), '전액 제작사의 비용으로 처리'(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산재 보험으로 처리' 비율은 ▲7.6%p 증가한 반면, '전액 개인비용으로 처리'는 ▼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9> 상해사고 및 질병 조치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술 분야에서는 '제작사에서 가입한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높게 나타났고, 기획 및 편집 분야에서는 '전액 개인비용으로 치료'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3-4-20> 응답자 특성별 상해사고 및 질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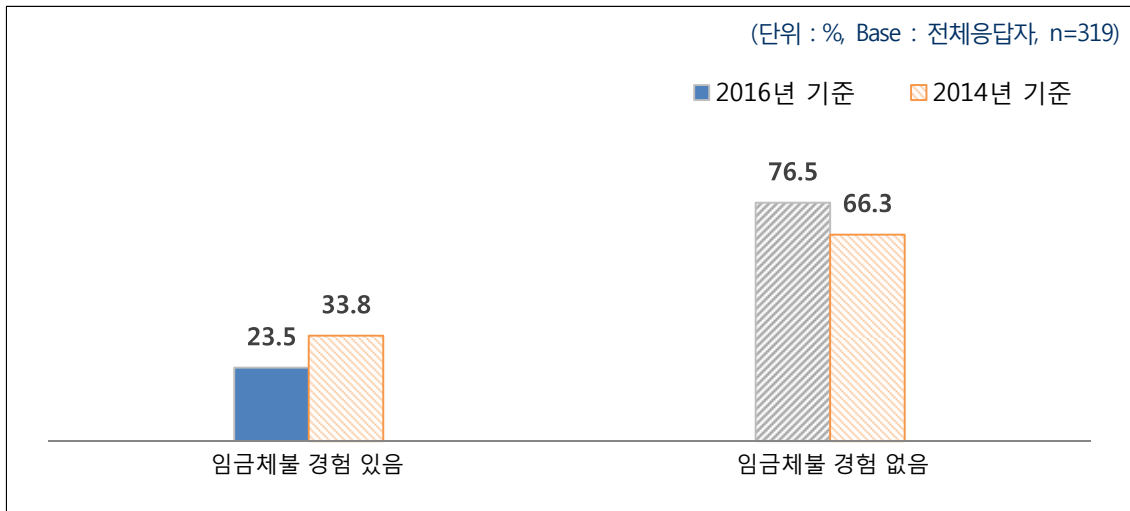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제작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	산재보험으로 처리	전액 개인 비용으로 치료	전액 제작사의 비용으로 처리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	소속된 회사에서 처리	상황에 따라 다름	상해/질병 사고 없었음	모름
<b>전체</b>	<b>(319)</b>	<b>28.8</b>	<b>23.5</b>	<b>18.8</b>	<b>16.3</b>	<b>8.2</b>	<b>0.3</b>	<b>0.3</b>	<b>3.1</b>	<b>0.6</b>
성별	남자 (198)	30.8	22.7	18.7	17.2	6.6	0.0	0.5	3.5	0.0
	여자 (121)	25.6	24.8	19.0	14.9	10.7	0.8	0.0	2.5	1.7
연령	20대 (121)	25.6	27.3	14.0	22.3	7.4	0.8	0.0	1.7	0.8
	30대 (140)	37.9	20.7	15.7	15.0	7.9	0.0	0.7	1.4	0.7
	40대 (53)	15.1	20.8	37.7	7.5	11.3	0.0	0.0	7.5	0.0
	50대 (5)	0.0	40.0	20.0	0.0	0.0	0.0	0.0	40.0	0.0
활동분야	기획 (52)	32.7	19.2	23.1	11.5	11.5	0.0	0.0	1.9	0.0
	촬영 (57)	40.4	15.8	3.5	31.6	5.3	0.0	0.0	3.5	0.0
	미술 (51)	49.0	21.6	3.9	23.5	2.0	0.0	0.0	0.0	0.0
	음향 (50)	26.0	20.0	12.0	22.0	10.0	2.0	2.0	6.0	0.0
	편집 (50)	16.0	50.0	22.0	0.0	10.0	0.0	0.0	2.0	0.0
기타 (59)	10.2	16.9	45.8	8.5	10.2	0.0	0.0	5.1	3.4	
경력	3년 미만 (69)	17.4	23.2	23.2	21.7	5.8	1.4	0.0	4.3	2.9
	3~5년 미만 (69)	26.1	30.4	23.2	13.0	7.2	0.0	0.0	0.0	0.0
	5~10년 미만 (99)	27.3	26.3	20.2	14.1	7.1	0.0	0.0	5.1	0.0
	10년 이상 (82)	42.7	14.6	9.8	17.1	12.2	0.0	1.2	2.4	0.0

(2) 임금체불 경험

- 전체 응답자의 23.5%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0> 임금체불 경험



- 분야별로 촬영 분야에서 '임금체불 경험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편집 분야에서 '임금체불 경험 없음'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21> 응답자 특성별 임금체불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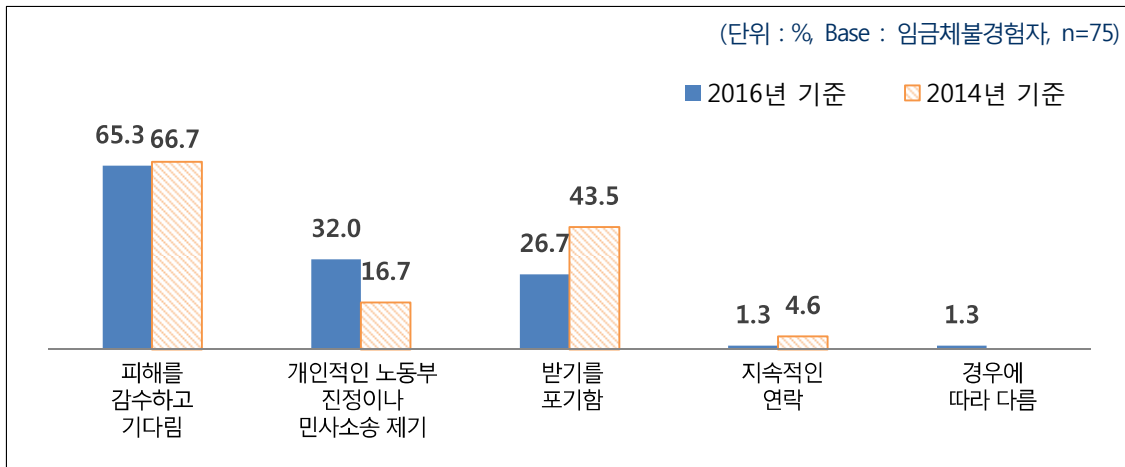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임금체불 경험 있음	임금체불 경험 없음	계
<b>전체</b>		<b>(319)</b>	<b>23.5</b>	<b>76.5</b>	<b>100.0</b>
성별	남자	(198)	26.8	73.2	100.0
	여자	(121)	18.2	81.8	100.0
연령	20대	(121)	16.5	83.5	100.0
	30대	(140)	25.7	74.3	100.0
	40대	(53)	30.2	69.8	100.0
	50대	(5)	60.0	4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25.0	75.0	100.0
	촬영	(57)	35.1	64.9	100.0
	미술	(51)	11.8	88.2	100.0
	음향	(50)	28.0	72.0	100.0
	편집	(50)	10.0	90.0	100.0
경력	기타	(59)	28.8	71.2	100.0
	3년 미만	(69)	17.4	82.6	100.0
	3~5년 미만	(69)	21.7	78.3	100.0
	5~10년 미만	(99)	25.3	74.7	100.0
	10년 이상	(82)	28.0	72.0	100.0

(3) 임금체불 대응방법

○ 임금체불경험자(n=75)의 임금체불 대응방법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림'이 6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적인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제기'(32.0%), '받기를 포기함'(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개인적인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제기'(▲15.3%p)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받기를 포기함'은 ▽16.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1> 임금체불 대응방법(중복응답)



<표 3-4-22> 응답자 특성별 임금체불 대응방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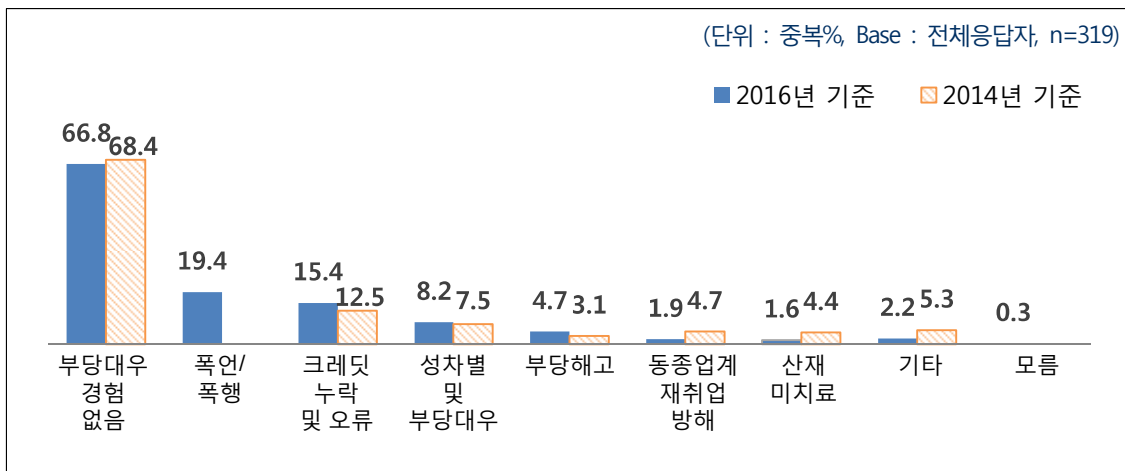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림	개인적인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제기	받기를 포기함	지속적인 연락	경우에 따라 다름
<b>전체</b>		<b>(75)</b>	<b>65.3</b>	<b>32.0</b>	<b>26.7</b>	<b>1.3</b>	<b>1.3</b>
성별	남자	(53)	69.8	28.3	30.2	1.9	1.9
	여자	(22)	54.5	40.9	18.2	0.0	0.0
연령	20대	(20)	75.0	20.0	15.0	0.0	0.0
	30대	(36)	75.0	27.8	30.6	0.0	2.8
	40대	(16)	43.8	50.0	31.3	6.3	0.0
	50대	(3)	0.0	66.7	33.3	0.0	0.0
활동분야	기획	(13)	76.9	15.4	15.4	0.0	0.0
	촬영	(20)	85.0	20.0	40.0	5.0	0.0
	미술	(6)	50.0	50.0	33.3	0.0	16.7
	음향	(14)	71.4	14.3	28.6	0.0	0.0
	편집	(5)	80.0	20.0	20.0	0.0	0.0
	기타	(17)	29.4	70.6	17.6	0.0	0.0
경력	3년 미만	(12)	75.0	25.0	16.7	0.0	0.0
	3~5년 미만	(15)	33.3	66.7	6.7	0.0	0.0
	5~10년 미만	(25)	76.0	16.0	36.0	0.0	4.0
	10년 이상	(23)	69.6	30.4	34.8	4.3	0.0

(4) 임금체불 외 부당경험

- 임금체불 외 다른 부당경험을 살펴보면, '폭언/폭행'이 1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크레딧 누락 및 오류'가 15.4%, '성차별 및 부당대우'(8.2%), '부당해고'(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당대우 경험 없음'은 66.8%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크레딧 오류 및 누락'(▲2.9%p)은 소폭 증가한 반면, '동종업계 재취업 방해'와 '산재 미치료'가 각각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2> 임금체불 외 부당경험(중복응답)



- (기타를 제외한) 분야별로 살펴보면, '폭언/폭행'은 촬영 및 음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크레딧 누락 및 오류'는 음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3> 응답자 특성별 임금체불 외 부당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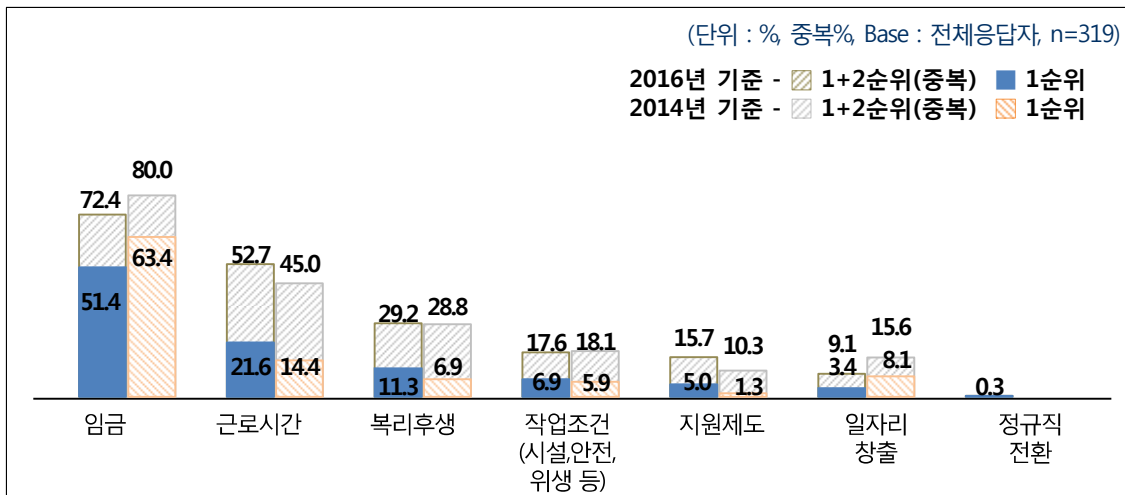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부당대우 경험 없음	폭언/폭행	크레딧 누락 및 오류	성차별 및 부당대우	부당해고	동종업계 재취업 방해	산재 미치료	기타	모름
<b>전체</b>		<b>(319)</b>	<b>66.8</b>	<b>19.4</b>	<b>15.4</b>	<b>8.2</b>	<b>4.7</b>	<b>1.9</b>	<b>1.6</b>	<b>2.2</b>	<b>0.3</b>
성별	남자	(198)	63.6	22.2	20.2	5.1	4.0	2.0	1.5	2.5	0.5
	여자	(121)	71.9	14.9	7.4	13.2	5.8	1.7	1.7	1.7	0.0
연령	20대	(121)	69.4	19.0	8.3	9.1	3.3	0.8	0.8	0.8	0.0
	30대	(140)	71.4	12.1	16.4	5.0	5.7	2.1	0.7	2.9	0.7
	40대	(53)	49.1	37.7	30.2	15.1	5.7	3.8	5.7	3.8	0.0
	50대	(5)	60.0	40.0	0.0	0.0	0.0	0.0	0.0	0.0	0.0
활동분야	기획	(52)	73.1	11.5	7.7	7.7	5.8	1.9	0.0	1.9	0.0
	촬영	(57)	73.7	19.3	17.5	1.8	7.0	3.5	0.0	1.8	0.0
	미술	(51)	80.4	5.9	3.9	5.9	7.8	0.0	0.0	0.0	0.0
	음향	(50)	58.0	18.0	22.0	8.0	0.0	2.0	6.0	0.0	0.0
	편집	(50)	82.0	2.0	12.0	4.0	2.0	0.0	0.0	0.0	0.0
경력	기타	(59)	37.3	54.2	27.1	20.3	5.1	3.4	3.4	0.0	1.7
	3년 미만	(69)	63.8	29.0	14.5	8.7	1.4	1.4	1.4	0.0	0.0
	3~5년 미만	(69)	60.9	24.6	8.7	10.1	2.9	0.0	2.9	0.0	1.4
	5~10년 미만	(99)	67.7	15.2	22.2	8.1	3.0	2.0	1.0	1.0	0.0
	10년 이상	(82)	73.2	12.2	13.4	6.1	11.0	3.7	1.2	1.2	0.0

(5)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

-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의 개선 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임금'이 5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시간'(21.6%), '복리후생'(11.3%), '작업조건(시설, 안전, 위생 등)'(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임금'이 7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시간'(52.7%), '복리후생'(29.2%), '작업조건(시설, 안전, 위생 등)'(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근로시간'은 ▲7.2%p 증가한 반면, '임금'은 ▼1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3>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



- 분야별로 살펴보면(1순위 기준), '근로시간'은 촬영 분야에서, '임금'은 기획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24> 응답자 특성별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1순위)

(단위 : %)

		사례수(명)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작업조건(시설, 안전, 위생 등)	지원제도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b>전체</b>		<b>(319)</b>	<b>51.4</b>	<b>21.6</b>	<b>11.3</b>	<b>6.9</b>	<b>5.0</b>	<b>3.4</b>	<b>0.3</b>
성별	남자	(198)	47.5	24.2	11.1	6.6	5.6	4.5	0.5
	여자	(121)	57.9	17.4	11.6	7.4	4.1	1.7	0.0
연령	20대	(121)	47.1	25.6	14.9	4.1	7.4	0.8	0.0
	30대	(140)	50.0	22.1	10.0	7.9	4.3	5.7	0.0
	40대	(53)	64.2	13.2	7.5	7.5	1.9	3.8	1.9
	50대	(5)	60.0	0.0	0.0	40.0	0.0	0.0	0.0
활동분야	기획	(52)	71.2	7.7	11.5	0.0	3.8	3.8	1.9
	촬영	(57)	31.6	47.4	5.3	10.5	0.0	5.3	0.0
	미술	(51)	45.1	27.5	15.7	3.9	7.8	0.0	0.0
	음향	(50)	44.0	10.0	14.0	8.0	14.0	10.0	0.0
	편집	(50)	54.0	26.0	16.0	0.0	4.0	0.0	0.0
	기타	(59)	62.7	10.2	6.8	16.9	1.7	1.7	0.0
경력	3년 미만	(69)	59.4	23.2	5.8	5.8	4.3	1.4	0.0
	3~5년 미만	(69)	50.7	20.3	17.4	4.3	5.8	1.4	0.0
	5~10년 미만	(99)	43.4	20.2	16.2	11.1	8.1	1.0	0.0
	10년 이상	(82)	54.9	23.2	4.9	4.9	1.2	9.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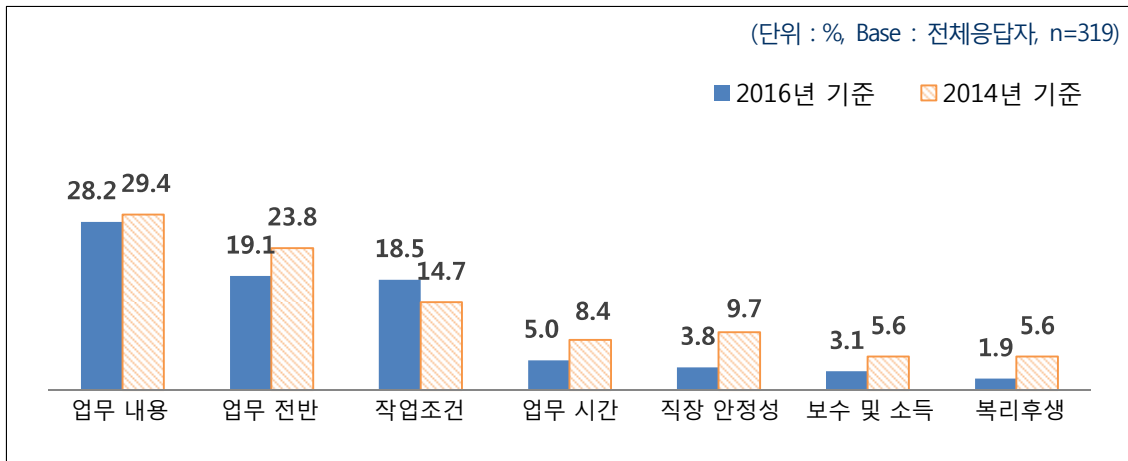
<표 3-4-25> 응답자 특성별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작업조건 (시설, 안전, 위생 등)	지원제도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b>전체</b>		<b>(319)</b>	<b>72.4</b>	<b>52.7</b>	<b>29.2</b>	<b>17.6</b>	<b>15.7</b>	<b>9.1</b>	<b>0.3</b>
성별	남자	(198)	68.2	56.6	28.8	17.7	15.7	10.6	0.0
	여자	(121)	79.3	46.3	29.8	17.4	15.7	6.6	0.8
연령	20대	(121)	74.4	48.8	33.1	14.0	19.0	6.6	0.0
	30대	(140)	71.4	59.3	26.4	15.7	14.3	12.1	0.0
	40대	(53)	69.8	49.1	26.4	26.4	13.2	5.7	1.9
	50대	(5)	80.0	0.0	40.0	60.0	0.0	20.0	0.0
활동분야	기획	(52)	80.8	51.9	26.9	9.6	11.5	9.6	1.9
	촬영	(57)	59.6	86.0	17.5	22.8	7.0	7.0	0.0
	미술	(51)	72.5	51.0	31.4	19.6	19.6	5.9	0.0
	음향	(50)	60.0	22.0	46.0	14.0	28.0	24.0	0.0
	편집	(50)	88.0	60.0	28.0	0.0	22.0	2.0	0.0
	기타	(59)	74.6	42.4	27.1	35.6	8.5	6.8	0.0
경력	3년 미만	(69)	82.6	53.6	24.6	15.9	11.6	7.2	0.0
	3~5년 미만	(69)	71.0	43.5	37.7	21.7	18.8	4.3	0.0
	5~10년 미만	(99)	65.7	52.5	29.3	20.2	19.2	10.1	1.0
	10년 이상	(82)	73.2	59.8	25.6	12.2	12.2	13.4	0.0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요약)

- 직업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 + 만족 %)를 살펴보면, '업무 내용'이 28.2%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업무 전반'(19.1%), '작업 조건'(18.5%), '업무 시간'(5.0%)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직장 안정성'은 ▽5.9%p 하락한 반면, '작업 조건'은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4> 직업만족도 요약(매우 만족 % + 만족 %)



-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기획, 음향, 편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작업 조건'의 경우는 편집 분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3-4-26> 응답자 특성별 직업만족도 요약(매우 만족 % + 만족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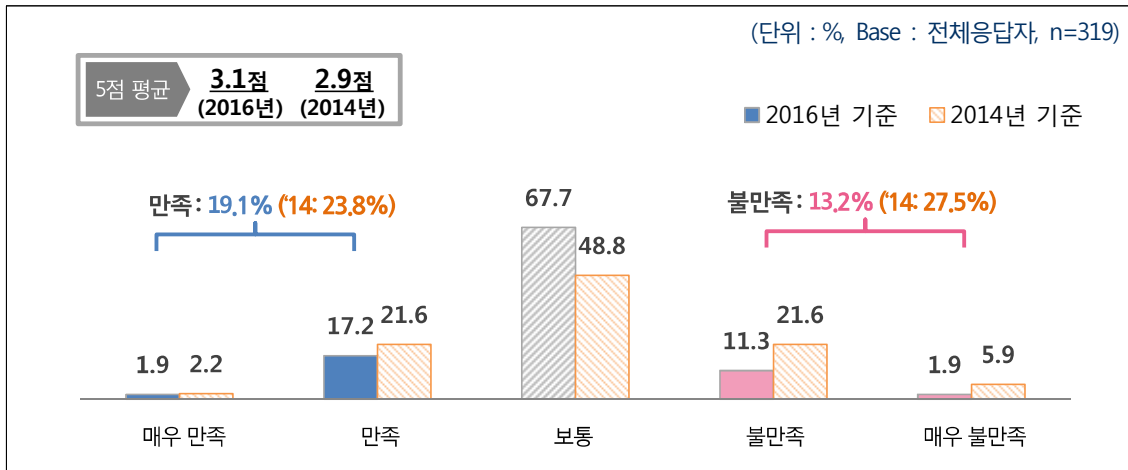
		사례수 (명)	업무 내용	업무 전반	작업조건	업무 시간	직장 안정성	보수 및 소득	복리후생
<b>전체</b>		<b>(319)</b>	<b>28.2</b>	<b>19.1</b>	<b>18.5</b>	<b>5.0</b>	<b>3.8</b>	<b>3.1</b>	<b>1.9</b>
성별	남자	(198)	29.3	19.7	16.7	5.6	4.0	4.5	1.5
	여자	(121)	26.4	18.2	21.5	4.1	3.3	0.8	2.5
연령	20대	(121)	29.8	17.4	23.1	5.0	4.1	3.3	1.7
	30대	(140)	25.7	20.0	17.9	2.9	2.9	2.1	0.7
	40대	(53)	32.1	20.8	9.4	9.4	3.8	3.8	3.8
	50대	(5)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활동분야	기획	(52)	<b>40.4</b>	25.0	23.1	9.6	11.5	5.8	5.8
	촬영	(57)	31.6	19.3	12.3	7.0	0.0	5.3	0.0
	미술	(51)	11.8	3.9	2.0	0.0	0.0	0.0	0.0
	음향	(50)	<b>38.0</b>	24.0	18.0	4.0	4.0	2.0	4.0
	편집	(50)	<b>34.0</b>	30.0	<b>58.0</b>	4.0	4.0	0.0	2.0
	기타	(59)	15.3	13.6	1.7	5.1	3.4	5.1	0.0
경력	3년 미만	(69)	33.3	21.7	20.3	8.7	2.9	7.2	4.3
	3~5년 미만	(69)	24.6	11.6	18.8	1.4	8.7	1.4	0.0
	5~10년 미만	(99)	22.2	18.2	17.2	2.0	2.0	1.0	1.0
	10년 이상	(82)	34.1	24.4	18.3	8.5	2.4	3.7	2.4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업무 전반적으로

○ 「업무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19.1%로 나타남.

※ 「업무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5> (직업만족도) 업무 전반



- 분야별로는 편집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7> 응답자 특성별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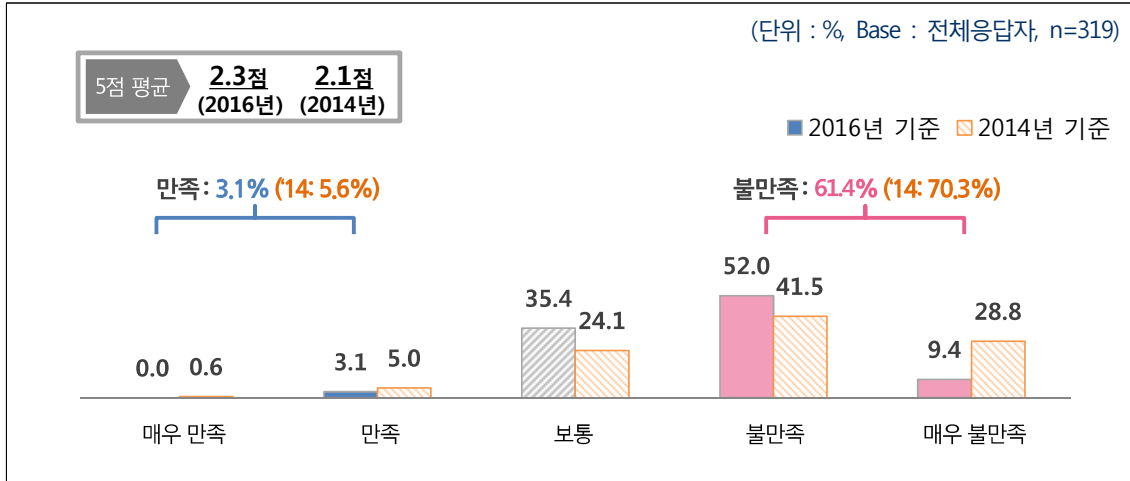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319)</b>	<b>1.9</b>	<b>11.3</b>	<b>67.7</b>	<b>17.2</b>	<b>1.9</b>	<b>19.1</b>	<b>100.0</b>	<b>3.1</b>	
성별	남자 (198)	3.0	13.1	64.1	17.2	2.5	19.7	100.0	3.0	
	여자 (121)	0.0	8.3	73.6	17.4	0.8	18.2	100.0	3.1	
연령	20대 (121)	0.8	10.7	71.1	16.5	0.8	17.4	100.0	3.1	
	30대 (140)	3.6	12.1	64.3	18.6	1.4	20.0	100.0	3.0	
	40대 (53)	0.0	7.5	71.7	15.1	5.7	20.8	100.0	3.2	
	50대 (5)	0.0	40.0	40.0	20.0	0.0	20.0	100.0	2.8	
활동 분야	기획 (52)	0.0	13.5	61.5	25.0	0.0	25.0	100.0	3.1	
	촬영 (57)	3.5	15.8	61.4	15.8	3.5	19.3	100.0	3.0	
	미술 (51)	0.0	13.7	82.4	3.9	0.0	3.9	100.0	2.9	
	음향 (50)	2.0	10.0	64.0	22.0	2.0	24.0	100.0	3.1	
	편집 (50)	0.0	2.0	68.0	26.0	4.0	30.0	100.0	3.3	
	기타 (59)	5.1	11.9	69.5	11.9	1.7	13.6	100.0	2.9	
경력	3년 미만 (69)	2.9	14.5	60.9	20.3	1.4	21.7	100.0	3.0	
	3~5년 미만 (69)	0.0	11.6	76.8	10.1	1.4	11.6	100.0	3.0	
	5~10년 미만 (99)	2.0	9.1	70.7	16.2	2.0	18.2	100.0	3.1	
	10년 이상 (82)	2.4	11.0	62.2	22.0	2.4	24.4	100.0	3.1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2) 보수 및 소득

-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3.1%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61.4%로 나타남.
- ※ 「보수 및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6> (직업만족도) 보수 및 소득



<표 3-4-28> 응답자 특성별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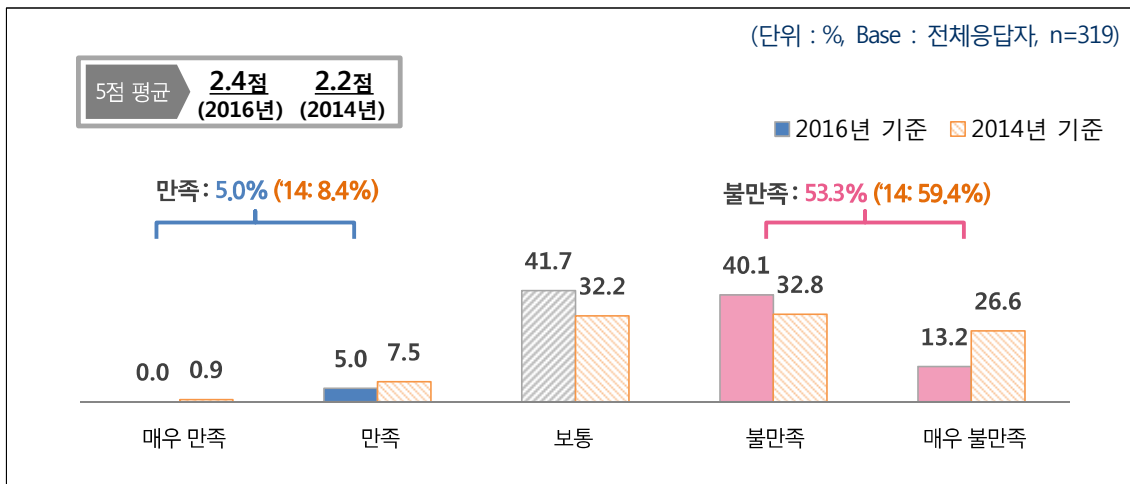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전체	(319)	9.4	52.0	61.4	35.4	3.1	0.0	3.1	100.0	2.3	
성별	남자	(198)	9.6	48.0	57.6	37.9	4.5	0.0	4.5	100.0	2.4
	여자	(121)	9.1	58.7	67.8	31.4	0.8	0.0	0.8	100.0	2.2
연령	20대	(121)	10.7	52.1	62.8	33.9	3.3	0.0	3.3	100.0	2.3
	30대	(140)	7.1	52.9	60.0	37.9	2.1	0.0	2.1	100.0	2.4
	40대	(53)	9.4	50.9	60.4	35.8	3.8	0.0	3.8	100.0	2.3
	50대	(5)	40.0	40.0	80.0	0.0	20.0	0.0	20.0	100.0	2.0
직업분야	기획	(52)	11.5	50.0	32.7	5.8	100.0	61.5	32.7	5.8	2.3
	촬영	(57)	7.0	40.4	47.4	5.3	100.0	47.4	47.4	5.3	2.5
	미술	(51)	5.9	58.8	35.3	0.0	100.0	64.7	35.3	0.0	2.3
	음향	(50)	10.0	52.0	36.0	2.0	100.0	62.0	36.0	2.0	2.3
	편집	(50)	16.0	52.0	32.0	0.0	100.0	68.0	32.0	0.0	2.2
	기타	(59)	6.8	59.3	28.8	5.1	100.0	66.1	28.8	5.1	2.3
경력	3년 미만	(69)	11.6	52.2	29.0	7.2	100.0	63.8	29.0	7.2	2.3
	3~5년 미만	(69)	8.7	56.5	33.3	1.4	100.0	65.2	33.3	1.4	2.3
	5~10년 미만	(99)	7.1	56.6	35.4	1.0	100.0	63.6	35.4	1.0	2.3
	10년 이상	(82)	11.0	42.7	42.7	3.7	100.0	53.7	42.7	3.7	2.4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3) 업무 시간

- 「업무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5.0%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53.3%로 나타남.
- ※ 업무 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7> (직업만족도) 업무 시간



<표 3-4-29> 응답자 특성별 업무 시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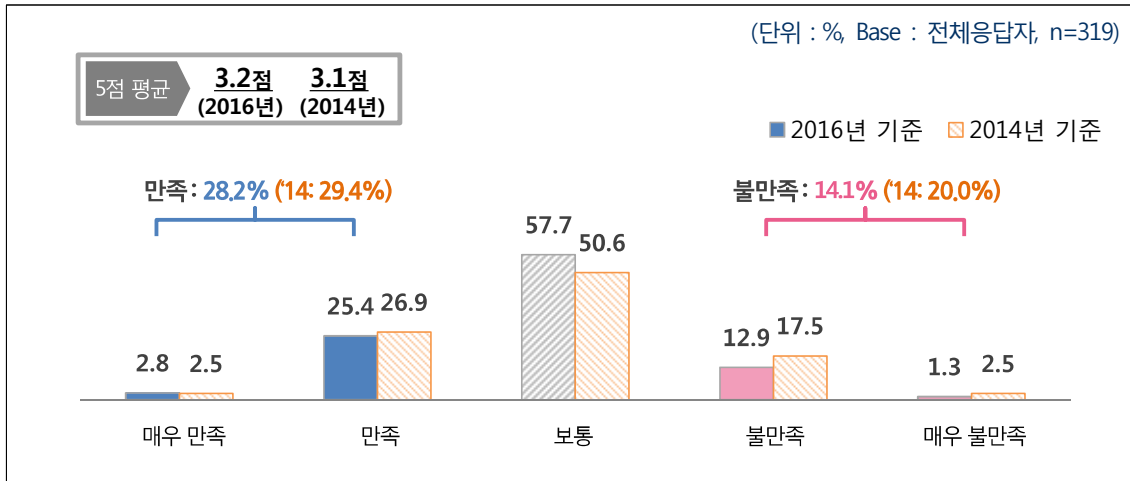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319)</b>	<b>13.2</b>	<b>40.1</b>	<b>53.3</b>	<b>41.7</b>	<b>5.0</b>	<b>0.0</b>	<b>5.0</b>	<b>100.0</b>	<b>2.4</b>	
성별	남자	(198)	16.7	34.8	51.5	42.9	5.6	0.0	5.6	100.0	2.4
	여자	(121)	7.4	48.8	56.2	39.7	4.1	0.0	4.1	100.0	2.4
연령	20대	(121)	14.9	39.7	54.5	40.5	5.0	0.0	5.0	100.0	2.4
	30대	(140)	14.3	45.0	59.3	37.9	2.9	0.0	2.9	100.0	2.3
	40대	(53)	7.5	28.3	35.8	54.7	9.4	0.0	9.4	100.0	2.7
	50대	(5)	0.0	40.0	40.0	40.0	20.0	0.0	20.0	100.0	2.8
활동분야	기획	(52)	11.5	40.4	38.5	9.6	100.0	51.9	38.5	9.6	2.5
	촬영	(57)	28.1	42.1	22.8	7.0	100.0	70.2	22.8	7.0	2.1
	미술	(51)	5.9	51.0	43.1	0.0	100.0	56.9	43.1	0.0	2.4
	음향	(50)	20.0	12.0	64.0	4.0	100.0	32.0	64.0	4.0	2.5
	편집	(50)	8.0	60.0	28.0	4.0	100.0	68.0	28.0	4.0	2.3
	기타	(59)	5.1	35.6	54.2	5.1	100.0	40.7	54.2	5.1	2.6
경력	3년 미만	(69)	14.5	43.5	33.3	8.7	100.0	58.0	33.3	8.7	2.4
	3~5년 미만	(69)	10.1	37.7	50.7	1.4	100.0	47.8	50.7	1.4	2.4
	5~10년 미만	(99)	15.2	39.4	43.4	2.0	100.0	54.5	43.4	2.0	2.3
	10년 이상	(82)	12.2	40.2	39.0	8.5	100.0	52.4	39.0	8.5	2.4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4) 업무 내용

-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28.2%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14.1%로 나타남.
- ※ 「업무 내용」에 대해 2014년 대비 '만족'하는 비율은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8> (직업만족도) 업무 내용



- 분야별로는 기획 및 음향, 편집 분야에서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0> 응답자 특성별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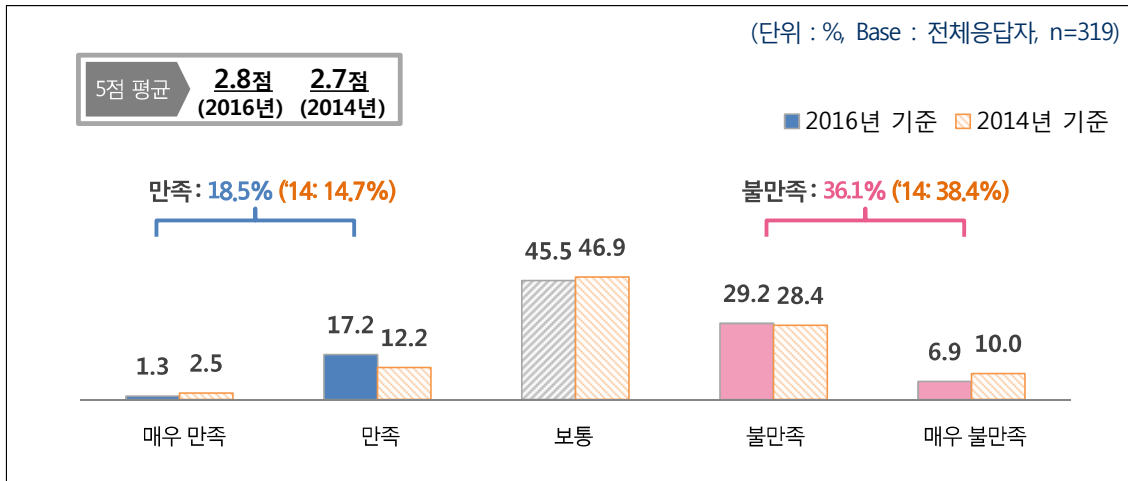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319)</b>	<b>1.3</b>	<b>12.9</b>	<b>14.1</b>	<b>57.7</b>	<b>25.4</b>	<b>2.8</b>	<b>28.2</b>	<b>100.0</b>	<b>3.2</b>
성별	남자 (198)	2.0	15.7	17.7	53.0	25.8	3.5	29.3	100.0	3.1
	여자 (121)	0.0	8.3	8.3	65.3	24.8	1.7	26.4	100.0	3.2
연령	20대 (121)	1.7	9.9	11.6	58.7	28.1	1.7	29.8	100.0	3.2
	30대 (140)	1.4	12.9	14.3	60.0	21.4	4.3	25.7	100.0	3.1
	40대 (53)	0.0	18.9	18.9	49.1	30.2	1.9	32.1	100.0	3.2
	50대 (5)	0.0	20.0	20.0	60.0	20.0	0.0	20.0	100.0	3.0
활동 분야	기획 (52)	1.9	11.5	13.5	46.2	38.5	1.9	<b>40.4</b>	100.0	3.3
	촬영 (57)	0.0	14.0	14.0	54.4	29.8	1.8	31.6	100.0	3.2
	미술 (51)	0.0	9.8	9.8	78.4	9.8	2.0	11.8	100.0	3.0
	음향 (50)	2.0	6.0	8.0	54.0	34.0	4.0	<b>38.0</b>	100.0	3.3
	편집 (50)	2.0	8.0	10.0	56.0	28.0	6.0	34.0	100.0	3.3
	기타 (59)	1.7	25.4	27.1	57.6	13.6	1.7	15.3	100.0	2.9
경력	3년 미만 (69)	1.4	17.4	18.8	47.8	31.9	1.4	33.3	100.0	3.1
	3~5년 미만 (69)	1.4	7.2	8.7	66.7	23.2	1.4	24.6	100.0	3.2
	5~10년 미만 (99)	1.0	14.1	15.2	62.6	18.2	4.0	22.2	100.0	3.1
	10년 이상 (82)	1.2	12.2	13.4	52.4	30.5	3.7	34.1	100.0	3.2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5) 작업 조건

- 「작업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18.5%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36.1%로 나타남.
- ※ 「작업 조건」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014년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9> (직업만족도) 작업 조건



- 분야별로는 편집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작업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31> 응답자 특성별 작업 조건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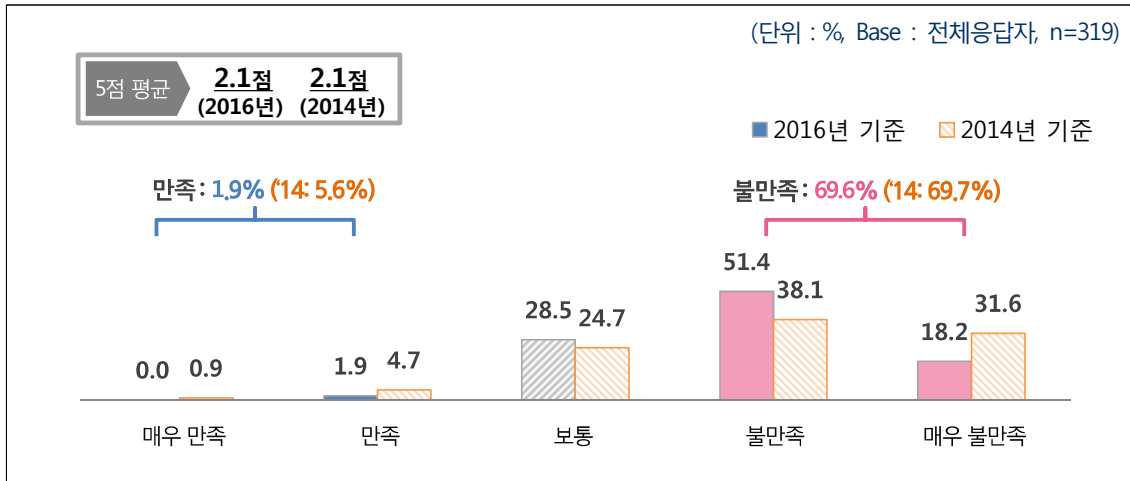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만족도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319)</b>	<b>6.9</b>	<b>29.2</b>	<b>36.1</b>	<b>45.5</b>	<b>17.2</b>	<b>1.3</b>	<b>18.5</b>	<b>100.0</b>	<b>2.8</b>	
성별	남자	(198)	7.1	35.9	42.9	40.4	15.7	1.0	16.7	100.0	2.7
	여자	(121)	6.6	18.2	24.8	53.7	19.8	1.7	21.5	100.0	2.9
연령	20대	(121)	6.6	24.0	30.6	46.3	22.3	0.8	23.1	100.0	2.9
	30대	(140)	6.4	30.7	37.1	45.0	16.4	1.4	17.9	100.0	2.8
	40대	(53)	9.4	32.1	41.5	49.1	7.5	1.9	9.4	100.0	2.6
	50대	(5)	0.0	80.0	80.0	0.0	20.0	0.0	20.0	100.0	2.4
활동 분야	기획	(52)	5.8	11.5	17.3	59.6	19.2	3.8	23.1	100.0	3.0
	촬영	(57)	5.3	43.9	49.1	38.6	12.3	0.0	12.3	100.0	2.6
	미술	(51)	5.9	29.4	35.3	62.7	2.0	0.0	2.0	100.0	2.6
	음향	(50)	6.0	32.0	38.0	44.0	16.0	2.0	18.0	100.0	2.8
	편집	(50)	0.0	8.0	8.0	34.0	56.0	2.0	58.0	100.0	3.5
기타	(59)	16.9	45.8	62.7	35.6	1.7	0.0	1.7	100.0	2.2	
경력	3년 미만	(69)	8.7	29.0	37.7	42.0	18.8	1.4	20.3	100.0	2.8
	3~5년 미만	(69)	8.7	27.5	36.2	44.9	18.8	0.0	18.8	100.0	2.7
	5~10년 미만	(99)	6.1	35.4	41.4	41.4	16.2	1.0	17.2	100.0	2.7
	10년 이상	(82)	4.9	23.2	28.0	53.7	15.9	2.4	18.3	100.0	2.9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6) 복리후생

-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1.9%에 불과하였으며,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응답이 6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복리후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014년 대비 ▽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0> (직업만족도) 복리후생



<표 3-4-32> 응답자 특성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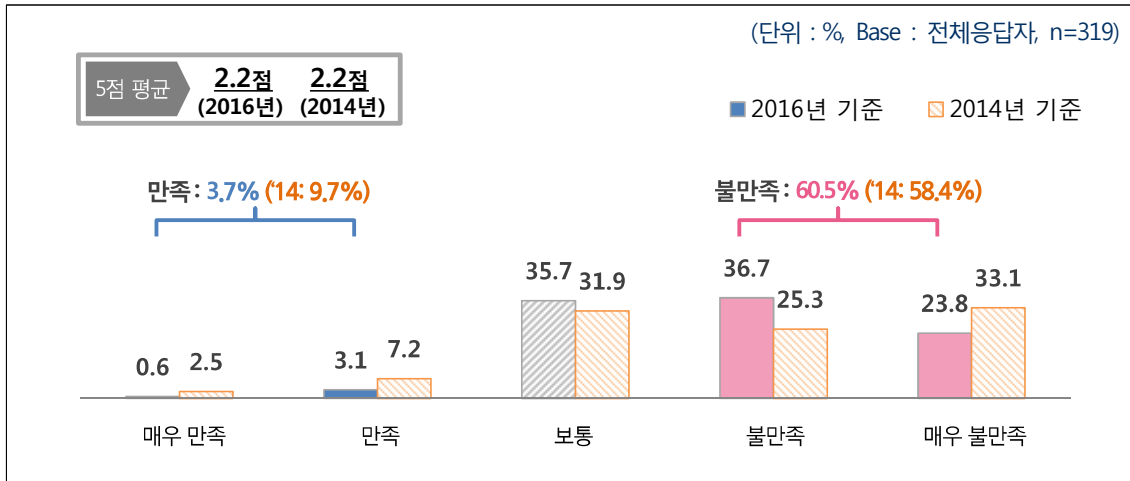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만족도				만족도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전체	(319)	18.2	51.4	69.6	28.5	1.9	0.0	1.9	100.0	2.1
성별	남자 (198)	22.2	49.5	71.7	26.8	1.5	0.0	1.5	100.0	2.1
	여자 (121)	11.6	54.5	66.1	31.4	2.5	0.0	2.5	100.0	2.3
연령	20대 (121)	14.9	56.2	71.1	27.3	1.7	0.0	1.7	100.0	2.2
	30대 (140)	17.1	52.9	70.0	29.3	0.7	0.0	0.7	100.0	2.1
	40대 (53)	28.3	35.8	64.2	32.1	3.8	0.0	3.8	100.0	2.1
	50대 (5)	20.0	60.0	80.0	0.0	20.0	0.0	20.0	100.0	2.2
활동분야	기획 (52)	9.6	48.1	36.5	5.8	100.0	57.7	36.5	5.8	2.4
	촬영 (57)	29.8	36.8	33.3	0.0	100.0	66.7	33.3	0.0	2.0
	미술 (51)	7.8	72.5	19.6	0.0	100.0	80.4	19.6	0.0	2.1
	음향 (50)	16.0	64.0	16.0	4.0	100.0	80.0	16.0	4.0	2.1
	편집 (50)	6.0	50.0	42.0	2.0	100.0	56.0	42.0	2.0	2.4
기타 (59)	35.6	40.7	23.7	0.0	100.0	76.3	23.7	0.0	1.9	
경력	3년 미만 (69)	20.3	46.4	29.0	4.3	100.0	66.7	29.0	4.3	2.2
	3~5년 미만 (69)	14.5	55.1	30.4	0.0	100.0	69.6	30.4	0.0	2.2
	5~10년 미만 (99)	21.2	53.5	24.2	1.0	100.0	74.7	24.2	1.0	2.1
	10년 이상 (82)	15.9	50.0	31.7	2.4	100.0	65.9	31.7	2.4	2.2

(6)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7) 직장 안정성

- 「직장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한다(매우 만족 % + 만족 %)'는 응답이 3.7%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 불만족 %)'는 60.5%로 나타남.
- ※ 「직장 안정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014년 대비  $\nabla 6.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1> (직업만족도) 직장 안정성



<표 3-4-33> 응답자 특성별 직장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2016년 기준 (%)				2014년 기준 (%)			계	5점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b>전체</b>	<b>(319)</b>	<b>23.8</b>	<b>36.7</b>	<b>60.5</b>	<b>35.7</b>	<b>3.1</b>	<b>0.6</b>	<b>3.7</b>	<b>100.0</b>	<b>2.2</b>	
성별	남자	(198)	29.3	36.9	66.2	29.8	3.0	1.0	4.0	100.0	2.1
	여자	(121)	14.9	36.4	51.2	45.5	3.3	0.0	3.3	100.0	2.4
연령	20대	(121)	17.4	37.2	54.5	41.3	4.1	0.0	4.1	100.0	2.3
	30대	(140)	23.6	40.7	64.3	32.9	1.4	1.4	2.9	100.0	2.2
	40대	(53)	41.5	22.6	64.2	32.1	3.8	0.0	3.8	100.0	2.0
	50대	(5)	0.0	60.0	60.0	20.0	20.0	0.0	20.0	100.0	2.6
활동 분야	기획	(52)	23.1	40.4	25.0	11.5	0.0	100.0	63.5	25.0	11.5
	촬영	(57)	33.3	33.3	33.3	0.0	0.0	100.0	66.7	33.3	0.0
	미술	(51)	11.8	35.3	52.9	0.0	0.0	100.0	47.1	52.9	0.0
	음향	(50)	26.0	42.0	28.0	2.0	2.0	100.0	68.0	28.0	4.0
	편집	(50)	4.0	40.0	52.0	4.0	0.0	100.0	44.0	52.0	4.0
	기타	(59)	40.7	30.5	25.4	1.7	1.7	100.0	71.2	25.4	3.4
경력	3년 미만	(69)	27.5	33.3	36.2	1.4	1.4	100.0	60.9	36.2	2.9
	3~5년 미만	(69)	18.8	27.5	44.9	7.2	1.4	100.0	46.4	44.9	8.7
	5~10년 미만	(99)	27.3	38.4	32.3	2.0	0.0	100.0	65.7	32.3	2.0
	10년 이상	(82)	20.7	45.1	31.7	2.4	0.0	100.0	65.9	31.7	2.4

### 3. 경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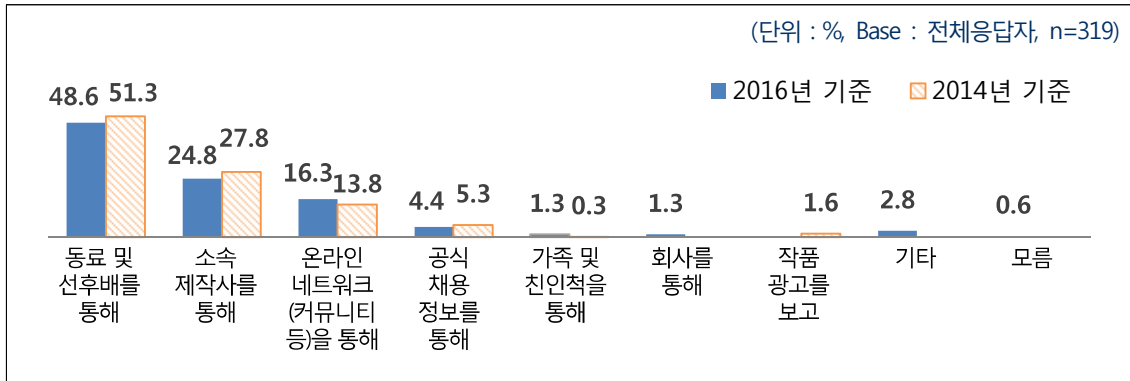
#### 1) 경력 관리

##### (1) 작품 탐색 경로

○ 작품 참여를 위한 탐색 경로를 살펴보면, '동료 및 선후배를 통해'가 4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소속 제작사를 통해'(24.8%), '온라인 네트워크(커뮤니티 등)를 통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2.5%p)는 소폭 증가한 반면, '소속 제작사를 통해'와 '동료 및 선후배를 통해'는 각각 ▽3.0%p,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2> 작품 탐색 경로



- '동료 및 선후배를 통해' 작품을 탐색한다는 비율은 촬영, 미술, 음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34> 응답자 특성별 작품 탐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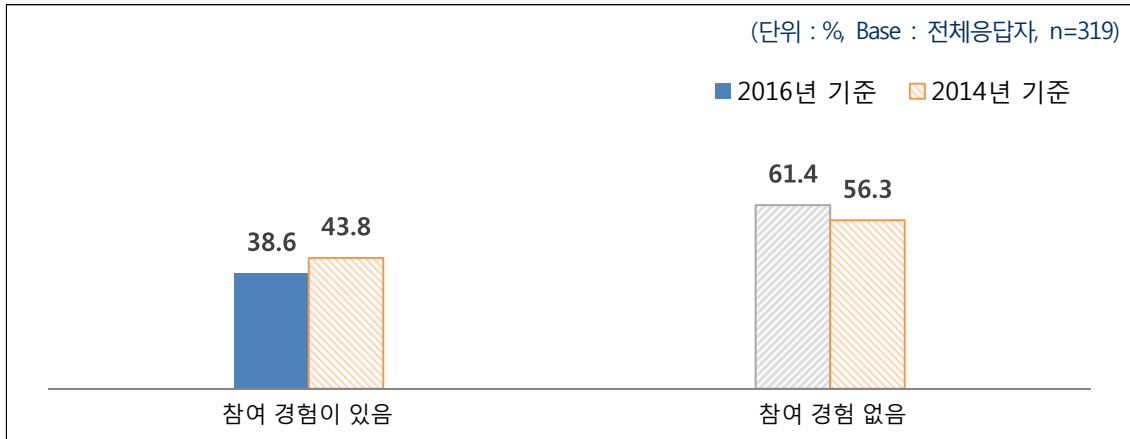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동료 및 선후배를 통해	소속 제작사를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커뮤니티 등)를 통해	공식 채용 정보를 통해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	회사를 통해	기타	모름
<b>전체</b>		<b>(319)</b>	<b>48.6</b>	<b>24.8</b>	<b>16.3</b>	<b>4.4</b>	<b>1.3</b>	<b>1.3</b>	<b>2.8</b>	<b>0.6</b>
성별	남자	(198)	50.0	23.2	17.2	2.5	1.5	2.0	3.0	0.5
	여자	(121)	46.3	27.3	14.9	7.4	0.8	0.0	2.5	0.8
연령	20대	(121)	57.0	19.0	12.4	7.4	0.8	2.5	0.8	0.0
	30대	(140)	54.3	30.0	9.3	2.1	2.1	0.0	1.4	0.7
	40대	(53)	17.0	26.4	39.6	3.8	0.0	0.0	11.3	1.9
	50대	(5)	20.0	0.0	60.0	0.0	0.0	20.0	0.0	0.0
활동분야	기획	(52)	42.3	38.5	3.8	9.6	1.9	0.0	0.0	0.0
	촬영	(57)	68.4	7.0	12.3	1.8	1.8	3.5	5.3	0.0
	미술	(51)	68.6	19.6	9.8	2.0	0.0	0.0	0.0	0.0
	음향	(50)	68.0	14.0	6.0	4.0	2.0	0.0	0.0	2.0
	편집	(50)	32.0	62.0	2.0	2.0	0.0	2.0	0.0	0.0
	기타	(59)	15.3	11.9	57.6	6.8	1.7	1.7	0.0	1.7
경력	3년 미만	(69)	44.9	15.9	27.5	5.8	0.0	2.9	0.0	2.9
	3~5년 미만	(69)	46.4	24.6	18.8	5.8	2.9	0.0	0.0	0.0
	5~10년 미만	(99)	52.5	25.3	16.2	2.0	1.0	2.0	0.0	0.0
	10년 이상	(82)	48.8	31.7	4.9	4.9	1.2	0.0	3.7	0.0

(2)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

- 전체 응답자의 38.6%가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대비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 비율은 ▽5.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3-4-33>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



- 분야별로는 촬영 및 음향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보수 작품 활동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5> 응답자 특성별 무보수 작품 참여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참여 경험이 있음	참여 경험 없음	계
<b>전체</b>		<b>(319)</b>	<b>38.6</b>	<b>61.4</b>	<b>100.0</b>
성별	남자	(198)	42.4	57.6	100.0
	여자	(121)	32.2	67.8	100.0
연령	20대	(121)	36.4	63.6	100.0
	30대	(140)	45.0	55.0	100.0
	40대	(53)	30.2	69.8	100.0
	50대	(5)	0.0	10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32.7	67.3	100.0
	촬영	(57)	<b>59.6</b>	40.4	100.0
	미술	(51)	41.2	58.8	100.0
	음향	(50)	<b>66.0</b>	34.0	100.0
	편집	(50)	22.0	78.0	100.0
	기타	(59)	11.9	88.1	100.0
경력	3년 미만	(69)	24.6	75.4	100.0
	3~5년 미만	(69)	36.2	63.8	100.0
	5~10년 미만	(99)	38.4	61.6	100.0
	10년 이상	(82)	52.4	4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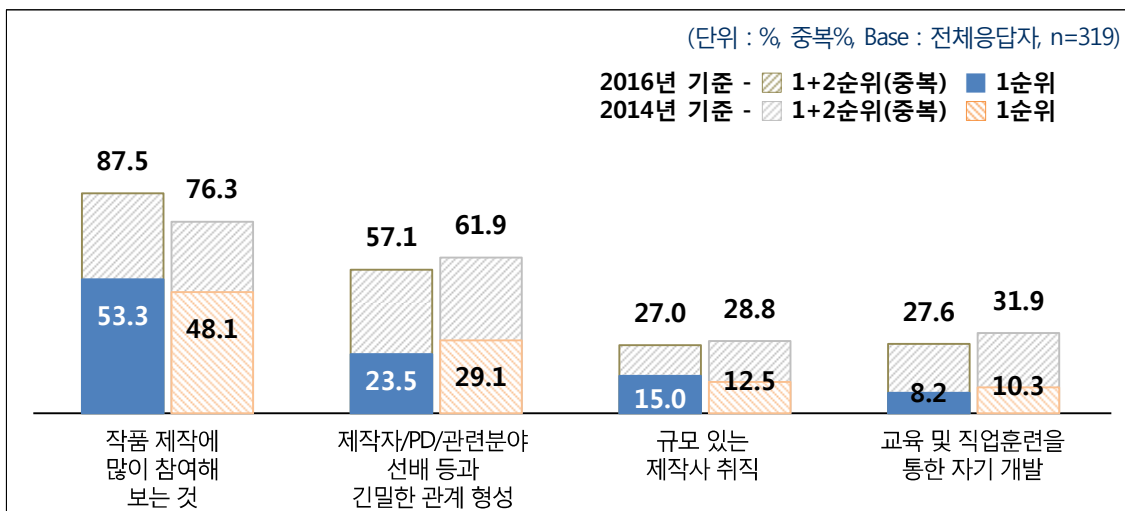


(3)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

○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품 제작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5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제작자/PD/관련 분야 선배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23.5%), '규모 있는 제작사에 취직'(15.0%)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8.2%)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1순위 기준) '작품 제작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을 꼽은 비율은 ▲5.2%p 증가한 반면, '제작자/PD/관련분야 선배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은 ▼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4>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



- 1순위 기준으로 '작품 제작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은 촬영 및 미술 분야에서, '제작자/PD/관련분야 선배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은 기획 및 편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4-36> 응답자 특성별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1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작품 제작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	제작자/PD/관련분야 선배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	규모 있는 제작사에 취직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	계
전체		(319)	53.3	23.5	15.0	8.2	100.0
성별	남자	(198)	53.0	24.2	15.2	7.6	100.0
	여자	(121)	53.7	22.3	14.9	9.1	100.0
연령	20대	(121)	58.7	16.5	20.7	4.1	100.0
	30대	(140)	47.9	32.9	13.6	5.7	100.0
	40대	(53)	54.7	17.0	3.8	24.5	100.0
	50대	(5)	60.0	0.0	40.0	0.0	100.0
	기타	(52)	48.1	32.7	13.5	5.8	100.0
활동분야	촬영	(57)	64.9	22.8	8.8	3.5	100.0
	미술	(51)	64.7	19.6	13.7	2.0	100.0
	음향	(50)	58.0	26.0	14.0	2.0	100.0
	편집	(50)	32.0	32.0	30.0	6.0	100.0
	기타	(59)	50.8	10.2	11.9	27.1	100.0
경력	3년 미만	(69)	55.1	11.6	21.7	11.6	100.0
	3~5년 미만	(69)	62.3	11.6	18.8	7.2	100.0
	5~10년 미만	(99)	46.5	32.3	14.1	7.1	100.0
	10년 이상	(82)	52.4	32.9	7.3	7.3	100.0

<표 3-4-37> 응답자 특성별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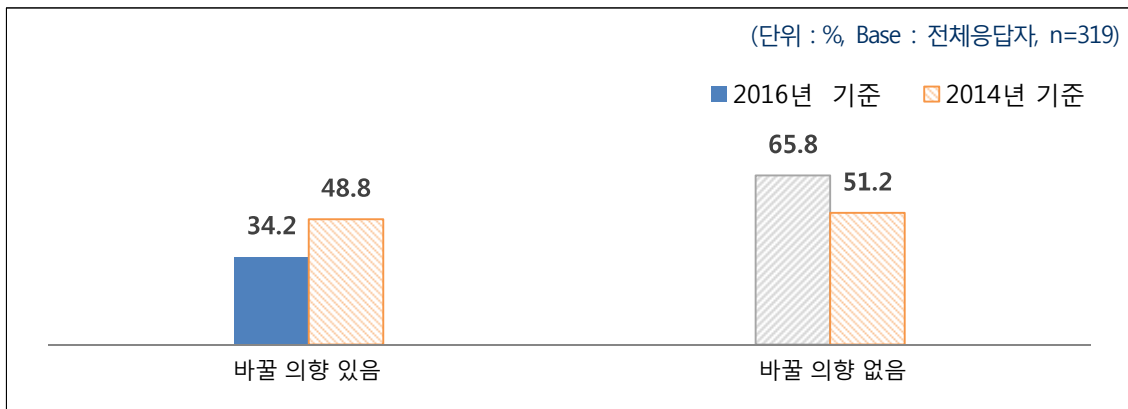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작품 제작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	제작자/PD/ 관련분야 선배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	규모 있는 제작사에 취직
전체		(319)	87.5	57.1	27.6	27.0
성별	남자	(198)	87.9	58.6	27.8	24.2
	여자	(121)	86.8	54.5	27.3	31.4
연령	20대	(121)	88.4	60.3	14.9	36.4
	30대	(140)	83.6	67.1	24.3	22.9
	40대	(53)	94.3	26.4	64.2	15.1
	50대	(5)	100.0	20.0	40.0	40.0
활동분야	기획	(52)	84.6	69.2	15.4	30.8
	촬영	(57)	89.5	57.9	35.1	17.5
	미술	(51)	98.0	64.7	11.8	25.5
	음향	(50)	92.0	62.0	16.0	30.0
	편집	(50)	82.0	62.0	16.0	40.0
	기타	(59)	79.7	30.5	64.4	20.3
경력	3년 미만	(69)	85.5	44.9	29.0	39.1
	3~5년 미만	(69)	88.4	49.3	30.4	30.4
	5~10년 미만	(99)	84.8	68.7	23.2	22.2
	10년 이상	(82)	91.5	59.8	29.3	19.5

2) 직업 변경 의향

(1) 직업 변경 의향

- 전체 응답자의 34.2%가 '직업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 직업을 '바꿀 의향 있는' 제작스태프는 2014년 대비 ▽1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5> 직업 변경 의향



- 분야별로 살펴보면, '직업을 바꿀 의향이 있음'은 촬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8> 응답자 특성별 직업 변경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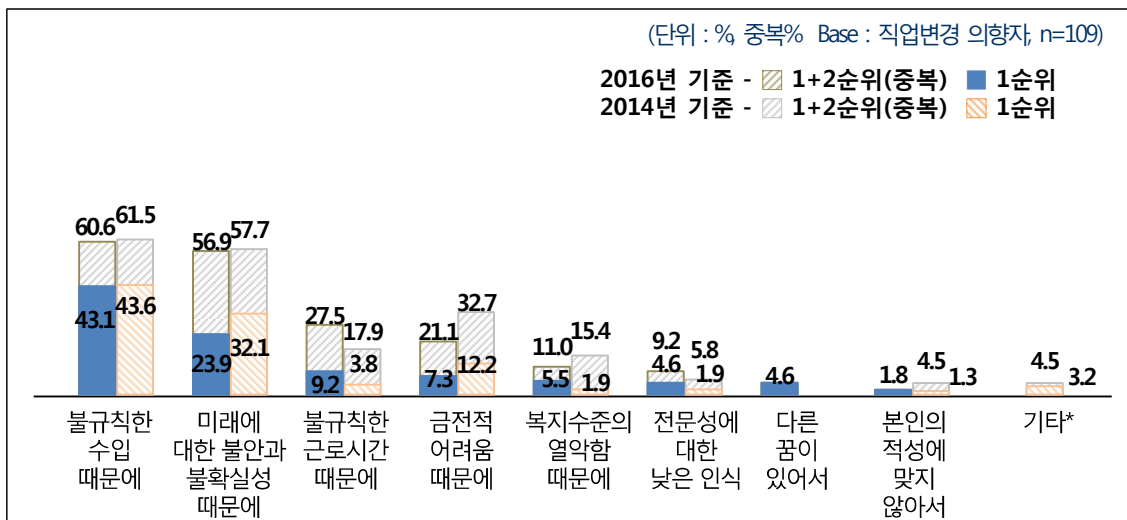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바꿀 의향 있음	바꿀 의향 없음	계
<b>전체</b>		<b>(319)</b>	<b>34.2</b>	<b>65.8</b>	<b>100.0</b>
성별	남자	(198)	37.9	62.1	100.0
	여자	(121)	28.1	71.9	100.0
연령	20대	(121)	31.4	68.6	100.0
	30대	(140)	37.9	62.1	100.0
	40대	(53)	30.2	69.8	100.0
	50대	(5)	40.0	60.0	100.0
활동분야	기획	(52)	26.9	73.1	100.0
	촬영	(57)	57.9	42.1	100.0
	미술	(51)	25.5	74.5	100.0
	음향	(50)	28.0	72.0	100.0
	편집	(50)	10.0	90.0	100.0
	기타	(59)	50.8	49.2	100.0
경력	3년 미만	(69)	50.7	49.3	100.0
	3~5년 미만	(69)	26.1	73.9	100.0
	5~10년 미만	(99)	29.3	70.7	100.0
	10년 이상	(82)	32.9	67.1	100.0

(2) 직업 변경 이유

- 직업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109)의 직업 변경 이유를 1순위 응답기준으로 살펴보면,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가 4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23.9%),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 조사결과 대비(1순위 기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라는 응답은 ▽8.2%p 감소한 반면,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는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6> 직업 변경 이유



\* 기타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 등이 있음.

<표 3-4-39> 응답자 특성별 직업 변경 이유\_1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복지수준의 열악함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식	다른 꿈이 있어서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계
<b>전체</b>	<b>(109)</b>	<b>43.1</b>	<b>23.9</b>	<b>9.2</b>	<b>7.3</b>	<b>5.5</b>	<b>4.6</b>	<b>4.6</b>	<b>1.8</b>	<b>100.0</b>
성별	남자 (75)	46.7	21.3	8.0	8.0	6.7	4.0	5.3	0.0	100.0
	여자 (34)	35.3	29.4	11.8	5.9	2.9	5.9	2.9	5.9	100.0
연령	20대 (38)	42.1	23.7	10.5	7.9	5.3	2.6	2.6	5.3	100.0
	30대 (53)	45.3	20.8	9.4	7.5	5.7	3.8	7.5	0.0	100.0
	40대 (16)	37.5	37.5	0.0	6.3	6.3	12.5	0.0	0.0	100.0
	50대 (2)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활동분야	기획 (14)	35.7	14.3	7.1	7.1	7.1	14.3	7.1	7.1	100.0
	촬영 (33)	51.5	24.2	15.2	3.0	6.1	0.0	0.0	0.0	100.0
	미술 (13)	38.5	38.5	7.7	15.4	0.0	0.0	0.0	0.0	100.0
	음향 (14)	28.6	35.7	14.3	0.0	7.1	0.0	14.3	0.0	100.0
	편집 (5)	40.0	20.0	0.0	20.0	0.0	0.0	0.0	20.0	100.0
기타 (30)	46.7	16.7	3.3	10.0	6.7	10.0	6.7	0.0	100.0	
경력	3년 미만 (35)	51.4	20.0	11.4	5.7	0.0	2.9	5.7	2.9	100.0
	3~5년 미만 (18)	33.3	38.9	0.0	11.1	5.6	5.6	0.0	5.6	100.0
	5~10년 미만 (29)	41.4	20.7	13.8	6.9	13.8	0.0	3.4	0.0	100.0
	10년 이상 (27)	40.7	22.2	7.4	7.4	3.7	11.1	7.4	0.0	100.0

&lt;표 3-4-40&gt; 응답자 특성별 직업 변경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중복%)

		사례수 (명)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복지수준 의 열악함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식	다른 꿈이 있어서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체		(109)	60.6	56.9	27.5	21.1	11.0	9.2	4.6	1.8
성별	남자	(75)	65.3	53.3	26.7	24.0	12.0	9.3	5.3	0.0
	여자	(34)	50.0	64.7	29.4	14.7	8.8	8.8	2.9	5.9
연령	20대	(38)	63.2	50.0	34.2	23.7	5.3	5.3	2.6	5.3
	30대	(53)	64.2	54.7	28.3	20.8	11.3	7.5	7.5	0.0
	40대	(16)	43.8	81.3	6.3	18.8	18.8	25.0	0.0	0.0
	50대	(2)	50.0	50.0	50.0	0.0	50.0	0.0	0.0	0.0
활동분야	기획	(14)	64.3	28.6	28.6	21.4	7.1	21.4	7.1	7.1
	촬영	(33)	75.8	51.5	42.4	18.2	12.1	0.0	0.0	0.0
	미술	(13)	61.5	76.9	23.1	23.1	0.0	7.7	0.0	0.0
	음향	(14)	42.9	78.6	21.4	14.3	7.1	14.3	14.3	0.0
	편집	(5)	40.0	60.0	20.0	20.0	0.0	20.0	0.0	20.0
	기타	(30)	53.3	56.7	16.7	26.7	20.0	10.0	6.7	0.0
경력	3년 미만	(35)	62.9	51.4	31.4	25.7	0.0	5.7	5.7	2.9
	3~5년 미만	(18)	55.6	61.1	22.2	33.3	16.7	5.6	0.0	5.6
	5~10년 미만	(29)	69.0	55.2	34.5	13.8	17.2	0.0	3.4	0.0
	10년 이상	(27)	51.9	63.0	18.5	14.8	14.8	25.9	7.4	0.0

#### 4.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

-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으로는 '임금이 낮다'(8.5%), '근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6.6%), '근로 시간이 길다'(4.7%)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3-4-41>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중복응답)

no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 희망 사항	비율(%)
1	임금이 낮다	8.5
2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6.6
3	근로 시간이 길다	4.7
4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	2.8
5	인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2.8
6	폭언을 한다	2.8
7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2.5
8	스태프 복리후생이 좋지 않다	2.5
9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2.5
10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 열악하다	2.2
11	스케줄이 불규칙하다	1.9
12	충분한 제작비 투입이 필요하다	1.6
13	스태프간 개런티가 불공평하다	1.3
14	스태프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	1.3
15	부당한 대우를 개선했으면 한다	1.3
16	표준계약을 준수했으면 한다	1.3

\* 전체 응답 기준 상위 1.0% 이상만 따로 표시함.(없다 54.9%)

**\*참고- 주요 소속 협·단체(응답자 기준)**

&lt;표 3-4-42&gt; 주요 소속 협·단체(응답자 기준)

no	소속 주요 협·단체
1	영화산업노동조합
2	보조출연업체
3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4	실연자협회
5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7	저작권협회
8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9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10	독립영화협의회
11	한국방송작가협회
12	레코딩엔지니어협회
13	한국저작권협회
14	한국예술인협회
15	조명감독협회
16	프로듀서협회
17	한국영화제작부밴드
18	노동조합
19	엔지니어 협회
20	작가협회







## 부록

1.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내용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FGI 결과
3.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설문조사표
4.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설문조사표



[부록1]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 내용

1. 대중문화예술인

<표 4-1> 대중문화예술인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분야	직군	경력기간		응답자		전체
		8년 미만	8년 이상	성명	경력	
연기	연기자	2	2	김00	8년 미만	7
				이00	8년 미만	
	코미디언	2	1	김00	8년 이상	
				김00	8년 미만	
무용	댄서	2	1	김00	8년 이상	3
				유00	8년 미만	
				황00	8년 미만	
연주	연주자	2	2	박00	8년 미만	4
				양00	8년 미만	
				구00	8년 이상	
가창	가수	2	3	이00	8년 이상	5
				김00	8년 미만	
				박00	8년 미만	
				그00	8년 이상	
낭독	DJ	1	2	솔00	8년 이상	5
				최00	8년 이상	
				박00	8년 미만	
	성우	1	1	김00	8년 이상	
				전00	8년 미만	
기타	모델	2	1	이00	8년 이상	8
				김00	8년 미만	
	뮤지컬배우	2	1	심00	8년 이상	
				김00	8년 이상	
	공연예술가	1	1	이00	8년 미만	
인00				8년 이상		
기타 방송인	-	-	-	황00	8년 미만	
기타 방송인	-	-	-	이00	8년 이상	
전체		17	15	-		32

1) 대중문화예술 활동사항

(1) 입문경로

① 연기 분야

- 연기자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를 희망한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연기 비전공자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업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활동 영역을 방송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인지도를 올리고 싶은 코미디언들이 공채 코미디언 시험에 응시하고 있음.

<표 4-1-1> 입문경로(연기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를 희망하여 데뷔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공하지 않더라도 꿈을 갖고 뒤늦게 시작하는 배우들도 많은 편임.</li> </ul> <p><i>“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연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입문하는 이들이 많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 활동하다 전업, 연극영화과 졸업 후 대학로 극단에서 공연하다 오디션 통해 진출, 지인 추천으로 방송국 공채 탤런트 시험 응시 등 입문경로 다양함.</li> <li>• 지인의 소개로 오디션 본 후, 연극무대를 시작으로 방송연기자 활동 시작함.</li> </ul> <p><i>“대부분 적극적인 개인 의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i></p>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그 공연장에서 공연하다가 방송 특채로 데뷔함.</li> <li>• 코미디언은 공연장 공연 중 방송사 피디에 의한 캐스팅, 방송 공채, 특채 등을 통해 데뷔할 수 있음.</li> </ul> <p><i>“방송사별로 입문 계기가 모두 다르며, 인지도 쌓기 위해 코미디언을 방송 데뷔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로 개그공연장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들은 매년 공채 시험에 도전하여 방송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도 함.</li> </ul>

② 무용 분야

- 댄서의 경우 예전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관련 전공 학위 취득, 댄서양성아카데미 입학,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등 입문경로가 다양해짐.

<표 4-1-2> 입문경로(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즘은 대학에서 전공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많고, 대규모 댄서 양성아카데미 통해 입문하는 경우도 증가함.</li> <li>입문 계기가 댄스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짐. 최근 학위 취득 위해 춤 관련 전공자가 늘어나는 추세임.</li> </ul> <p><i>“외교관을 꿈꾸었으나 춤을 좋아하게 되어서 댄서로 진로를 바꾸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에서 전공한 경우,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우, 가수 준비하다 댄서로 전환한 경우 등 입문경로는 다양함.</li> <li>가수를 희망했지만 댄서로 전향하게 된 경우도 있음.</li> </ul> <p><i>“원래 가수를 희망했는데 춤에 소질과 관심이 더 생겨서 댄서로 전향하게 되었어요.”</i></p>

③ 연주 분야

- 연주자는 주로 본인의 관심과 흥미로 입문하게 되고, 대부분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음.

<표 4-1-3> 입문경로(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에서 드럼 전공했고, 대학 지도 교수 추천으로 입문함.</li> <li>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했으며, 대학 교수의 추천으로 프로 밴드 활동을 시작함.</li> <li>대부분 학교 동문이나 지인소개를 통해 연주자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대부분 지인소개로 연주자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용음악 전공했고, 교수 추천을 통해 연주자로 입문함.</li> <li>대부분 대학에서 전공하면서 지인소개를 통해 연주자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④ 가창 분야

- 가수는 본인의 의지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오디션 및 교육기관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 많음.

<표 4-1-4> 입문경로(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터테인먼트 시장 활성화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도 많아져 입문경로 다양해짐.</li> <li>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다 오디션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거나 가족 혹은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경우가 많으며, 입문경로로는 가요제, 밴드활동, 비공식 오디션, 지인 추천, 녹음한 파일을 기획사에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었음.</li> </ul> <p><i>“40대 이상의 가수들은 보통 가요제 출신들이 많은 편이에요.”</i></p>

⑤ 낭독 분야

- DJ는 정식 공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성우는 다른 직군 대비 직업적 특성이 강하며, 공채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표 4-1-5> 입문경로(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 리포터, 아나운서에 종사하며 라디오 DJ 입문기회 얻음.</li> <li>인지도 때문에 연예인 정도만 공중파 라디오 DJ 활동 기회 얻음.</li> </ul> <p><i>“공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라디오DJ만 뽑는 경우도 거의 없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 DJ 1세대들은 고졸 출신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 교육 시스템 정착되어 관련 분야 전공자 증가하는 추세임.</li> <li>평소 음악 DJ 분야 관심 많았고, DJ로부터 개인레슨을 받고 입문함.</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우라는 직업의 선호도가 높아서 학원이나 개인레슨 등을 받고 공채로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우인 지인 소개로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 받고 공채로 입문함.</li> <li>50대 이상 성우들은 연극영화과 연기자 출신이 많은 편임.</li> </ul> <p><i>“연기자가 꿈이었는데 목소리가 좋다보니 성우로 입문했어요.”</i></p>

⑥ 기타 분야

- 모델은 대부분 모델에이전시나 아카데미 혹은 선발대회를 통해 입문하며, 과거 대비 관련 학과 출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뮤지컬배우는 무용, 노래, 연기 등 뮤지컬 관련 학과 전공자가 많은 편임.
- 공연예술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문하는 편임.

<표 4-1-6> 입문경로(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생 시절 길거리 캐스팅으로 수차례 제의를 받았으며, 지인들의 지속적인 권유로 모델 아카데미에서 모델 수업을 받고 소속사에 들어가면서 모델 활동을 시작함.</li> <li>•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의상과에 진학하여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중 직접 의상을 입고 모델이 되고 싶어서 모델에이전시를 통해 작은 모델 대회에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함.</li> <li>• 대부분 모델에 관심을 갖고 대학 모델과로 진학하거나, 모델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모델 활동을 시작하는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은 신체적 조건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모델로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스스로 모델에이전시를 찾아 가거나 예고 등에 입학하여 모델 활동을 시작함.</li> <li>• 모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하면서 모델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 ‘모델이 되고 싶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쌔쌔’ 라는 잡지 모델로 길거리 캐스팅되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i></p>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노래, 연기 전공자들이 뮤지컬배우로 전향하여 입문하는 경우도 많음.</li> <li>• 대부분 대학에서 뮤지컬 전공하고 입문하며, 일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로 연극 무대를 경험하며 입문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대학 비전공자이지만 연기학과 뮤지컬 워크숍 등의 경험과 오디션 통해 입문하였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연기/노래 레슨을 받는 중이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은 전공자들이 많은 편이며, 비전공자라도 매력을 느껴 입문하는 사례도 있음.</li> <li>• 공개 오디션 기회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많은 편임.</li> </ul> <p><i>“어렸을 때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뮤지컬 관련 학교에 진학, 오디션을 통해 데뷔했죠.”</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센터에서 난타 수업 받은 이후 공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도 취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음악 관련 전공자들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2) 전업예술인 여부

① 연기 분야

- 인지도 있는 연기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촬영이 없으면 다른 일을 병행하는 편임. 특히, 비교적 쉽게 구하고 근무여건이 탄력적인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임.
- 코미디언은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 행사 MC, 보조연기자 등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경력이 높을수록 기획, 자영업 등을 겸업하지만, 최근 코미디 인기 저하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코미디언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표 4-1-7> 전업예술인 여부(연기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기간 이외에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약 없는 촬영이나 미팅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하고 쉽게 빠질 수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임.</li> <li>• 남자배우는 보통 일용직, 대리운전, 강의, 일회성 강연 등의 일을 많이 하며, 여자배우는 마트나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함.</li> </ul> <p><i>“촬영 기간 이외에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죠. 예전에는 일용직으로 일할 때도 있었지만 건축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건축 디자인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할 때가 많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고 일 또한 불규칙하다 보니 생계유지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음.</li> <li>• 대부분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서비스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함.</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생계 때문에 바이럴 광고(연기자로 참여), 행사(결혼식, 돌잔치, 지역축제) MC, 단역, 보조연기자, 도우미, 배달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겸해야만 함.</li> <li>• 영상제작 분야 활동, 개인방송, 대학 강의, 학원 강사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li> <li>• 인지도 있는 경우 행사나 광고를 직접 계약하여 활동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코미디 프로 인기 저하로 편성이 줄고, 활동 기회나 장소도 감소하는 추세라 코미디언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li> <li>• 코미디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중고자동차 딜러, 부동산 관련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소득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연기획, 기업광고, 바이럴 광고, 행사 기획 등 기획 일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i></p>



② 무용 분야

- 업계에서 자리 잡은 8년 이상 댄서들은 주로 기획사 연습생 레슨, 안무가 등을 병행하고 있음.

<표 4-1-8> 전업예술인 여부(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공모전 지원을 통해 작품 지원을 받은 적도 있음.</li> <li>•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편이며, 교육관련 레슨, 강의 등도 겸하고 있음.</li> </ul> <p><i>“댄서들은 활동 기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PC방, 카페,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서로 활동하면서 기획사 가수들을 가르치는 레슨을 겸업하고 있음.</li> <li>• 방송 출연과 레슨 하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음.</li> </ul> <p><i>“30대의 댄서들은 방송 백업댄서를 하면서 레슨을 겸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송출연, 공연, 레슨 등을 병행하죠.”</i></p>

③ 연주 분야

- 정상급 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학원 및 개인레슨, 강의, 작곡 등을 병행하고 있음.

<표 4-1-9> 전업예술인 여부(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주활동이 바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연주가 없는 오전 시간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함.</li> <li>• 대체로 연주활동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오전에 일반 회사에서 직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연주활동 하면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개인레슨도 병행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개인레슨, 대학 강의, 작곡이고, 게스트 하우스 운영 등 자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음.</li> <li>• 정상급 연주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대학이나 학원 강의를 제일 많고, 40대 이상 연주자들은 카페나 술집 등 자영업을 운영하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i></p>

④ 가창 분야

- 인지도 있는 가수들의 경우 영화, 드라마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겸업을 하고 있음. 기획사 소속 가수인 경우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음. 소수의 인지도 높은 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수들은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표 4-1-10> 전업예술인 여부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수로 활동하면서 카페, 마트, 판매직,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li> <li>현재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멤버들도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지 않음.</li> </ul> <p><i>“학생(중학교 1학년)이지만 걸그룹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수로 활동하면서 개인레슨, 학교강의, 방송 단역배우 등을 겸업하고 있음.</li> <li>인지도 있는 가수들은 라이브 카페, 행사, 야간업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li> <li>자영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 강의 또는 개인레슨 등을 병행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음.</li> <li>소수의 인지도 높은 가수 제외한 대부분은 생계 때문에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li> </ul> <p><i>“동일 분야에 있는 연륜이 있는 가수들은 자영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편이에요.”</i></p>

⑤ 낭독 분야

- 라디오 DJ의 경우 과거와 달리 전업 라디오 DJ가 거의 없으며,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출신 DJ처럼 인지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강의, 행사 MC, 방송 진행 등 다른 분야의 일을 병행함.
- 성우들은 일반적으로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경력에 따라 부업으로 자영업, 강의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4-1-11> 전업예술인 여부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 행사 MC, 방송 진행을 겸하고 있음.</li> <li>연예인일 경우 본업을 하며 라디오 DJ를 하는 사람이 있으며, 공중파 라디오 DJ 경우 아나운서를 하면서 본사 라디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시청률 때문에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기 때문에 전업 DJ는 극히 드물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업이 개그맨, 연기자 등이 대부분이고, 라디오 DJ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와 달리 전업 라디오 DJ는 찾기 어려움.</li> <li>음악 DJ들은 보통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음.</li> <li>기자, 공무원 등 다양한 본업을 가지고, 음악 DJ를 부업으로 겸업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대학 강의, 행사 MC, 작곡, 작사, 프로듀서 일도 겸하고 있음.”</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우들은 보통 전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업으로 일하는 성우가 대부분이며, 40대 이상이 되면 부업으로 자영업을 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li> </ul>

⑥ 기타 분야

- 모델의 경우 소득이 적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경력에 관계없이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인지도에 따라 본업에만 전념하게 될 수도 있음.
- 뮤지컬배우는 연습기간 동안 수입이 따로 없으므로, 대부분 학교 수업, 입시학원 레슨, 재연배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있음.
- 공연예술가는 수입이 적고 활동도 많지 않아 개인레슨, 학원 강사, 행사 MC,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있음. 보통 여자들은 주부가 많고, 남자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비교적 자유로운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음.

<표 4-1-12> 전업예술인 여부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인의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의전 행사 도우미나 안내데스크에서 도우미 등의 일을 하기도 함.</li> <li>• 5~6년 정도 활동하면 모델에이전 시도 많이 알게 되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업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모델 활동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주얼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이 있는 모델은 모델 강사나 모델 에이전시에 직원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도 있음.</li> <li>• 인지도 있는 경력자들은 패션모델로 시작하다가 광고 모델, 홈쇼핑 모델, 연기자, MC 등의 활동도 겸업하는 편임.</li> </ul> <p><i>“현재는 무대연출, 패션쇼 연출, 박람회, 런칭 파티, 행사 기획 등의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i></p>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행사 모델 일을 병행하고 있음. 특히 행사 모델은 일당(10만 원 이상)이 높은 편임.</li> <li>• 대부분 학교 수업, 입시학원 레슨, 재연배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있음.</li> </ul> <p><i>“편의점 운영처럼 자영업을 하면서 뮤지컬배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학교, 학원 등의 강의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스케줄 조정이 용이한 촉가 아르바이트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나 학원/학교 강의도 병행함.</li> </ul> <p><i>“공연이 없을 때 보통 아르바이트나 행사를 하는 편이에요.”</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여자들은 주부가 많고, 남자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비교적 자유로운 직장에 다니는 편임.</li> </ul> <p><i>“주민 센터나 장애인 센터에서 난타 강사로 활동을 하며, 중학교에서 난타관련 방과 후 교사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바이트(편의점, 커피숍, 단기 아르바이트 등), 학원 강사, 행사 MC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음.</li> <li>• 유튜브와 영상제작 분야에서 개인 방송 활동도 하고, 학교 강사 활동도 겸업하고 있음.</li> </ul>

(3) 근로 활동 관련 사항

① 연기 분야

- 연기자는 경력 보다는 캐스팅 여부, 주/조연급 여부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 및 작업시간 등 촬영여건에 차이가 존재함.
- 코미디언의 경우 매주 코너의 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활동시기가 불규칙하고, 경력보다 공채나 인지도에 따라 대우 및 기회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함.

<표 4-1-13> 근로 활동 (연기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스팅 여부에 따라 활동시기가 달라짐. 다만 촬영시간 외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 때가 많으며, 주조연급을 제외한 단역들은 활동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li> <li>드라마 출연은 캐스팅 디렉터로부터 연락이 와서 출연이 바로 결정되지만, 영화는 연기가 직접 오디션을 보고 출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li> </ul> <p><i>"소품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많은 시기가 따로 있지 않아서 평균내기 어려움.</li> <li>작품 활동 중간에 광고 촬영이 있거나 영화에 캐스팅 되면 영화 촬영도 함.</li> <li>캐스팅 디렉터나 에이전시를 통해 작품에 참여하는 경우 촬영제이가 들어올 때 일을 함.</li> <li>오디션 정보를 알지 못해 작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력도 중요함.</li> </ul> <p><i>"개인적인 자질(노력)과 기획사, 인맥, 라인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불규칙한 활동을 버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죠."</i></p>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너 하나를 2~3일에 걸쳐 짜게 되며 담당 PD의 수정을 거쳐 녹화를 하며, 방청객 반응을 보고 코너 개설 여부 결정하게 됨.</li> <li>매주 코너의 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능 MC 고정으로 가지 않는 이상 늘 불안하므로, 방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KBS 개그콘서트, tvN 코미디 빅리그, SNL이 전부라 특별히 활동이 많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li> <li>공연은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치 않음.</li> </ul>

② 무용 분야

- 댄서는 성수기인 9월~12월이 제일 바쁜 편이고, 1월~4월은 비수기라 활동이 없는 편임. 공연여부에 따라 활동시간이 다르며, 대형 기획사에 안무가로 소속된다면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 개인의 실력과 노력은 기본이고 연고와 인간관계도 댄서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경력에 따라 공연 안무, 방송 댄스, 연출 및 제작 분야에서도 활동함.

<표 4-1-14> 근로 활동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수기인 9월~12월이 제일 바쁘며, 1월~4월은 비수기라 활동이 없는 편임.</li> <li>• 행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공연 시간은 보통 15~20분 정도 소요됨.</li> <li>•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힘들.</li> <li>• 뛰어난 개인의 실력은 기본조건이며 인성과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함.</li> <li>• 댄서가 소속사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형 기획사 소속 여부도 중요하지 않음.</li> <li>• 대형 기획사에 안무가로 소속된 경우,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li> </ul> <p><i>“개인적인 연습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지하철 역 등에서도 연습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경력은 10년 정도 되었지만 매일 공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4개월 정도는 공백 기간 발생함.</li> <li>• 공연 안무, 방송 댄스, 연출 및 제작 분야에서도 활동함.</li> <li>• 댄서들 대기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li> <li>• 무대에서 공연하는 직업은 주위 환경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나마 제작사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가 지원됨.</li> <li>• 안무가(디렉터)가 되길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은 없다고 봄.</li> <li>•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댄서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고와 인간관계임.</li> </ul> <p><i>“주로 스트릿 댄서로 활동하지만 공연 안무, 방송 댄스, 연출 및 제작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i></p>

③ 연주 분야

- 연주자는 대부분 1~2월이 비수기이고, 각종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여름부터 연말까지 바쁜 시기임. 공연 장소나 여건에 따라 활동시기가 달라지며, 리허설과 본 공연까지 최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지방공연도 있음. 최근 공연장 안전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공지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임.

<표 4-1-15> 근로 활동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행사들 많은 여름부터 연말까지 바쁜 시기임.</li> <li>• 공연 장소나 여건에 따라 활동시기가 달라지며, 리허설과 본 공연까지 최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지방공연도 있음.</li> <li>• 공연날 기준으로, 리허설과 공연 시간까지 최대 7시간 정도 소요됨. 지방 공연은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많음.</li> <li>• 상해사고 발생 시 제작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줌.</li> <li>• 최근 공연장 안전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공지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임.</li> <li>• 대부분 지속적인 연주활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 없음.</li> </ul> <p><i>“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연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편이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1~2월이 비수기이고, 여름부터 연말까지 활동이 많음.</li> <li>• 소속사 밴드 멤버라 앨범 발매 이후가 활동이 많은 시기임.</li> <li>• 가수들 앨범 작업에 참여할 때나 대학 축제 및 연말 콘서트, 지방자치단체 축제,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공백기간 발생함.</li> <li>• 낙후된 공연시설이 많지만 안전교육 및 지도를 받은 적 전무함. 특히 스태프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음.</li> <li>• 소속사 없이 개인 활동할 경우가 많아 공연 및 녹음(경제활동)을 위해 연고와 인간관계가 중시됨.</li> </ul> <p><i>“이동시간과 평균 대기시간 5-6시간까지 포함하면 결국 하루가 모두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i></p>

④ 가창 분야

- 가수 활동이 많은 시기는 연말이 다가오는 10~12월이며, 활동 시간은 공연과 방송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임. 방송의 경우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직업 특성상 수명이 짧아 안정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표 4-1-16> 근로 활동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일이 많은 달, 특히 5월 어린이날, 12월 크리스마스에 공연이 많아 활동이 많은 시기임.</li> <li>• 앨범 발매하면 방송과 행사 지속하며 한 달에 최소 1~2회, 최대 10회 공연함.</li> <li>• 1일 평균 6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 달에 10~15번 공연 있음.</li> <li>• 노래를 부르는 공연 시간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음.(1곡당 3~5분 내외)</li> <li>• 야외 공연 시 햇빛에 눈이 부시거나, 겨울에 의상 때문에 춥기도 하지만 일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li> <li>• 걸그룹 멤버들과 4~5년째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팀워크도 좋고 부모님들끼리의 사이도 좋아서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불안하지는 않음. 다만, 추후 연기자로의 전향에 대한 불안감 존재함.</li> </ul> <p><i>“집에서 회사까지 이동 → 간단한 연습 → 공연장 이동 → 공연 대기 → 공연(1곡당 3~5분 내외)과 같은 스케줄로 1일 평균 6시간, 한 달에 10~15번 공연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이 많은 시기는 연말이 다가오는 10~12월이며, 활동 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임.</li> <li>• 공연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 이상은 활동하지 못함.</li> <li>• 해외공연 및 각종 가요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하루 3~4개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고 활동 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보편적임.</li> <li>• 올해는 가수로 활동하는 것보다 주위 뮤지션들의 앨범 작업이나 공연에서 코러스 또는 악기 연주 등의 세션으로도 참여한 비중 높음.</li> <li>• 지방 공연장 또는 야외 가설무대 시설 및 안전이 대형 공연장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상해사고를 입는 사례가 많고, 상해사고를 당해도 제작사에서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개인적으로 치료 받았음.</li> <li>• 활동 공백 기간엔 (동종업계)보컬 트레이너 활동 등을 함.</li> </ul> <p><i>“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기는 하지만, 아이돌 가수 특성상 수명이 짧아서 직업의 안정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추후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대학원 학위를 받을 예정이에요.”</i></p>



⑤ 낭독 분야

- 라디오 DJ는 하루 1~2시간 정도 방송활동을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 청취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안정한 직업이라 할 수 있음.
-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성우는 비수기가 없지만, 광고나 게임 관련 성우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못함. 최근 외화 더빙이 사장되는 분위기라 관련 작업이 거의 없고, 라디오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분야 활동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임.

<표 4-1-17> 근로 활동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DJ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정도 방송 활동하고 있음.</li> <li>• 지역방송 경우, 공중파와 다르게 인력부족으로 라디오 DJ의 역할분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li> </ul> <p><i>“라디오 DJ는 재계약에 대한 불안함. 청취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DJ는 활동 많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li> <li>• 클럽 레지던트 음악 DJ는 고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활동 많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축제나 행사기간에 활동하는 음악 DJ는 여름이 가장 바쁜 시기임.</li> <li>• 음악 DJ의 회당 활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경우에 따라 라이브가 아닌 사전 녹음으로 일할 때도 있음.</li> </ul> <p><i>“문화나 사회 변화를 읽은 센스와 판단력뿐만 아니라 연고와 인간관계가 있어야 일을 지속할 수 있죠.”</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4-12월까지는 꾸준히 일하는 편이며, 활동을 오래했던 성우들은 특별한 비수기가 없음.</li> <li>• 다른 예술인 직군처럼 리허설을 하거나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들이 없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li> </ul> <p><i>“성우는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은 없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급수를 나눠 10년 이하는 B급, 10년 이상인 경우 A급이며, 신인 시절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이 주어짐.</li> <li>•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성우들은 비수기가 없지만, 광고나 게임과 관련 성우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못함.</li> <li>• 최근 외화 더빙이 사장되는 분위기라 그 쪽 일이 거의 없고, 라디오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분야의 일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음.</li> </ul> <p><i>“밀폐된 녹음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아요.”</i></p>

⑥ 기타 분야

- 모델의 경우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출연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모델에 대한 편이나 복지수준이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뮤지컬배우는 하고 싶은 작품의 오디션에 합격해야 작품을 하기 때문에, 활동 많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움. 제작사 규모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작업 환경의 차이도 확연히 존재함.
- 공연예술가는 봄(5월, 6월), 가을(9월, 10월), 연말(12월)에 공연이 많음.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고, 주로 소개를 통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작품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표 4-1-18> 근로 활동 (기타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걸즈컬렉션, 서울패션위크 시즌, 봄, 가을에 활동이 많고, 여름과 겨울은 비수기임.</li> <li>•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대부분 모델 개인적으로 치료함.</li> <li>• 야외 쇼는 대기실 없이 간이 천막에서 헤어, 메이크업하며 서서 대기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음.</li> <li>• 신인은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에이전시가 필요하며 에이전시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분야로의 활동을 할지에 대한 계획과 모델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조건임.</li> <li>•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출연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모델에 대한 편이나 복지수준이 점차 나빠지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은 없음.</li> </ul> <p><i>“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가 필수이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잡기 위한 운도 필요하죠.”</i></p>

<표 4-1-18> 근로 활동 (기타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야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 합격해야 작품을 하기 때문에 활동 많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움.</li> <li>• 대부분 공연이 없는 경우 연습이나 겸업하는 편임.</li> <li>• 공연 횟수가 나뉘는 더블 캐스팅은 쉬는 기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음.</li> <li>• 공연장 규모에 비례하여 공연환경이나 안전성 여부가 결정됨.</li> </ul> <p><i>“직업의 안정성은 없지만 연기자라는 직업이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고, 영화나 방송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작품에 참여하면 연습기간 5~7주, 공연기간은 작품에 따라 상이함. 연습기간엔 보통 10시~22시까지 12시간 연습이 기본임. 연기나 노래 이외에 기능적 요소가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이 추가됨. 공연기간에는 5~6시간 정도가 기본 활동 시간임.</li> <li>• 제작사 규모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작업 환경이 다른 편임. 대형 뮤지컬로 갈수록 좋음.</li> </ul> <p><i>“출연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하고 안정성도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5월, 6월), 가을(9월, 10월), 연말(12월)에 공연이 많음.</li> <li>• 보통 공연시간은 5~20분 정도임.</li> <li>• 직업으로 하기에 안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li> <li>• 자기계발 노력 필요하고, 소개를 통해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함.</li> </ul> <p><i>“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지만 안전적으로 아직 크게 문제된 적은 없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이 많아지는 3월~8월, 11월~12월이 가장 바쁘고, 9월~10월, 1월~2월은 비수기임.</li> <li>• 공연 준비기간에는 10시~22시까지 연습하고, 공연 기간에는 보통 10시~16시 또는 13시~18시에 활동함.</li> <li>• 침수피해, 에어컨 유무, 건물 노후화, 소음 취약 등으로 연습실 환경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li> </ul> <p><i>“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직업이라 볼 수 있어요.”</i></p>

2) 대중문화예술 관련 고용현황

(1) 회사 소속 여부

① 연기 분야

- 연기자의 30% 정도가 기획사 소속으로 연기자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됨. 계약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주로 3년/5년/7년 단위로 계약을 맺음. 계약방식은 인지도에 따라 다르며, 인지도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수익분배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2년 계약 체결이 보편적임.
- 코미디언의 경우 공채/특채 혹은 소속사 소속 여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여부가 달라짐. 소수의 인지도 있는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소속사가 있는 편임.

<표 4-1-19> 고용 현황 (연기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5년 계약 기간으로 연예 기획사와 계약한 상태임.</li> <li>• 계약서에 없는 활동은 소속사와 협의하여 할 수 있음. 규모가 큰 회사일 경우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음.</li> <li>• 30% 정도가 기획사 소속으로 연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됨. 계약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주로 3년, 5년, 7년임.</li> <li>• 신인들의 경우 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하는 편임.</li> </ul> <p><i>“현재 가계약 상태인 소속사가 있는데, 관리실장님이 프로필을 제작사에 돌리고 미팅을 잡아주고 있어요. 회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일을 시작하여 6년 정도 활동, 프리랜서 활동은 8년 정도 되었음.</li> <li>• 계약기간, 수익분배 정도가 표기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 활동함.</li> <li>• 계약방식은 인지도에 따라 다름. 인지도가 없는 경우 구두계약으로 일을 먼저 해보고 스타일과 이점이 맞으면 다음 계약 진행함. 인지도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 수익분배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 쓰고 활동하며, 2년 계약이 보편적임.</li> <li>•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소속사에 소속되어 외부 활동에 제약 있었지만, 특별한 회사지원도 없고 경력단절이 우려되어 몰래 연극 공연을 한 경험 있음.</li> <li>• 주변 배우들 중 연예 기획사 소속 비율은 낮은 편임.</li> </ul> <p><i>“비교적 좋은 활동기회가 열려 있는 연예 기획사 소속도 좋다고 생각해요.”</i></p>

<표 4-1-19> 고용 현황 (연기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미디언 전체 대비 소속사 없는 비율이 높음.</li> <li>• 현재 KBS 코미디언의 경우 50% 내외로 소속사가 있으며, SBS의 경우에는 개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인지도 많은 몇 명의 개그맨을 제외하고 소속사가 없음.</li> <li>• 현재 개그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계약금 받고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수익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로 계약함.</li> <li>• 일반 활동에 대한 지원(픽업, 코디 등)을 회사에서 해주며, 인지도에 따라 활동의 빈도, 수익 등에 차이가 남.</li> <li>• 계약 내용 범위 밖의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소속사에서 스케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방송이나 행사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활동 시간의 제약은 없는 편임.</li> <li>• 공채와 특채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여부가 달라짐.</li> <li>• 만약 계약서 작성 상태라면 계약서 외의 활동은 피디와 협의 하에 가능하지만, 계약서 원칙 상 불가능함.</li> <li>• 업계에서는 보통 2년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음.</li> <li>• 소속사 없이 개인 활동으로 작품에 참여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뭄.</li> </ul> <p><i>“소속사가 있는 편이 활동하기에 더 유리하지만, 인지도 없는 코미디언이나 개그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국 출신 코미디언은 소속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음.”</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도 있는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소속사가 있는 편임.</li> <li>• 코미디언 관련 기획사의 계약기간은 보통 3년 내외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음.</li> <li>• 방송국에 따라 연에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코미디언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고, 공채 코미디언을 선발해서 소속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li> <li>• 소속사에 있을 당시 계약금도 받았고, 계약기간 명시 등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맺었음.</li> <li>• 주로 행사 MC로 많이 참여함, 회사에서 움직이면 인건비와 진행비가 발생되며, 코미디언들은 생활을 위해서라도 작은 금액의 행사에도 참여함.</li> </ul> <p><i>“저는 계약 범위 밖에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며, 회사의 동의 없이 활동 하는 경우가 비밀비제한 편이에요.”</i></p>

② 무용 분야

- 댄서들은 제작사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로 구두계약을 통해 공연을 하는 편이라 이에 따른 구속력이 적으므로 다른 활동이 가능한 편임. 댄서들이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는 거의 드물며, 안무가 혹은 디렉터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계약 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됨.

<표 4-1-20> 고용 현황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을 할 때 제작사와 표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는 편임.</li> <li>• 계약서가 없거나 구속력이 적으므로 다른 활동이 가능함.</li> <li>• 계약을 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피해 없는 타협점을 찾아 개별 활동을 권장하고 있음.</li> <li>• 현재 소속사 같은 컴퍼니를 운영 중이며, 소속 댄서들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 1년 내외로 계약하며 개인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름.</li> <li>•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댄서는 소수의 안무가임.</li> </ul> <p><i>“현재 회사 소속 댄서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계약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본인의 컴퍼니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편이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서들이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는 거의 드물며, 안무가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사례는 소수에 불과함.</li> <li>• 안무가(디렉터)로 기획사와 계약할 경우 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됨.</li> </ul> <p><i>“가수 연습생일 때가 있었는데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이었죠.”</i></p>

③ 연주 분야

-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 기획사나 공연기획제작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평균 계약 단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6개월 혹은 1년 단위 계약도 있음. 연예 기획사 소속 밴드 멤버일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기간은 소속사에 따라 다름.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사정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됨.

<표 4-1-21> 고용 현황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적 없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문 세션으로 활동했던 적 있었는데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구두계약하고 단기간 활동했음.</li> <li>연주자들이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낮은 편임.</li> <li>계약기간에 대한 업계 평균은 알 수 없음.</li> <li>공연기획제작을 하는 단체와 1년 단위로 표준계약서로 계약 체결하며, 오케스트라에서는 단원 증명서를 발급해줌.</li> <li>계약서에 많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작사에서 주관하는 공연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편임.</li> </ul> <p><i>“프리랜서일 때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불안하고, 소속사와 계약하고 활동할 때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만 그 외의 일을 할 때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 기획사 소속 연주자의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프리랜서임.</li> <li>간혹 인지도 있는 연주자들은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함.</li> <li>연주 팀 리더 또는 팀장급은 세션 참여 시 제작사와 직접 계약함.</li> <li>표준계약서 통해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7년으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음.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사정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됨.</li> <li>계약서 조항에 없는 활동 분야를 경험한 적 있음.</li> <li>활동이 줄고 소득이 낮아지면 다른 일을 찾아 개인레슨, 앨범세션, 행사 등에 연주자로 참여함.</li> <li>밴드 멤버로 활동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말라는 제약도 있음.</li> <li>최근 음악 DJ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겸하기 때문에 연주자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li> </ul> <p><i>“밴드 멤버인 경우 연예 기획사에 소속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어요.”</i></p>

④ 가창 분야

- 전체 음악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기준으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비율은 낮은 편임. 10~20대 신인의 경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평균 7년을 계약하지만, 40대 이상 가수들은 대략 3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 4-1-22> 고용 현황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음악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비율은 낮은 편임.</li> <li>현재 연애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 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하였음.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알고 있음.</li> <li>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음.</li> <li>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5~7년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가수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을 때는 대표와 협의하여 스케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없는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li> <li>가수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멤버들이 모두 여자이고, 직원들이나 대표는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웬지 모를 위계질서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존재함.</li> </ul> <p>“기획사 소속된 이후에는 특정한 목표가 생겨서 좋지만, 5년 동안 기획사에 소속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사가 있었을 때는 음반제작과 활동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음반제작 비용이나 공연제작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졌으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li> <li>연예 기획사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기간은 7년임. 무명일 땐 수입이 없어서 힘들고 활동이 많아지면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음.</li> <li>아이돌 가수의 경우, 업계 평균적으로 연예 기획사와 5년에서 7년을 계약하는 것 같음.</li> <li>10~20대 신인의 경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평균 7년을 계약하지만, 40대 이상 가수들은 보통 3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li> <li>40대 기준으로 활동기간이 길고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므로, 1인 기획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례는 희박함.</li> </ul> <p>“구두계약이었기 때문에 활동 분야나 활동 시간에 대한 제약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다른 회사와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고 결국 소속사에서 이를 알게 되어 방출되었죠.”</p>



⑤ 낭독 분야

- 라디오 DJ는 소수의 인지도 있는 연예인, 공중파 소속 아나운서 이외에는 대부분 프리랜서임.
- 성우는 대부분 공채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국 전속기간 2년 동안 해당 방송사 일만 할 수 있음. 프리랜서의 경우 다양한 방면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소득이 활동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방송국 전속으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음.

<표 4-1-23> 고용 현황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소속사 없으며, 프리랜서임. 6개월~1년 정도 계약서 없이 일했던 적도 있음.</li> <li>• 방송국과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방송국 담당자의 부탁으로 시간 외의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불가피함.</li> <li>• 인지도 있는 연예인, 공중파 소속 아나운서 이외에는 대부분 프리랜서 라디오 DJ임.</li> <li>• 연예인 라디오 DJ는 프리랜서처럼 보통 1년 단위 계약일 경우가 많음.</li> </ul> <p><i>“라디오 DJ 이외 일은 방송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견할 수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DJ들이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는 거의 없으나, 프로듀싱이 가능한 경우 소속될 가능성 높음.</li> <li>• 최근 연예 기획사에서 비주열 좋은 음악 DJ들을 상품화하기 위해 발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li> <li>• 라디오 DJ는 대부분 프리랜서임. 연예인 라디오 DJ라면 대부분 소속사가 있겠지만, 연예인이 아닌 DJ들은 소속사가 없기 때문임.</li> <li>• 보통 메인 라디오 DJ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코너 라디오 DJ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li> </ul> <p><i>“라디오 DJ는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어요.”</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공채로 입사하여 2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함.</li> <li>• 모든 성우들이 방송국 공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뭄.</li> <li>• 프리랜서 성우의 경우, 보편적으로 구두계약을 하는 편이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공채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국 전속기간 2년 동안 해당 방송사 일만 할 수 있음.</li> <li>• 소득이나 다양한 방면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방송국 전속으로 활동할 때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임.</li> </ul> <p><i>“성우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이며, 국가지원 사업 운영 작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구두계약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예요.”</i></p>

⑥ 기타 분야

- 신인 모델들은 인맥과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소속사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역량에 따라 활동범위나 소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은 소속사 계약을 고민하는 편임.
- 뮤지컬배우로만 구성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는 거의 없는 반면, 연예 기획사에서 뮤지컬에 참여하는 배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계약기간은 보통 4~7년임.
-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공연예술가는 거의 드물며,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음.

<표 4-1-24> 고용 현황 (기타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소속사에 들어갔으며 계약금 없이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3년 계약 맺음.</li> <li>• 보통 패션모델의 경우 계약금은 없음.</li> <li>• 수익 분배 비율은 패션쇼의 경우 모델이 7 회사가 3, 광고의 경우 5:5 비율임.</li> <li>• 회사와 계약하면 소속사에서 연기나 모델 워킹 등 수업을 지원해주는 장점이 있음.</li> <li>• 신인의 경우 계약 기간이 평균 5년, 경력자는 1~3년 정도임.</li> <li>• 신인들은 인맥과 활동영역 때문에 소속사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회사 역량에 따라 활동의 범위나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력자들은 소속사와 계약하는 것을 고민함.</li> <li>• 모델 활동 이외에 연기자나 인터넷 방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껴 소속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델들도 많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로서 연예 기획사와 계약한 적 없음.</li> <li>• 모델 에이전시가 많아지는 추세임.</li> <li>• 에이전시에 소속되는 것이 모델 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음. 전속 모델도 있고 가전속처럼 프리랜서 개념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연예 기획사에서 다른 분야 연습생으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금은 없었고 계약 기간은 5년으로 기억하고 있죠. 3년 안에 음반을 내지 못하면 계약서 파기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p>

부록1.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내용: (1)대중문화예술인

<표 4-1-24> 고용 현황 (기타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적은 없지만 계약기간 7년으로 제의를 받은 적 있음. 계약종료 시 30대 후반이 된다는 심적 부담과 지향하는 기획사의 모습이 아니어서 거절함</li> <li>뮤지컬배우로만 구성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는 거의 없음.</li> <li>연예 기획사에서 뮤지컬에 참여하는 배우는 많으며, 연기자 계약기간은 보통 4~7년임.</li> <li>뮤지컬배우만 전업하는 경우 대부분 오디션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비율이 매우 낮음.</li> <li>현재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뮤지컬 작품을 할 때 공연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보통 3~4개월 기간만 계약함.</li> <li>뮤지컬 작품에 따라 다른데, 보통 연습기간과 공연기간 출연료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는 활동 분야나 시간은 관계없음.</li> </ul> <p><i>“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배우는 소수이고 대부분 프리랜서예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사 자체계약서를 통해 3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활동이 미미하여 합의하에 계약 파기 후 현재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li> <li>보통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쓰며, 3~5년 계약체결이나 인간적인 신뢰로 구두계약하는 경우도 있음.</li> <li>연예 기획사 소속 뮤지컬배우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li> </ul> <p><i>“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은 현재, 뮤지컬 공연할 때만 뮤지컬 제작사와 계약서를 작성해요. 사전 협의를 통해 외부 활동도 가능하죠.”</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난타 공연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경험도 없고,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li> </ul> <p><i>“제가 운영 중인 단체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기획사에 소속된 적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표준계약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내부 계약서로 계약하였음.</li> <li>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공연예술가는 거의 드물며, 대부분 프리랜서임.</li> </ul> <p><i>“소속된 연예 기획사와 협의 하에 외부 활동을 경험한 적 있어요.”</i></p>

(2) 4대 보험 가입 여부

① 연기 분야

- 연기자로 활동하며 건강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겠지만, 그 외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음. 연기자 활동 소득이 높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소수임.
-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된 비율은 10% 미만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소속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에 한함.

<표 4-1-25> 4대 보험 가입 (연기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된 기획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li> <li>• 촬영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기도 함.</li> <li>• 기획사 없는 연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 없으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임.</li> </ul> <p><i>“연예 기획사를 통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거의 없으며,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도 월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연기자로만 활동할 때는 4대 보험 없었지만, 최근 겸업을 하면서 가지게 됨.</li> <li>• 연기자 활동하며 건강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겠지만, 그 외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음.</li> <li>• 연기자 활동 소득이 높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소수임.</li> </ul> <p><i>“저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i></p>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며, 개인적으로 보험을 몇 개 가입했지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ul> <p><i>“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간혹 인지도 있는 선배들이나 회사의 정책을 맡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미디언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연기획 관련 회사를 창업하였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함.</li> <li>•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된 비율은 10% 미만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소속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임.</li> </ul>

② 무용 분야

- 댄서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 공연기간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음.

<표 4-1-26> 4대 보험 가입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해당 사항 없음.</li> <li>•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댄서들은 없음.</li> <li>•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대부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공연할 때만 제작사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함.</li> <li>• 동종업계 댄서들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임.</li> </ul>

③ 연주 분야

-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표 4-1-27> 4대 보험 가입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들은 적 없음. 대부분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ul> <p><i>“저는 연주가 없을 시 아버지 사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내가 회사에 재직 중이라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미가입. 대학에서 시간 강의하는 학기 중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됨.</li> <li>•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ul> <p><i>“대학 강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도 미가입자가 대부분일 겁니다.”</i></p>

④ 가창 분야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수는 거의 없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 고용보험은 대학 강의 기간에만 가입됨. 그 외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표 4-1-28> 4대 보험 가입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은 것 같음.</li> <li>혼자 살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 고용보험은 대학 강의 기간에만 가입됨. 그 외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li>건강보험은 지역보험이고 그 외의 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음. 다만 공연할 때 상해사고를 입으면 소속사에서 처리해 줌.</li> </ul> <p><i>“가수로 활동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i></p>

⑤ 낭독 분야

- DJ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음.
- 성우는 업계 보편적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

<표 4-1-29> 4대 보험 가입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디오 DJ는 4대 보험에 가입됨.</li> <li>라디오 DJ가 1년 단위 계약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 민간기관을 통해 국민연금도 가입되어 있음.</li> <li>클럽에서 활동하는 레지던트 라디오 DJ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음.</li> </ul> <p><i>“건강보험만 가족의 보험을 이용한 피부양자 자격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li>업계 평균적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임.</li> </ul> <p><i>“동종업계에서 활동하는 성우들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는 없어요.”</i></p>

⑥ 기타 분야

- 대부분의 모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없으며,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뮤지컬배우 분야에 4대 보험 가입자는 거의 없음. 대형 작품에 참여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소형 작품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공연예술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들어본 적 없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작품 계약 시 산재 보험 정도는 가입되는 경우가 있음.

<표 4-1-30> 4대 보험 가입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li> <li>주변 모델 지인들도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없음.</li> <li>모델 활동을 하며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보험처리를 해 줌.</li> </ul> <p><i>“소속사에 있을 때에도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현재는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광고 회사 소속이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모델 활동 시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 없음.</li> <li>모델들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없으며,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 거의 없음.</li> </ul>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업계의 뮤지컬배우들은 4대 보험 중 대부분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음.</li> <li>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대형 작품에서는 가입을 하는 것 같고, 중소형 작품에서는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제작사마다 천차만별임.</li> </ul> <p><i>“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 국민연금은 가입한 적이 없어요.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해당사항이 없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고 그 외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li>공연기간 중 공연제작사가 배우나 스태프들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건강보험만 가입하고 그 외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중인 단체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남편이 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들어본 적 없으며, 대부분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p><i>“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이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i></p>

3) 대중문화예술 소득 현황

① 연기 분야

- 연기자의 수입은 인지도와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임. 10년 경력자라도 극단에서 막 나온 경우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될 것이고, 공연+영화를 한 경우 1,500~2,000만 원 선, 드라마 위주로 활동한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 대부분 연기자활동으로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연기활동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높음.
- 코미디언의 경우 주로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활동이 없는 코미디언은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인지도가 높은 경우 연 5~10억 정도 벌 수 있음. 방송사마다 출연료 지급액이 상이하며, 코미디언의 경력과 인지도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임.

<표 4-1-31>소득 현황 (연기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소득에 대한 기준 없음. 처음 출연료가 회당 15만원이라 하더라도 경력이 쌓이면 회당 100만 원 이상 받기도 함.</li> <li>• 연기자로 활동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배우들이 많고, 대부분 연기활동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높음.</li> <li>• 경력이나 인지도에 따라 출연횟수나 역할에 비해 출연료 차이가 존재함.</li> <li>• 출연이 고정적이지 못한 드라마나 영화 조연출연은 고정수입이 보장 안 되므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연 이외 소득이 높음.</li> </ul> <p><i>“국세청 신고 된 본인의 2016년도 수입 확인 결과, 출연을 통한 소득 600만 원 정도임. 보통 연기활동 소득은 연 평균 500만 원 수준이며, 생계를 위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므로 연 수입 중 출연 소득은 30% 정도라 할 수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내기 어려움. 드라마, 영화 단역 활동만 해도 소득 차이가 큼.</li> <li>• 인지도와 경력에 따라 다름. 10년 경력자라도 극단에 있다가 막 나온 경우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될 것이고, 공연+영화를 한 경우 1,500~2,000만 원 선, 드라마 위주로 활동한 경우 2천만 원 이상이 될 것임.</li> <li>• 겸업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대중문화활동 소득 80%, 그 이외 소득 20% 정도임.</li> <li>•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중문화활동 소득 70~80%, 그 이외 소득 30~20% 정도임.</li> <li>• 주·조연을 제외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연기자의 평균 연봉은 2000~3000만 원 수준임. 작품 출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 평균 활동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가능성도 높음.</li> </ul> <p><i>“소수의 인지도 있는 연기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그 외의 소득이 더 큰 편이에요.”</i></p>



<표 4-1-31>소득 현황 (연기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특성상 인지도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임. 일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제로인 경우도 있지만, 일이 많은 경우 1억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코미디언도 있음.</li> <li>• 주로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적을 때는 월 50~60만 원, 많을 때는 2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임.</li> <li>• 인지도에 따라 개그공연, 행사 MC, 결혼식 사회, 바이럴 광고 출연 등 대중문화활동을 위주로 일하며 그 외의 소득 비중이 작음.</li> <li>• 방송사마다 출연료 지급액이 상이하며, 보통 4주 기준으로 신인은 120만원, 7년차 정도는 250만원임.</li> <li>• 인지도에 따라 출연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 평균을 내기는 어려움.</li> </ul> <p>“공채 코미디언이 아닌 신인들은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해요. 특히 지방 출신들은 월세와 생활비 등 고정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소득을 연봉으로 따졌을 때 3,500만 원 정도이며, 순수 코미디언 소득은 전체 5%정도, 나머지 소득은 공연기획이나 행사기획에서 발생함.</li> <li>• 인지도에 따라 다르지만, 활동이 없는 코미디언은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인지도가 높으면 연 5~10억 정도 벌 수 있음.</li> </ul> <p>“꾸준히 활동하는 코미디언은 그만큼의 소득이 있겠지만 활동이 없는 코미디언들은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동료들이 많아지고 있죠.”</p>

② 무용 분야

- 댄서는 인지도에 따라 소득이 제각각이며, 방송과 행사 기준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단정 지을 수 없음. 10년차 이상이어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최저 월100만 원 미만, 최고 월300~4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음. 대부분 방송 및 공연소득보다 그 이외 소득이 높음.

<표 4-1-32> 소득 현황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차 이상이어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 없는 구조임.</li> <li>• 인지도에 따라 소득이 제각각이며 방송과 행사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단정 지을 수 없음.</li> <li>•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며, 기본적으로 한 회당 7~15만 원을 받는 편임.</li> <li>• 만약 행사 출연료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인원수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인지도에 따라 행사 출연료가 달라짐.</li> <li>• 댄서 이외의 소득인 행사, 정부 지원금 혜택, 강의나 레슨, 기획이나 영상제작으로부터의 소득이 더 높음. 특히 경력이 짧은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li> </ul> <p><i>“24세 미만 댄서들의 경우, 소득의 80%가 아르바이트이고 20%가 춤을 추면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하지만 이마저도 방송활동과 행사활동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율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최고 월300~400만 원, 최저 월100만 원 미만임.</li> <li>• 인지도 높은 가수의 백업댄서는 방송출연 및 해외 공연 소득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가수와 활동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짐. 해외 공연에 댄서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보통 5회 공연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은 150~300만 원(팀원마다 상이함) 수준임.</li> <li>• 대부분 방송 및 공연소득보다 그 이외 소득이 높음.</li> </ul> <p><i>“저는 350만 원이 월평균 소득인데 그 중에 레슨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요. 댄서로 활동하는 소득이 40%이라면 레슨 소득이 60%이죠.”</i></p>

③ 연주 분야

- 연주자의 경우 인지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주활동이 매일 있지 않은 업계 특성상 연주 활동 소득보다는 그 이외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월평균 연주활동 소득은 업계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클래식음악 종사자들은 소득의 90%가 레슨 소득임.

<표 4-1-33>소득 현황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주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득 비율 추정 어려움. 연주활동보다 그 외의 소득이 높은 경우도 많음.</li> <li>소수의 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연주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많지 않음.</li> <li>주변의 연주활동 많은 사람도 한 달에 200~300만원 수준임.</li> <li>연주 경력 3년 미만인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내외임.</li> <li>클럽 연주의 경우 한 번 공연하는 출연료가 최저 1~7만원이며, 행사 연주 출연료는 50만 원 정도임.</li> <li>월평균 연주 소득은 180만 원 내외, 비수기에는 140만 원 정도임. 업계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음.</li> </ul> <p><i>“저의 연주소득은 60%, 그 외 소득은 40% 정도예요. 반면, 연주소득이 10~20%이고 그 외 소득이 90~80%이 될 때도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연주자들의 연봉은 1,500~2,000만 원 정도도 추정됨.</li> <li>뮤지컬 세션으로 참여할 경우 1회 공연에서 적게는 10~30만원 소득 발생함.</li> <li>클래식음악 종사자들은 소득의 90%가 레슨 소득임.</li> <li>대중음악의 경우 개인레슨 차지비중은 10~20%, 그 이외 소득이 연주 소득임.</li> <li>매일 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연주자 특성상 연주 소득보다는 그 이외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li> <li>연주자마다 달라 평균 소득 수준을 추산하기 어렵지만, 연주자로 활동소득과 이외 소득 포함하여 월 150~300만 원 정도임.</li> <li>주변 연주자들을 보면, 연주 소득이 30%, 그 외 소득 70%인 경우가 많음.</li> <li>소속된 연예 기획사에서 정산을 받지만 일정하지 않은 편임.</li> </ul> <p><i>“강의 40%, 게임음악 40%, 연주 20% 정도로 소득의 비율을 나눌 수 있어요.”</i></p>

④ 가창 분야

- 연륜 있고 인지도 높은 가수들은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A급 아이돌 가수인 경우 보통 4-5억 원 정도가 평균 소득으로 알려져 있음. 30대 기준으로 인지도 높지 않은 가수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임. 소속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없어 결과적으로 가수활동 소득이 전혀 없는 열악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아이돌 그룹의 경우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혼자 활동하더라도 멤버별 소득 분배가 동일했는데, 차후 각자 활동한 만큼 소득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

<표 4-1-34> 소득 현황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 그룹 경우, 공연수익금을 멤버 수대로 나누고 회사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음.</li> <li>전액 대중문화 활동을 통한 소득임.</li> <li>업계 평균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5년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손익분기점 미달을 이유로 방송이나 행사 출연료에 대한 정산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음. 가끔씩 용돈 개념으로 계약 기간 5년 동안 멤버 한 명당 총 25만원 정도 받은 것 같음. 계약 전에 손익분기점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음.</li> </ul> <p><b>“본인을 포함한 멤버들 모두 가수로 활동했지만 소속사에서 받았던 임금은 없어요. 그 외 보컬트레이너 중·고등학교 강사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전부였어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수로 얻는 소득은 1달에 20-30만원 수준이며, 최근에도 많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직접 기획 제작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공연이 대다수임. 강의, 일회성 특강 소득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됨.</li> <li>연륜 있고 인지도 높은 가수들은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려움.</li> <li>30대 기준, 인지도 높지 않은 가수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임.</li> <li>A급 아이돌 가수인 경우, 보통 4-5억 원 정도가 평균 소득임.</li> <li>초기에는 개인적으로 혼자 활동하더라도 멤버별 소득 분배가 동일했는데, 차후 각자 활동한 만큼 소득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li> <li>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라고 알고 있음.</li> </ul> <p><b>“주변에 본인과 환경이 비슷한 가수들은 가수로 활동해서 얻는 소득이 20%, 그 외 소득이 80%가 일반적이에요.”</b></p>

⑤ 낭독 분야

- 인지도 있고 활동이 왕성한 음악 DJ 중에 월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일 뿐, 대부분 월 평균 100~200만원 수준이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많음.
- 활동한 연차가 높아져도 성우로 일해서 얻는 소득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방송이나 행사 사회, 그리고 강의 등을 겸업하기 때문에 그 이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4-1-35>소득 현황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방송 진행자의 경우, 2시간 진행시 보통 6만원 받음.</li> <li>공중파 라디오 DJ의 경우, 아나운서는 인센티브임.</li> <li>라디오 DJ 소득보단 행사 MC, 방송 진행, 리포터, 강의 등 다른 수입으로 소득을 충당하는 편이 많음.</li> <li>인지도가 높지 않다면 전업으로 활동하기 힘들어 대부분 그 외의 소득이 많은 편임. 소득의 비율은 라디오 DJ 소득 30%, 그 외 소득 70% 정도임.</li> </ul> <p><i>“인지도 있는 라디오 DJ는 회당 출연료가 천차만별이라 통계적으로 추산할 수가 없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파 메인 라디오 DJ는 회당 출연료 1,000~1,500만원이지만 인지도에 따라 천차만별임.</li> <li>코너 라디오 DJ는 회당 6~9만 원이며, 한 달에 50~100만 원 정도라 할 수 있음.</li> <li>행사 MC, 방송 진행, 강의, 작곡, 작사, 저작권료 등으로 평균 300~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라디오 DJ 소득은 100만 원 미만임.</li> <li>인지도 있고 활동 많은 소수의 음악 DJ는 월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월 평균 100~200만원 수준이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많음.</li> </ul> <p><i>“보편적으로 라디오 DJ 소득이 전부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인지도와 스케줄에 따라 소득 편차 크지만, 최근 3년 정도 일했던 기준으로 평균 3~4년 동안 1,000만 원 소득 발생함.</li> <li>활동한 연차가 높아져도 성우로 일해서 얻는 소득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방송이나 행사 사회, 강의 등을 겸업하기 때문에 그 이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li> </ul> <p><i>“대부분 성우로 활동하는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더 높을 것 같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니메이션은 26회 방영 기준 A급은 1회 녹음 10만원, 총 260만원. 라디오 드라마는 A급일 경우 30분 기준 10만원, 40분 이상 25만원. 광고는 15~20초 정도인데 보통 30만 원 내외가 기준임.</li> <li>보통 성우로 활동하는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주된 수입임.</li> </ul> <p><i>“자영업(카페)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지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중문화활동(성우 소득)이 90%, 그 외 소득이 10%예요.”</i></p>

⑥ 기타 분야

- 모델의 패션쇼 1회 출연료는 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15만 원, 경력이 좀 있으면 30~40만 원, 인지도 있는 경우 300~500만 원을 받기도 함. 광고의 경우 브랜드나 회사마다 다르며, 출연료는 30~100만 원정도 됨. 8년 이상 경력 모델인 경우 모델 활동 많을 시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적게는 300만 원 수준일 때도 있음.
- 업계 평균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주·조연을 제외한 앙상블이나 배역이 있는 뮤지컬배우 경우 업계 평균적인 연봉은 1,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주연일 경우, 해당 출연료가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음. 공연을 꾸준히 한다면 뮤지컬 소득이 높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외의 소득이 높음.
- 공연예술 업계 소득은 월평균 150~250만 원 정도이며, 공연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50만원 미만임. 공연이 매일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예술가 수입에 생계를 의존할 수 없음.

<표 4-1-36>소득 현황 (기타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 활동으로 소득이 없을 때 100만 원 정도, 활동이 많으면 300~400만 원 정도 됨.</li> <li>• 패션쇼 1회 출연료는 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15만 원, 경력이 좀 있으면 30~40만 원, 인지도 있는 경우 300~500만 원을 받기도 함.</li> <li>• 광고의 경우 브랜드나 회사마다 다르며, 출연료는 30~100만 원정도 됨.</li> <li>• 프리랜서 신인의 경우 경력 문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서는 경우도 많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출연료 이외의 소득이 높을 것임.</li> </ul> <p><i>“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 활동 많을 시 월 700만 원 정도 소득 발생함. 적게는 300만 원 수준일 때도 있음. 기획이나 연출 관련 일을 하면 모델 소득은 현저히 줄어듦.</li> <li>• 소수의 유명모델 제외한 신인의 경우 월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고, 5~6년차 모델들의 출연료도 10~15만 원 정도라 평균 소득 가늠하기 어려움.</li> <li>• 에이전시에 소속되지 않은 신인들의 활동은 거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기회를 찾는 편이며, 출연료를 받지 못해도 인맥을 쌓기 위해 패션쇼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li> </ul>

부록1.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내용: (1)대중문화예술인

<표 4-1-36>소득 현황 (기타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평균적인 소득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조연을 제외한 앙상블이나 배역이 있는 뮤지컬배우 경우 업계 평균적인 연봉은 1,200만 원 수준임. 주연 같은 경우는 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음.</li> <li>• 임금을 받는 방식은 소극장은 도급제인 경우가 많고, 대극장은 매달 월급처럼 받는 경우와 도급제인 경우도 있음.</li> <li>• 공연을 꾸준히 한다면 뮤지컬 소득이 높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외의 소득이 높음.</li> <li>• 20대 후반일 경우, 회당 공연 출연료는 8만원 내외임.</li> </ul> <p><i>“주·조연을 제외한 앙상블이나 배역이 있는 뮤지컬배우인 경우 업계 평균적인 연봉은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뮤지컬 활동을 통한 소득이이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도에 따라 출연료 차이가 크고, 대극장과 소극장 기준에 따라 출연료 차이 큼. 회당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배우도 있고 신인일 경우 회당 3만원인 경우도 있음.</li> <li>• 인지도 있는 유명배우는 공연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연 소득이 전 부인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뮤지컬배우들은 공연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외의 소득이 높은 편임.</li> </ul> <p><i>“출연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커서 평균을 내기는 어렵죠.”</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0~250만원의 소득 발생함(공연 이외 문화센터나 방과 후 강사, 개인레슨 등 150만 원 정도/ 공연 소득 월 100만 원 정도).</li> <li>• 공연단체 초기에는 출연료를 단원들과 똑같이 나눴지만, 현재는 참여도나 기여도에 따라 출연료를 분배하고 있음.</li> </ul> <p><i>“보통은 난타 공연이 부업이며,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연 이외의 소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이 매일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품 하나로만 생활할 수는 없음.</li> <li>• 업계 소득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월평균 150~250만 원 정도이며, 공연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50만원 미만임.</li> </ul> <p><i>“8년차 미만일 경우 공연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은 80만 원 내외지만 이것도 공연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죠. 공연예술가는 오히려 그 이외 소득이 더 높은 편이예요. 예를 들어 공연 40% 그 외 소득 60%가 일반적이죠.”</i></p>

4) 대중문화예술 관련 기타 사항

(1) 교육 이수 현황

① 연기 분야

- 연기자 경우 연기전공자 60%, 비전공자 40% 정도이며, 최근에는 비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임. 연기 비전공자들은 대체로 연기 아카데미를 수료하며 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것들, 출연 과정이나 출연 루트 등의 실무를 습득 가능한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남.
- 코미디언은 현장에서 보면 비전공자가 60%, 전공자가 40% 정도 됨. 최근 개그 프로그램 인기 저하로 인해 대학에서 개그 전공 학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에서 개그를 전공하기 보단, 개그 극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공채 코미디언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임.

<표 4-1-37>교육 이수 현황 (연기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 비전공자이며, 연기는 아카데미에서 1년 정도 수업 받음. 대학생 제작 단편영화 작품 출연을 통해 많은 경험 얻고 연습함.</li> <li>•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전공자 출신이 더 많을 때도 있음.</li> <li>• 대학 비전공자이며, 연기학원에서 1년 6개월 정도 연기수업 받음.</li> <li>• 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것들, 출연 과정이나 출연 루트 등의 실무를 습득 가능한 연기학원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만족함.</li> </ul> <p><i>“연기자 생활을 하며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전공자 60%, 비전공자 40% 정도로 알고 있음.</li> <li>• 주변의 연기자들은 대학의 연기전공자들이 많음. 비전공자들 중에 일반 회사에 재직하다가 연기자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을 전공하다가 데뷔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대학 연기를 전공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기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죠. 학원 및 대학 교육과정 만족도는 낮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배우는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i></p>



<표 4-1-37>교육 이수 현황 (연기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문화예술 관련 비전공자이며 개그 극단에 들어가서 개그 활동을 시작했는데, 코너를 준비하며 선배들의 조언과 동료들과의 회의나 토론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가 높음.</li> <li>최근 개그 프로의 인기 저하로 인해 대학에서 개그 전공 학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에서 개그를 전공하기 보단, 개그 극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공채 코미디언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더 많음.</li> <li>현장에서 보면 비전공자가 60%, 전공자가 40% 정도 됨.</li> <li>비전공자라 개그 공연장에서 선배들을 통해 배웠으며, 만족도는 높음.</li> <li>개그 아카데미를 다니다가 공연장으로 들어와 방송사 공채나 특채로 데뷔하는 경우가 일반적임.</li> </ul> <p><i>“방송사 공채가 목적이라면 전공자들이 훨씬 유리하지만, 방송만 목적으로 한다면 전공하지 않고 데뷔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채 코미디언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녹화하는 시스템을 반복했기 때문에 코너를 하는 동료나 선배가 누구냐에 따른 영향이 큼.</li> <li>현장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들을 보면 연극영화과나 방송연예과 전공자가 많고, 대학로 개그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공채 코미디언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저는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공채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따로 코미디를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았어요.”</i></p>

② 무용 분야

-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댄스를 배운 적 없고, 혼자 연습하거나, 댄스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배웠던 것이 전부인 경력 8년 이상의 댄서들에 비해, 최근에는 댄서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댄서 1세대들이 교육 분야로 진출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동일 분야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은 해당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도 많음.

<표 4-1-38> 교육 이수 현황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li> <li>•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전공자가 절반 정도인 것 같음.</li> </ul> <p><i>“비전공자라 시설기관에서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고 오디션 통해 데뷔했기 때문에 시설기관에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에는 대학의 댄스 전공자들이 많은 편인데, 방송 댄서를 하는 경우보다 스트리트 댄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음.</li> <li>• 댄서 1세대들이 교육 분야로 진출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동일 분야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은 해당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댄스를 배운 적 없고, 혼자 연습하거나 팀을 하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배웠던 것이 전부예요.”</i></p>

③ 연주 분야

- 연주자는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비전공자인 경우도 꽤 있음. 전공자일 경우 20~30대인 경우가 많으며, 40대 이상의 연주자들은 비전공자 출신이 많은 편임. 특히, 10년 전부터 실용음악과가 많이 생겨나면서 관련 학과 전공자가 늘어나는 추세임.

<표 4-1-39>교육 이수 현황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학교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편, 물론 비전공자도 있지만 소수에 해당함.</li> <li>• 10년 전부터 실용음악과가 많이 생겨나면서 전공자가 늘어남.</li> <li>•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음악 전공하고 개인레슨도 받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음.</li> </ul> <p>“저는 드럼 전공자이며, 대학과 학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했죠. 대학에서의 교육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공자로 대학 졸업하여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과 대학원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하였음. 학원교육 받은 적도 있지만 대학과 대학원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음.</li> <li>•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활동하는 40대 중반 이상 연주자들은 드뭄.</li> <li>• 최근 실용음악과가 늘어나면서 전공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다.</li> <li>• 대학에서 음악 전공하고, 학원수강 및 개인레슨도 수강하였음.</li> <li>•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비전공자들도 꽤 존재함. 전공자일 경우 20~30대인 경우가 많으며, 40대 이상의 연주자들은 비전공자 출신이 많은 편임.</li> </ul>

④ 가창 분야

- 가수는 대부분 진학의 목표가 뚜렷한 편이며, 최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아이돌 그룹일 경우, 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비전공자가 대부분임. 고등학생은 예고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경우도 있음.

<표 4-1-40> 교육 이수 현황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 그룹일 경우, 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비전공자가 대부분임. 고등학생은 예고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경우도 있음.</li> <li>• 진학의 목표는 대부분 뚜렷한 편임.</li> <li>• 가수나 연기를 하는데 꼭 대학교에서 전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li> <li>• 대학교에서 실용음악 전공했고 대학원은 실용음악과 재학 중이며, 학원과 개인레슨도 받았음. 특히,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음악을 해왔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음.</li> </ul> <p><i>“국악예술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을 다녔고, 앞으로 그 학교에 뮤지컬 학과를 진학하고 싶으며,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연극과에 입학하고 싶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음악학원 수강 이후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으며, 학원과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li> <li>• 음악 비전공자(대학)이지만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하였음.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낮지만 밴드멤버들간의 교류를 통해 습득한 지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li> <li>• 철학, 화학, 경영 등의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 음악적 이론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li> </ul>

⑤ 낭독 분야

-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이 보편화 된 요즘에도 DJ 전문교육은 여전히 드물기 때문에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의 출신들이 많은 편임. 유사전공자라 할 수 있는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의 출신은 40% 이고, 비전공자가 60% 정도임.
- 성우는 과거에는 대부분 연극영화과 전공자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약대, 법학, 물리학 등 비전공자들도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공자 30%, 비전공자 70% 정도라 할 수 있음.

<표 4-1-41>교육 이수 현황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J는 40% 전공자(연극영화과, 언론정보학과, 광고미디어 출신 등), 60% 비전공자(일반학과, 본인의 자질과 희망으로 도전) 정도임.</li> <li>교양과정으로 DJ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규 교육과정이 정착된 곳은 드물. DJ를 교육하는 학원도 소수에 해당함.</li> </ul> <p><i>“광고미디어학과에서 방송분야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DJ 관련 교육과정이 있던 것이 아니라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J 분야를 공부하지 않았으며 독학을 통해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li> <li>요즘 세대는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이 보편화된 반면, DJ 전문교육은 여전히 드물기 때문에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의 출신들이 많은 편임. 유사전공자라 할 수 있는 연기 관련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의 출신은 40%이고, 비전공자가 60% 정도임.</li> <li>대학에서 DJ를 전공한 경우는 거의 없음. 일부 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학과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p><i>“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 전공했지만, DJ를 가르치는 정규 교육과정은 없어서 개인레슨을 통해 지도를 받았어요. 개인레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죠.”</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과 개인레슨을 통해 공채로 입사했고,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임.</li> <li>동종업계 성우들 중 1/3이 대학 전공자 출신이고, 비전공자들은 학원교육 등을 통해 공채에 응시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에는 대부분 연극영화과 전공자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약대, 법학, 물리학 등 비전공자들도 성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 30%, 비전공자 70% 정도임.</li> </ul> <p><i>“대학에서 전공하여 공채를 거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i></p>

⑥ 기타 분야

- 모델 전공자는 60% 정도라 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모델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 모델 현장은 아카데미 기수를 따지는 관례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모델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경우도 있음.
- 뮤지컬 분야는 최근 뮤지컬 워크숍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 전공자들임. 뮤지컬 워크숍은 현장에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전처럼 지도해 주기 때문에 교육 만족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
- 공연 예술 특성 상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학에서 국악, 무용, 타악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임. 공연 예술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경로는 따로 없음.

<표 4-1-42>교육 이수 현황 (기타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아카데미 수료 후 에이전시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수강생만 소속 모델로 계약함. 소속 모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당장 모델을 그만 두지는 않지만, 결국엔 10% 정도만 살아남는 편임.</li> <li>• 모델 전공자는 60%정도 되는 것 같으며,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모델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li> <li>• 모델학과 전공자는 2~3년 교육을 통해 기본기가 튼튼하지만, 투자 비용 및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져 굳이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li> <li>• 예전보다 모델학과의 수가 많아져 관련 전공자 증가 추세이며, 학위 없는 모델들도 다양한 이유로 대학을 찾음.</li> </ul> <p><i>“모델에이전시를 같이 운영하는 모델아카데미에서 3개월 과정을 수료했지만, 모델아카데미는 수강비가 너무 비싸고 3개월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 현장은 아카데미 기수를 많이 따지는 관례가 있어서 모델 아카데미를 수료했으며, 수업 내용은 대체로 만족함.</li> <li>• 현장에서는 전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델로서의 실력이 우선시 됨.</li> </ul> <p><i>“비전공자이지만 모델관련 아카데미 두 곳에서 3개월씩 수료했죠.”</i></p>

<표 4-1-42>교육 이수 현황 (기타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뮤지컬 워크숍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 전공자들임.</li> <li>• 뮤지컬배우 동료들은 전공자들이 대다수임. 예전에는 비전공자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20~30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전공하고 활동함.</li> <li>•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했음. 대학교육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비전공자들도 있으나 전공자들이 90%이상임.</li> </ul> <p><i>“뮤지컬 워크숍은 실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도해 주기 때문에 교육 만족도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전공자이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높음.</li> <li>• 뮤지컬계는 8:2 또는 9:1 정도 비율로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임.</li> <li>• 비전공자 경우 무용학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등의 학과와 학원에서 배워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음.</li> </ul> <p><i>“학위 취득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공자이며, 난타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배우는 편임.</li> <li>•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풍물, 드럼, 무용을 했던 이들도 난타 공연을 하고 있음.</li> </ul> <p><i>“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공연예술가로 활동하기도 하며, 만족도가 낮으면 취미로 배우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공자로 독학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오디션에 지원하며 수많은 탈락을 경험하고 활동하게 되었음.</li> <li>• 대학에서 국악, 무용, 타악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임.</li> </ul>

(2) 법적 분쟁사건 여부

① 연기 분야

- 임금체불 사례를 겪은 연기자들이 많은 편임. 특히, 드라마 쪽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출연료를 못 받는 코미디언들도 많으나, 대부분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인 내용이나 세무, 경영 등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 편임.

<표 4-1-43>분쟁 사건 현황 (연기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가 소속사 모르게 이중계약으로 활동하다가 소송당하는 경우를 본 적 있음.</li> <li>• 제작사 자금난, 캐스팅 디렉터의 안일함 때문에 출연료 못 받은 경우도 비일비재함.</li> <li>•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나 캐스팅 디렉터에게 연락하는 것이 전부임. 법적 소송에 대한 비용과 소요시간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li> </ul> <p><i>“제작사는 출연료 지급을 했더라도 중간에 캐스팅 디렉터가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향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캐스팅 디렉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 주변 지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료 미지급 경험 있지만 법적 대응은 포기함. 20부작 드라마 촬영 출연료 중 12부 건을 못 받았지만 대표가 돈을 갖고 자취를 감춤.</li> <li>• 광고 출연료를 못 받아 재촉하였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음.</li> <li>•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 언젠가는 만날 사람이라는 생각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 특성상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법적 대응까지 가지 못함.</li> <li>• 드라마 쪽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문제가 발생하여 스텝과 배우가 촬영 중단하고 노조와 제작사 간 대화가 원만히 풀려 촬영이 재계된 사례 있음.</li> <li>• 법적 분쟁 사건은 없었지만, 출연료를 1년 지나서 받은 적이 3건 정도 있음.</li> </ul> <p><i>“스텝이나 배우가 단체로 움직였을 때 제작사와의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i></p>



<표 4-1-43>분쟁 사건 현황 (연기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혹 행사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선입금을 받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음.</li> <li>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신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며 혼자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li> </ul> <p><i>“코미디언 지망생 당시 개그 공연회사와 일했었는데, 공연 횟수 대비 출연료나 식비가 너무 적게 지급되어 계약 파기 소송을 한 경험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혹 지방 행사에서 MC를 보고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개인적으로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일반적임.</li> <li>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인 내용이나 세무, 경영 등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음.</li> </ul> <p><i>“소속사가 어려워지면서 소속 코미디언들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코미디언들이 승소해도 회사에서 다시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요.”</i></p>

② 무용 분야

- 출연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는 댄서들이 많은 편임.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이마저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함.

<표 4-1-44>분쟁 사건 현황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가 없기 상황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를 정식으로 청구하기 애매하여 전화로 독촉하다가 결국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li> <li>•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함.</li> </ul> <p><i>“임금체불로 몇 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경험 있음.”</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체불 경험이 있었지만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li> <li>• 일본이나 중국 공연도 종종 있는데 최초 구두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될 경우가 많지만 해외 제작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막막할 때가 많음.</li> </ul>

③ 연주 분야

- 연주비/공연비를 못 받은 연주자가 많지만, 인맥 관계 및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표 4-1-45>분쟁 사건 현황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행사 참여 시 제작사와 구두 계약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임금 지급 늦어지는 경우 있었음.</li> <li>• 제작사와 연주자가 표준계약을 통해 서면계약을 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지연을 조금이나마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음.</li> <li>• 주변에 임금지불이 지연되어 노동부에 신고한 사례 있음. 당시 신고자들은 임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못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 혹은 지연 경험 있어 전화나 문자로 독촉해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li> <li>• 소속 기획사의 밴드 멤버 연습생도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 경우 해당 기획사에서 연습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음.</li> </ul> <p><i>“적게는 20~30만 원, 많게는 500~600만 원도 임금체불 된 적 있어요. 음악 분야에서 못 받은 임금만 7,000만 원 정도 되고요.”</i></p>

④ 가창 분야

- 가수의 경우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때문에 소송을 하려다가 향후 활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포기한 적이 많음. 제작자/사에게 체불임금반환을 독촉했지만, 오히려 음악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

<표 4-1-46>분쟁 사건 현황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사에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옮기는 바람에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때문에 소송을 하려다가 포기한 적이 많음.</li> <li>다른 연예 기획사와 가수에 대한 권리를 이중 계약했던 적이 있었는데, 추후 연예 기획사가 폐업을 하고 본인은 이중 계약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연예 기획사에 이관된 계약을 해지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음.</li> <li>앨범을 제작할 시기부터가 계약 시작인지, 앨범을 제작한 이후 활동할 때부터가 계약 시작인지 모호해서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은 적도 있음.</li> <li>음악감독이 가수와 연주자를 섭외하고 장기 공연 중 몰래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탄로나 공연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음.</li> <li>주변 30대 후반 이상의 가수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 편임.</li> <li>제작자에게 체불임금반환을 독촉했지만 오히려 음악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음.</li> </ul> <p><i>“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때문에 소송을 하려다가 법률적 지식이 너무 부족했고 여성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i></p>

⑤ 낭독 분야

-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DJ도 있지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이미지도 추락해 소송으로 인한 제 2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
- 법적분쟁 사건을 겪은 방송국 공채 성우는 전혀 없으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임금체불 및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출연료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뭄.

<표 4-1-47>분쟁 사건 현황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 경험 있으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li> <li>• 법적 분쟁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이미지도 추락해 소송으로 인한 제 2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음.</li> </ul> <p><i>“DJ 오디션 당시, 피디가 잠자리나 여행 등 여자에 관한 성적 농담을 했었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올의 입장인 DJ는 또 다른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경우가 일반적이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으며, 주로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여 해결하는 편임.</li> </ul> <p><i>“임금지연 경험은 있지만 체불된 적은 없어요. 당시 전화나 문자로만 독촉했었죠.”</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포기했으며, 제작사가 폐업할 경우 임금을 받아낼 방법조차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 폐업 시, 소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료 받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li> <li>• 출연료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뭄.</li> </ul> <p><i>“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사례는 비밀비재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어요.”</i></p>

⑥ 기타 분야

- 모델의 경우 행사에 참여하고 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음. 출연료를 못 받더라도 업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뮤지컬배우는 계약서 상 공연기간과 실제 공연기간이 달라진 경우가 있고, 임금지연이나 임금체불 경우가 비일비재함.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출연료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사정을 핑계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공연예술가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부 등을 통해 신고해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은 사례도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음.

<표 4-1-48>분쟁 사건 현황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소속사로부터 미지급 출연료가 있는데, 연말까지 기다려도 입금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임.</li> </ul> <p><i>“드라마에서 모델이 필요하다고 섭외되어 출연했는데, 드라마 제작사가 폐업했다고 중간 에이전시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출연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에 출연했던 바이럴 광고 출연료를 3년이 지나도록 못 받은 경우 있음.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임.</li> <li>• 출연료 못 받더라도 업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li> </ul>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출연료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사정을 핑계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li> <li>• 대형 라이선스 작품을 운영한 제작사가 주·조연을 포함한 앙상블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서 배우들이 단체로 소송한 경우도 있음.</li> <li>• 계약서 상 공연기간과 실제 공연기간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고, 임금지연이나 임금체불은 비일비재함.</li> </ul> <p><i>“제작사가 폐업하여 출연료를 못 받은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분쟁 경험 있음. 공증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제작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나서 배우들이 돈을 못 받았던 사례임.</li> </ul> <p><i>“뮤지컬 제작사 대표가 임금체불로 실형을 살거나 자살 하는 경우도 봤어요.”</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속된 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준비를 했다가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기관과 업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소송하는 경우는 드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 대표가 임금을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은 사례도 들어 본 적 있음.</li> </ul>

(3) 가입 협·단체

① 연기 분야

- 방송/영화 연기자들은 주로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방송노조 등에 가입하는 편이며, 영화배우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5:5정도의 비율 정도임. 특히, 재방송료에 대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가입하고 있음.
- 코미디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방송실연자협회의 경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코미디언도 많고 경력 없는 사람들은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채 코미디언이 아닐 경우 본인 스스로 경력을 증명해야 함.

<표 4-1-49> 가입 협·단체 (연기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 영화배우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li>• 특히, 재방송료에 대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음.</li> <li>• 주변의 경우,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5:5정도의 비율임.</li> <li>• 대부분 방송/영화 연기자들은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노조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p><i>“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 영화배우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가 주로 가입하는 협회나 단체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드라마를 하게 되면 그곳을 통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가입)와 한국방송연기자협회(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동을 취해줄 수 있는 단체/가입 시 출연료 1%정도 납부/요즘 젊은 연기자들은 잘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듯)임.</li> <li>• 방송노조는 초기 회비가 100만 원 이었는데 만약 탈퇴할 경우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음. 방송실연자협회는 초기 회비가 2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방송노조처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li> <li>•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노조, 한국배우협회, 서울연극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노조, 한국배우협회, 서울연극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표 4-1-49>가입 협·단체 (연기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미디언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li>• 공채나 특채들은 대부분 코미디언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코미디협회, 방송실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li> <li>• 방송실연자협회는 공채 코미디언이 아닐 경우 자신이 활동을 증명해야 됨. 그래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을 하기 어려움. 또한 이런 단체나 협회에 대해 잘 모르는 코미디언이 많음.</li> </ul> <p><i>“코미디언노조와 방송실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② 무용 분야

- 무용협회나 안무협회가 존재하나, 댄서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는 없으며, 스트리트 댄서나 백업댄서를 위한 단체도 없음.

<표 4-1-50> 가입 협·단체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협회는 존재하나, 스트리트 댄서나 백업댄서를 위한 단체는 없음.</li> <li>• 안무협회가 있지만, 댄서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는 없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히 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는 없음.</li> </ul>

③ 연주 분야

-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표 4-1-51> 가입 협·단체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음악실연자연협회에 가입하는 편이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li>•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저는 현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④ 가창 분야

○ 가수들은 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

<표 4-1-52> 가입 협·단체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가수들은 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고, 작곡도 할 경우 음악저작권협회도 가입해요.</li> </ul> <p><i>“본인 음반의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수들은 보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작곡을 겸업하는 경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본인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음반을 발매한 대부분의 가수들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저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⑤ 낭독 분야

- 경력 8년 이상 DJ들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모든 성우들은 한국성우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연예인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특히, 공채 출신은 각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성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표 4-1-53> 가입 협·단체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동호회 등의 사적 모임이 전부이며, 가입된 협회나 단체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p><i>“디제이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창작곡이 있는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협회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죠.”</i></p>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우들은 한국성우협회에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고, 공채 출신은 각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성우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실연자협회에도 가입했으며 연예인 노조에도 가입한 경우도 있음.</li> </ul> <p><i>“저는 한국성우협회와 실연자 협회, 그리고 연예인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성우들은 성우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연예인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li> </ul>

⑥ 기타 분야

- 모델의 경우 모델관련 협회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비율은 3:7 정도 되는 것 같음.
-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뮤지컬배우들이 많음. 뮤지컬협회는 들어봤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경력 8년 이상 공연예술가가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한편, 퍼포먼스 단체가 있으나, 제작사 대표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음.

<표 4-1-54>가입 협·단체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관련 협회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았음.</li> <li>• 모델 선배들은 가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제 주변 지인들은 가입을 거의 하지 않음.</li> <li>•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비율은 3:7 정도 되는 것 같음.</li> </ul> <p><i>“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협회나 단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나 단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가입한 곳이 없음.</li> </ul>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이 협회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li> </ul> <p><i>“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는 없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배우들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뮤지컬협회는 들어봤지만 가입하지 않았음.</li> </ul> <p><i>“뮤지컬협회는 들어봤지만 가입하지 않았어요.”</i></p>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신한류예술단에 가입이 되어 있음. 단체를 통해 공연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포먼스 단체가 있으나 제작사 대표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음.</li> <li>•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음.</li> </ul>

(4)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① 연기 분야

- 연기자의 경우 기획사와 표준계약서에 기반을 두고 계약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의 제도적 마련, 연기자 관련 전문 자격증에 대한 요구, 예술인 패스 지원영역 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코미디언의 경우 4대 보험가입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으며, 정해진 급여도 받고 노후도 보장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1-55>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연기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기	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함.</li> <li>•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 되는 예술인 패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비 할인과 공연할인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영화 할인도 지원되었으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연문화도 더 많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발전된다면 자연스럽게 연기자에게도 기회창출이 되고 그 수혜가 돌아오게 될 것임.</li> <li>• 연기자도 전문 직군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음.</li> </ul>
	코미디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예술분야 은퇴 후 직업 재교육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li> <li>• 정부가 정책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이 의무화 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램.</li> <li>• 코미디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장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미디언이 정해진 급여도 받고 노후도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음.</li> <li>• 기업처럼 되어 있는 일본 코미디언 업계처럼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음.</li> </ul>

② 무용 분야

- 댄서들을 위한 4대 보험가입 지원은 물론, 댄서 관련 저작권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댄서 관련 지원 사업 자격 완화 및 양식 간소화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1-56>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무용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무용	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사업 자격 완화 및 양식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음.</li> <li>• 정부에서 댄서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li>•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li>• 소규모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열려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좋겠음.</li> <li>•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제작사들 때문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음.</li> <li>• 댄서 관련 저작권 인정을 통해 엄연한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함.</li> </ul>

③ 연주 분야

- 연주자의 경우 무료 연습공간을 제공, 국가 지원 사업 공연 출연료의 투명화, 창작지원금 제도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연주자 육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1-57>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연주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연주	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주실 대여료가 부담되므로, 정부에서 연주자들을 위한 무료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li>• 창작지원금 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li> <li>• 국가 지원 사업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연주자들에게 출연료의 투명성이 공개되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자를 위한 예술가 정책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음.</li> <li>• 임금체불에 대한 보험 정책을 만들어 준다면 좋겠음.</li> <li>• 유통사가 저작권료를 절반이나 가져가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현실적인 수준의 저작권료 지급이 보장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li> <li>• 소수의 유명 연주자들이 독과점하는 구조인 국내 음악시장에서 어렵고 힘든 연주자들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음.</li> </ul>

④ 가창 분야

- 가수의 경우 4대 보험가입 지원,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기획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표준계약서 개선, 미성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1-58>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가창 분야)

분야	직군	경별	
		8년 미만	8년 이상
가창	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가수를 위한 조항 보다는 기획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함.</li> <li>•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외국처럼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대 이후의 가수들은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가수들도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음.</li> <li>• 인기 있는 가수들은 너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음.</li> <li>•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 대한 민원을 의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음.</li> </ul>

⑤ 낭독 분야

- DJ의 경우 4대 보험가입 지원, 표준계약서 작성 보편화 관련, 정책 지원금 제도 확대, 대학생과 현장 실무자를 이어주는 기관/제도 신설, 공채 오디션 보편화 및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되기 위한 관리감독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성우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한국어 더빙 관련 정책 지원 사업이 요구됨.

<표 4-1-59>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낭독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낭독	D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 지원금을 많아졌으면 좋겠음.</li> <li>• 대학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자와 연결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li> <li>• 공중파와 지역방송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음.</li> <li>• 라디오 디제이를 선발하는 공채 오디션이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음.</li> <li>• 디제이 채용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공정한 선발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해주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li> <li>• 임금지연이나 임금체불이 없어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 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li> </ul>
	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한국어 더빙 정책 지원 사업을 지원해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빙이 의무화 되어 있는 유럽이나 동남아처럼 모국어로 듣거나 원어로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함.</li> </ul>



⑥ 기타 분야

- 모델의 경우 4대 보험가입 지원, 모델 전용 최저 임금 책정 및 임금 지급 기간 설정의 무화 관련, 각종 행사나 정부 지자체 지원 받는 행사에 대한 투명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뮤지컬배우의 경우 4대 보험가입 지원,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 확충, 출연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공연예술가의 경우 공연 단가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 설정, 예술가 최저 시급의 별도 책정, 공연계의 티켓 값 관련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1-60>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타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들에 대한 최저 출연료가 정책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음.</li> <li>•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기획되는 행사가 많아져서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음.</li> <li>• 모델 분야에 대한 최저 임금이 책정되고, 임금 지급 기간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li> <li>• 프리랜서 활동이 많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행사나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행사도 자금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함.</li> <li>• 4대 보험 미가입자라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안 되는 불이익이 개선되어야 함.</li> <li>•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음.</li> </ul>

<표 4-1-60>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타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8년 미만	8년 이상
기타	뮤지컬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연을 제외한 뮤지컬배우들의 출연료는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뮤지컬배우 출연료 상승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음.</li> <li>정부에서 주관하는 창작지원금 제도는 일시적이라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함.</li> <li>4대 보험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최저 생계비 지원과 같은 뮤지컬배우를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li>고용보험의 경우, 배우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li> <li>출연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함.</li> </ul>
	공연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력에 비해 공연 단가가 너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연 단가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 최저 시급이 별도로 책정되었으면 좋겠음.</li> <li>공연예술가에 대한 출연료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li> <li>공연계의 티켓 값 관련 기본 가이드라인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음.</li> <li>제작사와 배우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정책적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음.</li> </ul>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표 4-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성표

분야	직군	경력기간		응답자		전체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1	-	송00	팀원	4
	연출	1	-	김00	팀원	
	홍보 마케팅	-	1	조00	팀장급	
	구성작가	-	1	견00	팀장급	
촬영	촬영	-	1	이00	팀장급	4
	조명	1	-	정00	팀원	
	특수효과	-	1	안00	팀장급	
	그립	-	1	이00	팀장급	
미술	미술	-	1	강00	팀장급	4
	의상	1	-	강00	팀원	
	분장	-	1	김00	팀장급	
	소품	1	-	윤00	팀원	
음향	동시녹음	-	1	강00	팀장급	3
	음향	1	-	이00	팀원	
	음악	-	1	박00	팀장급	
편집	편집	1	1	박00	팀원	4
				최00	팀장급	
	Visual Effects	-	1	한00	팀장급	
	DI	-	1	고00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	1	장00	8년 이상	1
전체		7	13	-		20

1) 대중문화예술 활동사항

(1) 입문경로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의 경우 대학에 관련 학과가 많아서 전공자들이 졸업 후 입문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지인 소개나 추천을 통하는 경우가 많음. 팀장급 이상은 예술대학 출신이거나,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하거나,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거나, 무대 크루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 연출은 보통 전공자들이 지인을 통해서 입문하고, 비전공자인 경우 아카데미나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관심을 갖다가 인맥을 통해 업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 홍보마케팅은 업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광고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매니지먼트 학과를 전공하고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입사해도 실무를 접하게 되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음.
- 작가라는 직업은 보통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된 경우가 많음. 주로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 출신 학생들이 주로 구성작가로 입문하고 있음. 사실 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들이 작가 모집 공고를 보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함.

<표 4-2-1> 입문경로(기획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비전공자이며 필름메이커스 사이트를 통해 입문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소개도 받음.</li> <li>• 대학에 관련 학과가 많아서 전공자들이 졸업 후 입문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지인 소개나 추천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제작부 밴드 등을 통해서 구인을 올리기도 하고, 대학교나 고등학교 산학협력을 통하기도 하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대 중반은 보통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거나, 무대 크루 아르바이트, 연극영화과에서 전공을 하고 입문하게 되는 것 같음.</li> <li>• 40대의 경우 예술대학 출신들이 기획 분야에서 일하는 것 같음.</li> </ul>

<표 4-2-1> 입문경로(기획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으로 연출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영화 영상학과) 선배 추천으로 입문.</li> <li>보통 전공자들이 지인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엔 전공자들이 지인의 소개로 입문을 많이 함. 비전공자 경우 아카데미나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관심을 갖다가 인맥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커뮤니티 사이트 ‘필름메이커스’ 에서 정보를 얻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분야다 보니 개인의 관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i></p>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광고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매니지먼트 학과를 전공하고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그러한 전공을 공부하고 입사해도 실무를 접하게 되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음.</li> </ul> <p><i>“홍보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었고 대학에서 연예기획을 전공 후, 공연기획사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음반기획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 홍보마케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통해 입문함.</li> <li>홍보마케터는 주로 아카데미나 공연기획과를 졸업하고 취업하여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입문하는 경우도 있음.</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라는 직업은 보통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된 경우가 많음.</li> <li>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음. 시트콤 작가를 하고 있었으나 방송관련 구성작가로 활동하고 있음.</li> </ul> <p><i>“작가는 개인마다 달라서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관련 전공보다는 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예창작과 출신 학생들이 주로 구성작가로 입문하고 있음.</li> <li>사실 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들이 작가 모집 공고를 보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함.</li> </ul> <p><i>“대학에서 국문과 전공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방송작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방송작가 아카데미에서 6개월 수료 후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i></p>

② 촬영 분야

- 촬영은 관련 전공자들이 지인 소개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입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조명의 경우 대부분 개인의 선호도가 높고, 지인 소개가 많으며,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도 많음.
- 특수효과의 경우 관련 대학 전공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기술직 전공자들이 영화 파트로 넘어와 특수효과 팀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음.
- 그림의 경우 50% 정도는 지인의 소개로 입문하거나, 촬영이나 연출 일을 하다가 그림 일을 도와주면서 전향하는 경우가 50% 정도임.

<표 4-2-2> 입문경로(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li> </ul> <p><i>“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필름메이커스’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일을 많이 시작하고, 네이버 밴드 ‘촬영 크루’에서도 구인구직 정보들을 많이 교류하고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을 봤을 때 60~70% 정도는 전공자적이고, 나머지 30~40%는 개인의 관심과 지인의 소개로 입문함.</li> </ul> <p><i>“영화학과 촬영 전공자예요.”</i></p>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공자이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인터넷이나 지인의 소개로 시작함.</li> <li>대부분 개인의 선호도가 높고, 지인 소개가 많으며, ‘필름메이커스’ 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도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극영화과에서 스텝이나 연출 전공하는 경우에 오기도 하고, 비전공자로 있다가 관심이 있어서 입문하기도 함.</li> </ul> <p><i>“인터넷 사이트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처음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어요.”</i></p>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효과 일은 보편적으로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입문하는 경우가 많고 비전공자가 대다수임.</li> <li>특수효과는 대학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 전공자들이 영화 파트로 넘어와 특수효과 팀 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인을 통해 업계에 입문하거나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일을 시작함.</li> </ul> <p><i>“처음에는 특수효과 아르바이트를 1995년에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1998년부터 전문적으로 입문해 지금까지 20년 정도 업계에 몸 담고 있어요.”</i></p>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을 살려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음. 촬영이나 연출 일을 하다가 그림 일을 도와주면서 전향하는 경우 50%, 지인의 소개 50% 정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연한 지인의 소개로 입문함.</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의 경우 주로 영화 관련 미술학원을 통해 입문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의상은 전공자들끼리 지인을 소개하거나, 교수 추천 혹은 선후배 소개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 분장은 미술 및 미용 전공자가 많고, 주로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함.
- 소품은 영화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혹은 동문 추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표 4-2-3> 입문경로(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지인 소개가 가장 많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도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에는 ‘레이크사이드’라는 영화 미술학원에서 일을 배워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필름메이커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지인 소개로 입문하여 18년 동안 업계에 몸담고 있어요.”</i></p>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상 관련 전공자가 아닌 영상매체 전공이지만, 대학교 교수님 추천으로 경험 삼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되어 버림.</li> <li>• 요즘은 ‘필름메이커스’를 통한 구인구직에 비해 지인 소개가 증가 추세임.</li> </ul> <p><i>“영상매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 스타일리스트나 패션에디터, 영화의상 팀들에 대한 환상을 갖은 이들은 막상 일을 시작하면 힘들고 화려하지 않아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많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의 추천을 통해 입문한 이들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잠수를 탄다거나 하는 경우가 조금 차단됨.</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자인 경우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메이크업에 개인적 관심이 많아 개인적인 관심으로 시작하게 됨.</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구인에 대한 정보 많은 ‘필름메이커스’를 통해서 또는 지인 소개 혹은 동문 추천을 통해 시작하는 편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관심도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필름메이커스’ 구인구직을 통해서 입문함.</li> </ul>

④ 음향 분야

- 요즘은 동시녹음 관련 전공자가 많으며, 지인 소개나 영화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력으로 입문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음향은 음악 엔지니어에서 영화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음향 관련 학과가 많아져 음향 전공이나 다른 영상 쪽 음향 및 음악 전공자들이 인맥을 통해 지인의 소개로 시작(80%)하거나, 전공자들이 영화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20%)하는 경우가 많음.
- 음악은 주로 교수 추천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표 4-2-4> 입문경로(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전공자가 많으며, 주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력으로 입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부터 영화 녹음 쪽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친인척 소개로 스튜디오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함.</li> <li>• 요즘은 인터넷 공지(필름메이커스, 영화진흥위원회 구인구직란, 사람인 광고)를 통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함.</li> </ul> <p><i>“영화과가 있는 학교에서 음향과 현장녹음에 매력을 느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i></p>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엔지니어에서 영화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음향 관련 학과가 많아져 음향 전공이나 다른 영상 쪽 음향이나 음악 전공자들이 인맥을 통해 지인의 소개로 시작(80%)하거나, 전공자들이 ‘필름메이커스’ 같은 구인구직을 통해 시작(20%)하는 경우 많음.</li> </ul> <p><i>“보통 영화 음향은 공채로 뽑지 않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 관련 교육기관이 97년에 신설되어 30대는 주로 이 기관을 통해 데뷔하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하는 경우도 있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듀서 선배 통해 조수로서 업계 진출하여 지금까지 계속 활동 중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음악감독들의 경우도 처음은 소개를 통해 입문하여 자리 잡는 편임.</li> </ul> <p><i>“우연히 프로듀서 선배를 알게 되면서 조수처럼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어요.”</i></p>



⑤ 편집 분야

- 편집의 경우 영화 편집 혹은 연출 관련 전공을 살리거나, 편집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편집실)을 찾아 시작함.
- Visual Effects의 경우 관련 학과 전공자가 대부분 교수나 지인들을 통해 입문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VFX)을 통해 배우고 입문하는 경우도 있음.
- DI의 경우 영상 관련 전공자 혹은 종사자들이 흥미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맥으로 추천을 받거나, 구인구직사이트 혹은 학교나 산학협력 인턴 과정을 통해 입문하기도 함.

<표 4-2-5> 입문경로(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편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스크립터로 참여했던 작품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중 편집 기사님의 권유로 입문함.</li> <li>• 전공을 살리거나 편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편집실)을 찾아 시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편집 전공자보다는 연출 전공자가 여러 작품을 경험한 후 편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신문방송학과 전공이지만,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연출 쪽 스크립터 현장에서 일을 시작해 편집실에서 조수 생활을 6년 정도 한 후에 데뷔했죠.”</i></p>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공자이더라도 시각특수효과에 관심을 갖고 블로그, 공모전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대학에서 관련 미술분야를 전공하고 교수님 소개로 현장 일을 시작했어요. 현재는 방송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전공자들이 졸업해서 입문하거나 진학해서 프리랜서를 함.</li> <li>•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VFX)을 통해 배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음.</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관련 전공자 혹은 종사자들이 흥미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대학 전공자이거나 교수 추천 혹은 관련 분야 지인 소개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i>“인맥으로 추천 받거나, 구인구직사이트 혹은 학교나 산학협력 인턴 과정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요.”</i></p>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의 경우 대부분 지인에게 소개받거나, 보조출연 업체에 등록(가입)을 한 이후에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함.

<표 4-2-6> 입문경로(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보조출연 업체에 등록(가입)을 한 이후에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함.</li> </ul> <p><i>“평소 배우에 대한 꿈도 있었고, 지인의 소개에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 전공자들이 경험삼아 시작하다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껴 입문하는 경우도 있음.</li> </ul>

(2) 전업예술인 여부

① 기획 분야

- 기획 분야는 대부분 회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전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함.
- 연출은 대부분 전업예술인이지만,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시작하기까지 공백이 생김과 동시에 언제 새로운 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강의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 홍보마케팅은 업계 특성 상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러 작품에 참여하면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쁘므로, 전업예술인이 대부분임.
- 구성작가의 경우 대부분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으며, 전업으로 하고 있음.

<표 4-2-7> 전업예술인 여부(기획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듀서로 데뷔한 사람은 대학교 시간강사나 학원 수업을 하기도 함.</li> </ul> <p><i>“공연계통 제작 팀원은 프리랜서가 많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기획 분야의 직업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전업예술인이라 할 수 있음.</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예술인이지만,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까지 공백이 생겨 언제 새로운 일이 들어올지 모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가끔 강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이기 때문에 전업스태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특성 상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러 작품에 참여하면,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쁘므로 전업예술인이 대부분임.</li> </ul> <p><i>“보통 홍보마케터들은 단순한 1회성 강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i></p>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작가의 경우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의를 나가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전업임.</li> </ul> <p><i>“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으며,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를 쓰려면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사전 답사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 등 할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일을 할 수 없음.</li> <li>• 작품이 없을 때는 영상 제작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홍보물 제작 일을 하기도 함.</li> </ul> <p><i>“작품이 없을 때 기업홍보 영상물 제작을 부업으로 하는 작가도 있고, 기업의 홍보부서에서 부업하는 경우도 많죠.”</i></p>

② 촬영 분야

- 촬영은 기본적으로 전업으로 활동하지만, 촬영이 없을 경우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함.
- 조명은 매체가 많아져 비슷한 업종의 일을 할 뿐, 대부분 전업예술인임.
- 특수효과 업계에서는 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전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임.
- 그림은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이며,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공백 기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정도임.

<표 4-2-8> 전업예술인 여부(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이지만 촬영이 없을 경우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함.</li> </ul> <p><i>“전업이지만 공백 기간에는 생계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F, 드라마 촬영, 뮤직비디오, 웹 드라마, 케이블 드라마 등 영화 공백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가 많아져 비슷한 업종의 일을 할 뿐, 대부분 전업예술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으로 일을 함. CF를 하기도 하지만 조명 파트로 일함.</li> </ul> <p><i>“전업으로 일을 해요.”</i></p>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에서는 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전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이 많지 않을 때에도 장비 정비나 특수효과 장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전업예술인으로 활동 중에 있음.</li> </ul> <p><i>“특수효과 종사자들이 많지 않아서 프리랜서들은 일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어요.”</i></p>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공백 기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정도이며,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은 전업예술인이며, 영화작품 활동 없을 시 팀장급 미술감독인 경우 대학교 시간 강사로 일하기도 하고, 팀원인 경우 마트 아르바이트, 촬영 지원, 도면작업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함.
- 의상은 전업예술인이며, 소수 유명 팀장급은 보유의상들이 조금씩 늘어나 대여샵을 병행한다거나 쇼핑몰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음.
- 분장은 전업예술인이지만, 다음 작품을 기다릴 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함.
- 소품은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므로 전업예술인임.

<표 4-2-9> 전업예술인 여부(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인 경우 영화작품 활동 없을 시 마트 아르바이트, 촬영 지원, 도면작업 등의 일을 하지만 대부분 전업으로 활동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 미술감독인 경우 대학교 시간 강사로도 일하지만, 대부분 전업으로 활동함.</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일이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개인 스타일리스트 일을 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음. 의상팀 실장급 같은 경우 보유의상들이 조금씩 늘어나 대여샵을 병행한다거나 쇼핑몰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음(10% 내외).</li> </ul> <p><i>“겸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i></p>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예술인이지만, 다음 작품을 기다릴 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전업예술인이며, 이외에 프리랜서로 미용실 같은 샵에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헤어뷰티샵을 운영하며 자영업을 겸업하고 있어요.”</i></p>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므로 전업예술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으로 하고 있음.</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은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이지만, 작품 활동 없을 시 CF 등과 같이 비슷한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음.
- 음향은 전업예술인도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음.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외부 일을 겸업하기 어려움. 프리랜서는 포지션과 기간을 정해 일을 하고, 그 외 주로 강의나 단편작업을 병행함.
- 음악 종사자들은 대부분 생계 때문에 강의, 대리운전, 카페 등을 병행하거나, 자영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 4-2-10> 전업예술인 여부(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예술인이지만, 작품 활동 없을 시 CF와 같은 비슷한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활동 없는 기간에 방송국 붐 오퍼레이터, 막노동, 인터넷 설치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업예술인임.</li> </ul>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예술인도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음.</li> <li>• 프리랜서는 포지션과 기간을 정해 일을 하고, 그 외 주로 강의나 단편작업을 병행함.</li> <li>• 음향 쪽 이외의 일을 겸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외부 일을 겸업하기 어려움.</li> </ul> <p><i>“대부분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음향과 기술감독을 겸업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일을 하기 힘들어요.”</i></p>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업계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태프 일을 하면서 생계 때문에 강의, 대리운전, 카페, 자영업 등을 병행하고 있음.</li> </ul> <p><i>“음악만 하고 싶지만 생계 때문에 겸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i></p>

⑤ 편집 분야

- 편집은 광고, 단편, 독립영화 같은 동종계열의 짧은 프로젝트 편집 및 주말 아르바이트 등 작품과 작품 사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
- Visual Effects 분야에서 극히 일부는 자영업,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며, 10명 중 1명 정도는 강의도 병행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
- DI는 주로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려움.

<표 4-2-11> 전업예술인 여부(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단편, 독립영화 같은 동종계열의 짧은 프로젝트 편집 및 주말 아르바이트 등 작품과 작품 사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방송물, 뮤직비디오 등 프로젝트 외에 관련된 영상물에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이 대부분임.</li> </ul>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소속이 많아 전업이며, 가끔 오후에 학교 강의를 하기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히 일부는 자영업,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며, 10명 중 1명 정도는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 전업예술인임.</li> </ul> <p><i>“일주일에 1~2일 정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이예요.”</i></p>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으로 일하는 환경으로 고용계약서상으로도 겸업/부업 혹은 외적인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음.</li> <li>• 학교 특강 의뢰는 부업으로 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가능함.</li> </ul> <p><i>“전업을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요.”</i></p>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의 경우 60~70% 정도가 전업예술인이며, 나머지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제빵업 종사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음.

<표 4-2-12> 전업예술인 여부(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70% 정도 전업예술인이며, 나머지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제빵업 종사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음.</li> </ul> <p><i>“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자영업을 겸업하고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겸업을 하는 편인데, 재테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많음.</li> </ul> <p><i>“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i></p>



(3) 작품 참여 현황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은 투자사의 분기별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3월과 9월이 바쁜 시기임.
- 연출은 영화 연출파트 스크립터로 1년에 1작품, 총 7~8작품(+메이킹 1작품)에 참여한 경우도 있음.
- 홍보마케팅은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소속사 규모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가 다르며, 업계 평균적으로 1년에 2작품, 많게는 1년에 3작품 정도 참여함.
- 구성작가는 인맥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가 달라지며, 개인차가 큼.

<표 4-2-13> 작품 참여 여부(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슨 일이든 1년 안에 마무리 되고 그 다음 일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몇 개월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절대 안정적이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의 분기별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3, 9월이 바쁜 시기임.</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연출파트 스크립터로 1년에 1작품, 총 7~8작품(+메이킹 1작품)에 참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동안 작품 활동이 없기 때문에 초조함.</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소속사 규모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가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평균적으로 1년에 2작품 정도 참여하며, 많게는 1년에 3작품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홍보마케터로 8년 정도 활동했으며, 최근 뮤지컬 ‘나와 나타샤’, ‘GOD’ 콘서트 등을 홍보했어요.”</i></p>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맥에 따라 작품 참여 기회가 달라짐. 개인차도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기 작품을 기다리거나 육아 문제로 잠깐씩 공백 있었음.</li> </ul> <p><i>“1998년 작가로 첫 활동을 시작했죠. 활동 기간은 17~18년 정도이며, 주로 ‘생방송 정보 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을 맡으며 최근 ‘다큐멘터리 기획, 제작’ 하고 있어요.”</i></p>

② 촬영 분야

- 촬영은 영화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1~2작품 정도 작업함.
- 조명은 지인 소개로 작업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 1~2작품 정도 참여함.
- 특수효과는 주로 지인 소개나 인맥을 통해 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음.
- 그림은 대부분 지인 소개와 인맥을 통해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1년에 2~3편 정도임.

<표 4-2-14> 작품 참여 여부(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1~2작품 정도 작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은 1년에 1작품, 조수는 1년에 1.5~2작품 정도 소화함.</li> </ul> <p><i>"영화 촬영파트 감독으로 조수 막내로 입문하여 감독까지 18년 동안 30작품 정도(평균 2년에 3작품, 장편 영화만/조수 포함) 작업했어요."</i></p>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F 작업도 겸하는 영화 조명팀으로 1년 평균 2~3작품, 12년 동안 30~35작품 작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 소개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 소개나 인맥을 통해 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그래픽의 기본 작업일 수도 있고, 실 상황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일도 함.</li> </ul> <p><i>"영화, 드라마, 공연에서 불이 나거나, 폭파를 한다거나, 눈, 비, 바람, 연기, 와이어 등 시각적인 아날로그적 효과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i></p>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기준, 평균 1년에 2~3편의 작품에 참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동안 25~30작품(단편 빼고 장편만 / 1년에 2편정도) 작업함.</li> </ul> <p><i>"카메라가 움직이는 일을 도와주는 그림 팀(영화 촬영파트)의 팀장으로 1년에 2편정도 촬영함."</i></p>

③ 미술 분야

- 미술의 경우 영화 기준으로 함께 작품에 참여한 스텝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소개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보통 팀장급 이상은 1년 평균 1작품, 미술감독은 2년에 1작품에 참여함.
- 의상은 주로 지인의 소개나 친분으로 독립영화나 소규모 영화 작업을 맡으며, 보통 1년에 2~3작품 정도 참여하고 있음.
- 분장은 영화 기준, 보통 1년에 평균 2~3편의 작품에 참여함. 팀장급은 1년에 평균 5작품, 팀원은 평균 7작품 정도 참여함.
- 소품은 촬영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화 기준, 1년 평균 1.5~2개 작품에 참여함.

<표 4-2-15> 작품 참여 여부(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작품에 참여한 스텝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소개로 작업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 이상 1년 평균 1작품, 미술감독은 2년에 1작품 정도 작업함.</li> </ul> <p><i>“지인 소개로 1999년부터 시작하여 18년 동안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미술파트를 담당하며 25편의 작품에 참여했죠.(평균 1년에 1~2작품)”</i></p>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와 일을 얻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지인의 소개나 친분으로 독립영화나 소규모 영화 작업을 맡음.</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기준, 보통 1년에 평균 2~3편의 작품에 참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1년에 평균 5작품, 팀원급은 평균 7작품 정도 참여함.</li> </ul> <p><i>“주로 영화, 광고 (특수)분장 헤어메이크업 담당하며, 중국 드라마 포함 작년에만 3~4작품에 참여했으며, 광고는 1년에 많으면 4~5작품에 참여해요.”</i></p>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영화 기준으로 1.5~2개 작품에 참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에 1.5개, 많아야 2개의 영화 작업에 참여함.</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 작업은 주로 매년 상반기 3~4월과 하반기 9~10월이 가장 바쁜 시기임. 영화 기준, 1년 평균 2작품에 참여함.
- 음향 작업은 업계 평균적으로 1년에 7~8작품 정도 작업함. 음향감독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연예 기획사나 음반 제작사 등으로부터 외주로 일을 얻는 경우가 많음.
- 음악 작업은 영화, 방송, 뮤지컬 등 참여활동에 개인차가 큼. 다방면으로 활동할 경우, 1년에 100곡 이상 작업하여 판매 가능하고,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 1년에 최대 34곡정도 작업하여 판매 가능함.

<표 4-2-16> 작품 참여 여부(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수기는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임.</li> </ul> <p><i>“일이 꾸준히 있는 직업이 아니기에 불안정함. 특히 퇴직금 같은 것이 없어서 노후가 걱정됨.”</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은 표준근로계약 때문에 한 달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주휴일이 있고 현장에 시간을 체크하는 노조(스태프 대표)가 있어서 잘 지켜지는 편임.</li> </ul> <p><i>“영화 현장(동시)녹음 기사로서 공백 기간 없이 1년 평균 2작품, 26년 동안 50여 작품에 참여함.”</i></p>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평균적으로 1년에 7~8작품 정도 작업함.</li> </ul> <p><i>“현장에서 작업한 동시녹음에 총소리나 비행기 소리 등을 꾸며서 넣어주는 보통 믹싱이라고도 부르는 후반 사운드작업을 하는 영화 음향팀 팀원으로 9개월 동안 7작품 정도 작업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감독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연예 기획사나 음반 제작사 등의 외주로 일을 얻는 경우가 많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방송, 뮤지컬 등 참여활동에 개인차 큼.</li> </ul> <p><i>“연평균 작품 활동 추산 어려움.”</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팀의 경우, 1년에 100곡 이상 작업 및 판매 가능.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 1년에 최대 34곡정도 작업 및 판매 가능함.</li> </ul> <p><i>“최근 영화 ‘홍’, 드라마 ‘최강배달꾼’ 등에서 음악감독으로 작업했어요. 4~5년 전부터 김기덕 영화감독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1년에 2편정도 작업하는 편이에요. 한 작품 당 20~30개 음악 작업 수행 중이라 할 수 있죠.”</i></p>

⑤ 편집 분야

- 편집은 보통 1년에 작은 영화까지 합치면 10편미만,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편수는 많아야 6~7편 정도임.
- Visual Effects는 주로 소개를 통해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1년 평균 3~5작품 정도 작업함.
- DI는 그동안 함께 작업하며 알게 된 지인 소개로 주로 일을 맡으며, 여름개봉 선작업을 하는 6월과 7월, 연말인 11월과 12월, 명절, 베를린 영화제 선작업을 하는 12월과 1월, 칸 영화제 선작업을 하는 3월과 4월, 부산&베니스 영화제 선작업을 하는 8월이 성수기라 할 수 있으며, 비수기는 3~5월 정도임.

<표 4-2-17> 작품 참여 여부(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편집을 주로 담당하며, 프로젝트 식으로 1년 동안 영화만 3작품 참여함.</li> <li>• 보통 1년에 4~5작품 정도 작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1년에 작은 영화까지 합치면 10편미만,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편수는 많아야 6~7편 정도임.</li> </ul> <p><i>“촬영본을 자르고 붙여 상영 가능한 영상물로 만드는 편집을 담당하여, 조수 생활로 장편 60편, 편집 기사로 영화 30편정도/ 드라마 5편정도, 16년 간 총 100여 편 정도 작업했죠.”</i></p>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홍보영상, 광고 쪽 편집에서 사운드 전까지의 후반작업인 시각 특수효과(Visual Effects) 담당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영화는 1년에 1작품, 방송 쪽은 1년에 2작품 이상은 무조건 하고 있음.</li> </ul> <p><i>“6년 동안 공백 기간 없이 1년에 5작품씩 작업한 편이죠.”</i></p>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수기는 6, 7월 (여름개봉 선작업) / 11, 12월 (연말) / 명절 / 12, 1월 (베를린 영화제 선작업) / 3, 4월 (칸 영화제 선작업) / 8월 (부산, 베니스 영화제)임.</li> <li>• 3~5월이 비수기라 할 수 있음.</li> </ul> <p><i>“어시들이 더 바빠며, 성수기에는 日 17~18시간 작업, 月 28~29일 근무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함께 작업하며 알게 된 지인 소개로 주로 일을 맡음.</li> </ul>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는 보통 1년에 20~25작품 출연함. 개인차가 있지만, 많이 출연하는 사람은 1년에 40작품 정도 출연함. 작품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한 작품 반복출연 가능하기도 함.

<표 4-2-18> 작품 참여 여부(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 1년에 20~25작품 출연하며, 많이 하는 사람은 1년에 40작품 정도 출연함. 작품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한 작품 반복출연 가능함.</li> </ul> <p><i>"2012년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공백기 없이 영화, 드라마 보조(연기자)로 한 달에 2~3작품 출연했어요. 영화, 드라마 포함하여 1년에 20~25작품 정도 참여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연기자는 생계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참여하지 않음.</li> </ul>

2) 대중문화예술 관련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1) 회사 소속 여부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의 경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4대 보험에 가입됨.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함.
- 연출의 경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영화사와 작품에 따라 달라짐.
- 홍보마케터는 제작사에 소속되어, 회사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단위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구성작가의 경우 프리랜서가 많으며, 제작사에는 기획 작가, 작가 실장으로 월급을 받는 작가들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들어온 작가들의 관리 및 조언하는 프로듀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표 4-2-19> 회사 소속 여부(기획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하는 프리랜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4대 보험에 가입됨.</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작품별로 따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영화사와 작품에 따라 달라짐.</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마케팅 분야는 제작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50~60% 이상이고 나머지가 프리랜서라고 추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에 소속되며, 회사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단위로 연봉협상을 함.</li> <li>• 프리랜서로 일하다 제작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i>“홍보마케터는 일반 회사원처럼 직장인 개념이라 작품 활동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없어요.”</i></p>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로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국에는 소속된 작가가 없으며, 거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임.</li> <li>• 제작사에는 기획 작가, 작가 실장으로 월급을 받는 작가들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들어온 작가들의 관리 및 조언하는 프로듀서 개념임.</li> </ul>

② 촬영 분야

- 촬영 분야 종사자는 대부분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음.
- 조명은 대부분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 활동 기간에만 계약 맺어 소속되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음.
- 특수효과는 프리랜서라도 특수효과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함. 작품 참여 활동은 제작사에 따라 다름.
- 그림의 경우 대부분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임.

<표 4-2-20> 회사 소속 여부(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음.</li> <li>• 촬영감독 밑에 팀으로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밴드나 인터넷으로 총원하여 일을 하는 편임.</li> <li>• 프로덕션이나 촬영감독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별로 따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가 많음.</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 활동 기간에만 계약 맺어 소속되는 프리랜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영화는 표준계약서 쓰고 지키려는 추세지만, 저예산 영화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경우 많음.</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면허는 필수 사항이며, 군필자를 위주로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함.</li> <li>• 작품 참여 활동은 제작사에 따라 다름.</li> <li>• 프리랜서라도 특수효과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효과는 특수효과 회사가 제작사와 작품 계약을 통해 일을 함.</li> <li>• 작품에 참여한 제작사와 대금처리가 잘 되면 좋은 관계가 됨.</li> </ul> <p><i>“제작사와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2016년까지는 표준계약서의 개념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기 시작함. 작품 참여기간에 대한 사항과 금액, 품목은 명시되어 있지만 표준근로시간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i></p>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작품별로 계약을 따로 하는 프리랜서임.</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의 경우 공중파 KBS, MBC, SBS 방송국은 소속되어 있는 미술센터가 있거나 전담으로 일하는 미술 회사가 있어 방송국 자체제작 작품에 참여하고, 외주제작일 경우에는 제작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일하게 됨.(방송국 소속 1/3, 프리랜서 2/3)
- 의상은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임.
- 분장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작품계약을 많이 함.
- 소품은 소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표 4-2-21> 회사 소속 여부(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의 경우 미술팀이 제작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없고, 방송 쪽에서는 드라마 미술센터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는 있음.</li> </ul> <p><i>“공중파 KBS, MBC, SBS 방송국은 소속되어 있는 미술센터가 있거나 전담으로 일하는 미술 회사가 있어 방송국 자체제작의 작품에 참여하고, 외주제작일 경우에는 제작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일하게 되죠.(1/3 방송국 소속, 2/3 프리랜서)”</i></p>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계약 맺는 프리랜서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스태프와 달리, 배우나 가수 개인 스타일리스트는 회사라는 느낌보다는 팀을 만들어서 소속되어 일함.</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프리랜서로 작품계약을 많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 혹은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작품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임.</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은 업계 평균적으로 90%가 직원, 10%가 프리랜서임.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함.
- 음향 작업은 대부분 영화 제작사가 아닌 녹음실(음향 스튜디오) 소속으로 스튜디오 자체 계약서(월급, 일하는 시간 정도 명시)를 통해 계약 맺음. 음향감독 같은 경우 10%는 프리랜서고, 90%는 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음.
- 음악 작업은 제작사에 소속되기 보단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표 4-2-22> 회사 소속 여부(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평균적으로 90%가 직원, 10%가 프리랜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 계약을 따로 하는 프리랜서도 있음.</li> </ul>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영화 제작사가 아닌 녹음실(음향 스튜디오) 소속으로 스튜디오 계약서(월급, 일하는 시간 정도 명시)를 통해 계약 맺음.</li> <li>• 영화 후반 음향 쪽은 현장 스텝들과 다르게 표준계약서가 없음.</li> </ul> <p><i>“녹음실 월급을 받고, 영화 작품 당 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보다는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감독 같은 경우 10%는 프리랜서이고, 90%는 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에 소속되기 보단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 높은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법인 사업체 운영하며 인디 밴드 관리와 프로듀싱 및 유통을 맡고 있음.</li> </ul>

⑤ 편집 분야

- 편집은 보통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편집실 소속으로 편집실 대표인 편집 기사와 구두계약을 맺음.
- Visual Effects는 제작사(후반, CG제작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프리랜서임.
- DI은 업계 종사자가 대부분 영화 제작사 아닌 DI 업체 회사 소속임.

<표 4-2-23> 회사 소속 여부(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편집실 소속으로 편집실 대표인 편집 기사와 구두 계약 맺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작품별로 따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임.</li> </ul>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후반, CG제작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프리랜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작품별로 계약을 따로 하는 프리랜서이자 개인 사업자임.</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 아닌 DI 업체 회사 소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에 한 번 연봉협상 하는데 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지 않음. (6년 근무 중 2번 받음)</li> <li>• 계약서를 매년 문서화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음.</li> <li>• 근무시간, 식대지원, 연월차 같은 부분들이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 관행상 잘 지켜지지 않기에 제작사(회사)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작업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 강요로 진행되는 편임.</li> </ul> <p><i>“영화를 하기 전에 대기업에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인지, 회사들 간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잔업시간, 연월차 같은 보상은 얻기가 힘들었어요.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이든 후반작업이든 처우개선이 필요해요.”</i></p>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는 소속 자체가 없는 일용직이며, 보조출연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가입(등록) 함. 가입된 보조출연 업체에서 일급(출연료)을 지급하며, 보조출연 업체도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는 편이 많음.

<표 4-2-24> 회사 소속 여부(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 자체가 없는 일용직임.</li> <li>보조출연 업체와 계약 이후 가입(등록), 소속은 아님. 가입된 보조출연 업체에서 일급(출연료) 지급. 보조출연 업체도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는 편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보조출연 팀장은 업체 직원이나 출연보다는 현장진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으며, 현장 관리를 맡음.</li> </ul>

(2) 계약 현황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의 경우 요즘은 표준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며, 메이저 투자사에서 진행하는 작품은 대부분 표준계약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음. 물론 표준계약서 상 세부항목들이 100% 지켜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님.
- 연출의 경우 영화 제작사(대표)와 직접 계약을 맺음. 요즘은 표준계약서를 많이 쓰는 추세이고, 메이저급 제작사나 투자사일 때 표준계약서 내용이 명확히 이행되는 편임.
- 홍보마케팅의 경우 팀장과 팀원은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하거나 구두계약인 경우가 일반적임.
- 메인 작가들은 보통 제작사와 프로그램 계약을 하며, 구두계약으로 일을 진행함.

<표 4-2-25> 계약 현황(기획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은 표준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며, 메이저 투자사에서 진행하는 작품은 거의 해당됨.</li> <li>• 표준계약서 세부항목들이 100% 지켜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파트 직급은 대개 ‘팀장-부장-실장(팀장급)-프로듀서’로 나뉨.</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은 확실히 표준계약서를 많이 쓰는 추세임.</li> </ul> <p><i>“7~8작품 (+메이킹 1작품)을 하는 동안 서면 계약을 했지만 항목들이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최근 1작품은 표준계약 맺었지만, 제작사에 유리한 형태였고, 현장에서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저급 제작사나 투자사일 때 표준계약서 내용이 명확히 이행되는 편임.</li> </ul> <p><i>“저는 영화 제작사(대표)와 직접 계약을 맺었죠.”</i></p>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과 팀원은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하거나 구두계약인 경우가 일반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 팀장급 경우 팀원들을 직접 구성하여 작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팀장과 작품 제작사만 계약함.</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자료 조사 리서치 1년, 5분/10분 분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브작가가 되어 최소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후 메인작가가 됨.</li> <li>• 서브작가로 활동하면서 능력이 출중하면 바로 메인작가로 활동하는 경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 작가들은 보통 제작사와 프로그램 계약을 하며, 구두계약으로 일을 진행함.</li> </ul> <p><i>“메인작가는 제작사와 편당 계약을 하고, 메인작가가 고용한 팀원은 월급 형식으로 리서치 100만 원, 서브작가 200만 원 등으로 임금을 지급해요.”</i></p>

② 촬영 분야

- 촬영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직접 계약 맺음.
- 조명의 경우 제작비 30~50억 기준, 6~8명 정도로 팀장이 직접 팀원을 구성하며, 팀원들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개별로 계약을 체결함.
- 특수효과의 경우 팀장급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통 3~4년 경력이 필요하며, 본인 스스로가 할 줄 아는 특수효과가 많아야 함.
- 그림의 경우 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나 프로듀서와 직접 계약 맺고, 팀원은 팀장과 구두 계약을 맺음. 작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팀원은 보통 2명으로 구성됨.

<표 4-2-26> 계약 현황(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은 퍼스트를 구성하고, 주로 퍼스트가 팀원을 구성함. A팀 한 팀으로 구성 시 촬영팀은 3~5명 구성. 대체적으로 멀티캠 시스템(2개의 카메라 운영)으로 진행되는 요즘은 A팀 4명, B팀 2명 정도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직접 계약 맺음.</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비 30~50억 기준 6~8명 정도로 팀장이 직접 팀원 구성하며, 팀원들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개별계약 체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대표)와 계약 맺고 팀원은 직접 구성함.</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는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되고, 근로자로 계약해서 원천징수를 함.</li> <li>• 작은 작품의 경우 팀장급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이 되고, 보통 실장급 1명, 팀장급 1명, 사원 1명 이렇게 총 3명 정도로 구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통 3~4년 경력이 필요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특수효과가 많아야 함.</li> </ul> <p>“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팀장이 일을 진행할 경우 팀원으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못하며 월급 등으로 임금 지불, 실력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죠.”</p>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으로 팀원은 팀장과 구두계약을 맺음.</li> </ul> <p>“작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팀원은 보통 2명으로 구성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사 대표나 프로듀서와 직접 계약 맺음.</li> <li>• 표준계약 시에는 제작사와 개별계약을 하고, 작은 영화일 때는 팀장이 계약하고 팀원은 팀장과 계약함.</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 팀장급은 영화의 경우 영화 제작사 대표, 드라마의 경우 미술회사 혹은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맺음.
- 의상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상 영화 제작사 대표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상실 실장님 소속이 됨.
- 분장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 대표와 계약하며, 팀원은 팀장이 직접 구성함.
- 소품의 경우 영화촬영 시 표준계약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화사와 개별계약을 맺음.

<표 4-2-27> 계약 현황(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급은 미술감독과 상의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인력을 총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영화인 경우 영화 제작사 대표, 드라마의 경우 미술회사 혹은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 맺음.</li> <li>• 일반적으로 영화는 영화 제작사와 개별 계약서를 쓰고 표준계약을 맺고, 드라마는 주로 미술회사(팀장이 금액 결정)와 월급, 근무 기간 정도를 협의해 구두계약 맺음.</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제작사 대표와 표준근로계약 체결하며, 일반 계약 시 주로 의상 실장님과 맺음.</li> <li>• 표준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상 영화 제작사 대표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상 실장님 소속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계가 아직은 표준근로계약을 100% 하지 않음. 저예산 영화는 예산이 적어서 표준계약을 못 함.</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은 팀장에 의해 결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 대표와 계약하며, 팀원은 직접 구성함.</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에는 소품회사 대표와 계약 맺고, 회사로부터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음.</li> <li>• 영화촬영 시 표준계약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화사와 개별계약을 맺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임.</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의 경우 촬영 기간이 평균 4~5개월 정도 소요되면 주로 표준근로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영화 제작사(대표)와 팀원이 개별계약을 맺음.
- 음향의 경우 프리랜서(10명 중 3~4명 정도)도 영화사가 아닌 녹음실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함. 프리랜서와 업체 모두 공연제작사와 주로 구두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음.
-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감독으로 작품 참여 시 제작자와 음악감독으로서 표준계약서 통해 제작사와 개인적으로 계약 체결함. 계약기간은 영화의 경우 보통 1년 정도, 드라마인 경우 3~6개월 정도임.

<표 4-2-28> 계약 현황(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4~5개월이 소요되는 촬영의 경우 주로 표준근로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영화 제작사(대표)와 팀원이 개별계약을 맺음.</li> <li>• 비 표준근로계약은 주로 저예산 영화에서 사용되는데, 영화 제작사(대표)와 기사가 계약하고 팀원은 기사와 재계약하는 방식임.</li> </ul> <p><i>“영화사별, 투자사별 계약 방식 및 조건이 천차만별임.”</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영화 제작사 대표와 직접 계약하며, 팀원은 3명 정도 직접 구성함.</li> </ul>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10명 중 3~4명 정도)도 영화사가 아닌 녹음실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함.</li> <li>• 영화 후반 음향 쪽은 현장 스텝들과 다르게 표준계약서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와 업체 모두 공연제작사와 주로 구두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음.</li> </ul> <p><i>“최근 선금을 많게는 70% 받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일이고, 제작사의 횡포가 심한 편이에요.”</i></p>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 음악감독은 보통 3~4명 정도로 팀원을 구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나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작품 참여 시 제작자와 음악감독으로서 표준계약서 통해 개인적으로 제작사와 계약 체결함. 계약기간은 영화의 경우 보통 1년 정도, 드라마의 경우 3~6개월 정도임.</li> </ul> <p><i>“팀장급은 제작사와 서면계약을 맺고, 팀원들은 대부분 팀장과 구두계약을 맺죠.”</i></p>



⑤ 편집 분야

- 편집의 경우 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랑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원 개념으로 팀장이 직접 고용하여 계약 맺음.
- Visual Effects의 경우 팀장급은 CG업체 대표와 직접 계약함. 전체적인 작업 흐름은 CG업체에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랑 계약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하청의 하청 개념으로 이루어짐.
- 대기업의 경우 DI 인력을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회사 자체 인력망과 인사팀을 통해 충원함.

<표 4-2-29> 계약 현황(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집실 대표인 편집 기사와 구두 계약 맺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영화사 대표랑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원 개념으로 팀장이 직접 고용하여 계약 맺음.</li> </ul>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G업체에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랑 계약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하청의 하청 개념으로 작업이 이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은 CG업체 대표와 직접 계약함.</li> <li>• 월 단위 시간 기간제 계약을 하지 않고, 작품별 계약을 함. 구두계약이 더 많고 금액 정도의 서면계약을 함.(표준계약서 상 세부항목이 존재하지는 않음)</li> <li>• 방송 쪽 일을 할 때는 주로 혼자 하지만, 영화나 광고를 할 때는 직접 2명 정도 팀을 구성하며, 팀원은 주로 본인과 계약하지만 CG업체랑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음.</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J파워캐스트 같은 대기업은 인력을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회사 자체 인력망과 인사팀을 통해 충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봉을 해서 팀장을 받았으며 어시를 데리고 개인적인 팀만을 관리하지는 않고, 실장, 부서장, 본부장님들이 전체적인 팀원을 구성하고 관리함.</li> <li>• 팀장급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DI업체 회사 대표와 직접 계약함.</li> </ul> <p><i>“인원이 필요하면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면접 보고 본부장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표님에게 승인 받는 체계임.”</i></p>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는 일급제이며, 제작사에서 돈이 나오면 보조출연 업체에서 10,000원의 소개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출연료로 지급함.

<표 4-2-30> 계약 현황(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급제이며, 제작사에서 돈이 나오면 보조출연 업체에서 소개비 (agency fee)를 제하고 남은 돈을 출연료로 지급함.</li> <li>• 소개비는 하루 출연에 10,000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 없음.</li> </ul>

(3) 근로 현황 및 환경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의 경우 요즘은 영화인 신문고나 노동청에 고소가 된 영화사는 정부 및 관련 단체/유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각종 행사참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제재가 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에 영향을 줌.
- 연출의 경우 촬영 준비 기간에는 일요일 제외 月 26~27일 근무, 촬영 임박 시에는 月 30~31일 근무(촬영 21~22회 차), 日 8~12시간 작업함.
- 홍보마케터 특성상 퇴근 이후 기사를 만난다거나, 타 작품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근 이후에도 일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음. 제작사가 작품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임금을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 구성작가의 경우 프로그램 개편 시기인 봄과 가을에 기획안 제의가 많이 들어옴. 요즘은 PD와 작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PD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등 제작 환경은 더욱 열악해짐.

<표 4-2-31> 근로 환경(기획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출, 제작부들은 쉬는 날에도 준비 때문에 일을 하지만, 촬영 회차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반영이 안 됨.</li> <li>• 과거에는 계약서에 제작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스태프들에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음.</li> <li>• 계약서 자체가 모호한 과거에 비해, 계약서 상 이행해야 하는 날 짜들이 정확히 명시된 요즘은 포괄임금제 등을 사용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li> <li>• 4대 보험을 하기 전에도 상해보험은 모든 스태프가 가입하게 되어 있음.</li> <li>• 예전과 달리 영화인 신문고나 노동청에 고소가 된 영화사는 정부 및 관련 단체 지원이나 각종 행사참여에 제한을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면 처우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됨.</li> <li>• 표준임금제 덕분에 임금도 많이 올랐고 하소연할 곳도 많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서 상 세부사항을 일일이 다 지키지 못할 것들을 알기에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li> <li>• 현장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제작부에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병원비까지 지불해주는 편이고, 제작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100% 처리되며, 영양제 같은 것도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음.</li> </ul> <p>“요즘은 영화사가 고소를 당하면 부산영화제에 갈 수도 없고, 영화진흥위 같은 곳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해요.”</p>

<표 4-2-31> 근로 환경(기획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준비 기간에는 일요일 제외 月 26~27일 근무, 촬영 임박 시에는 月 30~31일 근무(촬영 21~22회차), 日 8~12시간 작업함.</li> <li>• 임금체불 시 업계 관행상 법적대응보다는 이해를 하거나 기다리는 편임.</li> </ul> <p><i>“무리한 촬영 진행으로 부당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대가를 제공 받았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사고 발생 시 제작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줌.</li> <li>• 작품과 작품 사이 공백기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고, 노후의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라 생각함.</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부터 연말까지 성수기, 1~3월까지 비수기이며, 일부 제작사는 4월~12월까지 단기 계약하며 위촉과 해촉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음.</li> <li>• 홍보마케터 특성상 퇴근 이후 기자를 만나거나 타 작품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근 이후에도 일이 연장됨.</li> <li>• 입문 초기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이거나 12시간을 초과하여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 많았음.</li> </ul> <p><i>“홍보마케터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폭언이나 성차별에 대한 부당대우가 많은 편이에요. 부당대우가 잦아지면 결국 퇴사나 이직을 하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는 홍보마케터들은 네트워킹 개념으로 서로의 공연에 초대하여 관람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음.</li> <li>• 제작사 소속 홍보마케터나 프리랜서는 내근직이기 때문에 상해사고와 직접적 연관 없음.</li> <li>• 프리랜서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li>• 제작사가 작품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임금을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li> </ul> <p><i>“홍보마케터는 제작자나 연출 이외에 제3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은 없다고 생각해요.”</i></p>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편 시기인 봄, 가을에 기획안 제의가 많이 들어옴.</li> <li>• 상해보험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보험 처리함.</li> </ul> <p><i>“신규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통과되지 못하면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은 PD와 작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PD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등 제작 환경이 열악해짐.</li> </ul> <p><i>“기획회의를 통해 기획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저작권 등록이 어려워요.”</i></p>

② 촬영 분야

- 촬영의 경우 추석, 크리스마스 시즌 개봉을 겨냥해 3~4월과 9~10월에 촬영이 많이 들어감. 평균 한 달에 15~20일 촬영, 하루 8~12시간 정도 작업함.
- 조명은 촬영감독이나 조명감독 인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가 발생해도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편이 대부분임.
- 특수효과는 촬영이나 조명팀에 비해, 장비 준비나 정비 시간이 추가로 많이 소요됨.
- 그림은 평균 1년에 2작품 기준으로 6~7개월 정도 활동하며, 한 달 평균 20~23일,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함.

<표 4-2-32> 근로 환경(촬영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석, 크리스마스 시즌 개봉을 겨냥해 3~4월과 9~10월에 촬영이 많이 들어감.</li> <li>평균 한 달에 15~20일 촬영, 하루 8~12시간 정도 작업함.</li> <li>일도, 수입도 불규칙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함.</li> </ul> <p><i>“제작부에서 차량통제가 원만치 않았을 때 위험에 노출되기도 함.”</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해사고 발생 시 제작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100% 지원 여부는 잘 모르겠음.</li> <li>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지만, 변호사 선임에 따른 금전적 문제나 시간 때문에 대부분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li> </ul> <p><i>“잔금을 못 받았다. 촬영하다가 멈췄다. 그 이후에 돈을 못 받았다는 등의 얘기는 들어봤어요.”</i></p>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봄, 가을(3~4월, 9~10월)이 성수기. 평균적으로 영화 한 편에 3개월 50회 기준, 1년에 3작품하면 150~170일, 한 달 20일, 하루 12시간 작업함.</li> <li>상해사고 발생 시 제작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줌.</li> <li>CF, 뮤직비디오 같은 단기 촬영 시 임금체불 경험 있음. 제작사가 없어서 임금을 못 받은 적도 있었음.</li> </ul> <p><i>“조명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제작비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 조명기를 옥상에 올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건상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예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전에는 연출 감독의 횡포(폭언) 및 갑질이 있었지만, CF 차은택 감독 사건 이후로 나쁜 제작사들이 많이 없어진 탓인지 요즘은 많이 줄어들음.</li> <li>촬영감독이나 조명감독 인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상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대응하지 않는 편이 대부분임.</li> <li>조명감독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오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불안함.</li> </ul>

<표 4-2-32> 근로 환경(촬영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1년 중 300일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며, 겨울만 빼고는 성수기라 할 수 있음.</li> <li>• 촬영이나 조명팀에 비해 장비 준비나 정비 시간이 추가로 많이 소요됨.</li> <li>• 폭파 같은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약고에서 화약을 찾아와야 하는 등 부수적인 시간이 필요함.</li> <li>• 현장 작업이 많은 편이고 위험한 효과를 내기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음.</li> </ul> <p><i>“위험한 일에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고, 분야의 특성 상 오랜 기간 일을 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은 없다고 생각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나 제작사에서 보험 처리함.</li> <li>• 제작사에서 프리랜서까지 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게 됨.</li> <li>• 보통 영화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제이며,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li> <li>• 영화 제작이 중도 취소될 경우, 계약금만 받았는지, 중도금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짐.</li> </ul> <p><i>“요즘은 돈을 못 받으면 법적 대응을 바로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i></p>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가 상해보험을 들어줌.</li> <li>• 임금체불에 따른 법정대응 실패 사례를 들어본 적 있음.</li> </ul> <p><i>“선금/잔금 계약 방식에서의 일인데, 8년 전 잔금을 받지 못해 단체로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못 받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대응 실패 사례를 들어본 적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수기와 비수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li> <li>• 평균 1년에 2작품 기준으로 6~7개월 정도 활동하며, 한 달 평균 20~23일,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함.</li> <li>• 상해사고 발생 시 제작사가 가입해둔 보험으로 처리함.</li> </ul> <p><i>“일도 수입도 불규칙하고, 노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i></p>

③ 미술 분야

- 미술은 여름, 겨울 시즌 개봉 영화들이 촬영에 많이 들어가는 봄, 가을이 가장 바쁜 시기임.
- 의상은 여름(6, 7, 8월)과 겨울(11, 12, 1월)을 성수기로 볼 수 있으며, 작품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月 26일 근무, 日 18시간 근무함.(촬영 전 준비 및 촬영 후 빨래 포함)
- 분장은 보통 2달 촬영 기준, 月 20일 근무, 日 12시간 이상 작업함. 영화 예산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기술직이라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소품은 활동 많은 시기가 따로 있지 않고, 늘 바쁜 편임. 촬영 준비 기간에는 月 26일, 촬영 중에는 매일 30일 근무에, 日 12시간 작업함. 다른 스태프들이 쉴 때도 세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고 할 수 있음.

<표 4-2-33> 근로 환경(미술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나 드라마 모두 제작사에서 최고 보상 1억 정도의 저가 상해 보험에 가입해줌. 상해 시 치료비 보상 되지만,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임금이나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음.</li> <li>• 드라마 미술 회사마다 다르지만,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을 별도로 조그맣게 들어줌.</li> <li>• 임금체불 경험 3번 동안, 임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민사소송과 조정신청을 통해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음.</li> <li>• 채용 자체가 지인을 통하다보니 부당대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li> <li>• 해고에 관한 지침이나 시스템이 미비하고, 법적인 증명도 힘들며, 이에 대한 투쟁도 막연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개인이 거부 및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겨울 시즌 개봉 영화들이 촬영에 많이 들어가는 봄, 가을이 가장 바쁜 시기임.</li> <li>• 영화 기준, 작품 당 평균 3~4개월 촬영, 한 달 하루 휴무. 하루 16시간 근무(12시간 촬영, 3시간 준비, 1~2시간 정리), 1년 평균 7~8개월 근무함.</li> <li>• 드라마 기준, 촬영 준비 기간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제작에 들어가면 한 달 1~2일 휴무, 하루 19~20시간 정도 근무. 1년 평균 11개월 근무함.</li> </ul> <p><i>“일 자체가 비정기적이며, 인간관계에 따라 일이 끊길 수도 있는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공존하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은 없고 불안정하죠.”</i></p>

<표 4-2-33> 근로 환경(미술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6,7,8월), 겨울(11,12,1월)이 성수기.</li> <li>작품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月 26일 근무, 日 18시간 작업 (촬영 전 준비 및 촬영 후 빨래 포함).</li> <li>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보험 세부항목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li> <li>산재는 제작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대체로 프로듀서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남.</li> <li>임금체불에 법적대응을 해보려 했으나 근로계약을 쓰지 않은 구두계약 경우라 실질적인 대응 어려웠음.</li> </ul> <p><i>“다른 파트 감독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반말하거나 하대하며 자존심 건드리는 말투와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촬영 제외하고 대부분 3~4개월 안에 마무리됨. 드라마 경우 꾸준히 촬영하지만, 영화는 100~150회 차, 큰 영화 같으면 6개월 정도 촬영함.</li> <li>의상팀은 휴 차에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li> <li>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맞지만, 의상 업계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힘들.</li> <li>일도, 수입도 불규칙하여 안정적이지는 않음.</li> </ul> <p><i>“세트는 세트대로, 로케이션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에요.”</i></p>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 2달 촬영 기준, 月 20일 근무, 日 12시간 이상 작업함.</li> <li>상해 시 제작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줌.</li> <li>영화 예산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기술직이라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함.</li> </ul> <p><i>“촬영 장소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감수하는 편이지만 세트장 공기는 확실히 안 좋아요. 뿐만 아니라 항상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즘은 SNS가 발달하고 확실한 자기표현이 주를 이뤄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 바로 대처하거나 대응을 하여 촬영 중간에도 스태프들이 자주 바뀌는 편임.</li> <li>추가촬영을 하는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팀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li> </ul>



부록1. 종사자 심층인터뷰 세부내용: (2)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표 4-2-33> 근로 환경(미술 분야) (3)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많은 시기가 따로 있지 않고, 늘 바쁜 편임.</li> <li>• 촬영 준비 기간에는 月 26일, 촬영 중에는 매일 30일 근무에, 日 12시간 작업함.</li> <li>• 다른 스태프들이 쉴 때도 세팅을 위해 작업하기 때문에 일 자체가 비합리적임. 파트 중에 가장 바쁜 것 같음.</li> <li>• 촬영 자체 스케줄이 소품팀 스케줄을 고려해 주지 않음.</li> <li>• 시간이 중요한 드라마는 일본, 일 초를 다투기 때문에 업무 특성 상 촬영장 간 이동이 잦으며, 촬영 중에도 소품을 구하려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빈번함.</li> </ul> <p><i>“업무 특성 상 촬영장 간 이동이 잦으며, 촬영 중에도 소품을 구하려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빈번하여 운전하는 일이 많아 피곤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사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함. 특별한 개인 비용 부담은 없음.</li> <li>• 잦은 야근, 밤샘 작업 등으로 생활이 불규칙하다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을 이어나가기 어려움.</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은 표준계약일 경우 月 18~20일, 日 12~14시간 촬영, 일반계약일 경우 月 22~24일, 日 최소 12시간 촬영함. 1년 평균 11달 정도 근무함.
- 음향의 경우 대부분 스튜디오는 月 20~24일 근무, 日 8~11시간 작업함. 행사가 많은 시기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함.
- 음악의 경우 성수기나 비수기 등 활동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日 10~12시간 정도 근무함. 프리랜서라도 제작사와 계약한 기간 내의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음.

<표 4-2-34> 근로 환경(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일 경우 月 18~20일, 日 12~14시간 촬영하고, 일반계약일 경우 月 22~24일, 日 최소 12시간 촬영함. 1년 평균 11개월 근무함.</li> </ul> <p><i>“동종업계에서 임금체불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에 응급차가 항상 대기하고 크게 다치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제작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줌.</li> <li>예전에는 법적대응을 하는 방법 자체가 없었지만, 요즘은 노무사(계약할 때 같이/조수급만 해당) 같은 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음.</li> </ul> <p><i>“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때 지급해주지만 촬영이 끝난 후의 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i></p>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스튜디오는 月 20~24일 근무, 日 8~11시간 작업함.</li> <li>녹음실 직원들은 대체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편임.</li> </ul> <p><i>“월급이 지연되어 늦게 받은 적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튜디오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꾸준히 일이 있음.</li> </ul> <p><i>“불규칙적인 작품 활동, 적은 월급으로 인한 노후 걱정 등 불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해요.”</i></p>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수기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日 10~12시간 정도 근무함. 프리랜서라도 제작사와 계약한 기간 내의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늘어남.</li> </ul> <p><i>“금전적 능력에 따라 작업 환경이 달라져요. 주로 지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가 좋지 않은 열악함이 있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하면서 임금체불 경험 없지만, 예전 대중음악 분야 종사 시절, 곡비를 못 받았던 경우 있음.</li> <li>모 제작사 경우 팀장급이나 팀원급에게 드라마나 영화 삽입곡 의뢰 후 제작사가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는 부당대우 경우 있었음.</li> </ul>

⑤ 편집 분야

- 편집은 상업영화 개봉시즌인, 여름(5~6월), 겨울(9~10월)에 주로 바쁘지만, 영화제 시즌(전주영화제와 부산영화제 출품 전인 1~2월)에 가장 바쁜 경우도 있음.
- Visual Effects는 대체로 방학 시즌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바쁨. 하루 평균 6~8시간(최대 20시간), 한 달에 26일 정도 근무하고 있음.
- DI는 월급이 일정하지만, 노동시간 대비 임금이 높지 않고, 시간 대비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재정상 넉넉하지 못해 불안함.

<표 4-2-35> 근로 환경(편집 분야) (1)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영화 개봉시즌인 여름(5~6월), 겨울(9~10월)에 주로 바쁘지만, 영화제 전 시즌(전주영화제와 부산영화제 출품 전인 1~2월)에 가장 바쁜 경우도 있음.</li> <li>• 한 달 평균 월 23일 정도, 일 8시간 정도 작업함.</li> <li>•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규모가 큰 편집실 경우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을 하였는데 추후 퇴직금 문제로 고생했다는 사례도 접함.</li> <li>• 계약보다 제작 기간이 길어지거나 영화업종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구보다 더한 것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음.</li> <li>• 불규칙적인 작품 활동 탓에 직업의 안정성은 없음.</li> </ul> <p><i>“작업을 하고도 영화 크레딧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 기간(부산영화제 5,6,7월/칸 12,1,2월) 선 작업 시 매우 바쁨.</li> <li>• 보통 월 20~25일 근무, 일 8~10시간 작업함.</li> <li>• 업계 특성상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깨 결림, 거북목 증후군 등 업무상 문제로 제작사가 조치나 보험처리해 준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전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함.</li> <li>•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급 일정이 밀린 경우 있지만, 제작사 대표에게 항의하는 정도에 그침.</li> <li>• 프로젝트로 일을 하고 선택을 받아서 일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이 꾸준히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2~3달 계약 관계가 끊겼을 때 불안감을 느낌. 업계 보편적인 스트레스임.</li> </ul> <p><i>“개봉 전 급하게 버전을 바꾸거나 영화제 제출 등으로 급박하게 마무리를 요구하거나, 개봉 일정이 밀려 다른 프로젝트와 시간이 겹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서 자체에 정확한 제작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법적 대응보다는 양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업계 평균적인 대처 방식이죠.”</i></p>

<표 4-2-35> 근로 환경(편집 분야) (2)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시즌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바쁨.</li> <li>• 하루 평균 6~8시간(최대 20시간), 한 달 26일 정도 근무하고 있음.</li> <li>• 체력과 감각 탓에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함.</li> </ul> <p><i>“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대행사 대표로부터 작품 결과물에 대한 인격 모독(욕설)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라 개인이 처리하며, 사무실에서 일하므로 현장에 비해 사고 발생 확률 낮음.</li> <li>• 법적대응 한 경우는 없지만 대화 녹취한 적은 있음.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문제와 부담이 커 대부분 주저하게 됨.</li> <li>• 주기적으로 일이 생기면 좀 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에 대한 불안도 큼.</li> </ul> <p><i>“임금체불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납품을 조건으로 계약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작품이 멈춰서 그때까지 일했던 부분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었던 경우, 대행사가 아예 사라져서 못 받은 경우, 받기로 한 날짜보다 3~6개월 늦게 돈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하다고 들었어요.”</i></p>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li> <li>• 월급이 일정하지만 노동시간 대비 임금 높지 않고, 시간 대비 소득이 높지 않아 평상시 넉넉하지 못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li> <li>• 임금이 밀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지만, 미리 공지된 사항이고 다음 날 바로 처리가 되었음. 그 이외의 임금체불 경험은 없음.</li> </ul> <p><i>“업무 특성상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모니터를 오래 보니 거북목 증후군을 겪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사고는 드물지만 사무직을 수행하며 겪는 디스크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음.</li> <li>• CG, 편집실 같은 영세한 업장은 임금체불 존재함. 아마 영화사에서의 지급이 원활치 못한 경우였을 것임.</li> </ul>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는 주로 봄, 가을에 촬영이 많으며, 날씨 및 영화 개봉 시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평균 月 10일 촬영하며, 낮 기본촬영 기준으로 日 8~9시간, 밤샘 촬영일 경우 15시간 촬영함.

<표 4-2-36> 근로 환경(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봄, 가을에 촬영이 많으며, 날씨도 좋고, 영화 개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li> <li>• 평균 月 10일 촬영하며, 낮 기본촬영 기준으로 日 8~9시간, 밤샘 촬영일 경우 15일 촬영함.</li> <li>• 부상의 경우, 보조출연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li> <li>• 일용직이라 불안정. 촬영한 만큼 벌고, 몸 아프거나 일 없으면 소득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직업과 동떨어져 있음.</li> </ul> <p>“신생 보조출연 업체들에서 출연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사에서 업체에 돈을 지불했지만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3) 대중문화예술 소득 현황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은 경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며, 제작비 60억 원 작품 기준, 표준계약서 썼을 때, 처음 시작하는 막내 160만 원 이상, 팀원(3작품 경력) 230~240만 원, 부장 200만 원 후반~300만 원 초반, 실장 350~400만 원 초반 정도임.
- 영화 스크립터는 평균 1년에 1작품, 10~8개월 작업 기간 거치며, 10년 정도 경력이면 月 350만 원(세전), 연출부 막내는 月 270~300만 원(세전) 정도임.
- 회사마다 차이 있지만, 홍보마케팅 경력 8년 팀장급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이 일반적임.
- 구성작가는 일의 분량에 따라 소득 차이가 극명함. 메인작가의 경우 평균 연봉 4~5,000만 원. 최대 1억 원 정도이며, 일반 메인작가에 비해 예능작가 수입이 더 높음.

<표 4-2-37> 소득 현황 (기획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작품 경력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전체를 평균내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며, 표준 계약서 썼을 때 기준으로 제작비 60억 원이라면, 처음 시작하는 막내 160만 원 이상, 팀원(3작품 경력) 230~240만 원, 부장 200만 원 후반~300만 원 초반, 실장 350~400만 원 초반 정도임.</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스크립터는 평균 1년에 1작품, 10~8개월 작업 기간 거치며, 10년 정도 경력이면 月 350만 원(세전), 연출부 막내는 月 270~300만 원(세전) 정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하며, 간혹 특강을 하지만 고정소득이라 할 수 없음.</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홍보마케터 월급은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노동시간 대비 임금이 낮은 것이 큰 문제임.</li> </ul> <p><i>“1회성 강연을 하는 홍보마케터들도 있지만 아주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전부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팀장급 8년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이 일반적임.</li> <li>• 공공기관(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홍보마케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편이며, 홍보 마케팅 대행사 대표들도 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메인작가에 비해 예능 작가의 수입이 더 높음.</li> </ul> <p><i>“작가 이외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전부예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의 분량에 따라 소득 차이가 극명함. 메인작가의 경우 평균 연봉 4~5,000만 원. 최대 1억 원 정도임.</li> </ul>

② 촬영 분야

- 촬영 감독의 경우 제작비 10~20억 영화 기준, 2,000~2,500만 원, 제작비 100억 이상은 1~2억 사이로 평균 5~6,000만 원 정도 수준임.
- 조명의 경우 업계 평균적으로 막내는 月 200만 원 정도(최저시급), 퍼스트는 月 400~500만 원, 감독은 月 1,000만 원 정도 수준임.
- 특수효과의 경우 회사의 규모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업계 평균 급여는 사원의 경우 150~180만원, 팀장급은 200~250만원, 실장급은 300~3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음.
- 그립의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3개월 촬영 기준, 막내 100~150만원, 팀원 200만원, 팀장 600~700만원 수준임.

<표 4-2-38> 소득 현황 (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수 팀원인 경우 제작비 40~50억 영화에서 3~4개월 촬영에 A팀 조수 전체(5명)가 4~5,000만원에 계약, 막내 月 200~250만원, 퍼스트 月 600~800만원 정도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촬영 감독 경우 제작비 10~20억 영화에서 2,000~2,500만원, 제작비 100억 이상은 1~2억 사이로 평균 5~6,000만원 정도 수준임.</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평균적으로 막내는 月 200만 원 정도(최저시급), 퍼스트는 月 400~500만원, 감독은 月 1,000만 원 정도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특성 상 전액 대중문화활동을 통한 소득이며, 매년 다르지만 요즘 기준 영화 70%, CF 및 뮤직비디오 관련 30% 정도임.</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규모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업계 평균 급여는 사원의 경우 150~180만원, 팀장급은 200~250만원, 실장급은 300~3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음.</li> </ul> <p><i>“가끔 영화 촬영 종료 후 추가 촬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작품에 참여하기도 하며, 차기 작품에 꼭 불러달라는 식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보수로 참여하기 함.”</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효과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의 많고 적을 때의 차이가 크지만, 월 평균 400~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김. 대중문화활동과 장비 렌탈료 등 회사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순수익이 대부분임.</li> </ul> <p><i>“특수효과 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으며 대중문화활동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이 전부임.”</i></p>
	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서 작성, 3개월 촬영 기준으로 막내 100~150만원, 팀원 200만원, 팀장 : 600~700만원 정도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서 작성 시 장비 계약 &amp; 인건비(팀장) 계약 따로 진행함.</li> <li>저예산 영화 경우 장비 계약과 인건비 계약을 묶어서 진행함.</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의 경우 주 수입원은 드라마이며, 보편적으로 팀장급 月 400~500만 원, 팀원 月 200~300만 원, 막내 월 100~200만 원임.
- 의상의 경우 보통 팀장급은 224만 원(세전), 팀원은 210만 원(세전), 막내는 198만 원(세전), 실장급은 개인차가 커 평균내기 어려움.
- 분장의 경우 보편적으로 팀장급은 月 300만 원, 팀원급은 月 200만 원, 막내는 月 150~170만 원 정도임.
- 소품의 경우 팀(소품회사)마다 다르지만, 팀장(5년 이상 경력)급 月 300~350만 원, 막내 月 150만 원 정도임.

<표 4-2-39> 소득 현황 (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으로 팀장 월 400~500만 원, 팀원 월 200~300만 원, 막내 월 100~200만 원임. 주 수입은 드라마임.</li> </ul> <p><i>“미술감독은 주로 작품 당 계약이라 소득을 평균내기 어려워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의 경우 1년 두 작품 기준 평균 3천만 원 정도임. 한 달에 500만 원 선에서 1년에 7~8개월 일할 경우 소득은 4천만 원 정도임.</li> <li>• 드라마의 경우 월 소득은 5,500만 원 정도이지만, 1년에 11개월, 하루 평균 16시간 일하기 때문에 노동력 대비 소득수준은 영화에 비해 낮은 수준임.</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막내는 198만 원(세전), 팀원은 210만 원(세전), 팀장급은 224만 원(세전), 실장급은 잘 모르겠음.</li> </ul> <p><i>“표준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편차가 커서 평균을 내기 어려워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예산, 제작비 2억 원, 2~3년 경력직 기준으로, 한 달에 100~150만 원 받음. 실장급은 작품경력, 인간관계, 또는 개인소유 의상을 확보할 수도 있음.</li> </ul> <p><i>“저예산은 실장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자기가 덜 가져가더라도 후배들을 챙겨주는 편이죠.”</i></p>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으로 팀장급은 月 300만 원, 팀원급은 月 200만 원, 막내는 月 150~170만 원 정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숍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중문화활동을 통한 소득이 높은 비중을 지님.</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소품회사)마다 다르지만, 막내 月150만 원, 팀장(5년 이상 경력) 月300~350만 원 정도임.</li> </ul> <p><i>“평상시에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는다. 작품 촬영한다고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에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작품에 팀원1-팀원2-팀장-실장, 4명 정도로 구성됨. (실장이 대표일 수도 있고, 대표가 실장을 여러 명 데리고 있을 수도 있음)</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은 4개월 소요되는 작품 하나 당, 팀장급은 月 4,000만 원, 붐오퍼레이터는 月 500~600만 원, 붐어시스턴트(막내)는 月 250만 원 정도임.
- 음향은 신입은 1,800만 원 정도, 팀장급은 2,500만 원 이상 수령함. 보통 회사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영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과수당은 없음. 프리랜서일 경우, 한 곡당 평균 30~50만 원 정도 받음.
- 음악은 팀장급일 경우라도 작품 활동이 적어질 경우 그 외 소득이 60% 이상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장급은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전부임. 팀원들의 경우 레슨이나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표 4-2-40> 소득 현황 (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월 소요되는 작품 하나 당 붐 오퍼레이터는 月 500~600만 원, 붐어시스턴트(막내)는 月 250만 원 정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월 소요되는 작품 하나 당 팀장급 소득은 月 4,000만 원 정도임.</li> </ul> <p><i>“전액 대중문화활동을 통한 소득이며,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업계의 평균을 내기가 어려워요.”</i></p>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 회사원들처럼 출퇴근 시간 있지만, 영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과수당은 없음.</li> </ul> <p><i>“업계 특성 상 소득의 평균을 내기가 어려워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에 신입은 1,800만 원 정도, 팀장급은 2,500만 원 정도 수령.</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음악의 경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상위집단의 한 개인이 1년에 10편정도 작업하며, 작품 당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음. 드라마 음악의 경우, 상위집단의 한 개인이 1년에 7~8편정도 작업하며, 작품 당 1억2천만 원 정도 수령하여 수익을 배분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장급일 경우라도 작품 활동이 적어질 경우 그 외 소득이 60% 이상일 때도 있음.</li> </ul> <p><i>“보편적으로 팀장급은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전부이죠. 팀원들의 경우 레슨이나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요.”</i></p>

⑤ 편집 분야

- 신입 편집기사는 月 100~150만 원, 경력 좀 쌓이면 160~180만 원 정도로 업계 통상적으로 소득이 낮은 편임. 후반작업 중 편집은 편집료 편차가 큰 만큼 임금 편차도 큰 편임.
- Visual Effects 경우 CG업체 소속은 초급 월 150만 원 내외, 실장급 월 400만 원 정도임. 월 평균 300~400만 원 버는 프리랜서가 업체 소속 직원 보다는 소득이 높은 편임.
- DI의 경우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은 회사가 원하는 단가표에 못 미치게 되면 인맥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 있음.

<표 4-2-41> 소득 현황 (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수로 처음 시작하면 月 100~150만 원, 조금 경력이 쌓이면 160~180만 원 정도. 업계 통상적으로 금액이 낮은 편임.</li> <li>• 작품의 예산에 따라 편집 기사들 소득 편차 큼. 제작비 50억 이상 영화는 관례적으로 4~5,000만 원 정도가 편집료이지만 그것마저도 제작사에서 깎으려고 함.</li> </ul> <p><i>“보편적으로 조수 막내 月 100~150만 원 수준이며, 조금씩 월급이 오르지만 큰 폭으로 한 번에 오르는 않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180만 원 수준이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반작업 중 편집은 편집료 편차가 큰 만큼 임금 편차도 큰 편임.</li> <li>• 데뷔 편집 기사는 개인의 작업 편수도 다르고, 예산에 따라 편당 받는 금액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연간 평균 소득을 내기 더욱 어렵지만, 보통 작품 당 4~5,000만 원 받음.</li> </ul> <p><i>“요즘은 10년 이상 조수를 오래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현장편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요.”</i></p>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 및 소속에 따라 다르며, CG 업체 소속은 초급 월 150만 원 내외, 실장급 월 400만 원 정도임.</li> <li>• 프리랜서는 작품 당 러닝타임으로 분당 10만 원 정도 받음.(작품별 기간에 따라 하루에 끝나는 작업도 있지만 1년짜리 작업도 존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평균 300~400만 원 버는 프리랜서가 업체 소속 직원 보다는 소득이 높은 편임.</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간 이외에 주말이나 퇴근 이후 작업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음.</li> <li>•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은 회사가 원하는 단가표에 못 미치게 되면 인맥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년 전 초봉이 1,600만 원이었고, 지금은 2,000만 원(세전) 정도 받음.</li> <li>• 꾸준히 찾아주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연봉 1억도 받을 수 있음.</li> </ul> <p><i>“입봉 여부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크죠.”</i></p>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는 기본급 기준, 낮 촬영(아침7~8시부터)부터 오후 6시까지 촬영하며, 오후 6시 이후 촬영 종료 시간에 따라서 오버차지가 추가되어 출연료에 추가됨. 업계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면 기본급 55,000원(소개비 빼면 실 수령액 45,000원)이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기본급에 50% 27,500원) 추가되며 새벽 12시가 넘어가면 1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음.

<표 4-2-42> 소득 현황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기준, 낮 촬영(아침7~8시부터)부터 오후 6시임.</li> <li>• 오후 6시 이후 촬영 종료 시간에 따라서 오버차지가 추가되어 출연료가 추가됨.</li> <li>• 경력이 더 많거나 연기를 잘한다고 출연료를 더 주는 건 아님.</li> <li>• 업계 통상적인 기본가격은 다음과 같음. *낮 촬영 :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면 기본급 55,000원(소개비 빼면 실 수령액 45,000원) *밤 촬영 :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기본급에 50% 27,500원) 추가되며, 새벽 12시가 넘어가면 1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음.</li> <li>• 밤 촬영 많은 경우(10번 정도), 한 달에 평균 150만 원이며, 낮 촬영만 있으면 45만 원 정도임.</li> <li>• 드라마는 숙박, 교통, 식대 등이다 포함된 금액을 지급함. 영화는 전부 지원됨. 방송은 제각각임.</li> </ul> <p><i>“전업으로 작품을 많이 하여 한 달에 25일 촬영을 나간다고 가정하면, 3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4) 가입 협·단체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의 경우 프로듀서만 가입하는 협회(10명 중 1~2명 가입)와 임단협(10명 중 2명 가입)이 있음.
- 연출의 경우 협·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적은 편임.
- 홍보 마케팅의 경우 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가 없음.
- 구성작가의 경우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대표적인 단체이며, 가입 조건은 메인작가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공중파에서 몇 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함.

<표 4-2-43> 가입 협·단체 (기획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작품 정도 제작한 제작사는 다 가입되어 있는 제작사협회가 있으며, 주로 대표나 프로듀서가 가입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듀서만 가입하는 협회(10명 중 1~2명 가입)와 임단협(10명 중 2명 가입)이 있음.</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딘가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동료들을 많이 보질 못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는 없음.</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대표적인 단체이며, 협회의 회원이 되면 법적 분쟁 시 자문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대표적인 단체이며, 가입 조건은 메인작가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공중파에서 몇 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함. 그런 경력이 증명 되어야 가입이 되며 본인은 현재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② 촬영 분야

- 대표적인 촬영 관련 협·단체로 촬영감독 협회와 사단법인 촬영감독 협회가 있음.
- 조명의 경우 조명조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감독들은 70% 정도 가입되어 있음.
- 특수효과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림의 경우 노조에 그림 파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명 중 2~3명 정도 가입되어 있음.

<표 4-2-44> 가입 협·단체 (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디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촬영감독 협회’는 나이 많은 분들과 ‘사단법인 촬영감독 협회’는 젊은 촬영감독 위주로 활동하는 것 같음. ‘사단법인 촬영감독 협회’는 10명 중 7~8명 정도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음.</li> </ul> <p><i>“대표적으로 촬영감독 협회와 사단법인 촬영감독 협회가 있어요.”</i></p>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조수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li>• 동료들은 조명조수협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편임.(30% 정도 가입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들은 조명감독협회에 70%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음.</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효과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효과 관련해서 협회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li> </ul>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에 그림 파트가 있다고 알고 있으며, 10명 중 2~3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음.</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의 경우 주로 영화산업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화산업노조와 미술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의상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 분장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 소품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표 4-2-45> 가입 협·단체 (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영화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들은 영화산업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인은 영화산업노조와 미술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음.</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상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상, 분장은 협·단체 자체가 없음.</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장 파트는 협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가입된 곳이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된 협·단체는 없으며, 대신 카페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정보도, 구인구직도 공유함. 분장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카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님.</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어본 적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은 전체 80~90%가 한국영화녹음 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 음향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 음악의 경우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함.

<표 4-2-46> 가입 협·단체 (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동시녹음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국영화녹음 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수들까지 가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전체 80~90%가 다 가입되어 있음.</li> </ul> <p><i>“한국영화녹음 감독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i></p>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히 가입된 협·단체는 없지만, 한참 위의 선배님들은 ‘영화 음향인 협회’ 라고 모임을 갖는 것 같음. (이름이 정확치는 않다/친목 모임인지 공식적인 협회인지도 잘 모르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스태프들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대부분의 음악 스태프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함.</li> </ul>

⑤ 편집 분야

- 편집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 Visual Effects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 DI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표 4-2-47> 가입 협·단체 (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 편집기사 협회는 없다고 알고 있음.	• 편집과 관련된 단체는 없다고 알고 있음.
	Visual Effects	• 들어 본 적이 없음.	• VE 관련 협회는 없다고 알고 있음.
	DI	• 관련 단체는 없다고 알고 있음.	• DI에 대한 단체 자체가 없음.

⑥ 기타 분야

- 보조 연기자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음.

<표 4-2-48> 가입 협·단체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 연기자	• 보조출연 업체 등록이나 가입 정도일 뿐, 협·단체는 없음.	• 관련 협·단체 없음.



5)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① 기획 분야

- 기획/제작은 스태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정책적 보장, 지역의료 보험으로 전환되는 공백 기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연출의 경우 공백 기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홍보 마케팅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무시간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 신설,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구성작가는 현 실정에 맞는 제작비 지급, 제작사 없이 작가들이 공모전에 기획안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2-49>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획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획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이 결정될 때까지 지역의료 보험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li> <li>• 좀 더 전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태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정책적으로 보장되었으면 좋겠음.</li> </ul>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과 작품 사이의 공백 기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무시간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li> </ul>
	구성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 없이 작가들이 공모전에 기획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실정에 맞도록 제작비가 지급됐으면 좋겠음.</li> </ul>

② 촬영 분야

- 촬영의 경우 실험영화 등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조명의 경우 임금과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제도 마련, 형식적인 표준근로계약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특수효과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의 안정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그림의 경우 제작비 큰 영화들의 스크린 독점 상영 방지에 관한 제도적인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2-50>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촬영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촬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산업적으로 실험적인 영화와 같은 다양한 영화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인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과 근로 시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함.</li> </ul>
	특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에서부터 표준근로계약으로 제작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는 제작사의 촬영일정에 맞춰 촬영대기, 장소이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근로계약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함.</li> </ul>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비가 큰 영화들이 스크린을 독점하여 상영되는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함.</li> </ul>

③ 미술 분야

- 미술의 경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시 및 관리감독 하는 인력 파견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의상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참여한 저예산영화 작품도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받는 제도 확충, 다음 작품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분장의 경우 모든 영화가 표준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소품의 경우 영화 자체가 전부 표준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2-51>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미술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미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장 감시 및 관리감독 인력이 정책적으로 파견이 돼서 현장을 관리하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처럼 팀 닥터, 안전관리요원 등 장기적으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음.</li> </ul>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참여한 저예산영화 작품도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그 기간들도 합산이 됐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작품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음.</li> </ul>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가 보다 활성화되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으로 규제해서라도 모든 영화가 표준계약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으면 좋겠음.</li> </ul>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자체가 전부 표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세부사항들도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④ 음향 분야

- 동시녹음의 경우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음향의 경우 노동시간 대비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는 제도 및 지원 시스템, 작업 환경이 보다 열악한 사운드/CG/편집 쪽의 후반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음악의 경우 4대 보험가입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2-52>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음향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음향	동시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분야에 대한 복지가 개선됐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영화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었으면 좋겠음.</li> <li>•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li> </ul>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스텝들보다 작업 환경이 열악한 사운드, CG, 편집 쪽의 후반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함.</li> <li>• 노동시간 대비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는 제도와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름이 디지털로 바뀌고 작업이 더 많아졌다.</li> <li>• 작업이 디지털화 되어 간소화되다 보니 편집이 자주 바뀌고 이에 따라 사운드 수정 요청도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고달픔. 사운드 수정할 때마다 돈을 더 지불하거나, 수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계약이 필요함.</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음악 스태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일반화 되어 일반 직장인들처럼 은행에서 대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li> </ul>

⑤ 편집 분야

- 편집의 경우 표준계약서 관련, 작품 활동 사이 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최소 생계비 지원제도 확충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Visual Effects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DI의 경우 노동자 사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 확충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2-53>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편집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편집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 외에 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까 싶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집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 경력이 짧거나 인맥이 없어서 일과 일 사이에 작품의 공백기에 오는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 생계비용이라든지 비슷한 쪽으로의 혜택과 지원제도가 있다면 좋겠음.</li> </ul>
	Visual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대응에는 개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음.</li> </ul>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생활이 보장되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 외 카톡 금지, 근무시간 중 휴식 시간 보장, 연월차 보장 및 보상 등의 정책적 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면 좋겠음.</li> </ul>

⑥ 기타 분야

- 보조연기자의 경우 업체로부터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4-2-54>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기타 분야)

분야	직군	경력별	
		팀원급	팀장급
기타	보조연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연이 될 수 없는 보조출연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업체에서 사기 안 치고 급여라도 잘 줬으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출연은 전문분야도 아니고 일회성이 강한 직업으로 이를 보완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면 좋겠음.</li> </ul>

[부록2]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FGI 결과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종사자 FGI 결과

1. FGI 개요

1) 조사 목적

- 종사자 정량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정부 정책 지원 사항 발굴

2) 조사 분야

- 연기 / 무용(방송 댄서) / 가창·연주 / 낭독·성우 / 제작 스태프

3) 진행 일시 및 인원

- 총 19명

날짜	시간	
	14:00~15:30	16:30~18:00
11/7/화		연기- 4명
11/8/수	무용(방송댄서) - 4명	가창/연주- 4명
11/9/목		낭독/성우- 3명
11/10/금		스태프- 4명

2. FGI 결과

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1)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의

• 대중문화예술인

- 연기자 : 무술연기자(스턴트맨)는 스태프로 분류 필요 / 장르를 굳이 나누는 것은 무의미/ 보조연기자 포함
- DJ : DJ직업만을 보유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공연 DJ가 포함되어야 함 / 메인과 게스트간의 gap이 큼
- 추가 : Creator / BJ 등

“보조연기자는 스태프는 아닌 것 같아요” “업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스태프로 분류되어 있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연기만 하는 사람이 없고, 뮤지컬이나 DJ도 많이들 하고 있고... 딱히 구분하기도 어렵네요”  
 “DJ는 전문 DJ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수나 코메디하다가 DJ 하는거니깐요. 예전이나 있었죠 지금은 없죠”

• 대중문화예술 제작물 스태프

- 작업 순서에 의해 Pre production/ production / Post production으로 구분하는 것도 적합

- 현재의 직업 분류도 어느 정도 이해 (영화 part의 스태프만 추가하면 될 듯)
- 기획/제작 : 로케이션 매니저(섭외) 추가
- 연출 : 스토리보드 작가 추가
- 홍보 마케팅 : 스틸작가(현장사진) , 포스터 사진 작가 추가
- 미술 : 세트팀 추가
- 구성작가 : 번역작가 추가(성우들은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스태프들은 추가 필요성을 못 느낌)

“영화랑 영상이랑 공연 분야별로 구분하면 몇 가지를 추가하긴 해야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네요”

## (2)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 대중문화예술인

- 전반적인 표본 수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전체의 1/4 수준)

“DJ는 프로그램 당 3-4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체 방송국을 따지만 한 200명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메인 DJ는 대부분 가수나 개그맨을 겸업하고 있고, 게스트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분류하긴 어려워요”

“성우는 전체 800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200명 내외예요. 40명이면 1/5 수준이네요”

“방송댄서는 언더를 빼고는 200명 정도 되는거 같아요. 53명이면 1/4수준이에요”

- 대중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는 ‘대부분 오디션’ / DJ는 ‘CP나 PD의 선택’

“요즘은 길거리 캐스팅 이런건 전혀 없죠”, “공채는 개그맨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넓게 보면 이것도 오디션이죠”

“학연/지연 통해서 입문은 하더라도 결국엔 오디션 보고 합격하는 것이니깐요” “아는 언니 통해서 가긴 했어도 결국 오디션..”

“DJ는 CP나 PD의 선택이죠. 오디션이나 뭐 이런건 전혀 없고... 개 유명하니까 좀 섭외해라 이러면 섭외되는 구조죠”

- 해당 활동 분야 경력은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려움(경력 < 인기)

“활동한지 1년도 안된 애가 빵 뜨면 연기자이고 이러니까... 인기랑 연관되기 때문에 평균 경력을 가늠하긴 어려워요”

“평균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6~10년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네요”

- 연 평균 공백 기간은 기준이 애매 / 인기에 따라 case by case

“전 개그맨이긴 한데 결혼식 행사 뛰는 것도 공백기로 봐야 하는 건가요? 개그 활동을 통해 돈을 벌진 않으니까 애매하네요”

“라디오 DJ는 라디오가 쉬는 법이 없으니까 공백기가 없죠. 라디오 안 하면, 행사하면 되고요”

“성우는 공백기 계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1개 녹음하는 데 1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댄서는 연습을 5일하고 1일 공연하는 데 공백기라고 봐야 하나요? 연습하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거기다 행사 많은 달에는 바짝 땀기 다음에 행사 없을 땐 놓고 그러니깐... 계산하기 정말 애매하네요”

-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외 다른 직업 보유 역시 직업군에 따라 각기 다름  
(모두 '일반 사무직'은 무리라고 판단)

"개그맨이나 연기자는 대부분 다른 직업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연기하시는 분들은 학원강사나 레슨 많이 하시죠"  
 "방송댄서는 다른 직업 절대 못 가져요. 연습할 시간 없어요"  
 "일반 사무직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하는건... 그냥 취미로 하는거 아닌가요? 부업 개념인거죠"  
 "오디션보고 쉬는 타임엔 편의점 알바도 하고 파트타임을 많이 하지만...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그것도 못해요"  
 "DJ는 교육관련직도 다 불법이에요. 학원이라고 쓰여있긴 하지만, 무허가죠"

- 월 평균 개인 소득은 조사 대상/시즌/인기에 따라 case by case (활동 경력과는 비례하지 않음)
-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소득 역시 조사 대상/시즌/인기에 따라 case by case  
→ 성우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회가 적기 때문에 활동 경력에 따라 나누는 것이 적합

"코미디언 월 500은 양세형한테 조사 하신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벌어요" "이 평균 금액은 정말 말도 안되네요"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벌 때도 있지만, 평균은 아닌 것 같아요"  
 "방송 댄서는 월 평균 200~ 25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방송은 7만5천원, 행사는 14만원 정도예요. 연차랑 크게 상관없고요"  
 "DJ는 200 이하예요. 1회당 6~10만원입니다" "가수는 한 달에 100만원 못 벌어요. 나중에 잘될 것 생각해서 버티는 거죠"  
 "그냥 연예인은 인기 많으면 많이 버는 거예요. 오래 활동했다고 많이 주는 건 없죠"  
 "성우는 연차가 올라가면 오히려 기회가 적어져요. 10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터울에 따라 평균 내는게 나올 것 같아요"

-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는 모두 이해

"보수도 적고 활동을 많이 못해도 하고 싶은거 하는 거니깐... 만족도는 높은 편인거죠" "개인역량도 마찬가지로"  
 "성우는 보수가 일하는 시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라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방송댄서는 진짜 본인이 춤추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환경이나 보수는 말할 것도 없죠. 매번 대기시간이고 보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오른 금액이에요"

- 대중문화예술활동 성공 조건은 "운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노력과 자질, 연고와 인간관계"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고 해도 빛을 못보고 기회가 없으면 성공 못해요. 운이나 기회가 따라야 하죠"

- 대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대부분 긍정적

"세션이라고 하면 다들 돈 못버는 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먹고 살래?' 이런 분위기니깐 좋진 않죠"  
 "가수라고 하면 오~~ 이러긴 하는데 얼마 버는지 알면 생각이 바뀌겠죠" "성우는 특이한 직업이니깐 긍정적으로 보죠"  
 "방송댄서라고 하면 다들 어렸을 때 공부 안 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날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좀 바뀐거 같아요"



• 표준계약서 사용은 거의 하지 않음

“방송댄서는 거의 계약서 안쓰는데... 콘서트 같은 경우엔 쓰긴 해요” “오늘 전화해서 내일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DJ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라디오 PD들은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데 그럼 매번 쓰게요?”  
 “연주는 저희 대표님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개개인별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거 같아요”

• 표준계약서 포함 내용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보호 및 정신건강 지원’ part는 거의 못 봄 → 보수 지급 날짜/금액이 명확하게 포함되길 희망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수익을 분배하지는 않고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오히려 이런 내용은 있는 데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 얼마를 정확하게 주겠다 이런건 없는 편이죠”  
 “언제 입금될 지 모르니까... 대부분 익월 말에 입금되는 것 같아요”

• 계약기간은 대부분 건별 계약 / 아이돌은 7년 이상 (5년 가계약을 많이 활용하는 편)

“계약하더라도 일하는 기간 동안만 계약하니까 몇 개월?” “가수는 아이돌은 평균 7년 정도 계약하죠”  
 “DJ는 ‘6년 계약 이상’ 이런 건 진짜 DJ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가수랑 겸업을 한다던가 이런거 아닐까요? DJ는 그냥 찢리는 거지 계약하고 이런거 없습니다. PD바뀌면 찢리고 그러는거죠”

• 4대 보험 가입 현황 : 대부분 피부양자 등록 / 지역가입자는 독립한 경우에만 일부  
 → 일부 1금융권 이용자는 4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나, 대부분 4대보험 가입 자체에 대한 needs 부족

“세션에서 저는 특이 케이스인데, 1년 4대 보험 납부를 해주셨었어요. 단체 소속이라 대표님이요”  
 “대부분 부모님 아래 있는거죠. 4대 보험 따로 안내니까 대출도 어려워요” “4대 보험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드는데”  
 “4대 보험 내면 실업급여 받고 그러는건 좋겠지만,, 내가 받는 돈에서 결국 얼마씩 떼 가는거 아니에요? 그럼 별로인데”

• 최근 3년 내 법적 분쟁은 대부분 없는 것이 맞음 (법적으로 무지하고 미수령 문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 많음)

“돈 못 받는 문제가 가장 많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 어디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협회에서도 방법만 알려줘요”  
 “계약서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몰라서 그냥 대부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꺼예요 아마”

• 개선 희망사항은 “방송활동 기회 확보”가 시급 / 임금 미지급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 희망

“결국엔 내가 방송나가고 기회가 있으면 임금도 오르는 거니깐요...” “정부 차원에서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도와주는거예요”  
 “임금 안주고 떼먹은 인간이 나중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또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체를 못 차리게 한다거나 뭔가 제재를 해야 하죠.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3)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2 - 대중문화예술 제작물 스태프

- 평균 2년에 3개 정도 참여 (조명/촬영 등) / 편집이나 DI의 경우, 수십 개도 가능
  - 평균 참여 개수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본인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연출은 2년에 3개하는 건 말이 안되고 촬영이나 조명은 가능하죠”  
“편집은 후 작업이니까 몇 개씩 해도 되죠 뭐. 동시에 여러 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 한달 평균 근로 일수는 15-20일 정도
- 대부분 다른 직업을 보유하지 않음(일부 맨 하단 직원들은 주로 파트타임)

“헤드급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직업은 눈 돌리진 않는 거죠. 다른거에 눈 돌리면 헤드급 안 되요”  
“아래 스태프들은 일 없고 다른 작품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파트타임 업무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 월 평균 개인 소득은 조사 대상에 따라 case by case 에 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평균 필요

“저희 같은 헤드급은 월 평균 400 이상은 되는 편이죠” “조연출 이런 애들도 1년에 작품 몇 개씩 하면 우리보다 더 벌어요”  
“맨 아래 스태프는 훨씬 적게 벌겠죠”

- 대부분 서면 계약 80% 수준 (방송은 헤드급이 턴 키 계약하고 아래 직원들은 헤드급과 계약하는 형태)

“영화쪽은 모든 스태프가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고, 아직도 방송쪽은 턴 키로 계약 많이 하죠”  
“제가 제작사나 방송사랑 총 금액 계약한 다음에 아래 애들한테 얼마씩 주겠다고 구두 계약하는 거예요”  
“영화쪽은 그래도 많이 자리 잡혀서 거의 다 계약서 쓰고 일한다고 보시면 되요”

- 계약서 유형은 표준계약서 바탕의 일부 조항이 변형된 계약서 사용 (노동시간에 대한 변형)

“주로 표준 근로시간보다 많이 써있죠” “대부분 야근수당 이런건 없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 계약서를 쓴다면, 임금 지급방식/임금액/고용 기간을 명시

“4대 보험 이런건 헤드급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상해 보험은 대부분 들어줘요”  
“보너스나 추가 수당 이런건 본적도 없고요. 휴가도 당연히 계약 기간 내에는 없죠”

- 주로 제작사/방송국과 계약 / 개인별로 작품마다 계약을 시행
- 계약 기간 내 월급 형태로 지급 (일부 선금 / 잔금 구조로 계약하는 경우도 존재)
- 계약금의 세부 항목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총 금액으로 계산 (기본급+a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 연 평균으로 보면, 임금은 낮은 편이지만, 투입시간 대비 임금은 높은 편

“연 평균으로 따지면 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겠지만... 6개월 일하고 그만큼 받으면 높은 거 같은데요”  
“일할 때는 근로 시간이 워낙 높으니까 임금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상해사고 및 질병 조치는 대부분 이루어짐

“가장 싼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는건지, 제작사에서 내는 건지는 몰라요”  
 “보험 가입보다 드라마 세트장에서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임금 체불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나, 임금이 체불되면 무작정 대기

“계약서 써도 조치 방법을 모르니까 대부분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리는거죠” “마지막 달 임금은 거의 떼먹는 경우도 있어요”

- 직업 전반의 만족도는 업무 내용이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필요
-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에의 참여가 가장 중요
- 직업 변경 의향은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필요 (불규칙한 수입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 제작스태프 업무 분야 개선 희망 사항은 현실적인 근로시간/휴게시간 확보 시급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임금 낮다는 소리도 안나올 꺼예요” “근로시간 개선이 90%정도 된다고 봅니다”  
 “스탠바이 기준으로 14시간 근무/ 10시간 휴식 시간 확보가 업계에서 가능한 시간일 것 같아요”

(4) 이슈 : 아이돌 문화(오디션 프로그램)

- 분야별로 다르게 인식
  - 방송 댄서 : 부정적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짐 / 방송댄서가 설 수 있는 기회 부족)
  - 개그맨/가수/세션/연기자/성우/DJ :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인식 /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생각

“그냥 하나의 현상인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덩달아 인기도 많아지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5) 정부 지원 사항

• 협회 설립 필요 → 복지제도 마련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가 설립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부 유명한 단장이나 대표들만 모여서 하면 의미가 없겠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죠”  
 “성우 협회는 지금도 있긴 한데 그 역할이 굉장히 적습니다. 역할이 큰,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였으면 해요”  
 “공극적으로는 협회 통해서 기회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지원 같은 복지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면 더 좋고요”

- 대중문화예술인정보 은행(DB) 필요 →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 프로필 등 경력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은행 설립 필요.

• 표준계약서 사용 법적 정립

“정부에서 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한다고 하면, 돈 떼먹는 일이 좀 줄어들겠죠”  
“계약서 쓰는 게 좀 귀찮아도 계속 써야 우리도 나중에 증빙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 표준계약서 내 4대 보험 /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 추가 근무 수당 포함 희망

→ 기본 근로시간 + 초과시간 발생 시 일정 금액 지급 형태

“방송 댄서들은 대기시간이나 연습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진 않아요. 연습 하는건 당연한 거라 쳐도 대기시간까지 비용을 주는 형식으로 바꿔버리면 슈팅할 때 오라고 하겠죠. 지금처럼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지 않을 꺼예요”

• 참여 기회(일 자체)를 만들어주길 희망

“정말이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생계비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다 좋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노인복지관가서 DJ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 임금 체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암행어사 제도 도입 제안)

“임금 체불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제때 안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인간들을 좀 정신차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쁜짓 하는거 신고하고 포상금 준다고 하면 다들 익명성만 보장되면 싹 할꺼예요”

• 근로 환경 개선

“방송 댄서들은 정말이지 대기시간에 대기할 데가 없어서 카페 가 있고, 돛자리 깔고 복도에 앉아있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죠. 가수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요”

• 공연장 무료 대관 / 연습실 무료 대관 → 시설관리 필요

“대관료 지원 사업 같은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타는 사람만 타거든요. 근데 그 대관료도 다른 일반 기업이랑 똑 같은 금액으로 경쟁하고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죠”  
“연습할만한 곳 자체가 없어요. 무작정 빌려주는 것뿐 만이 아니라 좋은 시설에 관리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죠”

[부록3]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총 4종)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조사표

안 내 문

※ 본 조사표는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사목적과 근거

이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에 대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

공연물, 방송영상물, 영화·비디오물,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

- ①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순수 공연물 제외,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포함)
- ②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다큐 분야 영상물 제외)
- ③ 영화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④ 음악산업법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⑤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화보, 출판물 광고 등)

■ 조사 대상 범위

- 종사자: ① 대중문화예술인, ②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사업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

■ 조사 기준 시점

- 2016년 12월 31일 기준

- 연구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이현우 책임연구원)
- 설문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실사팀(주현지 과장 02-3429-1737)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연구팀(이은숙 팀장 02-3406-3857/ 남금호 과장 02-3406-3938)

기본 정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의

- 법률적 정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만을 한다고 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 등록을 해야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된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 아래부터 진행하시는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기준 시점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1. 사업 분야 및 인력 현황

사업체 형태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3) 회사 외 법인 4) 기타( )	상장여부	1) 상장(코스닥) 했음 2) 상장 안했음
사업 분야	1) 매니지먼트 : 1-1. 연기자 1-2. 가수 1-3. 코미디언 1-4. 모델 1-5. 기타( ) 2) 제작 : 2-1. 드라마 2-2. 영화 2-3. 음반 2-4. 디지털 음원 2-5. 기타( ) 3) 아카데미 4) MD 비즈니스 5) 모델 에이전시 6) 기타 ( ) ↳ 이 중 주요 사업 분야 선택(1개) : 1) 2) 3) 4) 5) 6)		
*소속 직원 수	전체 ( )명 1) 정규직 ( )명 2) 비정규직 ( )명 3) 기타 ( )명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 (배우, 가수 등)	( )명
자본금*	( ) 백만원	매출액*	( ) 백만원
해외지사(법인) 현황	1) 있음 2) 없음		
해당 국가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 중국 2) 일본 3) 동남아 4) 북미 5) 유럽 6) 기타( ) ↳ 주요 국가 3개 택(3개) : 1) 2) 3) 4) 5) 6)		

※MD비즈니스: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티셔츠, 컵, 필기구 등).

※소속직원 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소속(해외 제외)되어 있는 인원수로 응답할 것.

※정규직: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비정규직: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대중문화예술인: 사회적 통칭으로 '연예인'이라 불리는 직종의 사람들.

※해외지사(법인)가 있는 소속사의 해당 국가명은 2016년 해외지사(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주요 국가 3개를 응답할 것.

※자본금 및 매출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세부 인력 현황

2. 대중문화예술인(소속 연습생 제외)

2-1. 귀사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사용하고 있음 (☞문2-4로 이동)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문2-2로 이동)
- 3) 구두 계약 (☞문2-3으로 이동)
- 4)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문2-3으로 이동)

2-2. 아래의 내용 중 귀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8)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 응답 후 문2-4로 이동)

2-3. 귀사에서는 향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3) 기타 ( )

2-4.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세부 인력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주된 분야	인원수	성별		연령(만)				
		남	여	만 19세 미만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1) 연기자(영화, 드라마)								
2) 가수(보컬, 댄스)								
3) 코미디언								
4) 모델								
5) 기타1 ( )								
6) 기타2 ( )								
7) 기타3 ( )								
<b>전체</b>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소속 연예인의 분야 구분 시, **중복인 경우(연기자면서 가수)** 좀 더 활동 비중이 높은 **주된 분야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VJ, DJ, MC, 뮤지컬배우(복합예능) 등은 '기타란'에 기재 후 응답할 것.

※성별, 연령별 인원 수 합은 전체 인원 수의 합과 일치해야 함.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2-5. 귀사 대중문화예술인의 **가장 주된 구인경로**는 무엇입니까?

- 1) 자체 오디션
- 2) 길거리 캐스팅
- 3) 주변 소개
- 4) 외부 오디션 입상자
- 5) 기타 ( )

2-6.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신규 또는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최소/최대/평균/최빈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구분	계약기간
1) 최소 계약기간	( ) 년 ( ) 개월
2) 최대 계약기간	( ) 년 ( ) 개월
3) 평균 계약기간	( ) 년 ( ) 개월
4) 최빈 계약기간*	( ) 년 ( ) 개월

※2015년~2016년 내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계약**을 기준으로 응답할 것.

※최빈 계약기간은 귀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기간**을 말함.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아래 [문2-7]~[문2-19]는 **[문2-4]의 만 19세 미만 소속연예인이 1명 이상 있는 업체만** 응답할 것

2-7.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 소속연예인**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주된 분야	만 19세 미만 인원수 (2~4응답값)	성별		연령(만)		
		남	여	만 13세 미만	만 13~15세	만 16~18세
1) 연기자(영화, 드라마)						
2) 가수(보컬, 댄스)						
3) 코미디언						
4) 모델						
5) 기타1 ( )						
6) 기타2 ( )						
7) 기타3 ( )						
<b>전체</b>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성별, 연령별 인원 수 합은 전체 인원 수의 합과 일치해야 함.

2-8. **(문2-4의 만 19세 미만 예술인 1명 이상 업체만 응답)** 귀사에서는 청소년 연예인(만 19세 미만)에 대한 **별도의 계약조항 또는 지침, 생활수칙** 등이 있습니까?

- 1) 별도 계약 조항 있음 (☞문2-9로 이동)
- 2) 별도 계약 조항은 없지만 생활수칙은 있음 (☞문2-9로 이동)
- 3) 별도 계약 조항, 생활수칙 모두 없음 (☞문2-10으로 이동)

※청소년 연예인들에 한하여 연예기획사 측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계약 조항 또는 계약 조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 수칙이나 지시 사항 등을 의미함.(예, 연애금지,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2-9. (문2-8의 1,2번 업체만 응답) 청소년 연예인에 대해 **별도로 추가되는 계약조항 또는 지침, 생활수칙** 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이성교제 금지                    | 2)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
| 3) 휴대전화 사용 금지                 | 4) 식단 관리                    |
| 5)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 6) 학습권에 대한 보장               |
| 7) 출연료 지급 관련 사항               | 8) 일일 최대 촬영시간(야간활동 동의 여부)   |
| 9) 출연하는 프로그램 연장 시 동의 여부       | 10) 촬영으로 인한 장기 결석 시 사전 동의여부 |
| 11) 기타( )                     |                             |

2-10.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수익의 지급방식**은 무엇입니까?

- 1) 청소년 연예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2) 청소년 연예인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송금
- 3) 청소년 연예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 4) 청소년 연예인 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 5) 아직 수익 분배의 경험이 없음
- 6) 기타 ( )

2-11.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계약기간	
1) 15세 미만	( ) 년 ( ) 개월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2) 15세 이상	( ) 년 ( ) 개월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2-12.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연예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청소년 연예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하루 평균 연예 활동 시간 (활동이 많을 시기 기준)	
1) 15세 미만	평균 ( ) 시간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2) 15세 이상	평균 ( ) 시간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구분	일주일 평균 연예 활동 시간 (활동이 많을 시기 기준)	
1) 15세 미만	평균 ( ) 시간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2) 15세 이상	평균 ( ) 시간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 중 **1)활동량이 가장 많은 청소년 연예인, 2)활동이 많을 시기(영화/드라마 촬영 혹은 음반활동 등)**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예 활동 시간'은 **촬영장에 도착해서 촬영을 준비하는 시간(분장시간 등)부터 실제 촬영이 끝나는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단, 촬영장까지의 이동시간은 제외합니다.**

2-13. 만약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이 야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 연예활동(촬영 등)을 할 경우, **제작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 1) 그 때 그 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
- 2)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 3)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 4) 아직 야간 촬영 경험이 없다
- 5) 기타 ( )

2-14. 만약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이 야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 연예활동(촬영 등)을 할 경우, **제작사 측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1) 매니저(기획사 관계자 포함)에게 동의를 구한다
- 2) 청소년 연예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 3) 청소년 연예인의 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 4) 기타( )

2-15.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학교 재학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학 여부	인원 수	
1) 학교 재학 중임	초등학교 ( )명	
	중고등학교	일반계 ( )명
		예술계 ( )명
2) 학교 재학 중이지 않음	( )명	

2-16. **(문2-15의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인원이 10이상인 업체만 응답)** 귀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당사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 2) 검정고시 준비 중임   |
| 3) 연예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 4) 진학(복학) 준비 중임 |
| 5) 학비가 너무 비싸서(예, 외국인 학교 등) | 6) 기타 ( )       |

(☞ 학교 재학 중인 인원 0명인 경우, 응답 후 문3-1로 이동)

2-17. **(문2-15의 학교 재학 중인 인원이 10이상인 업체만 응답)** 귀사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은 청소년 연예인이 주 활동 시기(영화/드라마 촬영 혹은 음반 활동)에 등교하는 횟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매일 등교                | 2) 일주일에 2~3회 |
| 3) 일주일에 1회              | 4) 한 달에 1~2회 |
| 5) 주 활동 시기에는 거의 등교하지 못함 | 6) 기타( )     |

※귀 사에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청소년 연예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 **(문2-15의 학교 재학 중인 인원이 10이상인 업체만 응답)** 귀사에서는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의 **등교 여부 및 등교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                 |                          |
|-----------------|--------------------------|
| 1) 등교여부만 확인한다   | 2) 등교여부 및 등하교시간을 모두 확인한다 |
| 3)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 | 4) 기타( )                 |

2-19. **(문2-15의 학교 재학 중인 인원이 10이상인 업체만 응답)** 귀 사에서는 소속된 청소년 연예인이 **등하교 시 매니저가 함께 동행** 합니까?

- 1) 항상 동행한다
- 2) 스케줄이 있을 때만 같이 동행하고 없을 때는 동행하지 않는다
- 3)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
- 4) 기타( )

3. 소속 연습생

3-1. 귀사에는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소속 연습생**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4-1로 이동)

※소속 연습생: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위해 특정 기획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 데뷔는 하지 않은 상태**.

3-2.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습생의 **세부 인력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주력 분야	인원수	성별		연령(만)				
		남	여	만 9세 이하	만 10 ~12세	만 13 ~15세	만 16 ~18세	만 19세 이상
1) 연기자								
2) 가수								
3) 모델								
4) 기타( )								
<b>전체</b>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 파트는 제외하고 **국내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된 **아카데미에 소속된 연습생은 제외할 것**.

※소속 연습생의 분야 구분 시, **중복인 경우(연기자 및 가수 준비), 주력 분야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성별, 연령별 인원 수 합은 전체 인원수의 합과 일치해야 함.

3-3. 귀사에서 데뷔 준비 기간 중에 **연습생에 대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기(발성 포함)

2) 신체 훈련

3) 시나리오 분석

4) 가창

5) 춤

6) 워킹

7) 화술

8) 어학

9) 교양(시사상식)

10) 인성교육

11) 기타 ( )

3-4. 귀사의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직접 교육

2) 위탁 교육

3) 병행(직접+위탁 교육)

4) 기타 ( )

※직접 교육: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혹은 강사 등에 의해 교육을 진행(**기획사 소속'아카데미'도 해당**).

※위탁 교육: 기획사에서 별도의 아카데미에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맡기는 경우를 말함.

3-5. 귀사의 연습생 교육은 **일주일에 몇 번** 진행됩니까?

1) 주 1회 ~ 2회

2) 주 3회 ~ 4회

3) 주 5회 이상

4) 기타 ( )

3-6. 귀사의 연습생 교육은 **하루에 몇 시간** 진행됩니까?

1) 1시간 ~ 2시간

2) 2시간 ~ 3시간

3) 3시간 ~ 4시간

4) 4시간 이상

5) 기타 (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3-7. **2016년 기준** 귀사에서 소속 연습생에게 **지출하는 월 평균 총 비용 및 이 중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월 평균 1인 당 지출 비용	월 평균 1인당 교육비
( ) 만원	( ) 만원

※소속연습생 관련 지출비용은 **소속직원(트레이너 등)의 임금을 제외한**, 식비, 숙소비, 교육비 등의 **직접비를 의미함**.

※월평균 1인당 교육비는 전체 지출비용 중 배우, 가수 등이 연예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직접교육, 위탁교육 모두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 파트는 제외하고 **국내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3-8. 귀사에서는 소속 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1)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계약서는 실제 아티스트들과 맺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를 축소한 **모든 형태의 약정서/협약서 등을 포함함**.

3-9. **2016년 기준** 귀사에서 소속 연습생과 맺은 평균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	계약기간
평균 계약기간	( ) 년 ( ) 개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계약하지 않음)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도 **구두 상으로 언급한 기간도 포함**. 평균 계약기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평균 기간을 응답할 것.

3-10. 귀사 소속 연습생의 **데뷔까지 최소/최대/평균 준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데뷔 분야	최소 데뷔기간	최대 데뷔기간	평균 데뷔기간
1) 연기자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2) 가수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3) 모델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4) 기타 ( )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평균 ( )년 ( ) 개월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 파트는 제외하고 **국내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소속 연습생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점부터 데뷔까지의 기간**이 준비기간에 해당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획사에서 연습, 훈련 등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데뷔까지의 기간**이 준비기간에 해당함.

※소속 연습생이 가수를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연기자로 먼저 데뷔를 했다면, 연기자 데뷔 기간에 응답할 것.

※각 분야별 데뷔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함.(**데뷔 시점 확인 필요**)

- 연기자: 영화, 드라마 등의 공식적인 작품에 출연한 경우
- 가수: 앨범(음원/ 음반)이 발매되는 시점
- 모델: 패션쇼 혹은 광고 등을 통해 본인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3-11. 귀사의 소속 연습생 중 데뷔하는 연습생 비중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분	비중
데뷔하는 연습생 비중	( ) %
연습생 중 비자발적 포기 연습생 비중	( ) %

4. 소속직원

4-1. 귀사는 소속직원들에 대해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문4-3으로 이동)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문4-3으로 이동)
- 3) 구두 계약 (☞문4-2로 이동)
- 4)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문4-2로 이동)

4-2. 귀사에서는 향후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3) 기타 ( )

4-3.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직원 세부 인력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주된 업무	전체 인원수	성별		연령(만)				고용 형태	
		남	여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1) 매니저(매니저, 댄서, 코디 등)									
2) 기획(마케팅, 홍보, 광고 등)									
3) 제작(녹음, 영상, 디자인, MD 등)									
4) 트레이닝(교육, 신인개발 등)									
5) 경영관리(재무, 총무, 일반사무직 등)									
6) 기타( )									
<b>전체</b>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이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한 명의 직원이 **겸업(트레이닝과 홍보)하는 경우**, 좀 더 비중이 높은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각 분야별 업무 구분은 **회사의 입장에 맞춰 자유롭게 구분**하면 됨. 예를 들어 A&R을 회사에 따라 제작파트에 포함할 수도 있고, 기획파트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음.

※각 고용 형태 별(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수 합은 전체 인원수의 합과 일치해야 함.

※연예 기획사와 업무 구분이 차이가 있는 **모델 에이전시 등은 소속 직원을 일반사무직으로 구분**하면 됨.

4-4.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소속직원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수 또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한 직원 수로 응답해 주시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비율로 응답해 주십시오.

( )명 / ( )%

4-5. 귀사 소속직원의 **가장 주된 구인경로**는 무엇입니까?

- 1) 공채(구인사이트 포함)
- 2) 특채
- 3) 지인 추천
- 4) 기타 ( )

사업 현황

5. 활동 및 매출 규모

5-1. 2016년도 기준 귀사의 분야별 매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야	국내	해외	전체
	매출액(백만원)	매출액(백만원)	매출액(백만원)
1) 매니지먼트(출연료 등)			
2) 공연기획 및 제작(티켓판매 등)			
3) 연관 콘텐츠 제작(영화, 드라마, 음원/음반 판매 등)			
4) 파생상품 (MD비즈니스)			
5) 기타 ( )			
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매니지먼트: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을 통한 매출.

※공연기획 및 제작: 콘서트 등의 공연을 통한 매출.

※연관 콘텐츠 제작: 영화, 드라마, 디지털 음원, 음반, 광고 등의 제작을 통한 매출.

※파생상품(MD비즈니스):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한 매출(티셔츠, 컵, 필기구 등).

※기타: 앞서 언급한 항목 이외의 분야를 통한 매출(예, 모델 에이전시의 중개 수수료 등).

5-2. 2016년도 기준 귀사의 전체 매출액 중 1) 매니지먼트(출연료 등)와 3)연관 콘텐츠 제작(영화, 드라마, 음원/음원 판매 등)에 대한 분야별 매출 비중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분야별 매출 비중(%)
1) 매니지먼트(출연료 등)	100%
1-1) 드라마 출연	( )%
1-2) 영화 출연	( )%
1-3) 광고(방송, 지면 광고 포함) 출연	( )%
1-4) 공연(뮤지컬, 콘서트) 출연	( )%
1-5) 기타방송(MC, DJ, 예능 등) 출연	( )%
1-6) 행사활동	( )%
2) 공연기획 및 제작(티켓판매 등)	-
3) 연관 콘텐츠 제작(영화, 드라마, 음원/음반 판매 등)	100%
3-1) 드라마 제작	( )%
3-2) 영화 제작	( )%
3-3) 광고 제작	( )%
3-4) 음원/음반 제작	( )%
3-5) 기타 방송(예능 등) 제작	( )%
4) 파생상품 (MD비즈니스)	-
5) 기타 ( )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1-1)~1-6)의 합계 및 3-1)~3-5)의 합계는 100%가 나와야 함.

※분야별 매출 비중은 1)국내와 2)해외를 모두 합한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문5-1에서 1)매니지먼트나 3)연관 콘텐츠 제작 및 판매 수익이 1이상인 경우에만 응답할 것.



기타 사항

7.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

7-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우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회사(매니지먼트)의 역량(기획력) | 2) 연예인의 역량      |
| 3) 관련 분야 콘텐츠          | 4)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 |
| 5) 정부의 정책 지원          | 6) 기타 ( )       |

7-2.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투자재원의 부족  | 2)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        |
| 3) 사회적 이미지   | 4) 정부의 규제(청소년유해매체제도 등) |
| 5) 협소한 내수 시장 | 6) 기타 ( )              |

7-3.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부족   | 2)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
| 3)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경비 부담 | 4) 낮은 해외 인지도      |
| 5)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신   | 6)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흡  |
| 7) 물리적 시간 투자 부담      | 8) 기타 ( )         |

8. 정부의 지원 사항

8-1.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요청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정책자금 지원     | 2) 세금 감면            |
| 3) 관련 분야 기술 지원 |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5) 시장상황정보 지원   | 6) 법/제도 체계 정비       |
| 7) 법률상담 지원     | 8) 관련 분야의 행정 전문성 확보 |
| 9)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10) 기타 ( )          |

8-2. **해외 진출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지원 요청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1) 저작권 보호        |
| 2) 해외마케팅 지원      |
| 3) 해외시장 정보 제공    |
| 4) 해외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
| 5) 정부의 미개입       |
| 6) 기타 ( )        |



9. 기타

9-1.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귀사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소속연습생 포함)과의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문화부나 상사중재원 신고, 신고접수, 소장접수, 고소 등)는 몇 건 정도입니까?  
( )건

9-2. **(문9-1의 0건 업체 제외)** 귀사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소속연습생 포함)과의 **계약서 관련 대표적인 법적 분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예시: 연예인 A와 계약기간 상의 갈등으로 인해 문화부 신고, 연예인 B씨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인한 갈등 등

9-3.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3) 전혀 모른다

※성범죄경력조회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년)'에 따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운영자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미조회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9-4. 귀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관련 협회나 단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별첨. 사업체 및 작성자 정보>

※ 아래 내용은 앞서 응답해 주신 설문 내용 확인 시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업체명		대표자 명		
소재지	주 소	우편번호( )-( )		설립년도 ( )년
	홈페이지	http://		
작성자	성 명	소속 부서/팀	직 위	
	전 화	( ) -	E-mail	@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제작업) 조사표

### 안 내 문

※ 본 조사표는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조사목적과 근거

이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에 대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

공연물, 방송영상물, 영화·비디오물,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

- ①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순수 공연물 제외,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포함)
- ②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다큐 분야 영상물 제외)
- ③ 영화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④ 음악산업법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⑤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화보, 출판물 광고 등)

#### ■ 조사 대상 범위

- 종사자: ① 대중문화예술인, ②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사업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

#### ■ 조사 기준 시점

##### • 2016년 12월 31일 기준

- 연구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이현우 책임연구원)
- 설문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실사팀(주현지 과장 02-3429-1737)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연구팀(이은숙 팀장 02-3406-3857/ 남금호 과장 02-3406-3938)

기본 정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정의

- 법률적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 아래부터 진행하시는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기준 시점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1. 사업 분야 및 해외지사 현황

사업체 형태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3) 회사 외 법인 4) 기타( )	상장여부	1) 상장(코스닥) 했음 2) 상장 안했음
		벤처기업 지정여부	1) 벤처기업 2) 벤처기업 아님
사업 분야 (유형)	1) 영상물 제작 : 1-1. 방송 1-4. 광고 2) 음반/음원 제작사 3) 공연물 제작 : 3-1. 공연기획/제작사 4) 기타 제작 ( )	1-2. 영화 1-5. 뮤직비디오	1-3. 애니메이션 1-6. 기타( )
	↳ 이 중 주요 사업 분야 선택(1개) : ( )		
자본금*	( ) 백만원	매출액*	( ) 백만원
해외지사(법인) 현황	1) 있음    2) 없음		
해당 국가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 중국    2) 일본    3) 동남아    4) 북미    5) 유럽 6) 기타( )		
	↳ 주요 국가 3개 택(3개) : 1)    2)    3)    4)    5)    6)		

※사업 분야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지사(법인)가 있는 소속사의 해당 국가명은 **2016년 해외지사(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주요 국가 3개를 응답할 것.

※자본금 및 매출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세부 인력 현황

2. 전체 소속직원(프리랜서 제외)

2-1.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인력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구분	전체 인원수	성별		연령(만)			
		남	여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1) 정규직							
2) 비정규직(프리랜서 제외)							
<b>전체</b>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이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소속직원은 업체에 고용된 자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 응답에서 제외함**

※**정규직:**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비정규직:**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

2-2.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직무별 인력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주된 업무	전체 인원수	성별		연령(만)				고용 형태	
		남	여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1) 사업 기획									
2) 제작(연출, 촬영, 조명 등)									
3) 마케팅/홍보 (작품홍보 및 광고, 유통 등)									
4) 경영관리(재무, 총무, 일반사무직 등)									
5) 기타( )									
<b>전체</b>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외법인(지사)이 있는 경우, 해외는 제외하고 **국내를 기준으로만 응답할 것.**

※전체 인원수는 **문2-1과 동일**해야 함 .

※직무별로 업무가 중복될 경우,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각 분야별 업무 구분은 **회사의 입장에 맞춰 자유롭게** 구분하면 됨.

※**사업기획:**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인력.

※**제작:**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예,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마케팅/홍보:** 작품의 홍보 및 광고 등을 담당하는 인력

※**경영관리:** 회사의 재무,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소속직원은 업체에 고용된 자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 응답에서 제외함.

3. 프리랜서 현황

3-1. 귀사에 전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 시 제작 관련 업무에 함께 투입되는 **프리랜서의 분야별 세부 인력 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구분	전체 인원수	영상물 제작						음반/음악 제작	공연물 제작	기타 제작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뮤직 비디오	영상물 기타			
프리랜서										

※세부 인력현황은 **2016년 1월 1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입된 인원수를 응답할 것.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진행함.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과는 다른 개념임**.

※분야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주요 분야 기준**으로 응답할 것.

4. 구인경로 및 신규 직원 채용 시 평가 요소

4-1. 귀사는 소속직원들에 대해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문4-3으로 이동)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문4-3으로 이동)
- 3) 구두 계약 (☞문4-2로 이동)
- 4)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문4-2로 이동)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 포맷 계약서의 경우“일부 조항을 변경한 계약서”에 포함함.

4-2. 귀사에서는 향후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3) 기타 ( )

4-3. **2016년 기준**, 귀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소속직원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수 또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한 직원수로 응답해 주시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비율로 응답해 주십시오.

( )명 / ( )%

4-4. **(문3-1의 프리랜서 인원이 1명 이상인 업체)** **2016년 기준**, 귀사와 작품 제작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리랜서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수치로 응답해 주십시오.

( )%

4-5. 귀사 소속직원의 가장 **주된 구인경로**는 무엇입니까?

- 1) 공채(구인사이트 포함)
- 2) 특채(관련 분야 수상 경력 등)
- 3) 지인 추천
- 4) 기타( )

4-6. 귀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평가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해당분야 업무 경력                | 1순위(     ), 2순위(     ) |
| 2) 해당분야 전공여부                 | 2) 수상경력                |
| 3) 기타 (                    ) | 4) 채용 면접 시 태도          |

4-7. 귀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애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순위로 최대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신규 채용 인력 부족              | 1순위(     ), 2순위(     ) |
| 2) 저임금 회피                   | 2) 관련 분야 인력의 자질 부족     |
| 3) 인력 정보 부족                 | 4) 업무 특성 상 기피          |
| 4) 기타(                    ) | 6) 어려움 없음              |

**사업 현황**

**5. 매출 규모 및 제작 건수**

5-1. **2016년도 기준** 귀사의 국내외 **전체 매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야	국내	해외	전체
	매출액(백만원)	매출액(백만원)	매출액(백만원)
1) 영상물 제작			
2) 음반/음원 제작			
3) 공연물 제작			
4) 기타 제작물 (                    )			
5) 기타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등) (                    )			
<b>계</b>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제작 업체 중 소속 연예인이 있어 **매니지먼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5)기타 분야**에 응답할 것.

5-2. 2016년도 기준 귀사의 전체 매출액 중 1) 영상물 제작에 대한 분야별 매출 비중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분야별 매출 비중(%)
1) 영상물 제작	100%
1-1) 방송	( )%
1-2) 영화	( )%
1-3) 애니메이션	( )%
1-4) 광고	( )%
1-5) 뮤직비디오	( )%
1-6) 영상물 기타	(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1-1)~1-6)의 합계는 100%가 나와야 함.

※분야별 매출 비중은 1)국내와 2)해외를 모두 합한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문5-1에서 1)영상물 제작의 매출 규모가 1이상인 경우에만 응답할 것.

5-3. 2015년 대비 2016년에 귀사의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분	분야	증감현황
국내 외	1) 국내 매출 규모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2) 해외 매출 규모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분야	1) 영상물 제작	-
	1-1) 방송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1-2) 영화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1-3) 애니메이션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1-4) 광고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1-5) 뮤직비디오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1-6) 영상물 기타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2) 음반/음원 제작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3) 공연물 제작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4) 기타 제작물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5) 기타 사업 분야 (매니지먼트 등)	1) 증가 2) 감소 3) 변동없음 4) 해당없음

※문5-1의 해외 매출액 발생 업체의 경우, 2) 해외 활동 증감현황이 '해당없음'이 나오면 안 됨.

※문5-2의 각 분야별 매출 비중이 1(%) 이상인 경우, 증감현황이 '해당없음'이 나오면 안 됨.

※분야별 증감현황은 국내매출과 해외매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응답할 것.

5-4. 2016년도 기준 귀사의 **분야별 제작 완료 건수**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분야별 제작 완료 건수
1) 영상물 제작	( )건
1-1) 방송	( )건
1-2) 영화	( )건
1-3) 애니메이션	( )건
1-4) 광고	( )건
1-5) 뮤직비디오	( )건
1-6) 영상물 기타	( )건
2) 음반 제작(음원 제외, 유통 제외)	( )건
2-1) 정규 음반	( )건
2-2) 비정규 음반(싱글 음반)	( )건
3) 공연물 제작	( )건
4) 기타 제작	( )건
계	( )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할 것.

※2015년 기준으로 제작 완료된 작품에 대해 응답할 것. 제작기간이 길어 해당 년도에 진행 중인 작품은 제외함

※1-1)~1-6)의 합계는 '1) 영상물제작'의 건수와 같아야 함.

## 6. 해외 진출 현황

6-1. (문5-1의 해외 매출액 발생 업체 응답) 귀사에서 **진출해 있는 해외 주요 국가**는 어디입니까?

3개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중국      2) 일본      3) 동남아      4) 북미      5) 유럽      6) 기타( )

※해외에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진출한 것으로 여김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진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 해외지사(법인)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 단발성 행사를 진행한 경우
- 음원 판매 수익만 발생한 경우

6-2. (문5-1의 해외 매출액 발생 업체 응답) 귀사에서 해당 국가에 **최초 진출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해외 법인 활용  | 2) 해외 유통사/에이전트 활용 |
| 3) 관련 박람회 참가 | 4) 국내 에이전트 활용     |
| 5) 해외 음원 판매  | 6) 기타( )          |

6-3. 귀사가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해외 국가는 어디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중국      2) 일본      3) 동남아      4) 북미      5) 유럽      6) 기타( )

※문6-1에서 이미 진출해 있는 국가는 제외하고 응답할 것.



기타 사항

7. 청소년 연예인 및 관련 가입단체 현황

7-1. 귀사에서 작품 제작 시, 출연하는 연예인이 **“청소년 연예인”(19세 미만)인 경우, 야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 연예(작품 출연 등) 활동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 1) 그 때 그 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
- 2)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 3)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 4) 청소년 연예인과 작품 제작한 경험이 없다
- 5) 기타 ( )

7-1-1. 귀사에서 작품 제작 시 출연하는 **“청소년 연예인”(19세 미만)이 야간(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연예(작품 출연 등) 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할 경우, 누구에게 동의를 구합니까?** (중복선택 가능)

- 1) 매니저(기획사 관계자 포함)에게 동의를 구한다
- 2) 청소년 연예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 3) 청소년 연예인의 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 4) 기타 ( )

7-2.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 요건으로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력기준으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경력 기간을 단축에 대해 찬성한다
- 2)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 3) 경력 기간을 4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
- 4) 기타 ( )

7-3. 귀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관련협회 또는 단체**가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7-3-1. (가입된 협회/단체가 있는 경우)귀사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 또는 단체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가능)

<별첨. 사업체 및 작성자 정보>

※ 아래 내용은 앞서 응답해 주신 설문 내용 확인 시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업체명		대표자 명				
소재지	주 소	우편번호( )-( )			설립년도	( )년
	홈페이지	http://				
작성자	성 명	소속 부서/팀		직위		
	전 화	( ) -	E-mail		@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인) 조사표

### 안 내 문

※ 본 조사표는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조사목적과 근거

이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에 대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

공연물, 방송영상물, 영화비디오물,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

- ①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순수 공연물 제외,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포함)
- ②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다큐 분야 영상물 제외)
- ③ 영화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④ 음악산업법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⑤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화보, 출판물 광고 등)

#### ■ 조사 대상 범위

- 종사자: ① 대중문화예술인, ②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사업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

#### ■ 조사 기준 시점

##### • 2016년 12월 31일 기준

- 연구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이현우 책임연구원)
- 설문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실사팀(주현지 과장 02-3429-1737)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연구팀(이은숙 팀장 02-3406-3857/ 남금호 과장 02-3406-3938)

대중문화예술 활동 사항

※대중문화예술인 정의

· 법률적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장 제2조).

[해설서] 대중문화예술인 : 사회적 통칭으로 '연예인'이라 불리는 직종의 사람들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한 것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 현재 대중문화예술용역(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밖의 예능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야 함.(근로계약이 있거나 없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지속적\*으로 또는 직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지고 있으면 됨)

\***지속적**: 1회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대가의 여부에 따라 지속성 구분. 대가가 있는 경우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아마추어 공연팀이나 졸업 공연 참여자의 경우는 대가가 없으므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볼 수 없음.

1.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

1-1. 귀하께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활동 분야 (복수 응답)	연기	1. 연기자	2. 코미디언		
	무용(춤)	3. 댄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제외)			
	연주	4. 연주가			
	가창	5. 가수			
	낭독	6. DJ	7. 성우		
	기타	8. 모델	9. 뮤지컬 배우	10. 공연 예술가	11. 기타 방송인
↳ 이 중 주요 활동 분야 선택(1개만 번호 기재) : (                      )					
데뷔 분야 * 위 분야에서 번호 선택	(                      )		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경로	1) 자체 오디션 2) 길거리 캐스팅 3) 주변 소개 4) 외부 오디션 입상자 5) 기타 (                      )	

※**연기자**: 현장재연을 전문으로 하는 **재연배우** 및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무술연기를 하는 **무술연기자**는 포함하되, **보조연기자 (엑스트라, extra)**는 제외함.

※**댄서**: 순수예술 분야인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은 제외함.

※**연주가**: 다른 음악가들과 라이브 공연이나 녹음세션을 도와주는 **악기(세션) 연주자**, 단, **클래식 음악**은 제외함.

※**모델**: 전문 모델이 아닌 **연예인이 광고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연예술가**: 기타 대중문화예술 공연을 실연하는 자. **서커스, 난타, 퓨전국악** 등이 해당됨.

※**기타 방송인**: 특정한 분야 구분없이, 다양한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 단, 본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예, 최현석 등)의 경우, 즉 **본인이 하던 일을 바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함**.

1-2. 귀하의 해당 분야 **총 활동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총 (     )년 (     )개월

※총 활동 경력은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함.

1-3. 귀하께서 전체 활동 기간 중 수입활동이 없었던 공백기간은 1년 중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연평균 ( )개월

## 2. 대중문화예술 교육

2-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1) 고졸 이하         | 2) 전문대(2,3년제) 재학 |
| 3) 전문대(2,3년제) 졸업 | 4) 대학교(4년제) 재학   |
| 5) 대학교(4년제) 졸업   | 6) 대학원 재학 이상     |

2-2. 귀하께서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고등학교, 대학)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하셨습니까?

- 1) 예(☞문2-3으로 이동)  
2) 아니오(☞문2-4로 이동)

2-3. **(문2-2의 1번 응답자)** 학교(고등학교,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연기 분야 | 2) 무용/춤 분야  |
| 3) 연주 분야 | 4) 가창 분야    |
| 5) 모델 분야 | 6) 기타 분야( ) |

2-4. 귀하께서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대중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학원 교육 수강                  | 2) 개인 레슨 |
| 3)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수료           | 4) 해외 유학 |
| 5) 기타 ( )                    |          |
| 6)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다른 교육 수강한 적 없음 |          |

※**학원 교육 수강**: 대중문화예술관련 사설 학원, 아카데미를 모두 포함.

※**관련 협·단체 교육과정 수료**: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협회 또는 지원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료증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2-5. 귀하께서 수료한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예술계 고등학교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대학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3) 대학원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원 교육 수강	①	②	③	④	⑤	⑥
5) 개인 레슨	①	②	③	④	⑤	⑥
6) 관련 협·단체 교육 과정 수료	①	②	③	④	⑤	⑥
7) 해외 유학	①	②	③	④	⑤	⑥
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본인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에 응답할 것.

### 3. 전업예술인 여부

3-1. 귀하께서는 현재 활동 중인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아닌 단발성(원고 작성, 강연 등) 형태의 활동은 제외됨.

- 1)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문3-2로 이동)
- 2)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음(☞문4-1로 이동)

3-2. (문3-1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어떤 종류의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1) 자영업 (상점, 소규모 점포 운영)
- 2) 일반 사무직 (일반 중소기업의 피고용인)
- 3) 교육 관련직 (대학 강사, 학원 강사, 대학 교수 등)
- 4)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 5) 기타 ( )

### 4. 소득 현황

4-1. **2016년 기준**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150만원 미만 |
| 3) 150~200만원 미만 | 4) 200~250만원 미만 |
| 5) 250~300만원 미만 | 6) 300~350만원 미만 |
| 7) 350~400만원 미만 | 8) 400만원 이상     |

※**월 평균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함.

4-2. **2016년 기준** 귀하의 **월평균 개인 소득** 및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개인 소득	월 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 ) 만원	( ) 만원

※**월 평균 개인소득**은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한 **본인만의 소득**을 의미함.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 평균 개인 소득**은 본인의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

※**대중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과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을 동일하게 기재할 것.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4-3. 귀하의 **대중문화예술활동 분야** 관련 **본인 수입의 분야별 비중**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분야별 매출 비중(%)
1) 방송 출연료 (영화, 드라마, 광고, 기타 방송, 화보 촬영 등)	( )%
2) 공연 출연료 (뮤지컬, 콘서트 등)	( )%
3) 공연 및 행사 참여 (지역 행사, 클럽 등 업소 활동 등)	( )%
4) 음원/음반 저작권료	( )%
5) 기타 활동 ( )	( )%
<b>합계</b>	<b>100%</b>

※기타 활동은 **팬 사인회** 등이 해당됨.

5.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5-1. 귀하의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 보수 내지 소득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3) 작업 환경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4)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5-2. 귀하께서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교육 수혜    | 1순위 ( ), 2순위 ( ) |
| 3) 개인의 노력   | 2) 타고난 자질        |
| 5) 연고와 인간관계 | 4) 경제적 능력        |
| 7) 기타( )    | 6) 대형 기획사 소속 여부  |

5-3. 귀하께서 생각하셨을때 국내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부정적/매우 나쁨 | 2) 다소 부정적/나쁜 편 |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긍정적/좋은 편    |
| 5) 매우 긍정적/매우 좋음 |                |

대중문화예술인 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현황

6. 고용 현황

6-1. 귀하께서는 현재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1) 소속사 있음(☞문6-2로 이동)
- 2) 소속사 없음(프리랜서 등)(☞문7-1로 이동)
- 3) 1인 기획사 운영(☞문7-1로 이동)

6-2. (문6-1의 1번 응답자) 귀하의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표준계약서(표준전속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사용하고 있음 (☞문6-3으로 이동)
- 2) 구두 계약 (☞문6-4로 이동)
- 3)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문7-1로 이동)

6-3. (문6-2의 1번 응답자) 아래의 내용 중 귀하께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8)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6-4. 귀하께서는 최근 소속사와 신규로 체결했거나 기존의 계약을 새롭게 갱신한 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

6-5. 귀하께서 앞선 문항의 계약 체결 당시, 체결한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총 ( )년 ( )개월

7. 4대 보험 가입 현황

7-1. **현재**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 어떤 형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 1)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
- 2) 지역 가입자
- 3) 피부양자(가족의 보험 활용)
- 4) 기타( )
- 5) 미가입

7-2. **현재** 귀하께서는 국민연금에 어떠한 형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 1) 사업장(직장, 학교 포함)
- 2) 지역가입자
- 3) 민간보험 회사
- 4) 기타( )
- 5) 미가입

7-3. **현재** 귀하께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1) 가입 2) 미가입

7-4. **현재** 귀하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1) 가입 2) 미가입

기타 사항

8. 기타

8-1. **최근 3년(2014년~2016년)내에** 귀하가 주체가 되었던 법적 분쟁(문화부나 상사중재원 신고, 신고접수, 소장접수, 고소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소속사와의 계약문제 2)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  
 3) 작품/공연 활동 수익금 미수령 문제 4) 악플러와 갈등 문제  
 5) 기타 ( ) 6) 법적 분쟁 없음

8-2. 귀하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관련 협회나 단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8-3.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 애로 사항 및 개선 사항** 등 기타 의견이 있다면 무엇이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본 정보

나이	만 ( )세	성별	1) 남    2) 여
혼인 상태	1) 미혼                      2) 기혼 3) 이혼, 사별	배우자 취업* (기혼인 경우만 응답)	1) 취업                      2) 미취업
		자녀 유무	1) 자녀 있음    2) 자녀 없음
현 거주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배우자 취업 여부는 **기혼인 경우만** 응답할 것.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조사표

## 안 내 문

※ 본 조사표는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조사목적과 근거

이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에 대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

공연물, 방송영상물, 영화·비디오물,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

- ①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순수 공연물 제외,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포함)
- ②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다큐 분야 영상물 제외)
- ③ 영화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④ 음악산업법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⑤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화보, 출판물 광고 등)

## ■ 조사 대상 범위

- 종사자: ① 대중문화예술인, ②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사업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

## ■ 조사 기준 시점

- 2016년 12월 31일 기준

- 연구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이현우 책임연구원)
- 설문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실사팀(주현지 과장 02-3429-1737)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연구팀(이은숙 팀장 02-3406-3857/ 남금호 과장 02-3406-3938)

대중문화예술 관련 직업활동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정의

· 법률적 정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정의\*에서 규정하는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중 기술지원에 해당함. 따라서 창작용역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나 대본 작가(보조작가 포함), PD등은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에 해당하지 않음.

\*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장 제2조(정의))

1. 직업 활동

1-1. 귀하께서 현재 활동 중인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해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무 분야 (유형)	기획	1. 기획/제작	2. 연출	3. 홍보 마케팅	4. 구성 작가
	촬영	5. 촬영(그립, 데이터 포함)	6. 조명	7. 특수효과	8. 그림
	미술	9. 미술(무대, 소품 포함)	10. 의상	11. (특수)분장	12. 소품
	음향(사운드)	13. 동시 녹음	14. 음향	15. 음악	
	편집	16. 편집	17. 특수영상(시각특수효과)	18. DI(디지털 색보정)	
	보조연기자	19. 보조연기자			
해당분야 입문 경로	1) 개인적인 관심과 선호 때문에 2) 지인 및 친구의 권유로 3) 전공을 살리기 위해 4) 기타 ( )		해당 직무 총 경력	총 ( )년 ( )개월	

※해당 직무 분야가 중복으로 있는 경우, 가장 참여 빈도가 높은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해당 직무 총 경력은 처음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응답할 것.

※이하의 모든 문항은 귀하께서 문1-1에서 응답하신 직무 분야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최근 2년간(2015년~2016년)간 귀하께서 제작 스태프로 참여한 작품 수는 총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총 ( )건

1-3. 최근 2년간(2015년~2016년)간 귀하의 1달 평균 제작스태프 관련 근로일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1달 평균 근로일수 ( )일

1-4. 귀하께서는 현재 활동 중인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아닌 단발성(원고 작성, 강연 등) 형태의 활동은 제외됨.

- 1)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문1-5로 이동)
- 2)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음(☞문1-6으로 이동)

1-5. **(문1-4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어떤 종류의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1) 자영업 (상점, 소규모 점포 운영)
- 2) 일반 사무직 (일반 중소기업의 피고용인)
- 3) 교육 관련직 (대학 강사, 학원 강사, 대학 교수 등)
- 4)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 5) 기타 ( )

1-6. **2016년 기준**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150만원 미만 |
| 3) 150~200만원 미만 | 4) 200~250만원 미만 |
| 5) 250~300만원 미만 | 6) 300~350만원 미만 |
| 7) 350~400만원 미만 | 8) 400만원 이상     |

※**월 평균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함.

1-7. **2016년 기준** 귀하의 월평균 개인 소득 및 대중문화예술 영역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개인 소득	월 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
( ) 만원	( ) 만원

※**월 평균 개인소득**은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한 **본인만의 소득**을 의미함.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월 평균 개인 소득**은 본인의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영역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과 대중문화예술 영역 관련 소득을 동일하게 기재할 것.

##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 2. 고용 현황

2-1.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1) 팀장(감독 포함)
- 2) 팀원(개인)

2-2. **(2016년 기준으로)** 귀하는 작품 활동 시, **주로 어떤 형태**로 계약하셨습니다?

- 1) 서면 계약(☞문2-3으로 이동)
- 2) 구두 계약(☞문2-5로 이동)
- 3) 아무런 계약이 없다(☞문2-8로 이동)

- 2-3. (문2-2의 1번 응답자) 2016년을 기준으로 귀하께서는 서면 계약 시, 주로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십니까?  
 1)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 (☞문2-5로 이동)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 (☞문2-4로 이동)  
 3) 기타 ( ) (☞문2-4로 이동)

※표준계약서로는 문화부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2-4. (문2-3의 2 3번 응답자)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고용계약기간  
 2) 임금액  
 3) 임금지급방식  
 4) 노동시간  
 5) 휴일 및 휴가  
 6) 부가급여(보너스, 초과수당 등)  
 7) 4대 보험 관련 사항  
 8) 기타 ( )

- 2-5. 귀하의 계약 상대는 주로 누구입니까?  
 1) 제작사  
 2) 프로듀서 또는 감독  
 3) 팀장(=1st)  
 4)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 받은 회사  
 5) 기타 ( )

- 2-6. 귀하의 주 계약 단위는 무엇입니까?  
 1) 개인별 계약  
 2) 팀별 계약  
 3) 기타 ( )

- 2-7. 귀하의 계약 주기는 주로 얼마나 됩니까?  
 1) 작품별 계약  
 2) 주 단위 계약  
 3) 월 단위 계약  
 4) 기타 ( )

- 2-8. 귀하의 임금 지급주기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1) 월급  
 2) 주급/격주급  
 3) 일당 또는 회당 지급  
 4) 시간급  
 5) 연봉계약제(매월 12분의 1을 받음)  
 6) 도급(계약금(선금)과 잔금)  
 7) 기타 ( )

- 2-9. 귀하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기본급  
 2) 교통비  
 3) 식비  
 4)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5)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6) 위험수당  
 7) 직책수당  
 8) 기술수당  
 9) 가족수당  
 10) 기타 ( )

- 2-10. 귀하의 임금은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약간 낮은 수준이다  
 3)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다  
 4)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2-11. (2017년 기준으로) 귀하는 작품 활동 시, 주로 어떤 형태로 계약하십니까?

- 1) 서면 계약(☞문2-12으로 이동)
- 2) 구두 계약
- 3) 아무런 계약이 없다(☞문2-12로 이동)

2-12. (문2-11의 1번 응답자) 2017년을 기준으로 귀하께서는 서면 계약 시, 주로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십니까?

- 1)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
- 2) 일부 조항을 변형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
- 3) 기타 ( )

### 3. 근로 환경

3-1. 현장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따른 조치**는 주로 무엇입니까?

- 1) 전액 개인비용으로 치료
- 2) 전액 제작사의 비용으로 처리
- 3) 산재보험으로 처리
- 4) 제작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
- 5) 본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으로 처리
- 6) 기타 ( )

3-2. 2016년에 귀하께서는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1) 경험한 적 있음(☞문3-3으로 이동)
- 2) 경험한 적 없음(☞문3-4로 이동)

3-3. (문3-2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개인적인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제기
- 2)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림
- 3) 받기를 포기함
- 4) 기타 ( )

3-4. 2016년에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외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부당해고
- 2) 성차별 및 부당대우
- 3) 산재 미치료
- 4) 크레딧 누락 및 오류
- 5) 동종업계 재취업 방해
- 6) 폭언/폭행
- 7) 기타 ( )
- 8) 부당대우 경험 없음

3-5. 귀하께서는 제작스태프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 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 1) 임금
- 2) 복지후생
- 3) 근로시간
- 4) 작업조건(시설, 안전 위생 등)
- 5) 일자리 창출
- 6) 지원제도
- 7) 기타 ( )

3-6. 귀하의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아래 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업무 전반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 보수 내지 소득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3) 업무 시간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4) 업무 내용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5) 작업조건(시설, 위생 등)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6) 복리후생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7) 직장 안정성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 경력 관리

### 4. 경력 관리

4-1. 귀하께서는 작품 참여를 위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다음 작품을 탐색하십니까?

- |                         |                 |
|-------------------------|-----------------|
| 1)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         | 2) 동료 및 선후배를 통해 |
| 3) 온라인 네트워크(커뮤니티 등)를 통해 | 4) 작품 광고를 보고    |
| 5) 소속 제작사를 통해           | 6) 공식 채용 정보를 통해 |
| 7) 기타( )                |                 |

※**소속 제작사를 통해**는 고용형태가 **특정 제작사 소속인 경우**, 제작사의 결정에 의해 다음 작품에 투입되는 경우를 말함

4-2. 귀하께서는 단지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무보수로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창시절(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경험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참여 경험이 있음 | 2) 참여 경험 없음 |
|--------------|-------------|

4-3. 귀하께서는 **경력을 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규모 있는 제작사에 취직                 | 2) 작품 제작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  |
| 3) 제작자, PD, 관련분야 선배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 | 4)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 |
| 5) 기타 ( )                        |                        |

4-4. 귀하께서는 **향후 직업을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1) 바꿀 의향 있음(☞문4-5로 이동) | 2) 바꿀 의향 없음(☞문5-1로 이동) |
|------------------------|------------------------|

4-5. (문4-4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 **직업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 2)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
| 3)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 4) 복지수준의 열악함 때문에       |
| 5)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 6)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       |
| 7)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식  | 8) 기타 ( )              |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2016. 12. 31 기준, 조사 참여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	24109-2014-000001	(주)드래곤하트글로벌	김도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길 19-16 (방이동, 202호)	2014.11.04	송파구청
2	24109-2014-000001	(주)제이와이드컴퍼니	정덕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8길 23 (논현동)	2014.11.04	강남구청
3	24109-2014-000002	더퀸에이엠씨(주) (前더퀸(주))	김승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53 (청담동)	2014.11.05	강남구청
4	24109-2014-000003	(주)스타커리어엔터테인먼트	김진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13, 4층(논현동, 영진빌딩)	2014.11.05	강남구청
5	24109-2014-000004	희랑엔터테인먼트	김종희	강남구 도산대로46길 11, 2층 216호(논현동)	2014.11.13	강남구청
6	24109-2014-000005	황기획	김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12, 4층(논현동)	2014.11.13	강남구청
7	24109-2014-000002	(주)지브로스컴퍼니	신희용·권용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74 611호 (방이동, 올림픽파크뷰)	2014.11.20	송파구청
8	24109-2014-000006	(주)별의별	김철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2길 13-6, 3층(청담동)	2014.11.20	강남구청
9	24109-2015-000162	(주)크리진엔터테인먼트	성하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1길 6-7(양재동, 동주빌딩)	2015.10.27	서초구청
10	24109-2014-000008	메이크위드(Make With)	박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659(역삼동, 석암빌딩6층)	2014.12.04	강남구청
11	24109-2014-000009	모델로 에이전시	최재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7, 7층(논현동, ABS빌딩)	2014.12.12	강남구청
12	24109-2014-000010	위프엔터테인먼트	안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8길 10	2014.12.12	강남구청
13	24109-2014-000011	루엔란엔터테인먼트 (前루엔엔터테인먼트)	김주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 8, 2층(논현동, 삼호빌딩)	2014.12.12	강남구청
14	24109-2014-000001	도레미엔터테인먼트	박남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 659	2014.12.12	강서구청
15	24109-2014-000012	(주)셀스엔터테인먼트	박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50-22 401호동 (청담동)	2014.12.12	강남구청
16	24109-2014-000002	(주)티케이엔터테인먼트	유인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03 (서교동4층)	2014.12.26	마포구청
17	24109-2014-000013	(주)엘리트기획	김재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8길 64 303호동 (논현동)	2014.12.26	강남구청
18	24109-2014-000002 (경기도제170호)	(주)씨티엔터테인먼트	황성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3(수내동, 후너스빌딩)	2014.12.26	경기도 성남시청
19	24109-2015-000001	별만들기이엔티	김정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3길 41, 106 (논현동)	2015.01.07	강남구청
20	24109-2015-000002	(주)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장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7, 6층(논현동)	2015.01.07	강남구청
21	24109-2015-000001	(주)로코그룹	정상교·최윤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빌딩 B1)	2015.01.07	서초구청
22	24109-2015-000003	우분트엔터테인먼트	이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1길 21 (대치동, 지하1층)	2015.01.08	강남구청
23	24109-2017-000001	뮤직캐벌	최원민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321번길 152, 나동(2017.02.03)	2015.01.14	경기도 김포시청
24	24109-2015-000002	(주)스타캐슬 커뮤니케이션즈	정병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2015.01.14	서초구청
25	24109-2015-000001	(주)코콤엔티	이현구·조기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1 501호 (여의도동, 대성빌딩)	2015.01.14	영등포구청
26	24109-2015-000004	(주)나무엑츠	김동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0길 34 (논현동, 삼경빌딩 5층)	2015.01.22	강남구청
27	24109-2015-000005	(주)쿠키이씨엔	이창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1 302 (삼성동, 대훈빌딩 3층)	2015.01.22	강남구청
28	24109-2015-000006	(주)네오스엔터테인먼트	남현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8 703호 (신사동)	2015.01.22	강남구청
29	24109-2017-000007	(주)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종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6길 36, 2층(이태원동, 씨앤씨빌딩)	2015.01.29	용산구청
30	24109-2015-000001	보명프로	서영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77 (대현동)	2015.02.03	서대문구청
31	24109-2015-000008	(주)리엔터테인먼트	노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3길 6 (신사동, 201호)	2015.02.03	강남구청
32	24109-2015-000009	택시엔터테인먼트	한재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1-7 (논현동, 1층, 2층)	2015.02.03	강남구청
33	24109-2015-000010	제이알 엔터테인먼트	박지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17, 301 (역삼동)	2015.02.03	강남구청
34	24109-2015-000003	Rockin'Korea	이화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44, 6층(서교동)	2015.02.06	마포구청
35	24109-2015-000003	(주)더모델즈	정영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119호 (양재동, 삼호물산)	2015.02.06	서초구청
36	24109-2015-000011	(주)씨앤에이이엔전시	조훈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역삼동, 판타지오빌딩5층)	2015.02.06	강남구청
37	24109-2015-000004	(주)물고기 엔터테인먼트	임동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3 (방배동, 보령빌딩)	2015.02.06	서초구청
38	24109-2015-000001	(주)디지털수다	장진·김수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40길 31 4층동 (한남동)	2015.02.06	용산구청
39	24109-2015-000012	개성시대	김미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4길 5	2015.02.17	강남구청
40	24109-2015-000013	(주)뉴타입이엔티	박세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1-3 2층	2015.02.17	강남구청
41	24109-2015-000002	뿌리깊은나무들 (주)	이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101동 13층 14호(여의도, 여의도 더샵아일랜드파크)	2015.02.17	영등포구청
42	24109-2015-000002	(주)케이툰이엔엠코리아	김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대로 22, 1층(충정로3가, 글샘빌딩)	2015.02.17	서대문구청
43	24109-2015-000014	모델온에이전시	안효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32 (신사동, 5층)	2015.02.24	강남구청
44	24109-2015-000015	글로벌엔터피아 (주)	김민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8 502호	2015.02.24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45	24109-2015-000016	(주)지오코리아모델	이수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0길 5	2015.02.24	강남구청
46	24109-2015-000017	(주)디에스피미디어	이호연·최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5길 20 (논현동)	2015.02.24	강남구청
47	24109-2015-000018	(주)에스모델	신옥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36 5층	2015.03.02	강남구청
48	24109-2017-000016	플레이톤엔터테인먼트 (주)	김평희	2 현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3, B305호(역삼동)	2015.03.02	강남구청
49	24109-2017-000002	(주)셋별달엔터테인먼트	이한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02호(신당동·남산타운)	2015.03.02	중구청
50	24109-2015-000020	(주)크롬엔터테인먼트	황현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48	2015.03.03	강남구청
51	24109-2015-000022	(주)더뮤직웍스엔터테인먼트 (前(주)뮤직웍스)	오원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13, 5층(논현동)	2015.03.03	강남구청
52	24109-2015-000004	(주)엔케이(NK) 컴퍼니	노진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여의도동, 센터빌딩 8층)	2015.03.03	영등포구청
53	24109-2016-000009	장프로덕션 (前동요엔터테인먼트)	왕채용·(WANG TSAI JUNG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1, 213동 104호(2016.02.23)	2015.03.03	서초구청
54	24109-2015-000024	(주)모델박스	성창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1206호 (역삼동, 삼흥빌딩)	2015.03.03	강남구청
55	24109-2015-000025	(주)일공육 엔터테인먼트	류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2길 9	2015.03.03	강남구청
56	24109-2015-000026	(주)알스컴퍼니	류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2길 9	2015.03.03	강남구청
57	24109-2017-000006	(주)스타케이	김병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28, 12층(성수동2가, 렉스모티스)	2015.03.03	성동구청
58	24109-2015-000029	(주)스타메카엔터테인먼트	김여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9길 15, 2층(논현동)	2015.03.03	강남구청
59	24109-2015-000030	안테나뮤직 (주)	정동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4길 24	2015.03.10	강남구청
60	24109-2015-000031	(주)넘버나인엔터테인먼트	원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역삼동)	2015.03.10	강남구청
61	24109-2015-000006	(주)포크라노스	김형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4-10, 1~3층(서교동)	2015.03.10	마포구청
62	제2015-053호	모터미디어	이동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8길 25(천호동)	2015.03.10	강동구청
63	24109-2015-000032	(주)에스피모터스	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4 501호 (신사동, 보암빌딩)	2015.03.10	강남구청
64	24109-2015-000001	장 Entertainment	이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45가길 8	2015.03.10	강서구청
65	24109-2016-000005	(주)어와나 엔터테인먼트	김중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길 58, 4층(신사동)	2015.03.10	강남구청
66	24109-2015-000033	(주)제이툰캠프	조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25 701호	2015.03.10	강남구청
67	24109-2015-000034	(주)썬컴퍼니	김미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8 (신사동, 4층)	2015.03.10	강남구청
68	24109-2015-000007	딜라이트뮤직	박윤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2, 512(서교동, 서문빌딩5층)	2015.03.10	마포구청
69	24109-2015-000006	(주)태원아트미디어	장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5 (서초동, 13층)	2015.03.10	서초구청
70	24109-2015-000035	(주)매니지먼트 구	구본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2015.03.10	강남구청
71	24109-2015-000036	(주)서울걸즈컬렉션	김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901호(역삼동)	2015.03.12	강남구청
72	24109-2015-000037	(주)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45 (역삼동)	2015.03.12	강남구청
73	24109-2015-000003	(주)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	조정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84 301호 (성수동2가, 정연빌딩)	2015.03.06	성동구청
74	24109-2017-000022	(주)티에이치엔터테인먼트	임성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10, 4층(논현동)	2015.03.12	강남구청
75	24109-2015-000004	바림엔터테인먼트 (前후(WHO)엔터테인먼트)	김찬형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15, 1019호(길동, 탑스위트)	2015.06.17	강동구청
76	24109-2015-000005	마인드컴퍼니	박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7길 39 (보광동, 지하)	2015.03.12	용산구청
77	24109-2016-000162	(주)뮤직앤뉴	김우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길 19, 2층 에이 253호(논현동, 세일빌딩)	2015.03.12	강남구청
78	24109-2015-000005	(주)스타덤	조중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7, 2층(독산동)	2015.03.12	금천구청
79	24109-2015-000001	(주)프레인글로벌	여준영·이승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14(신문로2가, 신영빌딩)	2015.03.12	종로구청
80	24109-2015-000038	(주)윌엔터테인먼트	손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7 5층 (논현동, 논현동 자동차전시장빌딩)	2015.03.12	강남구청
81	제2015-072호	DJ엔터테인먼트 (구 매스아트)	송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156 대도빌라 나-401	2015.03.18	성북구청
82	24109-2015-000039	(주)탄엔터테인먼트	홍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8길 3 지하1층 (삼성동)	2015.03.18	강남구청
83	24109-2016-000059	(주)파워캐스팅	심관식·임보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7, 5층(논현동)	2015.03.18	강남구청
84	24109-2015-000004	(주)웨이즈컴퍼니	박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53, 4층(옥수동, 천마빌딩)	2015.03.12	성동구청
85	24109-2015-000040	(주)피데스파티움	김성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3길 26 201호 (논현동)	2015.03.18	강남구청
86	24109-2016-000002	포트럭(주)	여준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신문로2가, 신영빌딩)	2015.03.23	종로구청
87	24109-2015-000043	(주)에프앤씨엔터테인먼트	한성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46(정담동)	2015.03.23	강남구청
88	24109-2015-000044	엔에이피엔터테인먼트 (주)	최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0	2015.03.23	강남구청
89	24109-2017-000002	매기앤존(Maggie & John)	윤영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37(잠원동)	2015.03.23	서초구청
90	24109-2015-000046	온에어	박중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5길 3	2015.03.23	강남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91	24109-2016-000016	(주)리멤버미디어	이윤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5길 5, 3층(합정동)	2015.03.08	마포구청
92	24109-2015-000048	내가네트웍스(주)	최윤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8길 15, 4층 (대치동, 이그마빌딩)	2015.03.26	강남구청
93	24109-2015-000009	브리즈뮤직	왕두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02 (봉천동, B-1)	2015.03.26	관악구청
94	24109-2015-000049	(주)모델디렉터스	신영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1길 27, 2층 201호 (논현동)	2015.03.26	강남구청
95	24109-2015-000050	아츠팝콘	김영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35,302호 (신사동)	2015.03.26	강남구청
96	24109-2015-000051	카라멜 ENT	황주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청담동, 현대리버스텔 505호)	2015.03.26	강남구청
97	24109-2015-000052	뿔컴퍼니	김원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	2015.03.26	강남구청
98	24109-2015-000009	(주)점프엔터테인먼트	설정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1동 2106호(상암동)	2015.03.30	마포구청
99	24109-2015-000001	로켓발사	이준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4길 14, 지하1층 (상계동, B01호)	2015.03.30	노원구청
100	24109-2015-000008	슈가레코드	이은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6길 3-12	2015.03.30	서초구청
101	24109-2015-000053	뮤즈 오디세이	황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1길 7, 2층 201호(청담동)	2015.03.30	강남구청
102	24109-2015-000022	YJ엔터테인먼트	남유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106동 1304호(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2015.03.30	서대문구청
103	24109-2015-000056	(주)피아엔터테인먼트	피성수	강남구 연주로146길 49(논현동)	2015.03.30	강남구청
104	24109-2015-000057	(주)웨이브온엔터	박대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37 (논현동, 이안빌딩 1층)	2015.03.30	강남구청
105	24109-2017-000031	(주)주식회사플랜아이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前아이큐브엔터테인먼트)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1, 6층(논현동)	2015.03.30	강남구청
106	24109-2016-000163	제이엔케이엔터테인먼트	김대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길 13, 1층(삼성동)	2015.03.30	강남구청
107	24109-2015-000015	(주)노만엔터테인먼트	박노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3길 4-13, 3층(중암동)	2015.03.30	성북구청
108	24109-2015-000005	(주)더좋은이엔티	이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29, 5층(서초동, 예당빌딩)	2015.03.03	서초구청
109	24109-2015-000001	(주)곤엔터테인먼트	채영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60, 제112호(옥수동)	2015.01.30	성동구청
110	24109-2015-000010	(주)굿맨스토리	이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0, 3층(서초동, 국제빌딩)	2015.04.01	서초구청
111	24109-2015-000011	(주)브랜뉴뮤직	김세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0길 5	2015.04.02	서초구청
112	24109-2015-000058	(주)스노우볼 엔터테인먼트	조성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27-6, 301 (신사동)	2015.04.01	강남구청
113	24109-2015-000059	(주)판타지오 (영업의 승계)	워이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2015.04.01	강남구청
114	24109-2015-000027	(주)레드라인엔터테인먼트	김대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6길 13-1, 3층 (가락동, 가락동양씨 빌딩)	2015.04.01	송파구청
115	24109-2015-000061	제이비 인터내셔널	권준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07 606호 (삼성동, 우림보보카운타-아셈 오피스텔)	2015.04.01	강남구청
116	24109-2017-000011	(주)아뮤즈코리아	히라다치야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5길 21, 2층(신사동)	2015.04.01	강남구청
117	24109-2015-000001	(주)얼반웍스이엔티	허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25 4층동	2015.04.03	양천구청
118	24109-2015-000001	이더블유더블유 (주)	남덕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1-51, 101호 (구로동)	2015.04.03	구로구청
119	24109-2015-000013	(주)와이피씨프로덕션	조용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15(서초동)	2015.04.03	서초구청
120	24109-2016-000050	(주)사람엔터테인먼트 (前(주)재원프로모션)	이소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57, 3층,4층(연남동)	2016.05.26	마포구청
121	24109-2015-000015	MJ Production	최문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81	2015.04.03	서초구청
122	24109-2015-000063	크레이지 사운드	박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31 (논현동, 지하층)	2015.04.03	강남구청
123	24109-2015-000064	(주)스타페이지엔터테인먼트	김정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30, 3층(신사동)	2015.04.03	강남구청
124	24109-2015-000065	(주)솔엔터테인먼트	양창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6	2015.04.03	강남구청
125	24109-2015-000066	(주)메이딘엔터테인먼트	김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5길 25, 301호(논현동)	2015.04.03	강남구청
126	24109-2015-000015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김형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4-10, 1층 (서교동)	2015.04.06	마포구청
127	24109-2015-000016	(주)코엔스타즈	안인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2401호 (상암동, 케이지아티센터)	2015.04.06	마포구청
128	24109-2015-000067	(주)스타스토리엔티	이창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5, 302호(논현동)	2015.04.06	강남구청
129	24109-2015-000005	지호 엔터테인먼트	이경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69-1, 1층(성수동1가, 302호)	2015.04.01	성동구청
130	24109-2015-000068	글로벌모델컴퍼니 (Global Model Company)	공명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72길 53 (신사동, 인륜빌딩 3층)	2015.04.06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31	24109-2016-000006	(주)스타메카인터내셔널	김선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9길 15, 2층 1호(논현동)	2015.04.06	강남구청
132	24109-2015-000001	(주)픽시엔터테인먼트	손병현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83, 1층 (신당동, 에이동 101호)	2015.04.06	중구청
133	24109-2016-000027	(주)피케이이엔티 (前피케이프로덕션(주))	안재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비108~비111호 (상암동)	2015.04.06	마포구청
134	24109-2015-000070	(주)제이지스타 (JG STAR)	황정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8길 36 (논현동,현문빌딩3층)	2015.04.06	강남구청
135	24109-2015-000006	네오라이프코어 (주)	조희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3, 401호 (양평동4가, 양화빌딩)	2015.04.06	영등포구청
136	24109-2015-000072	태풍엔터테인먼트	송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35, 5층 (신사동, 태영빌딩)	2015.04.06	강남구청
137	24109-2015-000073	(주)캐스팅나우엔터테인먼트	심명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2길 13 (신사동)	2015.04.06	강남구청
138	24109-2015-000019	(주)룩스타뮤직앤라이브	나성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67-6 (망원동)	2015.04.06	마포구청
139	24109-2015-000016	(주)투명망토	박석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잠원동, 대능빌딩 2층)	2015.04.06	서초구청
140	24109-2015-000001	(주)초이스굿	편기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77 (문정동)	2015.04.06	송파구청
141	24109-2015-000020	(주)라이브웍스컴퍼니	이장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8층 (상암동, 중소기업디앤씨타워)	2015.04.07	마포구청
142	24109-2015-000007	(주)신화컴퍼니 (前(주)신켄터테인먼트)	문정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6	2015.04.03	성동구청
143	24109-2015-000002	(주)피엘종합기획	송혜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1, 4층(신당동)	2015.04.07	중구청
144	24109-2015-000075	(주)헬로존넷	황수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7길 7, 401호 (역삼동, 대명빌딩)	2015.04.07	강남구청
145	24109-2015-000021	드레레코드	안준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7가길 18, 지층 (서교동)	2015.04.07	마포구청
146	24109-2015-000022	JNH뮤직	이주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48, 5층 (성산동, 명원빌딩)	2015.04.07	마포구청
147	24109-2015-000076	(주)루크미디어	전병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5길 11 (논현동,102호)	2015.04.07	강남구청
148	24109-2017-000020	(주)스타샵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시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1-, 3-5층(논현동)	2015.04.07	강남구청
149	24109-2015-000077	(주)컬쳐뷰	박정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7, 4층 4038호(2016.04.19)	2015.04.07	강남구청
150	24109-2015-000006	DCT Entertainment	김동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990-1 3층	2015.04.02	성동구청
151	24109-2015-000078	(주)다홍엔터테인먼트	정진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14, 3층동(신사동)	2015.04.07	강남구청
152	24109-2017-000019	(주)플럭서스	김병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31, 6층(잠원동, 아세아빌딩)	2015.04.07	서초구청
153	24109-2015-000080	(주)키이스트 (공동대표)	배성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66 (삼성동, 아메리칸스탠다드빌딩 6층)	2015.04.07	강남구청
154	24109-2015-000024	EVANS (에반스)	홍세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0, 지하1층 (서교동, 남도빌딩)	2015.04.07	마포구청
155	24109-2015-000002	인이레 (주)	최성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6	2015.04.07	양천구청
156	24109-2016-000056	(주)드림스톤엔터테인먼트(등 기변동신고) (前(주)연필엔터테인먼트)	김동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5길 17, 1층(삼성동, 가남빌딩)	2015.10.05	강남구청
157	24109-2016-000004	쥬스엔터 (주)	박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87, 1층 (명륜1가, 종로구 명륜동근린생활시설 1)	2015.04.08	종로구청
158	24109-2015-000081	(주)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김민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15 (논현동,3층)	2015.04.08	강남구청
159	24109-2015-000083	June앤Eye	김환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702호 (청담동, 현대리버스텔)	2015.04.08	강남구청
160	24109-2015-000082	(주)인넥스트트렌드 (산타뮤직)	이수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28 (논현동, 그라빌 103, 104호)	2015.04.08	강남구청
161	24109-2015-000026	관엔터테인먼트 (주)	하주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9, 302호 (상수동, 영재빌딩)	2015.04.08	마포구청
162	24109-2015-000007	(주)신난엔터테인먼트	이주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0, 5층 (영등포동8가, 드림프라자)	2015.04.08	영등포구청
163	24109-2015-000084	(주)건음기획	김건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7(신사동, 성주빌딩 5층)	2015.04.08	강남구청
164	24109-2015-000085	블루스테이지	정회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0길 20 (삼성동, 레미안 삼성2차아파트 102동 1102호)	2015.04.09	강남구청
165	24109-2016-000016	(주)에스에스엔터테인먼트 (前(주)제이케이페이스엔터 테인먼트)	박재현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43, 201호(잠원동, 솔하우스)	2015.04.09	서초구청
166	24109-2015-000027	(주)컬투엔터테인먼트	김성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6, 201호 (합정동, 평산빌딩)	2015.04.09	마포구청
167	24109-2015-000028	(주)타조	이성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55, 3층 (용강동)	2015.04.09	마포구청
168	24109-2016-000016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신대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3 (성수동2가, 에프투텔래콤)	2015.04.09	성동구청
169	24109-2015-000088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주)	문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7-3, 3층(논현동, 큐브빌딩)	2015.04.09	강남구청
170	24109-2015-000089	립(LIP)엔터테인먼트 (前씨케이(CK)미디어)	채완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4-7, 101호(개포동)	2015.04.09	강남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71	24109-2015-000008	뮤직팜 (주)	이국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3, 1410호(여의도동, 한서리비파크)	2015.04.09	영등포구청
172	24109-2016-000013	(주)미스틱엔터테인먼트	조영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41(한남동)	2015.04.09	용산구청
173	24109-2015-000091	(주)숲 엔터테인먼트	김태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7(논현동)	2015.04.09	강남구청
174	24109-2017-000007	이너피스 (前트립클리프(tripClip))	심유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49, 지층 비호(반포동)	2015.04.09	서초구청
175	24109-2015-000029	뮤직팜코리아 (주)	강태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7길 74 (서교동)	2015.04.09	마포구청
176	24109-2015-000092	클릭	오인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16, 201호(산사동, 우정빌딩)	2015.04.09	강남구청
177	24109-2015-000093	(주)피프티원케이	김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4길 49 (논현동)	2015.04.09	강남구청
178	24109-2015-000019	위룰이엔티 (We Rule ENT)	이광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8길 5-5, 402호 (방배동, 복빌라)	2015.04.09	서초구청
179	24109-2015-000008	(주)다른별엔터테인먼트	안형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한남동, 10호 1층)	2015.04.09	용산구청
180	24109-2015-000009	(주)이에이앤씨 (EA&C Co., Ltd.)	김지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3306호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오피스텔)	2015.04.09	용산구청
181	24109-2015-000094	(주)엘디엘컴퍼니	고스튜어트시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8, 6층(논현동)	2015.04.09	강남구청
182	24109-2015-000095	던오브뉴에라 (Dawn of New Era)	황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119길 15, 5층동 (논현동)	2015.04.09	강남구청
183	24109-2016-000011	뜨는별엔터테인먼트	유철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21, 3층(역삼동, 대양빌딩)	2015.04.10	강남구청
184	24109-2016-000145	HOW엔터테인먼트	이용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7길 13, 3층(신사동)	2015.04.10	강남구청
185	24109-2017-000027	(주)예전미디어	방극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길 14, 2층 201호(방배동, 해경주택)	2015.04.10	서초구청
186	24109-2015-000096	히어로즈 팩토리 (Heroes Factory)	장영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39(논현동)	2015.04.09	강남구청
187	24109-2015-000032	(주)제이티비씨콘텐츠허브 (前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주))	정경문·장경진·박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18층 (상암동, 디엠씨 씨빌딩)	2015.04.10	마포구청
188	24109-2015-000036	LIMON(리몬) (前BLKMOGUL(블랙모글))	이희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26, 603호 (합정동, KCC엠평아이어리버)	2015.04.10	마포구청
189	24109-2015-000033	(주)마스터플랜프로덕션	이종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17, 2층 (서교동, 신현빌딩)	2015.04.10	마포구청
190	24109-2015-000097	에프이엔터테인먼트 (주)	김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8(역삼동, 배민빌딩 6층)	2015.04.10	강남구청
191	24109-2015-000098	(주)스카이뮤직	전래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8길 39(청담동, 3층)	2015.04.10	강남구청
192	24109-2015-000021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앤드류조지스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교보타워B동20층)	2015.04.10	서초구청
193	24109-2015-000003	엠제이엔터테인먼트(MJ ENTERTAINMENT)	최문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8-1, 814호(공항동, E-SKY 오피스텔)	2015.04.10	강서구청
194	24109-2015-000100	(주)플래티늄매니지먼트	김재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2길 17(논현동)	2015.04.10	강남구청
195	24109-2016-000147	(주)제니스 미디어 콘텐츠	강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8, 2층(논현동, 세화빌딩)	2015.04.10	강남구청
196	24109-2015-000101	(주)크다컴퍼니	손재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21, 2층(논현동, 토옥빌딩)	2015.04.14	강남구청
197	24109-2014-000001 (경기도제1호)	(주)주네스엔터테인먼트	유준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4번길 35, 에이동 102호 (구마동, 현대타운하우스)	2014.11.05	경기도 성남시청
198	24109-2015-000002	(주)젬컬처스	이훈석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83, 201-2호(연남동)	2015.01.29	마포구청
199	24109-2015-000001 (경기도제2호)	에스에이치미디어	이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505호 (장항동, 이스틴시티)	2015.01.13	경기도 고양시청
200	제2015-1호	제이엠엔터테인먼트 (前스타존엔터테인먼트)	황종민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07 (삼덕동2가, 우일빌딩 2층)	2015.04.01	대구광역시
201	24109-2015-000012	스타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김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80 405 (반포동, 정연아트빌라)	2015.04.03	서초구청
202	24109-2017-000002	HOLLA Entertainment	박재광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46, 6층(신사동, 두원빌딩)	2015.04.08	은평구청
203	24109-2015-000031	(주)스타엔트리 엔터테인먼트	김영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자3길 74, 지하1층 (합정동)	2015.04.10	마포구청
204	24109-2017-000006	(주)에이치스타일	이도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1층(한남동)	2015.04.21	용산구청
205	24109-2015-000010	(주)수다미디어	이홍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3층 201호 (여의도동, 콤비빌딩오피스텔)	2015.04.28	영등포구청
206	제2015-1호	사단법인 문화프로덕션 도모	황운기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로 71 (옥천동, 예술마당 도모)	2015.04.13	강원도청
207	24109-2015-000104	(주)아시아 브릿지엔터테인먼트	성진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2길 11(역삼동, 지2층)	2015.04.27	강남구청
208	24109-2015-000105	(주)열음엔터테인먼트	김윤봉	강남구 언주로146길 49(논현동)	2015.04.27	강남구청
209	24109-2015-000106	(주)이매진아시아 (前주엘메이어드에당영업의 승계)	심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압구정동, 뉴타운빌딩 3층)	2015.04.27	강남구청
210	24109-2015-000107	브롬스틱 유한회사	박진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826호 (논현동, 거평타운)	2015.04.27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211	24109-2015-000109	(주)에스토리엔터테인먼트	이재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7길 18-2(역삼동)	2015.04.29	강남구청
212	24109-2015-000110	(주)더블유에이전시	전홍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7, 6층(2017.02.09)	2015.04.29	강남구청
213	24109-2015-000111	(주)먼데이에이전시	김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1(신사동, 신우빌딩3층)	2015.04.29	강남구청
214	24109-2015-000112	(주)엠베케이엔터테인먼트	김태경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길 19, 1층(논현동, 스타빌딩)	2015.04.29	강남구청
215	24109-2015-000113	(주)김앤초이	김면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1길 18 302호 (신사동, 운산빌딩3층)	2015.04.29	강남구청
216	24109-2015-000114	(주)레디엔터테인먼트	강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0길 13, 2층(논현동)	2015.04.29	강남구청
217	24109-2015-000115	(주)티비엔터테인먼트 (前(주)티비이(TBE))	이재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511(대차동)	2015.04.30	강남구청
218	24109-2015-000116	(주)화인컷	서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22-14, 1층 102호 (역삼동, 파티오하우스)	2015.04.29	강남구청
219	24109-2016-000094	(주)더바이브	윤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2길 36(청담동, 아쿠아빌딩)	2015.04.30	강남구청
220	24109-2015-000002	블루보이	최보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오24길 31-15, (효자동)	2015.05.01	종로구청
221	24109-2015-000025	(주)테이크파이브	이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606호(서초동, 센츨리오파스텔)	2015.05.04	서초구청
222	제2015-1호	(주)씨아이이엔티	이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41번길 29-25, 2층 228호(봉명동, 더블유성공비즈니스센터)	2015.05.01	대전광역시
223	24109-2015-000119	굿프렌즈 (GOOD FRIENDS)	김성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3길 21 (신사동, 1층)	2015.05.06	강남구청
224	24109-2015-000117	(주)엔와이컴엔터테인먼트	용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신사동, 동남빌딩 9층)	2015.05.06	강남구청
225	24109-2015-000123	홀릭 (前아베.홀리.)	유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2길 13-3, 지하층	2015.05.06	강남구청
226	24109-2015-000118	(주)더준 엔터테인먼트 (TheJUNentertainment)	조준현	2 현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1012호(대치동, 통일아이원래온)	2015.05.06	강남구청
227	24109-2015-000027	에이엠 랩 아시아	양수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9길 25, 201호 (양재동, 정오빌라)	2015.05.07	서초구청
228	24109-2015-000126	(주)리퍼블릭에이전시	최원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6길 27, 2층(논현동, 석경빌딩)	2015.05.06	강남구청
229	24109-2015-000124	(주)티엠피 (TMP)	김영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비1동(논현동, 청석빌딩)	2015.05.06	강남구청
230	24109-2015-000125	(주)토비스미디어	이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11-602)	2015.05.06	강남구청
231	24109-2015-000010	런 모델	김기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40, 2층 211호(이태원동, 명산빌딩)	2015.05.06	용산구청
232	24109-2015-000011	(주)차차차	이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5, 지하층(한강로1가, 지하층)	2015.05.07	용산구청
233	24109-2015-000122	뮤직조이너	백봉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45(도곡동, 지하)	2015.05.06	강남구청
234	24109-2015-000002 (경기도제5호)	POP엔터테인먼트	박병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B동 205호	2015.03.27	경기도 고양시청
235	24109-2015-000002 (경기도제6호)	(주)후너스엔터테인먼트	홍성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3 (수내동, 후너스빌딩 3층)	2015.04.08	경기도 성남시청
236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58호)	로즈엔터테인먼트(주) (前씨지엔터테인먼트(주))	민병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108-22, A-501호 (2016.09.09)	2015.04.09	경기도 용인시청
237	24109-2015-000001 (경기도제9호)	마들렌뮤직 (Madeleine Music)	이동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성현안길 257, 1층	2015.04.09	경기도 파주시청
238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0호)	물방울엔터테인먼트	김현량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고마을로 90, 4103동 906호 (상현동, 광고마을휴먼시아)	2015.04.13	경기도 용인시청
239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1호)	노만 (NOMAN)	곽기분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 106동 1702호(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2015.04.15	경기도 의정부시청
240	24109-2015-000011 (경기도제12호)	핑크엠엔터테인먼트 (Pink M entertainment)	신인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511호(상동, 개내베스트타운 쓰리)	2015.04.17	경기도 부천시청
241	24109-2017-000001	(주)유케이레코즈 (前(주)노라조프로덕션)	전경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1, 1121호(가양동, 이스타빌2)	2015.04.24	강서구청
242	24109-2015-000003 (경기도제14호)	(주)비오엠 액터스	김경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3로 33, 401동 901호 (도내동, 원흥도래울)	2015.04.20	경기도 고양시청
243	2015-01	(주)누리마루엔터테인먼트	윤수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04, 3층(대연동)	2015.04.22	부산광역시
244	제2015-1호	(주)자이엔트	김성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6길 22	2015.05.11	충청남도청
245	24109-2015-000028	Mr. 에이전트	양영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3길 13, 103호(반포동)	2015.05.08	서초구청
246	24109-2015-000128	(주)꿀단지	김태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1층(논현동)	2015.05.11	강남구청
247	24109-2015-000130	제이비 엔터테인먼트	정을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8길17, B04호(역삼동, 글로리빌)	2015.05.11	강남구청
248	24109-2016-000129	(주)스타일라이프 (前(주)성숙한삶)	손인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길 2, 2층(역삼동, 정원빌딩)	2015.05.11	강남구청
249	24109-2015-000002	T·O·P	조용갑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99, 401호(공릉동)	2015.05.12	노원구청
250	24109-2015-000038	(주)봉가봉가레코드	고건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5길 31, 자층 (연남동)	2015.05.12	마포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251	24109-2015-000039	(주)씨엠지초록별	김태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41, 2층 (성산동)	2015.05.12	마포구청
252	24109-2015-000040	(주)디에이치플레이엔터테인먼트	구자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마산로 165-1, 201호 (연남동)	2015.05.13	마포구청
253	24109-2015-000041	디아이뮤직	유현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36-11, 703호 (상수동)	2015.05.13	마포구청
254	24109-2015-000042	일렉트릭 뮤즈	김민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11길 27-10, 지하층 (망원동)	2015.05.13	마포구청
255	24109-2017-000002	(주)두루두루에이앤씨	강명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5길 62, 2층(연희동)	2015.05.13	서대문구청
256	24109-2015-000044	(주)쇼크리에이티브	추중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4, 4층 (서교동)	2015.05.13	마포구청
257	24109-2017-000003	트리퍼 사운드	김은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길 29-3, 603호(당주동 삼한빌딩)	2015.05.13	종로구청
258	24109-2015-000046	(주)지에이치엔터테인먼트	김상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73-1, 5층 (동교동 북하빌딩)	2015.05.13	마포구청
259	24109-2015-000048	(주)모닝스타이앤엠	박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30층 3001호 (상암동, 디엠씨안상암2단지)	2015.05.13	마포구청
260	24109-2015-000049	펀팩토리7(Funfactory7) (前펀팩토리(Funfactory))	박무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6, 303호 (합정동)	2015.05.13	마포구청
261	24109-2015-000012	(주)문화창고	김선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1803호(한남동, 현대리버타워)	2015.05.13	용산구청
262	24109-2015-000132	(주)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	유민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 854(신사동, 렉스빌딩 6층)	2015.05.13	강남구청
263	24109-2016-000003 (경기도제156호)	하얀돌이앤엠	김윤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6, 3층(중동, 상록빌딩)	2015.05.13	경기도 부천시청
264	24109-2015-000133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	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1501호(동수서동, 수서오피스빌딩 12층)	2015.05.13	강남구청
265	24109-2015-000134	드림박스	신은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20-4(신사동, B02호)	2015.05.13	강남구청
266	24109-2015-000137	(주)에스마일컴퍼니	주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7길 7(삼성동, 보아스빌딩지하1층)	2015.05.13	강남구청
267	24109-2015-000135	사일런트 그레이	이교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청담동, 제15층 제B3호)	2015.05.13	강남구청
268	24109-2015-000003	포엠엔터테인먼트 (Poementertainment)	하세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4길 33(냉천동, 서대문동부센트레빌 2차 207동 904호)	2015.05.15	서대문구청
269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61호)	(주)크리에이티브수	지성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3, B1층(광명동, 대성빌딩)	2015.05.18	경기도 광명시청
270	24109-2015-000120	밀크	백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7(역삼동, 제1층제1호)	2015.05.06	강남구청
271	24109-2015-000051	엠와이뮤직	윤동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17-6, 지하1층 B02호 (성산동)	2015.05.15	마포구청
272	24109-2015-000004	(주)엔터테인먼트 통 (TONG)	김대성	서울특별시 중구 단산로 16길 29(신당동, 비컨힐 302호)	2015.05.15	중구청
273	24109-2016-000005 (경기도제177호)	투드림	박성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50, 15층 1506호 (장항동, 우인아크리움빌)	2015.05.06	경기도 고양시청
274	24109-2015-000147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 (jistry entertainment)	이정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16, 3층(신사동)	2015.05.18	강남구청
275	24109-2015-000146	피알라인컴퍼니	김경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1길 14, 4층(신사동)	2015.05.18	강남구청
276	24109-2015-000141	(주)루트그룹 (RootGroupCo.Ltd.)	임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10, 608호(논현동, 퍼시픽빌딩)	2015.05.18	강남구청
277	24109-2015-000140	(주)쏘스뮤직	소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31(논현동, 동남빌딩 B102호)	2015.05.18	강남구청
278	24109-2017-000008	활명수	이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에이2009호 (도화동, 마포트라벨리스)	2015.05.18	마포구청
279	24109-2015-000139	(주)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	문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 819 (신사동, HB빌딩 3층)	2015.05.18	강남구청
280	24109-2015-000144	제리고고 (JERRYgogo)	김정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02, 840호(논현동, 에임하이타워)	2015.05.18	강남구청
281	24109-2015-000145	(주)토마토모델에이전시	남윤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8길 14(논현동, 3층)	2015.05.18	강남구청
282	24109-2015-000143	엘리스엔터테인먼트	김경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6, 402호동 4층 (신사동)	2015.05.18	강남구청
283	24109-2016-000024	지앤필 (G&feel) 엔터테인먼트	임홍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11길 34-1, 지하1층(양재동)	2015.05.18	서초구청
284	24109-2015-000053	롤링홀엔터테인먼트	김영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음마당로 35, 201호 (서교동)	2015.05.18	마포구청
285	24109-2015-000127	청춘뮤직 (주)	류형섭·김지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16, 지하층(대치동, 은혜빌딩)	2015.05.11	강남구청
286	24109-2015-000004	칠리뮤직코리아	손주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206	2015.04.30	양천구청
287	24109-2015-000013	(주)월드사운드	이천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2(한남동, 두성빌딩 303호)	2015.05.20	용산구청
288	24109-2015-000003 (경기도제126호)	렛잇비 (前1877엔터테인먼트)	안정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137, 204호(마북동, 현대그린필드 단지내 상가)	2015.05.13	경기도 용인시청
289	24109-2015-000002	(주)뽀빠이엔터테인먼트	김일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5, 3층(중산동, 두빌DEUX VILLAGE195)	2015.05.19	은평구청
290	24109-2015-000066	명성당엔터테인먼트	이호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14호 (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2015.05.08	영등포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291	24109-2015-000002	제이에스 (JS) 엔터테인먼트	이준석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41, 201동 1704호(마전동, 대원레스피아(자이파크))	2015.05.20	인천광역시 서구청
292	24109-2015-000012	(주)버튼쉴이엔티	강범창·소현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53, 7층(율리노6가, 헬로우에이피엔)	2015.05.20	중구청
293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8호)	제오엠 엔터테인먼트	송재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56, 102동 701호 (망포동,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2015.05.14	경기도 수원시청
294	24109-2016-000008	블레싱 엔터테인먼트	변건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25 A동 지하층 1호(양재동, 트윈타워)	2015.05.20	서초구청
295	24109-2015-000031	홀뮤직 (HOLE Music)	이상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9길 12, 2층동 (양재동)	2015.05.20	서초구청
296	24109-2015-000150	(주)와이앤비엔터테인먼트	방윤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35-3, 201호동 2층(신사동, 고향빌딩)	2015.05.19	강남구청
297	24109-2015-000153	(주)넥스트퓨처랩	권훈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90길 16, 5층(청담동)	2015.05.19	강남구청
298	24109-2015-000155	(주)어반힐스컴퍼니	김남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3길 5(신사동, 지앤지 3층)	2015.05.19	강남구청
299	24109-2015-000152	(주)후팩토리	박우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90길 68 (청담동, 201동 401호)	2015.05.19	강남구청
300	24109-2015-000157	(주)레브엔터테인먼트	김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9길 15(논현동, 5층)	2015.05.19	강남구청
301	24109-2015-000151	(주)마이더스뮤직	고세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7(논현동, 지하1층)	2015.05.19	강남구청
302	24109-2015-000156	(주)포나코리아	박소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23, 401호(신사동)	2015.05.19	강남구청
303	24109-2016-000036	쌈 엔터테인먼트	정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15, 401호(논현동)	2015.05.21	서초구청
304	24109-2015-000161	(주)쥬바스	서숙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6(역삼동, 이루미빌딩 B01)	2015.05.21	강남구청
305	24109-2015-000162	(주)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이종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39(삼성동)	2015.05.21	강남구청
306	24109-2015-000158	SMB 프로덕션	박시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502호(역삼동, 상지빌딩)	2015.05.21	강남구청
307	24109-2015-000159	(주)커스팅	안병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15, 502호(논현동, 동성빌딩)	2015.05.21	강남구청
308	24109-2015-000005 (경기도제19호)	액터스 엔터테인먼트	박태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24-5(상대원동)	2015.05.20	경기도 성남시청
309	24109-2015-000003	상떼 (Sante)	이연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32, 909동 12층 1201호(상계동, 주공9단지(자이파크))	2015.05.22	노원구청
310	24109-2015-000011	(주)파라마운트뮤직	백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3, 1203호 (여의도동, 한서오피스텔)	2015.05.01	영등포구청
311	24109-2015-000004	(주)케이엔미디어그룹	정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 14동 309호(시흥동)	2015.05.26	금천구청
312	24109-2015-000005	무비스케이치	박성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17, 라동 202호(목동, 광명주택)	2015.05.26	양천구청
313	24109-2015-000055	(주)스타제국	신주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48 (합정동)	2015.05.26	마포구청
314	24109-2017-000001	티와이뮤직 (TY Music)	추태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107-405(만수동, 향촌휴먼시아(자이파크))	2015.05.2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15	24109-2015-000012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주)	이정은·최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 801호(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2015.05.21	영등포구청
316	24109-2015-000170	(주)쇼웍스	정상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39.5층 (논현동태원빌딩)	2015.05.26	강남구청
317	24109-2015-000168	(주)원엔터테인먼트	이선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49, 4층(청담동, 후크빌딩)	2015.05.26	강남구청
318	24109-2015-000165	(주)티앤아이컬처스	유영호·배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삼성동, 인화빌딩 12층)	2015.05.26	강남구청
319	24109-2015-000163	(주)솔레이노	최영민	2 현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6길 17 (논현동)	2015.05.26	강남구청
320	24109-2015-000164	(주)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김선용·박재순·손석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2 (청담동, 인화빌딩5층)	2015.05.26	강남구청
321	24109-2015-000167	(주)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49, 3층(청담동, 후크빌딩)	2015.05.26	강남구청
322	24109-2015-000169	(주)아티스타	야마구치·피터마이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8(논현동, 3층)	2015.05.26	강남구청
323	24109-2015-000166	(주)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이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8(삼성동, 동진빌딩)	2015.05.26	강남구청
324	24109-2015-000174	(주)카이사르메디아엔터테인먼트	장익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9길 14(논현동)	2015.05.27	강남구청
325	24109-2015-000176	마임사운드웍스 (Mime Sound Works)	윤용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4길 5(개포동, 지하1층)	2015.05.27	강남구청
326	24109-2015-000177	(주)매니지먼트 동행	차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0길 9(논현동, 청석빌딩 5층)	2015.05.27	강남구청
327	24109-2015-000171	(주)스토리인	임지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9길 17, 지하1층(삼성동, 지하 B101호)	2015.05.27	강남구청
328	24109-2015-000175	더 마스터	박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1409호(논현동, 세양에이펙스타워)	2015.05.27	강남구청
329	24109-2015-000032	메이트 엔터테인먼트	윤상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33-2(잠원동, 3층 301호)	2015.05.27	서초구청
330	24109-2015-000172	매그 피알 앤 이미지 (MAG PR & Image)	이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7길 11, 302호(역삼동, 해원빌딩)	2015.05.27	강남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331	24109-2015-000178	빅컴퍼니 (주)	김재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62(신사동)	2015.05.27	강남구청
332	24109-2015-000179	(주)엠지엔터테인먼트	박준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3(논현동, 서진빌딩2층)	2015.05.27	강남구청
333	24109-2015-000033	굿모델	김현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52(잠원동, 동구빌딩4층)	2015.05.27	서초구청
334	24109-2015-000005	(주)해비치씨앤씨	장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25, 4층 (서교동)	2015.05.29	마포구청
335	24109-2017-000004	(주)원이엔티(OneEnt)(공동대표) (前(주)미르몽씨앤씨)	이준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71길 7-8(동빙고동)	2015.05.29	용산구청
336	24109-2015-000014	제이뮤직컴퍼니 (주)	전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3길 7, 지하1층(청파동3가, 지하전차)	2015.05.28	용산구청
337	24109-2015-000058	G사운드 엔터테인먼트	성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마산로11길 72, 지하1층 (상산동)	2015.05.28	마포구청
338	24109-2015-000001	카세트레코즈 (Cassette Recordz)	남지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203동 1502호(상도동, 상도에스케이빌)	2015.05.22	동작구청
339	24109-2015-000002	월드사운드 엔터테인먼트	이영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3길 43, 201호(상도동, 동아아파트)	2015.05.22	동작구청
340	24109-2015-000003	Js music Entertainment	전상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길 15(상도1동)	2015.05.22	동작구청
341	24109-2015-000056	(주)블루프린트뮤직	강지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길 74, 2층 (서교동)	2015.05.28	마포구청
342	24109-2015-000034	무신이엔티	이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5길 36, 101, 102호(반포동, 골든허니빌)	2015.05.27	서초구청
343	24109-2015-000057	투케이뮤직	김연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3길 34, 지하1층 (망원동)	2015.05.28	마포구청
344	24109-2015-000006	(주)와이에스케이미디어	정주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3층(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13층 3호)	2015.05.28	송파구청
345	24109-2015-000036	넥다운 (KNOCKDOWN)	박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28, 제2층 1,2호(반포동)	2015.05.28	서초구청
346	24109-2015-000037	(주)아레스	박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61(잠원동, 지축)	2015.05.29	서초구청
347	24109-2015-000014	(주)에스디엘엔터테인먼트 (前(주)두리퍼블릭엔터테인먼트)	윤조나단스티브(YUN JONATHAN STEV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다길 22, 2층 202호(양평동5가, 그라씨에빌딩)	2015.05.28	영등포구청
348	24109-2015-000015	영웅기획	시성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19, 12층 1207호(당산동4가, 코오롱스타플리스)	2015.05.28	영등포구청
349	24109-2015-000016	(주)장가엔터테인먼트	장하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5길 8, 102동 14층 1402호 (당산동3가, 당산계룡리슈빌2단지)	2015.05.28	영등포구청
350	24109-2015-000001	에이클라스타 (Eclat Star)	김은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56나길 29, 402호(남현동, 리오빌)	2015.05.26	관악구청
351	24109-2015-000189	디바모델에이전시	박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 440호(삼성동, LG선릉에클라트B)	2015.05.29	강남구청
352	24109-2015-000188	(주)더블유에스엔터테인먼트	안제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8 (역삼동,2층)	2015.05.29	강남구청
353	24109-2015-000192	(주)수마노엔터테인먼트	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2층 727호(논현동, 세일빌딩)	2015.05.29	강남구청
354	24109-2015-000191	(주)글로벌에이치미디어	심화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18, 4층 401호(논현동)	2015.05.29	강남구청
355	24109-2015-000190	(주)엔에이취이엠쥐	김남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5길 36(논현동)	2015.05.29	강남구청
356	24109-2015-000187	(주)인터렉티브미디어믹스	손일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7, 지하1층(논현동)	2015.05.29	강남구청
357	24109-2015-000182	(주)에이스펙코퍼레이션	유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2(청담동, 우산빌딩 13층)	2015.05.29	강남구청
358	24109-2015-000183	(주)에스팀모델	김소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6길 5-10(신사동, 압구정로테오스타빌딩 B동 3~5층, B동 104-105)	2015.05.29	강남구청
359	24109-2015-000185	(주)더콜라보레이션	임보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7(논현동, 논현동자동차전시장빌딩 5층)	2015.05.29	강남구청
360	24109-2015-000186	(주)몰레 (M. O. L. E., Inc.)	박금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37, 103호(신사동)	2015.05.29	강남구청
361	24109-2015-000184	세종엠앤씨 (주)	최용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6길 6, 2층(2016.06.13)	2015.05.29	강남구청
362	24109-2015-000003	(주)악어컴퍼니	조행덕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48-2, 3층동(명륜1가, 소석빌딩)	2015.06.01	종로구청
363	24109-2015-000007	(주)캐스팅팩토리	주영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8, 4층 401호(화곡동, 동도센터리움오피스텔)	2015.06.02	강서구청
364	24109-2015-000008	(주)로그인픽쳐스	홍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학대로45길 101, 202-702호(등촌동, 강변사르망)	2015.06.02	강서구청
365	24109-2015-000025	금강상회 (F2grm)	홍승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8번길 4, 3층 (2016.06.09)	2015.05.29	강원도청
366	24109-2015-000197	(주)얼라이브	김대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22(역삼동)	2015.06.01	강남구청
367	24109-2016-000015	(주)마블팍엔터테인먼트	박은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810호(성산동, 상암두산위브센티움)	2015.06.01	마포구청
368	24109-2015-000194	(주)미스디카	정재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8길 7(삼성동, 화이트빌딩 B1)	2015.06.01	강남구청
369	24109-2017-000016	광 엔터테인먼트	조혜성·조명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46, 3층(잠원동)	2015.06.01	서초구청
370	24109-2015-000059	(주)제이에스픽쳐스	이진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21, 5층 (서교동, 삼진제약빌딩)	2015.06.02	마포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371	24109-2015-000060	(주)골든에이트미디어	전광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11, 4층 (서교동, 태화빌딩)	2015.06.02	마포구청
372	24109-2015-000061	(주)뮤직웰	우현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5길 12, 3층 (합정동)	2015.06.02	마포구청
373	24109-2015-000062	위(OUI)엔터테인먼트	위명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08, 지하1층 (서교동)	2015.06.02	마포구청
374	24109-2015-000063	(주)루비레코드	이규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8, 6~7층(서교동, 한동출판)	2015.06.02	마포구청
375	24109-2015-000064	테이블 사운드	이원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라길 16, 3층 (서교동)	2015.06.02	마포구청
376	24109-2015-000213	케이씨에이 (K. C. A)	양승선	2 현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5길 36 (상수동)	2015.06.02	마포구청
377	24109-2015-000040	(주)정글엔터테인먼트	조선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29, 4층(서초동, 예당빌딩)	2015.06.03	서초구청
378	24109-2015-000202	(주)블러썸엔터테인먼트	지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6, 6층 (논현동, 우노빌딩)	2015.06.03	강남구청
379	24109-2016-000005	(주)아우라씨앤씨	서정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31, 503호(영랑동2가, 동아빌딩)	2015.06.03	영등포구청
380	24109-2015-000005	(주)숨엔터테인먼트	유수훈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4길 25(회현동2가)	2015.06.03	중구청
381	24109-2015-000199	(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최재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5	2015.06.03	강남구청
382	24109-2015-000011	엠플러스	장태령·황시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5-14, 210-1호동(역삼동, 아린빌딩 2층)	2015.06.01	동대문구청
383	24109-2015-000203	(주)멘토커뮤니케이션	정진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4, 502호동(도곡동, 씨티파크)	2015.06.03	강남구청
384	24109-2015-000067	A2Zentertainment	안수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8길 10 (성산동)	2015.06.03	마포구청
385	24109-2015-000066	(주)굿마이크	표영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41, 4층 (신수동, 재원빌딩)	2015.06.03	마포구청
386	24109-2016-000171	(주)제이제이홀릭미디어	채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7길 21, 2층(신사동, 서경빌딩)	2015.06.03	강남구청
387	24109-2015-000016	(주)스타엔즈엔터테인먼트 (前(주)스타엔즈엔터테인먼트)	한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97-2(원효로2가, 세명빌딩7층)	2015.06.03	용산구청
388	24109-2015-000001	chic entertainment	유성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A동 3002호 (상봉동, 상봉프리미어스옌)	2015.06.02	중랑구청
389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7호)	필보이 (FEELBOY)	황정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북로14번길 6, 101호 (오야동)	2015.05.11	경기도 성남시청
390	24109-2015-000001 (경기도제20호)	(주)허브뮤직	김영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87-43	2015.05.22	경기도 가평군청
391	24109-2015-000054	마포노뮤직	노형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60, 반지층 (합정동)	2015.05.19	마포구청
392	24109-2015-000001	(주)프로덕션이황	이혁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9, 206동 1101호(길음동, 길음뉴타운)	2015.05.07	성북구청
393	24109-2015-000017	숨이앤엠 (주)	김대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7, 702호(역삼동, 제이플라스타워)	2015.06.05	영등포구청
394	24109-2015-000070	(주)레드글로브	서기석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34, 5층 (서교동)	2015.06.05	마포구청
395	24109-2016-000004	참 엔터테인먼트	공정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가로20나길6, 202호(북가좌동)	2015.06.04	서대문구청
396	24109-2015-000002	투스타 엔터테인먼트	김엽	인천광역시남동구문현서로28번길7-8(구월동)	2015.06.0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97	24109-2015-000009	크래프트앤준 (CRAFT AND JUN)	김남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81길 5, 2층(염창동)	2015.06.08	강서구청
398	24109-2015-000041	(주)플래디스엔터테인먼트	한성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7길 5 (삼성동)	2015.03.23	강남구청
399	24109-2015-000004	(주)위드에이치씨 (with HC)	김성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87, 1층 (명륜1가)	2015.06.05	종로구청
400	24109-2015-000206	(주)엘에스엔터테인먼트	신승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32(신사동, 2층)	2015.06.08	강남구청
401	24109-2017-000008	(주)네임클로버코퍼레이션 (前(주)아이앤지엔터테인먼트)	윤수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22, 1203호(서초동, 흥우2빌딩)	2015.06.08	서초구청
402	24109-2015-000214	(주)스페라	양범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3 (논현동, 에이앤에이스포츠빌딩 4층)	2015.06.08	강남구청
403	24109-2015-000212	(주)에이치투미디어	양광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71길 22 (대치동, 대치동빌딩 지하1층)	2015.06.08	강남구청
404	24109-2015-000211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주)	강동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4길 10, 2층(역삼동, 와이에이지빌딩)	2015.06.08	강남구청
405	24109-2015-000218	(주)디퍼턴트컴퍼니	황준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9길 50-2, 3층 302호(청담동)	2015.06.08	강남구청
406	24109-2015-000213	(주)유니버설뮤직	양범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3 (논현동, 에이앤에이스포츠빌딩 4층)	2015.06.08	강남구청
407	24109-2015-000207	에이오엠지 (주)	박재범·정기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6길 5-10, 3층 302호(신사동, 압구정로데오스타)	2015.06.08	강남구청
408	24109-2015-000210	(주)에플오브디아이 (前(주)씨에이티더컬처프로드렉션)	정행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37, 201호(논현동)	2015.06.08	강남구청
409	24109-2015-000215	(주)스쿨버스엔터테인먼트	김성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38(논현동, 까사미아 비동 202호)	2015.06.08	강남구청
410	24109-2015-000001	EK Company	김범수	인천광역시 남구 석산로 12(주안동, 6층)	2015.06.08	인천광역시 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411	24109-2015-000005	오디오가이	최정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807호(내수동, 용비어천가)	2015.06.08	종로구청
412	24109-2015-000219	(주)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황동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18-7(삼성동)	2015.06.08	강남구청
413	24109-2015-000220	이야기사운드	박덕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7길 11-6(논현동)	2015.06.08	강남구청
414	24109-2015-000216	(주)비엠케이소울트레인	신승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32(신사동, 2층)	2015.06.08	강남구청
415	24109-2015-000041	(주)휴미디어공씨네	공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52, 2층(잠원동)	2015.06.09	서초구청
416	24109-2015-000006	CM 엔터테인먼트	김철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54길 8-1(목동, TG빌딩 3층)	2015.06.10	양천구청
417	24109-2017-000006	단디레코즈	안준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길 12, 4층(반포동)	2015.06.10	서초구청
418	24109-2015-000042	(주)씨오엘	조형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18, 지1층(잠원동, 주일빌딩)	2015.06.10	서초구청
419	24109-2015-000007	스카이피플엔터테인먼트	김상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63(삼전동, 4층)	2015.06.09	송파구청
420	24109-2015-000068	쇼파르뮤직 (Shofar Music)	박노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5길 19, 1층 (서교동)	2015.06.05	마포구청
421	24109-2015-000069	(주)가치컨텐츠	최성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30, 6층 (상수동, 안생빌딩)	2015.06.05	마포구청
422	24109-2015-000071	디오션뮤직 (D Ocean Music)	이창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47, 2층(동교동)	2015.06.05	마포구청
423	24109-2015-000072	(주)미러볼뮤직	이창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2층 (동교동, 유티엘동교빌딩)	2015.06.05	마포구청
424	24109-2015-000073	(주)플러그인미디어	홍정수·박영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디대로 32, 593호 (서교동, 서문빌딩)	2015.06.05	마포구청
425	24109-2015-000074	(주)파스텔뮤직	이응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30, 3층 (합정동)	2015.06.05	마포구청
426	24109-2015-000075	(주)승승장구미디어콘텐츠	이수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2동 903호 (상암동, 디엠씨이안오피스텔)	2015.06.05	마포구청
427	24109-2015-000076	(주)인벤트스톤	나경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1동 3006호 (상암동, 디엠씨이안상암)	2015.06.05	마포구청
428	24109-2016-000003	(주)윈스토리	김용복·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5길 43, 304호(2016.03.07)	2015.06.09	광진구청
429	24109-2015-000205	아툼뮤직	황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길 49, 1동 101호(역삼동)	2015.06.08	강남구청
430	24109-2015-000002	(주)기억속의매미	강문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8(성북동)	2015.06.08	성북구청
431	24109-2016-000003 (경기도제197호)	브로스이엔티	강정훈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502, 206호(금정동)	2015.05.28	경기도 군포시청
432	24109-2015-000001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김진우·김도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0길 7, 지하1층(장안동, 서희스타힐스 지하1층)	2015.05.22	동대문구청
433	24109-2015-000240	(주)마더컴퍼니엔터테인먼트	김옥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7, 3층(신사동)	2015.06.11	강남구청
434	24109-2015-000230	(주)트레저헌터	송재룡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4길 15, 2층(대치동)	2015.06.10	강남구청
435	2015-1	Bounce Music	임선택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301호(석현동, 목포벤처지원센터)	2015.06.02	전라남도청
436	24109-2015-000231	원스텝모델 매니지먼트 (one step model)	정유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1, 4층동 4층 418호(논현동, 논현동대우아이빌빌딩)	2015.06.10	강남구청
437	24109-2015-000222	(주)이앤비코퍼레이션	백승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31, 3층(논현동)	2015.06.08	강남구청
438	24109-2015-000224	엔터테인먼트아이엠 (주)	신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1, 422호(논현동, 논현동대우아이빌 빌딩)	2015.06.08	강남구청
439	24109-2015-000234	J&S Entertainment	이세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45, 1108호(빙화동, 에어뷰 21-1 오피스텔)	2015.06.10	강남구청
440	24109-2015-000235	(주)스타플레닛	이세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29,106호 (삼성동, 위즈빌딩)	2015.06.10	강남구청
441	24109-2015-000233	(주)란피플엔터테인먼트	이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8 (논현동, 진영빌딩 6층)	2015.06.10	강남구청
442	24109-2015-000223	(주)클라이믹스	최유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30, 2층(신사동, 모셔온빌딩)	2015.06.08	강남구청
443	24109-2015-000232	뿌리엔터테인먼트	김태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2길 44, 201호(논현동)	2015.06.10	강남구청
444	24109-2015-000018	(주)모델리아	김민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42길 24(한남동)	2015.06.10	용산구청
445	24109-2015-000228	잇츠모델 (It's models)	김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8길 13, 4층(2017.01.24)	2015.06.10	강남구청
446	24109-2015-000238	스타큐빅엔터테인먼트	이수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5길 8(역삼동)	2015.06.11	강남구청
447	24109-2015-000239	(주)이캐스트엔터테인먼트	양기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8길 8(개포동, 지하1층(개포동))	2015.06.11	강남구청
448	24109-2015-000241	블루브릿지	김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4길 6, 101호(삼성동, 지하)	2015.06.11	강남구청
449	24109-2015-000018	와이엠이엔엠(YME&M)	정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369호(양평동4가, 두정빌딩)	2015.06.10	영등포구청
450	24109-2015-000019	(주)다원이엔티	김선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1길 14, 1005호(양평동2가, 양평동오피스텔)	2015.06.10	영등포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451	24109-2015-000020	(주)알컴퍼니홀딩스	이창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607호 (양평동5가,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2015.06.10	영등포구청
452	24109-2014-000001	대동로텍 (주)	현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양평동37가)	2014.11.27	영등포구청
453	24109-2015-000044	스타코리아	이상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107, 3층(반포동, 삼호빌딩)	2015.06.11	서초구청
454	24109-2015-000045	인터비디엔터테인먼트	신현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잠원동, 우일빌딩 지하1층)	2015.06.11	서초구청
455	24109-2015-000002	(주)케이스타 이엔티	김형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27길 15, 2층(천호동, 백송빌딩)	2015.06.11	강동구청
456	24109-2015-000003	(주)케이스타엔터테인먼트	이민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7길 15, 2층(천호동, 백송빌딩)	2015.06.11	강동구청
457	24109-2016-000011	(주)후컴퍼니	이주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5길 24, 1102호(서초동, 풀림아이원매직)	2015.06.12	서초구청
458	24109-2015-000244	(주)이음컨텐츠	이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34, 5층(논현동, 구매하얏)	2015.06.12	강남구청
459	24109-2015-000243	유니크이엔엠 (uniq E&M)	한선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16, 5층(신사동)	2015.06.12	강남구청
460	24109-2015-000246	(주)에이스타	최상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2, 3층동(논현동, 신한빌딩)	2015.06.12	강남구청
461	24109-2015-000242	(주)유니크컴퍼니 (前(주)타임엔터)	박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16, 5층(신사동, 현대아트빌딩)	2015.06.12	강남구청
462	2015-01	몬스터레코드 (Monster Record)	이강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216번길 19(임학동)	2015.06.0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463	24109-2015-000009	에이치엠엔터테인먼트 (주)	배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601호동 (성수동2가, 서울숲에스케이브이타워)	2015.05.20	성동구청
464	24109-2015-000015	쇼캐스팅	최연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8-11, 1층동(한남동)	2015.05.29	용산구청
465	24109-2016-000085	(주)에이치엔에이치엔터테인먼트 (前(주)에이치엔에이치엔터테인먼트)	황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12, 4층(논현동, 평화빌딩)	2015.06.04	강남구청
466	24109-2015-000564	뮤직킹	노광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14, B1층 (신사동, 소망빌딩)	2015.06.15	강남구청
467	24109-2015-000003	씨피SOUND	유기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49길 19 (청량리동, 자축)	2015.06.15	동대문구청
468	24109-2015-000077	(주)스튜디오브로콜리	강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5길 6, 지하2층 204호(서교동)	2015.06.13	마포구청
469	24109-2015-000078	(주)엔플래닛	여경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2, 2층 (서교동, 대원빌딩)	2015.06.15	마포구청
470	24109-2015-000079	(주)팬스타즈컴퍼니	김대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12층 (상암동, 더팬)	2015.06.15	마포구청
471	24109-2015-000080	(주)라온미디어	정연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68-11, 2층 (성산동)	2015.06.15	마포구청
472	24109-2015-000081	(주)티핑엔터테인먼트	정연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68-11, 1층 (성산동)	2015.06.15	마포구청
473	24109-2015-000250	휴맵컨텐츠 (HUMAP CONTENTS)	이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22, 301호동(청담동)	2015.06.16	강남구청
474	24109-2015-000248	(주)개미엔터테인먼트	유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8길 4, 2층(논현동)	2015.06.15	강남구청
475	24109-2015-000247	(주)장인엔터테인먼트	장재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3-3, 3층동(신사동, 지은빌딩)	2015.06.15	강남구청
476	24109-2015-000249	(주)맵스엔터테인먼트	이현승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60, 지하2층(청담동, 제일빌딩)	2015.06.16	강남구청
477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89호)	주기획	주리라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17, 102동 2002호(2016.09.09)	2015.06.10	경기도 의정부시청
478	24109-2015-000011	(주)이큐브미디어	정철호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b동 1004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	2015.06.15	강서구청
479	24109-2015-000254	(주)클라이믹스모델컴퍼니	이진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30, 2층(신사동)	2015.06.16	강남구청
480	24109-2015-000004 (경기도제23호)	(주)모마엔터테인먼트	서영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20층동 20층(장항동, 방송지원센터빛마루)	2015.06.12	경기도 고양시청
481	24109-2015-000005 (경기도제24호)	(주)풀잎이엔엠 (공동대표)	정성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20층(장항동,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2015.06.12	경기도 고양시청
482	24109-2015-000008	(주)씨엔아트코리아	박정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46(오금동, 자하리층)	2015.06.09	송파구청
483	24109-2015-000006	(주)마코어뮤즈먼트 (MAKOAmusement, Inc.)	정준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4-1, 2층(흑석동)	2015.06.12	동작구청
484	24109-2015-000025 (경기도제179호)	에스비 커뮤니케이션즈	김준호	2. 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102동 609호(상대원동,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2015.06.09	경기도 성남시청
485	2015-0001	SV엔터테인먼트 (前서울이벤트)	황서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5길 37(오동동)	2015.05.29	경상남도청
486	24109-2015-000003	조인엔터테인먼트	김기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길 22-9, 5층 502호(불광동, 경원리디스홀)	2015.06.16	은평구청
487	24109-2015-000005	ESMMUSIC	이상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306호(사당동, 우성2단지상가)	2015.06.12	동작구청
488	2015-0002	축제기획이벤트	임병훈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75	2015.06.15	경상남도청
489	24109-2015-000086	(주)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前제이디브로스(주))	김대희·이강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9(성산동)	2015.03.03	마포구청
490	24109-2017-000053	중독자 엔터테인먼트	추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16, 3층 374호(논현동)	2015.06.17	강남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491	24109-2015-000083	롤링홀	김천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지층 (서교동)	2015.06.18	마포구청
492	24109-2015-000084	주식회사 롤링컬처원	김천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7층 (서교동)	2015.06.18	마포구청
493	24109-2015-000005	(주)탑플랜터테인먼트	최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23(연희동, 2층)	2015.06.04	서대문구청
494	24109-2015-000094	(주)포츨 (前(주)포츨엔터테인먼트)	이진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지하1층(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빌딩)	2015.06.18	서초구청
495	24109-2015-000226	(주)젠스타즈	이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9, 7층 (역삼동, 동궁빌딩)	2015.06.08	강남구청
496	제2015-02호	인디053	이창원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64(동문동, 4층)	2015.06.19	대구광역시
497	24109-2015-000095	(주)메주컬처스	이훈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83, 201호 (연남동)	2015.06.22	마포구청
498	제1호	웨이브컬렉션	최찬욱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61(수유동)	2015.06.15	강북구청
499	24109-2015-000256	(주)아이에이치큐	전용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9	2015.06.18	강남구청
500	24109-2015-000258	(주)씨엔에이치엔터테인먼트	김희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15층(논현동, 세양 APEX-TOWER 1505호)	2015.06.18	강남구청
501	24109-2015-000257	(주)베스페로엔터프라이즈	공성남·이명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8길 19, 4층동 4층(삼성동, 태형빌딩)	2015.06.18	강남구청
502	24109-2015-000251	(주)엘리트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이임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1길 12, 1층동(역삼동)	2015.06.15	강남구청
503	24109-2015-000049	(주)라인업캐스팅	임채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53길 107, 3층(반포동, 삼호빌딩)	2015.06.17	서초구청
504	24109-2015-000013	(주)엔트리	이성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준로 76, 상가동 지하층 B1호(가양동, 한보구안마을아파트)	2015.06.23	강서구청
505	24109-2015-000261	(주)유레카엔터테인먼트	김창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2길 60, 601호(신사동, 엠지타워)	2015.06.22	강남구청
506	24109-2015-000007	(주)마임엔터테인먼트	금유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2(북가좌동, 남수주상복합빌딩 1302호)	2015.06.23	서대문구청
507	24109-2015-000262	더클래스엔터테인먼트 (주)	황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40(논현동, 102호)	2015.06.22	강남구청
508	24109-2015-000266	(주)제이피컴퍼니	이상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3층)	2015.06.22	강남구청
509	24109-2015-000259	(주)도베엔터테인먼트	손화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13-9, 2층동(논현동)	2015.06.22	강남구청
510	24109-2015-000260	케이즈 엔터테인먼트(Keiz Entertainment)	이성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도곡동,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 1902호)	2015.06.22	강남구청
511	24109-2015-000265	(주)컬처마케팅그룹	김묘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2층)	2015.06.22	강남구청
512	24109-2015-000263	돌옴엔터테인먼트	임성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17, 402호(청담동)	2015.06.22	강남구청
513	24109-2016-0000130	Toin entertainment	이성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27-3, 203호(신사동, 두리빌딩)	2015.06.23	강남구청
514	24109-2015-000050	더베스트엔터테인먼트	김은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12(방배동)	2015.06.24	서초구청
515	24109-2015-000051	(주)씨에이치비 (前(주)베스트엔터테인먼트그룹)	신재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길 22, 201호(잠원동)	2015.06.24	서초구청
516	제2호	더텔레일하트 (前GMC/ESTELLA레코드)	김형군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43, 106동 406호(창동, 대우아파트)	2015.06.22	도봉구청
517	24109-2015-000088	보이스팩토리	박병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1-8, B-2호 (성산동, 동산빌딩)	2015.06.22	마포구청
518	24109-2015-000091	신촌뮤직 퍼블리싱	유희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414호(상암동)	2015.06.22	마포구청
519	24109-2015-000092	(주)레리보이스콘텐츠	김옥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산로 116-5, 2층 (연남동)	2015.06.22	마포구청
520	24109-2015-000093	BE컴퍼니	오종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401호 (서교동)	2015.06.22	마포구청
521	24109-2015-000085	(주)지니어스엔터테인먼트	이동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7길 40, 3층 (서교동)	2015.06.18	마포구청
522	24109-2015-000011	하얀달엔터테인먼트	안영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21동 601호(방이동, 올림픽 선수가자촌 아파트)	2015.06.19	송파구청
523	24109-2015-000096	(주)메르센	김재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86, 301호 (상수동, 목원빌딩)	2015.06.25	마포구청
524	24109-2015-000048	(주)뉴코스모스미디어	이창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7길 21, 201호(이촌동, 주안하우스)	2015.06.25	용산구청
525	24109-2016-000006 (경기도제25호)	(주)리웨이뮤직앤미디어	이지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52-6(판교동, 1층)	2015.06.15	경기도 성남시청
526	24109-2015-000272	(주)제이씨엔 (JCN)	최미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3, 2층(논현동, 삼주빌딩)	2015.06.26	강남구청
527	24109-2017-000003	플랜비	김성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63, 101-1603호(2017.02.20)	2015.06.29	성동구청
528	24109-2015-000268	(주)넥스타엔터테인먼트	남규석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29길 24, 302호(논현동)	2015.06.26	강남구청
529	24109-2015-000277	(주)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정영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1, 201호(청담동, 2층)	2015.06.26	강남구청
530	24109-2015-000269	창컴퍼니 주식회사	조창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4길 41, 1층동(논현동, 1-2호)	2015.06.26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531	24109-2015-000270	(주)스타클럽에프에이	최기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72, 912호(역삼동)	2015.06.26	강남구청
532	24109-2015-000271	현대중앙기획 (주)	이병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25,4층 (신사동,세비양빌딩)	2015.06.26	강남구청
533	24109-2015-000275	엠투기획 (주)	이영아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1111호(논현동, 에스케이허브블루)	2015.06.26	강남구청
534	24109-2015-000276	(주)유에이엠	정영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61(청담동, 202호)	2015.06.26	강남구청
535	24109-2015-000053	(주)케이디이앤엠(KDE&M)	박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56-18, 504호(서초동)	2015.06.26	서초구청
536	24109-2016-000195	(주)오우엔터테인먼트	유진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29, 4층(논현동)	2015.06.26	강남구청
537	24109-2015-000006	(주)서태지컴퍼니	김은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길 101, 801호 (묘동, 삼보빌딩)	2015.06.25	종로구청
538	24109-2015-000022	(주)풍경엔터테인먼트	송종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홍길 17-3, 1층 (반포동)	2015.04.24	서초구청
539	24109-2015-000001 (경기도제29호)	(주)에스크로기획	전기주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84, 202호(금정동, 한림벤처타운)	2015.06.22	경기도 군포시청
540	24109-2015-000267	(주)그리고뮤직	전태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59-4, 지하1층 (신사동,인왕빌딩)	2015.06.26	강남구청
541	24109-2015-000002 (경기도제30호)	박라인엔터테인먼트 (주)	박진복	경기도 군포시 대야로143번길 25, 102동 3층 302호(대야동, 센트럴아파트파크)	2015.06.22	경기도 군포시청
542	24109-2015-000099	제이엠스타 엔터테인먼트	김재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65, 101호 (서교동)	2015.06.26	마포구청
543	24109-2015-000001 (경기도제33호)	STREET INFINITY	조명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 308동 507호(호계동, 목련아파트)	2015.06.24	경기도 안양시청
544	24109-2015-000225	제니퍼엔터테인먼트	배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1길 13, 3층(신사동)	2015.06.08	강남구청
545	24109-2015-000252	(주)씨앤씨스쿨	조훈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9길 13, 2층(신사동)	2015.06.16	강남구청
546	24109-2015-000001 (경기도제32호)	(주)나눔엔터테인먼트	양호진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76번길 26, 1402호(철산동, 미성아이테크빌2)	2015.06.25	경기도 광명시청
547	24109-2015-000100	에스에스에스 레코드 (SSS Records)	김태현·박성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우정로 100-1 (망원동)	2015.06.29	마포구청
548	24109-2015-000012	(주)나우이엔티	박준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8 더샵스타리버 지하2층	2015.07.01	송파구청
549	24109-2015-000021	(주)오스카이엔티	전홍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103동 816호(여의도동, 더샵아일랜드파크)	2015.06.29	영등포구청
550	24109-2015-000013	(주)루아엔터테인먼트	정철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66, 206호(옥수동, 성원상대빌)	2015.06.15	성동구청
551	24109-2015-000284	데프컴퍼니 (DEF)	양선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5길 25(대치동, 건형빌딩 3층 1호)	2015.06.30	강남구청
552	24109-2015-000023	엠투엔터테인먼트(M2ent.)	정대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116-7, 2층(보광동)	2015.07.03	용산구청
553	24109-2015-000056	(주)메이드바이	진영준·하종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6길 35 (우면동)	2015.07.01	서초구청
554	24109-2015-000292	네버랜드	김세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19(논현동, 302호)	2015.07.02	강남구청
555	24109-2016-000041	(주)더온	신기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18길 5, 2층(반포동, 위너빌딩)	2015.07.02	서초구청
556	24109-2015-000295	(주)힌지	이기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9길 13(삼성동, 이호빌딩 1층)	2015.07.02	강남구청
557	24109-2015-000296	(주)에이치에이트컴퍼니	김효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16, 3층(논현동)	2015.07.02	강남구청
558	24109-2015-000297	(주)에이치컴퍼니	박정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16, 3층(논현동)	2015.07.02	강남구청
559	24109-2015-000298	(주)호인엔터테인먼트	박성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47(청담동)	2015.07.02	강남구청
560	24109-2015-000299	(주)스포트라이트	김민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09(논현동, 정빌딩 지하2층)	2015.07.02	강남구청
561	24109-2015-000300	에이치제이컬쳐 (주)	한승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1, 2층동 2층(신사동)	2015.07.02	강남구청
562	24109-2015-000301	배우마당	임나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1314호(논현동,세양에이팩스타워)	2015.07.02	강남구청
563	24109-2015-000302	(주)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전창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7길 21(신사동, 2층)	2015.07.02	강남구청
564	24109-2015-000303	(주)컴퍼니디에스	김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9 (역삼동, 주동빌딩 2층)	2015.07.02	강남구청
565	24109-2015-000290	(주)놀이엔터테인먼트	이진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3길 13(논현동, 2층)	2015.06.30	강남구청
566	24109-2016-000006	애드(ADD)엔터테인먼트 (前애드(ADD))	김동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2길 36, 지하1층(신림동)	2015.05.29	관악구청
567	24109-2015-000082	(주)엔엠에스미디어 (前(주)나무새)	김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66길 46 5층 (동교동, 민터빌딩)	2015.06.18	마포구청
568	24109-2015-000098	아메바컬쳐 (공동대표)	고경민·최재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50-11(서교동)	2015.06.26	마포구청
569	24109-2015-000001 (경기도제35호)	애드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박형민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 26, 407동 14호 (호평동, 메인사네마타워)	2015.07.01	경기도 남양주시청
570	24109-2015-000280	(주)해피트라이브엔터테인먼트	정해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9길 8(논현동, 씨엔에이빌딩 지하1층)	2015.06.30	강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571	24109-2015-000024	공감엔터테인먼트	김상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4길 4(문래동6가, 현대아파트상가)	2015.06.29	영등포구청
572	24109-2015-000293	매니지먼트 이상	이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1691호(역삼동)	2015.07.02	강남구청
573	24109-2016-000008	(주)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	권창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92, 6층(상수동)	2015.07.06	마포구청
574	24109-2016-000001	미라클에프앤씨 (주)	김명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09(제기동, 한솔동의보감)	2015.06.30	동대문구청
575	24109-2015-000282	(주)아이컨텐츠허브	이준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310호(논현동, 세양에이팩스타워)	2015.06.30	강남구청
576	24109-2015-000005	(주)아이진엔터테인먼트	김륜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32, 101호(송파동, 보승빌딩)	2015.05.27	송파구청
577	24109-2016-000173	(주)마이다스이엔티 (前주식회사헤드라인홀딩스)	문정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51-18, 3층(역삼동, 아람빌딩)	2015.06.29	강남구청
578	24109-2015-000007 (경기도제31호)	(주)다인콘텐츠컴퍼니	김영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805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에스동)	2015.06.25	경기도 성남시청
579	24109-2015-000065	(주)유씨매니지먼트	MOON HAN KYOO (문한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14, 2층(서초동, 가남빌딩 2층)	2015.07.08	서초구청
580	24109-2015-000006	블러섬랜드 (Blossomland)	최윤상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지하1층)	2015.07.09	중구청
581	24109-2015-000008	(주)클웨이브	이상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가길 80, 4층(동승동, 리트모빌딩)	2015.07.09	종로구청
582	24109-2015-000024	정실장 엔터테인먼트	정석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12길 39, 3층동(원효로4가)	2015.07.09	용산구청
583	24109-2015-000008	(주)더퍼슨엔터테인먼트	김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1-3, 406호(역삼동, 스키아타워)	2015.07.03	동작구청
584	24109-2015-000018	메이저세븐 컴퍼니	박병창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0-6, 401호(대방동)	2015.06.15	동작구청
585	24109-2015-000002	노매드뮤직(nomad music)	정선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27, 904동 702호(신내동, 신내아파트)	2015.07.06	중랑구청
586	24109-2015-000003	캐스팅브랜드	최승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7길 37 101-602(동소문동6가, 한강밸리스)	2015.07.09	성북구청
587	24109-2015-000236	옵니 주식회사 (OMNI Co., Ltd.)	김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09, 102동 401호(역삼동)	2015.06.10	강남구청
588	24109-2015-000016	어나더픽처스 (주)	배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601호(성수동2가)	2015.07.07	성동구청
589	24109-2015-000015	링크트리	이정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124-4(화곡동)	2015.07.10	강서구청
590	24109-2015-000009	플레이어스 (PALYUS)	임무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7가길 8-18, 402호(목동)	2015.07.10	양천구청
591	24109-2015-000278	(주)엘리트뮤직	박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7, 7비1층동(논현동, 일신빌딩)	2015.06.30	강남구청
592	24109-2015-000064	학 엔터테인먼트	최종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55, 지하1층(잠원동)	2015.07.08	서초구청
593	24109-2015-000063	(주)제이티엠엔터테인먼트	한재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길 31(방배동, 피스콜빌딩 2층)	2015.07.07	서초구청
594	24109-2015-000009	이즈뮤직 (前이스트이엔티)	신익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27길 38(대방동, 지층)	2015.07.07	동작구청
595	24109-2016-000005	(주)케이앤아츠	김기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랑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04.12)	2015.07.06	동작구청
596	24109-2015-000305	(주)엠버 (AMBER)	경성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0, 1층동(삼성동, 성림빌딩)	2015.07.06	강남구청
597	24109-2015-000307	뷰매니지먼트	이경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19, 302호(신사동)	2015.07.06	강남구청
598	24109-2015-000308	(주)러브아일랜드레코드	유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6길 35, 3층동(논현동)	2015.07.06	강남구청
599	24109-2015-000306	(주)코리아리딩그룹 (KoreaLeadinggroupCo.)	배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16, 2층(역삼동, 해오름빌딩 2층)	2015.07.06	강남구청
600	24109-2016-000004	(주)우리나라엔터테인먼트 (前(주)파스텔엔터테인먼트)	PARK YOUNG KYU(박영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 59길 27, 2층(등촌동)	2015.07.03	강서구청
601	24109-2015-000060	(주)라인업	최길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107, 3층(반포동, 삼호빌딩)	2015.07.06	서초구청
602	24109-2015-000007	(주)필뮤직	성정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404호(가산동, 뉴티캐슬)	2015.07.13	금천구청
603	24109-2015-000004	티 메이저 뮤직	임태완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11번길 27(석남동, 지하)	2015.07.13	인천광역시 서구청
604	24109-2015-000309	(주)솔트 이노베이션	이용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5, 909호(역삼동, 메가시티오피스텔 제9층)	2015.07.13	강남구청
605	24109-2015-000312	(주)935엔터테인먼트	시바타쿠미코 ·우치다요시 하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 41, 2층(논현동)	2015.07.13	강남구청
606	24109-2015-000006	뮤직카로마	원혜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404호(가산동, 뉴티캐슬)	2015.07.13	금천구청
607	24109-2015-000314	(주)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	이승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63(역삼동)	2015.07.13	강남구청
608	24109-2015-000313	SG연기아카데미	이승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70(역삼동, 시원빌딩)	2015.07.13	강남구청
609	24109-2015-000310	(주)케이팝유나이티드	주리차드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1664호 (역삼동,우신빌딩)	2015.07.13	강남구청
610	24109-2016-000013	(주)프리윌컴퍼니	남상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505호 (성수동1가, 서울숲1개소)	2015.07.13	성동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611	24109-2015-000027	애간장프로덕션	김희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8길 7(당산동1가)	2015.07.14	영등포구청
612	24109-2015-000028	한강이엔피 (E&P)	강경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29, 102호(양평동4가)	2015.07.14	영등포구청
613	24109-2015-000007	(주)엠쓰리디미디어아시아	임도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구 명동8나길 9(충무로1가)	2015.07.14	중구청
614	24109-2015-000106	(주)디컴퍼니 (Dee Company)	윤도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7, 5층 (합정동, 서일빌딩)	2015.07.14	마포구청
615	24109-2015-000107	(주)씨엔엘뮤직 미래광산 (공동대표)	이태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7, 3층 (합정동, 삼성빌딩)	2015.07.14	마포구청
616	24109-2015-000066	민스 뮤직 (Mins Music)	박해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9-6, 102호(양재동)	2015.07.14	서초구청
617	M0402-2015-002	(주)한국레저마케팅	김말숙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67번길 18, 6204호(죽림동, 브라운가)	2015.07.15	강원도청
618	24109-2015-000067	(주)라이트업미디어	한종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53, 4층(반포동, 금영빌딩)	2015.07.15	서초구청
619	24109-2015-000283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주)	황세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7길 3-6(신사동)	2015.06.30	강남구청
620	24109-2015-000017	(주)루모스이엔엠	김혜빈	성동구 성수이로10길 14, 709호(성수동2가, 에이스하이엔드 성수타워)	2015.07.09	성동구청
621	24109-2015-000014	(주)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	최병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98, 2층(송파동, 수정빌딩 2층)	2015.07.14	송파구청
622	24109-2015-000013	(주)토브콤	이종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7길 6, 302호(방이동, 유로캐슬)	2015.07.14	송파구청
623	24109-2015-000023	에스와이 (SY) 기획	신경식·신동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89길 17(신길동, 3층)	2015.06.29	영등포구청
624	24109-2015-000005	지미트엔터테인먼트 (G-MITENTERTAINMENT)	탁지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24, 3층 301(둔촌동)	2015.07.02	강동구청
625	24109-2015-000002 (경기도제42호)	맥스타운 엔터테인먼트	송준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로10번길 15-66, 2층 3호(벨내동)	2015.07.10	경기도 남양주시청
626	24109-2015-000006 (경기도제26호)	제이스타 (J star)	박미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28, 423호(백석동, 비전타워일산2단지)	2015.06.15	경기도 고양시청
627	24109-2015-000281	(주)스타이야기	김동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7, 5층(논현동)	2015.06.30	강남구청
628	24109-2016-000001 (경기도제43호)	엠 에이드	권오성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71-10(직동)	2015.07.10	경기도 광주시청
629	24109-2015-000327	(주)에이치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박진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3, 102호(역삼동)	2015.07.17	강남구청
630	24109-2015-000029 (경기도제146호)	GY MUSIC	주현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59번길 4-45 2층 201호 (20151112)	2015.07.03	경기도 고양시청
631	24109-2015-000010 (경기도제45호)	BK엔터테인먼트	김병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19, 202호 3004호(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2015.07.13	경기도 성남시청
632	24109-2015-000102	(주)엔에프엠프로모션	공명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14-5(서교동)	2015.06.29	마포구청
633	24109-2015-000021	소닉아일랜드	김민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40다길 55, 310호(이태원동)	2015.07.01	용산구청
634	24109-2015-000004	윙즈엔터테인먼트 (주)	김태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42(신사동, 흥익아파트 1102호)	2015.06.29	은평구청
635	2015-6430000-0005580	주식회사 씨씨엔터컴	유선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69(운천동, 지하)	2015.07.15	충청북도청
636	24109-2015-000227	2% 스튜디오	양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29(역삼동, 2층)	2015.06.08	강남구청
637	24109-2015-000129	(주)로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박성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17 (삼성동, 정석빌딩)	2015.05.11	강남구청
638	24109-2015-000253	(주)파워엠이엔티	장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48길 19, 403호(논현동, 청호빌딩)	2015.06.16	강남구청
639	24109-2015-000279	엔터테인먼트화점몽	오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5길 44(신사동, 지하 B02호)	2015.06.30	강남구청
640	24109-2015-000286	백상엔터테인먼트	허강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25-3, 지하1층동 (신사동, K서빌딩)	2015.06.30	강남구청
641	24109-2015-000287	(주)야무진	정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511호(논현동)	2015.06.30	강남구청
642	24109-2015-000288	심통엔터테인먼트 (주)	심재협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2길 40, 305호(대치동, 우성리첸)	2015.06.30	강남구청
643	24109-2015-000289	(주)쇼글로브	박영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0-9(개포동, 대현조명빌딩3층)	2015.06.30	강남구청
644	24109-2015-000315	(주)마이더스타엔터테인먼트 (前(주)제니엔터테인먼트)	박승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5, 501-7호(개포동, 석탑프라자)	2015.07.15	강남구청
645	24109-2015-000316	(주)본커뮤니케이션즈	장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49(창동, 미온빌딩 2층)	2015.07.15	강남구청
646	24109-2015-000317	(주)에이치에스엔터테인먼트 엔컨텐츠	김관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19, 34층동 3층(창동, 미온빌딩)	2015.07.15	강남구청
647	24109-2015-000318	(주)오드아이앤씨	김영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78길 44-7(역삼동)	2015.07.15	강남구청
648	24109-2015-000319	안녕뮤직	임현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19 (신사동)	2015.07.15	강남구청
649	24109-2016-000006	(주)퍼니요 (funiyo Co., Ltd.)	조한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506호 (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2015.07.15	성동구청
650	24109-2015-000322	(주)트렌드그룹(TREND GROUP)	이지선	2. 현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1, 3층 (논현동)	2015.07.15	강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651	24109-2015-000323	(주)다이아몬드원	김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6, 3층동 (역삼동)	2015.07.17	강남구청
652	24109-2015-000324	하이캐스팅	임성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602호(논현동 신정빌딩)	2015.07.17	강남구청
653	24109-2015-000325	마루기획 (주)	이재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논현동 2층)	2015.07.17	강남구청
654	24109-2015-000173	케이디에이치 (KDH) 엔터테인먼트	김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6 지하1층(반포동 703번지)	2015.07.17	서초구청
655	24109-2015-000328	힘엔터테인먼트	김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A동 401호(청담동 청담8차 상지리츠빌)	2015.07.17	강남구청
656	24109-2015-000330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정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7(청담동 3층)	2015.07.17	강남구청
657	24109-2015-000331	소리밴 컴퍼니	이소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67, 204호(역삼동, 라미스타)	2015.07.20	강남구청
658	24109-2015-000332	(주)파운데이션	조현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9(신사동, 춘곡빌딩 2층)	2015.07.20	강남구청
659	24109-2015-000333	(주)트리레이컴퍼니	전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24(청담동, 트리레이빌딩 6층)	2015.07.20	강남구청
660	24109-2015-000334	(주)그림시13044	김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8길 31, 1층(청담동)	2015.07.20	강남구청
661	24109-2015-000335	(주)모델센터인내쇼날	조항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빌딩 5층)	2015.07.20	강남구청
662	24109-2015-000336	추게이앤앰(주) (前주식회사추게미디어)	정향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9길 41-7,2층 (청담동)	2015.07.20	강남구청
663	24109-2015-000028 (경기도제145호)	(주)정현엔터테인먼트	허미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431번길 77-56, 가동(문봉동)	2015.11.11	경기도 고양시청
664	24109-2015-000338	(주)아칸엔터테인먼트	김윤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1-3, 406호(역삼동, 스키타워)	2015.07.20	강남구청
665	24109-2015-000339	제이엘 엔터테인먼트 (JL)	조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 9-6(논현동, 성우빌딩 4층)	2015.07.20	강남구청
666	24109-2015-000340	(주)베스트원이앤씨	정원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1길 12, 202호(삼성동, 알스타하우스)	2015.07.20	강남구청
667	24109-2015-000341	(주)너바다커뮤니케이션	이재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30(신사동, 2층)	2015.07.20	강남구청
668	24109-2015-000342	(주)위예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	이상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길 33, 지하1층 (역삼동)	2015.07.20	강남구청
669	24109-2015-000343	(주)서울모델 엔터테인먼트	손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157길 13(신사동, 샬롬빌딩3층)	2015.07.20	강남구청
670	24109-2015-000344	(주)아플론엔터테인먼트	양광덕	서울시 강남구 안주로 347, 4층 429호(논현동, 강남빌딩)	2015.07.20	강남구청
671	24109-2016-000006	(주)쇼플레이	임동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6층 (서린동, 관정빌딩)	2015.07.20	종로구청
672	24109-2015-000346	에스코트	김광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 27(신사동, 6층)	2015.07.20	강남구청
673	24109-2015-000347	(주)블루드래곤엔터테인먼트	전재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길 15, 405호(신사동, 금호빌딩)	2015.07.20	강남구청
674	24109-2015-000029	허니뮤직	유지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6층 690호(여의도동, 주택건설회관)	2015.07.21	영등포구청
675	24109-2015-000025	롤펜엔터테인먼트 (前간뮤직엔터테인먼트)	최태욱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산로27길 23-10(보광동)	2015.07.16	용산구청
676	24109-2017-000003	에이치오 엔터테인먼트	이재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10층 13호(장항동, 삼성래미빌)	2015.05.20	경기도 고양시청
677	24109-2016-000178	(주)호기심스튜디오 (前(주)호기심엔터테인먼트)	박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대로118길 30-12, 지1층(삼성동)	2015.07.07	강남구청
678	24109-2015-000008	(주)쌍엔터테인먼트	김경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96 (구의동)	2015.07.23	광진구청
679	24109-2015-000007	(주)골든구스엔터테인먼트	김경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96 (구의동)	2015.07.22	광진구청
680	24109-2015-000032	(주)에이비컴퍼니	김규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97, 비동 2501호(여의도동, 대우트림프빌딩2)	2015.07.21	영등포구청
681	24109-2015-000005	(주)이든나인	김남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31, 6층 602호 (자양동)	2015.07.22	광진구청
682	2015-2	엠스타컴퍼니	나상만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65(장천동)	2015.07.15	전라남도청
683	24109-2015-000008 (경기도제37호)	(주)엠씨씨엔터테인먼트	조성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28, 917호(장항동, 삼성메르헨하우스)	2015.07.08	경기도 고양시청
684	24109-2015-000073	(주)에스와이엔터테인먼트	이상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4005호 (잠원동, 라성빌딩 4층)	2015.07.20	서초구청
685	24109-2016-000044	(주)네오이엔티	김승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1, 103동913호(서초동, 대우빌딩)	2015.07.14	서초구청
686	24109-2015-000010 (경기도제50호)	안투라지프로덕션 (주)	최길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828호(장항동)	2015.07.20	경기도 고양시청
687	24109-2015-000011	프레토(주) (前케이스테이션주식회사)	이대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번지 6호 낙원빌딩 416호	2015.07.24	종로구청
688	24109-2015-000017	Good fellas Entertainment	민명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9길 10(방이동)	2015.07.23	송파구청
689	24109-2015-000068	도마엔터테인먼트	이현·김도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72-9(반포동, B1층)	2015.07.16	서초구청
690	24109-2016-000188	(주)에스에이엔터테인먼트 그룹(공동대표) (前(주)에이나인미디어)	최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 148길 19, 3층 303호(논현동, 청호빌딩)	2015.07.22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691	24109-2015-000009	아시아브릿지컨텐츠 (주)	최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63(동숭동 석마빌딩 2층)	2015.07.16	종로구청
692	24109-2015-000010	로브라더스 (주)	최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63 (동숭동 석마빌딩2층)	2015.07.22	종로구청
693	24109-2015-000007	프렌즈닷넷	이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27, 지하1층(명칭동, 이목빌딩)	2015.06.29	종로구청
694	2015-03	(주)부산예술	김혁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정로14번길 28, 116(거제동 116호 ~ 118호)	2015.07.09	부산광역시
695	24109-2015-000002 (경기도제47호)	BN Entertainment	이형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248번길 77	2015.07.16	경기도 이천시청
696	24109-2016-000001	(주)스핀지사운드	손병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5, 403호(2016.04.20)	2015.07.10	인천광역시 서구청
697	24109-2015-000004	(주)스핀지엔터테인먼트	이상목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909호 (구로동)	2015.07.10	구로구청
698	제2015-2호	(주)무등커뮤니케이션	윤삼호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8(두암동, 제상가 가동 105호 106호)	2015.06.25	광주광역시
699	24109-2015-000004	투에이블 컴퍼니 (2ABLE-COMPANY)	이동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58 (군자동)	2015.07.15	광진구청
700	24109-2015-000016	(주)행복한배우들	옥철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64, 401호(등촌동, 등촌동두산위브센터5층)	2015.07.22	강서구청
701	24109-2015-000108	팝인코리아	김형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자5길 8 2층(합정동)	2015.07.16	마포구청
702	24109-2015-000008	(주)케이오케이엔터테인먼트	노미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리로 118 1903호 (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2015.05.06	성동구청
703	24109-2015-000011 (경기도제46호)	도리미디어	석민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69번길 23(정자동, 지층)	2015.07.13	경기도 성남시청
704	24109-2016-000002	(주)레인보우티브이	안은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5길 95, 301동 302호(등촌동, 강변사르망3차)	2015.07.21	강서구청
705	24109-2015-000006	(주)코리아뮤직그룹 (前주식회사영앤문)	김용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24길 20-31(천호동, 지하1층)	2015.07.22	강동구청
706	24109-2015-000009 (경기도제44호)	내추럴리뮤직	양재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38번길 8(대화동, 1층)	2015.07.13	경기도 고양시청
707	24109-2015-000009	브로스 엔터테인먼트	김경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28길 19 (자양동)	2015.07.23	광진구청
708	24109-2017-000004	꽃분홍치마	양우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6, 103동 2층 28호 (백석동, 동문굿모닝힐)	2015.07.23	경기도 고양시청
709	24109-2015-000008	원사이드 (前뉴스칼E&M)	박성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7가길 58-21(목동)	2015.06.30	양천구청
710	24109-2015-000170	햇이슈컴퍼니	김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강남대로 305(서초동 현대래시온 305호)	2015.11.10	서초구청
711	24109-2015-000012	대박 엔터테인먼트 (db엔터테인먼트)	강정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307길 24(화곡동)	2015.06.18	강서구청
712	24109-2015-000355	(주)YG케이플러스	고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24(신사동)	2015.07.23	강남구청
713	24109-2015-000357	(주)피플에이전시	유호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20-4(논현동, 4층)	2015.07.23	강남구청
714	24109-2015-000351	(주)엔터크루	조규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2길 22(논현동, 미래빌딩 7층)	2015.07.23	강남구청
715	24109-2015-000350	(주)인뉴엔터테인먼트	성두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20, 지하1층(삼성동)	2015.07.23	강남구청
716	24109-2015-000349	하오밍 이앤엠 (HAOMING E&M)	이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삼성동)	2015.07.23	강남구청
717	24109-2016-000002	(주)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前(주)조록앤이앤엠)	김달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5층(한남동, 일신빌딩)	2015.07.23	용산구청
718	24109-2015-000352	에이치엔에이엔터테인먼트 (HnAEntertainment)	윤여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6(역삼동)	2015.07.23	강남구청
719	24109-2015-000007	마루엔터테인먼트	홍성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77, 2층(성내동, 현대코랄빌딩 2층 207호)	2015.07.23	강동구청
720	24109-2015-000019	알에스피컴퍼니	김대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8길 122-13, 지층(화곡동)	2015.07.24	강서구청
721	24109-2015-000020	제이케이피엔터테인먼트 (JKPENTERTAINMENT)	박장군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47길 7-6, 402호(공명동)	2015.07.24	강서구청
722	24109-2015-000348	개성엔터테인먼트	송동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31, 1613호(대치동, 롯데골드루즈)	2015.07.23	강남구청
723	24109-2015-000356	콩나물 공장	김한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4길 6(역삼동, 1빌딩B1)	2015.07.23	강남구청
724	24109-2015-000014	호진커뮤니케이션즈	이봉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내수동,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 205호)	2015.07.24	종로구청
725	24109-2015-000013	남뮤지컬아카데미	오정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7길 80, 4층(동숭동, 리트모빌딩)	2015.07.24	종로구청
726	24109-2015-000015	자인 이엔엠 (ZAIN E&M))	이서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90 대성빌딩 601호	2015.07.24	종로구청
727	24109-2015-000002	필그림뮤직	김종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03, 2층(도화동, 2층)	2015.07.24	인천광역시 남구청
728	24109-2017-000065	(주)에스플레이 프로젝트	임동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5, 401호(논현동)	2015.07.24	강남구청
729	24109-2015-000079	퍼플파인 엔터테인먼트	정현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8길 63, 5층(양재동, 오성빌딩)	2015.07.24	서초구청
730	24109-2015-000080	(주)조은엔터테인먼트	조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0, 지하1층(방배동, 석교빌딩 B102)	2015.07.24	서초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731	제2015-03호	프라이데이 레코즈 (Friday records)	하진석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41, 255동 407호(신매동, 서지동서타운)	2015.07.24	대구광역시
732	24109-2015-000012	(주)바를정엔터테인먼트	임정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5길 11-3, 2층(영륜3가, 2층)	2015.07.24	종로구청
733	24109-2016-000152	(주)에이치오컴퍼니 (前주식회사혜움엔터테인먼트)	김경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6길 23, 2층(청담동)	2015.07.27	강남구청
734	24109-2015-000022	모타운케이 (mtown k)	김효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달대로49길 33, 202호(화곡동)	2015.07.27	강서구청
735	24109-2015-000021	아이원 (I ONE) 엔터테인먼트	고영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46길 28, 101동 712호(화곡동, 강서 동도센터리움)	2015.07.27	강서구청
736	24109-2015-000010	디오니	김보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안길 27, 1층(창천동)	2015.07.24	서대문구청
737	24109-2015-000016	하이프컬쳐	강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로 112-4(신교동, 비101호)	2015.07.27	종로구청
738	M0402-2015-003	(주)로드 (ROAD)	정문홍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0(무실동, 10층 1001호)	2015.07.27	강원도청
739	24109-2015-000321	(주)제이에프컴퍼니	정기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19, 2층 (청담동)	2015.07.15	강남구청
740	24109-2015-000003	비에스엔터테인먼트 (BS)	김병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9길 63, 401호(면목동)	2015.07.21	중랑구청
741	24109-2015-000114	엔터브릿지 (Enter Bridge)	황인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50 (대흥동)	2015.07.22	마포구청
742	24109-2015-000003 (경기도제56호)	메이플미디어	윤태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7번길 131-2, 301호(이리동)	2015.07.23	경기도 수원시청
743	24109-2015-000019	비엔비 (B&B)	이호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83(이태원동)	2015.06.22	용산구청
744	24109-2015-000011	(주)수박이앤엠	김영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향대로 644, 401호(목동, 지연빌딩)	2015.07.28	양천구청
745	24109-2015-000008	(주)스위트파워	오카다나오미·강지영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나길 6, 402호(장충동1가, 이대캐슬14)	2015.07.27	중구청
746	24109-2015-000246	(주)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	연한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9, 4층 401호(상수동, 영재빌딩)	2015.07.20	마포구청
747	24109-2015-000005	(주)자이로픽처스	윤병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4, 403호 404호(마전동, 마전지구23블럭12롯데 세창프라자)	2015.07.20	인천광역시 서구청
748	24109-2015-000007 (경기도제36호)	알마스캐비어&뷰티	김지연	고양시 일산서구 장지길 133-6, 104동 291호(덕이동, 일산파크뷰)	2015.07.08	경기도 고양시청
749	24109-2015-000012	뮤직섬	유경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11길 60-3, 402호(목동, 다나리지빌)	2015.07.28	양천구청
750	24109-2015-000027	(주)더잭키찬그롭코리아	이미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71길 7-8(동빙고동)	2015.07.27	용산구청
751	24109-2016-0000083	(주)미앤선이앤티	전미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4길 56, 501동 803호(삼성동, 래미안삼성1차아파트)	2015.07.24	강남구청
752	24109-2015-000001 (경기도제34호)	페이퍼 레코드(Paper Record)	염종성	경기도 의왕시 새롬길 10, 101동 306호 (포일동, 동부새롬아파트)	2015.06.24	경기도 의왕시청
753	24109-2017-000002	(주)아이티엠엔터테인먼트	정민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707호(여의도동, 엘지아클라트)	2015.06.30	영등포구청
754	2015-0003	티엔에스 (TNS) 엔터테인먼트	최정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169번길 15(용호동, 레이크필스 504호)	2015.07.27	경상남도청
755	24109-2015-000112	북극곰사운드	송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7길 76-8, 2호(성산동, 송정빌라)	2015.07.21	마포구청
756	24109-2015-000030	(주)티에스이엔티아일	김태승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0길 31, 3층(한남동)	2015.07.28	용산구청
757	24109-2015-000116	커먼	황규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0-8, 201호(서교동)	2015.07.27	마포구청
758	24109-2015-000019	모델업	김기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사정1길 94-15, 513호(용답동, 오르세오피스텔)	2015.07.23	성동구청
759	24109-2015-000011	(주)에코글로벌그룹	정원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4길 30-3, 2층(성수동1가)	2015.05.29	성동구청
760	24109-2015-000006	휴먼게이트	황인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9, 지하1층 (창천동 B1)	2015.06.16	서대문구청
761	24109-2016-000019	핵스뮤직	김금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1길 6-9, 101호(2016.04.20)	2015.07.27	서초구청
762	24109-2015-000018	페이스메이커 엔터테인먼트	김일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45가길 8(등촌동, 3층전체)	2015.07.22	강서구청
763	24109-2015-000009	짱 엔터테인먼트	PER PETERSSO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재천로 204, 801호(연희동, 드리밍 아파트)	2015.07.22	서대문구청
764	24109-2015-000008	(주)쇼플러스엔터테인먼트	마해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0, 2층호(연희동, 연희빌)	2015.07.22	서대문구청
765	24109-2015-000113	(주)원원 엔터테인먼트	정승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146, B1층 (망원동, 우진빌딩)	2015.07.22	마포구청
766	24109-2017-000075	(주)집미디어	문병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7길 57, 1층(논현동)	2015.07.23	강남구청
767	24109-2015-000077	업엔터테인먼트 (前유피엔터테인먼트)	황지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4길 15, 지하1층(서초동)	2015.07.23	서초구청
768	24109-2015-000004	더블유에이콘텐츠	곽하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1길 15, 301호(공릉동)	2015.07.12	노원구청
769	24109-2015-000010	선비레코드	김종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918호(목동, 현대드림타워)	2015.07.20	양천구청
770	24109-2015-000074	(주)제이에스탑엔터테인먼트	은성희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0, 101호(서초동, 서경빌딩)	2015.07.20	서초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771	24109-2015-000582	(주)알에프엔터테인먼트	조광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1, 4층(논현동)	2015.07.01	강남구청
772	24109-2015-000585	(주)퍼즐엔터테인먼트	이중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길 13-3 3층(사동 지은빌딩)	2015.06.30	강남구청
773	24109-2015-000101	OLD RECORDS (올드레코드)	이용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6, 지하층(서교동)	2015.06.29	마포구청
774	24109-2015-000022	(주)카이로스엔터프라이즈	최준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213호(여의도동 금산빌딩)	2015.06.29	영등포구청
775	24109-2015-000018	(주)엘에스엠컴퍼니	이성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15길 13 4층 401호(관철동 삼양빌딩)	2015.07.28	종로구청
776	24109-2015-000082	엽집엔터테인먼트	박인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로 135-4(양재동 세방빌딩 B2층)	2015.07.28	서초구청
777	24109-2015-000083	(주)모마에이전시	전병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 1402호(서초동)	2015.07.28	서초구청
778	24109-2015-000017	(주)이다엔터테인먼트	손상원·김수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7(동숭동, 우성빌딩 6층)	2015.07.28	종로구청
779	24109-2015-000024	TN엔터테인먼트	노진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89(염창동)	2015.07.28	강서구청
780	24109-2015-000025	(주)제이앤에이치엔터테인먼트 (前(주)와이원엔터테인먼트)	강주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89(염창동, 지하층)	2015.07.28	강서구청
781	24109-2015-000026	월 모델 매니지먼트	김범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9길 119, 201호(화곡동, 한성아트빌)	2015.07.28	강서구청
782	24109-2015-000027	(주)크리에이티브리스트	조동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59길 80-12, 3, 4층(등촌동)	2015.07.28	강서구청
783	2015-0004	지피에엔엠 (GP E&M)	박기표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봉양로 88, C동 103호(봉암동)	2015.07.28	경상남도청
784	24109-2015-000028	(주)케이문애프렌디	이재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85길 35, 4층 401호(서계동)	2015.07.28	용산구청
785	24109-2015-000031	(주)백엔터테인먼트	백승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촌로 103, 1층동 101호(용산동2가)	2015.07.28	용산구청
786	24109-2015-000029	휴먼컨텐츠미디어	김만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9-16, 4층(한강로3가)	2015.07.28	용산구청
787	24109-2015-000010	카스트로폴로스	김윤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3가길 23, 201(흑석동)	2015.07.27	동작구청
788	24109-2015-000011	(주)에이앤엘이엔티 (A&LENTCo.Ltd)	김미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6다길 35, 비1동(연희동)	2015.07.28	서대문구청
789	24109-2015-000012	루디시스템	한국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재천로2길 3(연희동, 지층)	2015.07.28	서대문구청
790	24109-2015-000013	한엔터테인먼트	정수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48, 104동 1806호(연희동, 연희동성원아파트)	2015.07.28	서대문구청
791	24109-2015-000014	닥터나인	이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60, 10층 1001호(홍제동, 홍제동빌딩)	2015.07.28	서대문구청
792	24109-2015-000015	어나더플레이스	최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길 53, 지하1층(연희동, 싸이아파트 지하1호)	2015.07.28	서대문구청
793	24109-2015-000016	(주)프레즐프러덕션	곽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205동 15층 1502호	2015.07.28	서대문구청
794	24109-2015-000017	해적	송용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82(홍은동, 지층)	2015.07.28	서대문구청
795	24109-2015-000003	와이엠씨엔터테인먼트 (주)	조유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36(이태원동)	2015.03.02	용산구청
796	24109-2015-000043	(주)옵니시이엔엠	신성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8, 711호(여의도동, 흥우빌딩)	2015.07.28	영등포구청
797	24109-2017-000014	(주)초록엔터테인먼트	박철욱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14, 4층 401호(반포동, 임송빌딩)	2015.07.28	서초구청
798	24109-2015-000012	멜로디라인	김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1길 24 (자양동)	2015.07.27	광진구청
799	2015-05	문화소통단체 숨	차재근	부산광역시 중구 법수길 17, 1층(보수동1가)	2015.07.20	부산광역시
800	24109-2015-000041	(주)에스티매니지먼트	이준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607호(양평동2가, 동아프라이믹스)	2015.07.28	영등포구청
801	24109-2015-000117	라이트하우스	강인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114호 (마포동, 현대빌딩)	2015.07.27	마포구청
802	24109-2015-000038	(주)매니지먼트이상	이상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411호(양평동5가)	2015.07.28	영등포구청
803	24109-2015-000122	(주)케이큐엔터테인먼트 (前(주)세븐시즌스)	김규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5길 28, 지하1층3층4층 (동교동)	2015.07.28	마포구청
804	24109-2015-000364	(주)더엔터테인먼트	김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1, 601호, 602호(논현동)	2015.07.28	강남구청
805	24109-2015-000015	더블제이이엔엠 (E&M)	황종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24, 2층(잠실동)	2015.07.14	송파구청
806	24109-2016-000006	사운드바이트(Soundbite) (前틀직구뮤직)	김정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7길 24(성내동, 리딩타워)	2015.07.24	강동구청
807	24109-2015-000019	(주)싸운즈굿	이장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13-7, 101호(석촌동)	2015.07.27	송파구청
808	24109-2015-000005	KimandKim's엔터테인먼트 (前송기획)	김성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12길 42, 지층(봉천동)	2015.07.16	관악구청
809	제2015-3호	(주)21프로미디어	김영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22(불로동, 유창빌딩 4층)	2015.07.28	광주광역시
810	24109-2015-000361	(주)라운큐브	강현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3길 7, 4층(역삼동)	2015.07.28	강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811	24109-2015-000362	(주)이앤티컴퍼니코리아	함예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31길 12, 4층(논현동, 로얄2빌딩)	2015.07.28	강남구청
812	24109-2015-000363	에스앤제이 엔터테인먼트	신제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3길 13, 4층(역삼동)	2015.07.28	강남구청
813	24109-2015-000001	(주)스타즈	박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7층, 8층(부평동, 대한빌딩)	2015.07.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814	24109-2015-000028	HEM엔터테인먼트	홍의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62(가양동, 도우빌딩 지하층)	2015.07.30	강서구청
815	24109-2015-000029	하비스터엔터테인먼트	최규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준로 139, 301-205(가양동, 강변아파트)	2015.07.30	강서구청
816	24109-2015-000030	(주)스토프뮤직	김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57, 119동 618호	2015.07.30	강서구청
817	24109-2015-000373	(주)원아시아엔터테인먼트	정해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7길 37, 4층(신사동, 영빌딩)	2015.07.28	강남구청
818	24109-2015-000372	에이스모델매니지먼트	이중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13(신사동, 3층)	2015.07.28	강남구청
819	24109-2015-000365	(주)에이티엠티	신영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5길 16-3, 2층(삼성동, 엠엔제이빌딩)	2015.07.28	강남구청
820	24109-2015-000366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 (주)	현수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2(논현동)	2015.07.28	강남구청
821	24109-2015-000367	프로덕션 작품 (주)	김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2 (논현동, 지하1층)	2015.07.28	강남구청
822	24109-2015-000370	디에이치뮤직 (DH Music)	손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22길 4(대치동, 문형빌딩 지하1호)	2015.07.28	강남구청
823	24109-2015-000371	(주)제이유에스티엔터테인먼트	김병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1102호동(청담동, 정화빌딩)	2015.07.28	강남구청
824	24109-2015-000369	빅스타엔터테인먼트 (前원하우스엔터테인먼트)	박지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39, 81(논현동, 태원빌딩)	2015.07.28	강남구청
825	제2015-2호	(주)대림	정기석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63번길 18	2015.07.28	충청남도청
826	제2015-3호	KMB컴퍼니 (K-SOUND)	이혜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77-1, 2층(원성동)	2015.07.28	충청남도청
827	24109-2015-000084	(주)영화사메이플러스	김진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45(서초동, 2층)	2015.07.28	서초구청
828	24109-2015-000085	베스트엔터테인먼트	장홍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35, 4층 402호(잠원동, 우영빌딩)	2015.07.28	서초구청
829	24109-2015-000086	에버모어 (주)	권기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향로 46, 2층동(양재동)	2015.07.29	서초구청
830	24109-2015-000011	에스에이치 엔터테인먼트 (SH ENTERTAINMENT)	이승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13, 502호(상도동, 삼성래미안APT3차 상가)	2015.07.30	동작구청
831	24109-2015-000018	폴라리스에이전시	남숙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14, 1동 308호(홍은동)	2015.07.29	서대문구청
832	24109-2015-000019	(주)포레스트미디어	오봉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0(연희동, 우진빌딩 5층)	2015.07.29	서대문구청
833	24109-2015-000035	엔터존	정환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3길 2-1(신길동)	2015.07.28	영등포구청
834	24109-2015-000036	이우리엔터테인먼트	박석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915호(여의도동, 한서빌딩)	2015.07.28	영등포구청
835	24109-2015-000037	(주)큐엔터테인먼트	김재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3층 307호(문래동5가, 대림오피스텔)	2015.07.28	영등포구청
836	24109-2015-000039	(주)에성에이치에스엠	한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143, 8동 306호(여의도동, 대우트림프빌딩)	2015.07.28	영등포구청
837	24109-2016-000017	(주)제이엔에이전트	정치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1403호(상암동)	2015.07.28	마포구청
838	24109-2016-000038	(주)투어엔터테인먼트	이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5층(신사동, 성도빌딩)	2015.07.27	강남구청
839	24109-2015-000002	나인스타레코드 (前9번가레코드)	이종현	2 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35, 2201/1203(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2015.11.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840	24109-2015-000119	지누락엔터테인먼트	남진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21, 5층 (동교동, 동광빌딩)	2015.07.27	마포구청
841	24109-2015-000120	(주)에이원플러스엔터테인먼트	장승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27(합정동, 지하1층)	2015.07.27	마포구청
842	24109-2015-000124	인피니티뮤직 (주)	김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길 17 (합정동)	2015.07.29	마포구청
843	24109-2015-000004 (경기도제48호)	김프로 뮤직 (Kim pro Music)	김상태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01, 1102동 13층 1303호(목동동, 휴먼시아 해솔마을)	2015.07.16	경기도 파주시청
844	24109-2015-000390	고센엔터테인먼트 (주)	윤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18(논현동, 5층)	2015.07.30	강남구청
845	24109-2016-000003	더민	최민경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74길 13, 203호(삼성동)	2015.07.30	강동구청
846	24109-2015-000382	앨컴퍼니 (Aile company)	정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5길 23, 2층(신사동, 우진빌딩)	2015.07.30	강남구청
847	24109-2015-000378	(주)디케이엔터테인먼트	박동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5길 33, 지하층(논현동)	2015.07.30	강남구청
848	24109-2015-000387	(주)숨은그림미디어	김재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 15, 4층(논현동, 벽은빌딩)	2015.07.30	강남구청
849	24109-2015-000388	엠엔씨엘 (주)	김재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6길 15, 4층(논현동, 벽은빌딩)	2015.07.30	강남구청
850	24109-2015-000394	NIZI MUZIK (니지뮤직)	김석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6(도곡동, 지하)	2015.07.30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851	24109-2015-000397	JS Entertainment	오준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4(논현동)	2015.07.30	강남구청
852	24109-2015-000384	(주)달엔엑스엔터테인먼트	박진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2층 941호(논현동 세일빌딩)	2015.07.30	강남구청
853	24109-2015-000395	에스에이치파운데이션 (주)	송근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8길 19, 45층동 4층(청담동 엘리자벳빌딩)	2015.07.30	강남구청
854	24109-2015-000393	(주)더블유에이치컴퍼니	장우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9-10, 4층	2015.07.30	강남구청
855	24109-2015-000389	(주)씨앤아이엔터테인먼트	김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18, 지하1층(논현동)	2015.07.30	강남구청
856	24109-2015-000375	(주)씨투케이이엔티	조종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5길 4(삼성동, 3층)	2015.07.30	강남구청
857	24109-2015-000383	(주)미자리온	이시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709호(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2015.07.30	강남구청
858	24109-2015-000386	네임벨류 스타즈	홍지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4길 16-5, 101호(논현동)	2015.07.30	강남구청
859	24109-2015-000385	고래엔터테인먼트	안태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6 4층 402호(신사동)	2015.07.30	강남구청
860	24109-2015-000392	(주)더블유에이치크리에이티브	장우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9-10, 4층	2015.07.30	강남구청
861	24109-2015-000381	케이코닉 (Kconic)	양석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7길 3, B1층(역삼동)	2015.07.30	강남구청
862	24109-2015-000380	(주)오엔기획	왕니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208호(논현동, 세양에이펙스타워)	2015.07.30	강남구청
863	24109-2015-000379	(주)티오피미디어	이재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5길 47(삼성동)	2015.07.30	강남구청
864	24109-2015-000088	재키스타	신희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605(서초에클라브)	2015.07.29	서초구청
865	24109-2015-000089	잡스틱뮤직	안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65(반포동, 광혜빌딩 지층)	2015.07.29	서초구청
866	24109-2015-000090	로맨틱 팩토리	박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원로 62(서초동, 우성아파트 10동 201호)	2015.07.29	서초구청
867	24109-2015-000091	제이제이(JJ)엔터테인먼트	김정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8길 22-1, 지하1층(서초동, 성은빌딩)	2015.07.30	서초구청
868	24109-2015-000020	군스튜디오	유시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0, B1층(연희동)	2015.07.30	서대문구청
869	24109-2015-000008	엔터플랫폼	최부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30(성내동,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센터)	2015.07.30	강동구청
870	24109-2015-000010	페어뮤직 (Fair Music)	신건웅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1길 39(목정동, 지하1층)	2015.07.30	중구청
871	24109-2015-000009	(주)해라	지윤성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173(신당동, 다산아트주차장 꼬래아트센터 2층)	2015.07.30	중구청
872	24109-2015-000376	(주)마사이엔티 (공동대표)	배화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48, 501호(논현동)	2015.07.30	강남구청
873	제2015-1호	FM기획	윤봉호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259번길 1(계림동, 2층)	2015.05.27	광주광역시
874	24109-2015-000006	케이사운드 엔터테인먼트	고병식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6 503동 15층 1504호(당하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5차)	2015.07.27	인천광역시 서구청
875	24109-2015-000109	클로버컴퍼니 주식회사	안태호·박승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7, 501호 (합정동, 서일빌딩)	2015.07.20	마포구청
876	24109-2015-000133	케이팝스	김철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55-8, 202호 (성산동)	2015.07.30	마포구청
877	24109-2015-000092	제이키플레이 (J-KEY PLAY)	채준기	2 현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28길 23, 601동 303호(2016.01.21)	2015.07.30	서초구청
878	24109-2015-000093	양지엔터테인먼트	최봉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9길 7(반포동, 양지빌딩 5층)	2015.07.30	서초구청
879	24109-2015-000095	(주)벳튼컴퍼니	김성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1209호(서초동, 강남오피스텔)	2015.07.31	서초구청
880	24109-2015-000096	(주)크리에이티브어바웃 (CREATIVEABOUTCo.,Ltd)	장인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15-88, 지하양재동, 성호빌딩)	2015.07.31	서초구청
881	24109-2015-000125	쥬스미디어	김민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39, 5층(상암동)	2015.07.30	마포구청
882	24109-2015-000025	(주)신촌뮤직 (前(주)와일드뮤직컴퍼니)	김미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5길 43(연희동)	2015.07.30	서대문구청
883	24109-2015-000128	(주)쿠링뮤직	김영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2-5, 204호(동교동)	2015.07.30	마포구청
884	24109-2016-000004	미로(美路)공화국 (前미로(美路)엔터테인먼트)	정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5길 5(당산동3가)	2015.07.30	영등포구청
885	24109-2015-000130	(주)코나엠앤이	방문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24, 6층 (서교동)	2015.07.30	마포구청
886	24109-2015-000111	(주)브이엔터테인먼트	박문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 25, 지하3층 (서교동, 서교호텔빌라)	2015.07.20	마포구청
887	24109-2015-000110	(주)브이엔터테인먼트그룹	박혁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7, 501호 (합정동, 서일빌딩)	2015.07.20	마포구청
888	24109-2016-000004	(주)에스제이문화기획	이승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열-6081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브)	2015.07.06	송파구청
889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50호)	오투엔터테인먼트	정영진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114번길 140, 2층(2015.12.08)	2015.11.30	경기도 김포시청
890	24109-2015-000135	블렌드 컴퍼니	박성수·황대승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19-7, 지하1층 (망원동)	2015.07.31	마포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891	24109-2015-000071	비앤비컴퍼니(bnbcompany) (前CN미디어)	임채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5길 126, 401호(반포동)	2015.07.17	서초구청
892	24109-2015-000070	(주)올스타그룹	부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5길 126, 401호(반포동, 대 술빌딩)	2015.07.16	서초구청
893	24109-2015-000072	(주)하이영미디어그룹 (前(주)와이엘에스엔터테인먼트)	주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107(반포동, 삼호빌딩)	2015.07.17	서초구청
894	24109-2015-000031	에이치엔에스 에드컴 (HNS ADCOM)	이지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 지하1층 115-5호	2015.08.03	강서구청
895	24109-2015-000032	펀(fun)한 엔터테인먼트	오원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47, 205동 506호(가양동, 가양 2단지성자아파트)	2015.08.03	강서구청
896	24109-2015-000033	닥터심슨 컴퍼니	최찬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42길 48(내발산동)	2015.08.03	강서구청
897	24109-2016-000057	MINSOUND STORY Entertainment	박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103동 2803호(반 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015.08.03	서초구청
898	24109-2015-000033	J. J. Entertainment (제이제이엔터테인먼트)	유흥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202호	2015.08.03	용산구청
899	24109-2015-000007	디지털엔터테인먼트	고병의	서울특별시구로구 안양천로537가길 18-5, 202호 (고척동)	2015.07.24	구로구청
900	24109-2016-000107	뮤즈(MUSE)엔터테인먼트	신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길 32, 3층(논현동)	2015.07.20	강남구청
901	24109-2015-000006	별별 ACT	김형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0길 17, 202호(대조동)	2015.07.20	은평구청
902	24109-2015-000007	봉프로	김봉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19, 101동 11층 1103호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1차)	2015.07.24	은평구청
903	24109-2015-000010	랑엔터테인먼트	김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33(대조동, 4층)	2015.07.24	은평구청
904	24109-2015-000011	GTR Entertainment	유근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35, 101동 901호(응암동, 경남아파트)	2015.08.03	은평구청
905	24109-2015-000010	(주)아이엔엔터테인먼트	강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30길 8(중곡동)	2015.07.27	광진구청
906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62호)	제이블레스(J.bless)	최지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3로 33, 401동 1304호(도내 동, 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4단지)	2016.02.24	경기도 고양시청
907	24109-2015-000013	(주)리틀송	박종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60 (구의동)	2015.07.27	광진구청
908	24109-2015-000014	미미(mimi)엔터테인먼트	김성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48, 2층 (자양동)	2015.07.31	광진구청
909	24109-2015-000015	엑스 엔터테인먼트 (X entertainment)	이원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26 (자양동)	2015.07.31	광진구청
910	24109-2015-000016	레드캐슬엔터테인먼트 (前에이치에스에이전시)	전홍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5길 15-12, 2층 203호 (화양동)	2015.07.31	광진구청
911	24109-2015-000017	쇼인사이트	전종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89, 지층 1호 (자양동)	2015.07.31	광진구청
912	24109-2015-000368	톱모델 (TOPMODEL)	유성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6길 28 (신사동, 전스빌딩 B1F)	2015.07.28	강남구청
913	24109-2015-000131	에스비이엔티	신재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간길 2, 102호 (서교동)	2015.07.30	마포구청
914	24109-2015-000039	브릭스미디어	송현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21, 2층(한남동, 대우 빌딩)	2015.08.03	용산구청
915	24109-2015-000004	레고리스엔터테인먼트	조영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7, 3층 2호(중화동, 삼성빌 딩)	2015.08.03	중랑구청
916	24109-2015-000040	(주)에이티씨미디어	서승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39, 108-2호(한남동, 한남동 신상미소시티)	2015.08.03	용산구청
917	24109-2015-000009	SHOW PLAN (쇼플랜)	이창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80(길동, 동명빌딩 202호)	2015.07.30	강동구청
918	24109-2015-000035	잇츠굿 엔터테인먼트	서민균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12-2	2015.08.03	용산구청
919	24109-2015-000034	태원기획	노성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5	2015.08.03	용산구청
920	24109-2015-000011	(주)소봄	최희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2015.08.03	중구청
921	24109-2015-000097	유중	정승우·정승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8(방배동, 3층)	2015.08.03	서초구청
922	24109-2015-000098	루트뮤직 (Root)	정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방배동, 지층)	2015.08.03	서초구청
923	24109-2015-000099	(주)밀라그로	이재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21 2층(잠원동, 대능 빌딩)	2015.08.03	서초구청
924	24109-2015-000100	우연Entertainment	장태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로8길 28-3(방배동)	2015.08.03	서초구청
925	24109-2015-000007	K美star엔터테인먼트	김미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79블럭 1로트 외 7필 지 검단자이1단지 105동 201호	2015.08.03	인천광역시 서구청
926	24109-2015-000038	(주)가나다컴퍼니	임영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24, 비1층동 지하1층	2015.08.03	용산구청
927	24109-2015-000036	바이브 매니지먼트	김은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다동 2523호	2015.08.03	용산구청
928	24109-2015-000048	(주)미라클스페이스시스템	소달영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 (여의도동)	2015.07.31	영등포구청
929	24109-2016-000093	(주)마이씨엔	조형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9, 504호(논현동)	2015.08.04	강남구청
930	24109-2015-000003	머쉬룸클라우드	박현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8층 838호(구월동, 이토 타워/괴르레오피스텔)	2015.07.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931	24109-2015-000004	사운드메딕	이시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3, 1층 201호	2015.07.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932	제2015-2호	그린빈사운드 (GREEN BEAN SOUND)	천태수	대전광역시 중구 종교동 40(대흥동, 지하)	2015.08.04	대전광역시
933	24109-2015-000109	도마 음악부	오수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713호(서초동, 서초월드 오피스텔)	2015.08.04	서초구청
934	24109-2015-000110	에이스트 엔터테인먼트 (AEST ENT)	안재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9길 14-9, 405호	2015.08.04	서초구청
935	24109-2015-000111	(주)에스제이엔티(ESJENT CO.,LTD.)	김근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10길 40, 1층 102호 (양재동, 종호빌딩)	2015.08.04	서초구청
936	2015-6430000-0006056	서우ENT (엔터테인먼트)	유기현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길 31, 201호	2015.07.31	충청북도청
937	24109-2015-000105	(주)미카코리아	남동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3, 1층 101호(서초동, 리젠타워)	2015.08.04	서초구청
938	24109-2016-000101	(주)하이라이트레코즈	전상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41, B1층 1층 2층(논현동)	2015.08.04	강남구청
939	24109-2015-000591	(주)씨씨크레이브미디어	차상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16, 3층 (청담동)	2015.08.04	강남구청
940	24109-2015-000108	(주)아르테파일리	조성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48-22(잠원동, 101)	2015.08.04	서초구청
941	24109-2015-000112	엠스토리 (Mstory)	강학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3, 512호	2015.08.04	서초구청
942	24109-2016-000002	스퀴드뮤직 (前퍼니제이디비전(FunnyJi Division))	김준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바길 27-23, 102호(신림동)	2015.08.04	관악구청
943	24109-2015-000114	엠오티 엔터테인먼트(MOT Entertainment)	박성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5(방배동) 3층 엠오티 엔터테인먼트(2016.06.20)	2015.08.04	서초구청
944	24109-2015-000101	스타일 커뮤니케이션즈	한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우래로 10-6, 5층 501호(반포동, 상영빌딩)	2015.08.04	서초구청
945	24109-2015-000103	(주)그룹티아이	박영식·정상복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6, 2층(잠원동, 신사제2빌딩)	2015.08.04	서초구청
946	24109-2015-000104	(주)파인드인인터내셔널	이혜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4(반포동, 4층 401호)	2015.08.04	서초구청
947	24109-2015-000041	쿠펜터테인먼트	임재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84-5, 1층(한남동)	2015.08.05	용산구청
948	24109-2015-000021	(주)프라이빗커브	김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비동 310호(신천동, 잠실 다샵스타파크)	2015.07.30	송파구청
949	24109-2015-000022	파니스트 레코즈 (FINEST RECORDS)	박주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6길 30, 지하층 (석촌동)	2015.07.31	송파구청
950	24109-2015-000025	그라운드뮤직 (Ground Music)	김기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5번지 6동 604호	2015.07.31	송파구청
951	24109-2015-000026	에스피 (SP) 뮤직	손홍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30(석촌동, 마케란 호수상가 지하1층 101호 내)	2015.07.31	송파구청
952	24109-2015-000408	(주)에이팝엔터테인먼트 (APOPentertainmentCo.,Ltd)	윤상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341, 8층 801호, 지하1층 비01호(대치동, 인애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53	24109-2015-000474	(주)아이스타티비이	정형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1419호	2015.08.05	강남구청
954	24109-2015-000142	아루엔폴터엔터테인먼트	김호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8안길 36, 2층 (동교동)	2015.07.31	마포구청
955	24109-2015-000132	(주)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	김정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5길 8 (망원동)	2015.07.30	마포구청
956	24109-2015-000144	팔터엔터테인먼트그룹 (前토즈엔터테인먼트)	최지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6길 47, 501호 (성산동, 세인트캐슬)	2015.07.31	마포구청
957	24109-2015-000016	(주)프로시마뮤직엔터테인먼트	오귀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61, 407호(신정동, 현대프라자)	2015.08.06	양천구청
958	24109-2015-000017	두팔로 (주)(Do Follow INC)	오장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8층(신정동, 해누리타운)	2015.08.06	양천구청
959	M0402-2015-004	토니픽처스	채광영	강원도 춘천시 새롬공원갈매번길 13(석사동, 아이잼 놀이허울)	2015.08.05	강원도청
960	2015-06	(주)월드쇼마켓	김이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9(우동, 아이피파빌런 8층)	2015.07.24	부산광역시
961	2015-07	편앤조이엔터테인먼트	이성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가길 19, 712호(우동, 삼진그린아파트)	2015.07.27	부산광역시
962	2015-08	(주)팀웍픽처스	이주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24번길 43	2015.07.27	부산광역시
963	24109-2015-000035	(주)봄클럽	이호양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B동 101,102호 (성수동2가, 서울숲 SK V1 TOWER)	2015.08.05	성동구청
964	24109-2015-000036	(주)유월엔터테인먼트	유재응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B동 102호 (성수동2가, 서울숲 SK V1 TOWER)	2015.08.05	성동구청
965	24109-2015-000410	(주)인터미디어엔티	신현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75길 8, 지하1층(역삼동, 티아이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66	24109-2015-000421	(주)알앤디웍스	오훈식	2, 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25-7, 2층(논현동, 노블레스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67	24109-2015-000463	SMI 엔터테인먼트 (주)	조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610호(역삼동, 유니온센터)	2015.08.05	강남구청
968	24109-2015-000462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장상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47, 5층동 5층(논현동, 송영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69	24109-2015-000460	(주)동성제작소	김동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32, 6층동(신사동, 백현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70	24109-2015-000011	민엔터테인먼트	김영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1길 28-11(천호동, B01호)	2015.08.04	강동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971	24109-2015-000010	(주)판커뮤니케이션즈	이한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0(성내동 동훈빌딩 2층)	2015.08.04	강동구청
972	24109-2015-000006	담엔터테인먼트 (前투엘컴퍼니)	황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다길 5, 202호(상봉동, 한일씨티빌)	2015.08.06	중랑구청
973	24109-2015-000005	오름엔터테인먼트 (ORM ENT.)	최인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30길 29(면목동, 3층)	2015.08.06	중랑구청
974	24109-2015-000012	오브이엔 (OVN)	정호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화대로 1006, 816호(성내동 브라운스톤)	2015.08.04	강동구청
975	제2015-04호	에이치투커뮤니케이션즈 (H2Communications)	송민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149(중동, 3층)	2015.08.04	대구광역시
976	제2015-05호	채널인디 (channel in D)	하헌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55, 302동 401호(시지동, 고산노변타운)	2015.08.05	대구광역시
977	24109-2015-000008	케이메카	김주환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원로67길 52 (구로동, 정진빌딩)	2015.08.04	구로구청
978	24109-2015-000009	(주)에그플랜트	문대현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구로동, 코오롱사이언스밸리2차)	2015.08.04	구로구청
979	24109-2015-000010	피플 컴퍼니 (People Company)	김성익	서울특별시구로구 중앙로1길 18-19 (고척동, 우성현대아파트)	2015.08.04	구로구청
980	24109-2015-000011	미디어 포유	임형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27, 107동 602호(봉천동, 관악푸르지오1단지아파트)	2015.08.04	관악구청
981	24109-2015-000134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주) (前모던보이레코드(주))	김신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2길 45, 4층 (성산동)	2015.07.30	마포구청
982	24109-2015-000136	이고 (EGO)	고은호·이정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3, 4층 (망원동)	2015.07.31	마포구청
983	24109-2015-000137	리액션엔터테인먼트	이중엽	서울특별시 마포구양화로 45, 102동 2803호(서교동, 메세나폴리스)	2015.07.31	마포구청
984	24109-2015-000139	리마커블엔터테인먼트 (RemarkableEntertainment)	최정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릉길 19, B-325호 (상암동, 상암한화오벨리스크)	2015.07.31	마포구청
985	24109-2015-000140	(주)스타세븐	손영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15, 301호 (합정동)	2015.07.31	마포구청
986	24109-2015-000141	(주)라인엔터테인먼트	천정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2202호 (상암동, DMC 이안상업단지)	2015.07.31	마포구청
987	24109-2015-000143	선샤워 뮤직 (Sunshower Music)	강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7길 17 (망원동)	2015.07.31	마포구청
988	24109-2015-000402	(주)라운케이엔터테인먼트	곽용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6, 자충(신사동, 희봉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89	24109-2015-000052	(주)빅브로스이엔티 (前(주)빅브로스엔터테인먼트)	주승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67, 104동 607호 (양평동 2가, 신동아하이텔리스)	2015.07.31	영등포구청
990	24109-2015-000438	레벨나인(Level9) (前비언드스타즈(BeyondStarz))	정우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14, 9층(역삼동)	2015.08.05	강남구청
991	24109-2015-000440	(주)요시모토 엔터테인먼트 서울	최신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4, 1004호(논현동, DMCC 9층)	2015.08.05	강남구청
992	24109-2015-000230	에이치스타컴퍼니 (주)	황남진	2 최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36, 2층 202호(서교동, 서교빌딩)	2015.06.08	마포구청
993	24109-2015-000423	더블유 이엔엠 그룹	소용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1279-3호(청담동)	2015.08.05	강남구청
994	24109-2015-000448	(주)영클뱅	방시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8길 14, 201호(논현동, 원림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95	24109-2015-000454	(주)에스엠 컬처엔콘텐츠 (공동대표)	한세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3층(삼성동, 한섬빌딩)	2015.08.05	강남구청
996	24109-2015-000431	모닝스타크리에이티브 (주)	채재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대원빌딩 4층 엘에스03호(대치동)	2015.08.05	강남구청
997	24109-2015-000435	프라임타임뮤직	박준형·정태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길 14, 2층(개포동)	2015.08.05	강남구청
998	24109-2015-000476	캐스팅보드	박재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1길 18(신사동, 용화빌딩 2층)	2015.08.05	강남구청
999	24109-2015-000473	(주)피에프엔터테인먼트	채영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4길 36, 지하1층(역삼동, 비002)	2015.08.05	강남구청
1000	24109-2015-000475	(주)아우터	원은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6, 지층 101호(삼성동, 에이앤씨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001	24109-2015-000482	남남 엔터테인먼트	송동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5길 27(논현동, 501호)	2015.08.05	강남구청
1002	24109-2015-000477	위민모델이엔티	강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62, 102호(신사동)	2015.08.05	강남구청
1003	24109-2015-000478	사운드스토프	김상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7길 19(역삼동, 지층)	2015.08.05	강남구청
1004	24109-2015-000471	(주)뮤직큐브	신정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2 (논현동, 신한빌딩3층)	2015.08.05	강남구청
1005	24109-2017-000004	(주)만파식적	박재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9길 22(연희동)	2015.08.05	서대문구청
1006	24109-2015-000483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한세민·남소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23	2015.08.05	강남구청
1007	24109-2015-000468	컨텐츠 어스	박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1길 39, 306호(삼성동)	2015.08.05	강남구청
1008	24109-2015-000416	위엔터테인먼트컴퍼니 (주)	김성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50-12층2호 (논현동, 하이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009	24109-2015-000417	남양기획	김동익·이범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8길 23, 지하1층(역삼동)	2015.08.05	강남구청
1010	24109-2015-000470	메노뮤직	송미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6, 301호(역삼동, 정촌빌딩)	2015.08.05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011	24109-2015-000479	(주)후이미디어	이대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2-2, 115호(삼성동, 오 피스허브강남센터)	2015.08.05	강남구청
1012	24109-2015-000358	(주)코팩미디어 (KOPAC)	고승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710에이호	2015.07.27	강남구청
1013	24109-2015-000466	(주)토탈셋	김용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6길 27-3(청담동, 지하)	2015.08.05	강남구청
1014	24109-2015-000412	(주)엑티브퍼포먼스플랜 (Activeperformanceplan)	김기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3, 지하1층(논현동)	2015.08.05	강남구청
1015	24109-2015-000415	(주)플라이트	김보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0, 6층	2015.08.05	강남구청
1016	24109-2015-000405	(주)위드삼삼뮤직	서해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06, 1101호(청담동, 퍼스트 타워)	2015.08.05	강남구청
1017	24109-2015-000398	인 (in) 엔터테인먼트	이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28, B1,B2층(역삼동, 현 상BD)	2015.08.04	강남구청
1018	24109-2015-000399	(주)오앤 엔터테인먼트	안성용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길 41, 201호(논현동, 꿈에하임3 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019	24109-2015-000418	(주)이캐스트 컴퍼니	김정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8길 8(개포동, 지하1층)	2015.08.05	강남구청
1020	24109-2015-000420	제이에이치이엔티 (JH ENT)	최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33(신사동, 지우빌딩 5층)	2015.08.05	강남구청
1021	24109-2015-000419	(주)아이리시엠	방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5길 3, 5층(논현동)	2015.08.05	강남구청
1022	24109-2015-000401	(주)제이유엔터테인먼트	김진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역삼동, 4층)	2015.08.05	강남구청
1023	24109-2015-000403	(주)얼리브드엔터테인먼트	허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압구정동, 뉴타운빌딩 3층)	2015.08.05	강남구청
1024	24109-2015-000467	(주)더라임라이트뮤직컨설팅	강재덕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147길 30, 2층, 3층, 4층(논현동)	2015.08.05	강남구청
1025	24109-2015-000400	지앤지프로덕션 (주)	오성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36(도곡동, 지앤지빌딩 5층)	2015.08.05	강남구청
1026	24109-2015-000404	에이전시가르텐 (agency garten)	김장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7길28 (논현동,1-2층)	2015.08.05	강남구청
1027	24109-2015-000407	(주)제이플러스엔터테인먼트	서영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4층 4320호(잠원동, 라 성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028	24109-2015-000409	(주)이엑스컴퍼니	김재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6길 28, 비층동(논현동)	2015.08.05	강남구청
1029	24109-2015-000425	넥스타 (Nextar)	남규석·조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7, 9층 915호(역삼동, 강 남네스빌)	2015.08.05	강남구청
1030	24109-2015-000429	씨플러스 (CPlus)	최현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19(논현동, 다보빌딩 4층)	2015.08.05	강남구청
1031	24109-2015-000406	(주)엑터스타즈	최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20(신사동, 동방빌딩 201호, 3층, 401호)	2015.08.05	강남구청
1032	24109-2015-000433	레이즌 (주)	최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8, 402호(역삼동, 지엠타 운)	2015.08.05	강남구청
1033	24109-2015-000427	우리 엔터테인먼트	최진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38(논현동, 302호)	2015.08.05	강남구청
1034	24109-2015-000459	(주)와이비비엔터테인먼트	이호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6(청담동, 제이드49빌 딩 1층)	2015.08.05	강남구청
1035	24109-2015-000442	라 퍼스트 (La First)	김용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7(삼성동, 세창빌딩 5층)	2015.08.05	강남구청
1036	24109-2015-000444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6길 13-20 (논현동,청구빌 딩2층)	2015.08.05	강남구청
1037	24109-2015-000446	(주)비온드크리에이티브	방시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8길 32(논현동, 2층)	2015.08.05	강남구청
1038	24109-2015-000461	(주)고고이공이공 (前(주)에프에스이엔엠)	정한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14-5 원옥빌딩 비1(개포 동)	2015.08.05	강남구청
1039	24109-2015-000464	(주)에스와이코마드	강선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무역센터 코엑 스2층 싸-27호)	2015.08.05	강남구청
1040	24109-2015-000034	(주)몽키바나나 (前(주)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	전승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B동 101호 (성수동2 가, 서울숲 SK V1 TOWER)	2015.08.05	성동구청
1041	24109-2016-000010	(주)밀리어라운드 (前(주)캐쉬미어레코드)	이호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26-1, 3층(구의동)	2015.08.05	광진구청
1042	24109-2015-000013	루프뮤직엔터테인먼트	고남기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905-53층	2015.08.03	양천구청
1043	24109-2015-000014	엔더블류스튜디오스	이남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23(신정동, B1)	2015.08.03	양천구청
1044	24109-2015-000007	APEX 엔터테인먼트	신승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16-7(봉천동)	2015.07.31	관악구청
1045	24109-2017-000001	비오비스타컴퍼니 (前비오비코리아이엔티)	손성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302호 302호(행당동)	2015.08.07	성동구청
1046	24109-2015-000426	(주)판타지오뮤직	우영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4 층)	2015.08.05	강남구청
1047	24109-2015-000437	(주)신화사모델	신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9길 24(청담동, Y(와이)빌딩 3 층)	2015.08.05	강남구청
1048	24109-2015-000041	쇼21 (주)	박성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67-16, 5층 (성수동2가, 예 당빌딩)	2015.08.07	성동구청
1049	24109-2015-000488	크림캐스팅	송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13(논현동, 이담빌딩 5층)	2015.08.07	강남구청
1050	24109-2015-000489	(주)진엔원뮤직웍스	박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9길 22(삼성동, 2층)	2015.08.07	강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051	24109-2015-000495	(주)리앤파트너스	이승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1길 8, 4층(신사동)	2015.08.07	강남구청
1052	24109-2015-000434	(주)에이치메이트	박영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50-2번지 모아빌딩 지하1층	2015.08.05	강남구청
1053	24109-2015-000494	(주)루미먼트 엔터테인먼트	이영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8, 8층(대치동, 세왕개발빌딩)	2015.08.07	강남구청
1054	24109-2015-000424	(주)원트리즈뮤직	도희성·노종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5, 4층(삼성동, 덕봉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055	2016-000001	씨씨엠피아노 (前:원더풀데이즈)	남사육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46,4층428-15	2015.08.07	경기도 성남시청
1056	24109-2015-000487	마스엔터테인먼트	송호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4길 24,802호 (삼성동)	2015.08.07	강남구청
1057	24109-2015-000359	(주)소울패밀리프로덕션	나상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0길 11, 101호(신사동, 승운빌딩 지하)	2015.07.28	강남구청
1058	24109-2015-000422	제이엠엔터테인먼트 (jmENTERTAINMENT)	김그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36, 307호(신사동, 금광아트존1차)	2015.08.05	강남구청
1059	24109-2015-000432	(주)마크커머스	최준식	2. 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4층 엘에스35호 (대치동, 대원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060	24109-2015-000491	(주)인터파크	이상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11층(삼성동)	2015.08.07	강남구청
1061	24109-2016-000006	(주)일레븐나인	임찬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3길 26, 4,5층 (동교동)	2015.08.07	마포구청
1062	24109-2015-000496	도로시컴퍼니 (주)	신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1길 12, 1층	2015.08.07	강남구청
1063	24109-2015-000485	야누스뮤직	김영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5길 14, 지하층(논현동)	2015.08.07	강남구청
1064	24109-2015-000500	(주)온지 프렌즈	서현수·전성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12	2015.08.07	강남구청
1065	24109-2015-000498	아론엔터테인먼트	전상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4,540호 (역삼동)	2015.08.07	강남구청
1066	24109-2015-000499	엠티엠(MTM)캐스팅에이전시 (前뉴캐스팅엔터테인먼트)	변정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64길 14, 101-1304(삼성동)	2015.08.07	강남구청
1067	24109-2015-000490	(주)이스트코리아	박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33, 6층 602호(삼성동, 등우빌딩)	2015.08.07	강남구청
1068	24109-2015-000022	CCMHUB (씨씨엠허브)	김현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41-5(옥수동, 3층)	2015.08.03	성동구청
1069	24109-2015-000014	엠코어엔터테인먼트 (m-core)	이현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4가길 2, 그린빌라 1동 202호	2015.08.06	성북구청
1070	24109-2015-000021	초이 앤 몬도루	최주수·최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6길 17, 2층(성수동2가)	2015.08.03	성동구청
1071	24109-2015-000147	AUXmusic	강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8길 28, 지하1층 (동교동, 유진빌딩)	2015.08.05	마포구청
1072	24109-2015-000145	자마 (JAMA) 엔터테인먼트	윤효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78, 2층 (대흥동)	2015.08.05	마포구청
1073	24109-2015-000146	더톤 엔터테인먼트 (The Tone Ent. )	조태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105동 1302호 (산곡동, 마포팩트하우스)	2015.08.05	마포구청
1074	24109-2015-000149	블루라이트	송창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94-8 (서교동)	2015.08.05	마포구청
1075	24109-2015-000150	JM기획	박광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승문길 10, B1호 (염리동)	2015.08.05	마포구청
1076	24109-2015-000151	(주)디지털레코드	정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5길 24, 1층 (서교동)	2015.08.05	마포구청
1077	24109-2015-000153	너츠 미디어	이기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다리로 32, A동 510호(서교동, 서문빌딩)	2015.08.05	마포구청
1078	24109-2015-000154	(주)비트로	김성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5길 24, 3층 (상수동)	2015.08.05	마포구청
1079	24109-2015-000155	(주)비투엠 엔터테인먼트	길종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3길 23, 지층,1층,2층 (합정동)	2015.08.05	마포구청
1080	24109-2015-000156	로켓탄컴퍼니 (ROCKETAN)	한명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58-1, 4층 (서교동)	2015.08.05	마포구청
1081	24109-2015-000152	(주)발전소	강승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18, 101호 (합정동)	2015.08.05	마포구청
1082	24109-2016-000005	한울엔터테인먼트	이승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59, 101동 10002호(중곡동)	2015.08.05	광진구청
1083	24109-2015-000160	(주)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상암동, 팬엔터테인먼트 사옥)	2015.08.10	마포구청
1084	24109-2015-000007 (경기도제87호)	HOLYFELLA (홀리펠라)	박세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60, 102동 402호(삼곡본동, 삼곡주공아파트)	2015.08.05	경기도 부천시청
1085	24109-2015-000586	(주)핍크리에이티브	신동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70, 2층(신사동)	2015.07.29	강남구청
1086	24109-2015-000013	H&Sentertainment (에이치앤에스엔터테인먼트)	이호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8, 5층 b-13호(성내동)	2015.08.07	강동구청
1087	24109-2015-000227	(주)마이엔터테인먼트 (MyEntertainmentCo.,Ltd)	홍재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9, 에이518호 (상암동)	2015.08.11	마포구청
1088	24109-2015-000056	(주)제이비컨텐츠그룹	노건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2015.08.11	영등포구청
1089	24109-2017-000018	(주)플렉서스뮤직 (前(주)팝뮤직)	김진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31, 6층(잠원동, 아세아빌딩)	2015.08.10	서초구청
1090	24109-2015-000116	엘줄라이엔터테인먼트	이주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3, 202동 1302호(잠원동, 롯데캐슬 갤럭시아)	2015.08.10	서초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091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78호)	코니뮤직컴퍼니	한해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48-8(2016.06.07)	2015.08.10	경기도 광주시청
1092	제2015-3호	씨엔에이 (주)	최동섭	대전광역시 서구 중반9길 39(변동)	2015.08.10	대전광역시
1093	24109-2015-000008 (경기도제76호)	(주)한류트레이닝센터	박성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경기영어마을 파주 캠프 내 상업 8-2(1층)	2015.08.04	경기도 파주시청
1094	24109-2015-000439	FOLLOW ENTERTAINMENT	김성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7, 지하1층(신사동)	2015.08.05	강남구청
1095	24109-2015-000514	남스엔터테인먼트	남주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 13-6(논현동)	2015.08.11	강남구청
1096	24109-2015-000028	(주)에이치씨컴퍼니 (HC COMPANY)	조한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3길 16, 211호 (성수동1가, Biz Well 성수)	2015.08.10	성동구청
1097	24109-2015-000008	(주)일광폴라리스	유순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8길 23 (삼선동3가)	2015.08.05	성북구청
1098	24109-2015-000169	티제이알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류기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2-12, 102호	2015.08.10	마포구청
1099	24109-2015-000504	과수원뮤지컬컴퍼니	허강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21(개포동, 재선빌딩 5층)	2015.08.11	강남구청
1100	24109-2015-000512	(주)아이스타글로벌	장익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6, 7층 702호(논현동, 논현 로얄팰리스)	2015.08.11	강남구청
1101	24109-2015-000511	(주)태원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정재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6, 2층(신사동, 램프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02	24109-2015-000014 (경기도제60호)	썸엔터테인먼트	정소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95, B동 1035호 (2017.02.27)	2015.07.23	경기도 성남시청
1103	24109-2015-000004	조인스타 (joinstar)	진향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120 브라운스톤통선아파트 101동 1305호	2015.07.21	성북구청
1104	24109-2016-000003	(주)광수미디어	김종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407호 (동숭동, 동숭아트센터)	2015.07.29	종로구청
1105	24109-2015-000018	손엔터테인먼트 (S. O. N Entertainment)	손금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69, 3층(신정동)	2015.08.06	양천구청
1106	24109-2015-000374	(주)에이바엔터테인먼트 (前주식회사에이바필름앤엔 터테인먼트)	이정현·이길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2, 904호(도곡동, 우성캐릭터빌 9층)	2015.07.29	강남구청
1107	24109-2015-000441	(주)제이에스에이전시닷컴케이알	송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37-1, 2층 201호(신사동)	2015.08.05	강남구청
1108	24109-2015-000443	스타프로엔터테인먼트 (starproentertainment)	김성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 2층 328호(도곡동, 글수레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109	24109-2015-000445	티엔네이션엔터테인먼트(주) (TNNATIONEntertainmentC o.,Ltd.)	안승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길 19, 지하1층(역삼동)	2015.08.05	강남구청
1110	24109-2015-000447	맵뮤직 (M. A. P music.)	양승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9, 4층 (청담동)	2015.08.05	강남구청
1111	24109-2015-000449	(주)도우즈레코즈	정희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9길 26, 2층(역삼동)	2015.08.05	강남구청
1112	24109-2015-000450	(주)하이스타엔터테인먼트 (등기변동 신고)	전덕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42, 101호(삼성동, 좋은 사람좋은집)	2015.08.05	강남구청
1113	24109-2015-000451	(주)위드메이(WIDMAYCo.Ltd. )	안성민·박상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7-1 3층	2015.08.05	강남구청
1114	24109-2015-000453	(주)위니케이	노성욱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산대로96길 13, 6층(청담동, 팝콤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115	24109-2015-000501	(주)화제인	조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4길 11(논현동, 삼우빌딩 2층)	2015.08.11	강남구청
1116	24109-2015-000503	엔터코어 (Entercore)	강정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6길6층 (청담동, 대진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17	24109-2015-000505	콘엔터테인먼트 (주)	신은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20, 502호(논현동, 제이 에스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18	24109-2015-000506	(주)오션스타모델에이전시 (공동대표)	김상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8, 3층(논현동, 동림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19	24109-2015-000507	(주)한마루매니지먼트	정희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6-8, 2층(신사동)	2015.08.11	강남구청
1120	24109-2015-000508	아이엠윌컴퍼니	윤희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8, 3층(논현동, 동림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21	24109-2015-000509	(주)원포원엔터테인먼트	강세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33, 1026호(역삼동, 대우디오빌플러스)	2015.08.11	강남구청
1122	24109-2015-000510	(주)키로이 컴퍼니 (KIROY COMPANY CO. M LTD)	양정승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8-17	2015.08.11	강남구청
1123	24109-2015-000515	팝콘미디어	정송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6층(청담동, 경원인스텔)	2015.08.11	강남구청
1124	24109-2015-000516	(주)드림세스	노영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54 비호 (역삼동, 아로미빌2층)	2015.08.11	강남구청
1125	24109-2015-000517	샤인 엔터테인먼트	한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9길 45, B1동(삼성동)	2015.08.11	강남구청
1126	24109-2015-000518	엠아이 (M. I. Ent)	김선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14-4(개포동, 인성빌딩 지하)	2015.08.11	강남구청
1127	24109-2015-000519	(주)엔엑스티인태내셔널	이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5길 11-3, 1층(역삼동, 엔엑스티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28	24109-2015-000520	브릿지뮤직	이성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0, 지하(역삼동)	2015.08.11	강남구청
1129	24109-2015-000521	(주)봄여름가을겨울엔터테인 먼트	김종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6(삼성동, 현우빌딩 4층)	2015.08.11	강남구청
1130	24109-2015-000522	(주)텐플러스인코퍼레이티드	김종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6(삼성동, 현우빌딩 4층)	2015.08.11	강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131	24109-2015-000523	(주)스타피그엔터테인먼트	유석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10층 (역삼동)	2015.08.11	강남구청
1132	24109-2015-000524	(주)비밀엔터테인먼트	이서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등촌동, 강서아이티밸리 11층 1105-2호)	2015.08.11	강남구청
1133	24109-2015-000525	(주)제이스엔터테인먼트	안영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32	2015.08.11	강남구청
1134	24109-2015-000526	(주)스타라컴퍼니	황교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0(역삼동, 한양빌딩 3층)	2015.08.11	강남구청
1135	24109-2015-000527	모델헤드	한학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11, 4층(동신사동, 공전빌딩)	2015.08.11	강남구청
1136	24109-2015-000528	리얼보컬팩토리	장효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20(역삼동)	2015.08.11	강남구청
1137	24109-2015-000529	디에스지엔터프라이즈 (주)	신동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8-10 인현빌라 303호	2015.08.11	강남구청
1138	24109-2015-000530	365뮤직엔터테인먼트	최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562호(대치동)	2015.08.11	강남구청
1139	24109-2015-000531	8BallSound	김성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58 (삼성동)	2015.08.11	강남구청
1140	24109-2015-000532	자이온 이엔티 (주)	박정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25 (역삼동)	2015.08.11	강남구청
1141	24109-2016-000002	큰엔터테인먼트	최보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길 24, 102호(목동)	2015.08.05	양천구청
1142	24109-2015-000002 (경기도제78호)	예윤 엔터테인먼트	장미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52, 602동 1506호(인창동, 아름마을일신건영아파트 2차)	2015.08.05	경기도 구리시청
1143	24109-2015-000034	엘케이투뮤직	김성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0길 41-14, 103동 402호(등촌동, 세왕빌라)	2015.08.11	강서구청
1144	24109-2015-000014	리퀴드뮤직컴퍼니	주형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57(행당동, 칠성빌딩 지하2층)	2015.06.18	성동구청
1145	24109-2015-000018	6엔터테인먼트	육현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들레5길 7, 101동 1113호 (성수동2가)	2015.07.16	성동구청
1146	24109-2015-000020	씨제스모델에디션 (주)	백창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성수동 1가, 코오롱 디지털타워 206호)	2015.07.24	성동구청
1147	24109-2015-000119	(주)삼승이앤엠홀딩스	이호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57, 비동 지하호	2015.08.11	서초구청
1148	24109-2015-000120	(주)팔레트커뮤니케이션즈	송문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67, 3층(잠원동, 지오빌 3층)	2015.08.11	서초구청
1149	24109-2015-000121	(주)베스트원미디어	황인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20, 503호(잠원동, 신화빌딩)	2015.08.11	서초구청
1150	24109-2015-000122	(주)도니앤	정형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1, 1703호(서초동, 서초대우 디오빌)	2015.08.11	서초구청
1151	24109-2015-000123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박태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85, 지중동(서초동)	2015.08.11	서초구청
1152	24109-2017-000074	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	여지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3길 22, B02호(삼성동)	2015.08.11	강남구청
1153	24109-2015-000125	해바라기뮤직	이주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14(반포동, 지하1층)	2015.08.11	서초구청
1154	24109-2015-000127	(주)비엠펜터테인먼트	봉명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97, 다동 301호 (반포동, 유진)	2015.08.12	서초구청
1155	24109-2015-000129	(주)브라더스레코드	임현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8, B11호동(서초동, 경원빌딩 지하1층)	2015.08.12	서초구청
1156	24109-2015-000130	베스트뮤직	김남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9길 21(방배동, 지중)	2015.08.12	서초구청
1157	24109-2015-000131	(주)폴엔터테인먼트	이용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9	2015.08.12	서초구청
1158	24109-2015-000132	(주)파인데이 (Fine Day)	이용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9길 73-31, 1층 102호	2015.08.12	서초구청
1159	24109-2015-000133	(주)부활엔터테인먼트	이용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9	2015.08.12	서초구청
1160	24109-2015-000134	스튜디오 픽처	최경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4	2015.08.12	서초구청
1161	24109-2015-000135	제롬엔터테인먼트	이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3, 5층 L165호(서초동, 아트스페이스210빌딩)	2015.08.12	서초구청
1162	24109-2015-000136	(주)본스타컴퍼니	홍기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9(잠원동)	2015.08.13	서초구청
1163	24109-2015-000137	비트원컴퍼니 (前크리에이터즈)	장용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2층(잠원동, 대능빌딩)	2015.08.13	서초구청
1164	24109-2015-000012	(주)디오씨씨	안종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35(사당동, 2층)	2015.08.04	동작구청
1165	24109-2015-000013	보이스엔터테인먼트	안해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5길 23-3, 4층 402호	2015.08.04	동작구청
1166	24109-2015-000014	디퍼레코드	송지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98(상도동, 지하)	2015.08.11	동작구청
1167	24109-2016-000045	(주)배드보스컴퍼니	조재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45길 23(연남동)	2015.08.12	마포구청
1168	24109-2015-000005	(주)레인보우	하민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54(답십리동, 태양상가 바2호)	2015.07.24	동대문구청
1169	24109-2017-000010	경앤컴퍼니(주) (前경엔터테인먼트(주))	김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21-1, 2층 (상수동, 알에스디티)	2015.08.07	마포구청
1170	24109-2015-000007	4U엔터테인먼트	박한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44 (제기동)	2015.08.07	동대문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171	24109-2015-000008	캐스팅 4U	박한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44(제기동)	2015.08.07	동대문구청
1172	24109-2015-000009	(주)에이치엠아이	김동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64(장안동, 금릉빌딩 201호)	2015.08.07	동대문구청
1173	24109-2015-000026	에일기획	김성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7, 701호(여의도동, 서린빌딩)	2015.07.03	영등포구청
1174	24109-2015-000030	마이크 엔터테인먼트 (mic)	오민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961호 (여의도동, 정곡빌딩)	2015.07.21	영등포구청
1175	24109-2015-000034	(주)디오엔터테인먼트	이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4, 602호(여의도동, 호성빌딩본관)	2015.07.21	영등포구청
1176	24109-2015-000044	(주)라원문화	장성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323호(여의도동, 라이프콤 빌딩)	2015.07.31	영등포구청
1177	24109-2015-000045	덕인미디어	최용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209호(여의도동, 한서리비파크)	2015.07.31	영등포구청
1178	24109-2015-000047	뮤직팩토리	김태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1길 34-1, 지하동(양평동4가, 재강빌딩)	2015.07.31	영등포구청
1179	24109-2015-000049	미디어코드	노창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501동 1903호(여의도동, 여의도자이)	2015.07.31	영등포구청
1180	24109-2015-000050	(주)뉴에이블	김영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707호(여의도동, 진미파라곤)	2015.07.31	영등포구청
1181	24109-2015-000051	(주)와이와이제이엔터테인먼트	윤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3동 1002호(여의도동, 대교아파트)	2015.07.31	영등포구청
1182	제2015-001호	이김	이승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147호(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2015.07.23	전라북도청
1183	제2015-002호	튜나무직 (Tunamusic)	김주영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길 21-3, 101동 1504호(월명동, 현대오솔아파트)	2015.07.27	전라북도청
1184	제2015-4호	(주)나라종합엔터테인먼트	나성균	대전 서구 갈매동 237 3층(교정동)	2015.08.12	대전광역시
1185	24109-2015-000186	(주)맥스프로엔터테인먼트(MAXPRO)	신훈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4길 18, 1118호(마포동)	2015.08.17	마포구청
1186	제4호	캐스팅아이	가선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7가길 25, 203호(도봉동)	2015.08.05	도봉구청
1187	24109-2015-000015	(주)에렌엔터테인먼트	이동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나길 57, 101동 705호 (사당동, 케이씨씨아파트)	2015.08.17	동작구청
1188	24109-2015-000008	자연기획	이태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6길 2, 104호 (봉천동, 캠퍼스빌리지M)	2015.08.03	관악구청
1189	24109-2015-000197	(주)와이드엔터테인먼트	김경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울마당로 35, 201-2호(서교동)	2015.08.17	마포구청
1190	24109-2015-000141	(주)아인홀딩스(엘엔홀딩스)	김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29, 4층동 1층(서초동, 예당빌딩)	2015.08.18	서초구청
1191	24109-2015-000142	에프엠지 (주)	박석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2층 (잠원동, 대능빌딩)	2015.08.18	서초구청
1192	24109-2015-000143	지. 와이. 엠 엔터테인먼트	은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6, 1호(반포동, 태영빌딩 지하)	2015.08.18	서초구청
1193	24109-2015-000139	주니네트웍엔터테인먼트 (주)	김해량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3길 26(방배동, 진주빌딩)	2015.08.17	서초구청
1194	24109-2015-000140	(주)블루스타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추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6(청담동, 제이드빌딩 6층)	2015.08.17	서초구청
1195	24109-2015-000002 (경기도제53호)	(주)리버엔터테인먼트	임계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90, 112동 101호(평촌동, 인덕원대우아파트)	2015.07.22	경기도 안양시청
1196	24109-2015-000185	캔이엔티 (CANENT)	박성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9길 30, 지하1층(상수동, 지하 1층)	2015.08.17	마포구청
1197	24109-2015-000023 (경기도제104호)	3Tension	신현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6, 611호(텍스타워)	2015.08.11	경기도 성남시청
1198	24109-2016-000030	엠브리카 뮤직	윤재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5길 22, 2층 201호(양재동)	2015.08.05	서초구청
1199	24109-2015-000015 (경기도제74호)	골드 엔터테인먼트	황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1로 7, 1층(덕은동)	2015.08.04	경기도 고양시청
1200	24109-2015-000535	(주)원앤원스타즈 (OneandoneStarsCo.,Ltd)	김승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0길 16, 4층 2호(신사동, 제이에스빌딩)	2015.08.20	강남구청
1201	24109-2015-000537	(주)픽처퍼펙트	김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73길 48, 지하층 (삼성동, 희성빌딩)	2015.08.20	강남구청
1202	24109-2015-000179	(주)하이그라운드	이다니엘선웅	서울특별시 마포구와우산로72,4층(서교동)	2015.08.13	마포구청
1203	24109-2015-000180	(주)코레스타미디어	노성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44, 201호(성산동, 교흥빌딩)	2015.08.13	마포구청
1204	24109-2015-000181	제이스타즈 엔터테인먼트 (Jstars ent)	정찬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10(서교동, 시연빌딩 3층)	2015.08.13	마포구청
1205	24109-2015-000182	에이에이피 (AAP)	백명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나길 23, B102호(서교동, 화이트룸)	2015.08.13	마포구청
1206	2016-000001	에이치엔에스 에이치큐 (HNS HQ)	김교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나길 18, 506호	2015.08.13	경기도 성남시청
1207	24109-2015-000184	케이팝인스티튜트 (주)(K-pop Institute)	김성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1417호동(공덕동, 마포현대하이엘)	2015.08.17	마포구청
1208	24109-2015-000187	CS뮤직앤 (CS MUSIC&)	정승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상암동, KGT 상암센터 506, 512~516호)	2015.08.17	마포구청
1209	24109-2015-000188	(주)크리에이티브꽃	박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207호(성산동)	2015.08.17	마포구청
1210	24109-2015-000189	(주)중앙비전	유성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10, B11호(공덕동)	2015.08.17	마포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211	24109-2015-000190	(주)와이케이미디어플러스	손영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23(상암동, 제일라이트홀 5층 502호)	2015.08.17	마포구청
1212	24109-2015-000192	물고기컴퍼니 (前물고기뮤직)	신정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길 40 201호(연남동 유진빌라)	2015.08.17	마포구청
1213	24109-2015-000193	테이크 노트	송학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60(연남동, 3층)	2015.08.17	마포구청
1214	24109-2015-000194	버튼매니지먼트	김철희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140-8,301호(서교동)	2015.08.17	마포구청
1215	24109-2015-000195	필로스플래닛 (philo's planet)	신재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7길 22-8	2015.08.17	마포구청
1216	24109-2015-000196	(주)부다레코드	조병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6, 302호(합정동, 평산빌딩)	2015.08.17	마포구청
1217	24109-2015-000198	DOPE ENTERTAINMENT	김윤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2015.08.17	마포구청
1218	24109-2017-000064	(주)공연세상	송선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77길 15, 4층(대치동)	2015.08.18	강남구청
1219	24109-2015-000200	퍼플슈 컴퍼니 (Purple Shoe Company)	진호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95, 322호(염리동, 삼부골든타워)	2015.08.18	마포구청
1220	24109-2015-000201	아름다운동행	송선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9(상수동, 영재빌딩2층)	2015.08.18	마포구청
1221	24109-2015-000202	(주)와이지 엔터테인먼트	양민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우정로1길 3(합정동)	2015.08.18	마포구청
1222	24109-2016-000161	(주)케이컬레코드	최학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8길 45, 지하1층(도곡동, 명성빌딩)	2015.08.18	강남구청
1223	24109-2015-000205	그레이터 폴즈 레코드	최근·한병준·최준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35	2015.08.18	마포구청
1224	24109-2015-000206	열린음악 (The Open Music)	김봉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길 7(동교동, 석산빌딩 3층)	2015.08.18	마포구청
1225	24109-2015-000207	몬스터컴퍼니	김세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우로로 76, 1507호(도화동, 고려아파트)	2015.08.19	마포구청
1226	24109-2015-000208	스티즈	이윤희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140-8,3층303호(서교동)	2015.08.19	마포구청
1227	24109-2015-000209	스테이골드 (STAYGOLD)	노진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마산로 116-6(연남동)	2015.08.19	마포구청
1228	24109-2015-000210	재즈파티	이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1길 12(창전동, 지하전부)	2015.08.19	마포구청
1229	24109-2015-000211	(주)위넷웍스	현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5	2015.08.20	마포구청
1230	24109-2015-000212	(주)식스틴미디어	서만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동교동, 엘지빌딩 1814호)	2015.08.20	마포구청
1231	24109-2015-000002 (경기도제28호)	로즈큐 (ROSE Q) 엔터테인먼트	구진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90번길 12, 3층 303호(정자동, 신안네르빌303호 ~ 303호)	2015.06.15	경기도 수원시청
1232	24109-2015-000008 (경기도제38호)	페포니 뮤직	이진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번길 16-4(정자동)	2015.07.03	경기도 성남시청
1233	24109-2015-000011 (경기도제51호)	(주)스토리엔터테인먼트	배선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2층동 1202호(장항동, 빛마루방송지원센터)	2015.07.20	경기도 고양시청
1234	24109-2015-000012 (경기도제52호)	(주)스토리티비	배선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장항동,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2층2호)	2015.07.20	경기도 고양시청
1235	24109-2015-000006 (경기도제54호)	드림 엔터테인먼트	김선중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36	2015.07.22	경기도 파주시청
1236	24109-2015-000001 (경기도제55호)	6.5뮤직	박영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 211호(고잔동, 폴리타운)	2015.07.22	경기도 안산시청
1237	24109-2015-000004 (경기도제57호)	(주)큐엑터스	한수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30, 907호(이의동, 아우리타워오피스텔)	2015.07.23	경기도 수원시청
1238	24109-2015-000012 (경기도제58호)	제이비사삼삼 (JB433)	김용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2, 609동 1805호 (삼평동, 봇들마을)	2015.07.23	경기도 성남시청
1239	24109-2015-000003 (경기도제62호)	(주)우리기획	백희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평로 23, 301호(괴안동, 정동빌딩)	2015.07.27	경기도 부천시청
1240	24109-2015-000002 (경기도제63호)	H.I 엔터테인먼트	박인규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31번길 45, 103동 203호(광명동, 제일광명제아파트)	2015.07.31	경기도 광명시청
1241	24109-2015-000015 (경기도제64호)	SSP엔터테인먼트	한상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로 197, 308호(정자동, 정자동2차푸르지오시티)	2015.07.31	경기도 성남시청
1242	24109-2015-000003 (경기도제65호)	엔터테인먼트 張	장운철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6번길 28-16, 202호(별내동)·한빛빌리지	2015.07.31	경기도 남양주시청
1243	24109-2015-000004 (경기도제67호)	(주)세븐유니온엔터테인먼트	김현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9(역곡동, 지하1층)	2015.07.31	경기도 부천시청
1244	24109-2015-000013 (경기도제68호)	이피플코리아	이형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5(행신동, 무원마을 서광 1001-303호)	2015.07.31	경기도 고양시청
1245	24109-2015-000016 (경기도제69호)	씨원캐스팅 (前나인캐스트)	김보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번길 5, 1층	2015.08.03	경기도 성남시청
1246	24109-2015-000002 (경기도제70호)	온 엔터테인먼트(On Entertainment)	김승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월포공원1로 64(초지동, 키즈타운 203호 ~ 204호)	2015.08.03	경기도 안산시청
1247	화성시-2015-2 (경기도제71호)	(주)모노 (Mono Co. Ltd)	김영한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23-11, 914호(석우동)	2015.08.03	경기도 화성시청
1248	24109-2015-000002 (경기도제72호)	세화 엔터테인먼트	이지훈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143-40, 104동 402호(회덕동, 상록파크타운)	2015.08.03	경기도 광주시청
1249	24109-2015-000014 (경기도제73호)	케이타이거즈 (주)	안학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3 원당 e편한세상 119동 503호	2015.08.04	경기도 고양시청
1250	24109-2015-000007 (경기도제75호)	(주)대길이에스	김문희·김구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160, 1층	2015.08.04	경기도 파주시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251	24109-2015-000001 (경기도제77호)	MY엔터테인먼트	김유식	경기도 구리시 장차대로37번길 55, 101동 1301호(교문동 덕현아파트)	2015.08.05	경기도 구리시청
1252	24109-2015-000003 (경기도제80호)	제이라인	임종혁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12-6 숲속의궁전 302호	2015.08.05	경기도 광주시청
1253	24109-2015-000001 (경기도제81호)	굿 (Good) 엔터테인먼트	이동진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349-15(창우동 101호)	2015.08.07	경기도 하남시청
1254	24109-2015-000003 (경기도제84호)	아임프롬 (I'm from)	이수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30, 114동 1901호(호계동 호계-편한세상아파트)	2015.08.05	경기도 안양시청
1255	24109-2015-000017 (경기도제88호)	킹덤엔터테인먼트	김관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16 509동 513호 (수내동 대덕프라자)	2015.08.06	경기도 성남시청
1256	24109-2015-000004 (경기도제89호)	맘엔터테인먼트	선세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19번길 8, 105동 606호(석수동 석수경남아너스빌105동 606호 ~ 606호)	2015.08.06	경기도 안양시청
1257	24109-2015-000018 (경기도제90호)	JR뮤직	장승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1(아탑동 남서울프라자 지하1층 B102호)	2015.08.06	경기도 성남시청
1258	24109-2015-000020 (경기도제91호)	(주)비손콘텐츠	하성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 303호(삼평동 유스페이스)	2015.08.06	경기도 성남시청
1259	24109-2017-000007	(주)블루드림엔스타 (前(주)유니코쇼비즈(VICOShowbizCo.Ltd))	박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57, 402호(금호동4가 세보빌딩)	2015.08.11	성동구청
1260	24109-2015-000017 (경기도제93호)	(주)셀라	석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휴먼빌차아파트 108동 901호	2015.08.11	경기도 고양시청
1261	24109-2016-000054	(주)더피움이엔티 (前(주)더피움)	최용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1, 1902호(반포동 대של빌딩)	2015.08.11	서초구청
1262	24109-2015-000020 (경기도제96호)	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	이선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터1로 7(사사동 위시터일산 블루밍5단지 506동 2201호)	2015.08.11	경기도 고양시청
1263	24109-2015-000021 (경기도제97호)	아움 프로덕션스	최진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1, 415동 1901호 (덕이동 신동아파빌리에4단지)	2015.08.11	경기도 고양시청
1264	24109-2015-000002 (경기도제99호)	머틀컴퍼니 (Myrtle Company)	이재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11, 4506동 2502(상현동 광교마을 45단지)	2015.08.11	경기도 용인시청
1265	24109-2015-000005 (경기도제100호)	넘버원엔터테인먼트	이기오·김영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102동 404호(울전동 삼삼아파트)	2015.08.11	경기도 수원시청
1266	24109-2015-000019 (경기도제101호)	레몬 엔터테인먼트	김태영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325번지지하1층	2015.08.11	경기도 성남시청
1267	24109-2015-000022 (경기도제102호)	웰스프링엔터테인먼트 (WELLSPRINGEntertainment)	이현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93 A-405	2015.08.11	경기도 성남시청
1268	24109-2015-000006 (경기도제103호)	메이플 뮤직	백송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99	2015.08.11	경기도 수원시청
1269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05호)	(주)엠씨피	이재환	경기도 의왕시 봇들3길 13	2015.08.11	경기도 의왕시청
1270	24109-2015-000022 (경기도제106호)	(주)보단웍스	김뿌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145(마두동 2층3호(297호))	2015.08.11	경기도 고양시청
1271	24109-2015-000024 (경기도제107호)	애비로드(ABBAYROAD)	유선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 B동 3층 366호(백현동, SK-HUB)	2015.08.11	경기도 성남시청
1272	24109-2015-000026 (경기도제108호)	전인권 컴퍼니	정혜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자봉로 3, 505호	2015.08.11	경기도 성남시청
1273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09호)	(주)엠프뮤직	안지홍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반딧불이길 16, 12호(갑을빌리지)	2015.08.11	경기도 양평군청
1274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10호)	JH엔터테인먼트	맹유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69, 604동 301호(2016.08.24)	2015.08.11	경기도 김포시청
1275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11호)	씨엔엔터테인먼트 (C.NEntertainment)	박은경	경기도 오산시 박동길 32	2015.08.11	경기도 오산시청
1276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12호)	SL엔터테인먼트 (前이엘코어엔터테인먼트)	장재영	경기도 오산시 여계산로 10, 703동 707호(금암동, 금암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015.08.13	경기도 오산시청
1277	화성시-2015-3 (경기도제113호)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	허용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2, 109동 25층 2501호	2015.08.13	경기도 화성시청
1278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14호)	로열 레코드(The Royal Records)	이림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089번길 19-124동 202호	2015.08.13	경기도 시흥시청
1279	24109-2015-000009 (경기도제115호)	이파리엔터테인먼트	지주현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85, 203동 303호(아동동 신안실크밸리2차아파트)	2015.08.13	경기도 파주시청
1280	24109-2015-000010 (경기도제116호)	Music Story(뮤직스토리)	이유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53, 101동 805호(송촌동 파즈아파트)	2015.08.13	경기도 파주시청
1281	24109-2017-000090	(주)스웍	박성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3길 22, 4층(신사동)	2015.08.13	강남구청
1282	24109-2015-000012 (경기도제118호)	SB MUSIC 엔터테인먼트	박성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35, 40호(상동, 상가동 지층)	2015.08.16	경기도 부천시청
1283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19호)	필굿뮤직 (FEEL GHOOD MUSIC)	서정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73 대림아파트 104동 1004호	2015.08.16	경기도 의정부시청
1284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21호)	바나나레코드	전귀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224번길 56-9	2015.08.16	경기도 양주시청
1285	24109-2015-000023 (경기도제122호)	엠브릿지엔터테인먼트 (前엠브릿지)	박민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터4로 46, 201동 2101호(식사동 위시터일산자이2단지)	2015.08.18	경기도 고양시청
1286	24109-2015-000001 (경기도제123호)	(주)스토리텔러컴퍼니	박경신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104호(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2015.08.19	경기도 안성시청
1287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24호)	열애 (아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오오균·김영숙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618(신장동)	2015.08.19	경기도 하남시청
1288	24109-2015-000146	(주)소비안엔터테인먼트	주영환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0길292층(서초동,예당빌딩)	2015.08.24	서초구청
1289	24109-2015-000147	(주)사이타운뮤직	윤주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0길 8-6, 지층 (방배동)	2015.08.24	서초구청
1290	24109-2015-000014	H brothers 엔터테인먼트	안효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길 120-8(성내동)	2015.08.25	강동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291	24109-2015-000221	엠오비 (MOB)	한상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12층(성산동, 상암 두산위브센티움오피스텔 1209호)	2015.08.24	마포구청
1292	24109-2015-000023	매투릭스 (주)	유창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성수동2가,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2차)	2015.08.03	성동구청
1293	24109-2015-000157	제이케이스타즈엔터테인먼트 (JKSTARZENTERTAINMENT)	정장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6, B105호 (성산동, 대명 비센티오피스텔)	2015.08.07	마포구청
1294	24109-2015-000214	(주)누루	목선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2길 6, 403호 (현석동, 반도 유보라 아일랜드)	2015.08.21	마포구청
1295	24109-2015-000176	(주)케이엠스타	전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9, 4층(신수동)	2015.08.11	마포구청
1296	24109-2015-000159	(주)에스플러스팩토리	변진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403호 (도화동, 고려빌딩)	2015.08.10	마포구청
1297	24109-2015-000173	(주)스티븐	성충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61, 2202호(상암동, DMC 이안상업단지)	2015.08.10	마포구청
1298	24109-2017-000001	SJP엔터테인먼트 (前SP엔터테인먼트)	박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104동 701호 (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2015.08.0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1299	24109-2015-000174	제이엠쥐 (JMG)	장재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63, 1층 (서교동, 지하층)	2015.08.11	마포구청
1300	24109-2015-000003	(주)루스	오중성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 271, 612호 (구로동, 벚산3차 디지털빌라)	2015.07.03	구로구청
1301	24109-2015-000058	(주)소비어스	이항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9층 375호 (여의도동, 호성빌딩산관)	2015.08.31	영등포구청
1302	24109-2015-000540	(주)트윙클파트너스	최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13, 601호(논현동, 예진빌딩)	2015.09.01	강남구청
1303	24109-2015-000538	BandofArtistsAgency 밴드 오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성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511, 지하1층(대치동)	2015.09.01	강남구청
1304	24109-2017-000009	이엘와이드코퍼레이션(주) (前(주)이엘뮤직스튜디오)	김선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2, 10층 (상암동, Trutec Building)	2015.09.01	마포구청
1305	24109-2015-000150	레드크리에이티브컴퍼니 (주)	김성형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0길63,지층(양재동)	2015.09.01	서초구청
1306	24109-2015-000151	(주)썸미디어	김영대·권승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지하층(잠원동, 푸른빌딩)	2015.09.01	서초구청
1307	24109-2015-000152	G-John	노용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40-45(양재동, B1)	2015.09.02	서초구청
1308	24109-2015-000020	(주)스텔리온엔터테인먼트	김규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신정동, 남부빌딩 515호)	2015.09.04	양천구청
1309	24109-2015-000541	캐스팅봄(주) (CastingBomCo.,Ltd.)	최영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4, 4층(논현동, 효진빌딩)	2015.09.03	강남구청
1310	24109-2015-000543	(주)엘리아엔터테인먼트	박승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647, 4층(논현동)	2015.09.03	강남구청
1311	24109-2015-000542	(주)유본컴퍼니	유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22, 1층(논현동, 세은비주빌딩)	2015.09.03	강남구청
1312	24109-2015-000218	(주)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	배기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3, 2층(서교동, 2층)	2015.08.24	마포구청
1313	24109-2015-000544	(주)투비아이크리아 (tobelkoreaCo.,Ltd.)	LEE KEVIN KWANG(리케 빈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5길 31, 103호(신사동)	2015.09.07	강남구청
1314	24109-2015-000545	(주)아트인엔터테인먼트	김중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1길 7, 2층(역삼동, 유예빌딩)	2015.09.07	강남구청
1315	24109-2015-000023	(주)케이노트뮤직아카데미	김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대로 22, 1층 (충정로3가, 한국예술원)	2015.09.07	서대문구청
1316	24109-2015-000153	마인드케이	이기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1길 15, 2층(잠원동, 정동빌딩)	2015.09.07	서초구청
1317	24109-2015-000164	써미튼즈	조형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5-9 삼호빌딩 403호	2015.08.10	마포구청
1318	24109-2015-000172	에스비아이 뮤직 (SBI MUSIC)	백승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2015.08.10	마포구청
1319	24109-2015-000029 (경기도제128호)	(주)날엔터테인먼트	최병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9층)	2015.08.31	경기도 성남시청
1320	24109-2015-000166	에스에프엔터테인먼트(SFentertainment) (前스토리팩토리)	윤형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6길 5-1, 1층(용강동)	2015.08.10	마포구청
1321	24109-2015-000178	메인엔터테인먼트	이신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6길 16, 1층 101호(신수동, 대명하이빌)	2015.08.11	마포구청
1322	24109-2015-000220	(주)에이치에스컴	임현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9길 15 (상수동,비알엘리텔 비동 지하층)	2015.08.24	마포구청
1323	24109-2015-000032	와이낫엔터테인먼트	김기범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50, 110동 1014호(옥수동, 옥수하이츠아파트)	2015.08.12	성동구청
1324	24109-2015-000060	(주)하이씨씨	이용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1(영등포동7가, 성림빌딩 3층)	2015.09.09	영등포구청
1325	24109-2015-000043	(주)위너스미디어(WINNERSMEDIA)	양길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36길 28(한남동, 지하층, 1층)	2015.09.09	용산구청
1326	24109-2015-000177	(주)아우라미디어	임성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20(합정동, 1,2층)	2015.08.11	마포구청
1327	24109-2015-000028	(주)레드캐슬에이앤비	홍성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신정동, 더샵스타리비102동229호)	2015.09.09	송파구청
1328	24109-2015-000007	탑클라우드 (Top Cloud)	김성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0길 23, 4층 404호(상봉동, 금강산아파트)	2015.09.10	중랑구청
1329	24109-2015-000226	풀력엔터테인먼트	정중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401호(서교동, 태복빌딩)	2015.08.31	마포구청
1330	24109-2015-000018	(주)씨너지인터내셔널	박신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31 (자양동, 정우그린빌)	2015.09.10	광진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331	24109-2015-000027	제1캠핑클럽연기학원	김동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9(성수동2가, 덕산에터프라이즈 2층 전부)	2015.08.05	성동구청
1332	24109-2015-000005	(주)유코컴퍼니	김미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2, 에이동 2006호(논현동, 코아루파크)	2015.09.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1333	24109-2016-000008 (경기도제184호)	5군단뮤직	강택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195, 14004호(장항동, 장하동영씨타)	2015.09.21	경기도 고양시청
1334	24109-2015-000016	(주)티엠와이 (TMY) 엔터테인먼트코리아	부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95, 비1(신대방동)	2015.09.13	동작구청
1335	24109-2015-000154	(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김정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29,1층(서초동,예당빌딩)	2015.09.11	서초구청
1336	24109-2015-000161	WOMAN & MANS	김영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97 (연남동)	2015.08.10	마포구청
1337	제2015-01호	레인지엔터테인먼트 (RANGENTERTAINMENT)	최승환·주지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99, 3층(수유동, 외 1필지 3층)	2015.08.10	강북구청
1338	24109-2015-000217	(주)브이엔케이	서은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9(서교동, 1층)	2015.08.21	마포구청
1339	24109-2015-000223	DL엔터테인먼트	김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아파트 1단지 102동 301호	2015.08.25	마포구청
1340	24109-2015-000549	(주)비피스토리 (BP story)	김푸른나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 3층(개포동, 한이빌딩)	2015.09.14	강남구청
1341	24109-2015-000550	(주)헤븐뮤직엔터테인먼트	유진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9, 4층(청담동)	2015.09.14	강남구청
1342	24109-2015-000551	폰테	박병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1601호(청담동, 경원하이츠텔)	2015.09.14	강남구청
1343	24109-2015-000552	(주)이엠컨텐츠	김영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10-4, 2층(신사동)	2015.09.14	강남구청
1344	24109-2015-000547	스페이스사운드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30(역삼동, 지하1층)	2015.09.14	강남구청
1345	24109-2015-000548	(주)제이콘컴퍼니	유주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8, 11층(역삼동, 이앤피빌딩)	2015.09.14	강남구청
1346	24109-2015-000215	스틸페이스 레코드	조수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0(서교동, 계연빌딩 6층)	2015.08.21	마포구청
1347	24109-2015-000219	(주)퓨처인베스트엔터테인먼트	이승호·배준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3, 1층 (상수동)	2015.08.24	마포구청
1348	24109-2015-000061	(주)센미디어	이재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5층(여의도동, 신태진빌딩 5층)	2015.09.17	영등포구청
1349	24109-2016-000008	(주)케이엠씨아트센터 (前(주)케이엠씨커뮤니케이션)	신종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2길 21(자양동)	2015.09.17	광진구청
1350	24109-2015-000228	(주)스나이퍼사운드	김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8안길 35-1, 2층(합정동)	2015.09.04	마포구청
1351	24109-2015-000231	SIS기획	정래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61(상암동, B01호)	2015.09.07	마포구청
1352	24109-2015-000233	샷필름(shotfilm) (前storyfilm)	장석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15-6(동교동, 101호)	2015.09.08	마포구청
1353	24109-2017-000060	(주)에이팀엔터테인먼트 (前(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여인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99길 50(청담동)	2015.09.09	강남구청
1354	24109-2015-000235	에블루션뮤직 (Evolution Music)	이인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77-3(동교동, 암곡빌딩 지층)	2015.09.09	마포구청
1355	24109-2017-000001	화엔터테인먼트 (주)	이화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80, 501호(목동, 삼성빌딩)	2015.08.25	양천구청
1356	24109-2015-000030 (경기도제132호)	(주)씨디와이엔티	최효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동 501호 (삼평동, 분당퍼스트타워 9층)	2015.09.07	경기도 성남시청
1357	24109-2015-000553	(주)피제이알엔터테인먼트	리로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7길 5, 2층(삼성동)	2015.09.18	강남구청
1358	24109-2015-000554	(주)에이치앤코	소명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7, 4층 (신사동, 매은빌딩)	2015.09.18	강남구청
1359	24109-2015-000555	(주)비오비컴퍼니	김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길 36, 102호(역삼동, 염삼씨타빌)	2015.09.18	강남구청
1360	24109-2015-000556	(주)엔소울엔터테인먼트	신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23, 3층(역삼동)	2015.09.18	강남구청
1361	24109-2015-000237	악덕(AKDUCK)	송한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2-7, 지하1층(합정동)	2015.09.17	마포구청
1362	24109-2015-000010	골드스파이더엔터테인먼트 (前베세토엔터테인먼트) (前디디에스엔터테인먼트)	성용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8라길 25, 302호 (신림동)	2015.09.09	관악구청
1363	24109-2015-000156	에스앤에이엔터테인먼트(주) (S&AEntertainmentCo.,Ltd.)	박재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84, 202호(양재동, 흥진빌딩)	2015.09.21	서초구청
1364	24109-2015-000157	스팀 (STIMM)	김한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3(방배동, 지층)	2015.09.21	서초구청
1365	24109-2015-000557	(주)케이씨픽처스 (前(주)열돌이티엠)	차수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42(청담동)	2015.09.21	강남구청
1366	24109-2015-000561	(주)레인컴퍼니 (前(주)레인엔터테인먼트)	정기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19,2층 (청담동)	2015.09.21	강남구청
1367	24109-2015-000560	(주)매니지먼트에이엔디	권오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2길 13-7,3층 (청담동)	2015.09.21	강남구청
1368	24109-2015-000559	(주)망고인터내셔널	유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 4층 443호(역삼동, 초원빌딩)	2015.09.21	강남구청
1369	24109-2015-000558	미디어스코프 (주)	금기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2길 21,3층 (신사동,이화빌딩)	2015.09.21	강남구청
1370	24109-2015-000238	(주)디팩토리	김희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층 (상암동, DMC 타워)	2015.09.21	마포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371	24109-2015-000019	스타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유준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46, 102동 10층 1012호 (신정동, 우성2차아파트)	2015.08.18	양천구청
1372	24109-2015-000144	(주)더프로액터스	유주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18-3, 3층(잠원동)	2015.08.19	서초구청
1373	24109-2015-000563	라이브 (주)	강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7길 46, 301호(역삼동)	2015.09.22	강남구청
1374	24109-2015-000562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 (주)	김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25, 지하1층(신사동, 세비앙빌딩)	2015.09.22	강남구청
1375	24109-2015-000158	(주)스타월드엔터테인먼트	김광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1길 46, 비(방배동, 원빌딩)	2015.09.22	서초구청
1376	24109-2015-000025	(주)나르다엔터테인먼트	최우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18-1(도선동, 에코하우스빌딩 B101호)	2015.08.05	성동구청
1377	24109-2015-000566	긱속가득 엔터테인먼트	이규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9,4층(청담동)	2015.09.30	강남구청
1378	24109-2015-000565	(주)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	김동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5, 5층 602호(논현동, 광림빌딩)	2015.09.30	강남구청
1379	24109-2015-000145	(주)모두프로덕션	김병협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3길 21, 지하1층(반포동, 지하1층)	2015.08.20	서초구청
1380	24109-2015-000029	(주)디제니엔터테인먼트	김덕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2길 26, 지하1층(송파동, 대원빌딩)	2015.10.02	송파구청
1381	24109-2015-000065	(주)제이박스엔터테인먼트	김익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13호(여의도동, 한서빌딩)	2015.10.05	영등포구청
1382	24109-2015-000568	(주)곤피플	김혁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23, 301(논현동)	2015.10.05	강남구청
1383	24109-2015-000567	엠제이드림시스(주) (MJDreamsysCo.,Ltd)	오민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4, 703호(청담동, 남도빌딩)	2015.10.05	강남구청
1384	24109-2017-000004	골드마인엔터테인먼트 (前에이.알.케이뮤직(A.R.Kmusic))	신영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0길 21, 지층(잠실동)	2015.10.05	송파구청
1385	24109-2015-000570	디플래닛(D-PLANET)	이동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2, 1050호(자곡동, 강남힐스테이트)	2015.10.05	강남구청
1386	24109-2015-000569	(주)이엔티미디어	김혜정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1, 603호(도곡동)	2015.10.05	강남구청
1387	24109-2015-000572	(주)디에스피뮤직	최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5길 20,2층 (논현동,경원빌딩)	2015.10.05	강남구청
1388	24109-2015-000012	제이엠컴퍼니	박준태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3길 126-1 (개봉동, 진주빌라)	2015.08.26	구로구청
1389	24109-2015-000573	(주)더블퀵엔터테인먼트	신동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70길 31, 2층(신사동)	2015.10.12	강남구청
1390	24109-2015-000575	(주)아케이드나인 (공동대표)	유효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67, 602호(논현동)	2015.10.12	강남구청
1391	24109-2015-000045	어바웃 모델	MILES PYONG YE:(마일즈병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촌로 59(용산동2가, 1층)	2015.10.15	용산구청
1392	24109-2015-000001	(주)프로비트컴퍼니	김세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43-4 1층	2015.10.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1393	24109-2015-000240	가디언월드 (주)	안민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2길 3, 2층 (서교동)	2015.10.14	마포구청
1394	24109-2015-000241	(주)제이엠코프	김정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1206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	2015.10.14	마포구청
1395	24109-2015-000242	(주)퓨라이트	이희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4층 402호(서교동)	2015.10.19	마포구청
1396	24109-2015-000243	일통극장(ILLTONGCINEMA) (前뮤직스윗(musicosweet))	서성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314호	2015.10.19	마포구청
1397	24109-2015-000161	(주)크리허브	박중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3층(서초동, 센트라빌딩3층)	2015.10.20	서초구청
1398	24109-2015-000577	(주)한국저작권연구소	채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대로 741, 2층 (청담동은성빌딩 별관)	2015.10.21	강남구청
1399	24109-2015-000015	(주)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	신동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1길 102(명일동)	2015.10.21	강동구청
1400	24109-2015-000578	(주)문화그룹차이	최석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3길 55,씨동 503호 (청담동)	2015.10.23	강남구청
1401	24109-2015-000579	(주)제이모델매니지먼트	박장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10, 3층 301호 (논현동, 미현빌딩)	2015.10.30	강남구청
1402	24109-2015-000216	유한회사 비투엠엔문화산업전문회사 (공동대표)	강지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3길 23, 1층 (합정동)	2015.08.21	마포구청
1403	24109-2015-000046	링크매니지먼트 (주)	박지선·양다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1010호(한남동)	2015.11.02	용산구청
1404	24109-2015-000037	아이랩엔터테인먼트	최정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8길 45-12, B동 B1호 (화곡동, 미래하이츠)	2015.09.24	강서구청
1405	24109-2015-000244	샤이닝 뮤직그룹	김선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32, 지하 103호(창전동)	2015.11.03	마포구청
1406	24109-2015-000581	(주)가온프로젝트	김원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1길 26(논현동)	2015.11.03	강남구청
1407	24109-2015-000580	(주)더엔터테인먼트	이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22, 지하1층(삼성동)	2015.11.03	강남구청
1408	24109-2015-000166	아이 앤 비 (I&B)	조재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140(반포동 780-3, 301호)	2015.11.04	서초구청
1409	24109-2015-000583	(주)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이동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38, 4층(논현동)	2015.11.04	강남구청
1410	24109-2015-000024	아이보리 엔터테인먼트	문호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명터8길 26(홍은동)	2015.11.04	서대문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411	24109-2015-000004 (경기도제125호)	(주)글로리어스	김재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현곡길 44	2015.08.27	경기도 광주시청
1412	24109-2015-000165	(주)크림뮤직엔터테인먼트 (前(주)몬스터크리에이티브)	우영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49-2, 2층 (동교동)	2015.08.10	마포구청
1413	24109-2015-000007 (경기도제142호)	(주)엠엔씨	배석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93번길 75, 101호(원천동)	2015.10.16	경기도 수원시청
1414	24109-2015-000158	해피로봇 레코드 (공동대표)	이창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17, 2층 (서교동)	2015.08.08	마포구청
1415	24109-2015-000005 (경기도제136호)	(주)올댓미디어	국용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12-53, 403호(리버빌)	2015.08.28	경기도 광주시청
1416	24109-2017-000021	HF뮤직컴퍼니 (前풍년엔터테인먼트)	김미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73길 43, 1층(삼성동)	2015.10.16	강남구청
1417	24109-2015-000011	트로이엔터테인먼트 (前global-k엔터테인먼트)	서동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4길 42-5, 1층(장위동)	2015.08.06	성북구청
1418	24109-2015-000019	마이스타 미디어	정재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0길 45 (군자동)	2015.09.25	광진구청
1419	24109-2015-000038	그레이트모델	김종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5길 23, 2층(옥수동, 크리스찬 신문사)	2015.09.23	성동구청
1420	24109-2015-000022	엔터테인먼트 벵	김선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5, 101호 (자양동)	2015.10.22	광진구청
1421	24109-2015-000015	올댓스토리	박경수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원로 26 (구로동, 금호아파트)	2015.09.18	구로구청
1422	24109-2015-000584	플럼엔터테인먼트 (주)	유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5, 521호(대치동, 대치동더 블우타워)	2015.11.09	강남구청
1423	24109-2015-000169	(주)디엘토	장준호·서민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미로 147, 4층(양재동)	2015.11.09	서초구청
1424	24109-2016-000004	(주)서핑엠씨엔 (Surfing MCN Co., Ltd)	박병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2, 지층(성내동, 건양빌딩)	2015.09.18	강동구청
1425	2016-02	박세민 무비프로덕션	박세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14, 7층(계산동, 나드리상가)	2015.09.0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1426	24109-2015-000171	아람기획	최동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56(용강동)	2015.08.10	마포구청
1427	24109-2015-000009	메르엔터테인먼트 (前매니지먼트대지)	김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35, 1층 102호(동소 문동4가)	2015.08.06	성북구청
1428	24109-2016-000065	프로듀어먼트 (주)	송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288호 (도화동)	2015.08.10	마포구청
1429	제2015-02호	위시본프로젝트	임무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래산로52가길 7, A동 3층 301호	2015.08.10	강북구청
1430	24109-2016-000017	위드닐	김숙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8, 108동 405호(금호동3가, 금호1차푸르지오아파트)	2015.11.13	성동구청
1431	24109-2015-000069	(주)이음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종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11층 1101-1 호(여의도동, 호성빌딩산관)	2015.11.16	영등포구청
1432	24109-2015-000030	Hs . 엔터테인먼트	김정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곡로 11길 63-5, 2층(방이동, 성창 빌딩)	2015.11.12	송파구청
1433	24109-2015-000588	(주)케이비필름 (KGB FILM CO., LTD)	권상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0, 2층(논현동, 성원빌 딩)	2015.11.16	강남구청
1434	24109-2015-000590	(주)메이웰프로덕션	강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7길 17-6(역삼동)	2015.11.16	강남구청
1435	24109-2015-000589	(주)수컴퍼니	권상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0, 2층(논현동, 성원빌딩)	2015.11.16	강남구청
1436	24109-2015-000587	(주)모우엔터테인먼트 (MOWEntertainmentCo.,Ltd)	이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64길 14, 1층(신사동)	2015.11.16	강남구청
1437	24109-2015-000167	Sound Sound	이치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곳11길 18(방배동, 202호)	2015.11.06	서초구청
1438	24109-2015-000013	음악촌	박선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재2길 11, 2동802호(신림동, 평화빌라)	2015.11.18	관악구청
1439	24109-2015-000592	(주)노츠컬처 (前(주)노츠이엔엠)	배화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0, 5층(신사동, 스타빌딩 5층)	2015.11.19	강남구청
1440	24109-2015-000593	(주)에이치아이에스엔터테인 먼트	김학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14, 3층(신사동, 방주빌딩)	2015.11.19	강남구청
1441	24109-2015-000594	(주)휴맵컨텐츠	이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60, 2층(청담동, 제일빌딩)	2015.11.19	강남구청
1442	24109-2015-000222	주식회사 뷰가엔터테인먼트	윤영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57-1, 2층(대흥동)	2015.08.25	마포구청
1443	24109-2015-000070	(주)코센글로벌	이용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202호 (여의도동, 삼도 오피스텔)	2015.11.19	영등포구청
1444	24109-2015-000025 (경기도제134호)	하늘뮤직	최성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86번길 8-13(마두동, 지하)	2015.09.07	경기도 고양시청
1445	24109-2016-000055	위너제이 (Winner J)	황영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5길 26, 3층 (서교동)	2015.11.06	마포구청
1446	24109-2015-000026 (경기도제143호)	(주)풍엔터테인먼트 (前(주)코코넷엔터테인먼트)	강택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4004호(장항동, 엠 시티타워)	2015.11.06	경기도 고양시청
1447	24109-2015-000003 (경기도제133호)	(주)지앤이	이승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22	2015.09.07	경기도 이천시청
1448	24109-2015-000598	시노뮤직	한용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1길 7(삼성동)	2015.11.24	강남구청
1449	24109-2015-000595	파워하우스	김인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107, 지하1층(신사동, 지 하 1층)	2015.11.24	강남구청
1450	24109-2015-000599	좋아보인다 다다에이전시	조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12, 3층 400호(논현동)	2015.11.24	강남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451	24109-2015-000596	(주)밸류컬처엔터테인먼트 (등기음원)	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4층	2015.11.24	강남구청
1452	24109-2015-000247	WALTZ SOFA (왈츠 소파)	이지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터산16길(성산동, 5층)	2015.11.27	마포구청
1453	24109-2015-000014	쉴 엔터테인먼트	문철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55, 203동 1901호(신림동, 관악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15.11.30	관악구청
1454	24109-2015-000015	케이엠비 엔터테인먼트	양희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다길 30, 지층 101호(신림동)	2015.12.01	관악구청
1455	24109-2015-000013	(주)엠엔터테인먼트 (MEntertainmentCo.,Ltd.)	홍영철	서울특별시구로구 부일로15길 12 (궁동)	2015.08.27	구로구청
1456	24109-2015-000014	창공코퍼레이션 (주)	윤민정	서울특별시구로구 새말로 97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2015.09.11	구로구청
1457	24109-2016-000006	(주)태강인터테셔널	이기홍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42-1, 5층(방학동)	2015.11.27	도봉구청
1458	24109-2015-000601	(주)씨에이치엔티	박철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3길 22-3(신사동)	2015.12.02	강남구청
1459	24109-2015-000603	(주)아티산뮤직	김교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16-7(신사동, 지하1층)	2015.12.02	강남구청
1460	24109-2015-000604	agentgroup G	임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7길 42(삼성동, 204호)	2015.12.02	강남구청
1461	24109-2016-000052	하랑 엔터테인먼트	김태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6, 2층(합정동)	2015.12.02	마포구청
1462	24109-2015-000171	(주)숲 뮤직아트센터	여인호	서울특별시 서포구 효령로68길 59(서초동, 동인빌딩 지층)	2015.12.06	서초구청
1463	24109-2015-000009	(주)매그네틱엔터테인먼트	박만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902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2015.12.07	금천구청
1464	24109-2015-000248	(주)페이지터너	홍원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마사로29길 4, 1층(연남동)	2015.12.07	마포구청
1465	24109-2015-000012	(주)디엔터테인먼트	김대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78, 3층(장안동)	2015.11.13	동대문구청
1466	24109-2015-000249	시크리션 뮤직 코리아	박재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9길 48(서교동, 3층)	2015.12.09	마포구청
1467	24109-2015-000606	(주)항상다이렉트	성장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54, 403(역삼동)	2015.12.09	강남구청
1468	24109-2015-000605	반딧불엔터테인먼트 (주)	김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8, 740호(역삼동)	2015.12.09	강남구청
1469	24109-2015-000610	(주)한양이앤엠	이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5, 9층(청담동, 삼이빌딩)	2015.12.14	강남구청
1470	24109-2015-000609	(주)비오비플러스	김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길 4, 5층(논현동, 효진빌딩)	2015.12.14	강남구청
1471	24109-2015-000608	(주)씨나인엔티	김대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22(역삼동)	2015.12.14	강남구청
1472	24109-2015-000611	EM 컴퍼니	김중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7, 2층(역삼동)	2015.12.14	강남구청
1473	24109-2017-000026	캐스팅 씬	한선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70, 503호(신원동, 서초케이티움)	2015.12.14	서초구청
1474	24109-2015-000021	(주)애드나인뮤직	김대환·송원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달래로5길 45-18, 비01층(신월동)	2015.12.15	양천구청
1475	24109-2015-000002	생동감	남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43, 5층(부평동, 성원빌딩)	2015.12.1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476	24109-2015-000162	(주)디컴퍼니엔티	윤도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47, 5층 502호(합정동)	2015.08.10	마포구청
1477	24109-2017-000001	소울컴퍼니	배이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623호(합동, 에스케이리첼빌)	2015.08.10	서대문구청
1478	24109-2015-000167	피앤와이뮤직 (PnY music)	정용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39, 지하층(합정동)	2015.08.10	마포구청
1479	24109-2015-000168	씨에스 (CS) 엔터테인먼트	전창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12층 1210호(성산동, 상암두산워싱턴아움)	2015.08.10	마포구청
1480	24109-2015-000172	(주)현다컴퍼니	김현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길 54지층 102호(방배동)	2015.12.16	서초구청
1481	24109-2015-000250	고래수업	신상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2길 3, 2층 (서교동)	2015.12.16	마포구청
1482	24109-2015-000615	(주)유엘엔터테인먼트	양현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26, 7층(신사동)	2015.12.23	강남구청
1483	24109-2017-000081	제이알이엔티 주식회사	박지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27, 402호(삼성동)	2015.12.23	강남구청
1484	24109-2015-000020	재즈나루	서승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8길 32, 2층(자양동)	2015.09.25	광진구청
1485	24109-2015-000023	C.W 컴퍼니	김추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4길 20, 101동 203호(구의동, 주성힐스톤아파트)	2015.11.30	광진구청
1486	24109-2015-000032 (경기도제151호)	빅샷 엔터테인먼트 (주)	허원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301-132호(장항동, 센트럴프라자)	2015.12.15	경기도 고양시청
1487	24109-2015-000175	여름엔터테인먼트	윤성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4, 8층 805호(서교동, 서교제일빌딩)	2015.08.11	마포구청
1488	24109-2015-000067	(주)일리네어레코즈	신동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404호(여의도동)	2015.10.22	영등포구청
1489	24109-2015-000251	(주)엠엔에이치엔터테인먼트	박종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30, B1층(성산동, 인산빌딩)	2015.12.28	마포구청
1490	24109-2015-000016	(주)엘와이비	이유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62길 31, 102호 (남현동, 태양빌딩)	2015.12.28	관악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491	24109-2015-000252	한방기획 (공동대표)	박태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7, 3층(동교동)	2015.12.28	마포구청
1492	24109-2015-000616	(주)엠와이엠 (MYM Co., Ltd.)	이윤정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8길 19, 1층 101호(논현동, 청호빌딩)	2015.12.28	강남구청
1493	24109-2015-000618	(주)에이치비스타	황보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23, 3층(논현동)	2015.12.29	강남구청
1494	24109-2015-000621	(주)씨엘컴퍼니	홍기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51, 302호(삼성동)	2015.12.29	강남구청
1495	24109-2015-000620	기평찬 (souline company)	기평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2길 19 (청담동)	2015.12.29	강남구청
1496	24109-2015-000622	기린엔터테인먼트	권기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24-10, 지하층 2호(신사동)	2015.12.29	강남구청
1497	24109-2016-000006 (경기도제187호)	준 엔터테인먼트	윤상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로 86, 112동 401호(성북동, 엘지빌리지1차아파트)	2015.12.29	경기도 용인시청
1498	24109-2015-000072	JW엔터테인먼트	임난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3, 1209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2015.12.29	영등포구청
1499	24109-2015-000024 (경기도제129호)	더하기미디어	김강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 206동 201호(중산동, 하늘마을로)	2015.09.01	경기도 고양시청
1500	24109-2015-000003 (경기도제130호)	조이월드앤다이버시티 (JOYWORLD&DIVERSITY)	최진욱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5동 1001호 (내손동, 포일자아아파트)	2015.08.31	경기도 의왕시청
1501	24109-2015-000009 (경기도제131호)	그래티티뮤직 (前씨오브엠)	이용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52, 101동 601호(심곡동, 우민빌시랑아파트)	2015.09.02	경기도 부천시청
1502	24109-2015-000031 (경기도제137호)	오드아이뮤직컴퍼니	윤희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번길 3(신흥동, 지하층)	2015.08.28	경기도 성남시청
1503	24109-2015-000003 (경기도제139호)	아벡 (AVEC) 엔터테인먼트	강수남	경기도 구리시 권원대로 3, 518호(안창동, 흥화 브라운오피스텔)	2015.09.18	경기도 구리시청
1504	24109-2015-000002 (경기도제140호)	(주)한국이앤비파크	최미숙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61번길 119-1(삼승동)	2015.10.01	경기도 양주시청
1505	24109-2015-000030 (경기도제147호)	SIMPLE ENTER	이선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45, 3층(토당동, 3층)	2015.11.06	경기도 고양시청
1506	24109-2015-000031 (경기도제148호)	snow music (스노우뮤직)	정지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48-24(정발산동, 1층)	2015.11.10	경기도 고양시청
1507	24109-2015-000038	(주)테크리에이티브팩토리크레파스	박상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99, 4층 405호(등촌동)	2015.12.31	강서구청
1508	24109-2015-000020	지비미디어 (주)	허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길 10 (관철동, 종로우리빌딩)	2015.09.15	종로구청
1509	24109-2015-000174	(주)아임어 모델 (Im a model)	오동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38, 잠원동 1층(잠원동, 토성빌딩)	2015.12.31	서초구청
1510	24109-2015-000010	N에이전시	박지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81, 107동 1401호(장안동, 래미안장안아파트)	2015.09.04	동대문구청
1511	24109-2015-000013	(주)프랜트리	김선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2, 2층 201호(휘경동)	2015.12.21	동대문구청
1512	24109-2015-000024	(주)엔터미디어픽처스 (EnterMediaPicturesCo.,Ltd.)	이동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30-3, 5층 (성수동1가, 독섬빌딩)	2015.08.04	성동구청
1513	24109-2015-000029	제3캠프킬연기학원	김동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23(성수동2가, 대영빌딩 3층)	2015.08.10	성동구청
1514	24109-2015-000030	(주)제이제이엔터테인먼트	윤범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5 109동 302호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아파트)	2015.08.11	성동구청
1515	24109-2015-000031	(주)아이코닉사운즈	김태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30-3, 6층 (성수동1가, 독섬빌딩)	2015.08.11	성동구청
1516	24109-2015-000033	(주)올박스 (前(주)올박스홀딩스)	조수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101동 1104호(성수동1가, 서울숲7개살)	2015.08.28	성동구청
1517	24109-2015-000039	온새미로 (주)	김용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10, 322호(성수동2가, 성원상대뷰오피스텔)	2015.10.22	성동구청
1518	24109-2016-000001	(주)이수이엔엠	강순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1길 8, 6층(신사동, 우노빌딩)	2016.01.05	강남구청
1519	24109-2016-000002	(주)엠비케이	박성호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32, 5층 (논현동, 송현빌딩)	2016.01.05	강남구청
1520	24109-2016-000003	메이드 엠 (made m)	신민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27, 5,6층(논현동)	2016.01.05	강남구청
1521	24109-2016-000001	(주)케이엔플러스엔터테인먼트 (前주식회사오에스엔터테인먼트)	한국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16, 2층(봉천동, 학선빌딩)	2016.01.05	관악구청
1522	24109-2015-000013	보투엔터테인먼트	권선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34, 9층 (충무로1가, 중앙전화국)	2015.12.22	중구청
1523	제2016-1호	(주)제이엔에이치	장인섭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77번길 41, 103호(정림동)	2016.01.18	대전광역시
1524	24109-2016-000146	(주)하우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고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7길 13, 3층(신사동)	2016.01.07	강남구청
1525	24109-2016-000001	(주)에덴아트엔터티	김태형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88, 4층(신대방동)	2016.01.07	동작구청
1526	24109-2015-000012	(주)아츠로	이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91, 3층(보문동5가, 외2필자)	2015.08.06	성북구청
1527	24109-2016-000001	(주)피에이치 엔터테인먼트	박민우·한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10, 201호(방배동)	2016.01.08	서초구청
1528	24109-2016-000004	24호엔터테인먼트	권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47(논현동, 3층)	2016.01.11	강남구청
1529	24109-2016-000002	정컴퍼니	이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도래마을 305동 107호	2016.01.12	마포구청
1530	24109-2016-000003	피제이컴퍼니(PJC)	이주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72, 1호(서교동, 3층)	2016.01.12	마포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531	24109-2016-000001	(주)에이치에프아트렌즈	이필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 1차 208, 209호	2016.01.14	강서구청
1532	24109-2016-000002	(주)제이원인터내셔널컴퍼니	정시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76 대해빌딩 3층	2016.01.14	서초구청
1533	24109-2016-000002	(주)박스미디어	박해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501호(여의도동 삼환까뮤빌딩 별관 5층)	2016.01.18	영등포구청
1534	24109-2016-000001	마이티	서명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3-8, 102-705(중화동, 미영리치타운)	2016.01.11	중랑구청
1535	24109-2016-000001	(주)키위엔터테인먼트앤드뮤직	김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45, 822호(합동, SK리첼빌)	2016.01.20	서대문구청
1536	24109-2015-000034 (경기도제155호)	앤더슨 미디어	양지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28-2, 2동 301호(토당동, 대정빌라)	2015.12.23	경기도 고양시청
1537	24109-2015-000004 (경기도제153호)	(주)밀리언마켓	함준석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85, 301동 102호(인창동, 성원아파트)	2016.01.04	경기도 구리시청
1538	24109-2016-000003	(주)인투이엔티	이명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 지하1층(양재동)	2016.01.21	서초구청
1539	24109-2016-000004	마디커뮤니티	김경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21, 102호(성산동)	2016.01.26	마포구청
1540	24109-2016-000005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오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87, 2층(망원동)	2016.01.28	마포구청
1541	24109-2016-000001	(주)제이스컴퍼니	박지윤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47, 1층 102호(한남동, 힐팰리스하우스빌)	2016.02.01	용산구청
1542	24109-2016-000002	(주)에스지컴퍼니	이훈	서울시 중구 퇴계로37길 14, 602호(충무로4가, 가중빌딩)	2016.01.29	중구청
1543	24109-2015-000031	에이톤엔터테인먼트 (前지음이엔티)	최세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3, 지하1층(송파동, 삼호빌딩)	2015.12.31	송파구청
1544	2016-0001	(주)아이엔터테인먼트	윤명식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707-20(2층)	2016.02.05	경상남도청
1545	24109-2016-000002	(주)대본창고컴퍼니	박미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64길 18, 101호(중곡동)	2016.02.05	광진구청
1546	24109-2016-000003	(주)동빙고	박동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84(성수동2가, 남영디지털타워 401호)	2016.01.29	성동구청
1547	24109-2016-000007	(주)소담컴퍼니 (공동대표)	하대응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길 13, 303호(논현동)	2016.01.28	강남구청
1548	24109-2016-000009	씨세스컬처 (주)	백창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13, 3층동(논현동, 예진빌딩)	2016.02.11	강남구청
1549	24109-2016-000012	(주)무브먼트제너레이션	박종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7길 22, 지하1층(신사동)	2016.02.12	강남구청
1550	24109-2016-000001	씨티지글로벌 (주)	정진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215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 9차)	2016.02.17	금천구청
1551	24109-2016-000004	(주)두에이치컬처클럽	한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마산로 17(성산동)	2016.02.05	마포구청
1552	24109-2016-000005	(주)이엔제이엔터테인먼트	이종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10, 623호 (성수동2가, 성원상대뷰오피스텔)	2016.02.16	성동구청
1553	24109-2016-000007	에스와이제이엔터테인먼트 (주)	김세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화내로11길 37, 2층 114호(망원동, 프리마빌딩)	2016.02.17	마포구청
1554	24109-2016-000005	(주)엔라이브엔터테인먼트	송남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5길 13, 동광빌딩 3층	2016.02.16	서초구청
1555	24109-2016-000003	(주)클래프컴퍼니	이승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5길, 자층(사당동)	2016.02.22	동작구청
1556	24109-2016-000003	(주)빌리프엔터테인먼트	배성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89, 2층(염창동)	2016.02.18	강서구청
1557	24109-2016-000007	NOH엔터테인먼트 (前승보엔터테인먼트)	나오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양12길 19-11, 803호(양재동, 두원빌라)	2016.02.22	서초구청
1558	24109-2016-000187	(주)키아나엔터테인먼트	이현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4, 2층(역삼동, 삼성빌딩)	2016.02.22	강남구청
1559	24109-2016-000015	디와이엔터테인먼트	김도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2-10(신사동)	2016.02.23	강남구청
1560	24109-2016-000017	(주)빅에이전시	이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1, 2층(논현동, 토옥빌딩)	2016.02.23	강남구청
1561	24109-2016-000016	더터보컴퍼니 (주)	조혜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7길 32, 301호(신사동, 모닝빌딩)	2016.02.23	강남구청
1562	24109-2016-000003	(주)이코에듀인더스트리	이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715호(한남동, 한남빌딩)	2016.02.25	용산구청
1563	24109-2016-000002	(주)에이에프엔터테인먼트	최희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9길 36, 지하1층 (사당동)	2016.02.12	동작구청
1564	24109-2016-000001	(주)이엔티팩토리	송장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50, 6층(동숭동, 마로니빌딩)	2016.02.15	종로구청
1565	24109-2016-000020	(주)디지엔콤	김민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16, 732호(역삼동,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2016.02.29	강남구청
1566	24109-2016-000019	(주)준앤아이	김환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702호 (청담동, 현대리버스텔)	2016.02.29	강남구청
1567	24109-2016-000007	(주)화이브라더스	지승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39길 37-37, 302호 (옥수동, 무하우스)	2016.03.02	성동구청
1568	24109-2016-000001	(주)컬러드스톤미디어그룹	김성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1길 7, 자층 101호(신정동, 아르메빌딩)	2016.01.22	양천구청
1569	24109-2016-000021	(주)위너스커뮤니케이션즈	장윤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23, 2층(청담동, 루나빌딩)	2016.03.07	강남구청
1570	24109-2016-000022	(주)분부이엔티	강윤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64길 24, 4층(신사동, 아크로스 빌딩)	2016.03.07	강남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571	24109-2015-000033 (경기도제152호)	(주)골든코스컴퍼니 (GOLDENCOSCOMPANYco., Ltd)	정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16, 201동 104호(주업동)	2015.12.16	경기도 고양시청
1572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59호)	라온S엔터테인먼트	서인철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75-1, 나동 303호	2016.02.03	경기도 부천시청
1573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60호)	에이지코리아엔터테인먼트	송대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115-26, 202호	2016.01.18	경기도 용인시청
1574	24109-2016-000004	카울엔터테인먼트	문경득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1길 64, 지층(화양동)	2016.03.09	광진구청
1575	24109-2016-000010	(주)반리더엔터테인먼트	반형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7길 31, 302호(방배동)	2016.03.08	서초구청
1576	24109-2016-000025	(주)비엠피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2, 302호(역삼동, 아시아빌딩)	2016.03.08	강남구청
1577	24109-2016-000026	(주)케이즈피앤씨	김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2, 602호(역삼동, 아시아빌딩)	2016.03.08	강남구청
1578	24109-2016-000024	(주)더블에이트	이애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61길 11, 5층(신사동)	2016.03.08	강남구청
1579	24109-2016-000026	(주)레드다이스 (Red Dice Co.,Ltd.)	전성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5, 5층(서교동)	2016.03.08	마포구청
1580	24109-2016-000023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공동대표)	김성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7 (논현동,논현동빌딩)	2016.03.08	강남구청
1581	24109-2016-000030	(주)건택사단	강건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54길 22, 2층 3층(신사동)	2016.03.14	강남구청
1582	24109-2016-000029	(주)브이에이에스티	강건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30, 5층 6층(청담동)	2016.03.14	강남구청
1583	24109-2016-000031	(주)제이미미디어	박재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13층 1364호(역삼동, 한성타워)	2016.03.14	강남구청
1584	24109-2016-000003	(주)샐러드	박경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12-1, 201(문래동2가)	2016.03.15	영등포구청
1585	24109-2016-000012	(주)환이앤씨	박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60, 성인빌딩 7층	2016.03.16	서초구청
1586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64호)	(주)제이앤제이프로모션	고아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화로72번길 79-4, 102호(안양동)	2016.03.14	경기도 안양시청
1587	2016-0002	이팝나무 캐스팅	김진혁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40, 4층 402호(남부동)	2016.03.17	경상남도청
1588	24109-2016-000035	(주)아라엔터테인먼트	신용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78, 선상 용성호	2016.03.18	강남구청
1589	24109-2016-000036	(주)투데이엔터테인먼트	이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15(논현동)	2016.03.18	강남구청
1590	24109-2017-000011	(주)춘엔터테인먼트	조춘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7, 지하1층(방배동)	2016.03.18	서초구청
1591	24109-2016-000034	(주)아이엠에스이앤엠	박유택·심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3층(압구정동)	2016.03.18	강남구청
1592	24109-2016-000042	(주)야마앳치스엔터테인먼트	전홍복·배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3길 6, 지하(논현동)	2016.03.22	강남구청
1593	24109-2016-000041	(주)티모엔터테인먼트	이종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6, 6층(논현동, 우미빌딩)	2016.03.22	강남구청
1594	24109-2016-000040	(주)유니즌엔터테인먼트	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4길 24, 지하2층(신사동, 준영빌딩)	2016.03.22	강남구청
1595	24109-2016-000039	(주)킹엔터테인먼트	박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8길 16, 3층(논현동)	2016.03.22	강남구청
1596	제2016-02호	(주)청솔기획	김정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213, 대영상가 B02호	2016.03.22	대전광역시
1597	24109-2016-000050	주식회사 오디제이엔터테인먼트	정종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28 602-1호(논현동, 오피스터빌딩)	2016.03.28	강남구청
1598	24109-2016-000049	(주)모스트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채점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938호(논현동, 세일빌딩)	2016.03.28	강남구청
1599	24109-2016-000045	(주)안테나	유희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6, 3층(신사동, 램프빌딩)	2016.03.28	강남구청
1600	24109-2016-000047	레인보우 엔터테인먼트	오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50, 지하1층(논현동)	2016.03.28	강남구청
1601	24109-2016-000048	(주)카툰블루컴퍼니	이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52(삼성동, 신도빌딩)	2016.03.28	강남구청
1602	24109-2016-000014	아싸커뮤니케이션 (ASSACommunication)	신옥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3, 833호(노고산동, 병우빌딩)	2016.03.25	서초구청
1603	24109-2016-000046	플랜 (Plan) 1엔터테인먼트	이재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15, 3층(논현동)	2016.03.28	강남구청
1604	24109-2016-000044	청춘엔터테인먼트	김종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 22-8, B1층(논현동)	2016.03.28	강남구청
1605	24109-2016-000010	에스제이비보이즈 (주)	박기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21, 지하1층(서교동, 심진 제약사옥)	2016.03.29	마포구청
1606	24109-2016-000015	(주)에버인뮤직	이용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11 (신수마하빌딩 B1)	2016.03.30	서초구청
1607	제2016-02호	에이션 엔터테인먼트	최권습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07(삼덕동2가)	2016.03.09	대구광역시
1608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63호)	ok 액터	김미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107동 1405호(원흥동, 엘에이치원흥도래마을1단지)	2016.03.11	경기도 고양시청
1609	제5호	(주)와이드엔터테인먼트	홍석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84, 2층	2016.04.05	도봉구청
1610	24109-2016-000053	(주)에스터블유엔피	채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40, 1408호(역삼동, 신논현 마에스트로)	2016.04.08	강남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611	24109-2016-000052	(주)코리아웨이브엔터테인먼트	김명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4, 5층 543호(역삼동)	2016.04.08	강남구청
1612	24109-2016-000051	(주)메가이팩츠	이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12층(청담동, 청담빌딩)	2016.04.08	강남구청
1613	24109-2017-000017	(주)플렉스앤코	신원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31, 6층(잠원동, 아세아빌딩)	2016.04.08	서초구청
1614	24109-2016-000054	(주)엔터스테이션	황준민-(HWA NG AIDEN JUNMIN)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9-4, 4층(신사동)	2016.04.08	강남구청
1615	24109-2016-000017	(주)한아름컴퍼니	박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61, 2층(잠원동)	2016.04.08	서초구청
1616	24109-2016-000001	대박 엔터테인먼트	고영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라수로25나길 12(압사동)	2016.04.11	강동구청
1617	24109-2016-000002	3101엔터테인먼트	김상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0길 47, 지층(길동)	2016.04.11	강동구청
1618	24109-2015-000005 (경기도제82호)	(주)아시아홈엔터테인먼트	김원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2차201동1403호)	2015.08.04	경기도 부천시청
1619	2016-02	(주)마린엔터테인먼트	마봉진	부산광역시동구소방로16번길202층201호(범일동, 삼익북합상가)	2016.04.12	부산광역시
1620	24109-2016-000018	(주)탑텐터테인먼트	강희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9길 11, 지하층	2016.04.12	서초구청
1621	24109-2016-000005	(주)스타트라인 엔터테인먼트	서유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60(한남동, 3층)	2016.04.14	용산구청
1622	24109-2016-000001	(주)담다기획	고경남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5가길 22(주교동)	2016.04.15	중구청
1623	24109-2016-000003 (경기도제166호)	노스(NOS)엔터테인먼트	노치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14-8(풍동)	2016.04.06	경기도 고양시청
1624	24109-2016-000002	에이피이앤엠 (주)	박기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20, 비01호(잠실동)	2016.04.15	송파구청
1625	24109-2016-000003	(주)스페이스보헤미안	이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15, 지층(가락동)	2016.04.15	송파구청
1626	24109-2016-000058	(주)제이티코리아엔터테인먼트 (JT Corea Entertainment)	이진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13(역삼동)	2016.04.19	강남구청
1627	24109-2016-000057	(주)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54, 3층(청담동)	2016.04.19	강남구청
1628	24109-2016-000006	투애니포스트리트 (주)	박시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길 73, 지하층(자양동)	2016.04.18	광진구청
1629	24109-2016-000006	레이블임	임대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대로 1 8층, (연희동, 파스타에바우)	2016.04.20	서대문구청
1630	24109-2015-000452	(주)캐스팅런	고미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 21, 2층(논현동, 기성빌딩)	2015.08.05	강남구청
1631	2016-0003	(주)제이와이픽처스	이만수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3번길 9, 412(관동동)	2016.04.21	경상남도청
1632	24109-2016-000020	(주)사람이좋다	이왕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61, 2층(잠원동, 남양빌딩)	2016.04.22	서초구청
1633	화성시-2016-1 (경기도제167호)	더블유에스디엔터테인먼트 (주)	홍길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71-47	2016.04.15	경기도 화성시청
1634	24109-2016-000004	케스 뮤직컴퍼니 (공동대표)	이응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8, 5층(대현동, 대국빌딩)	2016.04.22	서대문구청
1635	24109-2016-000021	(주)네끼엔터테인먼트	이상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64-2	2016.04.22	서초구청
1636	24109-2016-000064	사운드고	고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59, 지하2층(개포동, 대양빌딩)	2016.04.22	강남구청
1637	24109-2016-000060	알투에이엔터테인먼트 (주)	권오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24, 2층(청담동)	2016.04.22	강남구청
1638	24109-2016-000061	(주)꿈엔터	박정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2층 209호(역삼동, 아르누보씨티)	2016.04.22	강남구청
1639	24109-2016-000062	(주)에스이십칠	박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3길 23, 2층(역삼동)	2016.04.22	강남구청
1640	24109-2016-000063	와이엔케이엔터테인먼트 (주)(공동대표)	양성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8길 43, 65층(청담동)	2016.04.22	강남구청
1641	24109-2016-000001	(주)이센트이엔티	표창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2길 84, 3층 304호(개봉동, 동도센터리움)	2016.03.14	구로구청
1642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65호)	(주)케니스타엔터테인먼트	조성경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6번길 53, 덕천빌딩 3층(지산동)	2016.04.01	경기도 평택시청
1643	24109-2016-000013	(주)더블랙레이블	박홍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49, 2층(합정동, 유니타워)	2016.04.28	마포구청
1644	24109-2016-000009	(주)진성엔터테인먼트	홍동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7가길 19(마장동)	2016.04.26	성동구청
1645	24109-2016-000022	(주)드림오브시티	장순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길 9-20, 대원빌딩 302호	2016.04.29	서초구청
1646	24109-2016-000067	(주)마운틴무브먼트	남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15, 2층 201호(삼성동)	2016.04.29	강남구청
1647	24109-2016-000068	29아트컴퍼니	이희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8, 3층(역삼동)	2016.04.29	강남구청
1648	24109-2016-000069	(주)인스타미디어 (前(주)인빅터스뮤직)	육대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길 50-3(개포동, 동원빌딩)	2016.04.29	강남구청
1649	24109-2016-000066	(주)신후이엔티	표창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34(삼성동)	2016.04.29	강남구청
1650	24109-2016-000005	(주)엘엔티컴퍼니 (前(주)루디아커뮤니케이션)	김도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19, 3층(염창동)	2016.05.02	강서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651	24109-2016-000003	(주)아트인터내셔널	장현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9-20 비동 402호(정동 동양빌딩)	2016.05.02	중구청
1652	24109-2016-000051	(주)에프이엔티 (前(주)포레스트에스)	윤충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96(서초동 와이제이빌딩)	2016.05.03	서초구청
1653	24109-2016-000072	에이프로엔터테인먼트(주) (前(주)아프로엔터테인먼트)	이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2길 7, 4층(삼성동 현빌딩)	2016.05.03	강남구청
1654	24109-2016-000071	(주)그레이스제이	장근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10, 1,2층(2016.06.24)	2016.05.03	강남구청
1655	24109-2016-000001	(주)아프로뮤직	신재풍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14, 2층(증산동)	2016.05.03	은평구청
1656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68호)	마더파더레코드 (MotherFatherRecord)	진문식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25(의정부동)	2016.05.10	경기도 의정부시청
1657	24109-2016-000005	(주)가온콘텐츠미디어	심윤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5, D동 508호(문정동 아이파크)	2016.05.10	송파구청
1658	24109-2016-000014	(주)인플레닛	염정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17, 지하1층(서교동)	2016.05.11	마포구청
1659	24109-2016-000004	(주)아키스트뮤직 (Arkist Music)	노영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56, 604호(신당동 남산정은스카 아파트)	2016.05.05	중구청
1660	24109-2016-000012	(주)호박당쿨	신재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7층 6호(성수동2가, 서울숲에스케이비이타워)	2016.05.12	성동구청
1661	24109-2016-000078	(주)로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조규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길14, 3층(삼성동)	2016.05.17	강남구청
1662	24109-2017-000010	(주)도도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양래, 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3, 504호(성수동1가, 두앤캔 하우스)	2016.05.17	성동구청
1663	24109-2016-000074	(주)반템타이커	오범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30(논현동)	2016.05.17	강남구청
1664	24109-2016-000075	(주)큐로홀딩스	조중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7, 4층(삼성동 동원빌딩)	2016.05.17	강남구청
1665	24109-2016-000076	(주)달콤이앤엠	배병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9, 4층(논현동)	2016.05.17	강남구청
1666	24109-2016-000080	솔플러스프로젝트 (Sol plus project)	이슬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53, 3층(신사동 인륜빌딩)	2016.05.17	강남구청
1667	24109-2016-000077	(주)아이캐스팅	이동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9, B동 302호(논현동, 싸이 디스아이치타워)	2016.05.17	강남구청
1668	24109-2016-000081	(주)아이에이	임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12-2, 305호(삼성동)	2016.05.17	강남구청
1669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71호)	(주)피지50	박대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27, 12층 1206 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2016.05.11	경기도 성남시청
1670	24109-2016-000004 (경기도제172호)	퓨어모델에이전시	임성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1길 23-14, 102호(동산동)	2016.05.17	경기도 고양시청
1671	24109-2016-000082	(주)스타캡202	임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1, 2층(논현동 토목빌딩)	2016.05.17	강남구청
1672	24109-2016-000007	(주)메이플엔터테인먼트	정종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105동 8층 804호(마 곡동, 벚산아파트)	2016.05.17	강서구청
1673	24109-2016-000006	제이워커	박미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1길 30(공향동)	2016.05.17	강서구청
1674	24109-2016-000002	프리시드 엔터테인먼트	김범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60길 49, 3층(목동, 여명어린 아집)	2016.05.19	중랑구청
1675	24109-2016-000026	씨템	정영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5길 21-12, 202호(반포동)	2016.05.20	서초구청
1676	24109-2016-000003	(주)엑터컴퍼니	김광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3가길 20, 501호(신림동, 다운 쉐르빌)	2016.05.23	관악구청
1677	24109-2016-000084	(주)버터플라이미디어	염규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7길 4-5, 3층(논현동 케이엠빌딩)	2016.05.24	강남구청
1678	24109-2016-000018	빅포엔터테인먼트 (주)	백민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7길 11-10, 1층(서교동)	2016.05.27	마포구청
1679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73호)	(주)에스비채널	김중필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08, 4층 408호(당동)	2016.05.25	경기도 군포시청
1680	제2016-03호	(주)휴먼아이엠씨	이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78길 16(범어동)	2016.05.25	대구광역시
1681	24109-2016-000087	(주)케이비에스	조명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1층 160호(역삼동, 혜 천빌딩)	2016.05.27	강남구청
1682	24109-2016-000088	(주)빅피쉬	신용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87 선상 용성1호(압구정동)	2016.05.27	강남구청
1683	24109-2016-000086	코리아모델 (KOMO)	고용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길 8, 2층(논현동)	2016.05.27	강남구청
1684	24109-2016-000019	에이치케이 엔터프로 (HK ENTERPRO)	조경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안길 6, 2층(서교동)	2016.05.27	마포구청
1685	24109-2016-000020	혁앤컴퍼니	이건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41, 지하1층(서교동)	2016.05.27	마포구청
1686	24109-2016-000025	(주)바잉	양상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빙배중앙로 208, 305호(빙배동 삼명빌딩)	2016.05.31	서초구청
1687	24109-2016-000003 (경기도제174호)	(주)비에이엠컴퍼니	김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09번길 45(판교동)	2016.05.27	경기도 성남시청
1688	24109-2016-000004 (경기도제175호)	한류문화산업 (주)	차정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도로 405	2016.05.27	경기도 용인시청
1689	24109-2016-000053	(주)티유엔터테인먼트	전근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55길 126, 501호(반포동 대של빌딩)	2016.06.01	서초구청
1690	24109-2016-000028	제파 엔터테인먼트(구 제파뮤직)	최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77, 3층 301호 (잠원동, 두원빌딩)	2016.06.01	서초구청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691	24109-2016-000090	(주)아이아스컴퍼니	강희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10, 1층 98-1호(역삼동)	2016.06.08	강남구청
1692	24109-2016-000092	(주)에스크모델	김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13, 5층(논현동)	2016.06.08	강남구청
1693	24109-2016-000091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	김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1길 18(신사동)	2016.06.08	강남구청
1694	24109-2016-000089	(주)씨엘엔컴퍼니 (공동대표)	이경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8, 5층(신사동)	2016.06.08	강남구청
1695	24109-2016-000001	신인류 이엔티	임현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09번길 9, 2층(청천동)	2016.06.0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696	24109-2016-000029	(주)지트리크리에이티브	박성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1길 15, 401호	2016.06.08	서초구청
1697	24109-2016-000008	K. H Entertainment	김영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56길 36(화곡동)	2016.06.08	강서구청
1698	24109-2016-000007	(주)더선엔터테인먼트 (THE SUN entertainment, inc.)	김정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나1길 10-3(광장동)	2016.06.09	광진구청
1699	24109-2016-000004 (경기도제176호)	맥스파워 엔터테인먼트	한규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5, C동 930호(정자동 대림이크로텔)	2016.06.07	경기도 성남시청
1700	24109-2016-000097	(주)유엔엘엔터테인먼트	김명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13층 1348호(역삼동 한석타워)	2016.06.13	강남구청
1701	24109-2016-000096	(주)에이트엠	김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33, 2층(삼성동 용진빌딩)	2016.06.13	강남구청
1702	24109-2016-000099	소노르뮤직그룹 (주)	박태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33, 3층(도곡동)	2016.06.13	강남구청
1703	24109-2016-000098	(주)씨앤코이앤에스	채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2층 (청담동 은성빌딩 별관)	2016.06.13	강남구청
1704	24109-2016-000031	(주)골든민이앤엠	박창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가길 33, 4층	2016.06.13	서초구청
1705	24109-2016-000095	(주)폴라리스엠넷	이종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6, 1층(신사동)	2016.06.13	강남구청
1706	24109-2016-000009	(주)지앤미디어	나영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74길 36, 서령빌딩 3층(가양동)	2016.06.13	강서구청
1707	24109-2016-000032	더제이스컴퍼니 (주)	조재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2, 3층(서초동 덕일빌딩)	2016.06.13	서초구청
1708	24109-2016-000033	(주)에스엠에스스타덤	서미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2016.06.15	서초구청
1709	제2016-04호	(주)재미컴퍼니	안신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13(신성동, 대구무역회관)	2016.06.14	대구광역시
1710	24109-2016-000021	(주)하늘이엔티	이홍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23, 2층(서교동)	2016.06.16	마포구청
1711	24109-2016-000022	(주)팔팔홀딩스	김태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28, 10층(상수동, 서강8경)	2016.06.16	마포구청
1712	24109-2016-000105	(주)디엔아이웍스	최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9길 14, B102호동(삼성동)	2016.06.17	강남구청
1713	24109-2016-000104	(주)하비스트컴퍼니	박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25, 807호(신사동, 썬앤빌)	2016.06.17	강남구청
1714	24109-2016-000106	(주)웰타임이앤씨	유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0-7, 2층(신사동)	2016.06.17	강남구청
1715	24109-2016-000102	(주)아이니스타	김인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7길 34, 102호(청담동)	2016.06.17	강남구청
1716	24109-2016-000006	(주)이펙트엔터테인먼트	김민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316호(양평동4가, 두정빌딩)	2016.06.17	영등포구청
1717	24109-2016-000007	플러스 뮤직	황가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4(도림동, 지중)	2016.06.17	영등포구청
1718	24109-2016-000023	(주)러브락	이성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2길 30, 지1층(서교동, 성일빌딩)	2016.06.21	마포구청
1719	24109-2016-000024	피엔피엔터테인먼트	박철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3길 34-12, 1층(합정동)	2016.06.21	마포구청
1720	24109-2016-000025	(주)스타지인	임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903호(상암동, DMC 이안오피스텔)	2016.06.21	마포구청
1721	24109-2016-000109	(주)잉크코퍼레이션	강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13, 2층(논현동)	2016.06.24	강남구청
1722	24109-2016-000110	(주)제이엔제이엔터테인먼트	이경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4길 28, B1층(대치동)	2016.06.24	강남구청
1723	24109-2016-000108	(주)세번걸이엔터테인먼트	이상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8길 46, 3층(청담동, 에이원빌딩)	2016.06.24	강남구청
1724	24109-2016-000034	(주)메킷레인	한원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5길 8-22	2016.06.23	서초구청
1725	24109-2016-000003	바람엔터테인먼트	윤종균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2016.06.24	인천광역시 서구청
1726	24109-2016-000035	디스이즈미디어	이승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17, 5층(서초동)	2016.06.27	서초구청
1727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81호)	와이에스피(YSP)엔터테인먼트	박용선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697번길 26, 402호(금정동, 해피하우스)	2016.06.24	경기도 군포시청
1728	24109-2016-000002 (경기도제182호)	오드엔터테인먼트	부용환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15번길 18-2, 2층(철산동)	2016.06.24	경기도 광명시청
1729	24109-2016-000002	아빱빌 (ABM)	김용덕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8 301(십정동, 3층전체 301호-304호)	2016.06.2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730	24109-2016-000008	(주)제이라인 (공동대표)	오옥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404호(여의도동, 유니온타워)	2016.06.29	영등포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731	24109-2016-000002	THE WIN(더윈모델)	장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다길 84, 203동 1303호	2016.05.09	동대문구청
1732	24109-2016-000007	(주)플레이케이 (공동대표)	조남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비동 2002호(동자동, 트윈시티남산오피스텔)	2016.07.04	용산구청
1733	24109-2016-000111	(주)에스큐엔터테인먼트	이용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27-8(신사동) 블루마운틴빌딩 6층	2016.07.07	강남구청
1734	24109-2016-000113	(주)아이컨텍컴퍼니	길윤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9길 9(논현동)	2016.07.07	강남구청
1735	24109-2016-000112	(주)아트스트컴퍼니	정우성·김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9, 15층(청담동, 미래메디컬허브)	2016.07.07	강남구청
1736	24109-2016-000028	(주)지니스타즈	박성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0길 59-3, 1층(서교동)	2016.07.12	마포구청
1737	24109-2016-000005 (경기도제183호)	(주)요람스타즈	백슬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69, 404동 1506호(도촌동)	2016.06.27	경기도 성남시청
1738	24109-2016-000120	(주)마이더스플래닝에스제이	송미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8길 55 (논현동,호원빌딩3층)	2016.07.14	강남구청
1739	24109-2016-000119	(주)좋은사람컴퍼니	박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6길 8-12, 201호(논현동)	2016.07.14	강남구청
1740	24109-2016-000116	(주)아이오케이컴퍼니	장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8길 19, 5층(논현동, 청호빌딩)	2016.07.14	강남구청
1741	24109-2016-000118	제이더블 엔터테인먼트	전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31, 501호(논현동)	2016.07.14	강남구청
1742	24109-2016-000121	(주)제이파이브엔터테인먼트	안진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4길 11, 비01호(역삼동)	2016.07.14	강남구청
1743	24109-2016-000117	(주)다인엔터테인먼트 (前(주)모션미디어)	김영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14, 1층(논현동, 아이올리빌딩)	2016.07.14	강남구청
1744	24109-2016-000115	(주)문무 (공동대표)	앤더슨 쿠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6길 4-6(청담동)	2016.07.14	강남구청
1745	24109-2016-000009	(주)보드웰이앤엠	안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11, 1101호(여의도동, 메종리브르오피스텔)	2016.07.15	영등포구청
1746	24109-2016-000029	루체엔터테인먼트 (주)	신현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41, 3층(성산동)	2016.07.18	마포구청
1747	24109-2016-000038	Egg Music Company	김아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5길 21, 202호(양재동)	2016.07.19	서초구청
1748	24109-2016-000037	(주)케이스타컴퍼니	김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802호(서초동)	2016.07.19	서초구청
1749	24109-2016-000030	(주)문화인 (공동대표)	김영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47(동교동)	2016.07.20	마포구청
1750	24109-2016-000009	에이엠모델매니지먼트 (주)	김상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6, 지1층(한남동)	2016.07.20	용산구청
1751	24109-2016-000001	(주)글로벌더몰	원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현1로143길 33, 송도센트로드 B동 1504호	2016.07.2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1752	24109-2016-000039	(주)오피스원	홍만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313호(반포동, 코웰빌딩 타호비즈니스센터)	2016.07.20	서초구청
1753	24109-2016-000040	(주)제이엠컴	이정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2, 6층, 7층(서초동, 서송빌딩)	2016.07.21	서초구청
1754	2015-04	오즈뮤직 (前라이브스타오즈뮤직)	지상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 지하1층(부전동, 타임미디어빌딩)	2015.07.22	부산광역시
1755	24109-2016-000125	(주)로터시이앤엠	한승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7길 21, 2층(신사동, 서경빌딩)	2016.07.22	강남구청
1756	24109-2016-000122	더 솔 엔터테인먼트	김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19, 지하1층(신사동, 월담빌딩)	2016.07.22	강남구청
1757	24109-2016-000124	(주)오엔기획 (공동대표) (대표자변경)	오수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58길 12, 3층(신사동)	2016.07.22	강남구청
1758	24109-2016-000123	양반스네이션 (주)	이애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55길 23-3, 5층(신사동)	2016.07.22	강남구청
1759	24109-2016-000006	더 로드 (THE Load entertainment)	이명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나길 11, 201호(사당동)	2016.07.25	동작구청
1760	24109-2016-000001	코라보이앤씨 (주)	권용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림22, B동 2610 (2016.10.28)	2016.07.25	경기도 성남시청
1761	24109-2016-000002	(주)에스앤에스모바일	신호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702호(가산동, 파트너스차)	2016.07.25	금천구청
1762	24109-2016-000031	아이언팝엔터테인먼트	김도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265호(용강동)	2016.07.25	마포구청
1763	24109-2016-000033	(주)에스앤에이컴퍼니	임재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자길 14(합정동)	2016.07.28	마포구청
1764	24109-2017-000002	코리아바나나프로젝트컬처 디벨롭먼트(주)	코우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3, 2층(성수동 2가)	2016.07.28	성동구청
1765	24109-2016-000005 (경기도제186호)	순컴퍼니	권순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97, 2302동 1201호(동백동, 백현마을원리버빌딩)	2016.07.25	경기도 용인시청
1766	제2016-1호	(주)호서이앤씨	염미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101호(안서동)	2016.07.29	충청남도청
1767	24109-2016-000127	제이티지엔터테인먼트 (주)	성진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2길 11, 지2층(역삼동)	2016.08.01	강남구청
1768	24109-2016-000128	(주)바인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권성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3길 4-1(청담동)	2016.08.01	강남구청
1769	24109-2016-000034	(주)스타로엔터테인먼트	이수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1, 3층(성산동)	2016.08.01	마포구청
1770	24109-2016-000035	투이 컴퍼니	이환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5층 1503호(마포동)	2016.08.04	마포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771	24109-2016-000008	(주)싱코페이션	함정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506호 (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2016.04.26	성동구청
1772	24109-2016-000141	박살컴퍼니 (주)	김인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7길 30, 지하1층(삼성동)	2016.05.11	강남구청
1773	24109-2016-000014	우주엔터테인먼트	이승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10길 10-1, 지층(금호동3가)	2016.06.30	성동구청
1774	24109-2016-000036	(주)올림엔터테인먼트	이중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3길 14(성암동)	2016.08.05	마포구청
1775	24109-2016-000037	(주)오앤오엔터테인먼트	조기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5, 5층 501호(동교동)	2016.08.05	마포구청
1776	24109-2016-000015	(주)웰메이드예당	서상욱·김선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67-16, 6층(성수동2가 예당빌딩)	2016.07.12	성동구청
1777	24109-2016-000038	(주)비온디크루	이찬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48, 1106호(상수동 로하스타워)	2016.08.09	마포구청
1778	24109-2016-000042	(주)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이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길 22, 3층(방배동)	2016.08.10	서초구청
1779	24109-2016-000131	(주)파피오모델매니지먼트	이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8, 1층 203호(논현동)	2016.08.10	강남구청
1780	24109-2016-000132	(주)디엘360	손기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 지2층 220-16호(역삼동)	2016.08.10	강남구청
1781	24109-2016-000004	(주)샘마루엔터테인먼트	도민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16길 35, 107동 302호(봉천동 새진아파트)	2016.08.11	관악구청
1782	24109-2016-000138	이를 이엔티	이건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길 9, 103호(역삼동)	2016.08.11	강남구청
1783	24109-2016-000134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주)	안연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2, 102동 1003호(역삼동, 역삼아모레제(리더스뷰))	2016.08.11	강남구청
1784	24109-2016-000135	(주)더파인	김민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25(청담동)	2016.08.11	강남구청
1785	24109-2016-000140	(주)파크워드엔터테인먼트	박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8길 46(논현동)	2016.08.11	강남구청
1786	24109-2016-000139	(주)마일스톤컴퍼니	김형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06, 8층 802호(청담동 재정빌딩)	2016.08.11	강남구청
1787	24109-2016-000137	지원엔터테인먼트 (주)	김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0, 502호(삼성동)	2016.08.11	강남구청
1788	24109-2016-000136	(주)엘엔컴퍼니 (L&Company Co.Ltd)	이중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4, 219-1호(역삼동, 아린빌딩)	2016.08.11	강남구청
1789	24109-2016-000009 (경기도제188호)	(주)에이엠퍼컴퍼니	김종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35 (내곡동)	2016.08.05	경기도 고양시청
1790	24109-2016-000009	차이엔터테인먼트 (주)	이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 601, 2층 (자양동)	2016.08.16	광진구청
1791	24109-2016-000142	(주)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	이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길 22, 3층(논현동 민자빌딩)	2016.08.19	강남구청
1792	24109-2016-000143	샤인엔터테인먼트 (주)	고성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2, 3층(삼성동, 세림타워)	2016.08.19	강남구청
1793	24109-2016-000144	(주)버스커버스커	김정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길 45 지층, 1층(대치동)	2016.08.19	강남구청
1794	24109-2016-000039	(주)스윗소로우 컴퍼니	김성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5길 56, 지하1층(2017.03.09)	2016.08.22	마포구청
1795	24109-2016-000043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연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 B2층(서초동)	2016.08.19	서초구청
1796	24109-2016-000151	(주)스프링에이전시	최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00길 12, 3층(청담동, 우리빌딩 3층)	2016.08.29	강남구청
1797	24109-2016-000150	아이엔지매니지먼트	박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2길 37, 4층(논현동, 담장빌딩)	2016.08.29	강남구청
1798	24109-2016-000149	(주)제이플로 엔터테인먼트	오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7길 5, 지하1층(역삼동, 효재빌딩)	2016.08.29	강남구청
1799	24109-2016-000148	(주)플러그웍스	김재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9(대치동, 선릉역대우아이빌) 815호	2016.08.29	강남구청
1800	24109-2016-000043	(주)웨스트브릿지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원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5길 6, 지2층 B202호(서교동)	2016.08.29	마포구청
1801	24109-2016-000010	빅슬립 (Bigsleep)	김민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13길 9, 1층(효창동)	2016.08.30	용산구청
1802	24109-2016-000169	(주)차이코엔터테인먼트	차종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8길 36, 지하1층(신사동)	2016.08.31	강남구청
1803	24109-2016-000041	(주)제이원파트너스	이창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5층(상암동)	2016.08.31	마포구청
1804	24109-2016-000046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강인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LS-508호 (동교동)	2016.09.02	마포구청
1805	24109-2016-000040	(주)갤러리아인	박정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상암동, DMC 이안상업단지)	2016.09.02	마포구청
1806	24109-2016-000007	메모러블 (MEMORABLE)	조민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가길 8, B1층(사당동)	2016.09.06	동작구청
1807	24109-2016-000002	뮤직컨테이너 (Music Container)	조성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55길 14-1 (역촌동, 2층)	2016.09.08	은평구청
1808	24109-2016-000045	(주)디오션코리아	김두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30, 2층(서초동)	2016.09.12	서초구청
1809	24109-2016-000046	(주)에스뮤직컴퍼니	임형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51-4, 지하층(양재동, 육전빌딩)	2016.09.13	서초구청
1810	24109-2016-000047	(주)잭팟엔터테인먼트	양정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73, 지층 101호(반포동, 리보빌)	2016.09.13	서초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811	2016-01	(주)모조피플레코즈	김승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84, 1동 907호(직전동, 한신아파트)	2016.09.1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1812	24109-2016-000006 (경기도제191호)	튜니뮤직	주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발로49번길 12, 지하1층(아탑동, 지하층)	2016.09.09	경기도 성남시청
1813	24109-2016-000022	엘아이엠엔터테인먼트	임태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5길 8, B1호(성수동2가)	2016.09.19	성동구청
1814	24109-2016-000048	모아이사운드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 135-4(양재동, 두범빌딩B1)	2016.09.20	서초구청
1815	24109-2016-000005	헤드라인 뮤직	최보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가길 10, 104호(남현동)	2016.09.20	관악구청
1816	24109-2016-000159	0316엔터테인먼트	최중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563호(대치동)	2016.09.20	강남구청
1817	24109-2016-000158	(주)제이블엔터테인먼트	안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4길 7, 201호 (신사동)	2016.09.20	강남구청
1818	24109-2016-000154	(주)아이머비비	김보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7, 옥탑층(역삼동, 이로빌딩)	2016.09.20	강남구청
1819	24109-2016-000155	(주)케이제이홀딩스그룹	홍유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13층(역삼동, 유창빌딩)	2016.09.20	강남구청
1820	24109-2016-000156	(주)에이치오엠컴퍼니	고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0층 에이치1077호(역삼동, 동경빌딩)	2016.09.20	강남구청
1821	24109-2016-000011	연필엔터테인먼트	신상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2가길 5-11 A702호 (2016.12.12)	2016.09.20	강서구청
1822	24109-2016-000153	(주)모아엔터테인먼트	손윤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1294-1호(청담동, 청담파크)	2016.09.20	강남구청
1823	24109-2016-000049	(주)메이드인플러스	박명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7, 304호(반포동)	2016.09.21	서초구청
1824	24109-2016-000010 (경기도제190호)	푸른곰팡이	김정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51-17, 106동 1506호 (일산동, 삼성아파트)	2016.09.09	경기도 고양시청
1825	24109-2016-000011 (경기도제192호)	네잎클로버	최성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화로 23(지축동)	2016.09.13	경기도 고양시청
1826	24109-2016-000003	고릴라레이엔터테인먼트	정찬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50길 32, 1층(면목동)	2016.09.26	중랑구청
1827	24109-2016-000018	(주)엠스툼	김정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907호(성수동2가, 서울숏폼타워)	2016.08.22	성동구청
1828	24109-2016-000167	(주)엠엑스엔터테인먼트	안영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4길 16, 6층(신사동)	2016.09.26	강남구청
1829	24109-2016-000165	(주)엘앤씨엔터테인먼트	차경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7길 26, 지하 101호(역삼동)	2016.09.26	강남구청
1830	24109-2016-000164	(주)케이더블유엔터테인먼트	권용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7길 26, 2층(역삼동)	2016.09.26	강남구청
1831	24109-2016-000166	(주)뉴프라이드엔터테인먼트	박유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45(삼성동)	2016.09.26	강남구청
1832	24109-2016-000168	(주)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성지협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9길 9-8, 2층(논현동, wb우백빌딩)	2016.09.27	강남구청
1833	24109-2016-000050	(주)스타100	이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0, 에이동 6층(잠원동, 정원빌딩)	2016.09.27	서초구청
1834	24109-2016-000002	아귀엔터테인먼트 (前제이비케이엔터테인먼트)	주성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길 65-4, 101호(미아동)	2016.09.26	강북구청
1835	24109-2016-000001 (경기도제193호)	빨라기획	권영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8번길 20-14, 5동 411호	2016.09.26	경기도 남양주시청
1836	24109-2016-000007 (경기도제194호)	(주)포브로스엔터테인먼트	신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관교로52번길 21-15, 지하1층 (백현동)	2016.09.26	경기도 성남시청
1837	24109-2016-000003 (경기도제195호)	화이트애플	최환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138번길 12	2016.09.26	경기도 의정부시청
1838	24109-2016-000012 (경기도제196호)	(주)본엔터테인먼트	김종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20, B동 804호 (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 3차)	2016.09.28	경기도 고양시청
1839	24109-2016-000007 (경기도제198호)	JQ엔터테인먼트	한상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 206동 1004호(상현동, 상현마을현대아파트)	2016.09.30	경기도 용인시청
1840	24109-2016-000066	아이테르누스 (i-ternus)	신성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S-559호(동교동)	2016.09.30	마포구청
1841	제2016-5호	(주)브로드	박정일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401호(대명동,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3관 입주실4층)	2016.09.30	대구광역시
1842	24109-2016-000049	(주)원츠메이커	김동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54, 3층(서교동)	2016.10.04	마포구청
1843	24109-2016-000047	(주)이룬컴 (공동대표)	윤남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0-14, 2층 (서교동)	2016.10.04	마포구청
1844	24109-2016-000048	트루바인엔터테인먼트	이금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7, 3층 346-1호(동교동)	2016.10.04	마포구청
1845	24109-2016-000020	한량사	노성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가길 21-17, 3층(성수동2가)	2016.10.05	성동구청
1846	24109-2016-000170	(주)프레임픽처스	김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5길 32-7(논현동)	2016.10.11	강남구청
1847	24109-2016-000052	(주)컴퍼니93	이해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5, 5층 502-2호(잠원동, 반포빌딩)	2016.10.12	서초구청
1848	24109-2017-000044	(주)아티팩토리	오경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09, 8층 B1816호(역삼동)	2016.10.12	강남구청
1849	24109-2016-000010	쥬네 (ZOONE)	장주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7동 46호(여의도동, 시범아파트)	2016.10.13	영등포구청
1850	24109-2016-000055	(주)스마프프러덕션	엄덕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626, 지하1층(양재동, 동신빌딩)	2016.10.18	서초구청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851	24109-2016-000172	(주)매니지먼트선	박종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47, 3층(청담동)	2016.10.18	강남구청
1852	24109-2017-000001	(주)에이컬쳐스	백민기·송지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704호(한강로2가, 한강현대하이엘)	2016.09.26	용산구청
1853	24109-2016-000054	(주)뮤직케이컴퍼니	이민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92, 비01호(상수동, 공강빌딩)	2016.10.19	마포구청
1854	24109-2016-000005	파라독스애비뉴 (ParadoxAvenueEntertainm ent)	서정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17, 2층 일부(필동1가)	2016.10.18	중구청
1855	24109-2016-000005	(주)티나엔터테인먼트	최석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안길 6, 2층(서교동, 우정빌딩)	2016.10.25	서대문구청
1856	24109-2016-000174	(주)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강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3길 12(역삼동)	2016.10.26	강남구청
1857	24109-2016-000056	(주)피에스엔터테인먼트	최민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6층(상암동, 케이지아이타워)	2016.10.25	마포구청
1858	24109-2016-000056	(주)블루몽뜨	박귀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6(반포동, 현우빌딩2층)	2016.10.26	서초구청
1859	24109-2016-000175	(주)지하달	최수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1046호(개포동, 대청타워)	2016.10.26	강남구청
1860	24109-2016-000176	(주)크리에이티브아이	박은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32, 5층(논현동)	2016.10.26	강남구청
1861	24109-2016-000006	(주)일공이팔	고덕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453방(이동, 동산빌딩)	2016.06.03	송파구청
1862	24109-2016-000007	(주)유니엔터테인먼트	김윤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민로 10, 7층 D63호(문정동, 가든파인빌)	2016.07.14	송파구청
1863	24109-2016-000182	(주)씨엔케이엔터테인먼트	김영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7길 56, 지하1층(역삼동)	2016.11.06	강남구청
1864	24109-2016-000180	(주)애프터문	최승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14-8(신사동, 3층)	2016.11.06	강남구청
1865	24109-2016-000179	(주)제오기획	김관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3길 4-1, 5층(청담동)	2016.11.06	강남구청
1866	24109-2016-000181	(주)에스와이에스엔터테인먼트	서영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길 42, 지하1층(역삼동)	2016.11.06	강남구청
1867	24109-2016-000006	(주)제이컴퍼니엔터테인먼트	황오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6, 지2층(생내동, 신스타워빌딩)	2016.11.04	강동구청
1868	24109-2016-000183	에프이스토어 (주)	김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8, 6층(역삼동, 배민빌딩)	2016.11.07	강남구청
1869	24109-2016-000184	(주)와이드에스컴퍼니	신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41, 2층(논현동, 연우빌딩)	2016.11.07	강남구청
1870	24109-2016-000185	에스에이치엔터테인먼트	김상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2-2, 113호(삼성동, 호암빌딩)	2016.11.07	강남구청
1871	24109-2016-000058	(주)비브로스엔터테인먼트	한승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3205호(상암동)	2016.11.01	마포구청
1872	24109-2016-000057	아이티이엠	김민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201호(상암동)	2016.11.01	마포구청
1873	24109-2016-000177	(주)시작이엔티	김광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3길 4-1, 5층(청담동)	2016.11.01	강남구청
1874	24109-2016-000059	필코컴퍼니	조성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9, 9층 비930호(상암동, 상암한화오벨리스크)	2016.11.08	마포구청
1875	24109-2016-000002	제이엔터테인먼트	정중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67-40, 103동 1602호(수택동, 남양중앙집아파트)	2016.11.08	경기도 구리시청
1876	24109-2016-000001	하나엔터테인먼트	김병무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148번길 45, 지층(교문동)	2016.11.08	경기도 구리시청
1877	24109-2016-000003	젤러스엔터테인먼트 (주)	이석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46, 201동 1103호(녹번동, 녹번2차현대아파트)	2016.11.10	은평구청
1878	24109-2016-000008	(주)브릿지 미디어	이윤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43(구갈동, 강남마을 써밋빌 404동 1805호)	2016.11.10	경기도 용인시청
1879	24109-2016-000186	(주)미메시스엔터테인먼트	박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길 8, 3층(논현동, 해성빌딩)	2016.11.15	강남구청
1880	24109-2016-000007	편지엔터테인먼트(주)	변상필	서울특별시 중구 단산로 32, 상가5동 305, 306호(신당동, 남산타워)	2016.11.15	중구청
1881	24109-2016-000059	(주)티에스엔터테인먼트	임태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우래로 6-3, 701호(반포동, 삼공빌딩)	2016.11.17	서초구청
1882	24109-2016-000060	(주)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	오창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4(상수동) 23층	2016.11.17	마포구청
1883	24109-2016-000061	(주)비크엔터테인먼트	김찬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6, 4층(구수동)	2016.11.21	마포구청
1884	24109-2016-000060	(주)더블샷엔터테인먼트	김성엽·정세바스티안·길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길 12(반포동, 청정빌딩)	2016.11.12	서초구청
1885	24109-2017-000013	(주)키엠엔터테인먼트	최용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7, 2층 370호 (방원동, 프리마빌딩)	2016.11.22	마포구청
1886	24109-2016-000014	(주)알앤제이엔터	진희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38, 2층 301호(한남동)	2016.11.22	용산구청
1887	24109-2016-000015	(주)포도어즈엔터테인먼트	이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36길 21, 2층(한남동)	2016.11.22	용산구청
1888	24109-2016-000001	한서형공연기획사	한서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4길 15, 1층 102호(부곡동)	2016.11.18	경기도 안산시청
1889	24109-2016-000061	(주)윈엔터테인먼트	임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63, 지하1층(양재동, 한덕빌딩)	2016.11.23	서초구청
1890	24109-2016-000062	(주)마이더스엔터테인먼트	이수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54, 5층(반포동)	2016.11.24	서초구청

부록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업체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891	24109-2016-000063	메이크앤 (주)	김영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51길10비(서초동 효성해랑터타워)	2016.11.24	서초구청
1892	24109-2016-000003	(주)넥스트레벨엔터테인먼트	석진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10-260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	206.11.25	금천구청
1893	24109-2016-000194	케이소울엔터테인먼트 (주)	곽대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64길 38-2, 지하1층(신사동)	2016.11.24	강남구청
1894	24109-2016-000007	웅석기획	박무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73-18, 301호(길동)	2016.11.28	강동구청
1895	24109-2016-000192	원더기획	오승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8길 12, 3층(신사동)	2016.11.28	강남구청
1896	24109-2016-000190	(주)캐스트밴드	이상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41, 501호(논현동 연우빌딩)	2016.11.28	강남구청
1897	24109-2016-000191	(주)엠트리뮤직	정지영·신재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1763호(삼성동, 덕명빌딩)	2016.11.28	강남구청
1898	24109-2016-000189	(주)엘케이엔터테인먼트	김상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2길 21, 6층(신사동)	2016.11.28	강남구청
1899	24109-2016-000193	케이쥬얼러시미디언코리아 (주)	김상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5, 10층(역삼동)	2016.11.28	강남구청
1900	24109-2016-000013	마이클미디어(MICHAEL MEDIA)	강명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25-53, 25동 53호 (백석동, 동문굿모닝힐)	2016.11.29	경기도 고양시청
1901	24109-2016-000011	(주)제너럴이노베이션	방진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304호(대림동, 신대림자이)	2016.11.28	영등포구청
1902	24109-2016-000062	(주)어반엔터테인먼트	최용익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음마당로 37, 3층(서교동)	2016.12.01	마포구청
1903	24109-2016-000063	(주)어웨이크	김형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길 31, 4층(합정동)	2016.12.01	마포구청
1904	제2016-3호	제이케이(JK)사운드엔터테인먼트 (前JK사운드)	최정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08, 지하1층	2016.12.02	대전광역시
1905	24109-2016-000198	(주)블레싱미디어 (前(주)비엔에스엔터테인먼트)	변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6, 311-27호(역삼동)	2016.12.05	강남구청
1906	24109-2016-000196	(주)바이널 엔터테인먼트	권경미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161길 25, 5층(신사동)	2016.12.05	강남구청
1907	24109-2016-000203	(주)키위미디어그룹	정철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논현동)	2016.12.05	강남구청
1908	24109-2016-000197	(주)이안이엔티	김종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21, 302호(역삼동)	2016.12.05	강남구청
1909	24109-2017-000003	(주)라인엔터테인먼트코리아	황인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4길 29, 2층(화곡동)	2016.12.05	강서구청
1910	24109-2016-000204	(주)에그비인어스타	양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길 12, 3층(역삼동)	2016.12.05	강남구청
1911	24109-2016-000201	(주)비에스컴퍼니 (공동대표)	장두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7층(논현동)	2016.12.05	강남구청
1912	24109-2016-000199	(주)에스티엘엔터테인먼트	이종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8길 20, 지하1층(논현동)	2016.12.05	강남구청
1913	24109-2016-000001	(주)가한엔터테인먼트	이민호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7, 2층(문발동)	2016.12.06	경기도 파주시청
1914	24109-2016-000012	도시 엔터테인먼트	유태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205호(여의도동, 신승빌딩)	2016.12.06	영등포구청
1915	24109-2016-000013	(주)리얼컴퍼니코리아	황인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 14, 1507호(양평동4가, 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	2016.12.06	영등포구청
1916	24109-2016-000014	(주)케이팝스타	정원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76, 2층(대림동, 남영빌딩)	2016.12.06	영등포구청
1917	24109-2016-000064	유피컴퍼니	정성제	서울특별시마포구고로18길31,지하1층(서교동)	2016.12.09	마포구청
1918	24109-2016-000064	(주)탄탄엔터테인먼트	손준형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우로6길26,3층(서초동,지훈빌딩)	2016.12.08	서초구청
1919	24109-2016-000016	미르크리에이티브 (MIR CREATIVE)	김동진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35길46(후암동)	2016.12.09	용산구청
1920	24109-2016-000065	(주)하겐나뮤직	이금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48-39, 지층(잠원동)	2016.12.12	서초구청
1921	24109-2016-000002	아랑엔터테인먼트	정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110	2016.12.09	경기도 남양주시청
1922	24109-2016-000066	(주)루루엔터테인먼트	김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 302호(서초동, 남도빌딩)	2016.12.12	서초구청
1923	24109-2016-000006	(주)디메이커	도재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15층 1511호(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2016.11.28	구로구청
1924	24109-2016-000206	(주)유에이에이엔코	박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24, 5층(논현동, 푸름빌딩)	2016.12.20	강남구청
1925	24109-2016-000017	(주)신엔터테인먼트	히라야마 모토카즈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45길46,101호(한남동)	2016.12.20	용산구청
1926	24109-2016-000205	(주)엠엠오엔터테인먼트	정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35, 지하1층(논현동)	2016.12.20	강남구청
1927	24109-2016-000067	(주)굿라이프크루	이로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8동 2406호(도화동, 마포트라밸리스)	2016.12.26	마포구청
1928	24109-2016-000208	(주)원더윌프렌즈	신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4, 3층(역삼동, 영우빌딩)	2016.12.26	강남구청
1929	24109-2016-000009	(주)울림홀딩스	이중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11층(삼평동)	2016.12.27	경기도 성남시청
1930	2016-03	(주)스톤쉽	석찬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502동 1101호	2016.12.30	부산광역시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no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발급일	관할 지자체
1931	24109-2017-000001	(주)세이호	김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502호대차동 금강타워	2017.01.02	강남구청
1932	24109-2017-000001	(주)케이씨지엔터테인먼트	송대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28, B1(역삼동)	2017.01.02	강남구청
1933	24109-2017-000005	플래쉬엔터테인먼트	박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6길 8, 302호도곡동, 매봉아트원	2017.01.05	강남구청
1934	24109-2017-000006	(주)에이치엘컴퍼니	황인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5, 201호 (청담동, 우노빌딩)	2017.01.05	강남구청
1935	24109-2017-000004	(주)제오비스	정진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4길 15(논현동)	2017.01.05	강남구청
1936	24109-2017-000003	(주)더그루브컴퍼니	이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0, 1층(역삼동)	2017.01.05	강남구청
1937	24109-2017-000001	뮤직라이프	정광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125, 신원아파트 103동 401호 19/3	2017.01.06	경기도 고양시청
1938	24109-2017-000010	(주)더블제이엔티	정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27, 203호(논현동, 새호시티라이프빌딩)	2017.01.06	강남구청
1939	24109-2017-000008	(주)글로벌콘텐츠파	황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11, 3층 331호(삼성동, 명화빌딩)	2017.01.06	강남구청
1940	24109-2017-000001	(주)숨사탕엔터테인먼트 (前(주)사보이픽처스)	조현식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10(충무로1가)	2017.01.06	중구청
1941	24109-2017-000007	(주)디시이즈잇레코즈	백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8길 24, B1층개포동, 채널빌딩	2017.01.06	강남구청
1942	24109-2017-000009	(주)모이엔터테인먼트	최정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6, 지2층 220-7호(역삼동,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7.01.06	강남구청
1943	24109-2017-000067	자니스에이전시 (前자니스모델에이전시)	구상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1, 4층 493호(논현동)	2017.01.06	강남구청
1944	24109-2017-000001	(주)에프에이비엔터테인먼트	유제혁·정재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9길 12, 3층(상수동)	2017.01.06	마포구청
1945	24109-2017-000015	(주)마이컴퍼니	최윤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2, 9층(삼성동, 정석빌딩)	2017.01.13	강남구청
1946	24109-2017-000013	(주)제이아이엔에이치미디어	김경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1길 14, 4층(신사동)	2017.01.13	강남구청
1947	24109-2017-000012	아트코리언	유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78길 27, 302호	2017.01.13	강남구청
1948	24109-2017-000014	(주)럭키컴퍼니	전경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6길 9, 2층(논현동)	2017.01.13	강남구청
1949	24109-2017-000001	(주)해주오엔터테인먼트	오정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13층(서초동, 로얄타워)	2017.01.12	서초구청
1950	24109-2017-000002	(주)투엘스엔터테인먼트	한지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200번길 103-15 (현천동)	2017.01.13	경기도 고양시청
1951	24109-2016-000001	(주)진성에이앤씨	박광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0, 803호(영통동, 거성프라자)	2016.12.06	경기도 수원시청
1952	24109-2016-000023	제이 뉴(J NEW)	조우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28-20, 지하1층(성수동1가)	2016.12.26	성동구청





---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 집필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행 이현우 (산업분석팀 책임연구원)  
허지영 (산업분석팀 주임연구원)

#### 조사기관

연구분석 강운모 (마크로밀엠브레인 상무)  
이은숙 (마크로밀엠브레인 팀장)  
남금호 (마크로밀엠브레인 과장)  
박민정 (마크로밀엠브레인 대리)

#### 자문위원

이경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이성희 (이쓰리엑스퍼트 부사장/통계학 박사)

**발행인** 김 영 준  
**발행일** 2018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520-350)

---

ISBN : 978-89-6514-658-5 (93600)      가격 : 비매품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연구보고서>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

**CREATE  
NEWAVE  
KOCCA**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비매품/무료  
93600  
9 788965 146582  
ISBN 978-89-6514-658-2